

최종보고서

국민소통단 운영

2017 . 12 .



목 차



I. 제안개요

1. 기관현황 및 업무연혁	1
2. 조직 및 인력	2
3. 업무분장 및 인력투입	3

II. 업무수행내용

1. 사업개요	4
2. 사업목적	5
3. 사업추진 일정	5
4. 업무추진 절차	6
5. 업무수행범위와 내용	
1) 국민소통단 구성·유지 및 관리	7
2) 국민소통단 관리위원회 구성	8
3) 국민소통단 운영	
(1) 관리위원회 운영	9
(2) 식의약품 소비자 불만사례 수집 및 분석	12
가.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	18
나. 의약품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	222
다. 화장품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	261
라. 소비자 불만사례 주제별 집중분석	315
(3) 국내외 식의약품 관련 언론 기사 수집 및 분석	380
(4)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406
(5) 소통주제 정보 전달 - 의견수렴 및 피드백	449
(6) 식의약 정책 및 생활밀착형 정보 등 만족도 조사	468
(7) 소비자포럼	471

III. 업무관리 (소요예산 산출내역)	505
-----------------------------	-----

IV. 기타 (설문조사 양식 등)	506
--------------------------	-----

I. 제안개요

1. 기관현황 및 업무연혁

○ 기본사항

회사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 소	서울 중구 명동 11길 20 서울YWCA회관 701호	관할세무서	중부세무서
전화번호	02-774-4050	팩스번호	02-774-4090
사업자번호	106-82-05162	업 종	서비스, 연구용역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 등록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번호 : 제96-1호> ○ 등 록 일 : 2012년 3월 28일		
총 종업원수	14명	매출액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자 본 금	해당 없음		

○ 기관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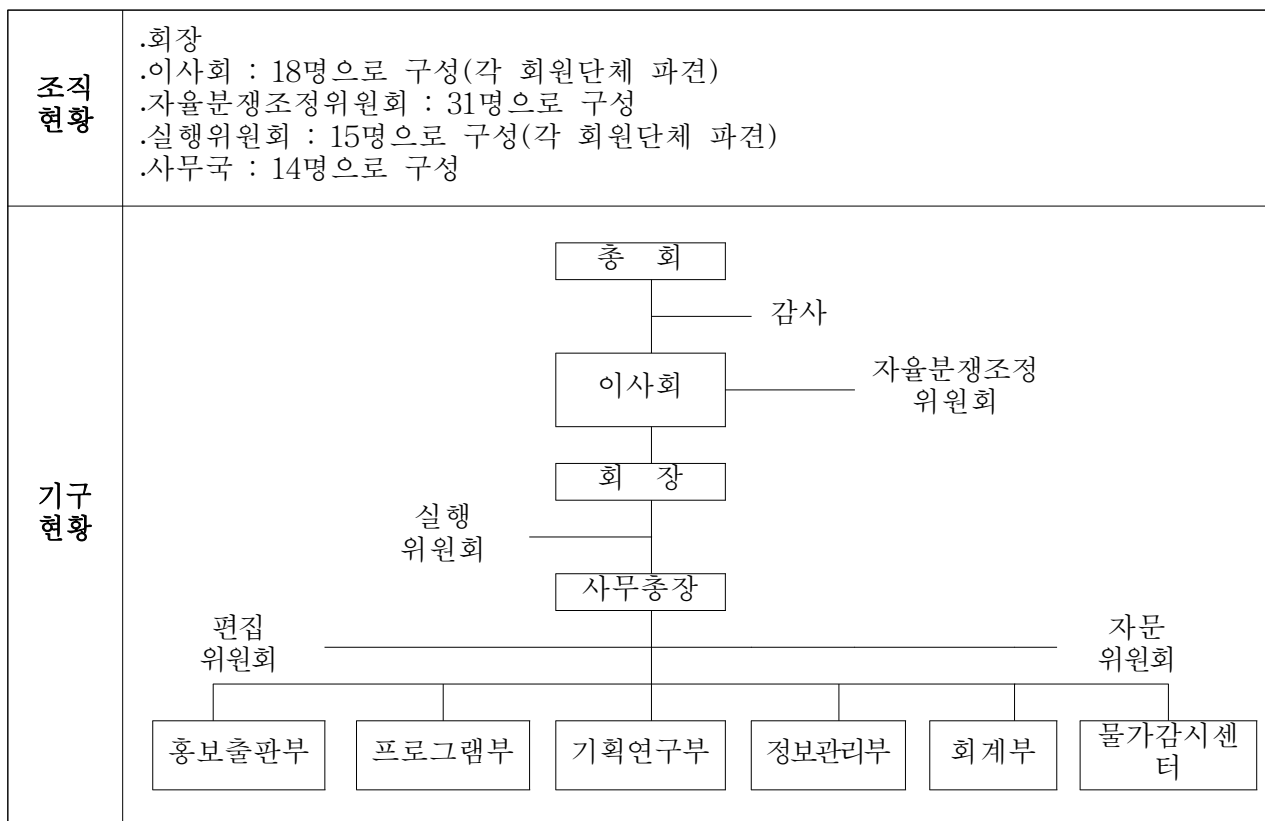
연월일	내 용	비 고
1976. 4. 16.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창립	
1978. 3. 14.	사단법인 설립인가(경제기획원 제36호)	
1978. 9. 25.	월간 「소비자」 창간	
2001. 2. 1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 명칭 변경	
2002. 10.	식품위해정보시스템 사이트 개발	
2003. 12.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발족	
2008. 11. 10.	식품안전 확보방안에 관한 소비자 포럼 개최	
2014. 12	식품 등 안전정보 교류를 위한 소비자 위해소통주제 발굴사업	
2015. 12	국민소통단 운영사업	
2015. 12	전국 식의약 안전교육망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2016. 5. 14	제 15회 식품안전의날 주간 캠페인 실시	
2016. 12	국민소통단 운영사업	
2016. 12	소비자 식의약 교육콘텐츠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위탁사업	
2016. 12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6개지역 이상)	
2017. 2. 22	제 23대 강정화 회장 취임	
2017. 5	제 16회 식품안전의날 공동주관 (캠페인 등 실시)	

2. 조직 및 인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단체명	회장	설립연도	규모		발간물
			지부수(개)	회원수(천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1976	11개 소비자운동단체	11개 단체	월간“소비자”
한국YWCA연합회	이명혜 회장	1922	52개 지부	99	월간“한국YWCA” 정론지 ‘여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회장	1964	20개 지회, 82개 지부, 5,000개 클럽	318	격월간 “여성소비자저널”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1983	본부 및 9개 지부, 2개 지회	55	월간 “소비자리포트”
소비자교육중앙회	주경순 회장	1971	16개 시·도지부, 232개 시·군·구지회	315	월간 “행복한 소비자”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1970	본부 및 3개 지부, 2개 센터	45	-
한국소비자교육원	전성자 원장	1981	6개 지부	85	-
한국YMCA전국연맹	이충재 사무총장	1903	64개 지역	200	연감“한국YMCA”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김병량 (이사장) 이덕승 (상임위원장) 이성환 박인례 이경환 주엘 남수자 박기영 조윤미 (공동대표 7인)	1996	15개 지역연대, 2개 프로그램센터	14	월간, 웹진 “녹색살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1994	12개 지부, 22개 지회	30	-
한국부인회총본부	조태임 회장	1963	17개 시도지부, 247개 지회	1,200	연2회 “한국부인회 소식지”

○ 조직 및 기구 현황



3. 업무분장 및 인력투입

○ 실무급 관리위원회

역할	성명	소속기관	직위
책임연구원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연구원	박지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연구보조원	이경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간사
연구원	김수연	한국소비자연맹	팀장
연구원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
연구원	허혜연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연구원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
연구원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	사무총장
연구원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
연구원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연구원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실장
연구원	이현주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연구원	김선희	한국부인회총본부	사무총장

○ 위원급 관리위원회

성명	소속기관	직위
이향기	소협 식품안전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공동위원장, 부회장
황선옥	소협 식품안전위원회, 소비자시민모임	공동위원장, 상임이사
이주영	녹색소비자연대 녹색건강연대	본부장
김태민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강재현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교수
김용휘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박기환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II. 업무수행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국민소통단 운영

☐ 사업배경

○ 국민-정부간 인식격차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방적 정보전달 방식의 소통방법 개선 필요

○ 식의약 안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수렴하고 피드백하는 온라인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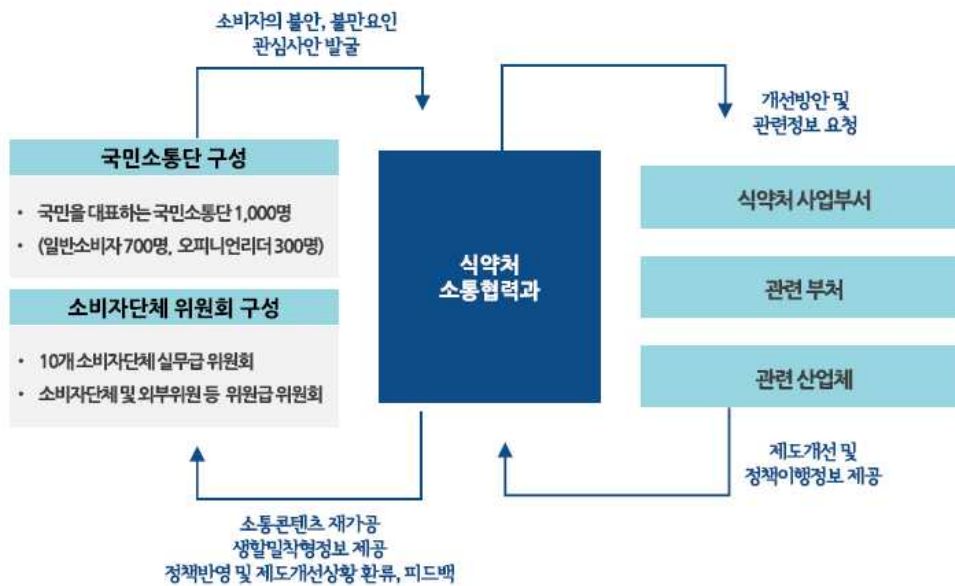
☐ 계약기간 : 2017.02.28.~2017.12.26

☐ 계약금액 : 78,000,000원

2. 사업목적

- 지역·성별·연령 등 계층을 대표하는 대국민 소통채널을 구성하여 국민 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상시창구 운영
- 식의약 안전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등 피드백

[그림] 운영체계



3. 사업추진일정

내용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약체결												
착수보고회												
국민소통단 구성												
소비자 불만사례 수집(월별)												
실무급 관리위원회 운영(6회)												
위원급 관리위원회 운영(4회)												
국민소통단 설문조사(5회)												
오피니언리더 의견수렴(1회)												
소비자포럼(4회)												
만족도조사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최종보고서 작성												

4. 업무추진절차

절 차	내 용
1 단 계 국민소통단 구성·유지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의약 이슈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비자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소통단 구성 • 국민소통단 1,000명 구성 (일반소비자 700명, 오피니언리더 300명)
2 단 계 국민소통단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회원단체의 실무자로 실무급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수집 및 분석된 사례 논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위원급 관리위원회 및 소통협력과로 구성하여 식의약품 안전이슈에 대한 심층 논의
3 단 계 식품,의약품,화장품 소비자 불만사례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식의약품, 화장품 관련 불만사례 수집 • 상담리코딩에 따른 정량적 분석 • 유형별로 월별 상담의 추이 분석
4 단 계 국내외 식품,의약품,화장품 관련 언론 기사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식의약품 관련 언론동향 수집·분석 • 최근 발생하는 식의약품 이슈에 대한 의견 교류
5 단 계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의약품, 화장품 소비자 불만사례, 소비실태, 정책선호도, 인지도 주요 이슈 등을 주제로 소비자의견 수렴 • 국민소통단 1,000명(일반소비자 700명, 오피니언리더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6 단 계 오피니언리더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피니언 리더 활용하여 다각화·전문화된 의견수렴 • 오피니언리더를 활용하여 기획감시 아이템 발굴 등
7 단 계 소비자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위원회 및 국민소통단 설문조사를 통해 발굴된 식의약품, 화장품 관련 주제를 선정 •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 패널 토의
8 단 계 소통주제 정보 전달 및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통단을 통해 수렴된 소비자 의견과 니즈를 반영하여 소비자 필요정보 확산·전파 • 공유된 정보에 대한 국민소통단의 만족도조사 실시

5. 업무수행범위와 내용

5.1. 국민소통단 구성·유지 및 관리

- 식의약품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 불만 및 제안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기 위한 국민소통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소통단을 구성함. 국민소통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국민소통단 모집부터 식품·의약품 관련된 소통단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사전고지하며 참여 희망자를 국민소통단으로 구성함.
- 국민소통단 구성은 일반소비자 700명과 오피니언 리더 300명으로 구성함. 일반소비자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700명으로 계층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균등 배분을 하여 구성하고, 오피니언 리더는 소비자활동가로 소비자단체를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300명으로 구성함. 구성후 국민소통단 역할과 의의에 대해 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국민소통단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세우도록 노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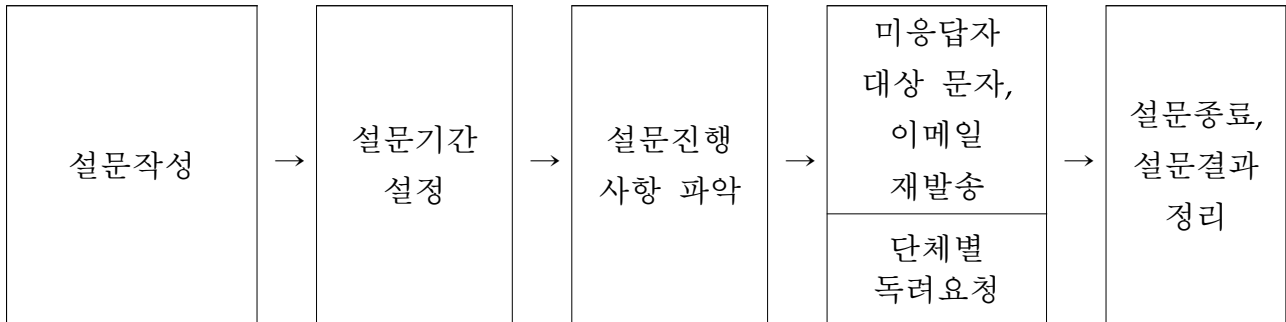
○ 국민소통단 구성 기준표 (일반소비자, 오피니언리더)

구분	오피니언리더	일반소비자	총계	남자						여자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계	300	700	1,000	500	88	99	109	104	100	500	84	96	111	106	103
강원	9	20	29	15	3	2	3	3	4	14	2	2	3	3	4
경기	73	173	246	124	22	26	29	26	21	122	21	25	30	25	21
경남	20	43	63	32	5	6	7	7	7	31	5	6	7	6	7
경북	16	35	51	25	4	4	5	6	6	26	4	4	5	6	7
광주	9	19	28	14	3	3	3	3	2	14	2	3	3	3	3
대구	15	32	47	23	4	4	5	5	5	24	4	4	6	6	4
대전	9	21	30	15	3	3	3	3	3	15	3	3	3	3	3
부산	21	48	69	34	6	6	7	7	8	35	6	6	7	8	8
서울	60	142	202	99	18	21	21	19	20	103	19	21	22	21	20
세종	0	4	4	2	0	1	1	0	0	2	0	1	1	0	0
울산	7	17	24	13	2	3	3	3	2	11	2	2	2	3	2
인천	17	39	56	28	5	6	6	6	5	28	5	5	7	6	5
전남	11	25	36	19	3	3	4	4	5	17	2	3	3	4	5
전북	11	26	37	18	3	3	4	4	4	19	3	3	4	4	5
제주	0	10	10	5	1	1	1	1	1	5	1	1	1	1	1
충남	12	27	39	19	3	4	4	4	4	20	3	4	4	4	5
충북	10	19	29	15	3	3	3	3	3	14	2	3	3	3	3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690여개 지부지회) 소비자운동가로 각 지역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오피니언리더 300명 구성

- 국민소통단 설문조사는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방법을 실시하여 설문 응답률을 높이도록 하며 미응답자에 대한 관리를 진행함.

○ 설문조사 과정



5.2. 국민소통단 관리위원회 구성

○ 실무급 관리위원회 구성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에서 식의약품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연구원으로 구성하여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상담사례 및 언론 이슈를 협력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함.

역할	성명	소속기관	직위
책임연구원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연구원	박지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연구보조원	이경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간사
연구원	김수연	한국소비자연맹	팀장
연구원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
연구원	허혜연	녹색소비자연대	국장
연구원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
연구원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	사무총장
연구원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
연구원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연구원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실장
연구원	이현주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연구원	김선희	한국부인회총본부	사무총장

○ 위원급 관리위원회 구성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품안전위원회 위원 및 소통협력과 담당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식의약품 안전 이슈에 심층 논의를 진행함

성명	소속기관	직위
이향기	소협 식품안전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공동위원장, 부회장
황선옥	소협 식품안전위원회, 소비자시민모임	공동위원장, 상임이사
이주영	녹색소비자연대 녹색건강연대	본부장
김태민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강재현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교수
김용휘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박기환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5.3. 국민소통단 운영

5.3.1. 관리위원회 운영

○ 실무급 관리위원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에서 식의약품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연구원으로 구성하여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상담사례 및 언론 이슈를 협력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함.
- 실무급 회의를 통해 소비자상담센터 182개 회선을 통해 수집된 식의약품 상담사례를 분석과 언론자료를 통해 이슈를 발굴함.
- 소통협력과 담당자가 참석하여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견이 식품안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회차	일정	논의내용
1회	2017년 2월 24일(금) 오후3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국민소통단 운영 사업 소개 및 진행내용 논의 * 2016년 식품상담 동향 <참고> * 1월 식품·의약품·화장품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 * 국내외 식품·의약품·화장품 언론 이슈
2회	2017년 4월 27일(목) 오후4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3월 식의약품불만사례 * 국내외 식품·의약품·화장품 언론 이슈 등
3회	2017년 6월 22일(목) 오후4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5월 식의약품불만사례 등 * 국내외 식·의약품·화장품 언론 이슈 * 집중분석(1) - 온라인 판매식품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4회	2017년 8월 29일(화) 오후4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월 식품·의약품·화장품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 * 국내외 식·의약품·화장품 언론 이슈 * 집중분석(2) 유란류(계란, 메추리알) 소비자불만사례(여성소비자연합, 한국부인회총본부) * 집중분석(3) 식품접객업소 식품 상담사례(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 국민소통단 설문조사지 의견수렴
5회	2017년 10월 27일(금) 오후1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월 식품·의약품·화장품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 * 국내외 식·의약품·화장품 언론 이슈 * 집중분석(4) 다이어트식품 소비자불만사례 분석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6회	2017년 11월 29일(목) 오후4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식품·의약품·화장품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 * 국내외 식·의약품·화장품 언론 이슈 * 집중분석(5) 표시/광고 불만상단 관련 실태 및 개선(안)제안(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 위원급 관리위원회 운영

- 위원급 회의는 실무급 회의 운영을 통해 발굴된 이슈 중 심층분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요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함.
- 위원급 회의는 국민소통단 운영과 소통주제 선정 및 소비자의견이 식의약 안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함. (격월로 진행)

회차	일정	논의내용
1회	2017년 5월 18일(목) 오후 4시	소비자포럼(1차),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보고, 2차 소비자 포럼 및 설문조사 주제 논의 등
2회	2017년 7월 21일(금) 오후 2시	소비자포럼(2차),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결과 보고, 햄버거 병 성명서 보고 및 3차 소비자포럼 논의, 최근 이슈 논의 등
3회	2017년 9월 28일(목) 오전 8시	소비자포럼(3차), 국민소통단 설문조사(바이오시밀러), 토론회(살충제 검출 달걀) 결과보고, 4차 소비자포럼 논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04241, 엄용수 의원 등) 재검토, 생리대 등 최근 이슈 논의 등
4회	2017년 11월 10일(금) 오전 10시	소비자포럼(4차)계획,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등 보고, 생산·제조단계 HACCP 현장방문 논의, 국민소통단 설문조사(안), 식의약 소비자니즈보고서(3차) 논의 등
5회	2017년 12월 06일(수) 오전 10시	생산·제조단계 HACCP 현장방문 관련 사전논의, 1월 중순 일정 추진 등

○ Weekly News 편집위원회 운영

- 식의약품 불안요인, 식의약품 관련 주간이슈 중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정보전달이 이루어지고, 보다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온라인 위주로 진행함.



[권슈머핫라인 예시]

5.3.2. 식의약품 소비자 불만사례 수집 및 분석

- 소비자단체에서 접수되는 1372 통합소비자 상담망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접수된 전국의 식의약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를 수집함.
- 매월 수집된 식품, 화장품, 의약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를 분석하여 월별 품목에 따른 소비자 상담사례 및 분석의 특징사항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사례를 분류하여 분석함.
- 소비자 불만사례에 대해 전월 대비 증가 및 감소 품목을 알아보고, 월별 상담건수를 비교하여 식의약품 관련 상담 추이 등을 분석함.
- 불만사례는 품목별, 지역별, 구입 장소별, 판매방법별, 상담유형별, 처리결과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 소비자 불만사례 유형은 이물, 이상증세, 유통기한, 변질, 검사요청, 품질불량, 표시광고, 규격 등으로 세분화함.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수집 분석 항목>

(1) 이물질

(가) 벌레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식별하기에 파리, 애벌레 등의 벌레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나) 머리카락/털/뼈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 털, 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다) 다칠 수 있음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는 과정에서 금속, 유리, 쇠, 철, 플라스틱 등 다칠 수 있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라) 다치지 않는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는 과정에서 비닐, 고무 등 다치지 않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마) 침전물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는 과정에서 특히 음료류에 액체 이외의 고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상담을 요청한 경우

(2) 이상증세

(가) 설사/복통/구토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한 후 식품으로 인해 설사, 복통, 구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나) 발열/두통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한 후 식품으로 인해 발열 또는 두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다) 치아손상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는 도중이나 섭취한 후 식품으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거나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라) 두드러기/알레르기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한 후 식품으로 인해 두드러기 또는 알레르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마) 식중독

- 소비자 2명 이상이 같은 곳에서 음식을 섭취한 후 구역, 구토, 설사, 복통, 발열 증상을 겪은 경우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

(3) 유통기한

(가) 유통기한 경과

- 식품이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여 섭취하지 못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불만으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

(나)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할 시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으로 인해 불만이 발생한 경우와 유통기한이 두 번 표시되어 있어 상담을 요청한 경우

(4) 변질

(가) 상함/부패

-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식품이 상하거나 부패의 증상이 나타나 섭취할 수 없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나) 곰팡이

-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하였을 때 검거나 푸른색을 띄어 소비자가 식별하기에 곰팡이로 보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다) 악취

-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하였을 때 불쾌한 냄새가 있어 식품 섭취에 불만이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5) 검사요청

(가) 성분검사

- 소비자가 식품에 포함된 성분의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나) 원산지확인

-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표기된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다) 진품확인

-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제품이 틀림없이 진품인지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라) 위생점검

-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식품 안전성에 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생점검을 의뢰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6) 품질불량

(가) 품질불량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식품의 질이 불량한 상태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

(나) 용기파손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금속용기, 유리병, 플라스틱병, 통, 접시, 봉지(파우치) 등의 용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다) 포장불량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식품포장의 재질이 불량한 상태로 포장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거나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라) 용기에 의한 손상

- 소비자가 식품포장 용기에 의해 베인 상처 등 신체적인 손상을 입어 상담을 요청한 경우

(7) 표시광고

(가) 과대광고

- 소비자가 식품 구입 시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나) 가격미표시

- 소비자가 식품 구입 시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한 경우

(다) 성분표시

- 소비자가 식품 구입 시 표시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성분에 대해 불만이 있어 상담을

요청한 경우

(8) 기타

(가) 용량미달

- 소비자가 식품 구입 시 제품 포장 또는 용량표기 사항과는 다르게 미달되어 불만을 상담 요청한 경우

(나) 식품정보제공

- 소비자가 식품 구입 시 발생하는 전반적인 식품과 관련한 불만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청약철회 방법 등에 상담을 요청한 경우

(다) 배송문제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면서 배송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라) 가격불만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면서 가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표〉 식품 소비자불만사례 조사표 1

항목	분류				
지역	- 서울 - 경북 - 충북 - 인천	- 경기 - 전남 - 광주 - 부산	- 강원 - 전북 - 대구 - 울산	- 경남 - 충남 - 대전 - 제주	
구입장소	- 슈퍼마켓 - 재래시장	- 대형마트 - 소형매장	- 편의점 - 음식점	- 백화점 - 무점포	- 해외
판매방법	- 직접구입 - 전화·통신판매	- 방문판매 - 전자상거래	- 다단계판매 - TV홈쇼핑		

〈표〉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조사표 2

항목	분류			
상담이유	- 교환 - 해지 - 사과요구	- 반품 - 치료비요구 - 부당행위 시정	- 환불 - 손해배상청구 - 정보요청	- 기타
처리결과	- 교환 - 해지 - 사과요구	- 반품 - 치료비배상 - 부당행위시정	- 환불 - 손해배상청구 - 상담·정보제공	

	드레싱류	- 드레싱류
	김치류	- 김치류
	젓갈류	- 젓갈류(새우젓 등)
	절임식품	- 절임식품(장아찌 등) - 절임배추
	조림식품	- 조림식품(통조림, 병조림 등)
	주류	- 소주 - 맥주 - 포도주 - 탁약주(막걸리 등) -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건포류	- 건포류(복어포 등)
	건강식품	- 건강기능식품 - 기타(건강식품)
	즉석식품	- 즉석식품(햇반, 3분카레 등)
농수축산물	육류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기타육류
	유란류	- 알류(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등)
	곡류	- 곡류
	채소류	- 채소류
	과일류	- 과일류
	생선류	- 생선류
	어패류	- 어패류
	해조류	- 해조류
	식용종자·버섯류	- 식용종자·버섯류
	나물류	- 나물류
	약용작물류	- 약용작물류
	견과류	- 견과류
	고춧가루	- 고춧가루
음식점	음식점	- 한식 - 양식 - 일식 - 중식 - 분식 - 노점상 - 패스트푸드점 - 뷔페

가.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

-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식품관련 상담은 총 12,118건으로 8월과 9월이 각각 2,25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월(1,910건), 6월(1,833건) 순으로 불만사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불만사례 유형 중 기타에 해당하는 식품 및 관련 정보제공, 배송문제, 가격불만, 철회에 대한 상담을 제외하고 총 12,118건에 대한 세부분석을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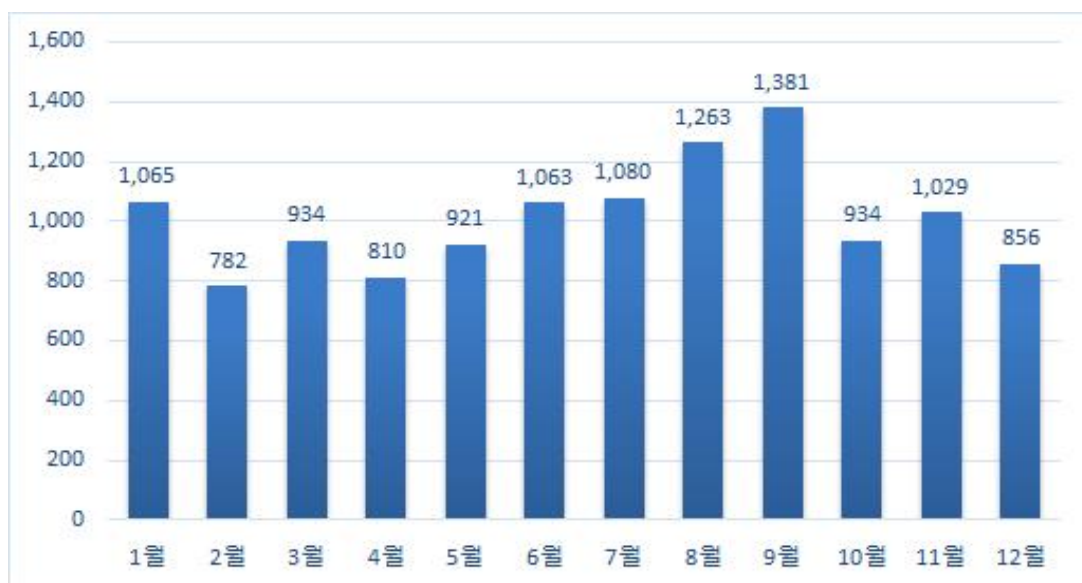
[표] 소비자 불만사례 월별 분석

(단위:건)

단체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녹색소비자연대	194	207	204	144	173	228	227	256	234	191	197	163	2,418
소비자공익네트워크	148	130	124	140	138	147	177	173	189	147	138	134	1,785
소비자교육중앙회	312	41	294	237	281	323	314	402	370	248	235	262	3,319
소비자시민모임	145	129	169	111	123	142	131	207	227	117	182	139	1,822
한국YMCA전국연맹	87	73	99	81	71	100	84	92	95	64	90	72	1,008
한국YWCA연합회	63	85	107	83	63	74	87	90	77	74	71	64	938
한국부인회총본부	108	96	106	70	102	111	103	141	129	109	122	88	1,285
한국소비자교육원	100	76	117	85	91	91	95	124	113	79	108	82	1,161
한국소비자연맹	228	187	246	106	151	143	132	191	204	139	142	127	1,996
한국여성소비자연합	415	372	444	385	455	474	480	579	617	367	473	380	5,441
총합계	1,800	1,396	1,910	1,442	1,648	1,833	1,830	2,255	2,255	1,535	1,758	1,511	21,173
기타제외 건수	1,065	782	934	810	921	1,063	1,080	1,263	1,381	934	1,029	856	12,118
전년 비교 (기타제외건수)	256	-164	44	-14	30	-27	93	78	208	-161	9	-149	203

[그림] 소비자 식품 불만사례 월별 분석(2017)

(단위:건)



- 2017년 1월~12월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가 접수된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가 3,435건(2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울 2744건, 부산 806건, 인천 625건, 경남 620건 순으로 나타남.

[표] 소비자 불만사례 지역별 건수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서울	231	21.7	165	21.1	184	19.7	185	22.8	213	23.1	267	25.1
경기	284	26.7	229	29.3	300	32.1	211	26	254	27.6	291	27.4
인천	62	5.8	50	6.4	45	4.8	36	4.4	47	5.1	51	4.8
대전	24	2.3	10	1.3	27	2.9	17	2.1	26	2.8	28	2.6
대구	41	3.8	41	5.2	40	4.3	42	5.2	38	4.1	52	4.9
광주	24	2.3	15	1.9	23	2.5	24	3	23	2.5	26	2.4
부산	84	7.9	53	6.8	71	7.6	67	8.3	63	6.8	63	5.9
울산	22	2.1	12	1.5	10	1.1	15	1.9	22	2.4	20	1.9
경남	58	5.4	38	4.9	49	5.2	40	4.9	50	5.4	54	5.1
경북	49	4.6	33	4.2	33	3.5	37	4.6	35	3.8	41	3.9
충남	45	4.2	26	3.3	31	3.3	30	3.7	41	4.5	44	4.1
충북	38	3.6	22	2.8	30	3.2	21	2.6	23	2.5	30	2.8
전남	21	2	16	2	25	2.7	16	2	13	1.4	18	1.7
전북	33	3.1	34	4.3	27	2.9	28	3.5	35	3.8	27	2.5
강원	27	2.5	19	2.4	22	2.4	29	3.6	23	2.5	34	3.2
제주	10	0.9	13	1.7	9	1	4	0.5	7	0.8	10	0.9
세종	5	0.5	-	-	4	0.4	3	0.4	4	0.4	1	0.1
해외	7	0.7	6	0.8	4	0.4	5	0.6	4	0.4	6	0.6
합계	1,065		782		934		810		921		1,063	

지역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서울	250	23.1	261	20.7	331	24	230	24.6	236	22.9	191	22.3	2,744	22.6
경기	301	27.9	372	29.5	395	28.6	256	27.4	288	28.0	254	29.7	3,435	28.3
인천	74	6.9	70	5.5	66	4.8	40	4.3	47	4.6	37	4.3	625	5.2
대전	29	2.7	40	3.2	40	2.9	19	2	25	2.4	26	3.0	311	2.6
대구	48	4.4	77	6.1	53	3.8	43	4.6	48	4.7	26	3.0	549	4.5
광주	26	2.4	54	4.3	35	2.5	27	2.9	38	3.7	32	3.7	347	2.9
부산	55	5.1	81	6.4	97	7	52	5.6	63	6.1	57	6.7	806	6.7
울산	21	1.9	20	1.6	22	1.6	24	2.6	19	1.8	15	1.8	222	1.8
경남	59	5.5	57	4.5	79	5.7	41	4.4	52	5.1	43	5.0	620	5.1
경북	47	4.4	44	3.5	48	3.5	33	3.5	33	3.2	28	3.3	461	3.8
충남	39	3.6	52	4.1	44	3.2	36	3.9	45	4.4	32	3.7	465	3.8
충북	26	2.4	26	2.1	30	2.2	22	2.4	29	2.8	23	2.7	320	2.6
전남	27	2.5	24	1.9	37	2.7	35	3.7	29	2.8	20	2.3	281	2.3
전북	39	3.6	33	2.6	56	4.1	33	3.5	30	2.9	28	3.3	403	3.3
강원	23	2.1	22	1.7	29	2.1	29	3.1	19	1.8	20	2.3	296	2.4
제주	9	0.8	18	1.4	11	0.8	8	0.9	11	1.1	7	0.8	117	1.0
세종	1	0.1	11	0.9	2	0.1	3	0.3	2	0.2	7	0.8	43	0.4
해외	6	0.6	1	0.1	6	0.4	3	0.3	15	1.5	10	1.2	73	0.6
합계	1,080		1,263		1,381		934		1,029		856		12,118	100.0

-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의 구입 장소를 살펴보면, 무점포가 4,706건(3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소형매장 2,062건, 슈퍼마켓 1,623건, 대형마트 1,608건, 음식점 679건 순으로 나타남.

[표] 소비자 불만사례 구입장소 별 건수

구입장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슈퍼마켓	95	8.9	95	12.1	125	13.4	98	12.1	120	13	141	13.3
대형마트	107	10	96	12.3	121	13	124	15.3	117	12.7	134	12.6
편의점	42	3.9	21	2.7	36	3.9	40	4.9	43	4.7	51	4.8
백화점	9	0.8	7	0.9	5	0.5	5	0.6	5	0.5	10	0.9
재래시장	45	4.2	42	5.4	31	3.3	26	3.2	21	2.3	50	4.7
소형매장	166	15.6	148	18.9	159	17	127	15.7	152	16.5	158	14.9
음식점	71	6.7	50	6.4	50	5.4	55	6.8	65	7.1	68	6.4
무점포	473	44.4	289	37	381	40.8	321	39.6	373	40.5	428	40.3
해외	-	-	-	-	-	-	-	-	-	-	-	-
알수없음	57	5.4	34	4.3	26	2.8	14	1.7	25	2.7	23	2.2
총합계	1,065		782		934		810		921		1,063	

구입장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슈퍼마켓	164	15.2	208	16.5	175	12.7	138	14.8	142	13.8	122	14.3	1,623	13.4
대형마트	164	15.2	219	17.3	196	14.2	119	12.7	123	12.0	88	10.3	1,608	13.3
편의점	68	6.3	60	4.8	67	4.9	40	4.3	51	5.0	38	4.4	557	4.6
백화점	7	0.6	10	0.8	8	0.6	5	0.5	6	0.6	8	0.9	85	0.7
재래시장	37	3.4	44	3.5	78	5.6	44	4.7	43	4.2	33	3.9	494	4.1
소형매장	163	15.1	203	16.1	263	19	158	16.9	198	19.2	167	19.5	2,062	17.0
음식점	64	5.9	62	4.9	58	4.2	31	3.3	50	4.9	55	6.4	679	5.6
무점포	396	36.7	430	34	513	37.1	374	40	399	38.8	329	38.4	4,706	38.8
해외	1	0.1	-	-	-	-	-	-	-	-	-	-	1	0.0
알수없음	16	1.5	27	2.1	23	1.7	25	2.7	17	1.7	16	1.9	303	2.5
총합계	1,080		1,263		1,381		934		1,029		856		12,118	

-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의 판매방법을 살펴보면, 직접구입이 7,713건(6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전자상거래 2,221건, TV홈쇼핑 900건, 방문판매 668건, 전화·통신판매 4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소비자 불만사례 판매방법별 건수

판매방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직접구입	611	57.4	487	62.3	579	62	520	64.2	571	62	689	64.8
방문판매	66	6.2	36	4.6	56	6	47	5.8	76	8.3	64	6
다단계판매	2	0.2	4	0.5	5	0.5	1	0.1	3	0.3	2	0.2
전화통신판매	76	7.1	32	4.1	22	2.4	31	3.8	22	2.4	32	3
전자상거래	172	16.2	146	18.7	182	19.5	135	16.7	168	18.2	184	17.3
TV홈쇼핑	97	9.1	55	7	79	8.5	72	8.9	69	7.5	84	7.9
기타	1	0.1	-	-	-	-	-	-	-	-	2	0.2
알수없음	40	3.8	22	2.8	11	1.2	4	0.5	12	1.3	6	0.6
총합계	1,065		782		934		810		921		1063	

판매방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직접구입	728	67.4	856	67.8	914	66.2	574	61.5	660	64.1	524	61.2	7,713	63.6
방문판매	48	4.4	57	4.5	67	4.9	62	6.6	42	4.1	47	5.5	668	5.5
다단계판매	3	0.3	10	0.8	6	0.4	4	0.4	2	0.2	2	0.2	44	0.4
전화통신판매	22	2	29	2.3	26	1.9	34	3.6	50	4.9	40	4.7	416	3.4
전자상거래	200	18.5	204	16.2	263	19	194	20.8	211	20.5	162	18.9	2,221	18.3
TV홈쇼핑	69	6.4	95	7.5	95	6.9	58	6.2	58	5.6	69	8.1	900	7.4
기타	-	-	-	-	-	-	-	-	-	-	-	-	3	0.0
알수없음	10	0.9	12	1	10	0.7	8	0.9	6	0.6	12	1.4	153	1.3
총합계	1080		1263		1381		934		1,029		856		12,118	

-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의 상담이유를 살펴보면, 부당행위시정이 3,404건(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정보요청 3,358건, 환불 1,712건, 손해배상청구 1,57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소비자 불만사례 상담이유별 건수(중복응답)

상담이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교환	32	2.7	21	2.5	33	3.4	31	3.5	13	1.3	15	1.3
반품	143	12.1	58	7	81	8.2	75	8.6	95	9.7	51	4.3
환불	153	12.9	110	13.2	137	14	124	14.1	130	13.3	122	10.4
해지	27	2.3	10	1.2	12	1.2	20	2.3	19	1.9	28	2.4
치료비요구	89	7.5	96	11.6	80	8.1	73	8.3	97	9.9	92	7.8
손해배상청구	161	13.6	122	14.7	138	14.1	84	9.6	105	10.7	133	11.3
사과요구	20	1.7	11	1.3	8	0.8	21	2.4	9	0.9	12	1
부당행위시정	262	22.1	228	27.4	228	23.2	240	27.4	282	28.8	302	25.7
정보요청	288	24.3	168	20.2	255	26	203	23.1	216	22	378	32.2
기타	9	0.8	7	0.8	10	1	6	0.7	14	1.4	42	3.6
총합계	1,184		831		982		877		980		1,175	

상담이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교환	36	3.1	37	2.7	61	4.1	29	3	38	3.6	37	4.2	383	3.0
반품	78	6.7	86	6.2	105	7.1	66	6.8	59	5.5	50	5.7	947	7.3
환불	161	13.8	168	12.1	187	12.7	166	17.1	136	12.7	118	13.4	1,712	13.2
해지	33	2.8	34	2.4	17	1.2	24	2.5	26	2.4	17	1.9	267	2.1
치료비요구	79	6.8	102	7.3	105	7.1	46	4.7	87	8.2	47	5.3	993	7.6
손해배상청구	186	15.9	167	12	136	9.2	111	11.4	132	12.4	98	11.1	1,573	12.1
사과요구	17	1.5	19	1.4	10	0.7	8	0.8	7	0.7	10	1.1	152	1.2
부당행위시정	317	27.2	334	24	414	28.1	250	25.7	314	29.4	233	26.4	3,404	26.2
정보요청	254	21.8	399	28.7	429	29.1	252	25.9	252	23.6	264	29.9	3,358	25.9
기타	6	0.5	44	3.2	9	0.6	21	2.2	16	1.5	8	0.9	192	1.5
총합계	1,167		1,390		1,473		973		1,067		882		12,981	100.0

-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정보제공이 10,882건(89.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환불 585건, 부당행위시정 300건, 교환 1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소비자 불만사례 처리결과별 건수(중복응답)

처리결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교환	12	1.1	9	1.1	5	0.5	14	1.7	12	1.3	13	1.2
반품	5	0.5	1	0.1	1	0.1	-	-	2	0.2	-	-
환불	39	3.7	41	5.2	51	5.5	33	4.1	48	5.2	58	5.4
해지	3	0.3	13	1.7	5	0.5	8	1.0	6	0.7	7	0.7
치료비배상	3	0.3	10	1.3	5	0.5	3	0.4	1	0.1	5	0.5
손해배상청구	7	0.7	4	0.5	7	0.7	3	0.4	4	0.4	10	0.9
사과요구	1	0.1	-	-	-	-	-	-	-	-	2	0.2
부당행위 시정	116	10.9	14	1.8	17	1.8	20	2.5	20	2.2	22	2.1
상담정보제공	880	82.6	691	88.3	843	90.3	729	90.0	829	89.9	949	89.0
총합계	1,066		783		934		810		922		1,066	

처리결과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교환	17	1.6	15	1.2	12	0.9	10	1.1	8	0.8	15	1.8	142	1.2
반품	-	-	3	.2	1	0.1	-	-	-	-	5	0.6	18	0.1
환불	45	4.1	65	5.1	64	4.6	44	4.7	62	6.0	35	4.1	585	4.8
해지	8	0.7	6	0.5	4	0.3	10	1.1	8	0.8	6	0.7	84	0.7
치료비배상	5	0.5	5	0.4	3	0.2	2	.2	7	0.7	3	0.4	52	0.4
손해배상청구	12	1.1	4	0.3	2	0.1	3	.3	5	0.5	2	0.2	63	0.5
사과요구	-	-	-	-	-	-	-	-	2	0.2	-	-	5	0.0
부당행위 시정	15	1.4	14	1.1	17	1.2	12	1.3	19	1.8	14	1.6	300	2.5
상담정보제공	985	90.6	1151	91.1	1,278	92.5	853	91.3	918	89.2	776	90.7	10,882	89.7
총합계	1,087		1,263		1,381		934		1,029		856		12,131	

-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이 1,415건(11.7%)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 774건(6.4%), 기타(건강식품)이 705건(5.8%), 즉석식품 555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소비자 불만사례 품목별 건수(중복응답)

상단품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빵	30	2.8	23	2.9	38	4.1	34	4.2	49	5.3	44	4.1
케이크	5	0.5	13	1.7	9	1.0	8	1.0	9	1.0	8	0.8
떡류	6	0.6	7	0.9	5	0.5	15	1.9	20	2.2	16	1.5
과자류	28	2.6	32	4.1	44	4.7	33	4.1	36	3.9	36	3.4
코코아식품류	8	0.8	10	1.3	6	0.6	5	0.6	5	0.5	2	0.2
잼류	1	0.1	1	0.1	2	0.2	2	0.2	1	0.1	0	0.0
설탕	0	0.0	2	0.3	2	0.2	2	0.2	0	0.0	2	0.2
포도당과당	1	0.1	0	0.0	0	0.0	2	0.2	1	0.1	0	0.0
꿀	5	0.5	5	0.6	4	0.4	5	0.6	5	0.5	7	0.7
엿류	3	0.3	4	0.5	2	0.2	0	0.0	0	0.0	5	0.5
당시럽류	0	0.0	1	0.1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1	0.1	0	0.0
아이스크림류	9	0.8	8	1.0	7	0.7	6	0.7	14	1.5	12	1.1
빙과류	0	0.0	1	0.1	0	0.0	0	0.0	0	0.0	8	0.8
우유류	31	2.9	19	2.4	23	2.5	21	2.6	27	2.9	42	4.0
발효우유	4	0.4	7	0.9	11	1.2	9	1.1	5	0.5	6	0.6
분유류	15	1.4	27	3.5	27	2.9	19	2.3	24	2.6	20	1.9
치즈버터류	6	0.6	5	0.6	0	0.0	1	0.1	4	0.4	6	0.6
햄 및 소시지류	18	1.7	7	0.9	7	0.7	7	0.9	6	0.7	5	0.5
치킨류	4	0.4	1	0.1	4	0.4	0	0.0	4	0.4	3	0.3
가타육류가공품	43	4.0	14	1.8	27	2.9	15	1.9	19	2.1	33	3.1
알가공품	0	0.0	1	0.1	1	0.1	0	0.0	3	0.3	0	0.0
어묵제품류	5	0.5	4	0.5	2	0.2	4	0.5	7	0.8	4	0.4
두부류 또는 묵류	2	0.2	4	0.5	5	0.5	2	0.2	2	0.2	11	1.0
식용유지류	5	0.5	2	0.3	3	0.3	7	0.9	2	0.2	1	0.1
라면류	12	1.1	20	2.6	16	1.7	21	2.6	9	1.0	15	1.4
건면류	2	0.2	1	0.1	2	0.2	2	0.2	5	0.5	5	0.5
생면류	0	0.0	1	0.1	1	0.1	2	0.2	1	0.1	7	0.7
다류	9	0.8	2	0.3	9	1.0	7	0.9	7	0.8	2	0.2
커피	9	0.8	5	0.6	11	1.2	14	1.7	16	1.7	18	1.7
탄산음료류	8	0.8	10	1.3	16	1.7	9	1.1	12	1.3	15	1.4
과채음료류	20	1.9	10	1.3	17	1.8	20	2.5	26	2.8	34	3.2
생수	8	0.8	4	0.5	7	0.7	6	0.7	11	1.2	11	1.0
특수용도식품(한자식)	12	1.1	3	0.4	8	0.9	3	0.4	12	1.3	6	0.6
이유식	1	0.1	3	0.4	9	1.0	1	0.1	1	0.1	4	0.4
장류	5	0.5	11	1.4	8	0.9	6	0.7	11	1.2	4	0.4
소스류	1	0.1	4	0.5	1	0.1	2	0.2	3	0.3	2	0.2
식초류	0	0.0	1	0.1	0	0.0	0	0.0	2	0.2	2	0.2
조미료	3	0.3	1	0.1	2	0.2	2	0.2	3	0.3	4	0.4
복합조식식품	1	0.1	2	0.3	2	0.2	1	0.1	0	0.0	1	0.1
드레싱류	0	0.0	2	0.3	0	0.0	0	0.0	1	0.1	0	0.0
간치류	10	0.9	7	0.9	6	0.6	3	0.4	8	0.9	6	0.6
젓갈류	5	0.5	2	0.3	2	0.2	3	0.4	6	0.7	3	0.3
절임식품	5	0.5	1	0.1	6	0.6	0	0.0	2	0.2	3	0.3
절임배추	8	0.8	1	0.1	0	0.0	0	0.0	0	0.0	1	0.1
조림식품	7	0.7	8	1.0	11	1.2	11	1.4	17	1.8	7	0.7
소주	5	0.5	3	0.4	8	0.9	2	0.2	2	0.2	0	0.0
맥주	7	0.7	4	0.5	6	0.6	3	0.4	6	0.7	4	0.4
포도주	2	0.2	1	0.1	1	0.1	2	0.2	7	0.8	3	0.3
탁아주(막걸리)	2	0.2	1	0.1	4	0.4	3	0.4	2	0.2	6	0.6
가타주류양주 청주 등	5	0.5	8	1.0	4	0.4	5	0.6	1	0.1	1	0.1
건포류	10	0.9	14	1.8	7	0.7	10	1.2	7	0.8	17	1.6
건강기능식품	139	13.1	92	11.8	140	15.0	102	12.6	118	12.8	153	14.4
가타건강식품	116	10.9	37	4.7	64	6.9	53	6.5	55	6.0	57	5.4
즉석식품	33	3.1	33	4.2	40	4.3	36	4.4	40	4.3	33	3.1
쇠고기	29	2.7	15	1.9	21	2.2	13	1.6	14	1.5	17	1.6
돼지고기	8	0.8	7	0.9	9	1.0	5	0.6	10	1.1	18	1.7
닭고기	5	0.5	12	1.5	6	0.6	9	1.1	4	0.4	11	1.0
오리고기	0	0.0	4	0.5	0	0.0	3	0.4	1	0.1	0	0.0
가타육류	11	1.0	5	0.6	4	0.4	5	0.6	3	0.3	2	0.2
알류	29	2.7	2	0.3	5	0.5	8	1.0	7	0.8	8	0.8
곡류	23	2.2	28	3.6	46	4.9	31	3.8	27	2.9	44	4.1
채소류	48	4.5	27	3.5	37	4.0	34	4.2	23	2.5	48	4.5
과일류	71	6.7	67	8.6	47	5.0	51	6.3	44	4.8	68	6.4
생선류	32	3.0	17	2.2	13	1.4	27	3.3	31	3.4	33	3.1
어패류	48	4.5	30	3.8	21	2.2	16	2.0	21	2.3	17	1.6
해조류	5	0.5	7	0.9	13	1.4	9	1.1	6	0.7	5	0.5
식용종자(버섯류)	1	0.1	1	0.1	7	0.7	2	0.2	3	0.3	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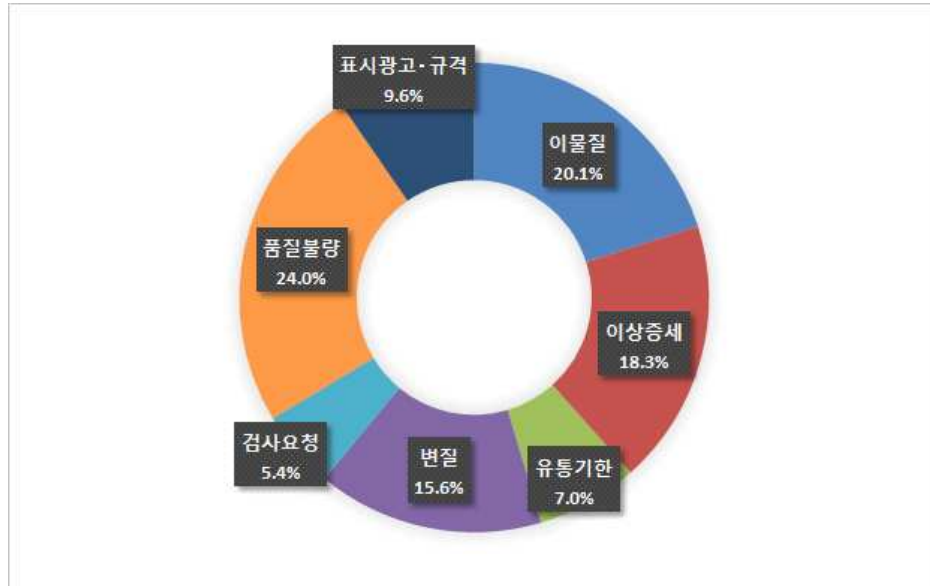
상당물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나물류	0	0.0	0	0.0	0	0.0	1	0.1	1	0.1	0	0.0
야생작물류	3	0.3	5	0.6	4	0.4	5	0.6	5	0.5	7	0.7
견과류	6	0.6	13	1.7	13	1.4	10	1.2	21	2.3	10	0.9
고추기류	0	0.0	1	0.1	0	0.0	0	0.0	0	0.0	2	0.2
한식	23	2.2	17	2.2	14	1.5	14	1.7	20	2.2	26	2.4
양식	2	0.2	2	0.3	0	0.0	0	0.0	1	0.1	4	0.4
일식	5	0.5	4	0.5	8	0.9	2	0.2	7	0.8	6	0.6
중식	5	0.5	2	0.3	2	0.2	2	0.2	5	0.5	3	0.3
분식	4	0.4	2	0.3	2	0.2	5	0.6	2	0.2	8	0.8
노점상	0	0.0	2	0.3	1	0.1	0	0.0	1	0.1	1	0.1
패스트푸드점	25	2.3	15	1.9	18	1.9	28	3.5	26	2.8	25	2.4
부페	3	0.3	1	0.1	1	0.1	0	0.0	0	0.0	0	0.0
가게식음료	7	0.7	6	0.8	7	0.7	7	0.9	5	0.5	5	0.5
합계	1065	100.0	782	100.0	934	100.0	810	100.0	921	100.0	1063	100.0

상당물품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빵	54	5.0	65	5.1	64	4.6	32	3.4	59	5.6	46	5.4	538	4.4
케이크류	12	1.1	7	0.6	10	0.7	6	0.6	10	0.9	10	1.2	107	0.9
떡류	6	0.6	14	1.1	12	0.9	6	0.6	10	0.9	11	1.3	128	1.1
과자류	48	4.4	36	2.9	42	3.0	39	4.2	41	3.9	27	3.2	442	3.6
코코아기공품	10	0.9	10	0.8	11	0.8	15	1.6	12	1.1	5	0.6	99	0.8
잼	3	0.3	2	0.2	2	0.1	0	0.0	1	0.1	0	0.0	15	0.1
설탕	2	0.2	1	0.1	0	0.0	1	0.1	2	0.2	1	0.1	15	0.1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1	0.1	1	0.1	6	0.0
꿀	4	0.4	7	0.6	4	0.3	3	0.3	1	0.1	3	0.4	53	0.4
엿류	0	0.0	0	0.0	0	0.0	1	0.1	0	0.0	2	0.2	17	0.1
당아탕류	0	0.0	0	0.0	0	0.0	1	0.1	2	0.2	0	0.0	4	0.0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아이스크림류	19	1.8	26	2.1	13	0.9	4	0.4	3	0.3	4	0.5	125	1.0
빙과류	5	0.5	4	0.3	2	0.1	1	0.1	0	0.0	0	0.0	21	0.2
우유류	51	4.7	50	4.0	35	2.5	29	3.1	24	2.3	31	3.6	383	3.2
발효우유	9	0.8	9	0.7	8	0.6	5	0.5	3	0.3	2	0.2	78	0.6
분유류	27	2.5	16	1.3	17	1.2	16	1.7	23	2.2	14	1.6	245	2.0
치즈/바나나	7	0.6	6	0.5	3	0.2	3	0.3	8	0.8	3	0.4	52	0.4
햄 및 소시지류	16	1.5	8	0.6	6	0.4	10	1.1	14	1.3	8	0.9	112	0.9
차류	8	0.7	3	0.2	4	0.3	4	0.4	6	0.6	0	0.0	41	0.3
가게음료/가공품	22	2.0	33	2.6	45	3.3	29	3.1	17	1.6	25	2.9	322	2.7
알코올음료	8	0.7	20	1.6	7	0.5	1	0.1	1	0.1	0	0.0	42	0.3
어묵/제품	13	1.2	8	0.6	10	0.7	7	0.7	5	0.5	6	0.7	75	0.6
두부류 또는 묵류	1	0.1	5	0.4	3	0.2	4	0.4	2	0.2	3	0.4	44	0.4
식용유/기름	1	0.1	2	0.2	4	0.3	5	0.5	11	1.0	11	1.3	54	0.4
라면류	14	1.3	27	2.1	21	1.5	14	1.5	15	1.4	9	1.1	193	1.6
건면류	5	0.5	4	0.3	0	0.0	1	0.1	3	0.3	1	0.1	31	0.3
생면류	2	0.2	2	0.2	0	0.0	0	0.0	1	0.1	0	0.0	17	0.1
다류	3	0.3	9	0.7	7	0.5	12	1.3	5	0.5	6	0.7	78	0.6
커피	19	1.8	20	1.6	27	2.0	19	2.0	18	1.7	12	1.4	188	1.5
탄산음료류	15	1.4	22	1.7	9	0.7	18	1.9	6	0.6	5	0.6	145	1.2
과채음료류	25	2.3	21	1.7	24	1.7	19	2.0	18	1.7	14	1.6	248	2.0
생수	20	1.9	22	1.7	32	2.3	29	3.1	19	1.8	7	0.8	176	1.4
특수음/도시물(한자식)	8	0.7	16	1.3	6	0.4	6	0.6	4	0.4	4	0.5	88	0.7
이유식	7	0.6	11	0.9	4	0.3	4	0.4	1	0.1	1	0.1	47	0.4
장류	2	0.2	6	0.5	3	0.2	4	0.4	5	0.5	3	0.4	68	0.6
소스류	2	0.2	1	0.1	2	0.1	0	0.0	2	0.2	2	0.2	22	0.2
식초류	3	0.3	2	0.2	0	0.0	0	0.0	0	0.0	2	0.2	12	0.1
조미료	3	0.3	1	0.1	5	0.4	2	0.2	11	1.0	5	0.6	42	0.3
복합조식품	1	0.1	6	0.5	2	0.1	4	0.4	3	0.3	0	0.0	23	0.2
드레싱류	1	0.1	0	0.0	0	0.0	0	0.0	0	0.0	0	0.0	4	0.0
김치류	6	0.6	15	1.2	16	1.2	16	1.7	22	2.1	13	1.5	128	1.1
젓갈류	9	0.8	6	0.5	11	0.8	2	0.2	9	0.9	9	1.1	67	0.6
절임식품	1	0.1	5	0.4	0	0.0	1	0.1	3	0.3	2	0.2	29	0.2
절임배추	0	0.0	1	0.1	1	0.1	0	0.0	22	2.1	20	2.3	54	0.4
조림식품	9	0.8	15	1.2	8	0.6	8	0.9	3	0.3	3	0.4	107	0.9
소주	4	0.4	3	0.2	6	0.4	3	0.3	1	0.1	2	0.2	39	0.3
맥주	8	0.7	6	0.5	13	0.9	4	0.4	10	0.9	3	0.4	74	0.6
포도주	3	0.3	0	0.0	4	0.3	4	0.4	3	0.3	3	0.4	33	0.3
탁주/유막알제	5	0.5	2	0.2	6	0.4	1	0.1	1	0.1	0	0.0	33	0.3
가게음/양주, 청주 등	1	0.1	1	0.1	4	0.3	4	0.4	3	0.3	0	0.0	37	0.3
건포류	13	1.2	23	1.8	16	1.2	20	2.1	15	1.4	10	1.2	162	1.3
건장/건장식품	108	10.0	112	8.9	153	11.1	98	10.5	110	10.4	90	10.5	1415	11.7
가게건장식품	39	3.6	42	3.3	85	6.2	52	5.6	51	4.8	54	6.3	705	5.8
즉석식품	55	5.1	82	6.5	53	3.8	44	4.7	63	6.0	43	5.0	555	4.6
쇠고기	21	1.9	18	1.4	24	1.7	16	1.7	21	2.0	10	1.2	219	1.8
돼지고기	12	1.1	9	0.7	6	0.4	13	1.4	13	1.2	15	1.8	125	1.0
닭고기	21	1.9	10	0.8	10	0.7	3	0.3	15	1.4	12	1.4	118	1.0
오리고기	0	0.0	1	0.1	0	0.0	1	0.1	1	0.1	0	0.0	11	0.1

상당물품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가파육류	4	0.4	2	0.2	2	0.1	2	0.2	4	0.4	1	0.1	46	0.4
알류	22	2.0	52	4.1	60	4.3	13	1.4	11	1.0	10	1.2	227	1.9
곡류	40	3.7	48	3.8	69	5.0	42	4.5	45	4.3	38	4.4	481	4.0
채소류	38	3.5	43	3.4	57	4.1	28	3.0	52	4.9	46	5.4	481	4.0
과일류	74	6.8	74	5.9	118	8.6	67	7.2	53	5.0	40	4.7	774	6.4
생선류	23	2.1	39	3.1	48	3.5	30	3.2	24	2.3	19	2.2	336	2.8
야채류	11	1.0	27	2.1	30	2.2	23	2.5	18	1.7	30	3.5	292	2.4
해조류	4	0.4	6	0.5	18	1.3	8	0.9	12	1.1	6	0.7	99	0.8
식용종자바싷류	3	0.3	2	0.2	10	0.7	8	0.9	1	0.1	3	0.4	42	0.3
나물류	1	0.1	0	0.0	2	0.1	0	0.0	0	0.0	0	0.0	5	0.0
약용식물류	4	0.4	6	0.5	9	0.7	5	0.5	5	0.5	3	0.4	61	0.5
견과류	15	1.4	29	2.3	23	1.7	13	1.4	23	2.2	17	2.0	193	1.6
고추가루	1	0.1	4	0.3	8	0.6	5	0.5	10	0.9	5	0.6	36	0.3
한식	20	1.9	23	1.8	24	1.7	16	1.7	17	1.6	21	2.5	235	1.9
양식	2	0.2	1	0.1	1	0.1	1	0.1	2	0.2	2	0.2	18	0.1
일식	3	0.3	4	0.3	5	0.4	1	0.1	6	0.6	7	0.8	58	0.5
중식	3	0.3	3	0.2	2	0.1	1	0.1	1	0.1	1	0.1	30	0.2
분식	1	0.1	2	0.2	3	0.2	5	0.5	4	0.4	4	0.5	42	0.3
노장상	0	0.0	0	0.0	0	0.0	1	0.1	0	0.0	0	0.0	6	0.0
패스트푸드점	28	2.6	39	3.1	28	2.0	14	1.5	31	2.9	27	3.2	304	2.5
부패	2	0.2	0	0.0	0	0.0	0	0.0	0	0.0	1	0.1	8	0.1
가파식품류	13	1.2	7	0.6	4	0.3	8	0.9	2	0.2	3	0.4	74	0.6
합계	1081	100.0	1263	100.0	1380	100.0	934	100.0	1054	100.0	857	100.0	12144	100.0

-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2017년 1월~12월), 전체 12,628건에서 품질불량 3,034건(2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이물질 2,544건(20.1%), 이상증세 2,314건(18.3%), 변질 1,964건(15.6%), 유통기한 884건(7.0%) 순으로 나타남.

[그림] 소비자 불만사례 유형별 건수(중복응답)



[표] 소비자 불만사례 유형별 건수(중복응답)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이물질	157	13.8	174	20.8	186	18.8	187	22.1	207	21.6	215	19.13
이상증세	263	23.2	187	22.3	172	17.4	147	17.4	197	20.4	232	20.6
유통기한	69	6.1	48	5.7	85	8.6	75	8.9	86	9	72	6.4
변질	157	13.8	113	13.5	118	12	121	14.3	127	13.3	158	14.1
검사요청	64	5.6	45	5.4	76	7.7	51	6	43	4.5	60	5.3
품질불량	295	26	209	25	203	20.6	176	20.8	208	21.7	245	21.8
표시광고·규격	130	11.5	61	7.3	147	14.9	88	10.4	92	9.7	142	12.6
합계	1,135		837		987		845		960		1124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이물질	253	22.6	265	20.2	245	17.1	206	18.1	258	24.5	191	22	2544	20.1
이상증세	206	18.4	242	18.4	220	15.4	141	12.4	170	16.2	137	15.8	2314	18.3
유통기한	79	7	75	5.7	103	7.2	69	6.1	65	6.1	58	6.7	884	7.0
변질	208	1	246	18.7	285	19.9	173	15.2	153	14.6	105	12.2	1964	15.6
검사요청	38	3.4	60	4.6	103	7.2	44	3.9	59	5.6	36	4.1	679	5.4
품질불량	248	22.1	323	24.6	354	24.8	245	21.5	266	25.2	262	30.3	3034	24.0
표시광고·규격	89	7.9	103	7.8	119	8.3	79	6.9	83	7.9	76	8.7	1209	9.6
합계	1121		1314		1429		957		1054		865		12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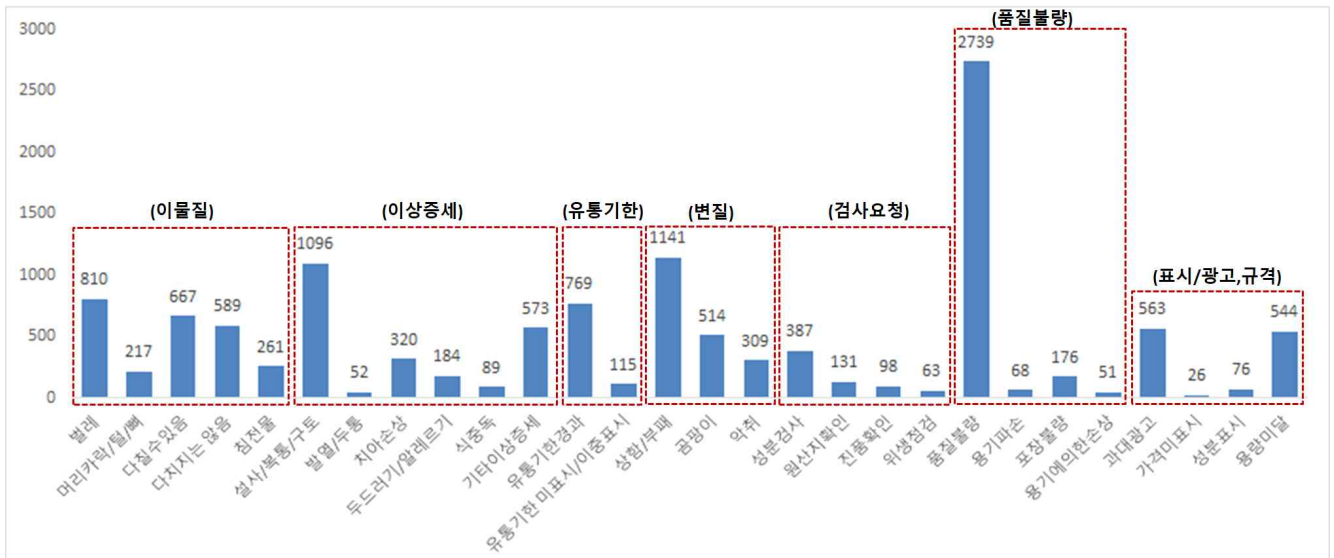
[표] 소비자 불만사례 유형별 건수 세분화(중복응답)

불만사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이물질	벌레	36	3.2	37	4.4	35	3.5	39	4.6	54	5.6	71	6.3
	머리카락/털/땀	13	1.1	20	2.4	17	1.7	22	2.6	14	1.5	19	1.7
	다칠수있음 (금속/유리/쇠/철/플라ستيك)	54	4.8	57	6.8	63	6.4	46	5.4	74	7.7	46	4.1
	다치지는 않음 (비닐/고무)	41	3.6	44	5.3	52	5.3	53	6.3	47	4.9	59	5.2
	침전물	13	1.1	16	1.9	19	1.9	27	3.2	18	1.9	20	1.8
소계		157	13.8	174	20.8	186	18.8	187	22.1	207	21.6	215	19.13
이상 증세	설사/복통/구토	125	11	78	9.3	82	8.3	72	8.5	83	8.6	98	8.7
	발열/두통	11	1	6	0.7	2	0.2	8	0.9	1	0.1	5	0.4
	치아손상	36	3.2	26	3.1	26	2.6	20	2.4	32	3.3	41	3.6
	두드러기/알레르기	18	1.6	9	1.1	16	1.6	12	1.4	17	1.8	24	2.1
	식중독	16	1.4	6	0.7	5	0.5	7	0.8	9	0.9	5	0.4
	기타이상증세	57	5	62	7.4	41	4.2	28	3.3	55	5.7	59	5.2
소계		263	23.2	187	22.3	172	17.4	147	17.4	197	20.4	232	20.6
유통기한	유통기한경과	61	5.4	42	5	81	8.2	64	7.6	71	7.4	63	5.6
	유통기한 미표시 /이중표시	8	0.7	6	0.7	4	0.4	11	1.3	15	1.6	9	0.8
소계		69	6.1	48	5.7	85	8.6	75	8.9	86	9	72	6.4
변질	상함/부패	87	7.7	62	7.4	59	6	57	6.7	72	7.5	108	9.6
	곰팡이	36	3.2	26	3.1	39	4	38	4.5	41	4.3	33	2.9
	악취	34	3	25	3	20	2	26	3.1	14	1.5	17	1.5
소계		157	13.8	113	13.5	118	12	121	14.3	127	13.3	158	14.1
검사 요청	성분검사	41	3.6	22	2.6	59	6	31	3.7	21	2.2	28	2.5
	원산지확인	12	1.1	14	1.7	11	1.1	6	0.7	14	1.5	11	1
	진품확인	11	1	6	0.7	4	0.4	8	0.9	6	0.6	10	0.9
	위생점검	0	0	3	0.4	2	0.2	6	0.7	2	0.2	11	1
소계		64	5.6	45	5.4	76	7.7	51	6	43	4.5	60	5.3
품질 불량	품질불량	266	23.4	185	22.1	177	17.9	156	18.5	184	19.2	216	19.2
	용기파손	10	0.9	6	0.7	5	0.5	5	0.6	5	0.5	9	0.8
	포장불량	13	1.1	16	1.9	19	1.9	12	1.4	15	1.6	17	1.5
	용기에의한 손상	6	0.5	2	0.2	2	0.2	3	0.4	4	0.4	3	0.3
소계		295	26	209	25	203	20.6	176	20.8	208	21.7	245	21.8
표시 광고	과대광고	58	5.1	14	1.7	89	9	44	5.2	41	4.3	60	5.3
	가격미표시	2	0.2	2	0.2	1	0.1	2	0.2	2	0.2	4	0.4
	성분표시	9	0.8	7	0.8	10	1	7	0.8	12	1.3	8	0.7
규격	용량미달	61	5.4	38	4.5	47	4.8	35	4.1	37	3.9	70	6.2
소계		130	11.5	61	7.3	147	14.9	88	10.4	92	9.7	142	12.6
총합계		1135		837		987		845		960		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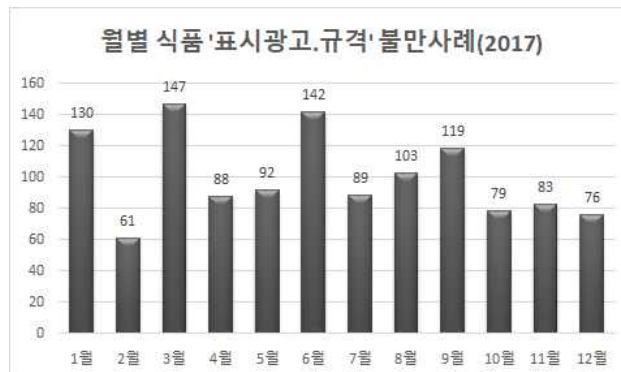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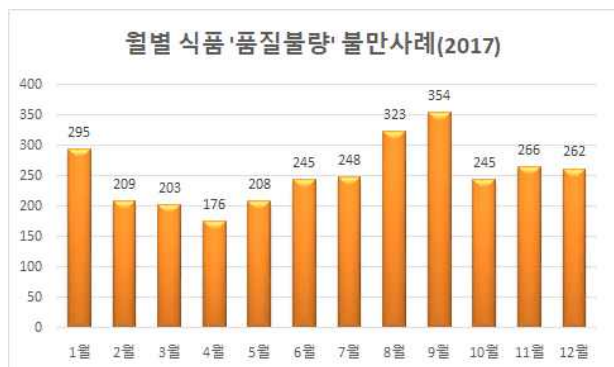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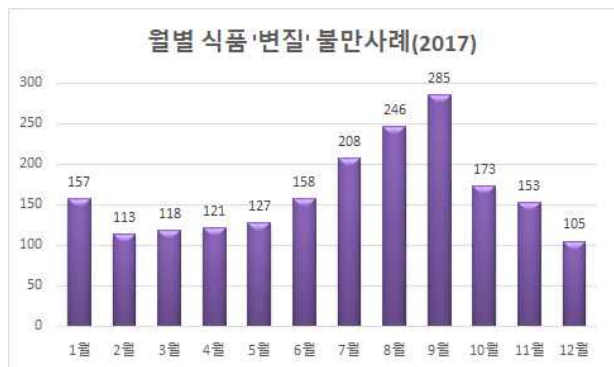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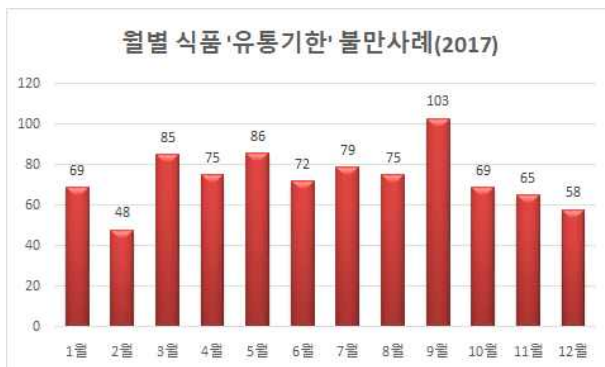
불만사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표본수	비율
이물질	벌레	92	8.2	102	7.8	101	7.1	89	7.8	91	8.6	63	7.3	810	6.4
	머리카락/털/뺨	12	1.1	22	1.7	19	1.3	19	1.7	24	2.3	16	1.8	217	1.7
	다칠수있음 (금속/유리/쇠/철/ 플라스틱)	66	5.9	62	4.7	64	4.5	37	3.3	53	5	45	5.2	667	5.3
	다치지는 않음(비닐/고무)	57	5.1	45	3.4	32	2.2	49	4.3	64	6.1	46	5.3	589	4.7
	침전물	26	2.3	34	2.6	29	2	12	1.1	26	2.5	21	2.4	261	2.1
소계		253	22.6	265	20.2	245	17.1	206	18.1	258	24.5	191	22	2544	20.1
이상 증세	설사/복통/구토	110	9.8	123	9.4	116	8.1	62	5.4	79	7.5	68	7.9	1096	8.7
	발열/두통	1	0.1	4	0.3	3	0.2	4	0.4	4	0.4	3	0.3	52	0.4
	치아손상	28	2.5	32	2.4	18	1.3	21	1.8	25	2.4	15	1.7	320	2.5
	두드러기/알레르기	16	1.4	13	1	23	1.6	14	1.2	13	1.2	9	1	184	1.5
	식중독	9	0.8	9	0.7	9	0.6	1	0.1	7	0.7	6	0.7	89	0.7
	기타이상증세	42	3.7	61	4.6	51	3.6	39	3.4	42	4	36	4.2	573	4.5
소계		206	18.4	242	18.4	220	15.4	141	12.4	170	16.2	137	15.8	2314	18.3
유통 기한	유통기한경과	63	5.6	67	5.1	91	6.4	61	5.4	55	5.2	50	5.8	769	6.1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16	1.4	8	0.6	12	0.8	8	0.7	10	0.9	8	0.9	115	0.9
소계		79	7	75	5.7	103	7.2	69	6.1	65	6.1	58	6.7	884	7.0
변질	상함/부패	142	12.7	147	11.2	161	11.3	100	8.8	84	8	62	7.2	1141	9.0
	곰팡이	55	4.9	65	4.9	64	4.5	51	4.5	40	3.8	26	3	514	4.1
	악취	11	1	34	2.6	60	4.2	22	1.9	29	2.8	17	2	309	2.4
소계		208	1	246	18.7	285	19.9	173	15.2	153	14.6	105	12.2	1964	15.6
검사 요청	성분검사	18	1.6	41	3.1	65	4.5	23	2.0	23	2.2	15	1.7	387	3.1
	원산지확인	12	1.1	10	0.8	10	0.7	4	0.4	20	1.9	7	0.8	131	1.0
	진품확인	5	0.4	4	0.3	14	1	12	1.1	10	0.9	8	0.9	98	0.8
	위생점검	3	0.3	5	0.4	14	1	5	0.4	6	0.6	6	0.7	63	0.5
소계		38	3.4	60	4.6	103	7.2	44	3.9	59	5.6	36	4.1	679	5.4
품질 불량	품질불량	223	19.9	300	22.8	315	22	225	19.8	245	23.2	247	28.6	2739	21.7
	용기파손	6	0.5	2	0.2	7	0.5	6	0.5	2	0.2	5	0.6	68	0.5
	포장불량	12	1.1	14	1.1	25	1.7	9	0.8	17	1.6	7	0.8	176	1.4
	용기에의한손상	7	0.6	7	0.5	7	0.5	5	0.4	2	0.2	3	0.3	51	0.4
소계		248	22.1	323	24.6	354	24.8	245	21.5	266	25.2	262	30.3	3034	24.0
표시 광고	과대광고	40	3.6	49	3.7	50	3.5	43	3.8	35	3.3	40	4.6	563	4.5
	가격미표시	3	0.3	5	0.4	3	0.2	0	0.0	1	0.1	1	0.1	26	0.2
	성분표시	6	0.5	4	0.3	5	0.3	4	0.4	3	0.3	1	0.1	76	0.6
규격	용량미달	40	3.6	45	3.4	61	4.3	32	2.8	44	4.2	34	3.9	544	4.3
소계		89	7.9	103	7.8	119	8.3	79	6.9	83	7.9	76	8.7	1209	9.6
총합계		1121		1314		1429		957		1054		865		12628	

-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2017년 1월 ~ 12월), 이물질 중에는 벌레가 810건(6.4%), 이상증세 중에는 설사/복통/구토가 1,096건(8.7%), 유통기한 중에는 유통기한 경과가 769건(6.1%), 변질 중에는 상함/부패가 1,141건(9.0%), 검사요청에는 성분검사가 387건(3.1%), 품질불량 중에는 품질불량이 2,739건(21.7%), 표시광고 중에는 과대광고가 563건(4.5%), 규격 관련으로는 용량미달이 544건(4.3%)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식품 불만사례 세부 유형별 상담건수



[그림] 월별 소비자 불만사례 유형별 건수



나. 식품 소비자 불만사례 유형별 심층분석

(1) 이물질

○ 1월~12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2,548건으로 즉석식품 203건(8.0%)으로 가장 높고, 빵 170건(6.7%), 과자류 155건(6.1%), 분유류 154(6.0%), 곡류 133건(5.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1월~12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 않는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1	3.8%	10	5.6%	63	11.0%	35	7.3%	7	2.7%	170	6.7%
케익류	5	0.6%	2	1.1%	9	1.6%	11	2.3%	2	0.8%	37	1.5%
떡류	4	0.5%	1	0.6%	9	1.6%	6	1.3%	0	0.0%	26	1.0%
과자류	50	6.2%	7	3.9%	44	7.7%	31	6.5%	6	2.3%	155	6.1%
코코아가공 품류	33	4.1%	1	0.6%	5	0.9%	1	0.2%	1	0.4%	43	1.7%
잼류	1	0.1%	0	0.0%	5	0.9%	0	0.0%	0	0.0%	6	0.2%
설탕	3	0.4%	0	0.0%	1	0.2%	0	0.0%	0	0.0%	4	0.2%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2	0.1%
꿀	0	0.0%	0	0.0%	2	0.4%	0	0.0%	1	0.4%	3	0.1%
엿류	1	0.1%	2	1.1%	1	0.2%	3	0.6%	0	0.0%	7	0.3%
당시럽류	0	0.0%	0	0.0%	1	0.2%	0	0.0%	0	0.0%	1	0.0%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 류	9	1.1%	5	2.8%	13	2.3%	14	2.9%	4	1.5%	49	1.9%
빙과류	2	0.2%	0	0.0%	3	0.5%	0	0.0%	0	0.0%	5	0.2%
우유류	14	1.7%	1	0.6%	6	1.1%	15	3.1%	31	11.9%	73	2.9%
발효유류	3	0.4%	1	0.6%	3	0.5%	9	1.9%	1	0.4%	18	0.7%
분유류	75	9.2%	2	1.1%	9	1.6%	31	6.5%	29	11.1%	154	6.0%
치즈버터류	0	0.0%	0	0.0%	1	0.2%	2	0.4%	0	0.0%	5	0.2%
햄 및 소시지류	5	0.6%	6	3.4%	15	2.6%	7	1.5%	0	0.0%	39	1.5%
치킨류	3	0.4%	5	2.8%	1	0.2%	0	0.0%	1	0.4%	13	0.5%
기타육류가 공품	7	0.9%	16	9.0%	19	3.3%	22	4.6%	2	0.8%	70	2.7%
알가공품	1	0.1%	0	0.0%	0	0.0%	0	0.0%	0	0.0%	1	0.0%
어묵제품류	4	0.5%	5	2.8%	6	1.1%	2	0.4%	0	0.0%	21	0.8%
두부류 또는 묵류	5	0.6%	0	0.0%	1	0.2%	1	0.2%	0	0.0%	10	0.4%
식용유지류	2	0.2%	0	0.0%	1	0.2%	0	0.0%	1	0.4%	5	0.2%
라면류	38	4.7%	4	2.2%	22	3.9%	22	4.6%	4	1.5%	93	3.6%
건면류	1	0.1%	1	0.6%	3	0.5%	0	0.0%	1	0.4%	6	0.2%
생면류	0	0.0%	0	0.0%	5	0.9%	1	0.2%	0	0.0%	6	0.2%
다류	18	2.2%	0	0.0%	4	0.7%	3	0.6%	3	1.1%	31	1.2%
커피	25	3.1%	2	1.1%	9	1.6%	11	2.3%	18	6.9%	71	2.8%
탄산음료류	3	0.4%	2	1.1%	8	1.4%	9	1.9%	8	3.1%	32	1.3%
과채음료류	5	0.6%	2	1.1%	12	2.1%	16	3.3%	16	6.1%	54	2.1%
생수	2	0.2%	0	0.0%	0	0.0%	5	1.0%	27	10.3%	36	1.4%
특수용도식 품(환자식)	2	0.2%	0	0.0%	4	0.7%	1	0.2%	3	1.1%	10	0.4%
이유식	4	0.5%	2	1.1%	9	1.6%	8	1.7%	2	0.8%	26	1.0%
장류	3	0.4%	0	0.0%	5	0.9%	3	0.6%	1	0.4%	12	0.5%
소스류	3	0.4%	0	0.0%	1	0.2%	1	0.2%	0	0.0%	5	0.2%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4	1.5%	4	0.2%
조미료	1	0.1%	1	0.6%	1	0.2%	3	0.6%	1	0.4%	11	0.4%
복합조미식 품	1	0.1%	1	0.6%	2	0.4%	2	0.4%	0	0.0%	7	0.3%

드레싱류	1	0.1%	0	0.0%	0	0.0%	1	0.2%	0	0.0%	2	0.1%
김치류	13	1.6%	3	1.7%	8	1.4%	4	0.8%	2	0.8%	34	1.3%
젓갈류	3	0.4%	0	0.0%	4	0.7%	3	0.6%	3	1.1%	17	0.7%
절임식품	4	0.5%	0	0.0%	1	0.2%	1	0.2%	0	0.0%	6	0.2%
절임배추	1	0.1%	0	0.0%	0	0.0%	0	0.0%	0	0.0%	1	0.0%
조림식품	19	2.3%	6	3.4%	19	3.3%	13	2.7%	5	1.9%	65	2.6%
소주	8	1.0%	0	0.0%	4	0.7%	4	0.8%	8	3.1%	24	0.9%
맥주	6	0.7%	1	0.6%	4	0.7%	4	0.8%	9	3.4%	25	1.0%
포도주	1	0.1%	0	0.0%	0	0.0%	0	0.0%	0	0.0%	1	0.0%
탁약주(막걸리)	2	0.2%	0	0.0%	0	0.0%	2	0.4%	0	0.0%	4	0.2%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3	0.4%	1	0.6%	0	0.0%	1	0.2%	4	1.5%	9	0.4%
건포류	11	1.4%	3	1.7%	7	1.2%	7	1.5%	1	0.4%	32	1.3%
건강기능식품	20	2.5%	3	1.7%	22	3.9%	15	3.1%	16	6.1%	85	3.3%
기타(건강식품)	7	0.9%	5	2.8%	11	1.9%	5	1.0%	3	1.1%	36	1.4%
즉석식품	54	6.7%	13	7.3%	49	8.6%	47	9.8%	11	4.2%	203	8.0%
쇠고기	5	0.6%	2	1.1%	5	0.9%	8	1.7%	0	0.0%	21	0.8%
돼지고기	5	0.6%	5	2.8%	2	0.4%	2	0.4%	1	0.4%	16	0.6%
닭고기	11	1.4%	6	3.4%	2	0.4%	3	0.6%	1	0.4%	28	1.1%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1	0.4%	1	0.0%
기타육류	2	0.2%	0	0.0%	4	0.7%	0	0.0%	0	0.0%	7	0.3%
알류	11	1.4%	0	0.0%	2	0.4%	1	0.2%	0	0.0%	14	0.5%
곡류	94	11.6%	1	0.6%	14	2.5%	12	2.5%	5	1.9%	133	5.2%
채소류	22	2.7%	3	1.7%	3	0.5%	1	0.2%	0	0.0%	29	1.1%
과일류	19	2.3%	1	0.6%	4	0.7%	2	0.4%	2	0.8%	30	1.2%
생선류	20	2.5%	3	1.7%	4	0.7%	2	0.4%	1	0.4%	33	1.3%
어패류	4	0.5%	0	0.0%	5	0.9%	6	1.3%	1	0.4%	16	0.6%
해조류	1	0.1%	2	1.1%	9	1.6%	8	1.7%	1	0.4%	27	1.1%
식용종자·버섯류	1	0.1%	0	0.0%	0	0.0%	0	0.0%	0	0.0%	1	0.0%
나물류	0	0.0%	1	0.6%	0	0.0%	0	0.0%	0	0.0%	1	0.0%
약용작물류	1	0.1%	0	0.0%	1	0.2%	3	0.6%	0	0.0%	6	0.2%
견과류	32	3.9%	2	1.1%	3	0.5%	0	0.0%	0	0.0%	40	1.6%
고추가루	2	0.2%	0	0.0%	1	0.2%	0	0.0%	0	0.0%	5	0.2%
한식	20	2.5%	10	5.6%	26	4.6%	10	2.1%	2	0.8%	80	3.1%
양식	2	0.2%	1	0.6%	3	0.5%	0	0.0%	1	0.4%	7	0.3%
일식	1	0.1%	0	0.0%	2	0.4%	0	0.0%	0	0.0%	4	0.2%
중식	7	0.9%	1	0.6%	6	1.1%	4	0.8%	0	0.0%	19	0.7%
분식	4	0.5%	2	1.1%	4	0.7%	4	0.8%	1	0.4%	18	0.7%
노점상	0	0.0%	1	0.6%	0	0.0%	0	0.0%	0	0.0%	1	0.0%
패스트푸드점	25	3.1%	21	11.8%	31	5.4%	27	5.6%	4	1.5%	121	4.7%
뷔페	0	0.0%	0	0.0%	2	0.4%	0	0.0%	0	0.0%	2	0.1%
기타식품류	5	0.6%	2	1.1%	6	1.1%	4	0.8%	4	1.5%	23	0.9%
총계	811	100.0%	178	100.0%	571	100.0%	479	100.0%	261	100.0%	2548	100.0%

○ 1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157건으로 패스트푸드점이 14건(8.9%)으로 가장 높고, 빵이 10건(6.4%), 과자류 9건(5.7%), 분유류, 과·채음료류, 건강기능식품, 즉석식품이 각각 8건(5.1%)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1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2.8%	1	7.7%	4	7.4%	4	9.8%	0	0.0%	10	6.4%
케익류	0	0.0%	0	0.0%	1	1.9%	0	0.0%	0	0.0%	1	0.6%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2	5.6%	0	0.0%	5	9.3%	1	2.4%	1	7.7%	9	5.7%
코코아가공 품류	1	2.8%	0	0.0%	1	1.9%	1	2.4%	0	0.0%	3	1.9%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1	2.4%	0	0.0%	1	0.6%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 류	0	0.0%	2	15.4%	3	5.6%	2	4.9%	0	0.0%	7	4.5%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0	0.0%	0	0.0%	1	1.9%	2	4.9%	1	7.7%	4	2.5%
발효유류	1	2.8%	0	0.0%	0	0.0%	2	4.9%	0	0.0%	3	1.9%
분유류	4	11.1%	0	0.0%	0	0.0%	3	7.3%	1	7.7%	8	5.1%
치즈·버터류	0	0.0%	0	0.0%	1	1.9%	0	0.0%	0	0.0%	1	0.6%
햄 및 소시지류	1	2.8%	1	7.7%	1	1.9%	1	2.4%	0	0.0%	4	2.5%
치킨류	0	0.0%	1	7.7%	0	0.0%	0	0.0%	0	0.0%	1	0.6%
기타육류가 공품	0	0.0%	0	0.0%	3	5.6%	3	7.3%	0	0.0%	6	3.8%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1	7.7%	1	1.9%	0	0.0%	0	0.0%	2	1.3%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2	5.6%	0	0.0%	5	9.3%	0	0.0%	0	0.0%	7	4.5%
건면류	0	0.0%	0	0.0%	1	1.9%	0	0.0%	0	0.0%	1	0.6%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3	8.3%	1	7.7%	0	0.0%	0	0.0%	0	0.0%	4	2.5%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1	7.7%	1	0.6%
과·채음료류	1	2.8%	0	0.0%	2	3.7%	3	7.3%	2	15.4%	8	5.1%
생수	0	0.0%	0	0.0%	0	0.0%	0	0.0%	1	7.7%	1	0.6%
특수용도식 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2	15.4%	2	1.3%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 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1	2.8%	0	0.0%	0	0.0%	0	0.0%	0	0.0%	1	0.6%
젓갈류	0	0.0%	0	0.0%	2	3.7%	1	2.4%	0	0.0%	3	1.9%
절임식품	1	2.8%	0	0.0%	1	1.9%	0	0.0%	0	0.0%	2	1.3%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2	5.6%	0	0.0%	1	1.9%	1	2.4%	0	0.0%	4	2.5%
소주	0	0.0%	0	0.0%	0	0.0%	0	0.0%	1	7.7%	1	0.6%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2.8%	0	0.0%	0	0.0%	0	0.0%	0	0.0%	1	0.6%
건포류	0	0.0%	0	0.0%	1	1.9%	0	0.0%	0	0.0%	1	0.6%
건강기능식품	1	2.8%	0	0.0%	3	5.6%	2	4.9%	2	15.4%	8	5.1%
기타(건강식품)	0	0.0%	0	0.0%	1	1.9%	1	2.4%	0	0.0%	2	1.3%
즉석식품	1	2.8%	0	0.0%	4	7.4%	2	4.9%	1	7.7%	8	5.1%
쇠고기	1	2.8%	0	0.0%	0	0.0%	1	2.4%	0	0.0%	2	1.3%
돼지고기	0	0.0%	0	0.0%	1	1.9%	0	0.0%	0	0.0%	1	0.6%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1	2.8%	0	0.0%	0	0.0%	0	0.0%	0	0.0%	1	0.6%
곡류	1	2.8%	0	0.0%	0	0.0%	0	0.0%	0	0.0%	1	0.6%
채소류	1	2.8%	0	0.0%	1	1.9%	0	0.0%	0	0.0%	2	1.3%
과일류	2	5.6%	0	0.0%	0	0.0%	0	0.0%	0	0.0%	2	1.3%
생선류	1	2.8%	0	0.0%	0	0.0%	0	0.0%	0	0.0%	1	0.6%
어패류	0	0.0%	0	0.0%	2	3.7%	2	4.9%	0	0.0%	4	2.5%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1	1.9%	0	0.0%	0	0.0%	1	0.6%
견과류	1	2.8%	0	0.0%	0	0.0%	0	0.0%	0	0.0%	1	0.6%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1	2.8%	2	15.4%	1	1.9%	1	2.4%	0	0.0%	5	3.2%
양식	0	0.0%	0	0.0%	1	1.9%	0	0.0%	0	0.0%	1	0.6%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2	5.6%	1	7.7%	0	0.0%	0	0.0%	0	0.0%	3	1.9%
분식	0	0.0%	1	7.7%	0	0.0%	0	0.0%	0	0.0%	1	0.6%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1	2.8%	2	15.4%	5	9.3%	6	14.6%	0	0.0%	14	8.9%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1	2.8%	0	0.0%	0	0.0%	1	2.4%	0	0.0%	2	1.3%
총계	36	100.0%	13	100.0%	54	100.0%	41	100.0%	13	100.0%	157	100.0%

○ 2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174건으로 즉석식품이 18건(10.3%)으로 가장 높고, 분유류가 12건(6.9%), 라면류가 10건(5.7%), 빵과 우유류, 곡류가 각각 8건(4.6%)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2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2.7%	0	0.0%	4	7.0%	3	6.8%	0	0.0%	8	4.6%
케익류	0	0.0%	0	0.0%	2	3.5%	0	0.0%	2	12.5%	4	2.3%
떡류	0	0.0%	0	0.0%	2	3.5%	1	2.3%	0	0.0%	3	1.7%
과자류	2	5.4%	1	5.0%	2	3.5%	2	4.5%	0	0.0%	7	4.0%
코코아가공 품류	2	5.4%	0	0.0%	0	0.0%	0	0.0%	0	0.0%	2	1.1%
잼류	1	2.7%	0	0.0%	0	0.0%	0	0.0%	0	0.0%	1	0.6%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1	5.0%	0	0.0%	1	2.3%	0	0.0%	2	1.1%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 류	0	0.0%	1	5.0%	1	1.8%	0	0.0%	1	6.3%	3	1.7%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2	5.4%	0	0.0%	2	3.5%	2	4.5%	2	12.5%	8	4.6%
발효유류	0	0.0%	0	0.0%	0	0.0%	1	2.3%	0	0.0%	1	0.6%
분유류	8	21.6%	0	0.0%	0	0.0%	4	9.1%	0	0.0%	12	6.9%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1	2.3%	0	0.0%	1	0.6%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2	3.5%	0	0.0%	0	0.0%	2	1.1%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 공품	0	0.0%	0	0.0%	1	1.8%	1	2.3%	0	0.0%	2	1.1%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2	5.4%	2	10.0%	3	5.3%	2	4.5%	1	6.3%	10	5.7%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1	1.8%	0	0.0%	0	0.0%	1	0.6%
다류	1	2.7%	0	0.0%	0	0.0%	0	0.0%	0	0.0%	1	0.6%
커피	0	0.0%	0	0.0%	0	0.0%	3	6.8%	0	0.0%	3	1.7%
탄산음료류	0	0.0%	0	0.0%	1	1.8%	1	2.3%	0	0.0%	2	1.1%
과채음료류	1	2.7%	0	0.0%	2	3.5%	0	0.0%	1	6.3%	4	2.3%
생수	0	0.0%	0	0.0%	0	0.0%	0	0.0%	1	6.3%	1	0.6%
특수용도식 품(환자식)	0	0.0%	0	0.0%	0	0.0%	1	2.3%	1	6.3%	2	1.1%
이유식	0	0.0%	0	0.0%	3	5.3%	0	0.0%	0	0.0%	3	1.7%
장류	0	0.0%	0	0.0%	0	0.0%	0	0.0%	1	6.3%	1	0.6%
소스류	1	2.7%	0	0.0%	1	1.8%	0	0.0%	0	0.0%	2	1.1%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 품	0	0.0%	1	5.0%	0	0.0%	0	0.0%	0	0.0%	1	0.6%
드레싱류	1	2.7%	0	0.0%	0	0.0%	1	2.3%	0	0.0%	2	1.1%
김치류	2	5.4%	0	0.0%	0	0.0%	0	0.0%	0	0.0%	2	1.1%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1	2.7%	1	5.0%	0	0.0%	3	6.8%	0	0.0%	5	2.9%
소주	0	0.0%	0	0.0%	0	0.0%	2	4.5%	0	0.0%	2	1.1%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1	2.3%	1	6.3%	2	1.1%
건포류	0	0.0%	1	5.0%	2	3.5%	1	2.3%	0	0.0%	4	2.3%
건강기능식품	1	2.7%	0	0.0%	2	3.5%	3	6.8%	0	0.0%	6	3.4%
기타(건강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즉석식품	2	5.4%	2	10.0%	9	15.8%	4	9.1%	1	6.3%	18	10.3%
쇠고기	0	0.0%	1	5.0%	0	0.0%	1	2.3%	0	0.0%	2	1.1%
돼지고기	0	0.0%	0	0.0%	1	1.8%	0	0.0%	0	0.0%	1	0.6%
닭고기	1	2.7%	2	10.0%	1	1.8%	0	0.0%	0	0.0%	4	2.3%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1	1.8%	0	0.0%	0	0.0%	1	0.6%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3	8.1%	0	0.0%	1	1.8%	3	6.8%	1	6.3%	8	4.6%
채소류	1	2.7%	0	0.0%	0	0.0%	0	0.0%	0	0.0%	1	0.6%
과일류	0	0.0%	0	0.0%	1	1.8%	0	0.0%	0	0.0%	1	0.6%
생선류	1	2.7%	0	0.0%	0	0.0%	0	0.0%	0	0.0%	1	0.6%
어패류	0	0.0%	0	0.0%	1	1.8%	0	0.0%	0	0.0%	1	0.6%
해조류	0	0.0%	1	5.0%	2	3.5%	0	0.0%	0	0.0%	3	1.7%
식용종자버섯류	1	2.7%	0	0.0%	0	0.0%	0	0.0%	0	0.0%	1	0.6%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1	2.3%	0	0.0%	1	0.6%
견과류	0	0.0%	1	5.0%	0	0.0%	0	0.0%	0	0.0%	1	0.6%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1	2.7%	0	0.0%	4	7.0%	0	0.0%	0	0.0%	5	2.9%
양식	0	0.0%	1	5.0%	0	0.0%	0	0.0%	0	0.0%	1	0.6%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1	1.8%	0	0.0%	0	0.0%	1	0.6%
분식	0	0.0%	0	0.0%	1	1.8%	0	0.0%	0	0.0%	1	0.6%
노점상	0	0.0%	1	5.0%	0	0.0%	0	0.0%	0	0.0%	1	0.6%
패스트푸드점	1	2.7%	1	5.0%	2	3.5%	1	2.3%	1	6.3%	6	3.4%
뷔페	0	0.0%	0	0.0%	1	1.8%	0	0.0%	0	0.0%	1	0.6%
기타식품류	0	0.0%	2	10.0%	0	0.0%	0	0.0%	2	12.5%	4	2.3%
총계	37	100.0%	20	100.0%	57	100.0%	44	100.0%	16	100.0%	174	100.0%

○ 3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186건으로 빵과 분유류, 즉석식품이 각각 18건(9.7%)으로 가장 높고, 곡류가 9건(4.8%), 과자류와 조림식품이 각각 8건(4.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3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0	0.0%	3	17.6%	12	19.0%	3	5.8%	0	0.0%	18	9.7%
케익류	0	0.0%	0	0.0%	1	1.6%	2	3.8%	0	0.0%	3	1.6%
떡류	0	0.0%	0	0.0%	1	1.6%	2	3.8%	0	0.0%	3	1.6%
과자류	2	5.7%	0	0.0%	1	1.6%	5	9.6%	0	0.0%	8	4.3%
코코아가공 품류	0	0.0%	0	0.0%	2	3.2%	0	0.0%	0	0.0%	2	1.1%
잼류	0	0.0%	0	0.0%	1	1.6%	0	0.0%	0	0.0%	1	0.5%
설탕	1	2.9%	0	0.0%	0	0.0%	0	0.0%	0	0.0%	1	0.5%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1	5.9%	1	1.6%	0	0.0%	0	0.0%	2	1.1%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 류	0	0.0%	0	0.0%	0	0.0%	2	3.8%	0	0.0%	2	1.1%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0	0.0%	0	0.0%	0	0.0%	1	1.9%	1	5.3%	2	1.1%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7	20.0%	1	5.9%	1	1.6%	5	9.6%	4	21.1%	18	9.7%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1	2.9%	1	5.9%	0	0.0%	0	0.0%	0	0.0%	2	1.1%
치킨류	1	2.9%	0	0.0%	1	1.6%	0	0.0%	1	5.3%	3	1.6%
기타육류가 공품	0	0.0%	1	5.9%	1	1.6%	1	1.9%	1	5.3%	4	2.2%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1	1.6%	0	0.0%	0	0.0%	1	0.5%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2	5.7%	0	0.0%	1	1.6%	2	3.8%	0	0.0%	5	2.7%
건면류	0	0.0%	1	5.9%	1	1.6%	0	0.0%	0	0.0%	2	1.1%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2	5.7%	0	0.0%	0	0.0%	0	0.0%	0	0.0%	2	1.1%
커피	0	0.0%	1	5.9%	1	1.6%	0	0.0%	1	5.3%	3	1.6%
탄산음료류	1	2.9%	0	0.0%	1	1.6%	0	0.0%	0	0.0%	2	1.1%
과채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2	10.5%	2	1.1%
생수	0	0.0%	0	0.0%	0	0.0%	0	0.0%	1	5.3%	1	0.5%
특수용도식 품(환자식)	0	0.0%	0	0.0%	1	1.6%	0	0.0%	0	0.0%	1	0.5%
이유식	0	0.0%	1	5.9%	3	4.8%	3	5.8%	0	0.0%	7	3.8%
장류	0	0.0%	0	0.0%	0	0.0%	2	3.8%	0	0.0%	2	1.1%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 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0	0.0%	0	0.0%	0	0.0%	1	1.9%	0	0.0%	1	0.5%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1	1.9%	0	0.0%	1	0.5%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2	5.7%	1	5.9%	3	4.8%	1	1.9%	1	5.3%	8	4.3%
소주	1	2.9%	0	0.0%	1	1.6%	0	0.0%	2	10.5%	4	2.2%

맥주	1	2.9%	0	0.0%	0	0.0%	0	0.0%	1	5.3%	2	1.1%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1	5.3%	1	0.5%
건포류	1	2.9%	0	0.0%	0	0.0%	0	0.0%	0	0.0%	1	0.5%
건강기능식품	0	0.0%	0	0.0%	5	7.9%	2	3.8%	0	0.0%	7	3.8%
기타(건강식품)	0	0.0%	0	0.0%	0	0.0%	0	0.0%	1	5.3%	1	0.5%
즉석식품	5	14.3%	1	5.9%	6	9.5%	6	11.5%	0	0.0%	18	9.7%
쇠고기	0	0.0%	0	0.0%	0	0.0%	1	1.9%	0	0.0%	1	0.5%
돼지고기	0	0.0%	0	0.0%	0	0.0%	2	3.8%	0	0.0%	2	1.1%
닭고기	0	0.0%	0	0.0%	0	0.0%	1	1.9%	1	5.3%	2	1.1%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1	1.6%	0	0.0%	0	0.0%	1	0.5%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5	14.3%	0	0.0%	3	4.8%	1	1.9%	0	0.0%	9	4.8%
채소류	2	5.7%	0	0.0%	0	0.0%	0	0.0%	0	0.0%	2	1.1%
과일류	1	2.9%	0	0.0%	0	0.0%	0	0.0%	0	0.0%	1	0.5%
생선류	0	0.0%	0	0.0%	0	0.0%	1	1.9%	0	0.0%	1	0.5%
어패류	0	0.0%	0	0.0%	0	0.0%	1	1.9%	0	0.0%	1	0.5%
해조류	0	0.0%	0	0.0%	1	1.6%	2	3.8%	0	0.0%	3	1.6%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1	1.9%	0	0.0%	1	0.5%
견과류	0	0.0%	0	0.0%	1	1.6%	0	0.0%	0	0.0%	1	0.5%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0	0.0%	2	11.8%	3	4.8%	0	0.0%	0	0.0%	5	2.7%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1	1.6%	0	0.0%	0	0.0%	1	0.5%
중식	0	0.0%	0	0.0%	1	1.6%	1	1.9%	0	0.0%	2	1.1%
분식	0	0.0%	1	5.9%	1	1.6%	0	0.0%	0	0.0%	2	1.1%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0	0.0%	2	11.8%	3	4.8%	2	3.8%	0	0.0%	7	3.8%
뷔페	0	0.0%	0	0.0%	1	1.6%	0	0.0%	0	0.0%	1	0.5%
기타식품류	0	0.0%	0	0.0%	1	1.6%	0	0.0%	1	5.3%	2	1.1%
총계	35	100.0%	17	100.0%	63	100.0%	52	100.0%	19	100.0%	186	100.0%

○ 4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189건으로 과자류 15건(7.9%), 패스트푸드점 13건(6.9%), 빵류 11건(5.8%), 분유류와 즉석식품이 각각 10건(5.3%), 곡류가 9건(4.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4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2.5%	3	13.6%	2	4.3%	4	7.5%	1	3.7%	11	5.8%
케익류	0	0.0%	1	4.5%	0	0.0%	3	5.7%	0	0.0%	4	2.1%
떡류	0	0.0%	0	0.0%	4	8.5%	2	3.8%	0	0.0%	6	3.2%
과자류	4	10.0%	0	0.0%	6	12.8%	5	9.4%	0	0.0%	15	7.9%
코코아가공 품류	0	0.0%	0	0.0%	1	2.1%	0	0.0%	0	0.0%	1	0.5%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1	2.1%	0	0.0%	0	0.0%	1	0.5%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 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0	0.0%	0	0.0%	1	2.1%	3	5.7%	1	3.7%	5	2.6%
발효유류	0	0.0%	0	0.0%	0	0.0%	1	1.9%	0	0.0%	1	0.5%
분유류	4	10.0%	0	0.0%	1	2.1%	2	3.8%	3	11.1%	10	5.3%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1	4.5%	1	2.1%	1	1.9%	0	0.0%	3	1.6%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 공품	0	0.0%	0	0.0%	0	0.0%	4	7.5%	0	0.0%	4	2.1%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2	4.3%	0	0.0%	0	0.0%	2	1.1%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1	2.5%	0	0.0%	1	2.1%	0	0.0%	0	0.0%	2	1.1%
라면류	2	5.0%	1	4.5%	1	2.1%	3	5.7%	1	3.7%	8	4.2%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1	2.1%	0	0.0%	0	0.0%	1	0.5%
커피	2	5.0%	0	0.0%	1	2.1%	0	0.0%	3	11.1%	6	3.2%
탄산음료류	0	0.0%	0	0.0%	1	2.1%	1	1.9%	2	7.4%	4	2.1%
과채음료류	0	0.0%	0	0.0%	0	0.0%	2	3.8%	3	11.1%	5	2.6%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 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1	1.9%	0	0.0%	1	0.5%
장류	0	0.0%	0	0.0%	1	2.1%	0	0.0%	0	0.0%	1	0.5%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 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1	2.5%	0	0.0%	1	2.1%	0	0.0%	1	3.7%	3	1.6%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1	2.5%	0	0.0%	2	4.3%	2	3.8%	2	7.4%	7	3.7%
소주	0	0.0%	0	0.0%	1	2.1%	0	0.0%	1	3.7%	2	1.1%

맥주	1	2.5%	1	4.5%	1	2.1%	0	0.0%	0	0.0%	3	1.6%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2	7.4%	2	1.1%
건포류	3	7.5%	1	4.5%	0	0.0%	1	1.9%	0	0.0%	5	2.6%
건강기능식품	1	2.5%	0	0.0%	2	4.3%	0	0.0%	2	7.4%	5	2.6%
기타(건강식품)	0	0.0%	1	4.5%	3	6.4%	1	1.9%	0	0.0%	5	2.6%
즉석식품	5	12.5%	0	0.0%	1	2.1%	3	5.7%	1	3.7%	10	5.3%
쇠고기	0	0.0%	1	4.5%	0	0.0%	2	3.8%	0	0.0%	3	1.6%
돼지고기	0	0.0%	1	4.5%	0	0.0%	0	0.0%	0	0.0%	1	0.5%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1	3.7%	1	0.5%
기타육류	0	0.0%	0	0.0%	2	4.3%	0	0.0%	0	0.0%	2	1.1%
알류	2	5.0%	0	0.0%	0	0.0%	1	1.9%	0	0.0%	3	1.6%
곡류	6	15.0%	0	0.0%	0	0.0%	2	3.8%	1	3.7%	9	4.8%
채소류	1	2.5%	1	4.5%	0	0.0%	0	0.0%	0	0.0%	2	1.1%
과일류	0	0.0%	0	0.0%	0	0.0%	1	1.9%	0	0.0%	1	0.5%
생선류	1	2.5%	1	4.5%	1	2.1%	0	0.0%	0	0.0%	3	1.6%
어패류	0	0.0%	0	0.0%	0	0.0%	1	1.9%	0	0.0%	1	0.5%
해조류	0	0.0%	1	4.5%	0	0.0%	2	3.8%	0	0.0%	3	1.6%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1	4.5%	0	0.0%	0	0.0%	0	0.0%	1	0.5%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3	7.5%	0	0.0%	0	0.0%	0	0.0%	0	0.0%	3	1.6%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1	2.5%	1	4.5%	1	2.1%	2	3.8%	1	3.7%	6	3.2%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1	1.9%	0	0.0%	1	0.5%
분식	0	0.0%	0	0.0%	0	0.0%	1	1.9%	0	0.0%	1	0.5%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0	0.0%	6	27.3%	5	10.6%	1	1.9%	1	3.7%	13	6.9%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2	4.3%	0	0.0%	0	0.0%	2	1.1%
총계	40	100.0%	22	100.0%	47	100.0%	53	100.0%	27	100.0%	189	100.0%

○ 5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207건으로 빵류 18건(8.7%)으로 가장 높고, 분유류와 즉석식품이 각각 17건(8.2%), 과자류와 패스트푸드점이 각각 14건(6.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5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3.7%	0	0.0%	12	16.2%	4	8.5%	0	0.0%	18	8.7%
케익류	1	1.9%	1	7.1%	0	0.0%	0	0.0%	0	0.0%	2	1.0%
떡류	2	3.7%	0	0.0%	1	1.4%	1	2.1%	0	0.0%	4	1.9%
과자류	4	7.4%	1	7.1%	6	8.1%	3	6.4%	0	0.0%	14	6.8%
코코아가공 품류	1	1.9%	0	0.0%	0	0.0%	0	0.0%	0	0.0%	1	0.5%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 류	0	0.0%	0	0.0%	2	2.7%	1	2.1%	1	5.6%	4	1.9%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2	3.7%	0	0.0%	0	0.0%	2	4.3%	1	5.6%	5	2.4%
발효유류	1	1.9%	0	0.0%	0	0.0%	0	0.0%	0	0.0%	1	0.5%
분유류	5	9.3%	0	0.0%	2	2.7%	5	10.6%	5	27.8%	17	8.2%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1	1.9%	0	0.0%	3	4.1%	0	0.0%	0	0.0%	4	1.9%
치킨류	1	1.9%	0	0.0%	0	0.0%	0	0.0%	0	0.0%	1	0.5%
기타육류가 공품	0	0.0%	2	14.3%	1	1.4%	0	0.0%	0	0.0%	3	1.4%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1	1.4%	0	0.0%	0	0.0%	1	0.5%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2	3.7%	0	0.0%	0	0.0%	4	8.5%	0	0.0%	6	2.9%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1	5.6%	1	0.5%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1	1.4%	1	2.1%	1	5.6%	3	1.4%
커피	1	1.9%	0	0.0%	1	1.4%	1	2.1%	1	5.6%	4	1.9%
탄산음료류	0	0.0%	0	0.0%	1	1.4%	1	2.1%	1	5.6%	3	1.4%
과채음료류	0	0.0%	0	0.0%	4	5.4%	2	4.3%	0	0.0%	6	2.9%
생수	1	1.9%	0	0.0%	0	0.0%	0	0.0%	0	0.0%	1	0.5%
특수용도식 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1	1.4%	1	2.1%	0	0.0%	2	1.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 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0	0.0%	0	0.0%	3	4.1%	0	0.0%	0	0.0%	3	1.4%
젓갈류	0	0.0%	0	0.0%	0	0.0%	1	2.1%	0	0.0%	1	0.5%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1	1.9%	1	7.1%	6	8.1%	0	0.0%	0	0.0%	8	3.9%
소주	0	0.0%	0	0.0%	0	0.0%	0	0.0%	1	5.6%	1	0.5%

맥주	1	1.9%	0	0.0%	0	0.0%	1	2.1%	1	5.6%	3	1.4%
포도주	1	1.9%	0	0.0%	0	0.0%	0	0.0%	0	0.0%	1	0.5%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0	0.0%	1	1.4%	0	0.0%	0	0.0%	1	0.5%
건강기능식품	1	1.9%	0	0.0%	1	1.4%	3	6.4%	2	11.1%	7	3.4%
기타(건강식품)	1	1.9%	2	14.3%	0	0.0%	1	2.1%	0	0.0%	4	1.9%
즉석식품	5	9.3%	2	14.3%	6	8.1%	4	8.5%	0	0.0%	17	8.2%
쇠고기	0	0.0%	0	0.0%	2	2.7%	1	2.1%	0	0.0%	3	1.4%
돼지고기	1	1.9%	0	0.0%	0	0.0%	0	0.0%	0	0.0%	1	0.5%
닭고기	0	0.0%	1	7.1%	0	0.0%	0	0.0%	0	0.0%	1	0.5%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3	5.6%	0	0.0%	2	2.7%	2	4.3%	1	5.6%	8	3.9%
채소류	1	1.9%	0	0.0%	1	1.4%	0	0.0%	0	0.0%	2	1.0%
과일류	1	1.9%	0	0.0%	0	0.0%	0	0.0%	0	0.0%	1	0.5%
생선류	1	1.9%	0	0.0%	1	1.4%	0	0.0%	0	0.0%	2	1.0%
어패류	0	0.0%	0	0.0%	0	0.0%	0	0.0%	1	5.6%	1	0.5%
해조류	0	0.0%	0	0.0%	3	4.1%	3	6.4%	0	0.0%	6	2.9%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7	13.0%	0	0.0%	0	0.0%	0	0.0%	0	0.0%	7	3.4%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2	3.7%	1	7.1%	4	5.4%	0	0.0%	0	0.0%	7	3.4%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1	1.9%	0	0.0%	3	4.1%	1	2.1%	0	0.0%	5	2.4%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2	3.7%	3	21.4%	4	5.4%	4	8.5%	1	5.6%	14	6.8%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1	1.9%	0	0.0%	1	1.4%	0	0.0%	0	0.0%	2	1.0%
총계	54	100.0%	14	100.0%	74	100.0%	47	100.0%	18	100.0%	207	100.0%

○ 6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216건으로 즉석식품이 19건(8.8%), 분유류가 13건(6.0%), 빵과 곡류가 각각 12건(5.6%), 패스트푸드점이 11건(5.1%)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6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 않는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2.8%	0	0.0%	6	12.8%	3	5.1%	1	5.0%	12	5.6%
케익류	1	1.4%	0	0.0%	1	2.1%	1	1.7%	0	0.0%	3	1.4%
떡류	1	1.4%	0	0.0%	0	0.0%	0	0.0%	0	0.0%	1	0.5%
과자류	2	2.8%	2	10.5%	2	4.3%	3	5.1%	1	5.0%	10	4.6%
코코아가공 품류	0	0.0%	1	5.3%	0	0.0%	0	0.0%	0	0.0%	1	0.5%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1	1.4%	0	0.0%	1	2.1%	0	0.0%	0	0.0%	2	0.9%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1	2.1%	0	0.0%	1	5.0%	2	0.9%
엿류	0	0.0%	0	0.0%	0	0.0%	1	1.7%	0	0.0%	1	0.5%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 류	3	4.2%	0	0.0%	0	0.0%	3	5.1%	0	0.0%	6	2.8%
빙과류	1	1.4%	0	0.0%	0	0.0%	0	0.0%	0	0.0%	1	0.5%
우유류	1	1.4%	1	5.3%	0	0.0%	2	3.4%	1	5.0%	5	2.3%
발효유류	1	1.4%	0	0.0%	2	4.3%	0	0.0%	0	0.0%	3	1.4%
분유류	4	5.6%	0	0.0%	3	6.4%	5	8.5%	1	5.0%	13	6.0%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1	5.3%	0	0.0%	1	1.7%	0	0.0%	2	0.9%
치킨류	0	0.0%	1	5.3%	0	0.0%	0	0.0%	0	0.0%	1	0.5%
기타육류가 공품	1	1.4%	4	21.1%	2	4.3%	3	5.1%	0	0.0%	10	4.6%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1	1.7%	0	0.0%	1	0.5%
두부류 또는 묵류	1	1.4%	0	0.0%	0	0.0%	0	0.0%	0	0.0%	1	0.5%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1	5.3%	1	2.1%	3	5.1%	0	0.0%	5	2.3%
건면류	0	0.0%	0	0.0%	1	2.1%	0	0.0%	0	0.0%	1	0.5%
생면류	0	0.0%	0	0.0%	3	6.4%	0	0.0%	0	0.0%	3	1.4%
다류	0	0.0%	0	0.0%	1	2.1%	0	0.0%	0	0.0%	1	0.5%
커피	3	4.2%	0	0.0%	1	2.1%	2	3.4%	2	10.0%	8	3.7%
탄산음료류	1	1.4%	0	0.0%	1	2.1%	2	3.4%	0	0.0%	4	1.9%
과채음료류	0	0.0%	0	0.0%	1	2.1%	3	5.1%	0	0.0%	4	1.9%
생수	0	0.0%	0	0.0%	0	0.0%	0	0.0%	4	20.0%	4	1.9%
특수용도식 품(환자식)	0	0.0%	0	0.0%	1	2.1%	0	0.0%	0	0.0%	1	0.5%
이유식	0	0.0%	0	0.0%	0	0.0%	1	1.7%	1	5.0%	2	0.9%
장류	1	1.4%	0	0.0%	2	4.3%	0	0.0%	0	0.0%	3	1.4%
소스류	1	1.4%	0	0.0%	0	0.0%	0	0.0%	0	0.0%	1	0.5%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2	10.0%	2	0.9%
조미료	0	0.0%	0	0.0%	0	0.0%	3	5.1%	0	0.0%	3	1.4%
복합조미식 품	0	0.0%	0	0.0%	0	0.0%	1	1.7%	0	0.0%	1	0.5%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0	0.0%	0	0.0%	0	0.0%	1	1.7%	0	0.0%	1	0.5%
젓갈류	0	0.0%	0	0.0%	0	0.0%	1	1.7%	0	0.0%	1	0.5%
절임식품	1	1.4%	0	0.0%	0	0.0%	0	0.0%	0	0.0%	1	0.5%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1	1.4%	0	0.0%	1	2.1%	1	1.7%	1	5.0%	4	1.9%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1	1.4%	0	0.0%	1	2.1%	1	1.7%	0	0.0%	3	1.4%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1	1.7%	0	0.0%	1	0.5%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1	1.4%	0	0.0%	0	0.0%	0	0.0%	0	0.0%	1	0.5%
건강기능식품	2	2.8%	0	0.0%	2	4.3%	1	1.7%	0	0.0%	5	2.3%
기타(건강식품)	0	0.0%	0	0.0%	0	0.0%	0	0.0%	1	5.0%	1	0.5%
즉석식품	7	9.9%	1	5.3%	5	10.6%	5	8.5%	1	5.0%	19	8.8%
쇠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돼지고기	0	0.0%	3	15.8%	0	0.0%	0	0.0%	1	5.0%	4	1.9%
닭고기	0	0.0%	1	5.3%	0	0.0%	1	1.7%	0	0.0%	2	0.9%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1	1.4%	0	0.0%	0	0.0%	0	0.0%	0	0.0%	1	0.5%
곡류	8	11.3%	0	0.0%	2	4.3%	1	1.7%	1	5.0%	12	5.6%
채소류	5	7.0%	0	0.0%	0	0.0%	1	1.7%	0	0.0%	6	2.8%
과일류	1	1.4%	0	0.0%	0	0.0%	0	0.0%	0	0.0%	1	0.5%
생선류	0	0.0%	0	0.0%	0	0.0%	1	1.7%	0	0.0%	1	0.5%
어패류	1	1.4%	0	0.0%	0	0.0%	0	0.0%	0	0.0%	1	0.5%
해조류	0	0.0%	0	0.0%	1	2.1%	0	0.0%	0	0.0%	1	0.5%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2	2.8%	0	0.0%	0	0.0%	0	0.0%	0	0.0%	2	0.9%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3	4.2%	2	10.5%	2	4.3%	3	5.1%	0	0.0%	10	4.6%
양식	1	1.4%	0	0.0%	0	0.0%	0	0.0%	1	5.0%	2	0.9%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1	1.4%	0	0.0%	0	0.0%	0	0.0%	0	0.0%	1	0.5%
분식	4	5.6%	0	0.0%	1	2.1%	0	0.0%	0	0.0%	5	2.3%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5	7.0%	1	5.3%	2	4.3%	3	5.1%	0	0.0%	11	5.1%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1	1.4%	0	0.0%	0	0.0%	0	0.0%	0	0.0%	1	0.5%
총계	71	100.0%	19	100.0%	47	100.0%	59	100.0%	20	100.0%	216	100.0%

○ 7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253건으로 즉석식품이 21건(8.3%)으로 가장 높고, 과자류와 분유류가 각각 20건(7.9%), 빵이 16건(6.3%), 곡류와 패스트푸드점이 각각 13건(5.1%)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7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5	5.4%	1	8.3%	6	9.1%	4	7.0%	0	0.0%	16	6.3%
케익류	1	1.1%	0	0.0%	0	0.0%	3	5.3%	0	0.0%	4	1.6%
떡류	0	0.0%	0	0.0%	1	1.5%	0	0.0%	0	0.0%	1	0.4%
과자류	7	7.6%	0	0.0%	7	10.6%	4	7.0%	2	7.7%	20	7.9%
코코아가공 품류	3	3.3%	0	0.0%	0	0.0%	0	0.0%	0	0.0%	3	1.2%
잼류	0	0.0%	0	0.0%	1	1.5%	0	0.0%	0	0.0%	1	0.4%
설탕	1	1.1%	0	0.0%	0	0.0%	0	0.0%	0	0.0%	1	0.4%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 류	3	3.3%	0	0.0%	1	1.5%	3	5.3%	0	0.0%	7	2.8%
빙과류	0	0.0%	0	0.0%	1	1.5%	0	0.0%	0	0.0%	1	0.4%
우유류	3	3.3%	0	0.0%	0	0.0%	0	0.0%	2	7.7%	5	2.0%
발효유류	0	0.0%	0	0.0%	1	1.5%	3	5.3%	0	0.0%	4	1.6%
분유류	9	9.8%	0	0.0%	1	1.5%	4	7.0%	6	23.1%	20	7.9%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1	1.8%	0	0.0%	1	0.4%
햄 및 소시지류	2	2.2%	1	8.3%	3	4.5%	0	0.0%	0	0.0%	6	2.4%
치킨류	1	1.1%	1	8.3%	0	0.0%	0	0.0%	0	0.0%	2	0.8%
기타육류가 공품	2	2.2%	1	8.3%	5	7.6%	1	1.8%	0	0.0%	9	3.6%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2	2.2%	2	16.7%	0	0.0%	1	1.8%	0	0.0%	5	2.0%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3	3.3%	0	0.0%	1	1.5%	3	5.3%	0	0.0%	7	2.8%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1	1.8%	0	0.0%	1	0.4%
다류	0	0.0%	0	0.0%	0	0.0%	1	1.8%	0	0.0%	1	0.4%
커피	4	4.3%	0	0.0%	2	3.0%	0	0.0%	1	3.8%	7	2.8%
탄산음료류	0	0.0%	0	0.0%	1	1.5%	0	0.0%	1	3.8%	2	0.8%
과채음료류	0	0.0%	0	0.0%	0	0.0%	4	7.0%	2	7.7%	6	2.4%
생수	0	0.0%	0	0.0%	0	0.0%	1	1.8%	3	11.5%	4	1.6%
특수용도식 품(환자식)	0	0.0%	0	0.0%	1	1.5%	0	0.0%	0	0.0%	1	0.4%
이유식	1	1.1%	0	0.0%	0	0.0%	2	3.5%	1	3.8%	4	1.6%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1	1.8%	0	0.0%	1	0.4%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1	8.3%	1	1.5%	0	0.0%	0	0.0%	2	0.8%
복합조미식 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1	1.1%	0	0.0%	0	0.0%	0	0.0%	0	0.0%	1	0.4%
젓갈류	0	0.0%	0	0.0%	1	1.5%	0	0.0%	0	0.0%	1	0.4%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3	4.5%	2	3.5%	0	0.0%	5	2.0%
소주	1	1.1%	0	0.0%	0	0.0%	1	1.8%	0	0.0%	2	0.8%

맥주	1	1.1%	0	0.0%	1	1.5%	1	1.8%	1	3.8%	4	1.6%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1	1.1%	0	0.0%	0	0.0%	0	0.0%	0	0.0%	1	0.4%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1	8.3%	0	0.0%	1	1.8%	1	3.8%	3	1.2%
건강기능식품	4	4.3%	0	0.0%	1	1.5%	2	3.5%	1	3.8%	8	3.2%
기타(건강식품)	0	0.0%	1	8.3%	2	3.0%	1	1.8%	0	0.0%	4	1.6%
즉석식품	8	8.7%	0	0.0%	6	9.1%	4	7.0%	3	11.5%	21	8.3%
쇠고기	1	1.1%	0	0.0%	0	0.0%	1	1.8%	0	0.0%	2	0.8%
돼지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닭고기	2	2.2%	1	8.3%	1	1.5%	0	0.0%	0	0.0%	4	1.6%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1	1.1%	0	0.0%	0	0.0%	0	0.0%	0	0.0%	1	0.4%
알류	1	1.1%	0	0.0%	0	0.0%	0	0.0%	0	0.0%	1	0.4%
곡류	9	9.8%	0	0.0%	4	6.1%	0	0.0%	0	0.0%	13	5.1%
채소류	1	1.1%	0	0.0%	0	0.0%	0	0.0%	0	0.0%	1	0.4%
과일류	1	1.1%	0	0.0%	1	1.5%	0	0.0%	0	0.0%	2	0.8%
생선류	0	0.0%	1	8.3%	1	1.5%	0	0.0%	1	3.8%	3	1.2%
어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해조류	0	0.0%	0	0.0%	0	0.0%	1	1.8%	0	0.0%	1	0.4%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1	1.1%	0	0.0%	0	0.0%	0	0.0%	0	0.0%	1	0.4%
견과류	3	3.3%	0	0.0%	2	3.0%	0	0.0%	0	0.0%	5	2.0%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2	2.2%	1	8.3%	3	4.5%	0	0.0%	1	3.8%	7	2.8%
양식	0	0.0%	0	0.0%	1	1.5%	0	0.0%	0	0.0%	1	0.4%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1	1.1%	0	0.0%	1	1.5%	0	0.0%	0	0.0%	2	0.8%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5	5.4%	0	0.0%	4	6.1%	4	7.0%	0	0.0%	13	5.1%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1	1.1%	0	0.0%	1	1.5%	2	3.5%	0	0.0%	4	1.6%
총계	92	100.0%	12	100.0%	66	100.0%	57	100.0%	26	100.0%	253	100.0%

○ 8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265건으로 즉석식품이 29건(10.9%)으로 가장 높고, 곡류가 19건(7.2%), 빵이 17건(6.4%), 라면류가 16건(6.0%), 패스트푸드점이 15건(5.7%)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8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2.0%	1	4.5%	6	9.7%	4	8.9%	4	11.8%	17	6.4%
케익류	1	1.0%	0	0.0%	1	1.6%	0	0.0%	0	0.0%	2	0.8%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7	6.9%	1	4.5%	1	1.6%	1	2.2%	1	2.9%	11	4.2%
코코아가공 품류	3	2.9%	0	0.0%	1	1.6%	0	0.0%	0	0.0%	4	1.5%
잼류	0	0.0%	0	0.0%	1	1.6%	0	0.0%	0	0.0%	1	0.4%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 류	0	0.0%	1	4.5%	4	6.5%	3	6.7%	1	2.9%	9	3.4%
빙과류	0	0.0%	0	0.0%	1	1.6%	0	0.0%	0	0.0%	1	0.4%
우유류	0	0.0%	0	0.0%	1	1.6%	0	0.0%	5	14.7%	6	2.3%
발효유류	0	0.0%	1	4.5%	0	0.0%	1	2.2%	0	0.0%	2	0.8%
분유류	3	2.9%	0	0.0%	1	1.6%	1	2.2%	3	8.8%	8	3.0%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2	3.2%	0	0.0%	0	0.0%	2	0.8%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 공품	1	1.0%	0	0.0%	3	4.8%	3	6.7%	1	2.9%	8	3.0%
알가공품	1	1.0%	0	0.0%	0	0.0%	0	0.0%	0	0.0%	1	0.4%
어묵제품류	1	1.0%	0	0.0%	2	3.2%	0	0.0%	0	0.0%	3	1.1%
두부류 또는 묵류	2	2.0%	0	0.0%	0	0.0%	0	0.0%	0	0.0%	2	0.8%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7	6.9%	0	0.0%	5	8.1%	3	6.7%	1	2.9%	16	6.0%
건면류	1	1.0%	0	0.0%	0	0.0%	0	0.0%	0	0.0%	1	0.4%
생면류	0	0.0%	0	0.0%	1	1.6%	0	0.0%	0	0.0%	1	0.4%
다류	4	3.9%	0	0.0%	0	0.0%	0	0.0%	0	0.0%	4	1.5%
커피	2	2.0%	0	0.0%	0	0.0%	1	2.2%	3	8.8%	6	2.3%
탄산음료류	1	1.0%	2	9.1%	1	1.6%	2	4.4%	2	5.9%	8	3.0%
과채음료류	1	1.0%	0	0.0%	2	3.2%	1	2.2%	2	5.9%	6	2.3%
생수	1	1.0%	0	0.0%	0	0.0%	0	0.0%	5	14.7%	6	2.3%
특수용도식 품(환자식)	1	1.0%	0	0.0%	0	0.0%	0	0.0%	0	0.0%	1	0.4%
이유식	2	2.0%	1	4.5%	2	3.2%	0	0.0%	0	0.0%	5	1.9%
장류	0	0.0%	0	0.0%	1	1.6%	0	0.0%	0	0.0%	1	0.4%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 품	1	1.0%	0	0.0%	1	1.6%	1	2.2%	0	0.0%	3	1.1%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1	1.0%	1	4.5%	0	0.0%	0	0.0%	0	0.0%	2	0.8%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5	4.9%	3	13.6%	1	1.6%	3	6.7%	0	0.0%	12	4.5%
소주	1	1.0%	0	0.0%	0	0.0%	1	2.2%	0	0.0%	2	0.8%

맥주	0	0.0%	0	0.0%	1	1.6%	0	0.0%	0	0.0%	1	0.4%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2	2.0%	0	0.0%	0	0.0%	2	4.4%	0	0.0%	4	1.5%
건강기능식품	3	2.9%	0	0.0%	1	1.6%	0	0.0%	0	0.0%	4	1.5%
기타(건강식품)	1	1.0%	1	4.5%	1	1.6%	1	2.2%	0	0.0%	4	1.5%
즉석식품	7	6.9%	2	9.1%	7	11.3%	9	20.0%	4	11.8%	29	10.9%
쇠고기	1	1.0%	0	0.0%	0	0.0%	0	0.0%	0	0.0%	1	0.4%
돼지고기	1	1.0%	1	4.5%	0	0.0%	0	0.0%	0	0.0%	2	0.8%
닭고기	1	1.0%	0	0.0%	0	0.0%	1	2.2%	0	0.0%	2	0.8%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1	1.0%	0	0.0%	1	1.6%	0	0.0%	0	0.0%	2	0.8%
곡류	17	16.7%	0	0.0%	2	3.2%	0	0.0%	0	0.0%	19	7.2%
채소류	2	2.0%	2	9.1%	0	0.0%	0	0.0%	0	0.0%	4	1.5%
과일류	2	2.0%	0	0.0%	2	3.2%	1	2.2%	0	0.0%	5	1.9%
생선류	4	3.9%	0	0.0%	1	1.6%	0	0.0%	0	0.0%	5	1.9%
어패류	0	0.0%	0	0.0%	1	1.6%	1	2.2%	0	0.0%	2	0.8%
해조류	0	0.0%	0	0.0%	1	1.6%	0	0.0%	1	2.9%	2	0.8%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3	2.9%	0	0.0%	0	0.0%	0	0.0%	0	0.0%	3	1.1%
고추가루	1	1.0%	0	0.0%	0	0.0%	0	0.0%	0	0.0%	1	0.4%
한식	1	1.0%	1	4.5%	1	1.6%	1	2.2%	0	0.0%	4	1.5%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1	1.6%	0	0.0%	0	0.0%	1	0.4%
중식	0	0.0%	0	0.0%	0	0.0%	1	2.2%	0	0.0%	1	0.4%
분식	0	0.0%	0	0.0%	0	0.0%	0	0.0%	1	2.9%	1	0.4%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5	4.9%	4	18.2%	3	4.8%	3	6.7%	0	0.0%	15	5.7%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1	1.0%	0	0.0%	1	1.6%	0	0.0%	0	0.0%	2	0.8%
총계	102	100.0%	22	100.0%	62	100.0%	45	100.0%	34	100.0%	265	100.0%

○ 9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246건으로 빵과 곡류가 각각 19건(7.73%)로 높았고, 과자류가 18건(7.3%), 분유류 13건(5.3%), 라면류와 커피가 각각 11건(4.5%)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9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6	5.9%	0	0.0%	10	15.6%	2	6.3%	1	3.4%	19	7.7%
케익류	0	0.0%	0	0.0%	1	1.6%	2	6.3%	0	0.0%	3	1.2%
떡류	0	0.0%	1	5.0%	0	0.0%	0	0.0%	0	0.0%	1	0.4%
과자류	5	5.0%	0	0.0%	10	15.6%	3	9.4%	0	0.0%	18	7.3%
코코아가공 품류	6	5.9%	0	0.0%	0	0.0%	0	0.0%	1	3.4%	7	2.8%
잼류	0	0.0%	0	0.0%	2	3.1%	0	0.0%	0	0.0%	2	0.8%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 류	2	2.0%	1	5.0%	1	1.6%	0	0.0%	1	3.4%	5	2.0%
빙과류	1	1.0%	0	0.0%	0	0.0%	0	0.0%	0	0.0%	1	0.4%
우유류	4	4.0%	0	0.0%	0	0.0%	1	3.1%	4	13.8%	9	3.7%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1	3.4%	1	0.4%
분유류	10	9.9%	1	5.0%	0	0.0%	0	0.0%	2	6.9%	13	5.3%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1	1.6%	0	0.0%	0	0.0%	1	0.4%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 공품	1	1.0%	4	20.0%	2	3.1%	3	9.4%	0	0.0%	10	4.1%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2	10.0%	0	0.0%	0	0.0%	0	0.0%	2	0.8%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6	5.9%	0	0.0%	4	6.3%	0	0.0%	1	3.4%	11	4.5%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1	3.4%	1	0.4%
커피	4	4.0%	0	0.0%	3	4.7%	3	9.4%	1	3.4%	11	4.5%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1	3.1%	0	0.0%	1	0.4%
과채음료류	0	0.0%	2	10.0%	1	1.6%	0	0.0%	1	3.4%	4	1.6%
생수	0	0.0%	0	0.0%	0	0.0%	1	3.1%	5	17.2%	6	2.4%
특수용도식 품(환자식)	1	1.0%	0	0.0%	1	1.6%	0	0.0%	0	0.0%	2	0.8%
이유식	0	0.0%	0	0.0%	1	1.6%	1	3.1%	0	0.0%	2	0.8%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1	1.0%	0	0.0%	0	0.0%	0	0.0%	0	0.0%	1	0.4%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 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0	0.0%	2	10.0%	3	4.7%	0	0.0%	0	0.0%	5	2.0%
젓갈류	1	1.0%	0	0.0%	0	0.0%	0	0.0%	1	3.4%	2	0.8%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1	1.0%	0	0.0%	1	1.6%	0	0.0%	1	3.4%	3	1.2%
소주	3	3.0%	0	0.0%	1	1.6%	0	0.0%	0	0.0%	4	1.6%

맥주	0	0.0%	0	0.0%	0	0.0%	1	3.1%	3	10.3%	4	1.6%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1	1.0%	0	0.0%	0	0.0%	0	0.0%	0	0.0%	1	0.4%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1	5.0%	0	0.0%	0	0.0%	0	0.0%	1	0.4%
건포류	1	1.0%	0	0.0%	3	4.7%	2	6.3%	0	0.0%	6	2.4%
건강기능식품	1	1.0%	0	0.0%	3	4.7%	0	0.0%	2	6.9%	6	2.4%
기타(건강식품)	1	1.0%	0	0.0%	2	3.1%	0	0.0%	0	0.0%	3	1.2%
즉석식품	3	3.0%	0	0.0%	2	3.1%	4	12.5%	0	0.0%	9	3.7%
쇠고기	0	0.0%	0	0.0%	2	3.1%	1	3.1%	0	0.0%	3	1.2%
돼지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닭고기	1	1.0%	1	5.0%	0	0.0%	0	0.0%	0	0.0%	2	0.8%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1	1.0%	0	0.0%	0	0.0%	0	0.0%	0	0.0%	1	0.4%
알류	1	1.0%	0	0.0%	1	1.6%	0	0.0%	0	0.0%	2	0.8%
곡류	17	16.8%	0	0.0%	0	0.0%	1	3.1%	1	3.4%	19	7.7%
채소류	2	2.0%	0	0.0%	0	0.0%	0	0.0%	0	0.0%	2	0.8%
과일류	4	4.0%	1	5.0%	0	0.0%	0	0.0%	0	0.0%	5	2.0%
생선류	5	5.0%	1	5.0%	0	0.0%	0	0.0%	0	0.0%	6	2.4%
어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해조류	0	0.0%	0	0.0%	1	1.6%	0	0.0%	0	0.0%	1	0.4%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1	3.1%	0	0.0%	1	0.4%
견과류	4	4.0%	1	5.0%	0	0.0%	0	0.0%	0	0.0%	5	2.0%
고추가루	1	1.0%	0	0.0%	1	1.6%	0	0.0%	0	0.0%	2	0.8%
한식	4	4.0%	0	0.0%	4	6.3%	1	3.1%	0	0.0%	9	3.7%
양식	0	0.0%	0	0.0%	1	1.6%	0	0.0%	0	0.0%	1	0.4%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1	1.0%	0	0.0%	0	0.0%	0	0.0%	0	0.0%	1	0.4%
분식	0	0.0%	0	0.0%	0	0.0%	2	6.3%	0	0.0%	2	0.8%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1	1.0%	2	10.0%	2	3.1%	2	6.3%	1	3.4%	8	3.3%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1	3.4%	1	0.4%
총계	101	100.0%	20	100.0%	64	100.0%	32	100.0%	29	100.0%	246	100.0%

○ 10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206건으로 즉석식품이 18건(8.7%), 과자류가 15건(7.3%), 분유류와 곡류가 각각 11건(5.3%), 기타육류가공품이 10건(4.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10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	3.4%	1	5.3%	1	2.7%	4	8.2%	0	0.0%	9	4.4%
케익류	0	0.0%	0	0.0%	2	5.4%	0	0.0%	0	0.0%	2	1.0%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5	5.6%	2	10.5%	4	10.8%	4	8.2%	0	0.0%	15	7.3%
코코아가공품류	6	6.7%	0	0.0%	0	0.0%	0	0.0%	0	0.0%	6	2.9%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0	0.0%	0	0.0%	1	2.7%	0	0.0%	0	0.0%	1	0.5%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류	1	1.1%	0	0.0%	1	2.7%	0	0.0%	0	0.0%	2	1.0%
빙과류	0	0.0%	0	0.0%	1	2.7%	0	0.0%	0	0.0%	1	0.5%
우유류	0	0.0%	0	0.0%	1	2.7%	2	4.1%	3	25.0%	6	2.9%
발효유류	0	0.0%	0	0.0%	0	0.0%	1	2.0%	0	0.0%	1	0.5%
분유류	7	7.9%	0	0.0%	0	0.0%	2	4.1%	2	16.7%	11	5.3%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1	5.3%	2	5.4%	4	8.2%	0	0.0%	7	3.4%
치킨류	0	0.0%	2	10.5%	0	0.0%	0	0.0%	0	0.0%	2	1.0%
기타육류가공품	2	2.2%	4	21.1%	1	2.7%	3	6.1%	0	0.0%	10	4.9%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1	1.1%	0	0.0%	0	0.0%	1	2.0%	0	0.0%	2	1.0%
식용유지류	1	1.1%	0	0.0%	0	0.0%	0	0.0%	0	0.0%	1	0.5%
라면류	4	4.5%	0	0.0%	1	2.7%	2	4.1%	0	0.0%	7	3.4%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다류	7	7.9%	0	0.0%	1	2.7%	1	2.0%	0	0.0%	9	4.4%
커피	2	2.2%	0	0.0%	0	0.0%	1	2.0%	1	8.3%	4	1.9%
탄산음료류	0	0.0%	0	0.0%	1	2.7%	1	2.0%	1	8.3%	3	1.5%
과채음료류	2	2.2%	0	0.0%	0	0.0%	1	2.0%	0	0.0%	3	1.5%
생수	0	0.0%	0	0.0%	0	0.0%	3	6.1%	3	25.0%	6	2.9%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1	1.1%	0	0.0%	0	0.0%	0	0.0%	0	0.0%	1	0.5%
장류	1	1.1%	0	0.0%	0	0.0%	0	0.0%	0	0.0%	1	0.5%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1	2.7%	0	0.0%	0	0.0%	1	0.5%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3	3.4%	0	0.0%	1	2.7%	2	4.1%	0	0.0%	6	2.9%
젓갈류	0	0.0%	0	0.0%	1	2.7%	0	0.0%	0	0.0%	1	0.5%
절임식품	1	1.1%	0	0.0%	0	0.0%	0	0.0%	0	0.0%	1	0.5%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3	3.4%	0	0.0%	1	2.7%	0	0.0%	0	0.0%	4	1.9%
소주	2	2.2%	0	0.0%	1	2.7%	0	0.0%	0	0.0%	3	1.5%

맥주	0	0.0%	0	0.0%	0	0.0%	0	0.0%	1	8.3%	1	0.5%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1	2.0%	0	0.0%	1	0.5%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2	2.2%	0	0.0%	0	0.0%	0	0.0%	0	0.0%	2	1.0%
건포류	1	1.1%	0	0.0%	0	0.0%	0	0.0%	0	0.0%	1	0.5%
건강기능식품	2	2.2%	3	15.8%	2	5.4%	2	4.1%	0	0.0%	9	4.4%
기타(건강식품)	2	2.2%	0	0.0%	2	5.4%	0	0.0%	1	8.3%	5	2.4%
즉석식품	4	4.5%	5	26.3%	3	8.1%	6	12.2%	0	0.0%	18	8.7%
쇠고기	0	0.0%	0	0.0%	1	2.7%	0	0.0%	0	0.0%	1	0.5%
돼지고기	1	1.1%	0	0.0%	0	0.0%	0	0.0%	0	0.0%	1	0.5%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1	1.1%	0	0.0%	0	0.0%	0	0.0%	0	0.0%	1	0.5%
곡류	8	9.0%	1	5.3%	0	0.0%	2	4.1%	0	0.0%	11	5.3%
채소류	2	2.2%	0	0.0%	1	2.7%	0	0.0%	0	0.0%	3	1.5%
과일류	3	3.4%	0	0.0%	0	0.0%	0	0.0%	0	0.0%	3	1.5%
생선류	3	3.4%	0	0.0%	0	0.0%	0	0.0%	0	0.0%	3	1.5%
어패류	3	3.4%	0	0.0%	1	2.7%	1	2.0%	0	0.0%	5	2.4%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2	2.2%	0	0.0%	0	0.0%	0	0.0%	0	0.0%	2	1.0%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1	1.1%	0	0.0%	3	8.1%	2	4.1%	0	0.0%	6	2.9%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1	2.7%	1	2.0%	0	0.0%	2	1.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2	2.2%	0	0.0%	1	2.7%	1	2.0%	0	0.0%	4	1.9%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1	2.0%	0	0.0%	1	0.5%
총계	89	100.0%	19	100.0%	37	100.0%	49	100.0%	12	100.0%	206	100.0%

○ 11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258건으로 즉석식품이 25건(9.7%). 빵이 17건(6.6%), 과자류와 분유류가 각각 16건(6.2%), 곡류가 14건(5.4%)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11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5	5.5%	2	8.3%	4	7.5%	6	9.4%	0	0.0%	17	6.6%
케익류	1	1.1%	3	12.5%	2	3.8%	0	0.0%	0	0.0%	6	2.3%
떡류	0	0.0%	1	4.2%	1	1.9%	0	0.0%	0	0.0%	2	0.8%
과자류	8	8.8%	0	0.0%	5	9.4%	2	3.1%	1	3.8%	16	6.2%
코코아가공품류	9	9.9%	0	0.0%	0	0.0%	0	0.0%	0	0.0%	9	3.5%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1	1.6%	0	0.0%	1	0.4%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류	0	0.0%	1	4.2%	1	1.9%	0	0.0%	0	0.0%	2	0.8%
우유류	0	0.0%	1	4.2%	0	0.0%	0	0.0%	4	15.4%	5	1.9%
발효유류	0	0.0%	0	0.0%	1	1.9%	0	0.0%	0	0.0%	1	0.4%
분유류	8	8.8%	1	4.2%	1	1.9%	4	6.3%	2	7.7%	16	6.2%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2	3.1%	0	0.0%	2	0.8%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1	1.9%	2	3.1%	0	0.0%	3	1.2%
치킨류	0	0.0%	1	4.2%	1	1.9%	1	1.6%	0	0.0%	3	1.2%
기타육류가공품	0	0.0%	0	0.0%	2	3.8%	0	0.0%	0	0.0%	2	0.8%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1	4.2%	0	0.0%	1	1.6%	0	0.0%	2	0.8%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1	1.9%	0	0.0%	0	0.0%	1	0.4%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1	3.8%	1	0.4%
라면류	5	5.5%	0	0.0%	0	0.0%	2	3.1%	0	0.0%	7	2.7%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1	1.1%	0	0.0%	2	3.8%	0	0.0%	0	0.0%	3	1.2%
커피	4	4.4%	0	0.0%	0	0.0%	3	4.7%	3	11.5%	10	3.9%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0	0.0%	0	0.0%	2	3.8%	0	0.0%	3	11.5%	5	1.9%
생수	0	0.0%	0	0.0%	0	0.0%	1	1.6%	2	7.7%	3	1.2%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1	1.9%	0	0.0%	0	0.0%	1	0.4%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1	1.1%	0	0.0%	0	0.0%	3	4.7%	0	0.0%	4	1.6%
복합조미식품	0	0.0%	1	4.2%	0	0.0%	0	0.0%	0	0.0%	1	0.4%
김치류	1	1.1%	1	4.2%	2	3.8%	0	0.0%	0	0.0%	4	1.6%
젓갈류	1	1.1%	0	0.0%	0	0.0%	2	3.1%	1	3.8%	4	1.6%
절임식품	1	1.1%	0	0.0%	0	0.0%	0	0.0%	0	0.0%	1	0.4%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2	2.2%	0	0.0%	0	0.0%	1	1.6%	0	0.0%	3	1.2%
소주	0	0.0%	0	0.0%	0	0.0%	0	0.0%	1	3.8%	1	0.4%
맥주	1	1.1%	0	0.0%	0	0.0%	1	1.6%	2	7.7%	4	1.6%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주, 청주 등)												
건포류	0	0.0%	1	4.2%	0	0.0%	1	1.6%	0	0.0%	2	0.8%
건강기능식품	3	3.3%	2	8.3%	1	1.9%	2	3.1%	5	19.2%	13	5.0%
기타(건강식품)	0	0.0%	0	0.0%	2	3.8%	2	3.1%	0	0.0%	4	1.6%
즉석식품	4	4.4%	5	20.8%	8	15.1%	8	12.5%	0	0.0%	25	9.7%
쇠고기	2	2.2%	1	4.2%	0	0.0%	0	0.0%	0	0.0%	3	1.2%
돼지고기	1	1.1%	0	0.0%	0	0.0%	0	0.0%	0	0.0%	1	0.4%
닭고기	3	3.3%	0	0.0%	1	1.9%	3	4.7%	0	0.0%	7	2.7%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1	1.9%	0	0.0%	0	0.0%	1	0.4%
알류	2	2.2%	0	0.0%	0	0.0%	0	0.0%	0	0.0%	2	0.8%
곡류	9	9.9%	0	0.0%	3	5.7%	2	3.1%	0	0.0%	14	5.4%
채소류	1	1.1%	0	0.0%	0	0.0%	0	0.0%	0	0.0%	1	0.4%
과일류	4	4.4%	0	0.0%	1	1.9%	1	1.6%	1	3.8%	7	2.7%
생선류	1	1.1%	0	0.0%	1	1.9%	0	0.0%	0	0.0%	2	0.8%
어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해조류	0	0.0%	0	0.0%	3	5.7%	2	3.1%	0	0.0%	5	1.9%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1	1.9%	0	0.0%	0	0.0%	1	0.4%
견과류	5	5.5%	0	0.0%	0	0.0%	2	3.1%	0	0.0%	7	2.7%
고추가루	0	0.0%	0	0.0%	0	0.0%	1	1.6%	0	0.0%	1	0.4%
한식	3	3.3%	0	0.0%	1	1.9%	2	3.1%	0	0.0%	6	2.3%
양식	1	1.1%	0	0.0%	0	0.0%	0	0.0%	0	0.0%	1	0.4%
일식	1	1.1%	0	0.0%	0	0.0%	0	0.0%	0	0.0%	1	0.4%
중식	1	1.1%	0	0.0%	0	0.0%	0	0.0%	0	0.0%	1	0.4%
분식	0	0.0%	0	0.0%	0	0.0%	1	1.6%	0	0.0%	1	0.4%
패스트푸드점	2	2.2%	2	8.3%	3	5.7%	4	6.3%	0	0.0%	11	4.3%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1	1.6%	0	0.0%	1	0.4%
총계	91	100.0%	24	100.0%	53	100.0%	64	100.0%	26	100.0%	258	100.0%

- 12월 이물질 불만사례는 총 191건으로 빵이 15건(7.9%), 우유류가 13건(6.9%), 과자류가 12건(6.3%), 즉석식품이 11건(5.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물질 상담 건수(12월)

품목	벌레		머리카락/털/뼈		다칠수있음		다치지는 않음		침전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	4.8%	4	25.0%	3	6.7%	5	10.9%	0	0.0%	15	7.9%
케익류	0	0.0%	0	0.0%	2	4.4%	1	2.2%	0	0.0%	3	1.6%
떡류	1	1.6%	0	0.0%	4	8.9%	0	0.0%	0	0.0%	5	2.6%
과자류	2	3.2%	2	12.5%	5	11.1%	3	6.5%	0	0.0%	12	6.3%
코코아가공품류	2	3.2%	0	0.0%	0	0.0%	2	4.3%	0	0.0%	4	2.1%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1	2.2%	0	0.0%	0	0.0%	1	0.5%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1	1.6%	0	0.0%	0	0.0%	0	0.0%	0	0.0%	1	0.5%
아이스크림류	0	0.0%	1	6.3%	1	2.2%	0	0.0%	0	0.0%	2	1.0%
우유류	2	3.2%	0	0.0%	3	6.7%	2	4.3%	6	28.6%	13	6.8%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6	9.5%	0	0.0%	0	0.0%	2	4.3%	0	0.0%	8	4.2%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1	6.3%	0	0.0%	2	4.3%	0	0.0%	3	1.6%
기타육류가공품	0	0.0%	0	0.0%	1	2.2%	1	2.2%	0	0.0%	2	1.0%
어묵제품류	1	1.6%	0	0.0%	1	2.2%	1	2.2%	0	0.0%	3	1.6%
두부류 또는 묵류	1	1.6%	0	0.0%	1	2.2%	1	2.2%	0	0.0%	3	1.6%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1	2.2%	0	0.0%	1	0.5%
라면류	3	4.8%	0	0.0%	0	0.0%	1	2.2%	0	0.0%	4	2.1%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3	4.8%	0	0.0%	0	0.0%	1	2.2%	1	4.8%	5	2.6%
커피	0	0.0%	0	0.0%	0	0.0%	3	6.5%	2	9.5%	5	2.6%
탄산음료류	0	0.0%	0	0.0%	1	2.2%	1	2.2%	0	0.0%	2	1.0%
과채음료류	0	0.0%	0	0.0%	1	2.2%	0	0.0%	0	0.0%	1	0.5%
생수	0	0.0%	0	0.0%	0	0.0%	1	2.2%	2	9.5%	3	1.6%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1	1.6%	0	0.0%	0	0.0%	0	0.0%	0	0.0%	1	0.5%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2	9.5%	2	1.0%
조미료	0	0.0%	0	0.0%	0	0.0%	1	2.2%	1	4.8%	2	1.0%
김치류	3	4.8%	1	6.3%	0	0.0%	0	0.0%	1	4.8%	5	2.6%
젓갈류	1	1.6%	0	0.0%	2	4.4%	0	0.0%	1	4.8%	4	2.1%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1	1.6%	0	0.0%	0	0.0%	0	0.0%	0	0.0%	1	0.5%
조림식품	0	0.0%	0	0.0%	1	2.2%	1	2.2%	0	0.0%	2	1.0%
소주	0	0.0%	0	0.0%	0	0.0%	0	0.0%	2	9.5%	2	1.0%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2	3.2%	0	0.0%	0	0.0%	1	2.2%	0	0.0%	3	1.6%
건강기능식품	1	1.6%	0	0.0%	2	4.4%	2	4.3%	2	9.5%	7	3.7%
기타(건강식품)	2	3.2%	0	0.0%	1	2.2%	0	0.0%	0	0.0%	3	1.6%
즉석식품	3	4.8%	1	6.3%	3	6.7%	4	8.7%	0	0.0%	11	5.8%
쇠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돼지고기	1	1.6%	1	6.3%	0	0.0%	0	0.0%	0	0.0%	2	1.0%

닭고기	3	4.8%	1	6.3%	0	0.0%	0	0.0%	0	0.0%	4	2.1%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1	1.6%	0	0.0%	0	0.0%	0	0.0%	0	0.0%	1	0.5%
곡류	8	12.7%	0	0.0%	2	4.4%	0	0.0%	0	0.0%	10	5.2%
채소류	3	4.8%	0	0.0%	0	0.0%	0	0.0%	0	0.0%	3	1.6%
과일류	0	0.0%	0	0.0%	0	0.0%	0	0.0%	1	4.8%	1	0.5%
생선류	3	4.8%	1	6.3%	1	2.2%	0	0.0%	0	0.0%	5	2.6%
어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해조류	1	1.6%	0	0.0%	0	0.0%	1	2.2%	0	0.0%	2	1.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2	3.2%	0	0.0%	1	2.2%	0	0.0%	0	0.0%	3	1.6%
고추가루	0	0.0%	0	0.0%	1	2.2%	0	0.0%	0	0.0%	1	0.5%
한식	1	1.6%	0	0.0%	4	8.9%	5	10.9%	0	0.0%	10	5.2%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1	2.2%	0	0.0%	0	0.0%	1	0.5%
중식	0	0.0%	0	0.0%	1	2.2%	0	0.0%	0	0.0%	1	0.5%
분식	0	0.0%	1	6.3%	0	0.0%	1	2.2%	0	0.0%	2	1.0%
패스트푸드점	1	1.6%	1	6.3%	1	2.2%	2	4.3%	0	0.0%	5	2.6%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1	6.3%	0	0.0%	0	0.0%	0	0.0%	1	0.5%
총계	63	100.0%	16	100.0%	45	100.0%	46	100.0%	21	100.0%	191	100.0%

○ 2017년 식품 이물질 상담 사례

(1월)

- GS25 편의점 가온에프에스 햄버거(투명한 비닐), 콜마트 고르곤졸라피자(사기조각), 서브웨이 샌드위치(이빨조각), 동원에프엔비 고등어 통조림(지렁이의심), 강릉롯데리아햄버거(이물질, 목에서피남), 원주버거킹햄버거(칼날), 창원KFC치킨(바퀴벌레), 삼립식품야채호빵(오돌뼈,치아손상), 청담동SSG 힐로스 포레스트 크런치시리얼(애벌레2마리), 분유(벌레)

(2월~3월)

- 이유식 : 위메프 구입제품(검정색 섬유 이물질), 웰빙지(시멘트 부서진 듯한 이물질), 백스코 박람회 구입한 쟁죽(검정색 쫄면가루), 오가닉맘 구입제품(나무로 추정, 매우 단단하고 뽕죽한 0.5cm), 푸드케어 배달이유식(닭뼈)
- 조림식품 : 동서식품 통조림(벌레), 동원참치(검은이물질), 샘표 백도복숭아(애벌레)
- 라면류 : 팔도 왕뚜껑(머리카락), 농심라면(머리카락), 삼양식품 라면(거미)
- 즉석식품 : 옥션 참맛식품 내장탕(돌), 더반찬 쇼펍물 갈비탕(실), 온라인쇼펍물 삼계탕(벌레), 동원 새우만두(손톱), 풀무원 육개장(벌레), 청정원 스위트카레(뽕죽한 나무), 비비고 육개장(2cm철사), 원푸드드림 CU우삼겹정식(머리카락), 비비고 육개장(플라스틱, 곰팡이)

(4월~5월)

- 패스트푸드점 : KFC 햄버거(돌), 배달의민족 피자헛(돌, 치아파손), 버거킹 햄버거(1cm 쪼갠조각), 도미노피자(방습제, 고온 노출 시 위해가능성), 맥도날드 햄버거(플라스틱) 등
- 조림식품 : 하림 작두콩 통조림(플라스틱추정되는 딱딱한 이물질), 동원 참치캔(낚시줄, 투명비닐), 동원 정통불고기참치캔(머리카락), 동원참치캔(2.5cm 플라스틱 필름), 롯데마트 구입 사조참치(플라스틱이물질), 콩치 통조림(사람치아), 동원 고추참치(사람 손톱추정 이물질, 제조과정

나올 수 없다고 함),

- 분유류 : 매일분유 애플루트명작(1cm의 긴 이물질, 성분문의), 매일유업(벌레), 남양유업 아이엠마더(발이달린 벌레), 남양유업(작은 쇳조각, 분유포장재질과 성분이 다르다고 함, 혼입가능성 문의)

(6월~7월)

- 즉석식품 : 오뚜기 국수장국 멸치맛(시커먼덩어리), 맛있는 오뚜기밥(파리), GS편의점 놀부 위대한 핫도그(철사,수술하여 제거), GS육천도시락(벌레), 강북터미널 미니스톱 닭꼬치(벌레), 오뚜기 전복죽(주황색끈), 오봉도시락(애벌레) 등
- 패스트푸드점 : 강남KFC(초록색플라스틱), 맘스터치(이물질), 롯데리아햄버거(좌석표붙이는번호표), 맥도날드햄버거(쇠덩이 의심, 치아손상), 롯데리아 양념감자(바퀴벌레), 롯데리아 감자튀김(벌레), 롯데리아(플라스틱 이물질) 등
- 기타육류가공품 : 훈제닭다리(딱딱한이물질, 빠인지 판별요청), 하림치킨너겟(플라스틱), 편의점만두(벌레), 초록마을교자만두 (작은플라스틱), GS슈퍼마켓 머쉬룸 함박스테이크(벌레사체) 해태제과 고향만두(철수세미) 등

(8월~9월)

- 즉석식품 : 배민플레이시 케이준샐러드(살아있는 벌레), 편의점 삼각김밥(이물질), GS편의점 햄버거, 농심 봉지감자탕(고무줄), CJ제일제당 미역국컵반(날파리사체), 오뚜기컵밥(소스의 이물질), 해태제과식품 만두(철수세미) 등
- 분유류 : 파스퇴르 위드맘(개봉 12시간후 살아있는 애벌레혼입 / 약 한달전 구입한 분유에서 마른벌레 / 쿠광 구입 - 살아있는 벌레),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분유(벌레) 등
- 기타육류가공품 : 목우촌 오리슬라이스(못, 치아2개파절), 슈퍼마켓 비엔나소세지(벌레), 편의점 스낵순대(쥐똥, 유통기한안보임), 양념육(비닐), 수입양념돼지불고기(뼈, 원산지미국, 수입제품의 경우 뼈가 없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문의), 해태제과 고향손만두(비닐) 등
- 커피 : 동서식품 카누(쥐머느리), 동서식품 1회용믹스커피(플라스틱), 한국네슬레(벌레), 자판기커피(벌레), 커피숍(칸타타 프리미엄 라떼, 이물질(담배재)),/커피숍(플라스틱, 목에 상처) 등
- 조림식품 : 황도 통조림(벌레), 사조참치캔(벌레(모기)), 참치캔(플라스틱), 동원 고등어캔(담배꽂초), 한성기업 골뱅이통조림 (담배필터), 동원 참치앤크래커(검고긴이물질) 등

(10월)

- 즉석식품 : 소셜커머스 정인회 다이어트도시락(손톱), 소셜커머스 햇반(쌀알에 박힌 벌레), 천일식품 새우볶음밥(손톱으로 추정), 홈쇼핑 육개장(파리), 홈플러스구입 냉동피자(플라스틱) 반찬전문점 장독대(작업복장 그대로 화장실이용), 배달국 아기이유식 정기배달(이물질), 베베큐 이유식(벌레), CJ함박스테이크(이물질), 해태냉동만두(가시) 등
- 기타육류가공품 : 사조산업 햄(이물질), 편육(4cm 뼈), 동양냉동푸드(양념돼지갈비, 파리) 등
- 다류 : 오설록 녹차가루(매미유충 다리, 날개 등), 차 세트(구더기), 담터 울무차(벌레), 허브차(벌레), 요거트분말가루(벌레), 담터 티(플라스틱) 등

(2) 이상증세

○ 1월~12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2,323건으로 건강기능식품 442건(19.0%), 기타(건강식품) 248건(10.7%), 빵 137건(5.9%). 즉석식품 117건(5.0%), 패스트푸드점이 116건(5.0%)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1월~12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 이상증세		총합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빵	72	6.5%	1	1.9%	38	11.8%	10	5.4%	7	7.8%	9	1.6%	137	5.9%
케익류	8	0.7%	0	0.0%	0	0.0%	5	2.7%	1	1.1%	1	0.2%	15	0.6%
떡류	5	0.5%	1	1.9%	10	3.1%	1	0.5%	1	1.1%	1	0.2%	19	0.8%
과자류	25	2.3%	0	0.0%	49	15.2%	7	3.8%	0	0.0%	10	1.7%	91	3.9%
코코아가공품류	6	0.5%	0	0.0%	9	2.8%	4	2.2%	0	0.0%	0	0.0%	19	0.8%
잼류	1	0.1%	0	0.0%	1	0.3%	0	0.0%	0	0.0%	0	0.0%	2	0.1%
설탕	2	0.2%	0	0.0%	1	0.3%	0	0.0%	0	0.0%	0	0.0%	3	0.1%
포도당/과당	1	0.1%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꿀	0	0.0%	0	0.0%	1	0.3%	0	0.0%	0	0.0%	1	0.2%	2	0.1%
엿류	0	0.0%	0	0.0%	5	1.5%	0	0.0%	0	0.0%	1	0.2%	6	0.3%
당시럽류	0	0.0%	0	0.0%	2	0.6%	0	0.0%	0	0.0%	0	0.0%	2	0.1%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류	10	0.9%	1	1.9%	16	5.0%	1	0.5%	1	1.1%	0	0.0%	29	1.2%
빙과류	3	0.3%	0	0.0%	6	1.9%	0	0.0%	0	0.0%	0	0.0%	9	0.4%
우유류	79	7.2%	2	3.8%	1	0.3%	1	0.5%	0	0.0%	10	1.7%	93	4.0%
발효우유	19	1.7%	0	0.0%	2	0.6%	1	0.5%	0	0.0%	2	0.3%	24	1.0%
분유류	20	1.8%	1	1.9%	0	0.0%	3	1.6%	1	1.1%	4	0.7%	29	1.2%
치즈·버터류	7	0.6%	0	0.0%	0	0.0%	0	0.0%	0	0.0%	2	0.3%	9	0.4%
햄 및 소시지류	13	1.2%	0	0.0%	6	1.9%	2	1.1%	0	0.0%	1	0.2%	22	0.9%
치킨류	7	0.6%	0	0.0%	1	0.3%	0	0.0%	1	1.1%	0	0.0%	9	0.4%
기타육류가공품	29	2.6%	0	0.0%	11	3.4%	2	1.1%	5	5.6%	2	0.3%	49	2.1%
알가공품	2	0.2%	0	0.0%	1	0.3%	0	0.0%	0	0.0%	1	0.2%	4	0.2%
어묵제품류	11	1.0%	0	0.0%	3	0.9%	2	1.1%	1	1.1%	1	0.2%	18	0.8%
두부류 또는 묵류	7	0.6%	0	0.0%	0	0.0%	0	0.0%	0	0.0%	3	0.5%	10	0.4%
식용유지류	1	0.1%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라면류	5	0.5%	1	1.9%	6	1.9%	1	0.5%	0	0.0%	3	0.5%	16	0.7%
건면류	3	0.3%	0	0.0%	0	0.0%	0	0.0%	0	0.0%	0	0.0%	3	0.1%
생면류	1	0.1%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다류	4	0.4%	0	0.0%	0	0.0%	1	0.5%	0	0.0%	6	1.0%	11	0.5%
커피	9	0.8%	0	0.0%	0	0.0%	2	1.1%	0	0.0%	2	0.3%	13	0.6%
탄산음료류	11	1.0%	0	0.0%	1	0.3%	0	0.0%	0	0.0%	8	1.4%	20	0.9%
과채음료류	35	3.2%	1	1.9%	3	0.9%	0	0.0%	0	0.0%	14	2.4%	53	2.3%
생수	13	1.2%	0	0.0%	0	0.0%	3	1.6%	0	0.0%	1	0.2%	17	0.7%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1	1.0%	3	5.8%	0	0.0%	2	1.1%	0	0.0%	17	3.0%	33	1.4%
이유식	2	0.2%	0	0.0%	0	0.0%	2	1.1%	0	0.0%	0	0.0%	4	0.2%
장류	1	0.1%	0	0.0%	0	0.0%	1	0.5%	0	0.0%	0	0.0%	2	0.1%
소스류	1	0.1%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1	0.1%	0	0.0%	1	0.3%	0	0.0%	0	0.0%	0	0.0%	2	0.1%
복합조미식품	1	0.1%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2	0.2%	1	1.9%	4	1.2%	0	0.0%	0	0.0%	1	0.2%	8	0.3%
젓갈류	7	0.6%	1	1.9%	0	0.0%	2	1.1%	0	0.0%	0	0.0%	10	0.4%
절임식품	1	0.1%	0	0.0%	4	1.2%	0	0.0%	0	0.0%	0	0.0%	5	0.2%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3	0.3%	0	0.0%	4	1.2%	0	0.0%	0	0.0%	1	0.2%	8	0.3%
소주	4	0.4%	0	0.0%	0	0.0%	0	0.0%	0	0.0%	1	0.2%	5	0.2%
맥주	3	0.3%	0	0.0%	0	0.0%	0	0.0%	1	1.1%	1	0.2%	5	0.2%
포도주	9	0.8%	0	0.0%	0	0.0%	2	1.1%	0	0.0%	0	0.0%	11	0.5%

탁약주(막걸리)	5	0.5%	0	0.0%	1	0.3%	0	0.0%	0	0.0%	0	0.0%	6	0.3%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2	0.2%	0	0.0%	0	0.0%	1	0.5%	0	0.0%	0	0.0%	3	0.1%
건포류	8	0.7%	0	0.0%	11	3.4%	2	1.1%	3	3.3%	3	0.5%	27	1.2%
건강기능식품	115	10.5%	9	17.3%	1	0.3%	40	21.6%	3	3.3%	274	47.8%	442	19.0%
기타(건강식품)	78	7.1%	17	32.7%	2	0.6%	36	19.5%	3	3.3%	112	19.5%	248	10.7%
즉석식품	65	5.9%	1	1.9%	29	9.0%	10	5.4%	2	2.2%	10	1.7%	117	5.0%
쇠고기	14	1.3%	0	0.0%	3	0.9%	2	1.1%	2	2.2%	2	0.3%	23	1.0%
돼지고기	6	0.5%	0	0.0%	2	0.6%	1	0.5%	0	0.0%	1	0.2%	10	0.4%
닭고기	13	1.2%	0	0.0%	2	0.6%	1	0.5%	3	3.3%	1	0.2%	20	0.9%
오리고기	3	0.3%	0	0.0%	0	0.0%	0	0.0%	0	0.0%	1	0.2%	4	0.2%
기타육류	3	0.3%	1	1.9%	4	1.2%	0	0.0%	0	0.0%	0	0.0%	8	0.3%
알류	17	1.5%	2	3.8%	0	0.0%	6	3.2%	0	0.0%	4	0.7%	29	1.2%
곡류	6	0.5%	0	0.0%	7	2.2%	1	0.5%	0	0.0%	3	0.5%	17	0.7%
채소류	10	0.9%	0	0.0%	1	0.3%	1	0.5%	1	1.1%	5	0.9%	18	0.8%
과일류	18	1.6%	1	1.9%	3	0.9%	1	0.5%	1	1.1%	2	0.3%	26	1.1%
생선류	39	3.5%	1	1.9%	1	0.3%	3	1.6%	12	13.3%	2	0.3%	58	2.5%
어패류	51	4.6%	3	5.8%	3	0.9%	3	1.6%	13	14.4%	9	1.6%	82	3.5%
해조류	3	0.3%	0	0.0%	6	1.9%	1	0.5%	0	0.0%	1	0.2%	11	0.5%
식용종자버섯류	2	0.2%	0	0.0%	0	0.0%	2	1.1%	0	0.0%	3	0.5%	7	0.3%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0.2%	1	0.0%
약용작물류	3	0.3%	1	1.9%	0	0.0%	0	0.0%	0	0.0%	2	0.3%	6	0.3%
견과류	5	0.5%	0	0.0%	6	1.9%	5	2.7%	0	0.0%	6	1.0%	22	0.9%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43	3.9%	0	0.0%	27	8.4%	5	2.7%	11	12.2%	7	1.2%	93	4.0%
양식	3	0.3%	0	0.0%	0	0.0%	0	0.0%	0	0.0%	2	0.3%	5	0.2%
일식	34	3.1%	1	1.9%	0	0.0%	0	0.0%	9	10.0%	3	0.5%	47	2.0%
중식	8	0.7%	0	0.0%	1	0.3%	0	0.0%	0	0.0%	0	0.0%	9	0.4%
분식	14	1.3%	0	0.0%	0	0.0%	0	0.0%	0	0.0%	2	0.3%	16	0.7%
노점상	0	0.0%	0	0.0%	1	0.3%	1	0.5%	0	0.0%	1	0.2%	3	0.1%
패스트푸드점	70	6.4%	2	3.8%	22	6.8%	7	3.8%	3	3.3%	12	2.1%	116	5.0%
뷔페	0	0.0%	0	0.0%	0	0.0%	0	0.0%	3	3.3%	0	0.0%	3	0.1%
기타식품류	7	0.6%	0	0.0%	4	1.2%	1	0.5%	2	2.2%	0	0.0%	14	0.6%
총계	110 0	100. 0%	52	100. 0%	323	100. 0%	185	100. 0%	90	100. 0%	573	100. 0%	2323	100. 0%

○ 1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263건으로 기타(건강식품) 44건(16.7%), 건강기능식품 37건(14.1%), 어패류 18건(6.8%), 빵 14건(5.3%), 한식 12건(4.6%)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1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 이상증세		총합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빵	4	3.2%	0	0.0%	5	13.9%	2	11.1%	3	18.8%	0	0.0%	14	5.3%
케익류	2	1.6%	0	0.0%	0	0.0%	1	5.6%	0	0.0%	0	0.0%	3	1.1%
떡류	0	0.0%	0	0.0%	1	2.8%	0	0.0%	0	0.0%	0	0.0%	1	0.4%
과자류	0	0.0%	0	0.0%	4	11.1%	1	5.6%	0	0.0%	0	0.0%	5	1.9%
코코아가공품류	2	1.6%	0	0.0%	0	0.0%	0	0.0%	0	0.0%	0	0.0%	2	0.8%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1	2.8%	0	0.0%	0	0.0%	1	1.8%	2	0.8%
당시럽류		0.0%												
올리고당류		0.0%												
아이스크림류	1	0.8%	1	9.1%	1	2.8%	0	0.0%	0	0.0%	0	0.0%	3	1.1%
빙과류		0.0%												
우유류	7	5.6%	0	0.0%	0	0.0%	0	0.0%	0	0.0%	0	0.0%	7	2.7%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1.8%	1	0.4%
분유류	3	2.4%	0	0.0%	0	0.0%	0	0.0%	0	0.0%	1	1.8%	4	1.5%
치즈·버터류	1	0.8%	0	0.0%	0	0.0%	0	0.0%	0	0.0%	1	1.8%	2	0.8%
햄 및 소시지류	5	4.0%	0	0.0%	2	5.6%	1	5.6%	0	0.0%	0	0.0%	8	3.0%
치킨류	2	1.6%	0	0.0%	0	0.0%	0	0.0%	1	6.3%	0	0.0%	3	1.1%
기타육류가공품	4	3.2%	0	0.0%	1	2.8%	0	0.0%	2	12.5%	0	0.0%	7	2.7%
알가공품		0.0%												
어묵제품류	2	1.6%	0	0.0%	0	0.0%	0	0.0%	0	0.0%	0	0.0%	2	0.8%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1	2.8%	0	0.0%	0	0.0%	0	0.0%	1	0.4%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0%												
다류	1	0.8%	0	0.0%	0	0.0%	1	5.6%	0	0.0%	0	0.0%	2	0.8%
커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2	1.6%	0	0.0%	0	0.0%	0	0.0%	0	0.0%	1	1.8%	3	1.1%
생수	2	1.6%	0	0.0%	0	0.0%	0	0.0%	0	0.0%	0	0.0%	2	0.8%
특수용도식품(환자식)	3	2.4%	2	18.2%	0	0.0%	1	5.6%	0	0.0%	3	5.3%	9	3.4%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0%												
김치류	1	0.8%	0	0.0%	1	2.8%	0	0.0%	0	0.0%	1	1.8%	3	1.1%
젓갈류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절임식품	0	0.0%	0	0.0%	4	11.1%	0	0.0%	0	0.0%	0	0.0%	4	1.5%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1	2.8%	0	0.0%	0	0.0%	0	0.0%	1	0.4%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0.8%	0	0.0%	0	0.0%	1	5.6%	0	0.0%	0	0.0%	2	0.8%
건포류	1	0.8%	0	0.0%	1	2.8%	0	0.0%	0	0.0%	0	0.0%	2	0.8%
건강기능식품	9	7.2%	2	18.2%	0	0.0%	3	16.7%	1	6.3%	22	38.6%	37	14.1%
기타(건강식품)	15	12.0%	2	18.2%	0	0.0%	5	27.8%	0	0.0%	22	38.6%	44	16.7%
즉석식품	8	6.4%	0	0.0%	1	2.8%	0	0.0%	1	6.3%	0	0.0%	10	3.8%
쇠고기	2	1.6%	0	0.0%	1	2.8%	1	5.6%	0	0.0%	0	0.0%	4	1.5%
돼지고기	1	0.8%	0	0.0%	1	2.8%	0	0.0%	0	0.0%	0	0.0%	2	0.8%
닭고기	0	0.0%	0	0.0%	1	2.8%	0	0.0%	0	0.0%	0	0.0%	1	0.4%
오리고기		0.0%												
기타육류	1	0.8%	1	9.1%	0	0.0%	0	0.0%	0	0.0%	0	0.0%	2	0.8%
알류	3	2.4%	2	18.2%	0	0.0%	0	0.0%	0	0.0%	0	0.0%	5	1.9%
곡류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채소류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과일류	2	1.6%	0	0.0%	1	2.8%	0	0.0%	0	0.0%	1	1.8%	4	1.5%
생선류	3	2.4%	0	0.0%	0	0.0%	0	0.0%	0	0.0%	0	0.0%	3	1.1%
어패류	13	10.4%	0	0.0%	0	0.0%	0	0.0%	3	18.8%	2	3.5%	18	6.8%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1	2.8%	0	0.0%	0	0.0%	0	0.0%	1	0.4%
고추·가루		0.0%												
한식	8	6.4%	0	0.0%	3	8.3%	1	5.6%	0	0.0%	0	0.0%	12	4.6%
양식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일식	3	2.4%	0	0.0%	0	0.0%	0	0.0%	1	6.3%	1	1.8%	5	1.9%
중식	0	0.0%	0	0.0%	1	2.8%	0	0.0%	0	0.0%	0	0.0%	1	0.4%
분식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노점상		0.0%												
패스트푸드점	6	4.8%	1	9.1%	2	5.6%	0	0.0%	1	6.3%	0	0.0%	10	3.8%
뷔페	0	0.0%	0	0.0%	0	0.0%	0	0.0%	3	18.8%	0	0.0%	3	1.1%
기타식품류	1	0.8%	0	0.0%	1	2.8%	0	0.0%	0	0.0%	0	0.0%	2	0.8%
총계	125	100.0%	11	100.0%	36	100.0%	18	100.0%	16	100.0%	57	100.0%	263	100.0%

○ 2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187건으로 건강기능식품 41건(21.9%), 기타(건강식품) 21건(11.2%), 어패류 15건(8.0%). 빵, 과자류, 분유류가 각각 8건(4.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2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 이상증세		총합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빵	4	5.1%	0	0.0%	4	15.4%	0	0.0%	0	0.0%	0	0.0%	8	4.3%
케익류	0	0.0%	0	0.0%	0	0.0%	1	11.1%	0	0.0%	0	0.0%	1	0.5%
떡류	0	0.0%	0	0.0%	1	3.8%	0	0.0%	0	0.0%	0	0.0%	1	0.5%
과자류	2	2.6%	0	0.0%	3	11.5%	1	11.1%	0	0.0%	2	3.2%	8	4.3%
코코아가공품류	1	1.3%	0	0.0%	0	0.0%	1	11.1%	0	0.0%	0	0.0%	2	1.1%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1	1.6%	1	0.5%
엿류	0	0.0%	0	0.0%	1	3.8%	0	0.0%	0	0.0%	0	0.0%	1	0.5%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1	16.7%	0	0.0%	1	0.5%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3	3.8%	0	0.0%	0	0.0%	0	0.0%	0	0.0%	0	0.0%	3	1.6%
발효유류	2	2.6%	0	0.0%	0	0.0%	1	11.1%	0	0.0%	0	0.0%	3	1.6%
분유류	6	7.7%	1	16.7%	0	0.0%	0	0.0%	0	0.0%	1	1.6%	8	4.3%
치즈-버터류	1	1.3%	0	0.0%	0	0.0%	0	0.0%	0	0.0%	1	1.6%	2	1.1%
햄 및 소시지류	1	1.3%	0	0.0%	1	3.8%	0	0.0%	0	0.0%	0	0.0%	2	1.1%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3	3.8%	0	0.0%	1	3.8%	1	11.1%	1	16.7%	0	0.0%	6	3.2%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1	1.3%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두부류 또는 묵류	1	1.3%	0	0.0%	0	0.0%	0	0.0%	0	0.0%	1	1.6%	2	1.1%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1	1.3%	0	0.0%	1	3.8%	0	0.0%	0	0.0%	0	0.0%	2	1.1%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탄산음료류	1	1.3%	0	0.0%	0	0.0%	0	0.0%	0	0.0%	1	1.6%	2	1.1%
과채음료류	2	2.6%	0	0.0%	0	0.0%	0	0.0%	0	0.0%	2	3.2%	4	2.1%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1	1.3%	1	16.7%	0	0.0%	0	0.0%	0	0.0%	0	0.0%	2	1.1%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2	2.6%	0	0.0%	0	0.0%	0	0.0%	0	0.0%	0	0.0%	2	1.1%
소주	1	1.3%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0	0.0%	2	7.7%	0	0.0%	0	0.0%	1	1.6%	3	1.6%
건강기능식품	12	15.4 %	2	33.3 %	0	0.0%	1	11.1 %	0	0.0%	26	41.9 %	41	21.9 %
기타(건강식품)	4	5.1%	1	16.7 %	0	0.0%	1	11.1 %	0	0.0%	15	24.2 %	21	11.2 %
즉석식품	0	0.0%	0	0.0%	4	15.4 %	0	0.0%	0	0.0%	0	0.0%	4	2.1%
쇠고기	0	0.0%	0	0.0%	0	0.0%	0	0.0%	1	16.7 %	0	0.0%	1	0.5%
돼지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닭고기	2	2.6%	0	0.0%	1	3.8%	0	0.0%	0	0.0%	0	0.0%	3	1.6%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1.6%	1	0.5%
채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1.6%	1	0.5%
과일류	0	0.0%	0	0.0%	1	3.8%	1	11.1 %	0	0.0%	1	1.6%	3	1.6%
생선류	5	6.4%	0	0.0%	0	0.0%	0	0.0%	0	0.0%	1	1.6%	6	3.2%
어패류	9	11.5 %	1	16.7 %	0	0.0%	1	11.1 %	2	33.3 %	2	3.2%	15	8.0%
해조류	0	0.0%	0	0.0%	1	3.8%	0	0.0%	0	0.0%	0	0.0%	1	0.5%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1	1.3%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견과류	1	1.3%	0	0.0%	1	3.8%	0	0.0%	0	0.0%	1	1.6%	3	1.6%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3	3.8%	0	0.0%	2	7.7%	0	0.0%	1	16.7 %	1	1.6%	7	3.7%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3	3.8%	0	0.0%	0	0.0%	0	0.0%	0	0.0%	0	0.0%	3	1.6%
중식	1	1.3%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분식	1	1.3%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노점상	0	0.0%	0	0.0%	1	3.8%	0	0.0%	0	0.0%	0	0.0%	1	0.5%
패스트푸드점	2	2.6%	0	0.0%	1	3.8%	0	0.0%	0	0.0%	3	4.8%	6	3.2%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1	1.3%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총계	78	100.0 %	6	100.0 %	26	100.0 %	9	100.0 %	6	100.0 %	62	100.0 %	187	100.0 %

○ 3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174건으로 건강기능식품 32건(18.4%), 기타(건강식품) 23건(13.2%), 빵이 10건(5.7%), 과자류와 즉석식품이 각각 9건(5.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3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 이상증세		총합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빵	5	6.1%	0	0.0%	3	10.7%	1	6.3%	0	0.0%	1	2.4%	10	5.7%
케익류	0	0.0%	0	0.0%	0	0.0%	1	6.3%	0	0.0%	0	0.0%	1	0.6%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1	1.2%	0	0.0%	7	25.0%	1	6.3%	0	0.0%	0	0.0%	9	5.2%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1	3.6%	0	0.0%	0	0.0%	0	0.0%	1	0.6%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0.0%								
올리고당류						0.0%								
아이스크림류	2	2.4%	0	0.0%	1	3.6%	0	0.0%	0	0.0%	0	0.0%	3	1.7%
빙과류						0.0%								
우유류	5	6.1%	0	0.0%	1	3.6%	0	0.0%	0	0.0%	0	0.0%	6	3.4%
발효유류	5	6.1%	0	0.0%	0	0.0%	0	0.0%	0	0.0%	1	2.4%	6	3.4%
분유류	1	1.2%	0	0.0%	0	0.0%	1	6.3%	0	0.0%	0	0.0%	2	1.1%
치즈·버터류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1	3.6%	0	0.0%	0	0.0%	0	0.0%	1	0.6%
치킨류	0	0.0%	0	0.0%	1	3.6%	0	0.0%	0	0.0%	0	0.0%	1	0.6%
기타육류가공품	1	1.2%	0	0.0%	2	7.1%	0	0.0%	0	0.0%	1	2.4%	4	2.3%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2	2.4%	0	0.0%	0	0.0%	0	0.0%	0	0.0%	0	0.0%	2	1.1%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2	2.4%	0	0.0%	0	0.0%	0	0.0%	0	0.0%	0	0.0%	2	1.1%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2.4%	1	0.6%
커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탄산음료류	2	2.4%	0	0.0%	1	3.6%	0	0.0%	0	0.0%	1	2.4%	4	2.3%
과채음료류	1	1.2%	0	0.0%	0	0.0%	0	0.0%	0	0.0%	1	2.4%	2	1.1%
생수	1	1.2%	0	0.0%	0	0.0%	0	0.0%	0	0.0%	1	2.4%	2	1.1%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1	6.3%	0	0.0%	0	0.0%	1	0.6%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0%								
김치류	1	1.2%	0	0.0%	0	0.0%	0	0.0%	0	0.0%	0	0.0%	1	0.6%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0%								
조림식품	1	1.2%	0	0.0%	0	0.0%	0	0.0%	0	0.0%	0	0.0%	1	0.6%
소주	2	2.4%	0	0.0%	0	0.0%	0	0.0%	0	0.0%	1	2.4%	3	1.7%
맥주	1	1.2%	0	0.0%	0	0.0%	0	0.0%	0	0.0%	0	0.0%	1	0.6%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2	2.4%	0	0.0%	0	0.0%	0	0.0%	0	0.0%	0	0.0%	2	1.1%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2	2.4%	0	0.0%	0	0.0%	0	0.0%	0	0.0%	0	0.0%	2	1.1%
건강기능식품	11	13.4%	1	50.0%	0	0.0%	1	6.3%	0	0.0%	19	46.3%	32	18.4%
기타(건강식품)	7	8.5%	0	0.0%	0	0.0%	7	43.8%	0	0.0%	9	22.0%	23	13.2%
즉석식품	4	4.9%	0	0.0%	3	10.7%	1	6.3%	0	0.0%	1	2.4%	9	5.2%
쇠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돼지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1	1.2%	0	0.0%	2	7.1%	1	6.3%	0	0.0%	0	0.0%	4	2.3%
채소류	1	1.2%	0	0.0%	0	0.0%	0	0.0%	0	0.0%	0	0.0%	1	0.6%
과일류	2	2.4%	0	0.0%	0	0.0%	0	0.0%	0	0.0%	0	0.0%	2	1.1%
생선류	3	3.7%	0	0.0%	0	0.0%	0	0.0%	0	0.0%	0	0.0%	3	1.7%
어패류	4	4.9%	1	50.0%	0	0.0%	0	0.0%	0	0.0%	2	4.9%	7	4.0%
해조류	0	0.0%	0	0.0%	1	3.6%	0	0.0%	0	0.0%	0	0.0%	1	0.6%
식용종자·버섯류	1	1.2%	0	0.0%	0	0.0%	1	6.3%	0	0.0%	1	2.4%	3	1.7%
나물류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1	3.6%	0	0.0%	0	0.0%	1	2.4%	2	1.1%
고추가루						0.0%								
한식	5	6.1%	0	0.0%	0	0.0%	0	0.0%	1	20.0%	0	0.0%	6	3.4%
양식						0.0%								
일식	2	2.4%	0	0.0%	0	0.0%	0	0.0%	4	80.0%	0	0.0%	6	3.4%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4	4.9%	0	0.0%	3	10.7%	0	0.0%	0	0.0%	0	0.0%	7	4.0%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총계	82	100.0%	2	100.0%	28	100.0%	16	100.0%	5	100.0%	41	100.0%	174	100.0%

○ 4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148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이 26건(17.6%), 기타(건강식품) 22건(14.9%), 빵이 11건(7.4%), 생선류와 패스트푸드점이 각각 10건(6.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4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 이상증세		총합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빵	5	6.9%	0	0.0%	5	23.8%	1	8.3%	0	0.0%	0	0.0%	11	7.4%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1	1.4%	1	12.5%	1	4.8%	1	8.3%	0	0.0%	0	0.0%	4	2.7%
과자류	1	1.4%	0	0.0%	1	4.8%	0	0.0%	0	0.0%	0	0.0%	2	1.4%
코코아가공품류	1	1.4%	0	0.0%	1	4.8%	1	8.3%	0	0.0%	0	0.0%	3	2.0%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포도당/과당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꿀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1	0.7%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1	0.7%
빙과류														
우유류	3	4.2%	0	0.0%	0	0.0%	0	0.0%	0	0.0%	1	3.6%	4	2.7%
발효우유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2	2.8%	0	0.0%	0	0.0%	0	0.0%	0	0.0%	0	0.0%	2	1.4%
치킨류														
기타육류가공품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3.6%	1	0.7%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커피	0	0.0%	0	0.0%	0	0.0%	1	8.3%	0	0.0%	0	0.0%	1	0.7%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3.6%	1	0.7%
과채음료류	2	2.8%	1	12.5%	1	4.8%	0	0.0%	0	0.0%	0	0.0%	4	2.7%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1	3.6%	1	0.7%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절임식품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탁약주(막걸리)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1	0.7%
건강기능식품	9	12.5%	0	0.0%	0	0.0%	2	16.7%	0	0.0%	15	53.6%	26	17.6%
기타(건강식품)	5	6.9%	4	50.0%	0	0.0%	4	33.3%	1	14.3%	8	28.6%	22	14.9%
즉석식품	8	11.1%	0	0.0%	0	0.0%	0	0.0%	0	0.0%	0	0.0%	8	5.4%
쇠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돼지고기	2	2.8%	0	0.0%	0	0.0%	0	0.0%	0	0.0%	0	0.0%	2	1.4%
닭고기	0	0.0%	0	0.0%	0	0.0%	1	8.3%	0	0.0%	0	0.0%	1	0.7%
오리고기	1	1.4%	0	0.0%	0	0.0%	0	0.0%	0	0.0%	1	3.6%	2	1.4%
기타육류	0	0.0%	0	0.0%	3	14.3%	0	0.0%	0	0.0%	0	0.0%	3	2.0%
알류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곡류	0	0.0%	0	0.0%	2	9.5%	0	0.0%	0	0.0%	0	0.0%	2	1.4%
채소류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1	0.7%
과일류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생선류	5	6.9%	1	12.5%	0	0.0%	1	8.3%	3	42.9%	0	0.0%	10	6.8%
어패류	1	1.4%	0	0.0%	0	0.0%	0	0.0%	1	14.3%	0	0.0%	2	1.4%
해조류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1	12.5%	0	0.0%	0	0.0%	0	0.0%	0	0.0%	1	0.7%
견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고추가루														
한식	2	2.8%	0	0.0%	2	9.5%	0	0.0%	1	14.3%	0	0.0%	5	3.4%
양식														
일식	2	2.8%	0	0.0%	0	0.0%	0	0.0%	0	0.0%	0	0.0%	2	1.4%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2	2.8%	0	0.0%	0	0.0%	0	0.0%	0	0.0%	0	0.0%	2	1.4%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9	12.5%	0	0.0%	1	4.8%	0	0.0%	0	0.0%	0	0.0%	10	6.8%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1	14.3%	0	0.0%	1	0.7%
총계	72	100.0%	8	100.0%	21	100.0%	12	100.0%	7	100.0%	28	100.0%	148	100.0%

○ 5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200건으로 건강기능식품 37건(18.5%), 기타(건강식품) 24건(12.0%), 과자류 11건(5.5%), 빵과 즉석식품이 각각 10건(5.0%)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5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 이상증세		총합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빵	5	6.0%	0	0.0%	5	15.6%	0	0.0%	0	0.0%	0	0.0%	10	5.0%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3	9.4%	0	0.0%	0	0.0%	0	0.0%	3	1.5%
과자류	2	2.4%	0	0.0%	7	21.9%	1	5.6%	0	0.0%	1	1.8%	11	5.5%
코코아가공품류	1	1.2%	0	0.0%	2	6.3%	0	0.0%	0	0.0%	0	0.0%	3	1.5%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류	1	1.2%	0	0.0%	1	3.1%	0	0.0%	0	0.0%	0	0.0%	2	1.0%
빙과류														
우유류	6	7.1%	0	0.0%	0	0.0%	0	0.0%	0	0.0%	2	3.6%	8	4.0%
발효유류	1	1.2%	0	0.0%	1	3.1%	0	0.0%	0	0.0%	0	0.0%	2	1.0%
분유류	2	2.4%	0	0.0%	0	0.0%	0	0.0%	0	0.0%	1	1.8%	3	1.5%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1	1.2%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1.8%	1	0.5%
건면류	1	1.2%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2	2.4%	0	0.0%	0	0.0%	0	0.0%	0	0.0%	3	5.5%	5	2.5%
커피	1	1.2%	0	0.0%	0	0.0%	0	0.0%	0	0.0%	1	1.8%	2	1.0%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7	8.3%	0	0.0%	0	0.0%	0	0.0%	0	0.0%	1	1.8%	8	4.0%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2	2.4%	0	0.0%	0	0.0%	0	0.0%	0	0.0%	4	7.3%	6	3.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1	1.2%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소스류	1	1.2%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1	5.6%	0	0.0%	0	0.0%	1	0.5%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0	0.0%	1	3.1%	0	0.0%	0	0.0%	0	0.0%	1	0.5%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2	2.4%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등)														
건포류	0	0.0%	0	0.0%	1	3.1%	0	0.0%	0	0.0%	0	0.0%	1	0.5%
건강기능식품	11	13.1%	0	0.0%	0	0.0%	3	16.7%	0	0.0%	23	41.8%	37	18.5%
기타(건강식품)	7	8.3%	1	100.0%	0	0.0%	5	27.8%	0	0.0%	11	20.0%	24	12.0%
즉석식품	4	4.8%	0	0.0%	5	15.6%	0	0.0%	0	0.0%	1	1.8%	10	5.0%
쇠고기	2	2.4%	0	0.0%	1	3.1%	1	5.6%	0	0.0%	0	0.0%	4	2.0%
돼지고기	0	0.0%	0	0.0%	0	0.0%	1	5.6%	0	0.0%	0	0.0%	1	0.5%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1	1.2%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2	11.1%	0	0.0%	0	0.0%	2	1.0%
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채소류	1	1.2%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과일류	2	2.4%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
생선류	3	3.6%	0	0.0%	0	0.0%	1	5.6%	5	50.0%	0	0.0%	9	4.5%
어패류	3	3.6%	0	0.0%	0	0.0%	1	5.6%	1	10.0%	1	1.8%	6	3.0%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1.8%	1	0.5%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1.8%	1	0.5%
견과류	0	0.0%	0	0.0%	1	3.1%	0	0.0%	0	0.0%	1	1.8%	2	1.0%
고추가루														
한식	4	4.8%	0	0.0%	1	3.1%	1	5.6%	2	20.0%	1	1.8%	9	4.5%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5	6.0%	0	0.0%	0	0.0%	0	0.0%	2	20.0%	0	0.0%	7	3.5%
중식	1	1.2%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분식	2	2.4%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2	2.4%	0	0.0%	3	9.4%	1	5.6%	0	0.0%	1	1.8%	7	3.5%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총계	84	100.0%	1	100.0%	32	100.0%	18	100.0%	10	100.0%	55	100.0%	200	100.0%

○ 6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232건으로 건강기능식품 55건(23.7%), 기타(건강식품) 23건(9.9%), 빵이 21건(9.1%), 우유류 14건(6.0%), 과자류가 10건(4.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6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 이상증세		총합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빵	11	11.2%	0	0.0%	5	12.2%	2	8.3%	1	20.0%	2	3.4%	21	9.1%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2	2.0%	0	0.0%	2	4.9%	0	0.0%	0	0.0%	0	0.0%	4	1.7%
과자류	4	4.1%	0	0.0%	4	9.8%	0	0.0%	0	0.0%	2	3.4%	10	4.3%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1	2.4%	0	0.0%	0	0.0%	0	0.0%	1	0.4%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1	1.0%	0	0.0%	1	2.4%	1	4.2%	0	0.0%	0	0.0%	3	1.3%
빙과류	1	1.0%	0	0.0%	4	9.8%	0	0.0%	0	0.0%	0	0.0%	5	2.2%
우유류	12	12.2%	0	0.0%	0	0.0%	1	4.2%	0	0.0%	1	1.7%	14	6.0%
발효우유	0	0.0%	0	0.0%	1	2.4%	0	0.0%	0	0.0%	0	0.0%	1	0.4%
분유류	1	1.0%	0	0.0%	0	0.0%	1	4.2%	0	0.0%	0	0.0%	2	0.9%
치즈·버터류	3	3.1%	0	0.0%	0	0.0%	0	0.0%	0	0.0%	0	0.0%	3	1.3%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3	3.1%	0	0.0%	2	4.9%	1	4.2%	0	0.0%	0	0.0%	6	2.6%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1	1.0%	0	0.0%	1	2.4%	0	0.0%	0	0.0%	0	0.0%	2	0.9%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1.7%	1	0.4%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1	2.4%	0	0.0%	0	0.0%	0	0.0%	1	0.4%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1	1.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2	3.4%	2	0.9%
과채음료류	6	6.1%	0	0.0%	0	0.0%	0	0.0%	0	0.0%	1	1.7%	7	3.0%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1	2.4%	0	0.0%	0	0.0%	0	0.0%	1	0.4%
소주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2	2.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9%
탁약주(막걸리)	1	1.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0	0.0%	1	2.4%	1	4.2%	1	20.0%	1	1.7%	4	1.7%
건강기능식품	9	9.2%	2	40.0%	0	0.0%	8	33.3%	1	20.0%	35	59.3%	55	23.7%
기타(건강식품)	9	9.2%	2	40.0%	1	2.4%	4	16.7%	0	0.0%	7	11.9%	23	9.9%
즉석식품	1	1.0%	0	0.0%	3	7.3%	2	8.3%	0	0.0%	2	3.4%	8	3.4%
쇠고기	1	1.0%	0	0.0%	0	0.0%	0	0.0%	1	20.0%	0	0.0%	2	0.9%
돼지고기	1	1.0%	0	0.0%	1	2.4%	0	0.0%	0	0.0%	0	0.0%	2	0.9%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1	20.0%	0	0.0%	1	0.4%
오리고기														
기타육류	1	1.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2	2.0%	0	0.0%	0	0.0%	0	0.0%	0	0.0%	1	1.7%	3	1.3%
채소류	2	2.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9%
과일류	1	1.0%	0	0.0%	1	2.4%	0	0.0%	0	0.0%	0	0.0%	2	0.9%
생선류	4	4.1%	0	0.0%	0	0.0%	0	0.0%	0	0.0%	0	0.0%	4	1.7%
어패류	2	2.0%	0	0.0%	1	2.4%	0	0.0%	0	0.0%	1	1.7%	4	1.7%
해조류	0	0.0%	0	0.0%	1	2.4%	0	0.0%	0	0.0%	0	0.0%	1	0.4%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1	1.0%	0	0.0%	0	0.0%	0	0.0%	0	0.0%	1	1.7%	2	0.9%
견과류	1	1.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1	1.0%	0	0.0%	6	14.6%	1	4.2%	0	0.0%	0	0.0%	8	3.4%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5	5.1%	1	20.0%	0	0.0%	0	0.0%	0	0.0%	0	0.0%	6	2.6%
중식	1	1.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분식	2	2.0%	0	0.0%	0	0.0%	0	0.0%	0	0.0%	1	1.7%	3	1.3%
노점상	0	0.0%	0	0.0%	0	0.0%	1	4.2%	0	0.0%	0	0.0%	1	0.4%
패스트푸드점	4	4.1%	0	0.0%	2	4.9%	1	4.2%	0	0.0%	1	1.7%	8	3.4%
뷔페														
기타식품류	1	1.0%	0	0.0%	1	2.4%	0	0.0%	0	0.0%	0	0.0%	2	0.9%
총계	98	100.0%	5	100.0%	41	100.0%	24	100.0%	5	100.0%	59	100.0%	232	100.0%

○ 7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208건으로 건강기능식품 32건(15.4%), 과자류가 16건(7.7%), 빵이 15건(7.2%), 패스트푸드점이 14건(6.7%), 기타(건강식품) 13건(6.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7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 이상증세		총합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빵	11	9.8%	0	0.0%	2	7.1%	0	0.0%	1	11.1%	1	2.4%	15	7.2%
케익류	1	0.9%	0	0.0%	0	0.0%	1	6.3%	0	0.0%	0	0.0%	2	1.0%
떡류	0	0.0%	0	0.0%	1	3.6%	0	0.0%	0	0.0%	0	0.0%	1	0.5%
과자류	3	2.7%	0	0.0%	9	32.1%	2	12.5%	0	0.0%	2	4.8%	16	7.7%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3	10.7%	0	0.0%	0	0.0%	0	0.0%	3	1.4%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2	1.8%	0	0.0%	2	7.1%	0	0.0%	0	0.0%	0	0.0%	4	1.9%
빙과류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우유류	11	9.8%	0	0.0%	0	0.0%	0	0.0%	0	0.0%	0	0.0%	11	5.3%
발효유류	4	3.6%	0	0.0%	0	0.0%	0	0.0%	0	0.0%	0	0.0%	4	1.9%
분유류	2	1.8%	0	0.0%	0	0.0%	0	0.0%	1	11.1%	0	0.0%	3	1.4%
치즈-버터류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3	2.7%	0	0.0%	0	0.0%	0	0.0%	0	0.0%	0	0.0%	3	1.4%
기타육류가공품	2	1.8%	0	0.0%	2	7.1%	0	0.0%	0	0.0%	0	0.0%	4	1.9%
알가공품	1	0.9%	0	0.0%	1	3.6%	0	0.0%	0	0.0%	0	0.0%	2	1.0%
어묵제품류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두부류 또는 목류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2.4%	1	0.5%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2	1.8%	0	0.0%	0	0.0%	0	0.0%	0	0.0%	1	2.4%	3	1.4%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5	4.5%	0	0.0%	0	0.0%	0	0.0%	0	0.0%	0	0.0%	5	2.4%
생수	2	1.8%	0	0.0%	0	0.0%	2	12.5%	0	0.0%	0	0.0%	4	1.9%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2	4.8%	2	1.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1	3.6%	0	0.0%	0	0.0%	0	0.0%	1	0.5%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1	0.9%	0	0.0%	1	3.6%	0	0.0%	0	0.0%	0	0.0%	2	1.0%
건강기능식품	7	6.3%	0	0.0%	0	0.0%	3	18.8%	1	11.1%	21	50.0%	32	15.4%
기타(건강식품)	3	2.7%	0	0.0%	0	0.0%	2	12.5%	0	0.0%	8	19.0%	13	6.3%
즉석식품	3	2.7%	0	0.0%	0	0.0%	2	12.5%	0	0.0%	0	0.0%	5	2.4%
쇠고기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돼지고기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닭고기	5	4.5%	0	0.0%	0	0.0%	0	0.0%	1	11.1%	1	2.4%	7	3.4%
오리고기														
기타육류	1	0.9%	0	0.0%	1	3.6%	0	0.0%	0	0.0%	0	0.0%	2	1.0%
알류	4	3.6%	0	0.0%	0	0.0%	0	0.0%	0	0.0%	0	0.0%	4	1.9%
곡류	0	0.0%	0	0.0%	1	3.6%	0	0.0%	0	0.0%	0	0.0%	1	0.5%
채소류	0	0.0%	0	0.0%	0	0.0%	0	0.0%	1	11.1%	1	2.4%	2	1.0%
과일류	5	4.5%	0	0.0%	0	0.0%	0	0.0%	0	0.0%	0	0.0%	5	2.4%
생선류	2	1.8%	0	0.0%	1	3.6%	0	0.0%	2	22.2%	0	0.0%	5	2.4%
어패류	2	1.8%	1	100.0%	0	0.0%	0	0.0%	0	0.0%	0	0.0%	3	1.4%
해조류	2	1.8%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건과류	0	0.0%	0	0.0%	0	0.0%	1	6.3%	0	0.0%	0	0.0%	1	0.5%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7	6.3%	0	0.0%	0	0.0%	0	0.0%	0	0.0%	0	0.0%	7	3.4%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1	2.4%	1	0.5%
일식	2	1.8%	0	0.0%	0	0.0%	0	0.0%	1	11.1%	0	0.0%	3	1.4%
중식	2	1.8%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6	5.4%	0	0.0%	2	7.1%	2	12.5%	1	11.1%	3	7.1%	14	6.7%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2	1.8%	0	0.0%	1	3.6%	1	6.3%	0	0.0%	0	0.0%	4	1.9%
총계	112	100.0%	1	100.0%	28	100.0%	16	100.0%	9	100.0%	42	100.0%	208	100.0%

○ 8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242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이 46건(19.0%)으로 가장 많고, 기타(건강식품)이 19건(7.9%), 즉석식품 17건(7.0%), 빵과 우유류가 각각 13건(5.4%)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8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 이상증세		총합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빵	8	6.5%	0	0.0%	3	9.4%	1	7.7%	0	0.0%	1	1.6%	13	5.4%
케익류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떡류	0	0.0%	0	0.0%	0	0.0%	0	0.0%	1	11.1%	0	0.0%	1	0.4%
과자류	3	2.4%	0	0.0%	2	6.3%	0	0.0%	0	0.0%	2	3.3%	7	2.9%
코코아가공품류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1	0.8%	0	0.0%	6	18.8%	0	0.0%	0	0.0%	0	0.0%	7	2.9%
빙과류	0	0.0%	0	0.0%	1	3.1%	0	0.0%	0	0.0%	0	0.0%	1	0.4%
우유류	10	8.1%	1	25.0%	0	0.0%	0	0.0%	0	0.0%	2	3.3%	13	5.4%
발효우유	3	2.4%	0	0.0%	0	0.0%	0	0.0%	0	0.0%	0	0.0%	3	1.2%
분유류	0	0.0%	0	0.0%	0	0.0%	1	7.7%	0	0.0%	1	1.6%	2	0.8%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2	1.6%	0	0.0%	1	3.1%	0	0.0%	0	0.0%	1	1.6%	4	1.7%
치킨류	2	1.6%	0	0.0%	0	0.0%	0	0.0%	0	0.0%	0	0.0%	2	0.8%
기타육류가공품	5	4.1%	0	0.0%	0	0.0%	0	0.0%	0	0.0%	0	0.0%	5	2.1%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1	1.6%	1	0.4%
어묵제품류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두부류 또는 목류	2	1.6%	0	0.0%	0	0.0%	0	0.0%	0	0.0%	1	1.6%	3	1.2%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2	1.6%	0	0.0%	0	0.0%	0	0.0%	0	0.0%	0	0.0%	2	0.8%
건면류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1.6%	1	0.4%
커피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탄산음료류	3	2.4%	0	0.0%	0	0.0%	0	0.0%	0	0.0%	0	0.0%	3	1.2%
과채음료류	2	1.6%	0	0.0%	1	3.1%	0	0.0%	0	0.0%	1	1.6%	4	1.7%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3	2.4%	1	25.0%	0	0.0%	0	0.0%	0	0.0%	4	6.6%	8	3.3%
이유식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3	9.4%	0	0.0%	0	0.0%	0	0.0%	3	1.2%
젓갈류	2	1.6%	0	0.0%	0	0.0%	0	0.0%	0	0.0%	0	0.0%	2	0.8%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1	3.1%	0	0.0%	0	0.0%	1	1.6%	2	0.8%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1	0.8%	0	0.0%	1	3.1%	0	0.0%	1	11.1%	0	0.0%	3	1.2%
건강기능식품	15	12.2%	0	0.0%	1	3.1%	2	15.4%	0	0.0%	28	45.9%	46	19.0%
기타(건강식품)	6	4.9%	0	0.0%	1	3.1%	3	23.1%	1	11.1%	8	13.1%	19	7.9%
즉석식품	13	10.6%	1	25.0%	2	6.3%	0	0.0%	0	0.0%	1	1.6%	17	7.0%
쇠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돼지고기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닭고기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오리고기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2	1.6%	0	0.0%	0	0.0%	2	15.4%	0	0.0%	3	4.9%	7	2.9%
곡류	2	1.6%	0	0.0%	0	0.0%	0	0.0%	0	0.0%	0	0.0%	2	0.8%
채소류	2	1.6%	0	0.0%	0	0.0%	1	7.7%	0	0.0%	0	0.0%	3	1.2%
과일류	0	0.0%	1	25.0%	0	0.0%	0	0.0%	1	11.1%	0	0.0%	2	0.8%
생선류	7	5.7%	0	0.0%	0	0.0%	0	0.0%	0	0.0%	0	0.0%	7	2.9%
어패류	3	2.4%	0	0.0%	0	0.0%	0	0.0%	2	22.2%	0	0.0%	5	2.1%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1.6%	1	0.4%
식용종자버섯류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3	2.4%	0	0.0%	1	3.1%	1	7.7%	0	0.0%	0	0.0%	5	2.1%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3	2.4%	0	0.0%	5	15.6%	1	7.7%	1	11.1%	2	3.3%	12	5.0%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1	0.8%	0	0.0%	0	0.0%	0	0.0%	0	0.0%	1	1.6%	2	0.8%
중식	1	0.8%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4	3.3%	0	0.0%	3	9.4%	1	7.7%	1	11.1%	1	1.6%	10	4.1%
뷔페														
기타식품류	2	1.6%	0	0.0%	0	0.0%	0	0.0%	1	11.1%	0	0.0%	3	1.2%
총계	123	100.0%	4	100.0%	32	100.0%	13	100.0%	9	100.0%	61	100.0%	242	100.0%

- 9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220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이 42건(19.1%)으로 가장 많고, 기타(건강식품)이 31건(14.1%), 즉석식품 18건(8.2%), 빵, 우유류. 패스트푸드점이 각각 10건(4.5%)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9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 이상증세		총합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빵	5	4.3%	0	0.0%	2	11.1%	2	8.7%	1	11.1%	0	0.0%	10	4.5%
케익류	2	1.7%	0	0.0%	0	0.0%	0	0.0%	0	0.0%	0	0.0%	2	0.9%
떡류	2	1.7%	0	0.0%	0	0.0%	0	0.0%	0	0.0%	0	0.0%	2	0.9%
과자류	2	1.7%	0	0.0%	3	16.7%	0	0.0%	0	0.0%	1	2.0%	6	2.7%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1	4.3%	0	0.0%	0	0.0%	1	0.5%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1	0.9%	0	0.0%	1	5.6%	0	0.0%	0	0.0%	0	0.0%	2	0.9%
빙과류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우유류	9	7.8%	0	0.0%	0	0.0%	0	0.0%	0	0.0%	1	2.0%	10	4.5%
발효우유	2	1.7%	0	0.0%	0	0.0%	0	0.0%	0	0.0%	0	0.0%	2	0.9%
분유류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1	0.9%	0	0.0%	0	0.0%	1	4.3%	0	0.0%	0	0.0%	2	0.9%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3	2.6%	0	0.0%	1	5.6%	0	0.0%	0	0.0%	0	0.0%	4	1.8%
알가공품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어묵제품류	3	2.6%	0	0.0%	0	0.0%	0	0.0%	0	0.0%	0	0.0%	3	1.4%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1	5.6%	1	4.3%	0	0.0%	0	0.0%	2	0.9%
건면류														
생면류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탄산음료류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과채음료류	4	3.4%	0	0.0%	1	5.6%	0	0.0%	0	0.0%	2	3.9%	7	3.2%
생수	3	2.6%	0	0.0%	0	0.0%	0	0.0%	0	0.0%	0	0.0%	3	1.4%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이유식	1	0.9%	0	0.0%	0	0.0%	1	4.3%	0	0.0%	0	0.0%	2	0.9%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절임식품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1	11.1%	1	2.0%	2	0.9%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3	2.6%	0	0.0%	0	0.0%	0	0.0%	0	0.0%	0	0.0%	3	1.4%
건강기능식품	7	6.0%	1	33.3 %	0	0.0%	6	26.1 %	0	0.0%	28	54.9 %	42	19.1 %
기타(건강식품)	11	9.5%	2	66.7 %	0	0.0%	4	17.4 %	1	11.1 %	13	25.5 %	31	14.1 %
즉석식품	14	12.1 %	0	0.0%	3	16.7 %	0	0.0%	0	0.0%	1	2.0%	18	8.2%
쇠고기	4	3.4%	0	0.0%	0	0.0%	0	0.0%	0	0.0%	0	0.0%	4	1.8%
돼지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닭고기	2	1.7%	0	0.0%	0	0.0%	0	0.0%	0	0.0%	0	0.0%	2	0.9%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6	5.2%	0	0.0%	0	0.0%	1	4.3%	0	0.0%	0	0.0%	7	3.2%
곡류	0	0.0%	0	0.0%	1	5.6%	0	0.0%	0	0.0%	0	0.0%	1	0.5%
채소류	1	0.9%	0	0.0%	0	0.0%	0	0.0%	0	0.0%	1	2.0%	2	0.9%
과일류	3	2.6%	0	0.0%	0	0.0%	0	0.0%	0	0.0%	0	0.0%	3	1.4%
생선류	1	0.9%	0	0.0%	0	0.0%	1	4.3%	2	22.2 %	0	0.0%	4	1.8%
어패류	2	1.7%	0	0.0%	0	0.0%	1	4.3%	3	33.3 %	0	0.0%	6	2.7%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1	4.3%	0	0.0%	0	0.0%	1	0.5%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2.0%	1	0.5%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0	0.0%	3	13.0 %	0	0.0%	0	0.0%	3	1.4%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2	1.7%	0	0.0%	3	16.7 %	0	0.0%	1	11.1 %	2	3.9%	8	3.6%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3	2.6%	0	0.0%	0	0.0%	0	0.0%	0	0.0%	0	0.0%	3	1.4%
중식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분식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8	6.9%	0	0.0%	2	11.1 %	0	0.0%	0	0.0%	0	0.0%	10	4.5%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총계	116	100.0 %	3	100.0 %	18	100.0 %	23	100.0 %	9	100.0 %	51	100.0 %	220	100.0 %

○ 10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141건으로 건강기능식품 27건(19.1%), 기타(건강식품)이 10건(7.1%), 즉 석식품이 8건(5.7%), 과자류와 한식이 각각 7건(5.0%)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10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 이상증세		총합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빵	3	4.8%	0	0.0%	1	4.8%	0	0.0%	0	0.0%	2	5.1%	6	4.3%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2.6%	1	0.7%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1	1.6%	0	0.0%	5	23.8%	1	7.1%	0	0.0%	0	0.0%	7	5.0%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1	4.8%	1	7.1%	0	0.0%	0	0.0%	2	1.4%
잼류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1	0.7%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1	0.7%
빙과류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1	0.7%
우유류	3	4.8%	0	0.0%	0	0.0%	0	0.0%	0	0.0%	1	2.6%	4	2.8%
발효유류	1	1.6%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분유류	1	1.6%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치즈·버터류	1	1.6%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2.6%	2	1.4%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1	1.6%	0	0.0%	1	4.8%	0	0.0%	0	0.0%	1	2.6%	3	2.1%
두부류 또는 목류	1	1.6%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식용유지류	1	1.6%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라면류	0	0.0%	1	25.0%	1	4.8%	0	0.0%	0	0.0%	0	0.0%	2	1.4%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2	3.2%	0	0.0%	0	0.0%	0	0.0%	0	0.0%	0	0.0%	2	1.4%
탄산음료류	3	4.8%	0	0.0%	0	0.0%	0	0.0%	0	0.0%	3	7.7%	6	4.3%
과채음료류	3	4.8%	0	0.0%	0	0.0%	0	0.0%	0	0.0%	2	5.1%	5	3.5%
생수	3	4.8%	0	0.0%	0	0.0%	1	7.1%	0	0.0%	0	0.0%	4	2.8%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1.6%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이유식	0	0.0%	0	0.0%	0	0.0%	1	7.1%	0	0.0%	0	0.0%	1	0.7%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1	1.6%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1	7.1%	0	0.0%	0	0.0%	1	0.7%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1	1.6%	0	0.0%	0	0.0%	1	7.1%	0	0.0%	0	0.0%	2	1.4%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6	9.7%	1	25.0 %	0	0.0%	4	28.6 %	0	0.0%	16	41.0 %	27	19.1 %
기타(건강식품)	5	8.1%	2	50.0 %	0	0.0%	0	0.0%	0	0.0%	3	7.7%	10	7.1%
즉석식품	3	4.8%	0	0.0%	3	14.3 %	2	14.3 %	0	0.0%	0	0.0%	8	5.7%
쇠고기	1	1.6%	0	0.0%	1	4.8%	0	0.0%	0	0.0%	1	2.6%	3	2.1%
돼지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닭고기	1	1.6%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2.6%	1	0.7%
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채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2.6%	1	0.7%
과일류	2	3.2%	0	0.0%	0	0.0%	0	0.0%	0	0.0%	0	0.0%	2	1.4%
생선류	1	1.6%	0	0.0%	0	0.0%	0	0.0%	0	0.0%	1	2.6%	2	1.4%
어패류	5	8.1%	0	0.0%	1	4.8%	0	0.0%	0	0.0%	0	0.0%	6	4.3%
해조류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1	0.7%
식용중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2.6%	1	0.7%
나물류														
약용작물류	1	1.6%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견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4	6.5%	0	0.0%	2	9.5%	1	7.1%	0	0.0%	0	0.0%	7	5.0%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1	2.6%	1	0.7%
중식	1	1.6%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분식	2	3.2%	0	0.0%	0	0.0%	0	0.0%	0	0.0%	1	2.6%	3	2.1%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1	2.6%	1	0.7%
패스트푸드점	3	4.8%	0	0.0%	0	0.0%	1	7.1%	0	0.0%	1	2.6%	5	3.5%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1	4.8%	0	0.0%	0	0.0%	0	0.0%	1	0.7%
총계	62	100.0 %	4	100.0 %	21	100.0 %	14	100.0 %	1	100.0 %	39	100.0 %	141	100.0 %

○ 11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170건으로 건강기능식품 41건(24.1%), 패스트푸드점이 12건(7.1%), 즉석식품이 10건(5.9%), 빵과 기타(건강식품)이 각각 9건(5.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11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 이상증세		총합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빵	6	7.6%	0	0.0%	2	8.0%	0	0.0%	1	14.3%	0	0.0%	9	5.3%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1	4.0%	0	0.0%	0	0.0%	1	2.4%	2	1.2%
과자류	4	5.1%	0	0.0%	3	12.0%	0	0.0%	0	0.0%	0	0.0%	7	4.1%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1	4.0%	0	0.0%	0	0.0%	0	0.0%	1	0.6%
잼류	1	1.3%	0	0.0%	0	0.0%	0	0.0%	0	0.0%	0	0.0%	1	0.6%
설탕	1	1.3%	0	0.0%	1	4.0%	0	0.0%	0	0.0%	0	0.0%	2	1.2%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0	0.0%	0	0.0%	2	8.0%	0	0.0%	0	0.0%	0	0.0%	2	1.2%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5	6.3%	1	25.0%	0	0.0%	0	0.0%	0	0.0%	2	4.8%	8	4.7%
발효우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1	1.3%	0	0.0%	0	0.0%	0	0.0%	0	0.0%	0	0.0%	1	0.6%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2	2.5%	0	0.0%	1	4.0%	0	0.0%	0	0.0%	0	0.0%	3	1.8%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4	5.1%	0	0.0%	2	8.0%	0	0.0%	0	0.0%	0	0.0%	6	3.5%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1	1.3%	0	0.0%	0	0.0%	1	7.7%	0	0.0%	0	0.0%	2	1.2%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1	1.3%	0	0.0%	0	0.0%	1	7.7%	0	0.0%	0	0.0%	2	1.2%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1	1.3%	0	0.0%	0	0.0%	0	0.0%	0	0.0%	2	4.8%	3	1.8%
생수	2	2.5%	0	0.0%	0	0.0%	0	0.0%	0	0.0%	0	0.0%	2	1.2%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1.3%	0	0.0%	0	0.0%	1	7.7%	0	0.0%	2	4.8%	4	2.4%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0	0.0%	1	25.0%	0	0.0%	0	0.0%	0	0.0%	0	0.0%	1	0.6%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1	1.3%	0	0.0%	0	0.0%	1	7.7%	0	0.0%	0	0.0%	2	1.2%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1	4.0%	0	0.0%	0	0.0%	0	0.0%	1	0.6%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1.3%	0	0.0%	0	0.0%	0	0.0%	0	0.0%	0	0.0%	1	0.6%
건포류	0	0.0%	0	0.0%	1	4.0%	1	7.7%	1	14.3%	1	2.4%	4	2.4%
건강기능식품	13	16.5%	0	0.0%	0	0.0%	5	38.5%	0	0.0%	23	54.8%	41	24.1%
기타(건강식품)	3	3.8%	2	50.0%	0	0.0%	0	0.0%	0	0.0%	4	9.5%	9	5.3%
즉석식품	3	3.8%	0	0.0%	2	8.0%	1	7.7%	1	14.3%	3	7.1%	10	5.9%
쇠고기	2	2.5%	0	0.0%	0	0.0%	0	0.0%	0	0.0%	0	0.0%	2	1.2%
돼지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닭고기	2	2.5%	0	0.0%	0	0.0%	0	0.0%	0	0.0%	0	0.0%	2	1.2%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0	0.0%	0	0.0%	1	4.0%	0	0.0%	0	0.0%	1	2.4%	2	1.2%
채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생선류	4	5.1%	0	0.0%	0	0.0%	0	0.0%	0	0.0%	0	0.0%	4	2.4%
어패류	1	1.3%	0	0.0%	0	0.0%	0	0.0%	1	14.3%	0	0.0%	2	1.2%
해조류	0	0.0%	0	0.0%	2	8.0%	1	7.7%	0	0.0%	0	0.0%	3	1.8%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1	4.0%	0	0.0%	0	0.0%	2	4.8%	3	1.8%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1	1.3%	0	0.0%	3	12.0%	0	0.0%	2	28.6%	1	2.4%	7	4.1%
양식	1	1.3%	0	0.0%	0	0.0%	0	0.0%	0	0.0%	0	0.0%	1	0.6%
일식	4	5.1%	0	0.0%	0	0.0%	0	0.0%	1	14.3%	0	0.0%	5	2.9%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3	3.8%	0	0.0%	0	0.0%	0	0.0%	0	0.0%	0	0.0%	3	1.8%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10	12.7%	0	0.0%	1	4.0%	1	7.7%	0	0.0%	0	0.0%	12	7.1%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총계	79	100.0%	4	100.0%	25	100.0%	13	100.0%	7	100.0%	42	100.0%	170	100.0%

○ 12월 이상증세 불만사례는 총 138건으로 건강기능식품 26건(18.8%), 패스트푸드점이 17건(12.3%), 빵과 즉석식품이 10건(7.2%), 기타(건강식품)이 9건(6.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이상증세 상담 건수(12월)

품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 이상증세		총합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빵	5	7.2%	1	33.3%	1	6.7%	1	11.1%	0	0.0%	2	5.6%	10	7.2%
케익류	2	2.9%	0	0.0%	0	0.0%	1	11.1%	1	16.7%	0	0.0%	4	2.9%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2	2.9%	0	0.0%	1	6.7%	0	0.0%	0	0.0%	0	0.0%	3	2.2%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1	6.7%	0	0.0%	0	0.0%	0	0.0%	1	0.7%
잼류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1	6.7%	0	0.0%	0	0.0%	0	0.0%	1	0.7%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1	1.4%	0	0.0%	1	6.7%	0	0.0%	0	0.0%	0	0.0%	2	1.4%
빙과류														
우유류	5	7.2%	0	0.0%	0	0.0%	0	0.0%	0	0.0%	0	0.0%	5	3.6%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2	2.9%	0	0.0%	0	0.0%	0	0.0%	0	0.0%	0	0.0%	2	1.4%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기타육류가공품	2	2.9%	0	0.0%	0	0.0%	0	0.0%	1	16.7%	0	0.0%	3	2.2%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1	6.7%	1	11.1%	1	16.7%	0	0.0%	3	2.2%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1	6.7%	0	0.0%	0	0.0%	0	0.0%	1	0.7%
건면류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생면류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2.8%	1	0.7%
커피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탄산음료류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과채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2.8%	1	0.7%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1	2.8%	1	0.7%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포도주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탁약주(막걸리)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건포류	0	0.0%	0	0.0%	2	13.3%	0	0.0%	0	0.0%	0	0.0%	2	1.4%
건강기능식품	6	8.7%	0	0.0%	0	0.0%	2	22.2%	0	0.0%	18	50.0%	26	18.8%
기타(건강식품)	3	4.3%	1	33.3%	0	0.0%	1	11.1%	0	0.0%	4	11.1%	9	6.5%
즉석식품	4	5.8%	0	0.0%	3	20.0%	2	22.2%	0	0.0%	1	2.8%	10	7.2%
쇠고기	1	1.4%	0	0.0%	0	0.0%	0	0.0%	0	0.0%	1	2.8%	2	1.4%
돼지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1	2.8%	1	0.7%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1	16.7%	0	0.0%	1	0.7%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1	1.4%	0	0.0%	0	0.0%	1	11.1%	0	0.0%	0	0.0%	2	1.4%
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채소류	2	2.9%	0	0.0%	0	0.0%	0	0.0%	0	0.0%	1	2.8%	3	2.2%
과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생선류	1	1.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어패류	6	8.7%	0	0.0%	1	6.7%	0	0.0%	0	0.0%	1	2.8%	8	5.8%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1	2.8%	1	0.7%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3	4.3%	0	0.0%	0	0.0%	0	0.0%	2	33.3%	0	0.0%	5	3.6%
양식	1	1.4%	0	0.0%	0	0.0%	0	0.0%	0	0.0%	1	2.8%	2	1.4%
일식	4	5.8%	0	0.0%	0	0.0%	0	0.0%	0	0.0%	0	0.0%	4	2.9%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12	17.4%	1	33.3%	2	13.3%	0	0.0%	0	0.0%	2	5.6%	17	12.3%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총계	69	100.0%	3	100.0%	15	100.0%	9	100.0%	6	100.0%	36	100.0%	138	100.0%

○ 2017년 식품 이상증세 상담 사례

(1월)

- 건강기능식품 : 이랑굿 헬스톡(설사), 이베이옥션 글루콘산아연(메스꺼움), 굿모닝월드 실큐 아미노산(복통), 코리아나사 여성호르몬제품(위장장애), 시스팜 혈관팔팔 피부팔팔(혈압상승, 두드러기), 비사이프로비타 콜라겐(부작용), 신세계티비쇼핑 유산균함유제품(변비), 인터넷 광고보고 구입한 브이맥스(구토, 어지러움), 헤미칼(변비, 두드러기)
- 빵 : 대왕카스테라(설사), 파리크라상(배탈), 삼립식품머핀(복통, 설사), PC방 햄버거(배탈)
- 분유류 : 임페리얼 신생아분유(유통기한 경과, 구토), 남양유업 분유 사업자수거 결과 세균과 대장균(배탈, 고열)
- 패스트푸드점 : 봉구스 밥버거(식중독), 맥도날드 커피(종이컵문제로 화상), 교촌치킨(두드러기), 오뚜

닭(구토, 췌장염 바이러스), 햄버거(식중독), 치킨(장염)

(2월~3월)

- 건강기능식품 : 이랑굿 헬스톡(설사), 이베이옥션 글루콘산아연(메스꺼움), 굿모닝월드 실큐 아미노산(복통), 코리아나사 여성호르몬제품(위장장애), 시스팜 혈관팔팔 피부팔팔(혈압상승, 두드러기), 비사이프로비타 콜라겐(부작용), 신세계티비쇼핑 유산균함유제품(변비), 인터넷 광고보고 구입한 브이맥스(구토, 어지러움), 헤미칼(변비, 두드러기)
- 빵 : 대왕카스테라(설사), 파리크라상(배탈), 삼립식품머핀(복통, 설사), PC방 햄버거(배탈)
- 분유류 : 임페리얼 신생아분유(유통기한 경과, 구토), 남양유업 분유 사업자수거 결과 세균과 대장균(배탈, 고열)
- 패스트푸드점 : 봉구스 밥버거(식중독), 맥도날드 커피(종이컵문제로 화상), 교촌치킨(두드러기), 오푸 닭(구토, 췌장염 바이러스), 햄버거(식중독), 치킨(장염)

(4월~5월)

- 즉석식품 : NS홈쇼핑 갈비탕(치아손상, 제조사 경매처분 중, 홈쇼핑 현재 판매중단제품이므로 불가주장), 롯데푸드 곤지암소재 세븐일레븐 강황 닭가슴살김밥(식중독증세), 명랑핫도그(췌장, 치아손상), 만두(이물질, 치아손상), 미니스톱 족발(배탈), GS마트 김밥(장염), 편의점 CJ냉동볶음밥(식중독)
- 건강기능식품 : 종근당 오메가3(위궤양), 아모레퍼시픽 명작수(복통), 드림리더 세노비스(구토),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디톡스 제품(5일째 하혈), 신문광고 힐링바이오(두드러기, 반점), 정관장 화애락(평소 자궁근종있음, 배가불러짐, 섬유성분이 안좋다고 하여 문의), 비엔에이치케어 다이어트제품(위 통증, 응급실) 등

(6월~7월)

- 빵류 : 명랑핫도그(장염), 파리바게트 빵(장염), 스타벅스 초코머핀(비닐포장에 콩기름, 두유 표시되어 있고, 견과류표시 없음, 아이가 견과류 알레르기 발생), 이마트 광명점 정통만두(두드러기, 식중독증상)
- 우유류 : 세븐일레븐 동원식품 개그콘서트 덴마크 픽미 초코우유(몇일간 설사, 구토, 응급실), 롯데마트 정식품두유(설사), 강성원두유(설사), 연세우유(온가족 배탈) 등
- 패스트푸드점 : 맥도날드(장염, 구토, 설사), 롯데리아햄버거(복통, 두드러기, 머리카락), 창원롯데리아와규세트(두드러기로 응급실), BBQ 후라이드치킨(두드러기 응급실), 교촌치킨(돌-치아손상),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상하이버거(설사), KFC햄버거(부작용), 버거킹붉은대게와퍼(설사) 등

(8월~9월)

- 패스트푸드점 : 피자헛(3명 장염), 킹스타 피자(돌), 이월드 내 햄버거(두드러기), 맥도날드 밀크셰이크(구토감), 롯데리아, 맥도날드, 맘스터치(장염), 맘스터치(돌, 치아손상) 등
- 즉석식품 : 오투기 곰탕(이상증세), 아임쇼핑 가마솥진국갈비탕(유통기한2013년0908, 인쇄오류라고 함, 구토감), CJ홈쇼핑 비비고육개장(설사복통 등), 온라인 이마트 샴브샴브패키지(곰팡이), 롯데푸드 편의점(치아손상), GS편의점김밥(설사), 이마트 초밥(구토), 코리아세븐 삼각김밥(배탈, 냄새남) 등
- 건강기능식품 : 코스트코 유기농프로폴리스(가려움증발생, 알레르기있는사람 복용하지 말라는 섭취주의사항있음, 판매약사 설명문제), 옥션 헬스보충제(가려움증), GS홈쇼핑 시차인치 식물성 오메가(구토), 굿모닝 실큐아미노산(소화안됨),

- 기타(건강식품) : 밴드로 구입한 종근당건강 다이어트제품(부종), 카카오닙스(검정돌, 치아시큰거림), 참외축제 구입 울금진액골드(설사), 청인골드 유산균함유제품(설사), 코스맥스바이오 비즈왁스알코올100(부기), 현대홈쇼핑 보이차 다이어트(어지러움), 가ैया농장 돌미나리즙(식도염, 위염, 가슴통증 등) 등
- 과자류 : 용가리질소과자(아이가 혀에 화상입어 입원치료중), 아이스브레이크(수입식품) 섭취시 혀바닥 화상 주의사항 명시에 대한 의무 여부 문의

(10월)

- 건강기능식품 : 방문판매 아르코벤플러스 제품(두통), 메나테크 코리아(얼굴부기), 신세계 홈쇼핑 유산균(가려움증), 유한양행 영양제(설사 및 구토)
- 기타(건강식품) : 닥터웰빙 해독주스(이상증세), 오만디환(설사), 뉴피니션 다이어트제품(이상증세, 부기/하혈) 등
- 즉석식품 : 홈앤쇼핑 소머리곰탕(두드러기), gs편의점 도시락(복통, 설사), 산삼휴게소 핫바(설사)

(3) 유통기한

○ 1월~12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886건으로 과자류 87건(9.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빵이 67건(7.6%), 우유류 65건(7.3%), 과·채음료류 58건(6.5%), 즉석식품 54건(6.1%)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1월~12월)

품목	유통기한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57	7.4%	10	8.7%	67	7.6%
케익류	7	0.9%	3	2.6%	10	1.1%
떡류	3	0.4%	0	0.0%	3	0.3%
과자류	84	10.9%	3	2.6%	87	9.8%
코코아가공품류	13	1.7%	3	2.6%	16	1.8%
잼류	0	0.0%	0	0.0%	0	0.0%
설탕	2	0.3%	2	1.7%	4	0.5%
포도당/과당	1	0.1%	0	0.0%	1	0.1%
꿀	1	0.1%	0	0.0%	1	0.1%
엿류	1	0.1%	0	0.0%	1	0.1%
당시럽류	1	0.1%	0	0.0%	1	0.1%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류	10	1.3%	6	5.2%	16	1.8%
빙과류	0	0.0%	0	0.0%	0	0.0%
우유류	61	7.9%	4	3.5%	65	7.3%
발효유류	15	1.9%	2	1.7%	17	1.9%
분유류	10	1.3%	0	0.0%	10	1.1%
치즈·버터류	9	1.2%	0	0.0%	9	1.0%
햄 및 소시지류	15	1.9%	3	2.6%	18	2.0%
치킨류	0	0.0%	1	0.9%	1	0.1%
기타육류가공품	20	2.6%	2	1.7%	22	2.5%
알가공품	2	0.3%	0	0.0%	2	0.2%
어묵제품류	5	0.6%	3	2.6%	8	0.9%
두부류 또는 묵류	8	1.0%	0	0.0%	8	0.9%
식용유지류	7	0.9%	0	0.0%	7	0.8%
라면류	41	5.3%	3	2.6%	44	5.0%
건면류	2	0.3%	0	0.0%	2	0.2%
생면류	1	0.1%	1	0.9%	2	0.2%
다류	7	0.9%	3	2.6%	10	1.1%
커피	28	3.6%	3	2.6%	31	3.5%
탄산음료류	38	4.9%	1	0.9%	39	4.4%
과채음료류	56	7.3%	2	1.7%	58	6.5%
생수	5	0.6%	1	0.9%	6	0.7%
특수용도식품(환자식)	3	0.4%	0	0.0%	3	0.3%
이유식	3	0.4%	1	0.9%	4	0.5%
장류	4	0.5%	1	0.9%	5	0.6%
소스류	3	0.4%	1	0.9%	4	0.5%
식초류	0	0.0%	0	0.0%	0	0.0%
조미료	3	0.4%	0	0.0%	3	0.3%
복합조미식품	3	0.4%	1	0.9%	4	0.5%
드레싱류	0	0.0%	0	0.0%	0	0.0%
김치류	3	0.4%	0	0.0%	3	0.3%
젓갈류	3	0.4%	0	0.0%	3	0.3%
절임식품	2	0.3%	0	0.0%	2	0.2%
절임배추	0	0.0%	0	0.0%	0	0.0%
조림식품	10	1.3%	0	0.0%	10	1.1%
소주	1	0.1%	0	0.0%	1	0.1%
맥주	19	2.5%	1	0.9%	20	2.3%
포도주	1	0.1%	0	0.0%	1	0.1%
탁약주(막걸리)	10	1.3%	4	3.5%	14	1.6%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5	0.6%	2	1.7%	7	0.8%
건포류	5	0.6%	3	2.6%	8	0.9%

건강기능식품	35	4.5%	6	5.2%	41	4.6%
기타(건강식품)	18	2.3%	5	4.3%	23	2.6%
즉석식품	51	6.6%	3	2.6%	54	6.1%
쇠고기	3	0.4%	2	1.7%	5	0.6%
돼지고기	3	0.4%	2	1.7%	5	0.6%
닭고기	4	0.5%	2	1.7%	6	0.7%
오리고기	0	0.0%	0	0.0%	0	0.0%
기타육류	2	0.3%	2	1.7%	4	0.5%
알류	7	0.9%	3	2.6%	10	1.1%
곡류	8	1.0%	7	6.1%	15	1.7%
채소류	2	0.3%	2	1.7%	4	0.5%
과일류	4	0.5%	1	0.9%	5	0.6%
생선류	5	0.6%	3	2.6%	8	0.9%
어패류	6	0.8%	0	0.0%	6	0.7%
해조류	12	1.6%	0	0.0%	12	1.4%
식용종자·버섯류	0	0.0%	2	1.7%	2	0.2%
나물류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1	0.1%	2	1.7%	3	0.3%
견과류	8	1.0%	3	2.6%	11	1.2%
고추가루	1	0.1%	0	0.0%	1	0.1%
한식	2	0.3%	0	0.0%	2	0.2%
양식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2	0.3%	0	0.0%	2	0.2%
뷔페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9	1.2%	0	0.0%	9	1.0%
총계	771	100.0%	115	100.0%	886	100.0%

○ 1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69건으로 우유류가 10건(14.5%), 과자류 9건(13.0%), 탄산음료류와 맥주, 즉석식품이 각각 4건(5.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1월)

품목	유통기한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3.3%	0	0.0%	2	2.9%
케익류	1	1.6%	0	0.0%	1	1.4%
떡류	0	0.0%	0	0.0%	0	0.0%
과자류	9	14.8%	0	0.0%	9	13.0%
코코아가공품류	2	3.3%	0	0.0%	2	2.9%
잼류	0	0.0%	0	0.0%	0	0.0%
설탕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7	11.5%	3	37.5%	10	14.5%
발효유류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1	1.6%	0	0.0%	1	1.4%
치킨류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1	1.6%	0	0.0%	1	1.4%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1	1.6%	0	0.0%	1	1.4%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라면류	3	4.9%	0	0.0%	3	4.3%
건면류	0	0.0%	0	0.0%	0	0.0%
생면류						
다류	0	0.0%	2	25.0%	2	2.9%
커피	2	3.3%	0	0.0%	2	2.9%
탄산음료류	4	6.6%	0	0.0%	4	5.8%
과채음료류	1	1.6%	0	0.0%	1	1.4%
생수	0	0.0%	1	12.5%	1	1.4%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장류	1	1.6%	0	0.0%	1	1.4%
소스류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1	1.6%	0	0.0%	1	1.4%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1	1.6%	0	0.0%	1	1.4%
젓갈류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소주	1	1.6%	0	0.0%	1	1.4%
맥주	4	6.6%	0	0.0%	4	5.8%
포도주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2	3.3%	0	0.0%	2	2.9%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건포류	1	1.6%	0	0.0%	1	1.4%
건강기능식품	0	0.0%	0	0.0%	0	0.0%
기타(건강식품)	2	3.3%	0	0.0%	2	2.9%
즉석식품	3	4.9%	1	12.5%	4	5.8%

쇠고기	1	1.6%	1	12.5%	2	2.9%
돼지고기	1	1.6%	0	0.0%	1	1.4%
닭고기	0	0.0%	0	0.0%	0	0.0%
오리고기						
기타육류	1	1.6%	0	0.0%	1	1.4%
알류	0	0.0%	0	0.0%	0	0.0%
곡류	1	1.6%	0	0.0%	1	1.4%
채소류	0	0.0%	0	0.0%	0	0.0%
과일류	1	1.6%	0	0.0%	1	1.4%
생선류	1	1.6%	0	0.0%	1	1.4%
어패류	1	1.6%	0	0.0%	1	1.4%
해조류	1	1.6%	0	0.0%	1	1.4%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1	1.6%	0	0.0%	1	1.4%
견과류	0	0.0%	0	0.0%	0	0.0%
고추가루						
한식	1	1.6%	0	0.0%	1	1.4%
양식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뷔페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1	1.6%	0	0.0%	1	1.4%
총계	61	100.0%	8	100.0%	69	100.0%

○ 2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48건으로 빵이 6건(12.5%)으로 가장 많았고, 과자류가 5건(10.4%), 코코아가공품류와 분유류, 탄산음료류가 각각 3건(6.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2월)

품목	유통기한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6	14.3%	0	0.0%	6	12.5%
케익류	0	0.0%	2	33.3%	2	4.2%
떡류	0	0.0%	0	0.0%	0	0.0%
과자류	5	11.9%	0	0.0%	5	10.4%
코코아가공품류	3	7.1%	0	0.0%	3	6.3%
잼류	0	0.0%	0	0.0%	0	0.0%
설탕	1	2.4%	1	16.7%	2	4.2%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당시럽류	1	2.4%	0	0.0%	1	2.1%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1	2.4%	0	0.0%	1	2.1%
빙과류	0	0.0%	0	0.0%	0	0.0%
우유류	1	2.4%	0	0.0%	1	2.1%
발효우유	0	0.0%	0	0.0%	0	0.0%
분유류	3	7.1%	0	0.0%	3	6.3%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1	2.4%	0	0.0%	1	2.1%
치킨류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0	0.0%	0	0.0%	0	0.0%
알가공품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1	2.4%	0	0.0%	1	2.1%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1	2.4%	0	0.0%	1	2.1%
라면류	1	2.4%	0	0.0%	1	2.1%
건면류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다류	0	0.0%	1	16.7%	1	2.1%
커피	1	2.4%	0	0.0%	1	2.1%
탄산음료류	3	7.1%	0	0.0%	3	6.3%
과채음료류	2	4.8%	0	0.0%	2	4.2%
생수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2.4%	0	0.0%	1	2.1%
이유식	0	0.0%	0	0.0%	0	0.0%
장류	0	0.0%	1	16.7%	1	2.1%
소스류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	0.0%	0	0.0%	0	0.0%
김치류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조림식품	1	2.4%	0	0.0%	1	2.1%
소주	0	0.0%	0	0.0%	0	0.0%
맥주	1	2.4%	0	0.0%	1	2.1%
포도주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2	4.8%	0	0.0%	2	4.2%
건포류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2	4.8%	0	0.0%	2	4.2%
기타(건강식품)	0	0.0%	0	0.0%	0	0.0%
즉석식품	1	2.4%	0	0.0%	1	2.1%

쇠고기	0	0.0%	0	0.0%	0	0.0%
돼지고기	0	0.0%	0	0.0%	0	0.0%
닭고기	0	0.0%	0	0.0%	0	0.0%
오리고기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알류	1	2.4%	1	16.7%	2	4.2%
곡류	0	0.0%	0	0.0%	0	0.0%
채소류	0	0.0%	0	0.0%	0	0.0%
과일류	0	0.0%	0	0.0%	0	0.0%
생선류	0	0.0%	0	0.0%	0	0.0%
어패류	0	0.0%	0	0.0%	0	0.0%
해조류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견과류	2	4.8%	0	0.0%	2	4.2%
고추가루	0	0.0%	0	0.0%	0	0.0%
한식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뷔페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총계	42	100.0%	6	100.0%	48	100.0%

- 3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85건으로 과자류 11건(12.9%), 우유류와 건강기능식품이 각각 6건(7.1%), 과·채음료류가 5건(5.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3월)

품목	유통기한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	3.7%	0	0.0%	3	3.5%
케익류	1	1.2%	1	25.0%	2	2.4%
떡류	0	0.0%	0	0.0%	0	0.0%
과자류	11	13.6%	0	0.0%	11	12.9%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1	1.2%	0	0.0%	1	1.2%
빙과류						
우유류	5	6.2%	1	25.0%	6	7.1%
발효유류	4	4.9%	0	0.0%	4	4.7%
분유류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햄 및 소시지류	2	2.5%	0	0.0%	2	2.4%
치킨류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3	3.7%	0	0.0%	3	3.5%
알가공품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1	1.2%	0	0.0%	1	1.2%
식용유지류	1	1.2%	0	0.0%	1	1.2%
라면류	4	4.9%	0	0.0%	4	4.7%
건면류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다류	2	2.5%	0	0.0%	2	2.4%
커피	1	1.2%	0	0.0%	1	1.2%
탄산음료류	4	4.9%	0	0.0%	4	4.7%
과채음료류	5	6.2%	0	0.0%	5	5.9%
생수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이유식	1	1.2%	0	0.0%	1	1.2%
장류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1	1.2%	0	0.0%	1	1.2%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절임식품	2	2.5%	0	0.0%	2	2.4%
절임배추						
조림식품	2	2.5%	0	0.0%	2	2.4%
소주	0	0.0%	0	0.0%	0	0.0%
맥주	3	3.7%	0	0.0%	3	3.5%
포도주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2	2.5%	0	0.0%	2	2.4%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1.2%	1	25.0%	2	2.4%
건포류	1	1.2%	0	0.0%	1	1.2%
건강기능식품	6	7.4%	0	0.0%	6	7.1%
기타(건강식품)	4	4.9%	0	0.0%	4	4.7%
즉석식품	3	3.7%	0	0.0%	3	3.5%

쇠고기	0	0.0%	0	0.0%	0	0.0%
돼지고기	0	0.0%	0	0.0%	0	0.0%
닭고기	1	1.2%	0	0.0%	1	1.2%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곡류	0	0.0%	0	0.0%	0	0.0%
채소류	1	1.2%	0	0.0%	1	1.2%
과일류	1	1.2%	0	0.0%	1	1.2%
생선류	1	1.2%	0	0.0%	1	1.2%
어패류	0	0.0%	0	0.0%	0	0.0%
해조류	2	2.5%	0	0.0%	2	2.4%
식용종자버섯류	0	0.0%	1	25.0%	1	1.2%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0	0.0%
고추가루						
한식	0	0.0%	0	0.0%	0	0.0%
양식						
일식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뷔페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1	1.2%	0	0.0%	1	1.2%
총계	81	100.0%	4	100.0%	85	100.0%

- 4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76건으로 과자류와 라면류, 과·채음료류가 각각 8건(10.5%), 우유류가 6건(7.9%), 건강기능식품이 5건(6.6%)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4월)

품목	유통기한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3.1%	0	0.0%	2	2.6%
케익류	1	1.5%	0	0.0%	1	1.3%
떡류	2	3.1%	0	0.0%	2	2.6%
과자류	8	12.3%	0	0.0%	8	10.5%
코코아가공품류	1	1.5%	0	0.0%	1	1.3%
잼류	0	0.0%	0	0.0%	0	0.0%
설탕	1	1.5%	0	0.0%	1	1.3%
포도당/과당	1	1.5%	0	0.0%	1	1.3%
꿀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1	1.5%	0	0.0%	1	1.3%
빙과류						
우유류	6	9.2%	0	0.0%	6	7.9%
발효유류	2	3.1%	0	0.0%	2	2.6%
분유류	1	1.5%	0	0.0%	1	1.3%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1	9.1%	1	1.3%
치킨류						
기타육류가공품	1	1.5%	0	0.0%	1	1.3%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2	3.1%	0	0.0%	2	2.6%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라면류	8	12.3%	0	0.0%	8	10.5%
건면류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다류	1	1.5%	0	0.0%	1	1.3%
커피	2	3.1%	1	9.1%	3	3.9%
탄산음료류	3	4.6%	0	0.0%	3	3.9%
과채음료류	7	10.8%	1	9.1%	8	10.5%
생수	1	1.5%	0	0.0%	1	1.3%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1.5%	0	0.0%	1	1.3%
이유식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식조류						
조미료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1	9.1%	1	1.3%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절임식품						
절임배추						
조림식품	1	1.5%	0	0.0%	1	1.3%
소주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1	9.1%	1	1.3%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4	6.2%	1	9.1%	5	6.6%
기타(건강식품)	0	0.0%	1	9.1%	1	1.3%
즉석식품	4	6.2%	0	0.0%	4	5.3%

쇠고기	1	1.5%	0	0.0%	1	1.3%
돼지고기	0	0.0%	0	0.0%	0	0.0%
닭고기	0	0.0%	0	0.0%	0	0.0%
오리고기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알류	0	0.0%	1	9.1%	1	1.3%
곡류	0	0.0%	1	9.1%	1	1.3%
채소류	0	0.0%	0	0.0%	0	0.0%
과일류	0	0.0%	0	0.0%	0	0.0%
생선류	0	0.0%	0	0.0%	0	0.0%
어패류	1	1.5%	0	0.0%	1	1.3%
해조류	1	1.5%	0	0.0%	1	1.3%
식용종자버섯류	0	0.0%	1	9.1%	1	1.3%
나물류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1	9.1%	1	1.3%
견과류	0	0.0%	0	0.0%	0	0.0%
고추가루						
한식	1	1.5%	0	0.0%	1	1.3%
양식						
일식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총계	65	100.0%	11	100.0%	76	100.0%

○ 5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86건으로 빵이 9건(10.5%), 탄산음료류가 8건(9.3%), 과·채음료류가 7건(8.1%), 과자류와 아이스크림류가 각각 5건(5.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5월)

품목	유통기한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8	11.3%	1	6.7%	9	10.5%
케익류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과자류	5	7.0%	0	0.0%	5	5.8%
코코아가공품류	1	1.4%	0	0.0%	1	1.2%
잼류	0	0.0%	0	0.0%	0	0.0%
설탕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류	1	1.4%	4	26.7%	5	5.8%
빙과류						
우유류	4	5.6%	0	0.0%	4	4.7%
발효우유	0	0.0%	0	0.0%	0	0.0%
분유류	1	1.4%	0	0.0%	1	1.2%
치즈·버터류	2	2.8%	0	0.0%	2	2.3%
햄 및 소시지류	1	1.4%	0	0.0%	1	1.2%
치킨류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3	4.2%	0	0.0%	3	3.5%
알가공품	1	1.4%	0	0.0%	1	1.2%
어묵제품류	0	0.0%	2	13.3%	2	2.3%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커피	4	5.6%	0	0.0%	4	4.7%
탄산음료류	8	11.3%	0	0.0%	8	9.3%
과채음료류	6	8.5%	1	6.7%	7	8.1%
생수	1	1.4%	0	0.0%	1	1.2%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장류	1	1.4%	0	0.0%	1	1.2%
소스류	1	1.4%	0	0.0%	1	1.2%
식초류	0	0.0%	0	0.0%	0	0.0%
조미료	1	1.4%	0	0.0%	1	1.2%
복합조미식품						
드레싱류	0	0.0%	0	0.0%	0	0.0%
김치류	0	0.0%	0	0.0%	0	0.0%
젓갈류	2	2.8%	0	0.0%	2	2.3%
절임식품	0	0.0%	0	0.0%	0	0.0%
절임배추						
조림식품	4	5.6%	0	0.0%	4	4.7%
소주	0	0.0%	0	0.0%	0	0.0%
맥주	2	2.8%	0	0.0%	2	2.3%
포도주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2	2.8%	0	0.0%	2	2.3%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3	4.2%	1	6.7%	4	4.7%
기타(건강식품)	2	2.8%	1	6.7%	3	3.5%
즉석식품	3	4.2%	1	6.7%	4	4.7%

쇠고기	0	0.0%	0	0.0%	0	0.0%
돼지고기	0	0.0%	1	6.7%	1	1.2%
닭고기	0	0.0%	0	0.0%	0	0.0%
오리고기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1	6.7%	1	1.2%
알류	0	0.0%	0	0.0%	0	0.0%
곡류	0	0.0%	0	0.0%	0	0.0%
채소류	0	0.0%	0	0.0%	0	0.0%
과일류	1	1.4%	0	0.0%	1	1.2%
생선류	1	1.4%	1	6.7%	2	2.3%
어패류	1	1.4%	0	0.0%	1	1.2%
해조류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견과류	1	1.4%	1	6.7%	2	2.3%
고추가루						
한식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총계	71	100.0%	15	100.0%	86	100.0%

○ 6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72건으로 과·채음료류가 11건(15.3%), 과자류가 6건(8.3%), 우유류와 건강기능식품, 즉석식품, 곡류가 각각 4건(5.6%)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6월)

품목	유통기한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	4.8%	0	0.0%	3	4.2%
케익류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과자류	6	9.5%	0	0.0%	6	8.3%
코코아가공품류	0	0.0%	1	11.1%	1	1.4%
잼류						
설탕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엿류	1	1.6%	0	0.0%	1	1.4%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1	1.6%	0	0.0%	1	1.4%
빙과류	0	0.0%	0	0.0%	0	0.0%
우유류	4	6.3%	0	0.0%	4	5.6%
발효유류	1	1.6%	0	0.0%	1	1.4%
분유류	1	1.6%	0	0.0%	1	1.4%
치즈·버터류	1	1.6%	0	0.0%	1	1.4%
햄 및 소시지류	2	3.2%	0	0.0%	2	2.8%
치킨류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2	3.2%	0	0.0%	2	2.8%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2	3.2%	0	0.0%	2	2.8%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라면류	3	4.8%	0	0.0%	3	4.2%
건면류	2	3.2%	0	0.0%	2	2.8%
생면류	1	1.6%	0	0.0%	1	1.4%
다류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0	0.0%
탄산음료류	1	1.6%	1	11.1%	2	2.8%
과채음료류	11	17.5%	0	0.0%	11	15.3%
생수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1	1.6%	0	0.0%	1	1.4%
젓갈류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소주						
맥주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3	33.3%	3	4.2%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건포류	2	3.2%	0	0.0%	2	2.8%
건강기능식품	4	6.3%	0	0.0%	4	5.6%
기타(건강식품)	1	1.6%	2	22.2%	3	4.2%
즉석식품	4	6.3%	0	0.0%	4	5.6%

쇠고기	1	1.6%	1	11.1%	2	2.8%
돼지고기	0	0.0%	0	0.0%	0	0.0%
닭고기	0	0.0%	0	0.0%	0	0.0%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곡류	3	4.8%	1	11.1%	4	5.6%
채소류	0	0.0%	0	0.0%	0	0.0%
과일류	0	0.0%	0	0.0%	0	0.0%
생선류	1	1.6%	0	0.0%	1	1.4%
어패류	1	1.6%	0	0.0%	1	1.4%
해조류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견과류	1	1.6%	0	0.0%	1	1.4%
고추가루	0	0.0%	0	0.0%	0	0.0%
한식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뷔페						
기타식품류	2	3.2%	0	0.0%	2	2.8%
총계	63	100.0%	9	100.0%	72	100.0%

- 7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79건으로 과자류와 우유류가 각각 8건(10.1%), 과·채음료류 6건(7.6%).
빵과 건강기능식품, 즉석식품이 각각 5건(6.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7월)

품목	유통기한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3.2%	3	18.8%	5	6.3%
케익류	1	1.6%	0	0.0%	1	1.3%
떡류	0	0.0%	0	0.0%	0	0.0%
과자류	6	9.5%	2	12.5%	8	10.1%
코코아가공품류	1	1.6%	0	0.0%	1	1.3%
잼류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1	1.6%	2	12.5%	3	3.8%
빙과류	0	0.0%	0	0.0%	0	0.0%
우유류	8	12.7%	0	0.0%	8	10.1%
발효우유	2	3.2%	1	6.3%	3	3.8%
분유류	1	1.6%	0	0.0%	1	1.3%
치즈·버터류	1	1.6%	0	0.0%	1	1.3%
햄 및 소시지류	1	1.6%	0	0.0%	1	1.3%
치킨류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0	0.0%	0	0.0%	0	0.0%
알가공품	1	1.6%	0	0.0%	1	1.3%
어묵제품류	2	3.2%	0	0.0%	2	2.5%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라면류	1	1.6%	1	6.3%	2	2.5%
건면류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다류	1	1.6%	0	0.0%	1	1.3%
커피	3	4.8%	0	0.0%	3	3.8%
탄산음료류	3	4.8%	0	0.0%	3	3.8%
과채음료류	6	9.5%	0	0.0%	6	7.6%
생수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이유식	1	1.6%	0	0.0%	1	1.3%
장류	1	1.6%	0	0.0%	1	1.3%
소스류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	0.0%	0	0.0%	0	0.0%
김치류	0	0.0%	0	0.0%	0	0.0%
젓갈류	1	1.6%	0	0.0%	1	1.3%
절임식품	0	0.0%	0	0.0%	0	0.0%
절임배추						
조림식품	1	1.6%	0	0.0%	1	1.3%
소주	0	0.0%	0	0.0%	0	0.0%
맥주	1	1.6%	1	6.3%	2	2.5%
포도주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2	3.2%	0	0.0%	2	2.5%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3	4.8%	2	12.5%	5	6.3%
기타(건강식품)	0	0.0%	1	6.3%	1	1.3%
즉석식품	5	7.9%	0	0.0%	5	6.3%

쇠고기	0	0.0%	0	0.0%	0	0.0%
돼지고기	1	1.6%	0	0.0%	1	1.3%
닭고기	0	0.0%	1	6.3%	1	1.3%
오리고기						
기타육류	1	1.6%	0	0.0%	1	1.3%
알류	0	0.0%	0	0.0%	0	0.0%
곡류	0	0.0%	1	6.3%	1	1.3%
채소류	0	0.0%	1	6.3%	1	1.3%
과일류	1	1.6%	0	0.0%	1	1.3%
생선류	0	0.0%	0	0.0%	0	0.0%
어패류	0	0.0%	0	0.0%	0	0.0%
해조류	1	1.6%	0	0.0%	1	1.3%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견과류	1	1.6%	0	0.0%	1	1.3%
고추가루	0	0.0%	0	0.0%	0	0.0%
한식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뷔페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2	3.2%	0	0.0%	2	2.5%
총계	63	100.0%	16	100.0%	79	100.0%

- 8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75건으로 과자류 10건(13.3%), 라면류가 8건(10.7%), 즉석식품 6건(8.0%), 우유류와 탄산음료류가 각각 5건(6.7%)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8월)

품목	유통기한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	4.5%	0	0.0%	3	4.0%
케익류	1	1.5%	0	0.0%	1	1.3%
떡류	0	0.0%	0	0.0%	0	0.0%
과자류	10	14.9%	0	0.0%	10	13.3%
코코아가공품류	1	1.5%	0	0.0%	1	1.3%
잼류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1	1.5%	0	0.0%	1	1.3%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2	3.0%	0	0.0%	2	2.7%
빙과류	0	0.0%	0	0.0%	0	0.0%
우유류	5	7.5%	0	0.0%	5	6.7%
발효유류	0	0.0%	0	0.0%	0	0.0%
분유류	1	1.5%	0	0.0%	1	1.3%
치즈·버터류	2	3.0%	0	0.0%	2	2.7%
햄 및 소시지류	0	0.0%	1	12.5%	1	1.3%
치킨류	0	0.0%	1	12.5%	1	1.3%
기타육류가공품	1	1.5%	0	0.0%	1	1.3%
알가공품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1	1.5%	0	0.0%	1	1.3%
라면류	8	11.9%	0	0.0%	8	10.7%
건면류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1	12.5%	1	1.3%
다류	1	1.5%	0	0.0%	1	1.3%
커피	2	3.0%	0	0.0%	2	2.7%
탄산음료류	5	7.5%	0	0.0%	5	6.7%
과채음료류	4	6.0%	0	0.0%	4	5.3%
생수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1	12.5%	1	1.3%
장류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1	1.5%	0	0.0%	1	1.3%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맥주	1	1.5%	0	0.0%	1	1.3%
포도주						
탁약주(막걸리)	1	1.5%	0	0.0%	1	1.3%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1	12.5%	1	1.3%
건포류	1	1.5%	1	12.5%	2	2.7%
건강기능식품	2	3.0%	0	0.0%	2	2.7%
기타(건강식품)	2	3.0%	0	0.0%	2	2.7%
즉석식품	6	9.0%	0	0.0%	6	8.0%

쇠고기	0	0.0%	0	0.0%	0	0.0%
돼지고기	0	0.0%	0	0.0%	0	0.0%
닭고기	0	0.0%	0	0.0%	0	0.0%
오리고기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알류	1	1.5%	0	0.0%	1	1.3%
곡류	1	1.5%	0	0.0%	1	1.3%
채소류	1	1.5%	0	0.0%	1	1.3%
과일류	0	0.0%	0	0.0%	0	0.0%
생선류	0	0.0%	1	12.5%	1	1.3%
어패류	1	1.5%	0	0.0%	1	1.3%
해조류	1	1.5%	0	0.0%	1	1.3%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1	12.5%	1	1.3%
고추가루	0	0.0%	0	0.0%	0	0.0%
한식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총계	67	100.0%	8	100.0%	75	100.0%

○ 9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103건으로 빵이 12건(11.7%), 과자류가 10건(9.7%), 우유류와 즉석식품이 각각 8건(7.8%), 과,채음료류 7건(6.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9월)

품목	유통기한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1	12.1%	1	8.3%	12	11.7%
케익류	1	1.1%	0	0.0%	1	1.0%
떡류	0	0.0%	0	0.0%	0	0.0%
과자류	9	9.9%	1	8.3%	10	9.7%
코코아가공품류	1	1.1%	1	8.3%	2	1.9%
잼류	0	0.0%	0	0.0%	0	0.0%
설탕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2	2.2%	0	0.0%	2	1.9%
빙과류	0	0.0%	0	0.0%	0	0.0%
우유류	8	8.8%	0	0.0%	8	7.8%
발효유류	4	4.4%	0	0.0%	4	3.9%
분유류	1	1.1%	0	0.0%	1	1.0%
치즈·버터류	1	1.1%	0	0.0%	1	1.0%
햄 및 소시지류	0	0.0%	1	8.3%	1	1.0%
치킨류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2	2.2%	1	8.3%	3	2.9%
알가공품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1	1.1%	0	0.0%	1	1.0%
두부류 또는 묵류	1	1.1%	0	0.0%	1	1.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라면류	2	2.2%	2	16.7%	4	3.9%
건면류						
생면류						
다류	0	0.0%	0	0.0%	0	0.0%
커피	5	5.5%	0	0.0%	5	4.9%
탄산음료류	2	2.2%	0	0.0%	2	1.9%
과·채음료류	7	7.7%	0	0.0%	7	6.8%
생수	1	1.1%	0	0.0%	1	1.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장류	1	1.1%	0	0.0%	1	1.0%
소스류	1	1.1%	0	0.0%	1	1.0%
식초류						
조미료	1	1.1%	0	0.0%	1	1.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절임식품						
절임배추	0	0.0%	0	0.0%	0	0.0%
조림식품	1	1.1%	0	0.0%	1	1.0%
소주	0	0.0%	0	0.0%	0	0.0%
맥주	5	5.5%	0	0.0%	5	4.9%
포도주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1	1.1%	0	0.0%	1	1.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1.1%	0	0.0%	1	1.0%
건포류	0	0.0%	1	8.3%	1	1.0%
건강기능식품	2	2.2%	1	8.3%	3	2.9%
기타(건강식품)	2	2.2%	0	0.0%	2	1.9%
즉석식품	8	8.8%	0	0.0%	8	7.8%

쇠고기	0	0.0%	0	0.0%	0	0.0%
돼지고기	0	0.0%	0	0.0%	0	0.0%
닭고기	1	1.1%	0	0.0%	1	1.0%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알류	3	3.3%	1	8.3%	4	3.9%
곡류	1	1.1%	0	0.0%	1	1.0%
채소류	0	0.0%	0	0.0%	0	0.0%
과일류	0	0.0%	1	8.3%	1	1.0%
생선류	0	0.0%	0	0.0%	0	0.0%
어패류	0	0.0%	0	0.0%	0	0.0%
해조류	2	2.2%	0	0.0%	2	1.9%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1	8.3%	1	1.0%
견과류	1	1.1%	0	0.0%	1	1.0%
고추가루	0	0.0%	0	0.0%	0	0.0%
한식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1	1.1%	0	0.0%	1	1.0%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총계	91	100.0%	12	100.0%	103	100.0%

- 10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70건으로 우유류가 8건(11.4%), 과자류 6건(8.6%), 커피와 건강기능식품, 즉석식품이 각각 5건(7.1%)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10월)

품목	유통기한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3.2%	1	12.5%	3	4.3%
케익류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과자류	6	9.7%	0	0.0%	6	8.6%
코코아가공품류	3	4.8%	0	0.0%	3	4.3%
잼류						
설탕	0	0.0%	1	12.5%	1	1.4%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당시럽류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빙과류	0	0.0%	0	0.0%	0	0.0%
우유류	8	12.9%	0	0.0%	8	11.4%
발효유류	2	3.2%	0	0.0%	2	2.9%
분유류	1	1.6%	0	0.0%	1	1.4%
치즈·버터류	1	1.6%	0	0.0%	1	1.4%
햄 및 소시지류	2	3.2%	0	0.0%	2	2.9%
치킨류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2	3.2%	1	12.5%	3	4.3%
알가공품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1	1.6%	1	12.5%	2	2.9%
두부류 또는 묵류	1	1.6%	0	0.0%	1	1.4%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라면류	3	4.8%	0	0.0%	3	4.3%
건면류	0	0.0%	0	0.0%	0	0.0%
생면류						
다류	0	0.0%	0	0.0%	0	0.0%
커피	4	6.5%	1	12.5%	5	7.1%
탄산음료류	3	4.8%	0	0.0%	3	4.3%
과채음료류	3	4.8%	0	0.0%	3	4.3%
생수	1	1.6%	0	0.0%	1	1.4%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1.6%	0	0.0%	1	1.4%
이유식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소스류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1	1.6%	0	0.0%	1	1.4%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1	12.5%	1	1.4%
건강기능식품	5	8.1%	0	0.0%	5	7.1%
기타(건강식품)	1	1.6%	0	0.0%	1	1.4%
즉석식품	4	6.5%	1	12.5%	5	7.1%

쇠고기	0	0.0%	0	0.0%	0	0.0%
돼지고기	1	1.6%	0	0.0%	1	1.4%
닭고기	0	0.0%	0	0.0%	0	0.0%
오리고기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곡류	0	0.0%	0	0.0%	0	0.0%
채소류	0	0.0%	1	12.5%	1	1.4%
과일류	0	0.0%	0	0.0%	0	0.0%
생선류	0	0.0%	0	0.0%	0	0.0%
어패류	0	0.0%	0	0.0%	0	0.0%
해조류	2	3.2%	0	0.0%	2	2.9%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0	0.0%
고추가루	1	1.6%	0	0.0%	1	1.4%
한식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뷔페						
기타식품류	3	4.8%	0	0.0%	3	4.3%
총계	62	100.0%	8	100.0%	70	100.0%

- 11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65건으로 빵이 12건(18.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즉석식품이 7건(10.8%), 라면류 5건(7.7%), 과자류 4건(6.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11월)

품목	유통기한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9	16.4%	3	30.0%	12	18.5%
케익류	1	1.8%	0	0.0%	1	1.5%
떡류	0	0.0%	0	0.0%	0	0.0%
과자류	4	7.3%	0	0.0%	4	6.2%
코코아가공품류	0	0.0%	1	10.0%	1	1.5%
잼류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2	3.6%	0	0.0%	2	3.1%
발효유류	0	0.0%	1	10.0%	1	1.5%
분유류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1	1.8%	0	0.0%	1	1.5%
햄 및 소시지류	2	3.6%	0	0.0%	2	3.1%
치킨류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1	1.8%	0	0.0%	1	1.5%
알가공품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라면류	5	9.1%	0	0.0%	5	7.7%
건면류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다류	2	3.6%	0	0.0%	2	3.1%
커피	2	3.6%	0	0.0%	2	3.1%
탄산음료류	1	1.8%	0	0.0%	1	1.5%
과채음료류	3	5.5%	0	0.0%	3	4.6%
생수	1	1.8%	0	0.0%	1	1.5%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1	10.0%	1	1.5%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1	1.8%	0	0.0%	1	1.5%
젓갈류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맥주	1	1.8%	0	0.0%	1	1.5%
포도주	1	1.8%	0	0.0%	1	1.5%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1.8%	0	0.0%	1	1.5%
건포류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2	3.6%	0	0.0%	2	3.1%
기타(건강식품)	3	5.5%	0	0.0%	3	4.6%
즉석식품	7	12.7%	0	0.0%	7	10.8%

쇠고기	0	0.0%	0	0.0%	0	0.0%
돼지고기	0	0.0%	0	0.0%	0	0.0%
닭고기	1	1.8%	1	10.0%	2	3.1%
오리고기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1	10.0%	1	1.5%
알류	0	0.0%	0	0.0%	0	0.0%
곡류	0	0.0%	0	0.0%	0	0.0%
채소류	0	0.0%	0	0.0%	0	0.0%
과일류	0	0.0%	0	0.0%	0	0.0%
생선류	1	1.8%	1	10.0%	2	3.1%
어패류	0	0.0%	0	0.0%	0	0.0%
해조류	1	1.8%	0	0.0%	1	1.5%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견과류	2	3.6%	1	10.0%	3	4.6%
고추가루	0	0.0%	0	0.0%	0	0.0%
한식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총계	55	100.0%	10	100.0%	65	100.0%

○ 12월 유통기한 불만사례는 총 58건으로 빵이 7건(12.1%), 곡류 6건(10.3%), 과자류 5건(8.6%), 기타육류가공품과 식용유지류가 각각 4건(6.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유통기한 상담 건수(12월)

품목	유통기한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6	12.0%	1	12.5%	7	12.1%
케익류	0	0.0%	0	0.0%	0	0.0%
떡류	1	2.0%	0	0.0%	1	1.7%
과자류	5	10.0%	0	0.0%	5	8.6%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잼류						
설탕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3	6.0%	0	0.0%	3	5.2%
발효유류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3	6.0%	0	0.0%	3	5.2%
치킨류						
기타육류가공품	4	8.0%	0	0.0%	4	6.9%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4	8.0%	0	0.0%	4	6.9%
라면류	3	6.0%	0	0.0%	3	5.2%
건면류	0	0.0%	0	0.0%	0	0.0%
생면류						
다류	0	0.0%	0	0.0%	0	0.0%
커피	2	4.0%	1	12.5%	3	5.2%
탄산음료류	1	2.0%	0	0.0%	1	1.7%
과채음료류	1	2.0%	0	0.0%	1	1.7%
생수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이유식	1	2.0%	0	0.0%	1	1.7%
장류	0	0.0%	0	0.0%	0	0.0%
소스류	1	2.0%	0	0.0%	1	1.7%
식초류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맥주	1	2.0%	0	0.0%	1	1.7%
포도주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건포류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2	4.0%	1	12.5%	3	5.2%
기타(건강식품)	1	2.0%	0	0.0%	1	1.7%
즉석식품	3	6.0%	0	0.0%	3	5.2%

쇠고기	0	0.0%	0	0.0%	0	0.0%
돼지고기	0	0.0%	1	12.5%	1	1.7%
닭고기	1	2.0%	0	0.0%	1	1.7%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알류	2	4.0%	0	0.0%	2	3.4%
곡류	2	4.0%	4	50.0%	6	10.3%
채소류	0	0.0%	0	0.0%	0	0.0%
과일류	0	0.0%	0	0.0%	0	0.0%
생선류	0	0.0%	0	0.0%	0	0.0%
어패류	1	2.0%	0	0.0%	1	1.7%
해조류	1	2.0%	0	0.0%	1	1.7%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0	0.0%
고추가루	0	0.0%	0	0.0%	0	0.0%
한식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1	2.0%	0	0.0%	1	1.7%
뷔페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총계	50	100.0%	8	100.0%	58	100.0%

○ 2017년 식품 유통기한 상담 사례

(1월)

- 연세우유 배달(새벽5시이전 배달계약이나 오후배달로 인한 부패), GS편의점 탄산음료(유통기한 경과), 롯데마켓999콜라(유통기한4개월경과), 여의도 셋강 하모니슈퍼 농심 불닭면(4개월경과, 맛이 이상, 해당 매점의 제품 모두 유통기한 경과됨), 맥주(유통기한 경과), 허쉬초콜릿 쿠키앤크림(유통기한 경과)

(2월~3월)

- 코코아가공품류 : 수입초콜릿(유통기한경과, 맛이 이상함), 11번가 구매대행 생초콜릿(유통기한 경과)
- 과,채음료류 : 광동제약 복분자(유통기한 경과), 편의점 오렌지주스(15일 지난),
- 케익류 : 파리바게트 호두파이(유통기한 경과), 투썸플레이스 케이크(유통기한 표시 없음)
- 발효유류 : 요플레(장염), 요구르트(설사)

(4월~5월)

- 과,채음료류 : 티몬 망고/복숭아 에이드(유통기한 임박제품), 다이소 판매제품(유통기한 32일경과), 슈퍼 웅진알로에(유통기한1년경과), 뚜레주르 노워터 착즙주스(반제조식품이라 제조일자 없어도 문제 안 된다고 하여 문의) 등

(6월~7월)

- 과채음료류 : 현대홈쇼핑 석류즙(일부 파우치 '08년도 표시), 웅진식품 햇살음료(유통기한 한달경과) 등
- 건강기능식품 : 경의제약 제품(원료유통기한경과로 회수조치 관련문의), 노니(유통기한경과) 등
- 즉석식품 : GS25시 김밥(유통기한 경과) 등

(8월~9월)

- 빵류 : 파riba게트 치즈케이크 곱팡이(유통기한 임의수정), 파riba게트 식빵,쿠키 등(유통기한 당일인 제품 판매시 소비자가 잘 알아볼수 있도록 안내) 등
- 과자류 : 편의점 과일젤리(유통기한경과), 마트 시리얼(유통기한경과) 등
- 맥주 / 커피 : 유통기한 경과 5건

(10월)

- 우유류 : 농민식자재마트(유통기한경과) , 이안저지방우유 한마음공동체 친환경유기농(유통기한경과), 장보고마트 요거트(유통기한 경과), 편의점 서울우유(2일지남) 등
- 커피 : 편의점 칸타타 캔커피(유통기한 6개월경과) 등
- 건강기능식품 : 풍기특산물 영농조합법인 홍삼선물세트(유통기한 변조), 허벌라이프(유통기한 2013년)

(4) 변질

- 1월~12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966건으로 과일류 280건(14.2%)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144건(7.3%), 빵 124건(6.3%), 곡류 104건(5.3%), 우유류 101건(5.1%) 순으로 나타난.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1월~12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6	3.1%	83	16.1%	5	1.6%	124	6.3%
케익류	11	1.0%	19	3.7%	2	0.6%	32	1.6%
떡류	16	1.4%	11	2.1%	3	1.0%	30	1.5%
과자류	14	1.2%	26	5.1%	5	1.6%	45	2.3%
코코아가공품류	3	0.3%	5	1.0%	0	0.0%	8	0.4%
잼류	0	0.0%	2	0.4%	0	0.0%	2	0.1%
설탕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1	0.2%	0	0.0%	1	0.1%
꿀	0	0.0%	0	0.0%	3	1.0%	3	0.2%
엿류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0	0.0%	1	0.2%	0	0.0%	1	0.1%
아이스크림류	3	0.3%	4	0.8%	0	0.0%	7	0.4%
빙과류	0	0.0%	1	0.2%	1	0.3%	2	0.1%
우유류	86	7.5%	6	1.2%	9	2.9%	101	5.1%
발효유류	4	0.3%	3	0.6%	1	0.3%	8	0.4%
분유류	3	0.3%	2	0.4%	1	0.3%	6	0.3%
치즈·버터류	7	0.6%	9	1.8%	0	0.0%	16	0.8%
햄 및 소시지류	11	1.0%	9	1.8%	0	0.0%	20	1.0%
치킨류	3	0.3%	0	0.0%	0	0.0%	3	0.2%
기타육류가공품	24	2.1%	10	1.9%	14	4.5%	48	2.4%
알가공품	10	0.9%	6	1.2%	0	0.0%	16	0.8%
어묵제품류	5	0.4%	5	1.0%	2	0.6%	12	0.6%
두부류 또는 묵류	7	0.6%	0	0.0%	2	0.6%	9	0.5%
식용유지류	3	0.3%	0	0.0%	2	0.6%	5	0.3%
라면류	2	0.2%	8	1.6%	2	0.6%	12	0.6%
건면류	1	0.1%	3	0.6%	3	1.0%	7	0.4%
생면류	3	0.3%	1	0.2%	1	0.3%	5	0.3%
다류	2	0.2%	3	0.6%	1	0.3%	6	0.3%
커피	6	0.5%	3	0.6%	4	1.3%	13	0.7%
탄산음료류	8	0.7%	5	1.0%	5	1.6%	18	0.9%
과채음료류	17	1.5%	16	3.1%	4	1.3%	37	1.9%
생수	12	1.0%	3	0.6%	57	18.4%	72	3.7%
특수용도식품(환자식)	3	0.3%	0	0.0%	0	0.0%	3	0.2%
이유식	3	0.3%	0	0.0%	0	0.0%	3	0.2%
장류	6	0.5%	11	2.1%	0	0.0%	17	0.9%
소스류	2	0.2%	2	0.4%	0	0.0%	4	0.2%
식초류	1	0.1%	0	0.0%	1	0.3%	2	0.1%
조미료	2	0.2%	0	0.0%	1	0.3%	3	0.2%
복합조미식품	3	0.3%	1	0.2%	0	0.0%	4	0.2%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13	1.1%	4	0.8%	5	1.6%	22	1.1%
젓갈류	11	1.0%	3	0.6%	3	1.0%	17	0.9%
절임식품	3	0.3%	0	0.0%	0	0.0%	3	0.2%
절임배추	3	0.3%	0	0.0%	2	0.6%	5	0.3%
조림식품	1	0.1%	3	0.6%	3	1.0%	7	0.4%
소주	0	0.0%	1	0.2%	1	0.3%	2	0.1%
맥주	6	0.5%	1	0.2%	0	0.0%	7	0.4%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5	0.4%	0	0.0%	1	0.3%	6	0.3%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1	0.2%	2	0.6%	3	0.2%
건포류	20	1.7%	33	6.4%	8	2.6%	61	3.1%

건강기능식품	28	2.4%	12	2.3%	8	2.6%	48	2.4%
기타(건강식품)	15	1.3%	6	1.2%	6	1.9%	27	1.4%
즉석식품	44	3.8%	26	5.1%	10	3.2%	80	4.1%
쇠고기	21	1.8%	3	0.6%	5	1.6%	29	1.5%
돼지고기	13	1.1%	1	0.2%	6	1.9%	20	1.0%
닭고기	8	0.7%	0	0.0%	4	1.3%	12	0.6%
오리고기	1	0.1%	0	0.0%	1	0.3%	2	0.1%
기타육류	0	0.0%	2	0.4%	3	1.0%	5	0.3%
알류	79	6.9%	5	1.0%	5	1.6%	89	4.5%
곡류	45	3.9%	36	7.0%	23	7.4%	104	5.3%
채소류	109	9.5%	29	5.6%	6	1.9%	144	7.3%
과일류	230	20.1%	39	7.6%	11	3.6%	280	14.2%
생선류	36	3.1%	10	1.9%	15	4.9%	61	3.1%
어패류	53	4.6%	3	0.6%	14	4.5%	70	3.6%
해조류	2	0.2%	1	0.2%	2	0.6%	5	0.3%
식용종자·버섯류	4	0.3%	4	0.8%	5	1.6%	13	0.7%
나물류	1	0.1%	0	0.0%	0	0.0%	1	0.1%
약용작물류	7	0.6%	2	0.4%	0	0.0%	9	0.5%
견과류	24	2.1%	15	2.9%	22	7.1%	61	3.1%
고추가루	0	0.0%	2	0.4%	0	0.0%	2	0.1%
한식	17	1.5%	5	1.0%	5	1.6%	27	1.4%
양식	1	0.1%	0	0.0%	0	0.0%	1	0.1%
일식	2	0.2%	0	0.0%	0	0.0%	2	0.1%
중식	2	0.2%	0	0.0%	0	0.0%	2	0.1%
분식	2	0.2%	1	0.2%	1	0.3%	4	0.2%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11	1.0%	5	1.0%	1	0.3%	17	0.9%
뷔페	0	0.0%	0	0.0%	1	0.3%	1	0.1%
기타식품류	9	0.8%	2	0.4%	1	0.3%	12	0.6%
총합계(중복응답)	1143	100.0%	514	100.0%	309	100.0%	1966	100.0%

- 1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57건으로 채소류가 22건(14.0%)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가 21건(13.4%), 알류와 어패류가 각각 13건(8.3%), 생선류가 12건(6.4%)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1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0	0.0%	2	5.6%	0	0.0%	2	1.3%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떡류	1	1.1%	1	2.8%	0	0.0%	2	1.3%
과자류	0	0.0%	0	0.0%	1	2.9%	1	0.6%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설탕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1	2.9%	1	0.6%
엿류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4	4.6%	0	0.0%	1	2.9%	5	3.2%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1	2.9%	1	0.6%
치즈·버터류	0	0.0%	1	2.8%	0	0.0%	1	0.6%
햄 및 소시지류	2	2.3%	1	2.8%	0	0.0%	3	1.9%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3	3.4%	1	2.8%	0	0.0%	4	2.5%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1	2.8%	0	0.0%	1	0.6%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1	2.9%	1	0.6%
라면류	0	0.0%	1	2.8%	0	0.0%	1	0.6%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다류	1	1.1%	0	0.0%	0	0.0%	1	0.6%
커피	0	0.0%	1	2.8%	0	0.0%	1	0.6%
탄산음료류	0	0.0%	1	2.8%	0	0.0%	1	0.6%
과채음료류	0	0.0%	0	0.0%	1	2.9%	1	0.6%
생수	1	1.1%	0	0.0%	2	5.9%	3	1.9%
특수용도식품(환자식)	3	3.4%	0	0.0%	0	0.0%	3	1.9%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장류	1	1.1%	0	0.0%	0	0.0%	1	0.6%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1	1.1%	0	0.0%	0	0.0%	1	0.6%
젓갈류	1	1.1%	0	0.0%	0	0.0%	1	0.6%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2	5.9%	2	1.3%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1	2.9%	1	0.6%
맥주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1	2.9%	1	0.6%
건포류	1	1.1%	3	8.3%	0	0.0%	4	2.5%
건강기능식품	1	1.1%	1	2.8%	0	0.0%	2	1.3%
기타(건강식품)	1	1.1%	1	2.8%	2	5.9%	4	2.5%
즉석식품	2	2.3%	2	5.6%	1	2.9%	5	3.2%

쇠고기	1	1.1%	0	0.0%	1	2.9%	2	1.3%
돼지고기	0	0.0%	0	0.0%	0	0.0%	0	0.0%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알류	13	14.9%	0	0.0%	0	0.0%	13	8.3%
곡류	2	2.3%	3	8.3%	5	14.7%	10	6.4%
채소류	15	17.2%	5	13.9%	2	5.9%	22	14.0%
과일류	15	17.2%	6	16.7%	0	0.0%	21	13.4%
생선류	5	5.7%	4	11.1%	3	8.8%	12	7.6%
어패류	9	10.3%	0	0.0%	4	11.8%	13	8.3%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2	5.9%	2	1.3%
고추가루								
한식	2	2.3%	0	0.0%	0	0.0%	2	1.3%
양식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분식	1	1.1%	0	0.0%	1	2.9%	2	1.3%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1	2.8%	1	2.9%	2	1.3%
뷔페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1	1.1%	0	0.0%	0	0.0%	1	0.6%
총합계(중복응답)	87	100.0%	36	100.0%	34	100.0%	157	100.0%

○ 2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13건으로 과일류 19건(16.8%)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8건(7.1%), 건포류와 어패류가 각각 7건(6.2%), 생선류가 6건(5.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2월)

품 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3.2%	0	0.0%	0	0.0%	2	1.8%
케익류	1	1.6%	3	11.5%	1	4.0%	5	4.4%
떡류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0	0.0%	2	7.7%	0	0.0%	2	1.8%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1	4.0%	1	0.9%
엿류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2	3.2%	0	0.0%	0	0.0%	2	1.8%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2	3.2%	2	7.7%	0	0.0%	4	3.5%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1	1.6%	0	0.0%	0	0.0%	1	0.9%
치즈·버터류	0	0.0%	1	3.8%	0	0.0%	1	0.9%
햄 및 소시지류	0	0.0%	1	3.8%	0	0.0%	1	0.9%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2	3.2%	0	0.0%	0	0.0%	2	1.8%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1	1.6%	0	0.0%	1	4.0%	2	1.8%
건면류	0	0.0%	1	3.8%	0	0.0%	1	0.9%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0	0.0%	0	0.0%
탄산음료류	0	0.0%	1	3.8%	2	8.0%	3	2.7%
과채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생수	0	0.0%	0	0.0%	1	4.0%	1	0.9%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장류	1	1.6%	3	11.5%	0	0.0%	4	3.5%
소스류	1	1.6%	0	0.0%	0	0.0%	1	0.9%
식초류	0	0.0%	0	0.0%	1	4.0%	1	0.9%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2	3.2%	0	0.0%	0	0.0%	2	1.8%
젓갈류	1	1.6%	0	0.0%	1	4.0%	2	1.8%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1	1.6%	0	0.0%	1	4.0%	2	1.8%
소주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2	3.2%	0	0.0%	5	20.0%	7	6.2%
건강기능식품	2	3.2%	0	0.0%	0	0.0%	2	1.8%
기타(건강식품)	2	3.2%	1	3.8%	0	0.0%	3	2.7%
즉석식품	2	3.2%	1	3.8%	1	4.0%	4	3.5%

쇠고기	1	1.6%	0	0.0%	0	0.0%	1	0.9%
돼지고기	1	1.6%	0	0.0%	2	8.0%	3	2.7%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0	0.0%	0	0.0%	1	4.0%	1	0.9%
기타육류	0	0.0%	0	0.0%	1	4.0%	1	0.9%
알류	0	0.0%	0	0.0%	0	0.0%	0	0.0%
곡류	3	4.8%	2	7.7%	0	0.0%	5	4.4%
채소류	5	8.1%	3	11.5%	0	0.0%	8	7.1%
과일류	15	24.2%	3	11.5%	1	4.0%	19	16.8%
생선류	3	4.8%	0	0.0%	3	12.0%	6	5.3%
어패류	5	8.1%	0	0.0%	2	8.0%	7	6.2%
해조류	1	1.6%	0	0.0%	0	0.0%	1	0.9%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1	1.6%	0	0.0%	0	0.0%	1	0.9%
견과류	2	3.2%	1	3.8%	0	0.0%	3	2.7%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한식	0	0.0%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0	0.0%	1	3.8%	0	0.0%	1	0.9%
뷔페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62	100.0%	26	100.0%	25	100.0%	113	100.0%

○ 3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18건으로 과일류 15건(12.7%)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가 10건(8.5%), 우유류 8건(6.8%), 기타육류가공품과 즉석식품이 각각 6건(5.1%)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3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1.7%	4	10.3%	0	0.0%	5	4.2%
케익류	0	0.0%	1	2.6%	1	5.0%	2	1.7%
떡류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0	0.0%	4	10.3%	1	5.0%	5	4.2%
코코아가공품류	0	0.0%	1	2.6%	0	0.0%	1	0.8%
잼류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6	10.2%	1	2.6%	1	5.0%	8	6.8%
발효유류	1	1.7%	1	2.6%	0	0.0%	2	1.7%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햄 및 소시지류	0	0.0%	1	2.6%	0	0.0%	1	0.8%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3	5.1%	0	0.0%	3	15.0%	6	5.1%
알가공품	1	1.7%	0	0.0%	0	0.0%	1	0.8%
어묵제품류	0	0.0%	1	2.6%	0	0.0%	1	0.8%
두부류 또는 묵류	1	1.7%	0	0.0%	1	5.0%	2	1.7%
식용유지류	0	0.0%	0	0.0%	1	5.0%	1	0.8%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1	1.7%	0	0.0%	0	0.0%	1	0.8%
다류	1	1.7%	1	2.6%	0	0.0%	2	1.7%
커피	0	0.0%	0	0.0%	0	0.0%	0	0.0%
탄산음료류	0	0.0%	1	2.6%	1	5.0%	2	1.7%
과채음료류	0	0.0%	4	10.3%	0	0.0%	4	3.4%
생수	0	0.0%	1	2.6%	2	10.0%	3	2.5%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1	1.7%	0	0.0%	0	0.0%	1	0.8%
장류	1	1.7%	2	5.1%	0	0.0%	3	2.5%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2	3.4%	0	0.0%	1	5.0%	3	2.5%
젓갈류	0	0.0%	1	2.6%	0	0.0%	1	0.8%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1	5.0%	1	0.8%
건포류	0	0.0%	2	5.1%	0	0.0%	2	1.7%
건강기능식품	0	0.0%	2	5.1%	1	5.0%	3	2.5%
기타(건강식품)	1	1.7%	1	2.6%	0	0.0%	2	1.7%
즉석식품	1	1.7%	3	7.7%	2	10.0%	6	5.1%

쇠고기	1	1.7%	1	2.6%	0	0.0%	2	1.7%
돼지고기	1	1.7%	0	0.0%	0	0.0%	1	0.8%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1	5.0%	1	0.8%
알류	1	1.7%	0	0.0%	0	0.0%	1	0.8%
곡류	3	5.1%	2	5.1%	0	0.0%	5	4.2%
채소류	8	13.6%	2	5.1%	0	0.0%	10	8.5%
과일류	15	25.4%	0	0.0%	0	0.0%	15	12.7%
생선류	2	3.4%	0	0.0%	0	0.0%	2	1.7%
어패류	4	6.8%	0	0.0%	1	5.0%	5	4.2%
해조류	0	0.0%	0	0.0%	1	5.0%	1	0.8%
식용종자버섯류	0	0.0%	2	5.1%	0	0.0%	2	1.7%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2	3.4%	0	0.0%	0	0.0%	2	1.7%
고추가루								
한식	1	1.7%	0	0.0%	1	5.0%	2	1.7%
양식								
일식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0	0.0%
뷔페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59	100.0%	39	100.0%	20	100.0%	118	100.0%

○ 4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21건으로 과일류가 18건(14.9%) 가장 많았고, 채소류 13건(10.7%), 빵 9건(7.4%), 건강기능식품이 8건(6.6%)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4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1.8%	7	18.4%	1	3.8%	9	7.4%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떡류	1	1.8%	0	0.0%	0	0.0%	1	0.8%
과자류	1	1.8%	2	5.3%	2	7.7%	5	4.1%
코코아가공품류	0	0.0%	1	2.6%	0	0.0%	1	0.8%
잼류	0	0.0%	2	5.3%	0	0.0%	2	1.7%
설탕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3	5.3%	0	0.0%	0	0.0%	3	2.5%
발효유류	0	0.0%	0	0.0%	1	3.8%	1	0.8%
분유류	0	0.0%	1	2.6%	0	0.0%	1	0.8%
치즈·버터류	0	0.0%	1	2.6%	0	0.0%	1	0.8%
햄 및 소시지류	0	0.0%	1	2.6%	0	0.0%	1	0.8%
치킨류								
기타육류가공품	0	0.0%	1	2.6%	1	3.8%	2	1.7%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1	3.8%	1	0.8%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1	1.8%	0	0.0%	1	3.8%	2	1.7%
생면류	1	1.8%	0	0.0%	0	0.0%	1	0.8%
다류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1	3.8%	1	0.8%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0	0.0%	1	2.6%	1	3.8%	2	1.7%
생수	1	1.8%	0	0.0%	2	7.7%	3	2.5%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1	2.6%	0	0.0%	1	0.8%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1	1.8%	0	0.0%	0	0.0%	1	0.8%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0	0.0%	2	7.7%	2	1.7%
소주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1	1.8%	0	0.0%	0	0.0%	1	0.8%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1	1.8%	3	7.9%	0	0.0%	4	3.3%
건강기능식품	3	5.3%	2	5.3%	3	11.5%	8	6.6%
기타(건강식품)	1	1.8%	0	0.0%	3	11.5%	4	3.3%
즉석식품	4	7.0%	1	2.6%	1	3.8%	6	5.0%

쇠고기	1	1.8%	0	0.0%	0	0.0%	1	0.8%
돼지고기	0	0.0%	0	0.0%	0	0.0%	0	0.0%
닭고기	2	3.5%	0	0.0%	0	0.0%	2	1.7%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0	0.0%
곡류	1	1.8%	2	5.3%	3	11.5%	6	5.0%
채소류	10	17.5%	3	7.9%	0	0.0%	13	10.7%
과일류	12	21.1%	5	13.2%	1	3.8%	18	14.9%
생선류	2	3.5%	0	0.0%	0	0.0%	2	1.7%
어패류	2	3.5%	0	0.0%	1	3.8%	3	2.5%
해조류	0	0.0%	1	2.6%	0	0.0%	1	0.8%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1	1.8%	0	0.0%	0	0.0%	1	0.8%
견과류	2	3.5%	2	5.3%	1	3.8%	5	4.1%
고추가루								
한식	1	1.8%	0	0.0%	0	0.0%	1	0.8%
양식								
일식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1	2.6%	0	0.0%	1	0.8%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0	0.0%
뷔페								
기타식품류	3	5.3%	0	0.0%	0	0.0%	3	2.5%
총합계(중복응답)	57	100.0%	38	100.0%	26	100.0%	121	100.0%

○ 5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27건으로 과일류가 12건(9.4%)로 가장 많았고, 빵이 9건(7.1%), 떡류와 우유류, 곡류, 어패류가 각각 6건(4.7%)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5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5	6.9%	4	9.8%	0	0.0%	9	7.1%
케익류	1	1.4%	3	7.3%	0	0.0%	4	3.1%
떡류	4	5.6%	2	4.9%	0	0.0%	6	4.7%
과자류	0	0.0%	2	4.9%	0	0.0%	2	1.6%
코코아가공품류	0	0.0%	1	2.4%	0	0.0%	1	0.8%
잼류	0	0.0%	0	0.0%	0	0.0%	0	0.0%
설탕								
포도당/과당	0	0.0%	1	2.4%	0	0.0%	1	0.8%
꿀	0	0.0%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0	0.0%	1	2.4%	0	0.0%	1	0.8%
아이스크림류	0	0.0%	1	2.4%	0	0.0%	1	0.8%
빙과류								
우유류	6	8.3%	0	0.0%	0	0.0%	6	4.7%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0	0.0%	1	2.4%	0	0.0%	1	0.8%
햄 및 소시지류	0	0.0%	1	2.4%	0	0.0%	1	0.8%
치킨류	2	2.8%	0	0.0%	0	0.0%	2	1.6%
기타육류가공품	2	2.8%	1	2.4%	1	7.1%	4	3.1%
알가공품	1	1.4%	1	2.4%	0	0.0%	2	1.6%
어묵제품류	1	1.4%	0	0.0%	0	0.0%	1	0.8%
두부류 또는 묵류	1	1.4%	0	0.0%	0	0.0%	1	0.8%
식용유지류	1	1.4%	0	0.0%	0	0.0%	1	0.8%
라면류	0	0.0%	1	2.4%	0	0.0%	1	0.8%
건면류	0	0.0%	1	2.4%	0	0.0%	1	0.8%
생면류	1	1.4%	0	0.0%	0	0.0%	1	0.8%
다류	0	0.0%	0	0.0%	0	0.0%	0	0.0%
커피	1	1.4%	0	0.0%	0	0.0%	1	0.8%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3	4.2%	1	2.4%	0	0.0%	4	3.1%
생수	0	0.0%	0	0.0%	5	35.7%	5	3.9%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1	2.4%	0	0.0%	1	0.8%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1	1.4%	0	0.0%	0	0.0%	1	0.8%
복합조미식품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1	1.4%	0	0.0%	1	7.1%	2	1.6%
젓갈류	0	0.0%	0	0.0%	1	7.1%	1	0.8%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맥주	1	1.4%	0	0.0%	0	0.0%	1	0.8%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1	1.4%	2	4.9%	0	0.0%	3	2.4%
건강기능식품	2	2.8%	1	2.4%	0	0.0%	3	2.4%
기타(건강식품)	1	1.4%	1	2.4%	0	0.0%	2	1.6%
즉석식품	2	2.8%	3	7.3%	0	0.0%	5	3.9%

쇠고기	0	0.0%	0	0.0%	0	0.0%	0	0.0%
돼지고기	0	0.0%	0	0.0%	0	0.0%	0	0.0%
닭고기	1	1.4%	0	0.0%	0	0.0%	1	0.8%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1	2.4%	0	0.0%	1	0.8%
알류	4	5.6%	0	0.0%	0	0.0%	4	3.1%
곡류	3	4.2%	2	4.9%	1	7.1%	6	4.7%
채소류	3	4.2%	0	0.0%	0	0.0%	3	2.4%
과일류	9	12.5%	2	4.9%	1	7.1%	12	9.4%
생선류	1	1.4%	1	2.4%	3	21.4%	5	3.9%
어패류	5	6.9%	1	2.4%	0	0.0%	6	4.7%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1	1.4%	0	0.0%	0	0.0%	1	0.8%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2	2.8%	2	4.9%	1	7.1%	5	3.9%
고추가루								
한식	3	4.2%	1	2.4%	0	0.0%	4	3.1%
양식	1	1.4%	0	0.0%	0	0.0%	1	0.8%
일식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1	1.4%	1	2.4%	0	0.0%	2	1.6%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72	100.0%	41	100.0%	14	100.0%	127	100.0%

○ 6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58건으로 과일류가 25건(15.8%)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15건(9.5%), 우유류가 10건(6.3%), 빵과 곡류, 생선류가 각각 8건(5.1%)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6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1.9%	4	12.1%	2	11.8%	8	5.1%
케익류	3	2.8%	1	3.0%	0	0.0%	4	2.5%
떡류	3	2.8%	2	6.1%	0	0.0%	5	3.2%
과자류	1	0.9%	3	9.1%	0	0.0%	4	2.5%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잼류								
설탕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1	5.9%	1	0.6%
엿류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1	3.0%	0	0.0%	1	0.6%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9	8.3%	0	0.0%	1	5.9%	10	6.3%
발효유류	0	0.0%	2	6.1%	0	0.0%	2	1.3%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2	1.9%	0	0.0%	0	0.0%	2	1.3%
햄 및 소시지류	1	0.9%	0	0.0%	0	0.0%	1	0.6%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3	2.8%	1	3.0%	1	5.9%	5	3.2%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1	0.9%	0	0.0%	0	0.0%	1	0.6%
두부류 또는 목류	4	3.7%	0	0.0%	0	0.0%	4	2.5%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1	5.9%	1	0.6%
생면류	0	0.0%	1	3.0%	0	0.0%	1	0.6%
다류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1	3.0%	0	0.0%	1	0.6%
탄산음료류	1	0.9%	0	0.0%	0	0.0%	1	0.6%
과채음료류	4	3.7%	1	3.0%	0	0.0%	5	3.2%
생수	1	0.9%	0	0.0%	0	0.0%	1	0.6%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1	3.0%	0	0.0%	1	0.6%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소주								
맥주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2	1.9%	3	9.1%	0	0.0%	5	3.2%
건강기능식품	2	1.9%	2	6.1%	2	11.8%	6	3.8%
기타(건강식품)	0	0.0%	0	0.0%	1	5.9%	1	0.6%
즉석식품	3	2.8%	0	0.0%	0	0.0%	3	1.9%

쇠고기	2	1.9%	0	0.0%	1	5.9%	3	1.9%
돼지고기	2	1.9%	0	0.0%	0	0.0%	2	1.3%
닭고기	1	0.9%	0	0.0%	1	5.9%	2	1.3%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알류	3	2.8%	1	3.0%	0	0.0%	4	2.5%
곡류	6	5.6%	0	0.0%	2	11.8%	8	5.1%
채소류	12	11.1%	2	6.1%	1	5.9%	15	9.5%
과일류	21	19.4%	4	12.1%	0	0.0%	25	15.8%
생선류	7	6.5%	0	0.0%	1	5.9%	8	5.1%
어패류	3	2.8%	1	3.0%	0	0.0%	4	2.5%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1	0.9%	1	3.0%	0	0.0%	2	1.3%
견과류	2	1.9%	0	0.0%	2	11.8%	4	2.5%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한식	4	3.7%	1	3.0%	0	0.0%	5	3.2%
양식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중식	1	0.9%	0	0.0%	0	0.0%	1	0.6%
분식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1	0.9%	0	0.0%	0	0.0%	1	0.6%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108	100.0%	33	100.0%	17	100.0%	158	100.0%

○ 7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209건으로 과일류가 27건(12.9%), 우유류가 25건(12.0%), 빵 15건(7.2%), 즉석식품과 채소류가 각각 12건(5.7%)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7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5	3.5%	10	18.2%	0	0.0%	15	7.2%
케익류	1	0.7%	4	7.3%	0	0.0%	5	2.4%
떡류	0	0.0%	1	1.8%	0	0.0%	1	0.5%
과자류	1	0.7%	1	1.8%	0	0.0%	2	1.0%
코코아가공품류	1	0.7%	1	1.8%	0	0.0%	2	1.0%
잼류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2	3.6%	0	0.0%	2	1.0%
빙과류	0	0.0%	1	1.8%	1	9.1%	2	1.0%
우유류	24	16.8%	1	1.8%	0	0.0%	25	12.0%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2	1.4%	2	3.6%	0	0.0%	4	1.9%
햄 및 소시지류	5	3.5%	2	3.6%	0	0.0%	7	3.3%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1	0.7%	1	1.8%	1	9.1%	3	1.4%
알가공품	3	2.1%	2	3.6%	0	0.0%	5	2.4%
어묵제품류	2	1.4%	1	1.8%	0	0.0%	3	1.4%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2	3.6%	0	0.0%	2	1.0%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1	9.1%	1	0.5%
다류	0	0.0%	0	0.0%	0	0.0%	0	0.0%
커피	1	0.7%	0	0.0%	1	9.1%	2	1.0%
탄산음료류	1	0.7%	0	0.0%	0	0.0%	1	0.5%
과채음료류	7	4.9%	0	0.0%	0	0.0%	7	3.3%
생수	5	3.5%	0	0.0%	2	18.2%	7	3.3%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1	0.7%	0	0.0%	0	0.0%	1	0.5%
장류	0	0.0%	1	1.8%	0	0.0%	1	0.5%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1	0.7%	0	0.0%	0	0.0%	1	0.5%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0	0.0%	1	1.8%	0	0.0%	1	0.5%
젓갈류	2	1.4%	2	3.6%	0	0.0%	4	1.9%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2	3.6%	0	0.0%	2	1.0%
소주	0	0.0%	0	0.0%	0	0.0%	0	0.0%
맥주	1	0.7%	0	0.0%	0	0.0%	1	0.5%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1	0.7%	0	0.0%	1	9.1%	2	1.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5	3.5%	1	1.8%	0	0.0%	6	2.9%
건강기능식품	5	3.5%	1	1.8%	0	0.0%	6	2.9%
기타(건강식품)	0	0.0%	0	0.0%	0	0.0%	0	0.0%
즉석식품	6	4.2%	5	9.1%	1	9.1%	12	5.7%

쇠고기	3	2.1%	0	0.0%	0	0.0%	3	1.4%
돼지고기	2	1.4%	0	0.0%	0	0.0%	2	1.0%
닭고기	2	1.4%	0	0.0%	0	0.0%	2	1.0%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알류	9	6.3%	1	1.8%	0	0.0%	10	4.8%
곡류	2	1.4%	4	7.3%	0	0.0%	6	2.9%
채소류	11	7.7%	1	1.8%	0	0.0%	12	5.7%
과일류	23	16.1%	4	7.3%	0	0.0%	27	12.9%
생선류	2	1.4%	0	0.0%	1	9.1%	3	1.4%
어패류	2	1.4%	0	0.0%	0	0.0%	2	1.0%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2	1.4%	1	1.8%	1	9.1%	4	1.9%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한식	0	0.0%	0	0.0%	1	9.1%	1	0.5%
양식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중식	1	0.7%	0	0.0%	0	0.0%	1	0.5%
분식	1	0.7%	0	0.0%	0	0.0%	1	0.5%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1	0.7%	0	0.0%	0	0.0%	1	0.5%
뷔페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1	0.7%	0	0.0%	0	0.0%	1	0.5%
총합계(중복응답)	143	100.0%	55	100.0%	11	100.0%	209	100.0%

○ 8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247건으로 빵이 26건(10.5%)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 25건(10.1%), 우유류 17건(6.9%), 알류와 곡류가 각각 14건(5.7%)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8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6	4.1%	20	30.8%	0	0.0%	26	10.5%
케익류	2	1.4%	1	1.5%	0	0.0%	3	1.2%
떡류	1	0.7%	2	3.1%	2	5.9%	5	2.0%
과자류	1	0.7%	1	1.5%	0	0.0%	2	0.8%
코코아가공품류	2	1.4%	1	1.5%	0	0.0%	3	1.2%
잼류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14	9.5%	1	1.5%	2	5.9%	17	6.9%
발효유류	1	0.7%	0	0.0%	0	0.0%	1	0.4%
분유류	2	1.4%	0	0.0%	0	0.0%	2	0.8%
치즈버터류	1	0.7%	1	1.5%	0	0.0%	2	0.8%
햄 및 소시지류	1	0.7%	0	0.0%	0	0.0%	1	0.4%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3	2.0%	1	1.5%	1	2.9%	5	2.0%
알가공품	1	0.7%	1	1.5%	0	0.0%	2	0.8%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1	0.7%	0	0.0%	0	0.0%	1	0.4%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1	1.5%	0	0.0%	1	0.4%
건면류	0	0.0%	1	1.5%	1	2.9%	2	0.8%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1	2.9%	1	0.4%
커피	0	0.0%	1	1.5%	2	5.9%	3	1.2%
탄산음료류	2	1.4%	1	1.5%	1	2.9%	4	1.6%
과채음료류	0	0.0%	1	1.5%	1	2.9%	2	0.8%
생수	1	0.7%	2	3.1%	6	17.6%	9	3.6%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1	0.7%	0	0.0%	0	0.0%	1	0.4%
장류	1	0.7%	2	3.1%	0	0.0%	3	1.2%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1	0.7%	0	0.0%	0	0.0%	1	0.4%
드레싱류								
김치류	2	1.4%	0	0.0%	0	0.0%	2	0.8%
젓갈류	4	2.7%	0	0.0%	0	0.0%	4	1.6%
절임식품	2	1.4%	0	0.0%	0	0.0%	2	0.8%
절임배추	1	0.7%	0	0.0%	0	0.0%	1	0.4%
조림식품	0	0.0%	1	1.5%	0	0.0%	1	0.4%
소주	0	0.0%	1	1.5%	0	0.0%	1	0.4%
맥주	2	1.4%	0	0.0%	0	0.0%	2	0.8%
포도주								
탁약주(막걸리)	1	0.7%	0	0.0%	0	0.0%	1	0.4%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3	2.0%	6	9.2%	1	2.9%	10	4.0%
건강기능식품	3	2.0%	1	1.5%	2	5.9%	6	2.4%
기타(건강식품)	1	0.7%	0	0.0%	0	0.0%	1	0.4%
즉석식품	9	6.1%	0	0.0%	0	0.0%	9	3.6%

쇠고기	5	3.4%	2	3.1%	1	2.9%	8	3.2%
돼지고기	1	0.7%	0	0.0%	0	0.0%	1	0.4%
닭고기	2	1.4%	0	0.0%	0	0.0%	2	0.8%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1	1.5%	0	0.0%	1	0.4%
알류	13	8.8%	0	0.0%	1	2.9%	14	5.7%
곡류	7	4.7%	5	7.7%	2	5.9%	14	5.7%
채소류	8	5.4%	3	4.6%	1	2.9%	12	4.9%
과일류	23	15.5%	2	3.1%	0	0.0%	25	10.1%
생선류	4	2.7%	1	1.5%	1	2.9%	6	2.4%
어패류	5	3.4%	0	0.0%	2	5.9%	7	2.8%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2	1.4%	0	0.0%	0	0.0%	2	0.8%
견과류	3	2.0%	3	4.6%	4	11.8%	10	4.0%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한식	3	2.0%	1	1.5%	1	2.9%	5	2.0%
양식	0	0.0%	0	0.0%	0	0.0%	0	0.0%
일식	1	0.7%	0	0.0%	0	0.0%	1	0.4%
중식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1	0.7%	0	0.0%	0	0.0%	1	0.4%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1	2.9%	1	0.4%
총합계(중복응답)	148	100.0%	65	100.0%	34	100.0%	247	100.0%

○ 9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285건으로 과일류가 61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알류가 32건(11.2%), 생수 19건(6.7%), 빵 17건(6.0%), 곡류 16건(5.6%)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9월)

품 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4	2.5%	12	18.8%	1	1.7%	17	6.0%
케익류	1	0.6%	2	3.1%	0	0.0%	3	1.1%
떡류	1	0.6%	3	4.7%	1	1.7%	5	1.8%
과자류	0	0.0%	4	6.3%	0	0.0%	4	1.4%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설탕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1	0.6%	0	0.0%	0	0.0%	1	0.4%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3	1.9%	0	0.0%	1	1.7%	4	1.4%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1	1.6%	0	0.0%	1	0.4%
치즈·버터류	0	0.0%	1	1.6%	0	0.0%	1	0.4%
햄 및 소시지류	0	0.0%	1	1.6%	0	0.0%	1	0.4%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2	1.2%	3	4.7%	2	3.3%	7	2.5%
알가공품	2	1.2%	2	3.1%	0	0.0%	4	1.4%
어묵제품류	1	0.6%	2	3.1%	1	1.7%	4	1.4%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1	1.7%	1	0.4%
식용유지류	1	0.6%	0	0.0%	0	0.0%	1	0.4%
라면류	0	0.0%	1	1.6%	0	0.0%	1	0.4%
건면류								
생면류								
다류	0	0.0%	1	1.6%	0	0.0%	1	0.4%
커피	0	0.0%	0	0.0%	0	0.0%	0	0.0%
탄산음료류	2	1.2%	0	0.0%	1	1.7%	3	1.1%
과채음료류	1	0.6%	0	0.0%	1	1.7%	2	0.7%
생수	0	0.0%	0	0.0%	19	31.7%	19	6.7%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1	1.6%	0	0.0%	1	0.4%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1	0.6%	0	0.0%	0	0.0%	1	0.4%
드레싱류								
김치류	3	1.9%	1	1.6%	2	3.3%	6	2.1%
젓갈류	2	1.2%	0	0.0%	0	0.0%	2	0.7%
절임식품								
절임배추	1	0.6%	0	0.0%	0	0.0%	1	0.4%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2	1.2%	0	0.0%	0	0.0%	2	0.7%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2	1.2%	2	3.1%	0	0.0%	4	1.4%
건강기능식품	3	1.9%	1	1.6%	0	0.0%	4	1.4%
기타(건강식품)	1	0.6%	1	1.6%	0	0.0%	2	0.7%
즉석식품	6	3.7%	3	4.7%	2	3.3%	11	3.9%

쇠고기	2	1.2%	0	0.0%	1	1.7%	3	1.1%
돼지고기	1	0.6%	0	0.0%	1	1.7%	2	0.7%
닭고기	0	0.0%	0	0.0%	1	1.7%	1	0.4%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알류	27	16.8%	2	3.1%	3	5.0%	32	11.2%
곡류	4	2.5%	7	10.9%	5	8.3%	16	5.6%
채소류	11	6.8%	1	1.6%	0	0.0%	12	4.2%
과일류	49	30.4%	7	10.9%	5	8.3%	61	21.4%
생선류	5	3.1%	0	0.0%	2	3.3%	7	2.5%
어패류	8	5.0%	0	0.0%	2	3.3%	10	3.5%
해조류	1	0.6%	0	0.0%	0	0.0%	1	0.4%
식용종자버섯류	2	1.2%	0	0.0%	2	3.3%	4	1.4%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2	1.2%	1	1.6%	0	0.0%	3	1.1%
견과류	1	0.6%	4	6.3%	4	6.7%	9	3.2%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한식	1	0.6%	0	0.0%	2	3.3%	3	1.1%
양식	0	0.0%	0	0.0%	0	0.0%	0	0.0%
일식	1	0.6%	0	0.0%	0	0.0%	1	0.4%
중식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5	3.1%	0	0.0%	0	0.0%	5	1.8%
뷔페								
기타식품류	1	0.6%	0	0.0%	0	0.0%	1	0.4%
총합계(중복응답)	161	100.0%	64	100.0%	60	100.0%	285	100.0%

○ 10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73건으로 과일류가 29건(16.8%)으로 가장 많았고, 빵과 건포류가 각각 11건(6.4%), 생수가 10건(5.8%), 즉석식품과 생선류가 각각 9건(5.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10월)

품 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6	6.0%	5	9.8%	0	0.0%	11	6.4%
케익류	0	0.0%	1	2.0%	0	0.0%	1	0.6%
떡류	1	1.0%	0	0.0%	0	0.0%	1	0.6%
과자류	4	4.0%	4	7.8%	0	0.0%	8	4.6%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잼류								
설탕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7	7.0%	0	0.0%	1	4.5%	8	4.6%
발효유류	1	1.0%	0	0.0%	0	0.0%	1	0.6%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0	0.0%	1	2.0%	0	0.0%	1	0.6%
햄 및 소시지류	1	1.0%	0	0.0%	0	0.0%	1	0.6%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2	2.0%	1	2.0%	2	9.1%	5	2.9%
알가공품	1	1.0%	0	0.0%	0	0.0%	1	0.6%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1	1.0%	0	0.0%	1	4.5%	2	1.2%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다류	0	0.0%	1	2.0%	0	0.0%	1	0.6%
커피	1	1.0%	0	0.0%	0	0.0%	1	0.6%
탄산음료류	0	0.0%	1	2.0%	0	0.0%	1	0.6%
과채음료류	0	0.0%	1	2.0%	0	0.0%	1	0.6%
생수	2	2.0%	0	0.0%	8	36.4%	10	5.8%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식조류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1	2.0%	0	0.0%	1	0.6%
드레싱류								
김치류	2	2.0%	0	0.0%	1	4.5%	3	1.7%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1	2.0%	0	0.0%	1	0.6%
건포류	2	2.0%	9	17.6%	0	0.0%	11	6.4%
건강기능식품	3	3.0%	0	0.0%	0	0.0%	3	1.7%
기타(건강식품)	1	1.0%	1	2.0%	0	0.0%	2	1.2%
즉석식품	4	4.0%	5	9.8%	0	0.0%	9	5.2%

쇠고기	2	2.0%	0	0.0%	0	0.0%	2	1.2%
돼지고기	1	1.0%	0	0.0%	0	0.0%	1	0.6%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1	1.0%	0	0.0%	0	0.0%	1	0.6%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알류	5	5.0%	1	2.0%	1	4.5%	7	4.0%
곡류	5	5.0%	3	5.9%	0	0.0%	8	4.6%
채소류	6	6.0%	2	3.9%	0	0.0%	8	4.6%
과일류	24	24.0%	3	5.9%	2	9.1%	29	16.8%
생선류	4	4.0%	4	7.8%	1	4.5%	9	5.2%
어패류	5	5.0%	0	0.0%	1	4.5%	6	3.5%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2	2.0%	2	3.9%	1	4.5%	5	2.9%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5	5.0%	0	0.0%	3	13.6%	8	4.6%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한식	0	0.0%	1	2.0%	0	0.0%	1	0.6%
양식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0	0.0%	1	2.0%	0	0.0%	1	0.6%
뷔페								
기타식품류	1	1.0%	2	3.9%	0	0.0%	3	1.7%
총합계(중복응답)	100	100.0%	51	100.0%	22	100.0%	173	100.0%

○ 11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53건으로 채소류가 17건(11.1%)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 14건(9.2%), 빵 13건(8.5%), 곡류 11건(7.2%), 과자류 9건(5.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11월)

품 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4	4.8%	8	20.0%	1	3.4%	13	8.5%
케익류	0	0.0%	2	5.0%	0	0.0%	2	1.3%
떡류	1	1.2%	0	0.0%	0	0.0%	1	0.7%
과자류	6	7.1%	3	7.5%	0	0.0%	9	5.9%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4	4.8%	0	0.0%	0	0.0%	4	2.6%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1	1.2%	0	0.0%	0	0.0%	1	0.7%
햄 및 소시지류	1	1.2%	1	2.5%	0	0.0%	2	1.3%
치킨류	1	1.2%	0	0.0%	0	0.0%	1	0.7%
기타육류가공품	2	2.4%	0	0.0%	2	6.9%	4	2.6%
알가공품	1	1.2%	0	0.0%	0	0.0%	1	0.7%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2	5.0%	0	0.0%	2	1.3%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커피	2	2.4%	0	0.0%	0	0.0%	2	1.3%
탄산음료류	2	2.4%	0	0.0%	0	0.0%	2	1.3%
과채음료류	0	0.0%	4	10.0%	0	0.0%	4	2.6%
생수	1	1.2%	0	0.0%	7	24.1%	8	5.2%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장류	1	1.2%	0	0.0%	0	0.0%	1	0.7%
소스류	0	0.0%	1	2.5%	0	0.0%	1	0.7%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1	1.2%	0	0.0%	0	0.0%	1	0.7%
드레싱류								
김치류	0	0.0%	2	5.0%	0	0.0%	2	1.3%
젓갈류	0	0.0%	0	0.0%	1	3.4%	1	0.7%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1	1.2%	0	0.0%	0	0.0%	1	0.7%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맥주	2	2.4%	1	2.5%	0	0.0%	3	2.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1	1.2%	1	2.5%	1	3.4%	3	2.0%
건강기능식품	2	2.4%	0	0.0%	0	0.0%	2	1.3%
기타(건강식품)	3	3.6%	0	0.0%	0	0.0%	3	2.0%
즉석식품	3	3.6%	3	7.5%	2	6.9%	8	5.2%

쇠고기	2	2.4%	0	0.0%	1	3.4%	3	2.0%
돼지고기	2	2.4%	0	0.0%	2	6.9%	4	2.6%
닭고기	0	0.0%	0	0.0%	1	3.4%	1	0.7%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1	3.4%	1	0.7%
알류	4	4.8%	0	0.0%	0	0.0%	4	2.6%
곡류	4	4.8%	2	5.0%	5	17.2%	11	7.2%
채소류	12	14.3%	4	10.0%	1	3.4%	17	11.1%
과일류	14	16.7%	0	0.0%	0	0.0%	14	9.2%
생선류	0	0.0%	0	0.0%	0	0.0%	0	0.0%
어패류	1	1.2%	1	2.5%	0	0.0%	2	1.3%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1	3.4%	1	0.7%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2	2.4%	1	2.5%	3	10.3%	6	3.9%
고추가루	0	0.0%	2	5.0%	0	0.0%	2	1.3%
한식	1	1.2%	1	2.5%	0	0.0%	2	1.3%
양식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2	2.4%	1	2.5%	0	0.0%	3	2.0%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84	100.0%	40	100.0%	29	100.0%	153	100.0%

○ 12월 변질 불만사례는 총 105건으로 과일류가 14건(13.3%)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12건(11.4건), 곡류 9건(8.6%), 빵과 우유가 7건(6.7%)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변질 상담 건수(12월)

품목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총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0	0.0%	7	26.9%	0	0.0%	7	6.7%
케익류	2	3.2%	1	3.8%	0	0.0%	3	2.9%
떡류	3	4.8%	0	0.0%	0	0.0%	3	2.9%
과자류	0	0.0%	0	0.0%	1	5.9%	1	1.0%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잼류								
설탕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4	6.5%	1	3.8%	2	11.8%	7	6.7%
발효유류	1	1.6%	0	0.0%	0	0.0%	1	1.0%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1	1.6%	0	0.0%	0	0.0%	1	1.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기타육류가공품	1	1.6%	0	0.0%	0	0.0%	1	1.0%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1	1.6%	0	0.0%	0	0.0%	1	1.0%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다류	0	0.0%	0	0.0%	0	0.0%	0	0.0%
커피	1	1.6%	0	0.0%	0	0.0%	1	1.0%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2	3.2%	3	11.5%	0	0.0%	5	4.8%
생수	0	0.0%	0	0.0%	3	17.6%	3	2.9%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장류	1	1.6%	0	0.0%	0	0.0%	1	1.0%
소스류	1	1.6%	0	0.0%	0	0.0%	1	1.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1	5.9%	1	1.0%
복합조미식품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1	1.6%	0	0.0%	0	0.0%	1	1.0%
절임식품	1	1.6%	0	0.0%	0	0.0%	1	1.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건포류	0	0.0%	1	3.8%	1	5.9%	2	1.9%
건강기능식품	2	3.2%	1	3.8%	0	0.0%	3	2.9%
기타(건강식품)	3	4.8%	0	0.0%	0	0.0%	3	2.9%
즉석식품	2	3.2%	0	0.0%	0	0.0%	2	1.9%

쇠고기	1	1.6%	0	0.0%	0	0.0%	1	1.0%
돼지고기	2	3.2%	1	3.8%	1	5.9%	4	3.8%
닭고기	0	0.0%	0	0.0%	1	5.9%	1	1.0%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0	0.0%
곡류	5	8.1%	4	15.4%	0	0.0%	9	8.6%
채소류	8	12.9%	3	11.5%	1	5.9%	12	11.4%
과일류	10	16.1%	3	11.5%	1	5.9%	14	13.3%
생선류	1	1.6%	0	0.0%	0	0.0%	1	1.0%
어패류	4	6.5%	0	0.0%	1	5.9%	5	4.8%
해조류	0	0.0%	0	0.0%	1	5.9%	1	1.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1	5.9%	1	1.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1	1.6%	1	3.8%	1	5.9%	3	2.9%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한식	1	1.6%	0	0.0%	0	0.0%	1	1.0%
양식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0	0.0%
뷔페	0	0.0%	0	0.0%	1	5.9%	1	1.0%
기타식품류	2	3.2%	0	0.0%	0	0.0%	2	1.9%
총합계(중복응답)	62	100.0%	26	100.0%	17	100.0%	105	100.0%

○ 2017년 식품 변질 상담 사례

(1월)

- 콧감(곰팡이균), 고구마(다수 썩음), 알류(편의점 훈제계란 상함), 홍게(변질), 굴(다수 상태 안 좋음), 멸치(곰팡이), 헬로우피쉬 랍스터(냄새), 더덕(하얗게 곰팡이 났음), 롯데홈쇼핑 자반고등어(상한 냄새), 마트 구입한 포장 과메기(곰팡이), 현대백화점 잣(냄새)

(2월~3월)

- 과일류 : 홈앤쇼핑 한라봉(절반이 상함), 아임쇼핑 레드향(상함), 지마켓 참외(대부분 썩음), 옥션 대봉감(곰팡이)
- 채소류 : NS홈쇼핑 고구마(부패), 아임쇼핑 고구마(썩음), 고구마 상담 다수
- 기타육류가공품 : 불고기(변질), 냉동닭갈비(냄새, 브라질산), 훈제닭발(담배냄새), 돼지갈비(누린내)
- 즉석식품 : 롯데마트 제조된 올갱이해장국(상함), 홈앤쇼핑 소머리곰탕(냄새), 홈앤쇼핑 제철국(냄새)

(4월~5월)

- 즉석식품 : 오뚜기햇반(곰팡이, 구더기), 홈쇼핑 추어탕(역겨움), 비비고 육개장(곰팡이 의심, 먼지라고 처리됨, 업체의 자진신고여부 확인), 재래시장 반찬(상함)
- 과일류 : 홈앤쇼핑 냉동망고(악취), 이마트 냉동딸기(독한냄새, 판매처에서는 염소를 다량 넣었기 때문이라고 하여 규정문의)
- 떡류 : 백일떡(곰팡이), 냉장보관 한 칠갑농산 칠갑 쌀떡(곰팡이) 등
- 생수 : 롯데마트 구입, 롯데칠성 백두산 생수(소독약냄새, 성분문의), 롯데칠성 수입제품(악취), 동네슈퍼 가야산 천년수(냄새), 생수(역겨운냄새)

(6월~7월)

- 과일류 : 살구(곰팡이), 오디(곰팡이), 한라봉·천혜향(곰팡이), 매실(반이상 썩음), 참외(쿠팡구입, 골았음),
- 빵류 : 파리바게트 셀러드빵(시큼한맛), 의정부제과점(아이들 장염발생), 선물받은 빵(곰팡이), 계룡관광휴게소 경주빵(유효기간 남았으나 곰팡이), 지하철 매장(곰팡이) 등
- 햄 및 소시지류 : 목우촌 햄(유통기한 임박한 제품 먹고 장염, 곰팡이 피어 있었음), 동우 햄(곰팡이), 캔 햄(곰팡이), 간식용 소시지(곰팡이), 스팸(변질), 진주햄(유통기한 남았으나 부패)
- 알류 : 마트 달걀(변질), 식자재마트(1주일 전 구입, 골아있음), 일반슈퍼 달걀(노른자색 이상함), 메추리알(곰팡이), 송송유정란(1개 상함), 시장구입한 달걀(악취, 상해있음), 종갓집 무항생제 달걀(색이 이상해 의심) 등

(8월~9월)

- 알류 : 달걀(상한냄새/심한 악취), 상한 계란(마트에서 실금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함), 달걀(합격확인서 보고 구입했는데 노른자가 바로 깨지고, 검정색으로 되어있음), 쿠팡 달걀(2주전구입. 상한냄새), 양정시장 계란(상함), 동네마트 계란(곰팡이, 난각표시 없는 것도 있음), 마트 달걀(상함, 여름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함), 이마트 친환경유정란(유통기한이내인데 상한 것 나옴), 마트 달걀(검게 썩어있음, 폐기처분 달걀 의심), 슈퍼 달걀(계란탕에서 시큼한 냄새), 쿠팡에서 축협무항생제특란 로켓배송(3일뒤 먹으려는데 상한 것 확인), 마트 구운달걀(검은색, 썩어있음), 마트 구입 제조(사)순흥에그몰 구운계란(겉질 안 곰팡이, 분리됨), 홈플러스 계란(곰팡이), g마켓 맥반석달걀2판(썩음), 계란(소독냄새), 1주일전 구입한 계란(심한냄새, 달걀파동으로 유통기한 늘어 판매 의심됨) 등
- 생수 : 쿠팡 삼다수 정기배송(8월10일 배송제품에서 냄새), 롯데아이스(아세톤냄새), 먹는 샘물(이상한냄새), 위메프 충청샘물(냄새), 생수(곰팡이, 2~3주전 온라인구입제품), 충청샘물(악취), 제주삼다수(화학약품냄새, 구토), 편의점 가야산천연수(냄새) 등

(10월)

- 건포류 : 햇살담은 싱싱멸치(곰팡이), JR 마트 코다리(상함), 멸치 상담 다수(상함), 진미채(곰팡이) 등
- 생수 : 수입생수(이물질 낀), 충청샘물(8월구매, 냄새), 위메프 먹는 샘물(냄새), 코카콜라 생수(맛 이상) 등
- 즉석식품 : 목우촌 육개장(변질), 한성기업 크림치즈 스파게티(곰팡이), CJ햇반(곰팡이), 오뚜기햇반(상함), 편의점 원푸드 김밥(변질, 상함), CJ햇반(검은곰팡이), 쿠팡 김밥(곰팡이) 등

(5) 검사요청

- 1월~12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679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이 162건(23.9%)로 가장 많았고, 기타(건강식품)이 53건(7.8%), 곡류 48건(7.1%), 채소류 34건(5.0%), 쇠고기 30건(4.4%)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1월~12월)

품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7	1.8%	0	0.0%	2	2.0%	3	4.8%	12	1.8%
케익류	2	0.5%	0	0.0%	0	0.0%	0	0.0%	2	0.3%
떡류	2	0.5%	0	0.0%	0	0.0%	0	0.0%	2	0.3%
과자류	4	1.0%	0	0.0%	0	0.0%	0	0.0%	4	0.6%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1	0.3%	0	0.0%	0	0.0%	0	0.0%	1	0.1%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10	2.6%	1	0.8%	10	10.2%	0	0.0%	21	3.1%
엿류	1	0.3%	0	0.0%	0	0.0%	0	0.0%	1	0.1%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11	2.8%	1	0.8%	0	0.0%	0	0.0%	12	1.8%
발효우유	2	0.5%	1	0.8%	1	1.0%	0	0.0%	4	0.6%
분유류	10	2.6%	1	0.8%	0	0.0%	2	3.2%	13	1.9%
치즈-버터류	2	0.5%	0	0.0%	0	0.0%	0	0.0%	2	0.3%
햄 및 소시지류	1	0.3%	1	0.8%	0	0.0%	1	1.6%	3	0.4%
치킨류	0	0.0%	0	0.0%	2	2.0%	0	0.0%	2	0.3%
기타육류가공품	3	0.8%	1	0.8%	1	1.0%	0	0.0%	5	0.7%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1	1.6%	1	0.1%
두부류 또는 묵류	2	0.5%	1	0.8%	0	0.0%	0	0.0%	3	0.4%
식용유지류	4	1.0%	1	0.8%	3	3.1%	0	0.0%	8	1.2%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2	0.5%	1	0.8%	1	1.0%	0	0.0%	4	0.6%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1	0.3%	2	1.5%	0	0.0%	0	0.0%	3	0.4%
커피	1	0.3%	0	0.0%	2	2.0%	3	4.8%	6	0.9%
탄산음료류	2	0.5%	0	0.0%	2	2.0%	0	0.0%	4	0.6%
과채음료류	6	1.6%	0	0.0%	1	1.0%	1	1.6%	8	1.2%
생수	14	3.6%	0	0.0%	0	0.0%	2	3.2%	16	2.4%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2	0.5%	0	0.0%	0	0.0%	0	0.0%	2	0.3%
장류	3	0.8%	1	0.8%	0	0.0%	1	1.6%	5	0.7%
소스류	1	0.3%	0	0.0%	0	0.0%	0	0.0%	1	0.1%
식초류	0	0.0%	0	0.0%	0	0.0%	1	1.6%	1	0.1%
조미료	1	0.3%	3	2.3%	1	1.0%	1	1.6%	6	0.9%
복합조미식품	2	0.5%	0	0.0%	0	0.0%	0	0.0%	2	0.3%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5	1.3%	3	2.3%	1	1.0%	0	0.0%	9	1.3%
젓갈류	4	1.0%	0	0.0%	1	1.0%	0	0.0%	5	0.7%
절임식품	1	0.3%	0	0.0%	0	0.0%	0	0.0%	1	0.1%
절임배추	1	0.3%	1	0.8%	0	0.0%	0	0.0%	2	0.3%
조림식품	1	0.3%	0	0.0%	0	0.0%	0	0.0%	1	0.1%
소주	0	0.0%	0	0.0%	0	0.0%	1	1.6%	1	0.1%
맥주	3	0.8%	0	0.0%	0	0.0%	0	0.0%	3	0.4%
포도주	0	0.0%	1	0.8%	0	0.0%	3	4.8%	4	0.6%
탁약주(막걸리)	1	0.3%	0	0.0%	0	0.0%	0	0.0%	1	0.1%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3	0.8%	0	0.0%	2	2.0%	0	0.0%	5	0.7%
건포류	1	0.3%	3	2.3%	4	4.1%	0	0.0%	8	1.2%

건강기능식품	130	33.6%	5	3.8%	27	27.6%	0	0.0%	162	23.9%
기타(건강식품)	40	10.3%	2	1.5%	10	10.2%	1	1.6%	53	7.8%
즉석식품	6	1.6%	1	0.8%	1	1.0%	3	4.8%	11	1.6%
쇠고기	9	2.3%	14	10.7%	4	4.1%	3	4.8%	30	4.4%
돼지고기	2	0.5%	6	4.6%	4	4.1%	5	7.9%	17	2.5%
닭고기	2	0.5%	0	0.0%	0	0.0%	8	12.7%	10	1.5%
오리고기	0	0.0%	1	0.8%	0	0.0%	1	1.6%	2	0.3%
기타육류	1	0.3%	0	0.0%	1	1.0%	0	0.0%	2	0.3%
알류	8	2.1%	1	0.8%	0	0.0%	3	4.8%	12	1.8%
곡류	27	7.0%	14	10.7%	4	4.1%	3	4.8%	48	7.1%
채소류	8	2.1%	21	16.0%	3	3.1%	2	3.2%	34	5.0%
과일류	12	3.1%	8	6.1%	4	4.1%	1	1.6%	25	3.7%
생선류	2	0.5%	17	13.0%	0	0.0%	1	1.6%	20	2.9%
어패류	3	0.8%	5	3.8%	0	0.0%	2	3.2%	10	1.5%
해조류	6	1.6%	0	0.0%	1	1.0%	0	0.0%	7	1.0%
식용종자·버섯류	2	0.5%	1	0.8%	1	1.0%	0	0.0%	4	0.6%
나물류	1	0.3%	0	0.0%	0	0.0%	0	0.0%	1	0.1%
약용작물류	3	0.8%	1	0.8%	1	1.0%	0	0.0%	5	0.7%
견과류	2	0.5%	4	3.1%	1	1.0%	0	0.0%	7	1.0%
고추가루	2	0.5%	4	3.1%	2	2.0%	0	0.0%	8	1.2%
한식	1	0.3%	1	0.8%	0	0.0%	0	0.0%	2	0.3%
양식	0	0.0%	0	0.0%	0	0.0%	1	1.6%	1	0.1%
일식	0	0.0%	0	0.0%	0	0.0%	2	3.2%	2	0.3%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1	0.3%	0	0.0%	0	0.0%	1	1.6%	2	0.3%
노점상	0	0.0%	0	0.0%	0	0.0%	1	1.6%	1	0.1%
패스트푸드점	1	0.3%	1	0.8%	0	0.0%	4	6.3%	6	0.9%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1	0.3%	1	0.8%	0	0.0%	1	1.6%	3	0.4%
총합계(중복응답)	387	100.0%	131	100.0%	98	100.0%	63	100.0%	679	100.0%

○ 1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64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이 17건(26.6%), 기타(건강식품) 11건(17.2%)였으며, 채소류 4건(6.3%), 식용유지류와 즉석식품, 곡류가 각각 3건(4.7%)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1월)

품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2.4%	0	0.0%	1	9.1%			2	3.1%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떡류	1	2.4%	0	0.0%	0	0.0%			1	1.6%
과자류	1	2.4%	0	0.0%	0	0.0%			1	1.6%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설탕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꿀	1	2.4%	1	8.3%	0	0.0%			2	3.1%
엿류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0	0.0%	0	0.0%	0	0.0%			0	0.0%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1	2.4%	0	0.0%	0	0.0%			1	1.6%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2	4.9%	0	0.0%	1	9.1%			3	4.7%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1	8.3%	0	0.0%			1	1.6%
생면류										
다류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0	0.0%			0	0.0%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2	4.9%	0	0.0%	0	0.0%			2	3.1%
생수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1	2.4%	0	0.0%	0	0.0%			1	1.6%
식초류										
조미료	1	2.4%	0	0.0%	1	9.1%			2	3.1%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맥주	1	2.4%	0	0.0%	0	0.0%			1	1.6%
포도주	0	0.0%	1	8.3%	0	0.0%			1	1.6%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2.4%	0	0.0%	0	0.0%			1	1.6%
건포류	0	0.0%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15	36.6%	0	0.0%	2	18.2%			17	26.6%
기타(건강식품)	7	17.1%	1	8.3%	3	27.3%			11	17.2%
즉석식품	2	4.9%	0	0.0%	1	9.1%			3	4.7%

쇠고기	0	0.0%	1	8.3%	1	9.1%			2	3.1%
돼지고기	1	2.4%	0	0.0%	0	0.0%			1	1.6%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0	0.0%
곡류	0	0.0%	2	16.7%	1	9.1%			3	4.7%
채소류	1	2.4%	3	25.0%	0	0.0%			4	6.3%
과일류	0	0.0%	0	0.0%	0	0.0%			0	0.0%
생선류	0	0.0%	2	16.7%	0	0.0%			2	3.1%
어패류	1	2.4%	0	0.0%	0	0.0%			1	1.6%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0	0.0%			0	0.0%
고추가루										
한식	0	0.0%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분식	1	2.4%	0	0.0%	0	0.0%			1	1.6%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0	0.0%
뷔페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41	100.0%	12	100.0%	11	100.0%			64	100.0%

○ 2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45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이 7건(15.6%), 쇠고기가 4건(8.9%), 분유류와 기타(건강식품), 채소류가 각각 3건(6.7%)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2월)

품 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0	0.0%	0	0.0%	0	0.0%	1	33.3%	1	2.2%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1	4.5%	0	0.0%	0	0.0%	0	0.0%	1	2.2%
엿류	1	4.5%	0	0.0%	0	0.0%	0	0.0%	1	2.2%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2	9.1%	0	0.0%	0	0.0%	0	0.0%	2	4.4%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2	9.1%	1	7.1%	0	0.0%	0	0.0%	3	6.7%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1	4.5%	1	7.1%	0	0.0%	0	0.0%	2	4.4%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1	16.7%	0	0.0%	1	2.2%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수	1	4.5%	0	0.0%	0	0.0%	0	0.0%	1	2.2%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1	16.7%	0	0.0%	1	2.2%
건포류	0	0.0%	0	0.0%	1	16.7%	0	0.0%	1	2.2%
건강기능식품	4	18.2%	1	7.1%	2	33.3%	0	0.0%	7	15.6%
기타(건강식품)	3	13.6%	0	0.0%	0	0.0%	0	0.0%	3	6.7%
즉석식품	1	4.5%	0	0.0%	0	0.0%	0	0.0%	1	2.2%

쇠고기	2	9.1%	2	14.3%	0	0.0%	0	0.0%	4	8.9%
돼지고기	0	0.0%	1	7.1%	0	0.0%	0	0.0%	1	2.2%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0	0.0%	1	7.1%	0	0.0%	1	33.3%	2	4.4%
기타육류	1	4.5%	0	0.0%	1	16.7%	0	0.0%	2	4.4%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0	0.0%	1	7.1%	0	0.0%	0	0.0%	1	2.2%
채소류	1	4.5%	1	7.1%	0	0.0%	1	33.3%	3	6.7%
과일류	0	0.0%	2	14.3%	0	0.0%	0	0.0%	2	4.4%
생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어패류	0	0.0%	1	7.1%	0	0.0%	0	0.0%	1	2.2%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1	7.1%	0	0.0%	0	0.0%	1	2.2%
고추가루	1	4.5%	0	0.0%	0	0.0%	0	0.0%	1	2.2%
한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0	0.0%	0	0.0%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1	4.5%	1	7.1%	0	0.0%	0	0.0%	2	4.4%
총합계(중복응답)	22	100.0%	14	100.0%	6	100.0%	3	100.0%	45	100.0%

- 3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76건으로 건강기능식품 20건(26.3%), 곡류 11건(14.5%), 과일류 6건(7.9%), 기타(건강식품)와 쇠고기가 각각 4건(5.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3월)

품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0	0.0%	0	0.0%	0	0.0%	0	0.0%	0	0.0%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3	5.1%	0	0.0%	0	0.0%	0	0.0%	3	3.9%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2	3.4%	0	0.0%	1	25.0%	0	0.0%	3	3.9%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1	1.7%	0	0.0%	0	0.0%	0	0.0%	1	1.3%
발효유류	1	1.7%	1	9.1%	0	0.0%	0	0.0%	2	2.6%
분유류	3	5.1%	0	0.0%	0	0.0%	0	0.0%	3	3.9%
치즈·버터류										
햄 및 소시지류	1	1.7%	0	0.0%	0	0.0%	1	50.0%	2	2.6%
치킨류	0	0.0%	0	0.0%	1	25.0%	0	0.0%	1	1.3%
기타육류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0	0.0%	0	0.0%	0	0.0%
탄산음료류	1	1.7%	0	0.0%	0	0.0%	0	0.0%	1	1.3%
과채음료류	1	1.7%	0	0.0%	0	0.0%	0	0.0%	1	1.3%
생수	2	3.4%	0	0.0%	0	0.0%	0	0.0%	2	2.6%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1	1.7%	0	0.0%	0	0.0%	0	0.0%	1	1.3%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조림식품	1	1.7%	0	0.0%	0	0.0%	0	0.0%	1	1.3%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1	1.7%	0	0.0%	0	0.0%	0	0.0%	1	1.3%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20	33.9%	0	0.0%	0	0.0%	0	0.0%	20	26.3%
기타(건강식품)	3	5.1%	0	0.0%	1	25.0%	0	0.0%	4	5.3%
즉석식품	1	1.7%	0	0.0%	0	0.0%	0	0.0%	1	1.3%

쇠고기	4	6.8%	0	0.0%	0	0.0%	0	0.0%	4	5.3%
돼지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9	15.3%	2	18.2%	0	0.0%	0	0.0%	11	14.5%
채소류	0	0.0%	2	18.2%	0	0.0%	0	0.0%	2	2.6%
과일류	1	1.7%	4	36.4%	1	25.0%	0	0.0%	6	7.9%
생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어패류	0	0.0%	1	9.1%	0	0.0%	0	0.0%	1	1.3%
해조류	1	1.7%	0	0.0%	0	0.0%	0	0.0%	1	1.3%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2	3.4%	0	0.0%	0	0.0%	0	0.0%	2	2.6%
견과류	0	0.0%	1	9.1%	0	0.0%	0	0.0%	1	1.3%
고추가루										
한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양식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1	50.0%	1	1.3%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0	0.0%	0	0.0%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59	100.0%	11	100.0%	4	100.0%	2	100.0%	76	100.0%

○ 4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51건으로 건강기능식품 15건(29.4%), 곡류와 생선류가 각각 4건(7.8%), 꿀 3건(5.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4월)

품 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3.2%	0	0.0%	0	0.0%	1	16.7%	2	3.9%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3	37.5%	0	0.0%	3	5.9%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2	6.5%	0	0.0%	0	0.0%	0	0.0%	2	3.9%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2	6.5%	0	0.0%	0	0.0%	0	0.0%	2	3.9%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기타육류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1	3.2%	1	16.7%	0	0.0%	0	0.0%	2	3.9%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1	16.7%	0	0.0%	0	0.0%	1	2.0%
커피	0	0.0%	0	0.0%	0	0.0%	1	16.7%	1	2.0%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1	3.2%	0	0.0%	0	0.0%	0	0.0%	1	2.0%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1	16.7%	1	2.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1	3.2%	0	0.0%	0	0.0%	0	0.0%	1	2.0%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3.2%	0	0.0%	1	12.5%	0	0.0%	2	3.9%
건포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14	45.2%	0	0.0%	1	12.5%	0	0.0%	15	29.4%
기타(건강식품)	2	6.5%	0	0.0%	0	0.0%	0	0.0%	2	3.9%
즉석식품	0	0.0%	0	0.0%	0	0.0%	1	16.7%	1	2.0%

쇠고기	1	3.2%	0	0.0%	1	12.5%	0	0.0%	2	3.9%
돼지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닭고기	1	3.2%	0	0.0%	0	0.0%	0	0.0%	1	2.0%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1	16.7%	1	2.0%
곡류	3	9.7%	0	0.0%	0	0.0%	1	16.7%	4	7.8%
채소류	0	0.0%	0	0.0%	1	12.5%	0	0.0%	1	2.0%
과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선류	1	3.2%	3	50.0%	0	0.0%	0	0.0%	4	7.8%
어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해조류	0	0.0%	0	0.0%	1	12.5%	0	0.0%	1	2.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고춧가루										
한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양식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1	16.7%	0	0.0%	0	0.0%	1	2.0%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31	100.0%	6	100.0%	8	100.0%	6	100.0%	51	100.0%

○ 5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43건으로 건강기능식품 6건(14.0%), 기타(건강식품) 4건(9.3%), 꿀과 돼지고기, 생선류가 각각 3건(7.0%)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5월)

품 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4.8%	0	0.0%	0	0.0%	0	0.0%	1	2.3%
케익류	1	4.8%	0	0.0%	0	0.0%	0	0.0%	1	2.3%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1	4.8%	0	0.0%	2	33.3%	0	0.0%	3	7.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1	4.8%	1	7.1%	0	0.0%	0	0.0%	2	4.7%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0	0.0%	0	0.0%	1	16.7%	0	0.0%	1	2.3%
기타육류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0	0.0%	0	0.0%	0	0.0%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수	2	9.5%	0	0.0%	0	0.0%	0	0.0%	2	4.7%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1	4.8%	1	7.1%	0	0.0%	0	0.0%	2	4.7%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1	50.0%	1	2.3%
조미료	0	0.0%	1	7.1%	0	0.0%	0	0.0%	1	2.3%
복합조미식품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1	4.8%	0	0.0%	0	0.0%	0	0.0%	1	2.3%
젓갈류	1	4.8%	0	0.0%	0	0.0%	0	0.0%	1	2.3%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1	7.1%	0	0.0%	0	0.0%	1	2.3%
건강기능식품	6	28.6%	0	0.0%	0	0.0%	0	0.0%	6	14.0%
기타(건강식품)	3	14.3%	0	0.0%	1	16.7%	0	0.0%	4	9.3%
즉석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쇠고기	0	0.0%	0	0.0%	1	16.7%	0	0.0%	1	2.3%
돼지고기	0	0.0%	2	14.3%	1	16.7%	0	0.0%	3	7.0%
닭고기	0	0.0%	0	0.0%	0	0.0%	1	50.0%	1	2.3%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1	4.8%	1	7.1%	0	0.0%	0	0.0%	2	4.7%
채소류	0	0.0%	2	14.3%	0	0.0%	0	0.0%	2	4.7%
과일류	1	4.8%	0	0.0%	0	0.0%	0	0.0%	1	2.3%
생선류	0	0.0%	3	21.4%	0	0.0%	0	0.0%	3	7.0%
어패류	0	0.0%	1	7.1%	0	0.0%	0	0.0%	1	2.3%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1	4.8%	1	7.1%	0	0.0%	0	0.0%	2	4.7%
고춧가루										
한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0	0.0%	0	0.0%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21	100.0%	14	100.0%	6	100.0%	2	100.0%	43	100.0%

- 6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60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이 8건(13.3%), 곡류와 과일류가 각각 7건(11.7%), 기타(건강식품) 6건(10.0%)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6월)

품 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0	0.0%	0	0.0%	1	10.0%	0	0.0%	1	1.7%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1	3.6%	0	0.0%	1	10.0%	0	0.0%	2	3.3%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1	3.6%	0	0.0%	0	0.0%	0	0.0%	1	1.7%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1	3.6%	0	0.0%	0	0.0%	1	9.1%	2	3.3%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1	3.6%	0	0.0%	0	0.0%	0	0.0%	1	1.7%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0	0.0%	0	0.0%	0	0.0%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수	0	0.0%	0	0.0%	0	0.0%	1	9.1%	1	1.7%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1	3.6%	0	0.0%	0	0.0%	0	0.0%	1	1.7%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0	0.0%	1	9.1%	0	0.0%	0	0.0%	1	1.7%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1	3.6%	0	0.0%	1	10.0%	0	0.0%	2	3.3%
건강기능식품	4	14.3%	1	9.1%	3	30.0%	0	0.0%	8	13.3%
기타(건강식품)	4	14.3%	0	0.0%	1	10.0%	1	9.1%	6	10.0%
즉석식품	1	3.6%	0	0.0%	0	0.0%	0	0.0%	1	1.7%

쇠고기	1	3.6%	3	27.3%	0	0.0%	0	0.0%	4	6.7%
돼지고기	0	0.0%	0	0.0%	1	10.0%	1	9.1%	2	3.3%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5	17.9%	1	9.1%	0	0.0%	1	9.1%	7	11.7%
채소류	2	7.1%	2	18.2%	0	0.0%	0	0.0%	4	6.7%
과일류	4	14.3%	0	0.0%	2	20.0%	1	9.1%	7	11.7%
생선류	0	0.0%	1	9.1%	0	0.0%	0	0.0%	1	1.7%
어패류	0	0.0%	1	9.1%	0	0.0%	1	9.1%	2	3.3%
해조류	1	3.6%	0	0.0%	0	0.0%	0	0.0%	1	1.7%
식용종자버섯류	0	0.0%	1	9.1%	0	0.0%	0	0.0%	1	1.7%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1	9.1%	1	1.7%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1	9.1%	1	1.7%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2	18.2%	2	3.3%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28	100.0%	11	100.0%	10	100.0%	11	100.0%	60	100.0%

○ 7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38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이 4건(10.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건강식품)과 쇠고기. 곡류, 생선류가 각각 3건(7.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7월)

품 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5.6%	0	0.0%	0	0.0%	0	0.0%	1	2.6%
케익류	1	5.6%	0	0.0%	0	0.0%	0	0.0%	1	2.6%
떡류	1	5.6%	0	0.0%	0	0.0%	0	0.0%	1	2.6%
과자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2	11.1%	0	0.0%	0	0.0%	0	0.0%	2	5.3%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0	0.0%	0	0.0%	0	0.0%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1	5.6%	0	0.0%	0	0.0%	0	0.0%	1	2.6%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1	33.3%	1	2.6%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1	5.6%	0	0.0%	0	0.0%	0	0.0%	1	2.6%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5.6%	0	0.0%	0	0.0%	0	0.0%	1	2.6%
건포류	0	0.0%	1	8.3%	0	0.0%	0	0.0%	1	2.6%
건강기능식품	2	11.1%	0	0.0%	2	40.0%	0	0.0%	4	10.5%
기타(건강식품)	1	5.6%	0	0.0%	2	40.0%	0	0.0%	3	7.9%
즉석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쇠고기	1	5.6%	2	16.7%	0	0.0%	0	0.0%	3	7.9%
돼지고기	0	0.0%	1	8.3%	1	20.0%	0	0.0%	2	5.3%
닭고기	1	5.6%	0	0.0%	0	0.0%	1	33.3%	2	5.3%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1	5.6%	0	0.0%	0	0.0%	1	33.3%	2	5.3%
곡류	1	5.6%	2	16.7%	0	0.0%	0	0.0%	3	7.9%
채소류	0	0.0%	2	16.7%	0	0.0%	0	0.0%	2	5.3%
과일류	1	5.6%	0	0.0%	0	0.0%	0	0.0%	1	2.6%
생선류	0	0.0%	3	25.0%	0	0.0%	0	0.0%	3	7.9%
어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1	5.6%	0	0.0%	0	0.0%	0	0.0%	1	2.6%
약용작물류	1	5.6%	1	8.3%	0	0.0%	0	0.0%	2	5.3%
견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0	0.0%	0	0.0%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18	100.0%	12	100.0%	5	100.0%	3	100.0%	38	100.0%

○ 8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60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이 10건(16.7%), 알류 7건(11.7%), 생수와 곡류가 각각 5건(8.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8월)

품 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2.4%	0	0.0%	0	0.0%	0	0.0%	1	1.7%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1	2.4%	0	0.0%	0	0.0%	0	0.0%	1	1.7%
포도당/과당										
꿀	3	7.3%	0	0.0%	0	0.0%	0	0.0%	3	5.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2	4.9%	0	0.0%	0	0.0%	0	0.0%	2	3.3%
발효유류	1	2.4%	0	0.0%	0	0.0%	0	0.0%	1	1.7%
분유류	1	2.4%	0	0.0%	0	0.0%	1	20.0%	2	3.3%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0	0.0%	2	40.0%	2	3.3%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수	4	9.8%	0	0.0%	0	0.0%	1	20.0%	5	8.3%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1	2.4%	0	0.0%	0	0.0%	0	0.0%	1	1.7%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9	22.0%	0	0.0%	1	25.0%	0	0.0%	10	16.7%
기타(건강식품)	2	4.9%	0	0.0%	0	0.0%	0	0.0%	2	3.3%
즉석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쇠고기	0	0.0%	3	30.0%	0	0.0%	0	0.0%	3	5.0%
돼지고기	1	2.4%	0	0.0%	0	0.0%	0	0.0%	1	1.7%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6	14.6%	1	10.0%	0	0.0%	0	0.0%	7	11.7%
곡류	3	7.3%	1	10.0%	1	25.0%	0	0.0%	5	8.3%
채소류	2	4.9%	1	10.0%	0	0.0%	0	0.0%	3	5.0%
과일류	2	4.9%	1	10.0%	0	0.0%	0	0.0%	3	5.0%
생선류	1	2.4%	2	20.0%	0	0.0%	0	0.0%	3	5.0%
어패류	1	2.4%	0	0.0%	0	0.0%	0	0.0%	1	1.7%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1	25.0%	0	0.0%	1	1.7%
고추가루	0	0.0%	1	10.0%	1	25.0%	0	0.0%	2	3.3%
한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1	20.0%	1	1.7%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41	100.0%	10	100.0%	4	100.0%	5	100.0%	60	100.0%

○ 9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103건으로 건강기능식품 47건(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건강식품) 7건(6.8%), 젓갈류, 닭고기, 곡류가 각각 4건(3.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9월)

품 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0	0.0%	0	0.0%	0	0.0%	0	0.0%	0	0.0%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발효유류	0	0.0%	0	0.0%	1	7.1%	0	0.0%	1	1.0%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1	1.5%	0	0.0%	1	7.1%	0	0.0%	2	1.9%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1	7.1%	0	0.0%	1	1.0%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생면류										
다류	1	1.5%	1	10.0%	0	0.0%	0	0.0%	2	1.9%
커피	1	1.5%	0	0.0%	0	0.0%	0	0.0%	1	1.0%
탄산음료류	1	1.5%	0	0.0%	1	7.1%	0	0.0%	2	1.9%
과채음료류	0	0.0%	0	0.0%	0	0.0%	1	7.1%	1	1.0%
생수	1	1.5%	0	0.0%	0	0.0%	0	0.0%	1	1.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1	1.5%	0	0.0%	0	0.0%	0	0.0%	1	1.0%
드레싱류										
김치류	0	0.0%	1	10.0%	0	0.0%	0	0.0%	1	1.0%
젓갈류	3	4.6%	0	0.0%	1	7.1%	0	0.0%	4	3.9%
절임식품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2	14.3%	2	1.9%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39	60.0%	2	20.0%	6	42.9%	0	0.0%	47	45.6%
기타(건강식품)	7	10.8%	0	0.0%	0	0.0%	0	0.0%	7	6.8%
즉석식품	0	0.0%	0	0.0%	0	0.0%	1	7.1%	1	1.0%

쇠고기	0	0.0%	1	10.0%	0	0.0%	1	7.1%	2	1.9%
돼지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닭고기	0	0.0%	0	0.0%	0	0.0%	4	28.6%	4	3.9%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2	3.1%	1	10.0%	1	7.1%	0	0.0%	4	3.9%
채소류	0	0.0%	0	0.0%	2	14.3%	1	7.1%	3	2.9%
과일류	1	1.5%	1	10.0%	0	0.0%	0	0.0%	2	1.9%
생선류	0	0.0%	1	10.0%	0	0.0%	1	7.1%	2	1.9%
어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해조류	3	4.6%	0	0.0%	0	0.0%	0	0.0%	3	2.9%
식용종자버섯류	1	1.5%	0	0.0%	0	0.0%	0	0.0%	1	1.0%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1	1.5%	0	0.0%	0	0.0%	0	0.0%	1	1.0%
고추가루	1	1.5%	1	10.0%	0	0.0%	0	0.0%	2	1.9%
한식	1	1.5%	1	10.0%	0	0.0%	0	0.0%	2	1.9%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1	7.1%	1	1.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1	7.1%	1	1.0%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1	7.1%	1	1.0%
총합계(중복응답)	65	100.0%	10	100.0%	14	100.0%	14	100.0%	103	100.0%

○ 10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44건으로 건강기능식품 12건(27.3%), 기타(건강식품) 5건(11.4%), 김치류 3건(6.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10월)

품 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0	0.0%	0	0.0%	0	0.0%	0	0.0%	0	0.0%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2	16.7%	0	0.0%	2	4.5%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2	8.7%	0	0.0%	0	0.0%	0	0.0%	2	4.5%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1	4.3%	0	0.0%	0	0.0%	0	0.0%	1	2.3%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1	8.3%	0	0.0%	1	2.3%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0	0.0%	0	0.0%	0	0.0%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0	0.0%	0	0.0%	1	8.3%	0	0.0%	1	2.3%
생수	2	8.7%	0	0.0%	0	0.0%	0	0.0%	2	4.5%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1	4.3%	0	0.0%	0	0.0%	0	0.0%	1	2.3%
소스류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1	20.0%	1	2.3%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2	8.7%	1	25.0%	0	0.0%	0	0.0%	3	6.8%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9	39.1%	0	0.0%	3	25.0%	0	0.0%	12	27.3%
기타(건강식품)	3	13.0%	0	0.0%	2	16.7%	0	0.0%	5	11.4%

즉석식품	1	4.3%	0	0.0%	0	0.0%	0	0.0%	1	2.3%
쇠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돼지고기	0	0.0%	0	0.0%	0	0.0%	1	20.0%	1	2.3%
닭고기	0	0.0%	0	0.0%	0	0.0%	1	20.0%	1	2.3%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0	0.0%	1	25.0%	0	0.0%	1	20.0%	2	4.5%
채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일류	1	4.3%	0	0.0%	1	8.3%	0	0.0%	2	4.5%
생선류	0	0.0%	1	25.0%	0	0.0%	0	0.0%	1	2.3%
어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해조류	1	4.3%	0	0.0%	0	0.0%	0	0.0%	1	2.3%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1	8.3%	0	0.0%	1	2.3%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1	8.3%	0	0.0%	1	2.3%
견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고추가루	0	0.0%	1	25.0%	0	0.0%	0	0.0%	1	2.3%
한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1	20.0%	1	2.3%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0	0.0%	0	0.0%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23	100.0%	4	100.0%	12	100.0%	5	100.0%	44	100.0%

○ 11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59건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채소류가 각각 9건(1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돼지고기와 곡류가 각각 5건(8.5%), 쇠고기 3건(5.1%)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11월)

품 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8.7%	0	0.0%	0	0.0%	0	0.0%	2	3.4%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코코아 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1	4.3%	0	0.0%	0	0.0%	0	0.0%	1	1.7%
치즈·버터류	1	4.3%	0	0.0%	0	0.0%	0	0.0%	1	1.7%
햄 및 소시지류	0	0.0%	1	5.0%	0	0.0%	0	0.0%	1	1.7%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0	0.0%	1	5.0%	0	0.0%	0	0.0%	1	1.7%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1	4.3%	0	0.0%	0	0.0%	0	0.0%	1	1.7%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1	10.0%	0	0.0%	1	1.7%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0	0.0%	0	0.0%	0	0.0%
탄산음료류	0	0.0%	0	0.0%	1	10.0%	0	0.0%	1	1.7%
과채음료류	1	4.3%	0	0.0%	0	0.0%	0	0.0%	1	1.7%
생수	2	8.7%	0	0.0%	0	0.0%	0	0.0%	2	3.4%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0	0.0%	2	10.0%	0	0.0%	0	0.0%	2	3.4%
복합조미식품	1	4.3%	0	0.0%	0	0.0%	0	0.0%	1	1.7%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1	10.0%	0	0.0%	1	1.7%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1	4.3%	0	0.0%	0	0.0%	0	0.0%	1	1.7%
절임배추	0	0.0%	1	5.0%	0	0.0%	0	0.0%	1	1.7%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1	5.0%	1	10.0%	0	0.0%	2	3.4%
건강기능식품	6	26.1%	0	0.0%	3	30.0%	0	0.0%	9	15.3%
기타(건강식품)	2	8.7%	0	0.0%	0	0.0%	0	0.0%	2	3.4%

즉석식품	0	0.0%	1	5.0%	0	0.0%	1	16.7%	2	3.4%
쇠고기	0	0.0%	1	5.0%	1	10.0%	1	16.7%	3	5.1%
돼지고기	0	0.0%	1	5.0%	1	10.0%	3	50.0%	5	8.5%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1	16.7%	1	1.7%
곡류	3	13.0%	2	10.0%	0	0.0%	0	0.0%	5	8.5%
채소류	2	8.7%	7	35.0%	0	0.0%	0	0.0%	9	15.3%
과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선류	0	0.0%	1	5.0%	0	0.0%	0	0.0%	1	1.7%
어패류	0	0.0%	1	5.0%	0	0.0%	0	0.0%	1	1.7%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고추가루	0	0.0%	0	0.0%	1	10.0%	0	0.0%	1	1.7%
한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0	0.0%	0	0.0%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23	100.0%	20	100.0%	10	100.0%	6	100.0%	59	100.0%

- 12월 검사요청 불만사례는 총 36건으로 건강기능식품 7건(19.4%), 기타(건강식품) 4건(11.1%), 꿀과 쇠고기가 각각 2건(5.6%)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검사요청 상담 건수(12월)

품 목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0	0.0%	0	0.0%	0	0.0%	1	16.7%	1	2.8%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1	6.7%	0	0.0%	1	12.5%	0	0.0%	2	5.6%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1	6.7%	0	0.0%	0	0.0%	0	0.0%	1	2.8%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기타육류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1	16.7%	1	2.8%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1	12.5%	0	0.0%	1	2.8%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1	6.7%	0	0.0%	0	0.0%	0	0.0%	1	2.8%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1	6.7%	0	0.0%	0	0.0%	0	0.0%	1	2.8%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1	6.7%	0	0.0%	0	0.0%	0	0.0%	1	2.8%
포도주	0	0.0%	0	0.0%	0	0.0%	1	16.7%	1	2.8%
탁약주(막걸리)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건포류	0	0.0%	0	0.0%	1	12.5%	0	0.0%	1	2.8%
건강기능식품	2	13.3%	1	14.3%	4	50.0%	0	0.0%	7	19.4%
기타(건강식품)	3	20.0%	1	14.3%	0	0.0%	0	0.0%	4	11.1%

즉석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쇠고기	0	0.0%	1	14.3%	0	0.0%	1	16.7%	2	5.6%
돼지고기	0	0.0%	1	14.3%	0	0.0%	0	0.0%	1	2.8%
닭고기	0	0.0%	0	0.0%	0	0.0%	1	16.7%	1	2.8%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1	6.7%	0	0.0%	0	0.0%	0	0.0%	1	2.8%
곡류	0	0.0%	0	0.0%	1	12.5%	0	0.0%	1	2.8%
채소류	0	0.0%	1	14.3%	0	0.0%	0	0.0%	1	2.8%
과일류	1	6.7%	0	0.0%	0	0.0%	0	0.0%	1	2.8%
생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어패류	1	6.7%	0	0.0%	0	0.0%	1	16.7%	2	5.6%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1	6.7%	0	0.0%	0	0.0%	0	0.0%	1	2.8%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1	14.3%	0	0.0%	0	0.0%	1	2.8%
고추가루	0	0.0%	1	14.3%	0	0.0%	0	0.0%	1	2.8%
한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1	6.7%	0	0.0%	0	0.0%	0	0.0%	1	2.8%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15	100.0%	7	100.0%	8	100.0%	6	100.0%	36	100.0%

○ 2017년 식품 검사요청 상담 사례

(1월)

- 잡곡(원산지혼합표기 기준문의), 홈플러스 흙당근(흙을 묻혀 판매의심), 홍삼제품(천호식품, 원료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환불요청) 다수, 참기름(성분검사문의), 홈앤쇼핑 사골도가니탕(막이 생겨 혼합물 의심)

(2월~3월)

- 건강기능식품 : 아마씨 관련 상담 다수(중금속 검출 언론보도), 네이처퓨어코리아 멀티비타민, 헬프씨드(중금속 검출 문의), 백수오궁, 쿠바산 폴리코사놀(성분, 함량문의), 봄봄약사닷컴 락토필주오 유산균(일련번호 매직으로 지워져 있고, 일련번호가 없는 제품은 정상제품이 아닙니다, 인터넷 판매 금지라는 표기도 되어 있음), 바오밥가루(다른가루 혼입하는지 복용제품 검사문의), 정관장 홍이장균(합성첨가물 포함 관련),
- 기타(건강식품) : 이천산수유(가짜라는 언론보도), 아로니아 제품(투명한 플라스틱 나와 성분 궁금), 홍콩여행 구입한 한약방의 전칠이라는 가루약(한국에서 전칠가루에서 농약검출 내용 관련)

(4월~5월)

- 기타(건강식품) : 홈쇼핑 아로니아 가루(100% 함량 성분문의), 홈앤쇼핑 붉은아마씨(카드몹 성분나와 반품), 신문광고 상상주식회사 무릎엔 식품(얼굴붓고, 발진), 녹용제품(특허번호 표시 있으나, 특허청에서는 특허 없어졌다고 함)

(6월~7월)

- 건강기능식품 : 스피루리나 가루제품(파란색 성분, 물감 풀어 놓은 것 같이 묻어남, 성분문의), 홍삼제품(진품여부), 홍삼제품(6년근 의심, 제조처 표시 없어 문의)
- 기타(건강식품) : 11번가 아로니아 가루(곡물 맛이 나서 가짜 의심, 성분문의)
- 건면류 : 메밀국수(성분문의), 냉면면발(홍쇼핑광고 - 순100%우리밀 확인)

(8월~9월)

- 건강기능식품 : 쿠팡 비타민마을 브이솔루션 식물성그린오메가3(생선비린내, 피쉬오일 냄새 날수도 있다고 하는데 문의), 한국생약영농조합 홍삼제품(진품문의), 옥션 구입한 대화약품 홍삼제품(홍삼100%라는데 성분문의) 등
- 기타(건강식품) : 홍쇼핑 햄프씨드(캐나다산 중금속 검출되었다고 해서 문의), 완도금일수협 상담 다수(다시마, 톳환 건강식품 언론보도 관련 문의 다수) 등
- 젓갈류 : 모란시장 명란젓(색소성분 검사), 젓갈(품질검사), 젓갈판매자(소비자에게 판매 전 젓갈품질 검사처 문의) 등

(10월)

- 건강기능식품 : 황찬고 현성바이탈(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검사요청) 등
- 기타(건강식품) : 봉어즙(성분검사), 아마씨드(언론보도 되었던 조사대상 아닐 경우 성분확인방법), 녹용(진품여부) 등
- 김치류 : 신세계홍쇼핑(너무 단맛, 성분의심), 홍쇼핑 김치(중국산의심) 등

(6) 품질불량

- 1월~12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3,034건으로 건강기능식품 424건(14.0%)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가 331건(10.9%), 채소류 212건(7.0%), 기타(건강식품) 209건(6.9%), 곡류 152건(5.0%)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1월~12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3	1.2%	2	2.9%	4	2.3%	1	2.0%	40	1.3%
케익류	13	0.5%	0	0.0%	2	1.1%	0	0.0%	15	0.5%
떡류	37	1.4%	0	0.0%	3	1.7%	0	0.0%	40	1.3%
과자류	32	1.2%	1	1.5%	8	4.5%	4	7.8%	45	1.5%
코코아가공품류	10	0.4%	0	0.0%	3	1.7%	0	0.0%	13	0.4%
잼류	1	0.0%	0	0.0%	2	1.1%	2	3.9%	5	0.2%
설탕	1	0.0%	0	0.0%	1	0.6%	0	0.0%	2	0.1%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21	0.8%	1	1.5%	0	0.0%	0	0.0%	22	0.7%
엿류	1	0.0%	0	0.0%	0	0.0%	0	0.0%	1	0.0%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류	15	0.5%	0	0.0%	1	0.6%	2	3.9%	18	0.6%
빙과류	4	0.1%	0	0.0%	1	0.6%	0	0.0%	5	0.2%
우유류	37	1.4%	5	7.4%	6	3.4%	2	3.9%	50	1.6%
발효유류	5	0.2%	4	5.9%	2	1.1%	1	2.0%	12	0.4%
분유류	20	0.7%	6	8.8%	8	4.5%	0	0.0%	34	1.1%
치즈버터류	7	0.3%	0	0.0%	2	1.1%	0	0.0%	9	0.3%
햄 및 소시지류	9	0.3%	0	0.0%	2	1.1%	0	0.0%	11	0.4%
치킨류	11	0.4%	0	0.0%	0	0.0%	0	0.0%	11	0.4%
기타육류가공품	98	3.6%	0	0.0%	2	1.1%	0	0.0%	100	3.3%
알가공품	20	0.7%	0	0.0%	0	0.0%	0	0.0%	20	0.7%
어묵제품류	12	0.4%	1	1.5%	0	0.0%	0	0.0%	13	0.4%
두부류 또는 묵류	3	0.1%	0	0.0%	1	0.6%	0	0.0%	4	0.1%
식용유지류	21	0.8%	0	0.0%	1	0.6%	0	0.0%	22	0.7%
라면류	11	0.4%	2	2.9%	10	5.7%	0	0.0%	23	0.8%
건면류	7	0.3%	0	0.0%	0	0.0%	0	0.0%	7	0.2%
생면류	1	0.0%	0	0.0%	2	1.1%	0	0.0%	3	0.1%
다류	15	0.5%	0	0.0%	0	0.0%	0	0.0%	15	0.5%
커피	24	0.9%	4	5.9%	6	3.4%	6	11.8%	40	1.3%
탄산음료류	18	0.7%	4	5.9%	6	3.4%	5	9.8%	33	1.1%
과채음료류	27	1.0%	2	2.9%	4	2.3%	4	7.8%	37	1.2%
생수	25	0.9%	2	2.9%	5	2.8%	1	2.0%	33	1.1%
특수용도식품(환자식)	3	0.1%	2	2.9%	0	0.0%	0	0.0%	5	0.2%
이유식	8	0.3%	0	0.0%	0	0.0%	0	0.0%	8	0.3%
장류	19	0.7%	2	2.9%	2	1.1%	0	0.0%	23	0.8%
소스류	4	0.1%	2	2.9%	0	0.0%	0	0.0%	6	0.2%
식초류	5	0.2%	0	0.0%	0	0.0%	0	0.0%	5	0.2%
조미료	13	0.5%	0	0.0%	1	0.6%	0	0.0%	14	0.5%
복합조미식품	4	0.1%	0	0.0%	0	0.0%	0	0.0%	4	0.1%
드레싱류	0	0.0%	0	0.0%	0	0.0%	1	2.0%	1	0.0%
김치류	35	1.3%	2	2.9%	4	2.3%	0	0.0%	41	1.4%
젓갈류	12	0.4%	0	0.0%	2	1.1%	0	0.0%	14	0.5%
절임식품	9	0.3%	1	1.5%	0	0.0%	1	2.0%	11	0.4%
절임배추	44	1.6%	0	0.0%	0	0.0%	0	0.0%	44	1.5%
조림식품	10	0.4%	4	5.9%	4	2.3%	2	3.9%	20	0.7%
소주	3	0.1%	0	0.0%	3	1.7%	0	0.0%	6	0.2%
맥주	4	0.1%	4	5.9%	0	0.0%	4	7.8%	12	0.4%
포도주	1	0.0%	1	1.5%	2	1.1%	5	9.8%	9	0.3%
탁약주(막걸리)	2	0.1%	0	0.0%	0	0.0%	0	0.0%	2	0.1%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2	0.1%	3	4.4%	2	1.1%	0	0.0%	7	0.2%

건포류	32	1.2%	0	0.0%	2	1.1%	0	0.0%	34	1.1%
건강기능식품	407	14.9%	2	2.9%	15	8.5%	0	0.0%	424	14.0%
기타(건강식품)	199	7.3%	1	1.5%	7	4.0%	2	3.9%	209	6.9%
즉석식품	76	2.8%	3	4.4%	11	6.3%	1	2.0%	91	3.0%
쇠고기	82	3.0%	1	1.5%	2	1.1%	0	0.0%	85	2.8%
돼지고기	40	1.5%	1	1.5%	2	1.1%	0	0.0%	43	1.4%
닭고기	30	1.1%	0	0.0%	0	0.0%	0	0.0%	30	1.0%
오리고기	1	0.0%	0	0.0%	0	0.0%	0	0.0%	1	0.0%
기타육류	16	0.6%	0	0.0%	0	0.0%	0	0.0%	16	0.5%
알류	67	2.4%	0	0.0%	1	0.6%	1	2.0%	69	2.3%
곡류	147	5.4%	1	1.5%	4	2.3%	0	0.0%	152	5.0%
채소류	206	7.5%	1	1.5%	3	1.7%	2	3.9%	212	7.0%
과일류	317	11.6%	2	2.9%	12	6.8%	0	0.0%	331	10.9%
생선류	99	3.6%	0	0.0%	2	1.1%	1	2.0%	102	3.4%
어패류	70	2.6%	0	0.0%	2	1.1%	0	0.0%	72	2.4%
해조류	29	1.1%	0	0.0%	1	0.6%	0	0.0%	30	1.0%
식용종자버섯류	14	0.5%	0	0.0%	2	1.1%	0	0.0%	16	0.5%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27	1.0%	0	0.0%	1	0.6%	0	0.0%	28	0.9%
견과류	51	1.9%	0	0.0%	1	0.6%	0	0.0%	52	1.7%
고추가루	18	0.7%	0	0.0%	0	0.0%	0	0.0%	18	0.6%
한식	17	0.6%	1	1.5%	2	1.1%	1	2.0%	21	0.7%
양식	3	0.1%	0	0.0%	1	0.6%	0	0.0%	4	0.1%
일식	3	0.1%	0	0.0%	1	0.6%	0	0.0%	4	0.1%
중식	3	0.1%	0	0.0%	0	0.0%	0	0.0%	3	0.1%
분식	4	0.1%	0	0.0%	0	0.0%	0	0.0%	4	0.1%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50	1.8%	0	0.0%	1	0.6%	2	3.9%	53	1.7%
뷔페	2	0.1%	0	0.0%	0	0.0%	0	0.0%	2	0.1%
기타식품류	12	0.4%	0	0.0%	1	0.6%	0	0.0%	13	0.4%
총합계(중복응답)	2739	100.0%	68	100.0%	176	100.0%	51	100.0%	3034	100.0%

○ 1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295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이 49건(16.6%), 기타(건강식품) 47건(15.9%), 과일류 33건(11.2%), 채소류 20건(6.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1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0	0.0%	1	10.0%	0	0.0%	0	0.0%	1	0.3%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2	0.8%	0	0.0%	0	0.0%	0	0.0%	2	0.7%
과자류	1	0.4%	0	0.0%	0	0.0%	0	0.0%	1	0.3%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1	7.7%	0	0.0%	1	0.3%
잼류	0	0.0%	0	0.0%	1	7.7%	0	0.0%	1	0.3%
설탕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2	0.8%	0	0.0%	0	0.0%	0	0.0%	2	0.7%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1	0.4%	1	10.0%	2	15.4%	0	0.0%	4	1.4%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2	0.8%	0	0.0%	1	7.7%	0	0.0%	3	1.0%
치즈·버터류	2	0.8%	0	0.0%	1	7.7%	0	0.0%	3	1.0%
햄 및 소시지류	2	0.8%	0	0.0%	0	0.0%	0	0.0%	2	0.7%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17	6.4%	0	0.0%	0	0.0%	0	0.0%	17	5.8%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1	0.4%	0	0.0%	0	0.0%	0	0.0%	1	0.3%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다류	3	1.1%	0	0.0%	0	0.0%	0	0.0%	3	1.0%
커피	0	0.0%	0	0.0%	0	0.0%	1	16.7%	1	0.3%
탄산음료류	3	1.1%	0	0.0%	0	0.0%	0	0.0%	3	1.0%
과채음료류	4	1.5%	0	0.0%	0	0.0%	1	16.7%	5	1.7%
생수	0	0.0%	0	0.0%	0	0.0%	1	16.7%	1	0.3%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2	20.0%	0	0.0%	0	0.0%	2	0.7%
이유식	1	0.4%	0	0.0%	0	0.0%	0	0.0%	1	0.3%
장류	3	1.1%	0	0.0%	0	0.0%	0	0.0%	3	1.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4	1.5%	0	0.0%	0	0.0%	0	0.0%	4	1.4%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6	2.3%	0	0.0%	0	0.0%	0	0.0%	6	2.0%
조림식품	1	0.4%	1	10.0%	0	0.0%	1	16.7%	3	1.0%
소주	0	0.0%	0	0.0%	2	15.4%	0	0.0%	2	0.7%
맥주	0	0.0%	1	10.0%	0	0.0%	0	0.0%	1	0.3%
포도주	0	0.0%	1	10.0%	0	0.0%	0	0.0%	1	0.3%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1	10.0%	0	0.0%	0	0.0%	1	0.3%
건포류	2	0.8%	0	0.0%	1	7.7%	0	0.0%	3	1.0%
건강기능식품	48	18.0%	0	0.0%	1	7.7%	0	0.0%	49	16.6%
기타(건강식품)	46	17.3%	0	0.0%	0	0.0%	1	16.7%	47	15.9%

즉석식품	5	1.9%	1	10.0%	0	0.0%	0	0.0%	6	2.0%
쇠고기	12	4.5%	0	0.0%	0	0.0%	0	0.0%	12	4.1%
돼지고기	2	0.8%	0	0.0%	0	0.0%	0	0.0%	2	0.7%
닭고기	3	1.1%	0	0.0%	0	0.0%	0	0.0%	3	1.0%
오리고기										
기타육류	4	1.5%	0	0.0%	0	0.0%	0	0.0%	4	1.4%
알류	4	1.5%	0	0.0%	0	0.0%	1	16.7%	5	1.7%
곡류	6	2.3%	0	0.0%	1	7.7%	0	0.0%	7	2.4%
채소류	20	7.5%	0	0.0%	0	0.0%	0	0.0%	20	6.8%
과일류	30	11.3%	1	10.0%	2	15.4%	0	0.0%	33	11.2%
생선류	9	3.4%	0	0.0%	0	0.0%	0	0.0%	9	3.1%
어패류	5	1.9%	0	0.0%	0	0.0%	0	0.0%	5	1.7%
해조류	3	1.1%	0	0.0%	0	0.0%	0	0.0%	3	1.0%
식용종자버섯류	1	0.4%	0	0.0%	0	0.0%	0	0.0%	1	0.3%
나물류										
약용작물류	1	0.4%	0	0.0%	0	0.0%	0	0.0%	1	0.3%
견과류	3	1.1%	0	0.0%	0	0.0%	0	0.0%	3	1.0%
고춧가루										
한식	2	0.8%	0	0.0%	0	0.0%	0	0.0%	2	0.7%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1	0.4%	0	0.0%	0	0.0%	0	0.0%	1	0.3%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2	0.8%	0	0.0%	0	0.0%	0	0.0%	2	0.7%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2	0.8%	0	0.0%	0	0.0%	0	0.0%	2	0.7%
총합계(중복응답)	266	100.0%	10	100.0%	13	100.0%	6	100.0%	295	100.0%

○ 2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209건으로 과일류 37건(17.7%), 건강기능식품 29건(13.9%), 곡류 14건(6.7%), 채소류 13건(6.2%), 과자류 9건(4.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2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	1.6%	0	0.0%	0	0.0%	0	0.0%	3	1.4%
케익류	2	1.1%	0	0.0%	0	0.0%	0	0.0%	2	1.0%
떡류	4	2.2%	0	0.0%	0	0.0%	0	0.0%	4	1.9%
과자류	7	3.8%	0	0.0%	2	12.5%	0	0.0%	9	4.3%
코코아가공품류	3	1.6%	0	0.0%	0	0.0%	0	0.0%	3	1.4%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2	1.1%	0	0.0%	0	0.0%	0	0.0%	2	1.0%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1	.5%	0	0.0%	0	0.0%	0	0.0%	1	0.5%
우유류	2	1.1%	0	0.0%	0	0.0%	0	0.0%	2	1.0%
발효유류	1	.5%	0	0.0%	2	12.5%	0	0.0%	3	1.4%
분유류	1	.5%	1	16.7%	0	0.0%	0	0.0%	2	1.0%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2	1.1%	0	0.0%	0	0.0%	0	0.0%	2	1.0%
치킨류	1	.5%	0	0.0%	0	0.0%	0	0.0%	1	0.5%
기타육류가공품	2	1.1%	0	0.0%	0	0.0%	0	0.0%	2	1.0%
알가공품	1	.5%	0	0.0%	0	0.0%	0	0.0%	1	0.5%
어묵제품류	2	1.1%	0	0.0%	0	0.0%	0	0.0%	2	1.0%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3	1.6%	0	0.0%	2	12.5%	0	0.0%	5	2.4%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0	0.0%	0	0.0%	0	0.0%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1	50.0%	1	0.5%
과채음료류	1	.5%	0	0.0%	0	0.0%	0	0.0%	1	0.5%
생수	1	.5%	0	0.0%	1	6.3%	0	0.0%	2	1.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5	2.7%	0	0.0%	0	0.0%	0	0.0%	5	2.4%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1	.5%	0	0.0%	0	0.0%	0	0.0%	1	0.5%
복합조미식품	1	.5%	0	0.0%	0	0.0%	0	0.0%	1	0.5%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1	.5%	2	33.3%	0	0.0%	0	0.0%	3	1.4%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1	.5%	0	0.0%	0	0.0%	0	0.0%	1	0.5%
조림식품	0	0.0%	1	16.7%	1	6.3%	0	0.0%	2	1.0%
소주	1	.5%	0	0.0%	0	0.0%	0	0.0%	1	0.5%
맥주	0	0.0%	0	0.0%	0	0.0%	1	50.0%	1	0.5%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1	.5%	0	0.0%	0	0.0%	0	0.0%	1	0.5%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5%	1	16.7%	0	0.0%	0	0.0%	2	1.0%
건포류	4	2.2%	0	0.0%	0	0.0%	0	0.0%	4	1.9%
건강기능식품	28	15.1%	1	16.7%	0	0.0%	0	0.0%	29	13.9%
기타(건강식품)	6	3.2%	0	0.0%	1	6.3%	0	0.0%	7	3.3%

즉석식품	5	2.7%	0	0.0%	2	12.5%	0	0.0%	7	3.3%
쇠고기	7	3.8%	0	0.0%	0	0.0%	0	0.0%	7	3.3%
돼지고기	1	.5%	0	0.0%	0	0.0%	0	0.0%	1	0.5%
닭고기	2	1.1%	0	0.0%	0	0.0%	0	0.0%	2	1.0%
오리고기	1	.5%	0	0.0%	0	0.0%	0	0.0%	1	0.5%
기타육류	2	1.1%	0	0.0%	0	0.0%	0	0.0%	2	1.0%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12	6.5%	0	0.0%	2	12.5%	0	0.0%	14	6.7%
채소류	13	7.0%	0	0.0%	0	0.0%	0	0.0%	13	6.2%
과일류	36	19.5%	0	0.0%	1	6.3%	0	0.0%	37	17.7%
생선류	3	1.6%	0	0.0%	0	0.0%	0	0.0%	3	1.4%
어패류	7	3.8%	0	0.0%	0	0.0%	0	0.0%	7	3.3%
해조류	1	.5%	0	0.0%	0	0.0%	0	0.0%	1	0.5%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1	.5%	0	0.0%	0	0.0%	0	0.0%	1	0.5%
견과류	1	.5%	0	0.0%	1	6.3%	0	0.0%	2	1.0%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양식	1	.5%	0	0.0%	1	6.3%	0	0.0%	2	1.0%
일식	1	.5%	0	0.0%	0	0.0%	0	0.0%	1	0.5%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2	1.1%	0	0.0%	0	0.0%	0	0.0%	2	1.0%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185	100.0%	6	100.0%	16	100.0%	2	100.0%	209	100.0%

○ 3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203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이 23건(11.3%)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가 20건(9.9%), 채소류 16건(7.9%), 기타(건강식품) 14건(6.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3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6%	0	0.0%	0	0.0%	0	0.0%	1	0.5%
케익류	1	.6%	0	0.0%	0	0.0%	0	0.0%	1	0.5%
떡류	1	.6%	0	0.0%	1	5.3%	0	0.0%	2	1.0%
과자류	4	2.3%	0	0.0%	1	5.3%	0	0.0%	5	2.5%
코코아가공품류	2	1.1%	0	0.0%	0	0.0%	0	0.0%	2	1.0%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1	.6%	0	0.0%	0	0.0%	0	0.0%	1	0.5%
포도당/과당										
꿀	1	.6%	0	0.0%	0	0.0%	0	0.0%	1	0.5%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1	.6%	1	20.0%	1	5.3%	0	0.0%	3	1.5%
발효유류	0	0.0%	1	20.0%	0	0.0%	0	0.0%	1	0.5%
분유류	3	1.7%	1	20.0%	1	5.3%	0	0.0%	5	2.5%
치즈-버터류										
햄 및 소시지류	1	.6%	0	0.0%	0	0.0%	0	0.0%	1	0.5%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6	3.4%	0	0.0%	0	0.0%	0	0.0%	6	3.0%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2	1.1%	0	0.0%	3	15.8%	0	0.0%	5	2.5%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1	.6%	0	0.0%	0	0.0%	0	0.0%	1	0.5%
커피	2	1.1%	1	20.0%	3	15.8%	0	0.0%	6	3.0%
탄산음료류	3	1.7%	0	0.0%	1	5.3%	0	0.0%	4	2.0%
과채음료류	2	1.1%	0	0.0%	0	0.0%	1	50.0%	3	1.5%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3	1.7%	0	0.0%	0	0.0%	0	0.0%	3	1.5%
소스류	0	0.0%	1	20.0%	0	0.0%	0	0.0%	1	0.5%
식초류										
조미료	1	.6%	0	0.0%	0	0.0%	0	0.0%	1	0.5%
복합조미식품	1	.6%	0	0.0%	0	0.0%	0	0.0%	1	0.5%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1	5.3%	0	0.0%	1	0.5%
절임식품	3	1.7%	0	0.0%	0	0.0%	0	0.0%	3	1.5%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1	.6%	0	0.0%	0	0.0%	0	0.0%	1	0.5%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2	1.1%	0	0.0%	0	0.0%	0	0.0%	2	1.0%
건강기능식품	23	13.0%	0	0.0%	0	0.0%	0	0.0%	23	11.3%
기타(건강식품)	13	7.3%	0	0.0%	1	5.3%	0	0.0%	14	6.9%

즉석식품	6	3.4%	0	0.0%	0	0.0%	0	0.0%	6	3.0%
쇠고기	10	5.6%	0	0.0%	0	0.0%	0	0.0%	10	4.9%
돼지고기	3	1.7%	0	0.0%	0	0.0%	0	0.0%	3	1.5%
닭고기	3	1.7%	0	0.0%	0	0.0%	0	0.0%	3	1.5%
오리고기										
기타육류	3	1.7%	0	0.0%	0	0.0%	0	0.0%	3	1.5%
알류	3	1.7%	0	0.0%	0	0.0%	0	0.0%	3	1.5%
곡류	10	5.6%	0	0.0%	0	0.0%	0	0.0%	10	4.9%
채소류	15	8.5%	0	0.0%	1	5.3%	0	0.0%	16	7.9%
과일류	18	10.2%	0	0.0%	2	10.5%	0	0.0%	20	9.9%
생선류	3	1.7%	0	0.0%	0	0.0%	0	0.0%	3	1.5%
어패류	5	2.8%	0	0.0%	0	0.0%	0	0.0%	5	2.5%
해조류	2	1.1%	0	0.0%	1	5.3%	0	0.0%	3	1.5%
식용종자버섯류	1	.6%	0	0.0%	1	5.3%	0	0.0%	2	1.0%
나물류										
약용작물류	1	.6%	0	0.0%	0	0.0%	0	0.0%	1	0.5%
견과류	6	3.4%	0	0.0%	0	0.0%	0	0.0%	6	3.0%
고춧가루										
한식	2	1.1%	0	0.0%	0	0.0%	0	0.0%	2	1.0%
양식										
일식	0	0.0%	0	0.0%	1	5.3%	0	0.0%	1	0.5%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5	2.8%	0	0.0%	0	0.0%	1	50.0%	6	3.0%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2	1.1%	0	0.0%	0	0.0%	0	0.0%	2	1.0%
총합계(중복응답)	177	100.0%	5	100.0%	19	100.0%	2	100.0%	203	100.0%

○ 4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176건으로 건강기능식품 29건(16.5%), 과일류 23건(13.1%), 기타(건강식품) 10건(5.7%), 채소류 9건(5.1%), 곡류 8건(4.5%)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4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1.3%	0	0.0%	0	0.0%	0	0.0%	2	1.1%
케익류	2	1.3%	0	0.0%	1	8.3%	0	0.0%	3	1.7%
떡류	3	1.9%	0	0.0%	0	0.0%	0	0.0%	3	1.7%
과자류	2	1.3%	0	0.0%	0	0.0%	0	0.0%	2	1.1%
코코아가공품류	0	.0%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	0	0.0%	0	0.0%	0	0.0%	0	0.0%
꿀	1	.6%	0	0.0%	0	0.0%	0	0.0%	1	0.6%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3	1.9%	0	0.0%	0	0.0%	0	0.0%	3	1.7%
빙과류										
우유류	2	1.3%	0	0.0%	0	0.0%	0	0.0%	2	1.1%
발효유류	1	.6%	1	20.0%	0	0.0%	0	0.0%	2	1.1%
분유류	1	.6%	1	20.0%	2	16.7%	0	0.0%	4	2.3%
치즈·버터류	0	.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기타육류가공품	3	1.9%	0	0.0%	0	0.0%	0	0.0%	3	1.7%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1	.6%	0	0.0%	0	0.0%	0	0.0%	1	0.6%
두부류 또는 묵류	0	.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2	1.3%	0	0.0%	0	0.0%	0	0.0%	2	1.1%
라면류	1	.6%	1	20.0%	0	0.0%	0	0.0%	2	1.1%
건면류	0	.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	0	0.0%	1	8.3%	0	0.0%	1	0.6%
다류	3	1.9%	0	0.0%	0	0.0%	0	0.0%	3	1.7%
커피	1	.6%	0	0.0%	0	0.0%	0	0.0%	1	0.6%
탄산음료류	0	.0%	1	20.0%	0	0.0%	0	0.0%	1	0.6%
과채음료류	3	1.9%	0	0.0%	0	0.0%	0	0.0%	3	1.7%
생수	1	.6%	0	0.0%	0	0.0%	0	0.0%	1	0.6%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	0	0.0%	0	0.0%	0	0.0%	0	0.0%
장류	2	1.3%	1	20.0%	0	0.0%	0	0.0%	3	1.7%
소스류	2	1.3%	0	0.0%	0	0.0%	0	0.0%	2	1.1%
식초류										
조미료	1	.6%	0	0.0%	0	0.0%	0	0.0%	1	0.6%
복합조미식품	0	.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0	.0%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2	1.3%	0	0.0%	0	0.0%	0	0.0%	2	1.1%
절임식품										
절임배추										
조림식품	1	.6%	0	0.0%	0	0.0%	0	0.0%	1	0.6%
소주	0	.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	0	0.0%	0	0.0%	1	33.3%	1	0.6%
탁약주(막걸리)	0	.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	0	0.0%	1	8.3%	0	0.0%	1	0.6%
건포류	0	.0%	0	0.0%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26	16.7%	0	0.0%	3	25.0%	0	0.0%	29	16.5%
기타(건강식품)	10	6.4%	0	0.0%	0	0.0%	0	0.0%	10	5.7%

즉석식품	4	2.6%	0	0.0%	2	16.7%	1	33.3%	7	4.0%
쇠고기	5	3.2%	0	0.0%	1	8.3%	0	0.0%	6	3.4%
돼지고기	2	1.3%	0	0.0%	0	0.0%	0	0.0%	2	1.1%
닭고기	4	2.6%	0	0.0%	0	0.0%	0	0.0%	4	2.3%
오리고기	0	.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2	1.3%	0	0.0%	0	0.0%	0	0.0%	2	1.1%
알류	2	1.3%	0	0.0%	0	0.0%	0	0.0%	2	1.1%
곡류	8	5.1%	0	0.0%	0	0.0%	0	0.0%	8	4.5%
채소류	9	5.8%	0	0.0%	0	0.0%	0	0.0%	9	5.1%
과일류	23	14.7%	0	0.0%	0	0.0%	0	0.0%	23	13.1%
생선류	5	3.2%	0	0.0%	0	0.0%	0	0.0%	5	2.8%
어패류	4	2.6%	0	0.0%	1	8.3%	0	0.0%	5	2.8%
해조류	2	1.3%	0	0.0%	0	0.0%	0	0.0%	2	1.1%
식용종자버섯류	0	.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	.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3	1.9%	0	0.0%	0	0.0%	0	0.0%	3	1.7%
견과류	1	.6%	0	0.0%	0	0.0%	0	0.0%	1	0.6%
고추가루										
한식	1	.6%	0	0.0%	0	0.0%	0	0.0%	1	0.6%
양식										
일식	0	.0%	0	0.0%	0	0.0%	0	0.0%	0	0.0%
중식	1	.6%	0	0.0%	0	0.0%	0	0.0%	1	0.6%
분식	1	.6%	0	0.0%	0	0.0%	0	0.0%	1	0.6%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3	1.9%	0	0.0%	0	0.0%	1	33.3%	4	2.3%
뷔페										
기타식품류	0	.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156	100.0%	5	100.0%	12	100.0%	3	100.0%	176	100.0%

○ 5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208건으로 건강기능식품 43건(20.7%), 과일류 23건(11.1%), 채소류 13건(6.3%), 곡류와 생선류가 각각 11건(5.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5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1.1%	0	0.0%	0	0.0%	0	0.0%	2	1.0%
케익류	2	1.1%	0	0.0%	1	6.7%	0	0.0%	3	1.4%
떡류	3	1.6%	0	0.0%	0	0.0%	0	0.0%	3	1.4%
과자류	1	.5%	0	0.0%	1	6.7%	0	0.0%	2	1.0%
코코아가공품류	0	.0%	0	0.0%	0	0.0%	0	0.0%	0	0.0%
잼류	1	.5%	0	0.0%	0	0.0%	0	0.0%	1	0.5%
설탕										
포도당/과당	0	.0%	0	0.0%	0	0.0%	0	0.0%	0	0.0%
꿀	2	1.1%	0	0.0%	0	0.0%	0	0.0%	2	1.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0	.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류	2	1.1%	0	0.0%	0	0.0%	0	0.0%	2	1.0%
빙과류										
우유류	5	2.7%	0	0.0%	0	0.0%	0	0.0%	5	2.4%
발효유류	0	.0%	1	20.0%	0	0.0%	1	25.0%	2	1.0%
분유류	2	1.1%	0	0.0%	0	0.0%	0	0.0%	2	1.0%
치즈·버터류	0	.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0	.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9	4.9%	0	0.0%	0	0.0%	0	0.0%	9	4.3%
알가공품	0	.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1	.5%	1	20.0%	0	0.0%	0	0.0%	2	1.0%
두부류 또는 묵류	0	.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	0	0.0%	1	6.7%	0	0.0%	1	0.5%
건면류	2	1.1%	0	0.0%	0	0.0%	0	0.0%	2	1.0%
생면류	0	.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	1	20.0%	0	0.0%	1	25.0%	2	1.0%
탄산음료류	0	.0%	1	20.0%	1	6.7%	0	0.0%	2	1.0%
과채음료류	2	1.1%	0	0.0%	0	0.0%	1	25.0%	3	1.4%
생수	2	1.1%	0	0.0%	0	0.0%	0	0.0%	2	1.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	0	0.0%	0	0.0%	0	0.0%	0	0.0%
장류	2	1.1%	0	0.0%	0	0.0%	0	0.0%	2	1.0%
소스류	1	.5%	0	0.0%	0	0.0%	0	0.0%	1	0.5%
식초류	1	.5%	0	0.0%	0	0.0%	0	0.0%	1	0.5%
조미료	0	.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드레싱류	0	.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3	1.6%	0	0.0%	0	0.0%	0	0.0%	3	1.4%
젓갈류	1	.5%	0	0.0%	0	0.0%	0	0.0%	1	0.5%
절임식품	0	.0%	0	0.0%	0	0.0%	1	25.0%	1	0.5%
절임배추										
조림식품	2	1.1%	1	20.0%	1	6.7%	0	0.0%	4	1.9%
소주	1	.5%	0	0.0%	0	0.0%	0	0.0%	1	0.5%
맥주	0	.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	0	0.0%	1	6.7%	0	0.0%	1	0.5%
탁약주(막걸리)	0	.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2	1.1%	0	0.0%	0	0.0%	0	0.0%	2	1.0%
건강기능식품	39	21.2%	0	0.0%	4	26.7%	0	0.0%	43	20.7%
기타(건강식품)	9	4.9%	0	0.0%	0	0.0%	0	0.0%	9	4.3%

즉석식품	4	2.2%	0	0.0%	1	6.7%	0	0.0%	5	2.4%
쇠고기	4	2.2%	0	0.0%	0	0.0%	0	0.0%	4	1.9%
돼지고기	4	2.2%	0	0.0%	0	0.0%	0	0.0%	4	1.9%
닭고기	1	.5%	0	0.0%	0	0.0%	0	0.0%	1	0.5%
오리고기	0	.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1	.5%	0	0.0%	0	0.0%	0	0.0%	1	0.5%
알류	1	.5%	0	0.0%	0	0.0%	0	0.0%	1	0.5%
곡류	11	6.0%	0	0.0%	0	0.0%	0	0.0%	11	5.3%
채소류	13	7.1%	0	0.0%	0	0.0%	0	0.0%	13	6.3%
과일류	21	11.4%	0	0.0%	2	13.3%	0	0.0%	23	11.1%
생선류	11	6.0%	0	0.0%	0	0.0%	0	0.0%	11	5.3%
어패류	5	2.7%	0	0.0%	0	0.0%	0	0.0%	5	2.4%
해조류	0	.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1	.5%	0	0.0%	1	6.7%	0	0.0%	2	1.0%
나물류	0	.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1	.5%	0	0.0%	0	0.0%	0	0.0%	1	0.5%
견과류	2	1.1%	0	0.0%	0	0.0%	0	0.0%	2	1.0%
고춧가루										
한식	0	.0%	0	0.0%	1	6.7%	0	0.0%	1	0.5%
양식	0	.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4	2.2%	0	0.0%	0	0.0%	0	0.0%	4	1.9%
뷔페										
기타식품류	3	1.6%	0	0.0%	0	0.0%	0	0.0%	3	1.4%
총합계(중복응답)	184	100.0%	5	100.0%	15	100.0%	4	100.0%	208	100.0%

○ 6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245건으로 건강기능식품 45건(18.4%), 과일류 21건(8.6%), 채소류 18건(7.3%), 기타(건강식품) 13건(5.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6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0.9%	0	0.0%	0	0.0%	0	0.0%	2	0.8%
케익류	1	0.5%	0	0.0%	0	0.0%	0	0.0%	1	0.4%
떡류	6	2.8%	0	0.0%	0	0.0%	0	0.0%	6	2.4%
과자류	2	0.9%	0	0.0%	0	0.0%	0	0.0%	2	0.8%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1	0.5%	0	0.0%	0	0.0%	0	0.0%	1	0.4%
엿류	1	0.5%	0	0.0%	0	0.0%	0	0.0%	1	0.4%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2	0.9%	0	0.0%	0	0.0%	0	0.0%	2	0.8%
빙과류	1	0.5%	0	0.0%	1	5.9%	0	0.0%	2	0.8%
우유류	5	2.3%	2	22.2%	1	5.9%	0	0.0%	8	3.3%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1	0.5%	0	0.0%	1	5.9%	0	0.0%	2	0.8%
치즈-버터류	1	0.5%	0	0.0%	0	0.0%	0	0.0%	1	0.4%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1	0.5%	0	0.0%	0	0.0%	0	0.0%	1	0.4%
기타육류가공품	6	2.8%	0	0.0%	0	0.0%	0	0.0%	6	2.4%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1	0.5%	0	0.0%	0	0.0%	0	0.0%	1	0.4%
식용유지류	1	0.5%	0	0.0%	0	0.0%	0	0.0%	1	0.4%
라면류	2	0.9%	1	11.1%	2	11.8%	0	0.0%	5	2.0%
건면류	1	0.5%	0	0.0%	0	0.0%	0	0.0%	1	0.4%
생면류	1	0.5%	0	0.0%	0	0.0%	0	0.0%	1	0.4%
다류	1	0.5%	0	0.0%	0	0.0%	0	0.0%	1	0.4%
커피	6	2.8%	1	11.1%	0	0.0%	1	33.3%	8	3.3%
탄산음료류	3	1.4%	1	11.1%	1	5.9%	0	0.0%	5	2.0%
과채음료류	3	1.4%	2	22.2%	2	11.8%	0	0.0%	7	2.9%
생수	2	0.9%	0	0.0%	1	5.9%	0	0.0%	3	1.2%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0.5%	0	0.0%	0	0.0%	0	0.0%	1	0.4%
이유식	2	0.9%	0	0.0%	0	0.0%	0	0.0%	2	0.8%
장류	1	0.5%	0	0.0%	0	0.0%	0	0.0%	1	0.4%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1	5.9%	0	0.0%	1	0.4%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1	0.5%	0	0.0%	1	5.9%	0	0.0%	2	0.8%
젓갈류	2	0.9%	0	0.0%	0	0.0%	0	0.0%	2	0.8%
절임식품	2	0.9%	0	0.0%	0	0.0%	0	0.0%	2	0.8%
절임배추	1	0.5%	0	0.0%	0	0.0%	0	0.0%	1	0.4%
조림식품	1	0.5%	0	0.0%	0	0.0%	0	0.0%	1	0.4%
소주										
맥주	1	0.5%	0	0.0%	0	0.0%	0	0.0%	1	0.4%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4	1.9%	0	0.0%	0	0.0%	0	0.0%	4	1.6%
건강기능식품	43	19.9%	1	11.1%	1	5.9%	0	0.0%	45	18.4%
기타(건강식품)	12	5.6%	0	0.0%	0	0.0%	1	33.3%	13	5.3%

즉석식품	4	1.9%	0	0.0%	0	0.0%	0	0.0%	4	1.6%
쇠고기	5	2.3%	0	0.0%	0	0.0%	0	0.0%	5	2.0%
돼지고기	5	2.3%	0	0.0%	1	5.9%	0	0.0%	6	2.4%
닭고기	2	0.9%	0	0.0%	0	0.0%	0	0.0%	2	0.8%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2	0.9%	0	0.0%	0	0.0%	0	0.0%	2	0.8%
곡류	9	4.2%	0	0.0%	0	0.0%	0	0.0%	9	3.7%
채소류	16	7.4%	1	11.1%	1	5.9%	0	0.0%	18	7.3%
과일류	19	8.8%	0	0.0%	2	11.8%	0	0.0%	21	8.6%
생선류	11	5.1%	0	0.0%	0	0.0%	1	33.3%	12	4.9%
어패류	3	1.4%	0	0.0%	1	5.9%	0	0.0%	4	1.6%
해조류	2	0.9%	0	0.0%	0	0.0%	0	0.0%	2	0.8%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3	1.4%	0	0.0%	0	0.0%	0	0.0%	3	1.2%
견과류	2	0.9%	0	0.0%	0	0.0%	0	0.0%	2	0.8%
고추가루	2	0.9%	0	0.0%	0	0.0%	0	0.0%	2	0.8%
한식	3	1.4%	0	0.0%	0	0.0%	0	0.0%	3	1.2%
양식	1	0.5%	0	0.0%	0	0.0%	0	0.0%	1	0.4%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5	2.3%	0	0.0%	0	0.0%	0	0.0%	5	2.0%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216	100.0%	9	100.0%	17	100.0%	3	100.0%	245	100.0%

○ 7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248건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과일류가 각각 36건(14.5%)으로 가장 많았고, 곡류 14건(5.6%), 채소류 13건(5.2%), 즉석식품 12건(4.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7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0.4%	0	0.0%	0	0.0%	1	14.3%	2	0.8%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1	0.4%	0	0.0%	0	0.0%	0	0.0%	1	0.4%
과자류	0	0.0%	1	16.7%	1	8.3%	2	28.6%	4	1.6%
코코아 가공품류	1	0.4%	0	0.0%	0	0.0%	0	0.0%	1	0.4%
잼류	0	0.0%	0	0.0%	1	8.3%	1	14.3%	2	0.8%
설탕	0	0.0%	0	0.0%	1	8.3%	0	0.0%	1	0.4%
포도당/과당										
꿀	3	1.3%	1	16.7%	0	0.0%	0	0.0%	4	1.6%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2	0.9%	0	0.0%	0	0.0%	0	0.0%	2	0.8%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4	1.8%	0	0.0%	0	0.0%	0	0.0%	4	1.6%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1	0.4%	1	16.7%	0	0.0%	0	0.0%	2	0.8%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1	0.4%	0	0.0%	1	8.3%	0	0.0%	2	0.8%
치킨류	3	1.3%	0	0.0%	0	0.0%	0	0.0%	3	1.2%
기타육류가공품	4	1.8%	0	0.0%	1	8.3%	0	0.0%	5	2.0%
알가공품	1	0.4%	0	0.0%	0	0.0%	0	0.0%	1	0.4%
어묵제품류	2	0.9%	0	0.0%	0	0.0%	0	0.0%	2	0.8%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1	0.4%	0	0.0%	0	0.0%	0	0.0%	1	0.4%
라면류	1	0.4%	0	0.0%	0	0.0%	0	0.0%	1	0.4%
건면류	2	0.9%	0	0.0%	0	0.0%	0	0.0%	2	0.8%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1	0.4%	0	0.0%	0	0.0%	0	0.0%	1	0.4%
커피	3	1.3%	0	0.0%	0	0.0%	0	0.0%	3	1.2%
탄산음료류	6	2.7%	0	0.0%	0	0.0%	1	14.3%	7	2.8%
과채음료류	1	0.4%	0	0.0%	1	8.3%	0	0.0%	2	0.8%
생수	4	1.8%	0	0.0%	1	8.3%	0	0.0%	5	2.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0.4%	0	0.0%	0	0.0%	0	0.0%	1	0.4%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1	16.7%	0	0.0%	0	0.0%	1	0.4%
식초류	2	0.9%	0	0.0%	0	0.0%	0	0.0%	2	0.8%
조미료	1	0.4%	0	0.0%	0	0.0%	0	0.0%	1	0.4%
복합조미식품	1	0.4%	0	0.0%	0	0.0%	0	0.0%	1	0.4%
드레싱류	0	0.0%	0	0.0%	0	0.0%	1	14.3%	1	0.4%
김치류	3	1.3%	0	0.0%	0	0.0%	0	0.0%	3	1.2%
젓갈류	2	0.9%	0	0.0%	0	0.0%	0	0.0%	2	0.8%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조림식품	1	0.4%	0	0.0%	0	0.0%	0	0.0%	1	0.4%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1	16.7%	0	0.0%	0	0.0%	1	0.4%
포도주	1	0.4%	0	0.0%	0	0.0%	0	0.0%	1	0.4%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2	0.9%	0	0.0%	0	0.0%	0	0.0%	2	0.8%
건강기능식품	35	15.7%	0	0.0%	1	8.3%	0	0.0%	36	14.5%
기타(건강식품)	9	4.0%	0	0.0%	2	16.7%	0	0.0%	11	4.4%

즉석식품	11	4.9%	1	16.7%	0	0.0%	0	0.0%	12	4.8%
쇠고기	7	3.1%	0	0.0%	0	0.0%	0	0.0%	7	2.8%
돼지고기	5	2.2%	0	0.0%	0	0.0%	0	0.0%	5	2.0%
닭고기	4	1.8%	0	0.0%	0	0.0%	0	0.0%	4	1.6%
오리고기										
기타육류	1	0.4%	0	0.0%	0	0.0%	0	0.0%	1	0.4%
알류	5	2.2%	0	0.0%	0	0.0%	0	0.0%	5	2.0%
곡류	14	6.3%	0	0.0%	0	0.0%	0	0.0%	14	5.6%
채소류	13	5.8%	0	0.0%	0	0.0%	0	0.0%	13	5.2%
과일류	36	16.1%	0	0.0%	0	0.0%	0	0.0%	36	14.5%
생선류	7	3.1%	0	0.0%	1	8.3%	0	0.0%	8	3.2%
어패류	4	1.8%	0	0.0%	0	0.0%	0	0.0%	4	1.6%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2	0.9%	0	0.0%	0	0.0%	0	0.0%	2	0.8%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1	0.4%	0	0.0%	0	0.0%	0	0.0%	1	0.4%
견과류	4	1.8%	0	0.0%	0	0.0%	0	0.0%	4	1.6%
고추가루	1	0.4%	0	0.0%	0	0.0%	0	0.0%	1	0.4%
한식	2	0.9%	0	0.0%	0	0.0%	1	14.3%	3	1.2%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2	0.9%	0	0.0%	0	0.0%	0	0.0%	2	0.8%
뷔페	2	0.9%	0	0.0%	0	0.0%	0	0.0%	2	0.8%
기타식품류	1	0.4%	0	0.0%	1	8.3%	0	0.0%	2	0.8%
총합계(중복응답)	223	100.0%	6	100.0%	12	100.0%	7	100.0%	248	100.0%

○ 8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323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이 38건(11.8%), 과일류 32건(9.9%), 알류 23건(7.1%), 알가공품과 채소류가 각각 16건(5.0%)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8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4	1.3%	0	0.0%	0	0.0%	0	0.0%	4	1.2%
케익류	1	0.3%	0	0.0%	0	0.0%	0	0.0%	1	0.3%
떡류	5	1.7%	0	0.0%	1	7.1%	0	0.0%	6	1.9%
과자류	3	1.0%	0	0.0%	1	7.1%	2	28.6%	6	1.9%
코코아가공품류	1	0.3%	0	0.0%	1	7.1%	0	0.0%	2	0.6%
잼류	0	0.0%	0	0.0%	0	0.0%	1	14.3%	1	0.3%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3	1.0%	0	0.0%	0	0.0%	0	0.0%	3	0.9%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5	1.7%	0	0.0%	0	0.0%	1	14.3%	6	1.9%
빙과류	2	0.7%	0	0.0%	0	0.0%	0	0.0%	2	0.6%
우유류	8	2.7%	0	0.0%	0	0.0%	1	14.3%	9	2.8%
발효유류	1	0.3%	0	0.0%	0	0.0%	0	0.0%	1	0.3%
분유류	1	0.3%	0	0.0%	0	0.0%	0	0.0%	1	0.3%
치즈·버터류	1	0.3%	0	0.0%	0	0.0%	0	0.0%	1	0.3%
햄 및 소시지류	1	0.3%	0	0.0%	0	0.0%	0	0.0%	1	0.3%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12	4.0%	0	0.0%	1	7.1%	0	0.0%	13	4.0%
알가공품	16	5.3%	0	0.0%	0	0.0%	0	0.0%	16	5.0%
어묵제품류	3	1.0%	0	0.0%	0	0.0%	0	0.0%	3	0.9%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1	0.3%	0	0.0%	0	0.0%	0	0.0%	1	0.3%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1	0.3%	0	0.0%	0	0.0%	0	0.0%	1	0.3%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2	0.7%	0	0.0%	0	0.0%	0	0.0%	2	0.6%
커피	2	0.7%	1	50.0%	1	7.1%	1	14.3%	5	1.5%
탄산음료류	1	0.3%	0	0.0%	1	7.1%	1	14.3%	3	0.9%
과채음료류	3	1.0%	0	0.0%	0	0.0%	0	0.0%	3	0.9%
생수	2	0.7%	1	50.0%	1	7.1%	0	0.0%	4	1.2%
특수용도식품(한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3	1.0%	0	0.0%	0	0.0%	0	0.0%	3	0.9%
장류	1	0.3%	0	0.0%	1	7.1%	0	0.0%	2	0.6%
소스류	1	0.3%	0	0.0%	0	0.0%	0	0.0%	1	0.3%
식초류	2	0.7%	0	0.0%	0	0.0%	0	0.0%	2	0.6%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1	0.3%	0	0.0%	0	0.0%	0	0.0%	1	0.3%
드레싱류										
김치류	2	0.7%	0	0.0%	0	0.0%	0	0.0%	2	0.6%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3	1.0%	0	0.0%	0	0.0%	0	0.0%	3	0.9%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5	1.7%	0	0.0%	0	0.0%	0	0.0%	5	1.5%
건강기능식품	37	12.3%	0	0.0%	1	7.1%	0	0.0%	38	11.8%
기타(건강식품)	10	3.3%	0	0.0%	1	7.1%	0	0.0%	11	3.4%

즉석식품	12	4.0%	0	0.0%	1	7.1%	0	0.0%	13	4.0%
쇠고기	5	1.7%	0	0.0%	0	0.0%	0	0.0%	5	1.5%
돼지고기	4	1.3%	0	0.0%	0	0.0%	0	0.0%	4	1.2%
닭고기	5	1.7%	0	0.0%	0	0.0%	0	0.0%	5	1.5%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23	7.7%	0	0.0%	0	0.0%	0	0.0%	23	7.1%
곡류	8	2.7%	0	0.0%	0	0.0%	0	0.0%	8	2.5%
채소류	16	5.3%	0	0.0%	0	0.0%	0	0.0%	16	5.0%
과일류	31	10.3%	0	0.0%	1	7.1%	0	0.0%	32	9.9%
생선류	12	4.0%	0	0.0%	0	0.0%	0	0.0%	12	3.7%
어패류	6	2.0%	0	0.0%	0	0.0%	0	0.0%	6	1.9%
해조류	2	0.7%	0	0.0%	0	0.0%	0	0.0%	2	0.6%
식용종자버섯류	1	0.3%	0	0.0%	0	0.0%	0	0.0%	1	0.3%
나물류										
약용작물류	4	1.3%	0	0.0%	1	7.1%	0	0.0%	5	1.5%
견과류	9	3.0%	0	0.0%	0	0.0%	0	0.0%	9	2.8%
고추가루	1	0.3%	0	0.0%	0	0.0%	0	0.0%	1	0.3%
한식	1	0.3%	0	0.0%	0	0.0%	0	0.0%	1	0.3%
양식	1	0.3%	0	0.0%	0	0.0%	0	0.0%	1	0.3%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1	0.3%	0	0.0%	0	0.0%	0	0.0%	1	0.3%
분식	1	0.3%	0	0.0%	0	0.0%	0	0.0%	1	0.3%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12	4.0%	0	0.0%	1	7.1%	0	0.0%	13	4.0%
뷔페										
기타식품류	1	0.3%	0	0.0%	0	0.0%	0	0.0%	1	0.3%
총합계(중복응답)	300	100.0%	2	100.0%	14	100.0%	7	100.0%	323	100.0%

○ 9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354건으로 건강기능식품 47건(13.3%), 과일류 39건(11.0%)이었으며, 채소류 33건(9.3%), 곡류 29건(8.2%), 기타(건강식품) 24건(6.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9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7	2.2%	0	0.0%	0	0.0%	0	0.0%	7	2.0%
케익류	2	0.6%	0	0.0%	0	0.0%	0	0.0%	2	0.6%
떡류	4	1.3%	0	0.0%	0	0.0%	0	0.0%	4	1.1%
과자류	2	0.6%	0	0.0%	1	4.0%	0	0.0%	3	0.8%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1	4.0%	0	0.0%	1	0.3%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포도당/과당										
꿀	3	1.0%	0	0.0%	0	0.0%	0	0.0%	3	0.8%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1	4.0%	1	14.3%	2	0.6%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3	1.0%	0	0.0%	2	8.0%	0	0.0%	5	1.4%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1	14.3%	1	4.0%	0	0.0%	2	0.6%
치즈·버터류	0	0.0%	0	0.0%	1	4.0%	0	0.0%	1	0.3%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3	1.0%	0	0.0%	0	0.0%	0	0.0%	3	0.8%
기타육류가공품	18	5.7%	0	0.0%	0	0.0%	0	0.0%	18	5.1%
알가공품	2	0.6%	0	0.0%	0	0.0%	0	0.0%	2	0.6%
어묵제품류	1	0.3%	0	0.0%	0	0.0%	0	0.0%	1	0.3%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1	4.0%	0	0.0%	1	0.3%
식용유지류	2	0.6%	0	0.0%	0	0.0%	0	0.0%	2	0.6%
라면류	1	0.3%	0	0.0%	1	4.0%	0	0.0%	2	0.6%
건면류										
생면류										
다류	3	1.0%	0	0.0%	0	0.0%	0	0.0%	3	0.8%
커피	3	1.0%	0	0.0%	1	4.0%	2	28.6%	6	1.7%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2	0.6%	0	0.0%	1	4.0%	0	0.0%	3	0.8%
생수	4	1.3%	0	0.0%	0	0.0%	0	0.0%	4	1.1%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1	14.3%	0	0.0%	0	0.0%	1	0.3%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2	0.6%	0	0.0%	0	0.0%	0	0.0%	2	0.6%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2	0.6%	0	0.0%	2	8.0%	0	0.0%	4	1.1%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절임배추	1	0.3%	0	0.0%	0	0.0%	0	0.0%	1	0.3%
조림식품	2	0.6%	0	0.0%	1	4.0%	1	14.3%	4	1.1%
소주	1	0.3%	0	0.0%	1	4.0%	0	0.0%	2	0.6%
맥주	0	0.0%	1	14.3%	0	0.0%	1	14.3%	2	0.6%
포도주	0	0.0%	0	0.0%	1	4.0%	1	14.3%	2	0.6%
탁약주(막걸리)	1	0.3%	0	0.0%	0	0.0%	0	0.0%	1	0.3%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1	14.3%	0	0.0%	0	0.0%	1	0.3%
건포류	0	0.0%	0	0.0%	1	4.0%	0	0.0%	1	0.3%
건강기능식품	46	14.6%	0	0.0%	1	4.0%	0	0.0%	47	13.3%
기타(건강식품)	22	7.0%	1	14.3%	1	4.0%	0	0.0%	24	6.8%
즉석식품	4	1.3%	0	0.0%	2	8.0%	0	0.0%	6	1.7%

쇠고기	7	2.2%	1	14.3%	1	4.0%	0	0.0%	9	2.5%
돼지고기	2	0.6%	0	0.0%	0	0.0%	0	0.0%	2	0.6%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17	5.4%	0	0.0%	0	0.0%	0	0.0%	17	4.8%
곡류	29	9.2%	0	0.0%	0	0.0%	0	0.0%	29	8.2%
채소류	32	10.2%	0	0.0%	0	0.0%	1	14.3%	33	9.3%
과일류	37	11.7%	0	0.0%	2	8.0%	0	0.0%	39	11.0%
생선류	10	3.2%	0	0.0%	0	0.0%	0	0.0%	10	2.8%
어패류	11	3.5%	0	0.0%	0	0.0%	0	0.0%	11	3.1%
해조류	10	3.2%	0	0.0%	0	0.0%	0	0.0%	10	2.8%
식용종자버섯류	3	1.0%	0	0.0%	0	0.0%	0	0.0%	3	0.8%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4	1.3%	0	0.0%	0	0.0%	0	0.0%	4	1.1%
견과류	6	1.9%	0	0.0%	0	0.0%	0	0.0%	6	1.7%
고추가루	3	1.0%	0	0.0%	0	0.0%	0	0.0%	3	0.8%
한식	0	0.0%	1	14.3%	1	4.0%	0	0.0%	2	0.6%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2	0.6%	0	0.0%	0	0.0%	0	0.0%	2	0.6%
뷔페										
기타식품류	1	0.3%	0	0.0%	0	0.0%	0	0.0%	1	0.3%
총합계(중복응답)	315	100.0%	7	100.0%	25	100.0%	7	100.0%	354	100.0%

○ 10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245건으로 건강기능식품 31건(12.7%), 과일류 25건(10.2%)로 나타났으며, 기타(건강식품) 21건(8.6%), 곡류 18건(7.3%)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10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4	1.8%	0	0.0%	1	11.1%	0	0.0%	5	2.0%
케익류	1	0.4%	0	0.0%	0	0.0%	0	0.0%	1	0.4%
떡류	3	1.3%	0	0.0%	1	11.1%	0	0.0%	4	1.6%
과자류	4	1.8%	0	0.0%	0	0.0%	0	0.0%	4	1.6%
코코아가공품류	2	0.9%	0	0.0%	0	0.0%	0	0.0%	2	0.8%
잼류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1	0.4%	0	0.0%	0	0.0%	0	0.0%	1	0.4%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2	0.9%	1	16.7%	0	0.0%	0	0.0%	3	1.2%
발효유류	1	0.4%	0	0.0%	0	0.0%	0	0.0%	1	0.4%
분유류	3	1.3%	0	0.0%	0	0.0%	0	0.0%	3	1.2%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1	0.4%	0	0.0%	0	0.0%	0	0.0%	1	0.4%
기타육류가공품	6	2.7%	0	0.0%	0	0.0%	0	0.0%	6	2.4%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2	0.9%	0	0.0%	0	0.0%	0	0.0%	2	0.8%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2	0.9%	0	0.0%	0	0.0%	0	0.0%	2	0.8%
라면류	1	0.4%	0	0.0%	0	0.0%	0	0.0%	1	0.4%
건면류	1	0.4%	0	0.0%	0	0.0%	0	0.0%	1	0.4%
생면류										
다류	1	0.4%	0	0.0%	0	0.0%	0	0.0%	1	0.4%
커피	5	2.2%	0	0.0%	1	11.1%	0	0.0%	6	2.4%
탄산음료류	2	0.9%	0	0.0%	1	11.1%	1	20.0%	4	1.6%
과채음료류	2	0.9%	0	0.0%	0	0.0%	1	20.0%	3	1.2%
생수	5	2.2%	1	16.7%	1	11.1%	0	0.0%	7	2.9%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0.4%	0	0.0%	0	0.0%	0	0.0%	1	0.4%
이유식	2	0.9%	0	0.0%	0	0.0%	0	0.0%	2	0.8%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4	1.8%	0	0.0%	0	0.0%	0	0.0%	4	1.6%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조림식품	2	0.9%	1	16.7%	1	11.1%	0	0.0%	4	1.6%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1	0.4%	0	0.0%	0	0.0%	1	20.0%	2	0.8%
포도주	0	0.0%	0	0.0%	0	0.0%	2	40.0%	2	0.8%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1	0.4%	0	0.0%	0	0.0%	0	0.0%	1	0.4%
건포류	6	2.7%	0	0.0%	0	0.0%	0	0.0%	6	2.4%
건강기능식품	30	13.3%	0	0.0%	1	11.1%	0	0.0%	31	12.7%
기타(건강식품)	21	9.3%	0	0.0%	0	0.0%	0	0.0%	21	8.6%

즉석식품	3	1.3%	0	0.0%	0	0.0%	0	0.0%	3	1.2%
쇠고기	8	3.6%	0	0.0%	0	0.0%	0	0.0%	8	3.3%
돼지고기	7	3.1%	1	16.7%	0	0.0%	0	0.0%	8	3.3%
닭고기	1	0.4%	0	0.0%	0	0.0%	0	0.0%	1	0.4%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1	0.4%	0	0.0%	0	0.0%	0	0.0%	1	0.4%
알류	4	1.8%	0	0.0%	0	0.0%	0	0.0%	4	1.6%
곡류	17	7.6%	1	16.7%	0	0.0%	0	0.0%	18	7.3%
채소류	11	4.9%	0	0.0%	1	11.1%	0	0.0%	12	4.9%
과일류	24	10.7%	1	16.7%	0	0.0%	0	0.0%	25	10.2%
생선류	9	4.0%	0	0.0%	1	11.1%	0	0.0%	10	4.1%
어패류	3	1.3%	0	0.0%	0	0.0%	0	0.0%	3	1.2%
해조류	3	1.3%	0	0.0%	0	0.0%	0	0.0%	3	1.2%
식용종자버섯류	3	1.3%	0	0.0%	0	0.0%	0	0.0%	3	1.2%
나물류										
약용작물류	2	0.9%	0	0.0%	0	0.0%	0	0.0%	2	0.8%
견과류	4	1.8%	0	0.0%	0	0.0%	0	0.0%	4	1.6%
고추가루	2	0.9%	0	0.0%	0	0.0%	0	0.0%	2	0.8%
한식	1	0.4%	0	0.0%	0	0.0%	0	0.0%	1	0.4%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4	1.8%	0	0.0%	0	0.0%	0	0.0%	4	1.6%
뷔페										
기타식품류	1	0.4%	0	0.0%	0	0.0%	0	0.0%	1	0.4%
총합계(중복응답)	225	100.0%	6	100.0%	9	100.0%	5	100.0%	245	100.0%

- 11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266건으로 건강기능식품 33건(12.4%), 과일류 26건(9.8%)로 나타났으며, 채소류 22건(8.3%), 절임배추 17건(6.4%)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11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4	1.6%	0	0.0%	2	11.8%	0	0.0%	6	2.3%
케익류	1	.4%	0	0.0%	0	0.0%	0	0.0%	1	0.4%
떡류	4	1.6%	0	0.0%	0	0.0%	0	0.0%	4	1.5%
과자류	1	.4%	0	0.0%	1	5.9%	0	0.0%	2	0.8%
코코아가공품류	1	.4%	0	0.0%	0	0.0%	0	0.0%	1	0.4%
잼류	0	.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	0	0.0%	0	0.0%	0	0.0%	0	0.0%
꿀	1	.4%	0	0.0%	0	0.0%	0	0.0%	1	0.4%
엿류										
당시럽류	0	.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1	.4%	0	0.0%	0	0.0%	0	0.0%	1	0.4%
빙과류										
우유류	3	1.2%	0	0.0%	0	0.0%	0	0.0%	3	1.1%
발효유류	0	.0%	1	50.0%	0	0.0%	0	0.0%	1	0.4%
분유류	3	1.2%	0	0.0%	1	5.9%	0	0.0%	4	1.5%
치즈·버터류	2	.8%	0	0.0%	0	0.0%	0	0.0%	2	0.8%
햄 및 소시지류	1	.4%	0	0.0%	0	0.0%	0	0.0%	1	0.4%
치킨류	2	.8%	0	0.0%	0	0.0%	0	0.0%	2	0.8%
기타육류가공품	2	.8%	0	0.0%	0	0.0%	0	0.0%	2	0.8%
알가공품	0	.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1	.4%	0	0.0%	0	0.0%	0	0.0%	1	0.4%
식용유지류	8	3.3%	0	0.0%	1	5.9%	0	0.0%	9	3.4%
라면류	0	.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	0	0.0%	1	5.9%	0	0.0%	1	0.4%
다류	0	.0%	0	0.0%	0	0.0%	0	0.0%	0	0.0%
커피	1	.4%	0	0.0%	0	0.0%	0	0.0%	1	0.4%
탄산음료류	0	.0%	0	0.0%	1	5.9%	1	50.0%	2	0.8%
과채음료류	1	.4%	0	0.0%	0	0.0%	0	0.0%	1	0.4%
생수	3	1.2%	0	0.0%	0	0.0%	0	0.0%	3	1.1%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	0	0.0%	0	0.0%	0	0.0%	0	0.0%
장류	1	.4%	0	0.0%	1	5.9%	0	0.0%	2	0.8%
소스류	0	.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5	2.0%	0	0.0%	0	0.0%	0	0.0%	5	1.9%
복합조미식품	0	.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8	3.3%	0	0.0%	1	5.9%	0	0.0%	9	3.4%
젓갈류	2	.8%	0	0.0%	1	5.9%	0	0.0%	3	1.1%
절임식품	1	.4%	0	0.0%	0	0.0%	0	0.0%	1	0.4%
절임배추	17	6.9%	0	0.0%	0	0.0%	0	0.0%	17	6.4%
조림식품	0	.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	1	50.0%	0	0.0%	1	50.0%	2	0.8%
포도주	0	.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	0	0.0%	1	5.9%	0	0.0%	1	0.4%
건포류	3	1.2%	0	0.0%	0	0.0%	0	0.0%	3	1.1%
건강기능식품	32	13.1%	0	0.0%	1	5.9%	0	0.0%	33	12.4%
기타(건강식품)	14	5.7%	0	0.0%	1	5.9%	0	0.0%	15	5.6%

즉석식품	7	2.9%	0	0.0%	2	11.8%	0	0.0%	9	3.4%
쇠고기	8	3.3%	0	0.0%	0	0.0%	0	0.0%	8	3.0%
돼지고기	2	.8%	0	0.0%	0	0.0%	0	0.0%	2	0.8%
닭고기	2	.8%	0	0.0%	0	0.0%	0	0.0%	2	0.8%
오리고기	0	.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1	.4%	0	0.0%	0	0.0%	0	0.0%	1	0.4%
알류	2	.8%	0	0.0%	1	5.9%	0	0.0%	3	1.1%
곡류	12	4.9%	0	0.0%	1	5.9%	0	0.0%	13	4.9%
채소류	22	9.0%	0	0.0%	0	0.0%	0	0.0%	22	8.3%
과일류	26	10.6%	0	0.0%	0	0.0%	0	0.0%	26	9.8%
생선류	9	3.7%	0	0.0%	0	0.0%	0	0.0%	9	3.4%
어패류	9	3.7%	0	0.0%	0	0.0%	0	0.0%	9	3.4%
해조류	2	.8%	0	0.0%	0	0.0%	0	0.0%	2	0.8%
식용종자버섯류	0	.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3	1.2%	0	0.0%	0	0.0%	0	0.0%	3	1.1%
견과류	4	1.6%	0	0.0%	0	0.0%	0	0.0%	4	1.5%
고추가루	6	2.4%	0	0.0%	0	0.0%	0	0.0%	6	2.3%
한식	1	.4%	0	0.0%	0	0.0%	0	0.0%	1	0.4%
양식	0	.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5	2.0%	0	0.0%	0	0.0%	0	0.0%	5	1.9%
뷔페										
기타식품류	1	.4%	0	0.0%	0	0.0%	0	0.0%	1	0.4%
총합계(중복응답)	245	100.0%	2	100.0%	17	100.0%	2	100.0%	266	100.0%

○ 12월 품질불량 불만사례는 총 262건으로 기타(건강식품)과 채소류가 각각 27건(10.3%), 건강기능식품 21건(8.0%), 절임배추 18건(6.9%)로 나타났으며, 과일류 16건(6.1%)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품질불량 상담 건수(12월)

품목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의한손상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3	1.2%	1	20.0%	1	14.3%	0	0.0%	5	1.9%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1	0.4%	0	0.0%	0	0.0%	0	0.0%	1	0.4%
과자류	5	2.0%	0	0.0%	0	0.0%	0	0.0%	5	1.9%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1	0.4%	0	0.0%	0	0.0%	0	0.0%	1	0.4%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1	0.4%	0	0.0%	0	0.0%	1	33.3%	2	0.8%
발효유류	1	0.4%	0	0.0%	0	0.0%	0	0.0%	1	0.4%
분유류	2	0.8%	1	20.0%	1	14.3%	0	0.0%	4	1.5%
치즈-버터류	1	0.4%	0	0.0%	0	0.0%	0	0.0%	1	0.4%
햄 및 소시지류	1	0.4%	0	0.0%	1	14.3%	0	0.0%	2	0.8%
치킨류										
기타육류가공품	13	5.3%	0	0.0%	0	0.0%	0	0.0%	13	5.0%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4	1.6%	0	0.0%	0	0.0%	0	0.0%	4	1.5%
라면류	0	0.0%	0	0.0%	1	14.3%	0	0.0%	1	0.4%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1	0.4%	0	0.0%	0	0.0%	0	0.0%	1	0.4%
탄산음료류	0	0.0%	1	20.0%	0	0.0%	0	0.0%	1	0.4%
과채음료류	3	1.2%	0	0.0%	0	0.0%	0	0.0%	3	1.1%
생수	1	0.4%	0	0.0%	0	0.0%	0	0.0%	1	0.4%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1	0.4%	0	0.0%	0	0.0%	0	0.0%	1	0.4%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2	0.8%	0	0.0%	0	0.0%	0	0.0%	2	0.8%
복합조미식품										
드레싱류										
김치류	7	2.8%	0	0.0%	0	0.0%	0	0.0%	7	2.7%
젓갈류	3	1.2%	0	0.0%	0	0.0%	0	0.0%	3	1.1%
절임식품	0	0.0%	1	20.0%	0	0.0%	0	0.0%	1	0.4%
절임배추	18	7.3%	0	0.0%	0	0.0%	0	0.0%	18	6.9%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1	0.4%	0	0.0%	0	0.0%	0	0.0%	1	0.4%
포도주	0	0.0%	0	0.0%	0	0.0%	1	33.3%	1	0.4%
탁약주(막걸리)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건포류	2	0.8%	0	0.0%	0	0.0%	0	0.0%	2	0.8%
건강기능식품	20	8.1%	0	0.0%	1	14.3%	0	0.0%	21	8.0%
기타(건강식품)	27	10.9%	0	0.0%	0	0.0%	0	0.0%	27	10.3%

즉석식품	11	4.5%	1	20.0%	1	14.3%	0	0.0%	13	5.0%
쇠고기	4	1.6%	0	0.0%	0	0.0%	0	0.0%	4	1.5%
돼지고기	3	1.2%	0	0.0%	1	14.3%	0	0.0%	4	1.5%
닭고기	3	1.2%	0	0.0%	0	0.0%	0	0.0%	3	1.1%
오리고기										
기타육류	1	0.4%	0	0.0%	0	0.0%	0	0.0%	1	0.4%
알류	4	1.6%	0	0.0%	0	0.0%	0	0.0%	4	1.5%
곡류	11	4.5%	0	0.0%	0	0.0%	0	0.0%	11	4.2%
채소류	26	10.5%	0	0.0%	0	0.0%	1	33.3%	27	10.3%
과일류	16	6.5%	0	0.0%	0	0.0%	0	0.0%	16	6.1%
생선류	10	4.0%	0	0.0%	0	0.0%	0	0.0%	10	3.8%
어패류	8	3.2%	0	0.0%	0	0.0%	0	0.0%	8	3.1%
해조류	2	0.8%	0	0.0%	0	0.0%	0	0.0%	2	0.8%
식용종자버섯류	2	0.8%	0	0.0%	0	0.0%	0	0.0%	2	0.8%
나물류										
약용작물류	3	1.2%	0	0.0%	0	0.0%	0	0.0%	3	1.1%
견과류	9	3.6%	0	0.0%	0	0.0%	0	0.0%	9	3.4%
고추가루	3	1.2%	0	0.0%	0	0.0%	0	0.0%	3	1.1%
한식	4	1.6%	0	0.0%	0	0.0%	0	0.0%	4	1.5%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2	0.8%	0	0.0%	0	0.0%	0	0.0%	2	0.8%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2	0.8%	0	0.0%	0	0.0%	0	0.0%	2	0.8%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4	1.6%	0	0.0%	0	0.0%	0	0.0%	4	1.5%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247	100.0%	5	100.0%	7	100.0%	3	100.0%	262	100.0%

○ 2017년 식품 품질불량 상담 사례

(1월)

- 절임배추(실온에 3일 두니 무름), 배추(김치가 무름), 갈비, 카카오파머, 화분, 홍삼제품(천호식품, 원료 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환불요청), 필마트 시금치(세척시 거품이 남), 대한비만센터 다이어트식품(살이 더짐), 두빼빼 다이어트식품(상이한 광고, 효과없음), 마트포장순대(치아조각)

(2월~3월)

- 건강기능식품 : 천호식품 홍삼제품, 홈쇼핑 힐링바이오 패변(배탈), 보령제약 키성장제품(효과없음), 현대홈쇼핑 함소아 홍키통키(화학첨가물(산탄검, 시클로텍스트린시럽, 아가베시럽 등) 관련 기사 접한 후 반품), 키크팩토리 판매제품(안내문, 제조법, 허가여부 알 수 없음)
- 기타(건강식품) : (주)지앤비 생명과학 다이어트제품 및 프로그램(효능·효과 미흡), 삼성제약 다이어트(효과없음), MD웰 뉴트리웰 고단백(설사), 뉴트리코아 엽산제품(천연제품 허위광고관련, 환불x), 방문판매 단화수(품질의심), 현영다이어트(복용후 체중증가), 이지켓 수면다이어트(효과없음), 한국생약조합 고려장생가 홍삼정(유해물질 회수제품)

(4월~5월)

- 건강기능식품 : 아모레퍼시픽 제품(1회 1봉지 4알인데, 5알씩 포장된 것이 여러개 발견), GRN 가르시니아 다이어트제품(황달), 올리브영 다이어트보조제 가르시니아(초등학생이 구입하는데 부모확인절차 없이 판매, 제도개선필요), 디제로킹(어지러움증, 메스꺼움)

(6월~7월)

- 건강기능식품 : 쿠광 엽산제(속이메스꺼움, 산제부작용 의심), 대한홍삼진흥공사 고려홍삼(품질이 기존

과 다름), 종근당 다이어트식품, 샵페코르 다이어트식품(효과없어 품질불량), (주)함박재 바이오팜(청심환 형태, 거품이 올라오고 전내가 남, 사포닌 성분이라고 하나 신뢰가 안감), 티몬 다이어트식품(피부알러지 발생)

- 즉석식품 : 아임쇼핑 갈비탕(광고와 달리 양이적음), 전철우갈비탕 NS홈쇼핑(광고와 다름), 롯데홈쇼핑 강강술래 갈비탕(냄새, 품질미흡), 공영홈쇼핑 궁중갈비탕(광고와 상이, 기름이 많음), K쇼핑 홈쇼핑(고기에 잔뼈 다량), 홈앤쇼핑 줌바수홍육개장(맛없고 기름 많음), 홈쇼핑 해물뚝배기(상한제품 배송), 온랑니 구입식품(상함), NS홈쇼핑 전철우갈비탕 사은품 육개장(목이 따끔, 귀가아리고, 설사) 등

(8월~9월)

- 건강기능식품 : 다이어트제품 다수, 상아제약 유산균제품(변비효과 없음), 임산부 엽산(방부제 터진 상태로 섭취), 아이클타임 키성장제품(까맣게변질), 동진제약 호관원 관절염 관련 제품(효과 없고, 증상악화), 다이어트식품, 김오곤수면다이어트 식품(3개월 7kg감량 보장 - 효과없음), 아이엠쇼핑 네츄럴엔도텍(박스표기 유통기한 19년08.19인데 QR코드로는 '18년, 12월로 상이), 원광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변비개선제품(샘플도 효과없음) 등
- 과일류 : 복숭아 상담 다수, 반건시, 사과, 자두, 수박, 포도 등(무르고 상하거나 변질 관련 상담 등)
- 채소류 : 고구마와 옥수수 상담 다수, 건고추 관련 상담다수(벌레배설물 같은 이물질, 분쇄한 고춧가루 검정색, 회나리가 너무 많음, 탄저병 걸린 고추의심), 열정농부 아로니아(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세척 하고 갈아서 먹으니 전내) 등
- 곡류 : 쌀 상담 다수, 사업자 수입산 포테이토(불량제품 납품 문의), 옥션 미숫가루(쓴맛, 먹을 수 없을 정도),
- 기타육류가공품 : 하림 훈제오리(털 익은 것 같고, 너무 빨갛다), 홈앤쇼핑 함박스테이크(고기 너무 질기고 질낮음), 공영홈쇼핑 양념갈비(누린내), 위메프 고추장양념돼지불고기(심한냄새), 이마트물 오반장 세일상품 신세계푸드 양념소LA갈비구이(핏물에서 냄새 심함, 상품평에도 같은 내용 많음) 등

(10월)

- 건강기능식품 : 삼성다이어트 BSL솔루션(효과없음), 현대홈쇼핑 정관장홍삼(방송과 달리 묽음, 품질의심), 장윤주다이어트, 김사랑다이어트(효과없음) 등
- 기타(건강식품) : 홈앤쇼핑 아마씨드(유해물질 언론보도 후 반품 안되고 있어 문의), 서창사슴농장 녹용(백만원 상당, 불량제품의심), 완도 금일수산물협 톳(환)엑기스(중금속 검출 언론보도), 온라인 스타트칸 건강식품(두드러기, 설사), 닥터큐 톡스(부적절한 원료로 생산했다는 기사내용 접함) 등

(7) 표시광고·규격

- 1월~12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1,211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이 229건(18.9%)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건강식품)이 145건(12.0%), 과일류 102건(8.4%). 생선류가 70건(5.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1월~12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6	1.1%	2	7.7%	3	3.9%	9	1.6%	20	1.7%
케익류	0	0.0%	0	0.0%	0	0.0%	1	0.2%	1	0.1%
떡류	1	0.2%	0	0.0%	2	2.6%	10	1.8%	13	1.1%
과자류	9	1.6%	1	3.8%	0	0.0%	20	3.7%	30	2.5%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1	1.3%	3	0.5%	4	0.3%
잼류	0	0.0%	0	0.0%	1	1.3%	0	0.0%	1	0.1%
설탕	1	0.2%	0	0.0%	0	0.0%	0	0.0%	1	0.1%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1	0.2%	1	0.1%
꿀	2	0.4%	0	0.0%	0	0.0%	2	0.4%	4	0.3%
엿류	0	0.0%	0	0.0%	0	0.0%	1	0.2%	1	0.1%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류	2	0.4%	4	15.4%	0	0.0%	4	0.7%	10	0.8%
빙과류	0	0.0%	0	0.0%	0	0.0%	1	0.2%	1	0.1%
우유류	4	0.7%	0	0.0%	2	2.6%	8	1.5%	14	1.2%
발효우유	2	0.4%	0	0.0%	0	0.0%	1	0.2%	3	0.2%
분유류	1	0.2%	0	0.0%	1	1.3%	4	0.7%	6	0.5%
치즈·버터류	0	0.0%	0	0.0%	1	1.3%	3	0.5%	4	0.3%
햄 및 소시지류	1	0.2%	0	0.0%	2	2.6%	1	0.2%	4	0.3%
치킨류	2	0.4%	1	3.8%	0	0.0%	1	0.2%	4	0.3%
기타육류가공품	22	3.9%	0	0.0%	3	3.9%	17	3.1%	42	3.5%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4	0.7%	4	0.3%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1	0.2%	1	0.1%
식용유지류	1	0.2%	0	0.0%	0	0.0%	5	0.9%	6	0.5%
라면류	4	0.7%	4	15.4%	0	0.0%	5	0.9%	13	1.1%
건면류	0	0.0%	0	0.0%	0	0.0%	3	0.5%	3	0.2%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1	0.2%	0	0.0%	2	2.6%	1	0.2%	4	0.3%
커피	5	0.9%	3	11.5%	1	1.3%	13	2.4%	22	1.8%
탄산음료류	1	0.2%	1	3.8%	0	0.0%	5	0.9%	7	0.6%
과채음료류	7	1.2%	2	7.7%	0	0.0%	4	0.7%	13	1.1%
생수	3	0.5%	0	0.0%	0	0.0%	2	0.4%	5	0.4%
특수용도식품(환자식)	43	7.6%	0	0.0%	1	1.3%	1	0.2%	45	3.7%
이유식	1	0.2%	0	0.0%	0	0.0%	0	0.0%	1	0.1%
장류	2	0.4%	0	0.0%	1	1.3%	4	0.7%	7	0.6%
소스류	0	0.0%	0	0.0%	0	0.0%	1	0.2%	1	0.1%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2	0.4%	0	0.0%	0	0.0%	3	0.5%	5	0.4%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1	0.2%	1	0.1%
드레싱류	1	0.2%	0	0.0%	0	0.0%	0	0.0%	1	0.1%
김치류	4	0.7%	0	0.0%	0	0.0%	11	2.0%	15	1.2%
젓갈류	0	0.0%	0	0.0%	1	1.3%	3	0.5%	4	0.3%
절임식품	0	0.0%	0	0.0%	0	0.0%	2	0.4%	2	0.2%
절임배추	1	0.2%	0	0.0%	0	0.0%	2	0.4%	3	0.2%
조림식품	1	0.2%	0	0.0%	0	0.0%	1	0.2%	2	0.2%
소주	1	0.2%	0	0.0%	1	1.3%	0	0.0%	2	0.2%
맥주	3	0.5%	2	7.7%	1	1.3%	4	0.7%	10	0.8%
포도주	0	0.0%	0	0.0%	0	0.0%	7	1.3%	7	0.6%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2	0.4%	2	0.2%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3	3.9%	1	0.2%	4	0.3%

건포류	2	0.4%	0	0.0%	0	0.0%	4	0.7%	6	0.5%
건강기능식품	169	30.0%	0	0.0%	14	18.4%	46	8.4%	229	18.9%
기타(건강식품)	117	20.8%	1	3.8%	8	10.5%	19	3.5%	145	12.0%
즉석식품	13	2.3%	0	0.0%	2	2.6%	14	2.6%	29	2.4%
쇠고기	8	1.4%	0	0.0%	2	2.6%	22	4.0%	32	2.6%
돼지고기	4	0.7%	0	0.0%	1	1.3%	11	2.0%	16	1.3%
닭고기	3	0.5%	0	0.0%	1	1.3%	11	2.0%	15	1.2%
오리고기	1	0.2%	0	0.0%	0	0.0%	0	0.0%	1	0.1%
기타육류	7	1.2%	0	0.0%	1	1.3%	5	0.9%	13	1.1%
알류	5	0.9%	0	0.0%	3	3.9%	5	0.9%	13	1.1%
곡류	7	1.2%	0	0.0%	6	7.9%	19	3.5%	32	2.6%
채소류	12	2.1%	2	7.7%	2	2.6%	32	5.9%	48	4.0%
과일류	25	4.4%	0	0.0%	1	1.3%	76	13.9%	102	8.4%
생선류	24	4.3%	0	0.0%	0	0.0%	46	8.4%	70	5.8%
어패류	17	3.0%	0	0.0%	2	2.6%	31	5.7%	50	4.1%
해조류	1	0.2%	0	0.0%	1	1.3%	5	0.9%	7	0.6%
식용종자버섯류	1	0.2%	0	0.0%	1	1.3%	2	0.4%	4	0.3%
나물류	1	0.2%	0	0.0%	0	0.0%	0	0.0%	1	0.1%
약용작물류	0	0.0%	0	0.0%	2	2.6%	4	0.7%	6	0.5%
견과류	2	0.4%	0	0.0%	2	2.6%	4	0.7%	8	0.7%
고추가루	0	0.0%	0	0.0%	0	0.0%	2	0.4%	2	0.2%
한식	4	0.7%	3	11.5%	0	0.0%	10	1.8%	17	1.4%
양식	0	0.0%	0	0.0%	0	0.0%	1	0.2%	1	0.1%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1	0.2%	1	0.1%
패스트푸드점	3	0.5%	0	0.0%	0	0.0%	2	0.4%	5	0.4%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3	0.5%	0	0.0%	0	0.0%	1	0.2%	4	0.3%
총합계(중복응답)	563	100.0%	26	100.0%	76	100.0%	546	100.0%	1211	100.0%

○ 1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130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이 27건(20.8%)으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가 12건(9.2%), 기타(건강식품) 11건(8.5%), 기타육류 9건(6.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1월)

품 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0	0.0%	0	0.0%	0	0.0%	1	1.6%	1	0.8%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2	3.4%	0	0.0%	0	0.0%	1	1.6%	3	2.3%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1	1.6%	1	0.8%
꿀	1	1.7%	0	0.0%	0	0.0%	0	0.0%	1	0.8%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0	0.0%	0	0.0%	0	0.0%	2	3.3%	2	1.5%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1	11.1%	0	0.0%	1	0.8%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3	5.2%	0	0.0%	1	11.1%	4	6.6%	8	6.2%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1	1.6%	1	0.8%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다류	0	0.0%	0	0.0%	1	11.1%	0	0.0%	1	0.8%
커피	0	0.0%	0	0.0%	0	0.0%	1	1.6%	1	0.8%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6	10.3%	0	0.0%	0	0.0%	0	0.0%	6	4.6%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1	1.6%	1	0.8%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1	50.0%	0	0.0%	0	0.0%	1	0.8%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2	3.4%	0	0.0%	0	0.0%	0	0.0%	2	1.5%
건강기능식품	16	27.6%	0	0.0%	0	0.0%	11	18.0%	27	20.8%
기타(건강식품)	10	17.2%	0	0.0%	1	11.1%	0	0.0%	11	8.5%

즉석식품	1	1.7%	0	0.0%	0	0.0%	1	1.6%	2	1.5%
쇠고기	0	0.0%	0	0.0%	1	11.1%	4	6.6%	5	3.8%
돼지고기	0	0.0%	0	0.0%	0	0.0%	2	3.3%	2	1.5%
닭고기	0	0.0%	0	0.0%	0	0.0%	1	1.6%	1	0.8%
오리고기										
기타육류	6	10.3%	0	0.0%	1	11.1%	2	3.3%	9	6.9%
알류	2	3.4%	0	0.0%	2	22.2%	3	4.9%	7	5.4%
곡류	1	1.7%	0	0.0%	0	0.0%	4	6.6%	5	3.8%
채소류	1	1.7%	0	0.0%	0	0.0%	1	1.6%	2	1.5%
과일류	2	3.4%	0	0.0%	0	0.0%	10	16.4%	12	9.2%
생선류	2	3.4%	0	0.0%	0	0.0%	4	6.6%	6	4.6%
어패류	2	3.4%	0	0.0%	1	11.1%	5	8.2%	8	6.2%
해조류	0	0.0%	0	0.0%	0	0.0%	1	1.6%	1	0.8%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고추가루										
한식	0	0.0%	1	50.0%	0	0.0%	0	0.0%	1	0.8%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1	1.7%	0	0.0%	0	0.0%	0	0.0%	1	0.8%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58	100.0%	2	100.0%	9	100.0%	61	100.0%	130	100.0%

○ 2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61건으로 과일류 9건(14.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이 6건(9.8%), 기타(건강식품)과 닭고기, 한식이 각각 5건(8.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2월)

품 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0	0.0%	0	0.0%	0	0.0%	1	2.6%	1	1.6%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1	7.1%	1	50.0%	0	0.0%	2	5.3%	4	6.6%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1	14.3%	0	0.0%	1	1.6%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1	2.6%	1	1.6%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0	0.0%	0	0.0%	1	14.3%	0	0.0%	1	1.6%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1	14.3%	0	0.0%	1	1.6%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1	2.6%	1	1.6%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0	0.0%	0	0.0%	0	0.0%	1	2.6%	1	1.6%
기타육류가공품	0	0.0%	0	0.0%	0	0.0%	2	5.3%	2	3.3%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1	2.6%	1	1.6%
라면류	0	0.0%	0	0.0%	0	0.0%	1	2.6%	1	1.6%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0	0.0%	0	0.0%	0	0.0%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한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1	2.6%	1	1.6%
소스류	0	0.0%	0	0.0%	0	0.0%	1	2.6%	1	1.6%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1	2.6%	1	1.6%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1	14.3%	1	2.6%	2	3.3%
포도주	0	0.0%	0	0.0%	0	0.0%	1	2.6%	1	1.6%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1	14.3%	0	0.0%	1	1.6%
건포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3	21.4%	0	0.0%	0	0.0%	3	7.9%	6	9.8%
기타(건강식품)	4	28.6%	0	0.0%	0	0.0%	1	2.6%	5	8.2%

즉석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쇠고기	0	0.0%	0	0.0%	0	0.0%	1	2.6%	1	1.6%
돼지고기	1	7.1%	0	0.0%	0	0.0%	0	0.0%	1	1.6%
닭고기	2	14.3%	0	0.0%	1	14.3%	2	5.3%	5	8.2%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채소류	0	0.0%	0	0.0%	0	0.0%	1	2.6%	1	1.6%
과일류	0	0.0%	0	0.0%	0	0.0%	9	23.7%	9	14.8%
생선류	2	14.3%	0	0.0%	0	0.0%	0	0.0%	2	3.3%
어패류	0	0.0%	0	0.0%	0	0.0%	1	2.6%	1	1.6%
해조류	0	0.0%	0	0.0%	0	0.0%	1	2.6%	1	1.6%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1	2.6%	1	1.6%
견과류	0	0.0%	0	0.0%	1	14.3%	0	0.0%	1	1.6%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1	7.1%	1	50.0%	0	0.0%	3	7.9%	5	8.2%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0	0.0%	0	0.0%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14	100.0%	2	100.0%	7	100.0%	38	100.0%	61	100.0%

- 3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147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이 51건(34.7%), 기타(건강식품) 20건(13.6%), 곡류 9건(6.1%), 특수용도식품(환자식) 7건(4.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3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1.1%	0	0.0%	0	0.0%	2	4.3%	3	2.0%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0	0.0%	0	0.0%	0	0.0%	5	10.6%	5	3.4%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1	2.1%	1	0.7%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1	100.0%	0	0.0%	0	0.0%	1	0.7%
빙과류										
우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3	3.4%	0	0.0%	0	0.0%	1	2.1%	4	2.7%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1	2.1%	1	0.7%
라면류	0	0.0%	0	0.0%	0	0.0%	2	4.3%	2	1.4%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1	1.1%	0	0.0%	0	0.0%	0	0.0%	1	0.7%
커피	1	1.1%	0	0.0%	0	0.0%	1	2.1%	2	1.4%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0	0.0%	0	0.0%	0	0.0%	1	2.1%	1	0.7%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7	7.9%	0	0.0%	0	0.0%	0	0.0%	7	4.8%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1	2.1%	1	0.7%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1	2.1%	1	0.7%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1	1.1%	0	0.0%	0	0.0%	0	0.0%	1	0.7%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1	2.1%	1	0.7%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1	2.1%	1	0.7%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38	42.7%	0	0.0%	5	50.0%	8	17.0%	51	34.7%
기타(건강식품)	17	19.1%	0	0.0%	2	20.0%	1	2.1%	20	13.6%

즉석식품	1	1.1%	0	0.0%	0	0.0%	0	0.0%	1	0.7%
쇠고기	2	2.2%	0	0.0%	0	0.0%	2	4.3%	4	2.7%
돼지고기	1	1.1%	0	0.0%	0	0.0%	2	4.3%	3	2.0%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1	1.1%	0	0.0%	0	0.0%	0	0.0%	1	0.7%
곡류	3	3.4%	0	0.0%	3	30.0%	3	6.4%	9	6.1%
채소류	3	3.4%	0	0.0%	0	0.0%	3	6.4%	6	4.1%
과일류	1	1.1%	0	0.0%	0	0.0%	2	4.3%	3	2.0%
생선류	1	1.1%	0	0.0%	0	0.0%	3	6.4%	4	2.7%
어패류	2	2.2%	0	0.0%	0	0.0%	3	6.4%	5	3.4%
해조류	1	1.1%	0	0.0%	0	0.0%	1	2.1%	2	1.4%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1	1.1%	0	0.0%	0	0.0%	1	2.1%	2	1.4%
고추가루										
한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양식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1	1.1%	0	0.0%	0	0.0%	0	0.0%	1	0.7%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2	2.2%	0	0.0%	0	0.0%	0	0.0%	2	1.4%
총합계(중복응답)	89	100.0%	1	100.0%	10	100.0%	47	100.0%	147	100.0%

- 4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88건으로 건강기능식품 17건(19.3%), 기타(건강식품) 12건(13.6%) 채소류와 과일류가 각각 10건(11.4%)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4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0	0.0%	0	0.0%	0	0.0%	0	0.0%	0	0.0%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1	2.3%	0	0.0%	0	0.0%	1	2.9%	2	2.3%
과자류	2	4.5%	0	0.0%	0	0.0%	0	0.0%	2	2.3%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1	50.0%	0	0.0%	0	0.0%	1	1.1%
빙과류										
우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발효유류	1	2.3%	0	0.0%	0	0.0%	1	2.9%	2	2.3%
분유류	0	0.0%	0	0.0%	0	0.0%	1	2.9%	1	1.1%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기타육류가공품	3	6.8%	0	0.0%	1	14.3%	1	2.9%	5	5.7%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1	2.3%	0	0.0%	0	0.0%	0	0.0%	1	1.1%
라면류	1	2.3%	1	50.0%	0	0.0%	0	0.0%	2	2.3%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1	2.9%	1	1.1%
커피	0	0.0%	0	0.0%	0	0.0%	1	2.9%	1	1.1%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수	0	0.0%	0	0.0%	0	0.0%	1	2.9%	1	1.1%
특수용도식품(환자식)	1	2.3%	0	0.0%	0	0.0%	0	0.0%	1	1.1%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13	29.5%	0	0.0%	0	0.0%	4	11.4%	17	19.3%
기타(건강식품)	10	22.7%	0	0.0%	1	14.3%	1	2.9%	12	13.6%

즉석식품	0	0.0%	0	0.0%	1	14.3%	0	0.0%	1	1.1%
쇠고기	1	2.3%	0	0.0%	0	0.0%	0	0.0%	1	1.1%
돼지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닭고기	0	0.0%	0	0.0%	0	0.0%	1	2.9%	1	1.1%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1	2.9%	1	1.1%
곡류	0	0.0%	0	0.0%	0	0.0%	1	2.9%	1	1.1%
채소류	3	6.8%	0	0.0%	2	28.6%	5	14.3%	10	11.4%
과일류	1	2.3%	0	0.0%	0	0.0%	9	25.7%	10	11.4%
생선류	2	4.5%	0	0.0%	0	0.0%	3	8.6%	5	5.7%
어패류	2	4.5%	0	0.0%	0	0.0%	2	5.7%	4	4.5%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1	14.3%	0	0.0%	1	1.1%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1	14.3%	0	0.0%	1	1.1%
고추가루										
한식	1	2.3%	0	0.0%	0	0.0%	0	0.0%	1	1.1%
양식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1	2.3%	0	0.0%	0	0.0%	0	0.0%	1	1.1%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1	2.9%	1	1.1%
총합계(중복응답)	44	100.0%	2	100.0%	7	100.0%	35	100.0%	88	100.0%

○ 5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92건으로 건강기능식품 18건(19.6%), 기타(건강식품) 12건(13.0%), 과일류 7건(7.6%), 특수용도식품(환자식)이 6건(6.5%)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5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0	0.0%	0	0.0%	2	16.7%	0	0.0%	2	2.2%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1	8.3%	3	8.1%	4	4.3%
과자류	0	0.0%	0	0.0%	0	0.0%	2	5.4%	2	2.2%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0	0.0%	1	2.7%	1	1.1%
치즈·버터류	0	0.0%	0	0.0%	1	8.3%	0	0.0%	1	1.1%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2	5.4%	2	2.2%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1	2.7%	1	1.1%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2	100.0%	0	0.0%	3	8.1%	5	5.4%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1	2.4%	0	0.0%	0	0.0%	0	0.0%	1	1.1%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5	12.2%	0	0.0%	1	8.3%	0	0.0%	6	6.5%
이유식	1	2.4%	0	0.0%	0	0.0%	0	0.0%	1	1.1%
장류	1	2.4%	0	0.0%	1	8.3%	0	0.0%	2	2.2%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드레싱류	1	2.4%	0	0.0%	0	0.0%	0	0.0%	1	1.1%
김치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1	2.7%	1	1.1%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3	8.1%	3	3.3%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1	8.3%	0	0.0%	1	1.1%
건포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16	39.0%	0	0.0%	2	16.7%	0	0.0%	18	19.6%
기타(건강식품)	11	26.8%	0	0.0%	0	0.0%	1	2.7%	12	13.0%

즉석식품	1	2.4%	0	0.0%	0	0.0%	0	0.0%	1	1.1%
쇠고기	0	0.0%	0	0.0%	1	8.3%	3	8.1%	4	4.3%
돼지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닭고기	0	0.0%	0	0.0%	0	0.0%	1	2.7%	1	1.1%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0	0.0%	0	0.0%	0	0.0%	1	2.7%	1	1.1%
채소류	0	0.0%	0	0.0%	0	0.0%	2	5.4%	2	2.2%
과일류	2	4.9%	0	0.0%	0	0.0%	5	13.5%	7	7.6%
생선류	1	2.4%	0	0.0%	0	0.0%	2	5.4%	3	3.3%
어패류	0	0.0%	0	0.0%	1	8.3%	1	2.7%	2	2.2%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1	8.3%	2	5.4%	3	3.3%
견과류	1	2.4%	0	0.0%	0	0.0%	1	2.7%	2	2.2%
고추가루										
한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1	2.7%	1	1.1%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1	2.7%	1	1.1%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41	100.0%	2	100.0%	12	100.0%	37	100.0%	92	100.0%

○ 6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142건으로 건강기능식품 31건(21.8%), 기타(건강식품) 16건(11.3%), 과일류 14건(9.9%), 기타육류가공품과 생선류가 각각 8건(5.6%)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6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0	0.0%	0	0.0%	1	12.5%	2	2.9%	3	2.1%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1	1.4%	1	0.7%
과자류	1	1.7%	0	0.0%	0	0.0%	4	5.7%	5	3.5%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1	1.4%	1	0.7%
엿류	0	0.0%	0	0.0%	0	0.0%	1	1.4%	1	0.7%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1	1.7%	0	0.0%	1	12.5%	3	4.3%	5	3.5%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0	0.0%	1	1.4%	1	0.7%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0	0.0%	1	25.0%	0	0.0%	0	0.0%	1	0.7%
기타육류가공품	4	6.7%	0	0.0%	0	0.0%	4	5.7%	8	5.6%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1	1.4%	1	0.7%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1	1.7%	1	25.0%	0	0.0%	1	1.4%	3	2.1%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1	12.5%	2	2.9%	3	2.1%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2	2.9%	2	1.4%
과채음료류	0	0.0%	0	0.0%	0	0.0%	2	2.9%	2	1.4%
생수	2	3.3%	0	0.0%	0	0.0%	0	0.0%	2	1.4%
특수용도식품(환자식)	4	6.7%	0	0.0%	0	0.0%	0	0.0%	4	2.8%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1	1.4%	1	0.7%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1	1.4%	1	0.7%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1	1.4%	1	0.7%
소주										
맥주	0	0.0%	1	25.0%	0	0.0%	0	0.0%	1	0.7%
포도주	0	0.0%	0	0.0%	0	0.0%	1	1.4%	1	0.7%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1	1.4%	1	0.7%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1	12.5%	0	0.0%	1	0.7%
건포류	0	0.0%	0	0.0%	0	0.0%	1	1.4%	1	0.7%
건강기능식품	23	38.3%	0	0.0%	1	12.5%	7	10.0%	31	21.8%
기타(건강식품)	13	21.7%	0	0.0%	0	0.0%	3	4.3%	16	11.3%

즉석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쇠고기	1	1.7%	0	0.0%	0	0.0%	0	0.0%	1	0.7%
돼지고기	0	0.0%	0	0.0%	1	12.5%	1	1.4%	2	1.4%
닭고기	1	1.7%	0	0.0%	0	0.0%	3	4.3%	4	2.8%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1	1.4%	1	0.7%
알류	0	0.0%	0	0.0%	0	0.0%	1	1.4%	1	0.7%
곡류	0	0.0%	0	0.0%	2	25.0%	2	2.9%	4	2.8%
채소류	0	0.0%	0	0.0%	0	0.0%	4	5.7%	4	2.8%
과일류	4	6.7%	0	0.0%	0	0.0%	10	14.3%	14	9.9%
생선류	2	3.3%	0	0.0%	0	0.0%	6	8.6%	8	5.6%
어패류	2	3.3%	0	0.0%	0	0.0%	0	0.0%	2	1.4%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1	1.7%	1	25.0%	0	0.0%	0	0.0%	2	1.4%
양식	0	0.0%	0	0.0%	0	0.0%	1	1.4%	1	0.7%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0	0.0%	0	0.0%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60	100.0%	4	100.0%	8	100.0%	70	100.0%	142	100.0%

○ 7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89건으로 건강기능식품 20건(22.5%), 기타(건강식품) 8건(9.0%), 채소류 7건(7.9%), 쇠고기와 과일류가 각각 5건(5.6%)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7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5.0%	1	33.3%	0	0.0%	0	0.0%	3	3.4%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1	16.7%	0	0.0%	1	1.1%
과자류	0	0.0%	0	0.0%	0	0.0%	2	5.0%	2	2.2%
코코아 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1	2.5%	0	0.0%	0	0.0%	1	2.5%	2	2.2%
빙과류	0	0.0%	0	0.0%	0	0.0%	1	2.5%	1	1.1%
우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1	2.5%	0	0.0%	0	0.0%	0	0.0%	1	1.1%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1	2.5%	0	0.0%	0	0.0%	0	0.0%	1	1.1%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1	2.5%	1	33.3%	0	0.0%	0	0.0%	2	2.2%
건면류	0	0.0%	0	0.0%	0	0.0%	1	2.5%	1	1.1%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0	0.0%	1	2.5%	1	1.1%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2	5.0%	2	2.2%
과채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수	1	2.5%	0	0.0%	0	0.0%	0	0.0%	1	1.1%
특수용도식품(환자식)	3	7.5%	0	0.0%	0	0.0%	1	2.5%	4	4.5%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김치류	0	0.0%	0	0.0%	0	0.0%	1	2.5%	1	1.1%
젓갈류	0	0.0%	0	0.0%	1	16.7%	0	0.0%	1	1.1%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1	2.5%	1	1.1%
포도주	0	0.0%	0	0.0%	0	0.0%	1	2.5%	1	1.1%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14	35.0%	0	0.0%	3	50.0%	3	7.5%	20	22.5%
기타(건강식품)	6	15.0%	0	0.0%	1	16.7%	1	2.5%	8	9.0%

즉석식품	1	2.5%	0	0.0%	0	0.0%	1	2.5%	2	2.2%
쇠고기	2	5.0%	0	0.0%	0	0.0%	3	7.5%	5	5.6%
돼지고기	0	0.0%	0	0.0%	0	0.0%	1	2.5%	1	1.1%
닭고기	0	0.0%	0	0.0%	0	0.0%	1	2.5%	1	1.1%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2	5.0%	0	0.0%	0	0.0%	0	0.0%	2	2.2%
곡류	0	0.0%	0	0.0%	0	0.0%	2	5.0%	2	2.2%
채소류	1	2.5%	1	33.3%	0	0.0%	5	12.5%	7	7.9%
과일류	1	2.5%	0	0.0%	0	0.0%	4	10.0%	5	5.6%
생선류	0	0.0%	0	0.0%	0	0.0%	1	2.5%	1	1.1%
어패류	1	2.5%	0	0.0%	0	0.0%	3	7.5%	4	4.5%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1	2.5%	0	0.0%	0	0.0%	0	0.0%	1	1.1%
나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0	0.0%	1	2.5%	1	1.1%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0	0.0%	0	0.0%	0	0.0%	2	5.0%	2	2.2%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0	0.0%	0	0.0%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1	2.5%	0	0.0%	0	0.0%	0	0.0%	1	1.1%
총합계(중복응답)	40	100.0%	3	100.0%	6	100.0%	40	100.0%	89	100.0%

○ 8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103건으로 즉석식품 12건(11.7%), 과일류 10건(9.7%), 특수용도식품(환자식) 8건(7.8%), 건강기능식품 7건(6.8%)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8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1	2.0%	0	0.0%	0	0.0%	2	4.4%	3	2.9%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2	4.4%	2	1.9%
과자류	1	2.0%	0	0.0%	0	0.0%	1	2.2%	2	1.9%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1	25.0%	0	0.0%	1	1.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꿀	1	2.0%	0	0.0%	0	0.0%	0	0.0%	1	1.0%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1	20.0%	0	0.0%	1	2.2%	2	1.9%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2	4.1%	0	0.0%	0	0.0%	0	0.0%	2	1.9%
발효유류	1	2.0%	0	0.0%	0	0.0%	0	0.0%	1	1.0%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1	2.2%	1	1.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3	6.1%	0	0.0%	0	0.0%	2	4.4%	5	4.9%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1	2.2%	1	1.0%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2	4.1%	1	20.0%	0	0.0%	0	0.0%	3	2.9%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1	2.2%	1	1.0%
과채음료류	0	0.0%	2	40.0%	0	0.0%	0	0.0%	2	1.9%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8	16.3%	0	0.0%	0	0.0%	0	0.0%	8	7.8%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1	2.0%	0	0.0%	0	0.0%	0	0.0%	1	1.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2	4.1%	0	0.0%	0	0.0%	3	6.7%	5	4.9%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1	25.0%	0	0.0%	1	1.0%
맥주	1	2.0%	0	0.0%	0	0.0%	1	2.2%	2	1.9%
포도주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2	4.1%	0	0.0%	1	25.0%	4	8.9%	7	6.8%
기타(건강식품)	5	10.2%	0	0.0%	0	0.0%	1	2.2%	6	5.8%

즉석식품	5	10.2%	0	0.0%	0	0.0%	7	15.6%	12	11.7%
쇠고기	0	0.0%	0	0.0%	0	0.0%	2	4.4%	2	1.9%
돼지고기	1	2.0%	0	0.0%	0	0.0%	0	0.0%	1	1.0%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1	2.0%	0	0.0%	0	0.0%	0	0.0%	1	1.0%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1	2.0%	0	0.0%	1	25.0%	0	0.0%	2	1.9%
채소류	1	2.0%	1	20.0%	0	0.0%	2	4.4%	4	3.9%
과일류	5	10.2%	0	0.0%	0	0.0%	5	11.1%	10	9.7%
생선류	2	4.1%	0	0.0%	0	0.0%	4	8.9%	6	5.8%
어패류	3	6.1%	0	0.0%	0	0.0%	3	6.7%	6	5.8%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0	0.0%	0	0.0%	0	0.0%	2	4.4%	2	1.9%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0	0.0%	0	0.0%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49	100.0%	5	100.0%	4	100.0%	45	100.0%	103	100.0%

○ 9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119건으로 기타(건강식품) 22건(18.5%), 생선류 20건(16.8%), 과일류 10건(8.4%), 건강기능식품 7건(5.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 상담 건수(9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0	0.0%	1	33.3%	0	0.0%	1	1.6%	2	1.7%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자류	1	2.0%	0	0.0%	0	0.0%	0	0.0%	1	0.8%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포도당/과당										
꿀	0	0.0%	0	0.0%	0	0.0%	1	1.6%	1	0.8%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1	33.3%	0	0.0%	1	1.6%	2	1.7%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0	0.0%	0	0.0%	0	0.0%	1	1.6%	1	0.8%
발효우유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1	2.0%	0	0.0%	0	0.0%	0	0.0%	1	0.8%
치킨류	1	2.0%	0	0.0%	0	0.0%	0	0.0%	1	0.8%
기타육류가공품	2	4.0%	0	0.0%	0	0.0%	2	3.3%	4	3.4%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목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1	2.0%	0	0.0%	0	0.0%	1	1.6%	2	1.7%
건면류										
생면류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1	2.0%	0	0.0%	0	0.0%	2	3.3%	3	2.5%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1	2.0%	0	0.0%	0	0.0%	0	0.0%	1	0.8%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3	6.0%	0	0.0%	0	0.0%	0	0.0%	3	2.5%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1	1.6%	1	0.8%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1	1.6%	1	0.8%
젓갈류	0	0.0%	0	0.0%	0	0.0%	2	3.3%	2	1.7%
절임식품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1	2.0%	0	0.0%	0	0.0%	1	1.6%	2	1.7%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1	1.6%	1	0.8%
건포류	0	0.0%	0	0.0%	0	0.0%	1	1.6%	1	0.8%
건강기능식품	5	10.0%	0	0.0%	0	0.0%	2	3.3%	7	5.9%
기타(건강식품)	16	32.0%	1	33.3%	2	40.0%	3	4.9%	22	18.5%

즉석식품	2	4.0%	0	0.0%	1	20.0%	1	1.6%	4	3.4%
쇠고기	1	2.0%	0	0.0%	0	0.0%	3	4.9%	4	3.4%
돼지고기	1	2.0%	0	0.0%	0	0.0%	1	1.6%	2	1.7%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1	1.6%	1	0.8%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1	2.0%	0	0.0%	0	0.0%	2	3.3%	3	2.5%
채소류	1	2.0%	0	0.0%	0	0.0%	4	6.6%	5	4.2%
과일류	1	2.0%	0	0.0%	1	20.0%	8	13.1%	10	8.4%
생선류	8	16.0%	0	0.0%	0	0.0%	12	19.7%	20	16.8%
어패류	1	2.0%	0	0.0%	0	0.0%	2	3.3%	3	2.5%
해조류	0	0.0%	0	0.0%	1	20.0%	0	0.0%	1	0.8%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2	3.3%	2	1.7%
나물류	1	2.0%	0	0.0%	0	0.0%	0	0.0%	1	0.8%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견과류	0	0.0%	0	0.0%	0	0.0%	1	1.6%	1	0.8%
고추가루	0	0.0%	0	0.0%	0	0.0%	1	1.6%	1	0.8%
한식	0	0.0%	0	0.0%	0	0.0%	1	1.6%	1	0.8%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1	1.6%	1	0.8%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50	100.0%	3	100.0%	5	100.0%	61	100.0%	119	100.0%

○ 10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79건으로 건강기능식품 12건(15.2%), 기타(건강식품) 10건(12.7%), 과일류 8건(10.1%), 생선류 7건(8.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규격 상담 건수(10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0	0.0%	0	0.0%	0	0.0%	0	0.0%	0	0.0%
케익류	0	0.0%	0	0.0%	0	0.0%	1	3.1%	1	1.3%
떡류	0	0.0%	0	0.0%	0	0.0%	1	3.1%	1	1.3%
과자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2	6.3%	2	2.5%
잼류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0.0%						
아이스크림류	1	2.3%	0	0.0%	0	0.0%	0	0.0%	1	1.3%
빙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우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1	2.3%	0	0.0%	0	0.0%	0	0.0%	1	1.3%
기타육류가공품	1	2.3%	0	0.0%	1	25.0%	0	0.0%	2	2.5%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0.0%						
다류	0	0.0%	0	0.0%	1	25.0%	0	0.0%	1	1.3%
커피	0	0.0%	0	0.0%	0	0.0%	1	3.1%	1	1.3%
탄산음료류	1	2.3%	0	0.0%	0	0.0%	0	0.0%	1	1.3%
과채음료류	3	7.0%	0	0.0%	0	0.0%	0	0.0%	3	3.8%
생수	0	0.0%	0	0.0%	0	0.0%	1	3.1%	1	1.3%
특수용도식품(환자식)	3	7.0%	0	0.0%	0	0.0%	0	0.0%	3	3.8%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1	2.3%	0	0.0%	0	0.0%	1	3.1%	2	2.5%
소스류				0.0%						
식초류				0.0%						
조미료	1	2.3%	0	0.0%	0	0.0%	0	0.0%	1	1.3%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0.0%						
김치류	1	2.3%	0	0.0%	0	0.0%	0	0.0%	1	1.3%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0%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1	2.3%	0	0.0%	0	0.0%	0	0.0%	1	1.3%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0	0.0%	0	0.0%	1	3.1%	1	1.3%
건강기능식품	11	25.6%	0	0.0%	1	25.0%	0	0.0%	12	15.2%
기타(건강식품)	8	18.6%	0	0.0%	0	0.0%	2	6.3%	10	12.7%

즉석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쇠고기	1	2.3%	0	0.0%	0	0.0%	1	3.1%	2	2.5%
돼지고기	0	0.0%	0	0.0%	0	0.0%	1	3.1%	1	1.3%
닭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오리고기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	0	0.0%	0	0.0%	0	0.0%	1	3.1%	1	1.3%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1	2.3%	0	0.0%	0	0.0%	3	9.4%	4	5.1%
채소류	1	2.3%	0	0.0%	0	0.0%	2	6.3%	3	3.8%
과일류	3	7.0%	0	0.0%	0	0.0%	5	15.6%	8	10.1%
생선류	1	2.3%	0	0.0%	0	0.0%	6	18.8%	7	8.9%
어패류	2	4.7%	0	0.0%	0	0.0%	1	3.1%	3	3.8%
해조류	0	0.0%	0	0.0%	0	0.0%	1	3.1%	1	1.3%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0.0%						
약용작물류	0	0.0%	0	0.0%	1	25.0%	0	0.0%	1	1.3%
견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고추가루	0	0.0%	0	0.0%	0	0.0%	1	3.1%	1	1.3%
한식	1	2.3%	0	0.0%	0	0.0%	0	0.0%	1	1.3%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0	0.0%	0	0.0%	0	0.0%	0	0.0%	0	0.0%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0	0.0%	0	0.0%
뷔페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43	100.0%	0	0.0%	4	100.0%	32	100.0%	79	100.0%

○ 11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85건으로 기타(건강식품) 15건(17.6%), 건강기능식품 10건(11.8%), 과일류와 생선류가 각각 6건(7.1%), 어패류 5건(5.9%)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규격 상담 건수(11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0	0.0%	0	0.0%	0	0.0%	0	0.0%	0	0.0%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1	2.2%	1	1.2%
과자류	1	2.9%	0	0.0%	0	0.0%	2	4.3%	3	3.5%
코코아 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설탕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당시럽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1	2.9%	0	0.0%	0	0.0%	1	2.2%	2	2.4%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0	0.0%	1	2.2%	1	1.2%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1	2.2%	1	1.2%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1	33.3%	1	2.2%	2	2.4%
치킨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육류가공품	1	2.9%	0	0.0%	0	0.0%	0	0.0%	1	1.2%
알가공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1	2.2%	1	1.2%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라면류	0	0.0%	1	100.0%	0	0.0%	0	0.0%	1	1.2%
건면류	0	0.0%	0	0.0%	0	0.0%	2	4.3%	2	2.4%
생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1	2.9%	0	0.0%	0	0.0%	1	2.2%	2	2.4%
탄산음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과채음료류	1	2.9%	0	0.0%	0	0.0%	0	0.0%	1	1.2%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2	4.3%	2	2.4%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드레싱류										
김치류	1	2.9%	0	0.0%	0	0.0%	3	6.5%	4	4.7%
젓갈류	0	0.0%	0	0.0%	0	0.0%	1	2.2%	1	1.2%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1	2.9%	0	0.0%	0	0.0%	2	4.3%	3	3.5%
조림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0	0.0%	0	0.0%	0	0.0%	0	0.0%	0	0.0%
건포류	0	0.0%	0	0.0%	0	0.0%	1	2.2%	1	1.2%
건강기능식품	9	25.7%	0	0.0%	0	0.0%	1	2.2%	10	11.8%
기타(건강식품)	12	34.3%	0	0.0%	1	33.3%	2	4.3%	15	17.6%

즉석식품	0	0.0%	0	0.0%	0	0.0%	2	4.3%	2	2.4%
쇠고기	0	0.0%	0	0.0%	0	0.0%	2	4.3%	2	2.4%
돼지고기	0	0.0%	0	0.0%	0	0.0%	1	2.2%	1	1.2%
닭고기	0	0.0%	0	0.0%	0	0.0%	1	2.2%	1	1.2%
오리고기	1	2.9%	0	0.0%	0	0.0%	0	0.0%	1	1.2%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1	33.3%	0	0.0%	1	1.2%
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채소류	1	2.9%	0	0.0%	0	0.0%	2	4.3%	3	3.5%
과일류	3	8.6%	0	0.0%	0	0.0%	3	6.5%	6	7.1%
생선류	2	5.7%	0	0.0%	0	0.0%	4	8.7%	6	7.1%
어패류	0	0.0%	0	0.0%	0	0.0%	5	10.9%	5	5.9%
해조류	0	0.0%	0	0.0%	0	0.0%	1	2.2%	1	1.2%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1	2.2%	1	1.2%
견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0	0.0%	0	0.0%	0	0.0%	1	2.2%	1	1.2%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0	0.0%	0	0.0%
뷔페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35	100.0%	1	100.0%	3	100.0%	46	100.0%	85	100.0%

- 12월 표시광고·규격 불만사례는 총 76건으로 건강기능식품 23건(30.3%), 기타(건강식품)과 과일류가 각각 8건(10.5%), 어패류 7건(9.2%) 순으로 나타남.

[표] 식품 표시광고·규격 상담 건수(12월)

품목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빵	2	5.0%	0	0.0%	0	0.0%	0	0.0%	2	2.6%
케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떡류	0	0.0%	0	0.0%	0	0.0%	1	2.9%	1	1.3%
과자류	0	0.0%	0	0.0%	0	0.0%	1	2.9%	1	1.3%
코코아가공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잼류										
설탕	1	2.5%	0	0.0%	0	0.0%	0	0.0%	1	1.3%
포도당/과당	0	0.0%	0	0.0%	0	0.0%	0	0.0%	0	0.0%
꿀	0	0.0%	0	0.0%	0	0.0%	0	0.0%	0	0.0%
엿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빙과류										
우유류	0	0.0%	0	0.0%	0	0.0%	1	2.9%	1	1.3%
발효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유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즈·버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햄 및 소시지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치킨류										
기타육류가공품	1	2.5%	0	0.0%	0	0.0%	1	2.9%	2	2.6%
알가공품										
어묵제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두부류 또는 묵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유지류	0	0.0%	0	0.0%	0	0.0%	1	2.9%	1	1.3%
라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면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생면류										
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커피	0	0.0%	0	0.0%	0	0.0%	0	0.0%	0	0.0%
탄산음료류	0	0.0%	1	100.0%	0	0.0%	0	0.0%	1	1.3%
과채음료류	1	2.5%	0	0.0%	0	0.0%	1	2.9%	2	2.6%
생수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수용도식품(환자식)	3	7.5%	0	0.0%	0	0.0%	0	0.0%	3	3.9%
이유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장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소스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미료	0	0.0%	0	0.0%	0	0.0%	0	0.0%	0	0.0%
복합조미식품										
드레싱류										
김치류	0	0.0%	0	0.0%	0	0.0%	1	2.9%	1	1.3%
젓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식품	0	0.0%	0	0.0%	0	0.0%	0	0.0%	0	0.0%
절임배추	0	0.0%	0	0.0%	0	0.0%	0	0.0%	0	0.0%
조림식품	1	2.5%	0	0.0%	0	0.0%	0	0.0%	1	1.3%
소주	0	0.0%	0	0.0%	0	0.0%	0	0.0%	0	0.0%
맥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포도주	0	0.0%	0	0.0%	0	0.0%	0	0.0%	0	0.0%
탁약주(막걸리)										
기타주류(양주, 청주 등)										
건포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강기능식품	19	47.5%	0	0.0%	1	100.0%	3	8.8%	23	30.3%
기타(건강식품)	5	12.5%	0	0.0%	0	0.0%	3	8.8%	8	10.5%

즉석식품	2	5.0%	0	0.0%	0	0.0%	2	5.9%	4	5.3%
쇠고기	0	0.0%	0	0.0%	0	0.0%	1	2.9%	1	1.3%
돼지고기	0	0.0%	0	0.0%	0	0.0%	2	5.9%	2	2.6%
닭고기	0	0.0%	0	0.0%	0	0.0%	1	2.9%	1	1.3%
오리고기										
기타육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알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곡류	0	0.0%	0	0.0%	0	0.0%	1	2.9%	1	1.3%
채소류	0	0.0%	0	0.0%	0	0.0%	1	2.9%	1	1.3%
과일류	2	5.0%	0	0.0%	0	0.0%	6	17.6%	8	10.5%
생선류	1	2.5%	0	0.0%	0	0.0%	1	2.9%	2	2.6%
어패류	2	5.0%	0	0.0%	0	0.0%	5	14.7%	7	9.2%
해조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0	0.0%	0	0.0%
나물류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건과류	0	0.0%	0	0.0%	0	0.0%	0	0.0%	0	0.0%
고추가루	0	0.0%	0	0.0%	0	0.0%	0	0.0%	0	0.0%
한식	0	0.0%	0	0.0%	0	0.0%	1	2.9%	1	1.3%
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일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분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노점상										
패스트푸드점	0	0.0%	0	0.0%	0	0.0%	0	0.0%	0	0.0%
뷔페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식품류	0	0.0%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중복응답)	40	100.0%	1	100.0%	1	100.0%	34	100.0%	76	100.0%

○ 2017년 식품 표시광고·규격 상담 사례

(1월)

- 절홍삼제품(천호식품, 원료관련 언론보도), 아임홈쇼핑 꽃게(중량미달), 천마제품(과대광고), 백수오(성분), 아임홈쇼핑(곰탕, 프림 갈음/갈비탕, 화면과 상이함), 돈가스제조업자(맛없고 냄새난다고 함, 보상기준문의), 금산인삼협동조합(탄냄새), 청일힐링바이오, 이지컷다이어트(효과없음, 과장광고), 푸른친구들 변비 건강식품(효능없음), 꽃감,굴(사진 등 진열제품과 다름), 서강생활건강 디톡스(혈전), 홈앤쇼핑 아로니아가루(양이 적음), 초록마을 곰탕(무항생제 유기농 판매했으나 아님이 밝혀짐. 2015년 4월 이후 제조된 곰탕만 환불 된다고 하는데 2013년 제품 관련문의), 쇼핑엔티 양념갈비(방송과 다르게 1/2 중량)

(2월~3월)

- 닭고기 : 위메프 100%국내산 1+1+1 생 닭가슴살(생닭으로 오인구매, 냉동제품임, 시정요구)
- 건강기능식품 : 보령프라징크(효과없음), 뉴크리코어 제품 상담 다수, 한국파디rnd 다이어트제품(효과 미흡), 카카오닙스(품질미달), 고려은단 비타민C(이산화질소 발암물질 함량)
- 기타(건강식품) : 삼성식품개발 다이어트식품(감량에 대한 과대광고), NS홈쇼핑 폴리코사놀(방송에서는 설명이 없었으나, 수령후 제품설명서에 콜레스테롤 저하시키는 약과 동시복용 주의하라고 되어 있음), 닥터웰빙 해독주스(서울대 제조 아님)
- 특수용도식품 : 다이어트식품 다수

(4월~5월)

- 기타(건강식품) : 위메프, 티몬 바른약초 마리골드분말(홈페이지는 캐나다산, 제품에는 인도산표시), 다이어트식품 다수(현영다이어트, 닥터스에스, 연세대 생활건강, 쌍떼꾸르, 공약디제이)

퍼 등), 신문 광고 자연내림 호관원(간 기능악화, 호전되지 않음) 등

- 곡류 : 홈앤쇼핑 곤약미(다이어트 위해구입, 포장지에 칼로리 및 영양표시 없음. 중량만 있음, 영양정보부족하여 표기기준 문의함) → 기타가공식품

(6월~7월)

- 건강기능식품 : 닥터스메디라인, 쌍떼코르, 디제로킹(감량효과 전혀없음), 종근당건강 콜라겐제품 천수애(효과없음)
- 기타(건강식품) : 헬름바우(특허청에서 확인하니 특허받지 않음, 효과없음, 복부팽만감), 라이포블랙스 호주상어연골칼슘(과대광고), 로커머스 오메가3(첨가물표시, 천연/합성표기없어 표시사항 문의)
- 기타육류가공품 : 위메프 하림치킨너겟(2.1KG표시되어 있으나 1KG임), 공영홈쇼핑 뚝배기불고기(내용물 부실)

(8월~9월)

- 즉석식품 : 편의점 즉석밥(포장지에 햅쌀이라는 표현, 올해 생산된 쌀이 아닌데 광고위반문의) 등
- 특수용도식품(환자식 등) : 다이어트식품 다수,
- 건강기능식품 : 홈앤쇼핑 폴리코사놀(방송에서는 1일1알, 설명서에는 1~4알 복용) 다단계 유니시티코리아(목에 혹을 제거한다고 설명하여 판매), 천후홍삼정(저가제품을 4~5배 가격으로 판매) 등
- 기타(건강식품) : 에이마트 비타민나무가루(추출물 변경되었다는데 허위광고문의), 대웅제약박사개발 간치료제품(효과없음), 다이어트식품 상담 다수(대한비만연구소, 칼로커트, 삼성수면다이어트, 두빼빼 등)

(10월)

- 건강기능식품 : 칼로커트 다이어트(2일째부터 설사 심함), 에이스제약회사 성기능개선제품(과대광고), 전화권유판매 맨파워(과대광고), 디톡스 제품(효과없음, 과대광고) 등
- 기타(건강식품) : 광동제약 키성장제품(과장광고논란), JK쇼핑 연골파워, 관절파워(판매수량 불이행), 옥션 아로니아(당일 수확제품이라고 했으나 너무 말라있음), 영농농가협회 홍보관 방문판매 구입 구찌뽕(효과없음) 등

나. 의약품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

○ 소비자단체에서 1372 통합소비자 상담망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례를 1372 의약품 분류표에 의해 전국의 소비자 불만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상담접수내용을 토대로 품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음

<의약품 소비자 불만사례 수집 분석 항목>

<표> 의약품 소비자불만사례 조사표 1

항목	분류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 경기 - 강원 - 경남 - 경북 - 전남 - 전북 - 충남 - 충북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 부산 - 울산 - 제주 - 세종 - 해외
구입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 약국 - 편의점 - 소형매장 - 시장 - 백화점 - 한의원 - 방문판매 - 슈퍼마켓

<표> 의약품 소비자 불만사례 조사표 2

항목	분류
상담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 - 반품 - 환불 - 기타 - 해지 - 치료비요구 - 손해배상청구 - 사과요구 - 부당행위 시정 - 정보요청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 - 반품 - 환불 - 해지 - 치료비배상 - 손해배상청구 - 사과요구 - 부당행위시정 - 상담·정보제공

<표> 의약품 소비자 불만사례 조사표 3

항목	분류
불만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작용 - 유효기간 - 이물질 - 변질 - 포장불량 - 표시,광고 - 가격,요금 등 - 용량,개수미달 - 배송문제 - 성분검사 및 문의 - 효과미흡 - 품질의심 - 품질불량 - 정보요청 - 기타

<표> 의약품 소비자 불만사례 조사표 4

분류	항목	
부작용 (세부증상)	가려움증	
	가슴통증	답답함, 두근거림, 심장질환 등
	간 질환	간기능저하, 간수치상승, 부종
	관절질환	허리통증 등
	구토	메스꺼움
	귀질환	귀가 웅웅거림 등
	기운없음	
	뇌경색진단	
	눈질환	눈충혈, 눈통증 등
	두통	
	두피손상	탈모, 두피염증 등
	마비증세	
	변비	
	복통	배탈, 설사 등
	부종/부기	
	불면증	
	쓰러짐	
	알레르기	비염
	어지러움	
	위장질환	위염, 위궤양, 속쓰림, 소화불량 등
	저림증세	
	체중감소/체중증가	
	치아손상, 잇몸질환 등	입부르름
	피부질환	기미, 반점, 발진, 두드러기, 물집, 뽀루지 등
	혈압관련 증세	고혈압, 저혈압 등
	호흡기관관련	기침, 목따가움, 호흡곤란, 폐렴, 폐암, 천식 등
	화상증상	화끈거림 등
	기타이상증세	

<표> 의약품 상담물품별 조사표 5

분류	항목
상담물품 (의약품)	관절질환치료제
	구충제
	구토제(진토제)
	금연보조제
	기미치료제
	기침약, 가래약(진해거담제)
	당뇨약
	동물용약품
	두통약
	무좀약
	발기부전치료제
	백신
	변비약 (하제)
	비염약(비염용 경구제, 비염용 분무제)
	비타민제
	빈혈약
	살충제
	생리식염수
	소화제
	손빨기방지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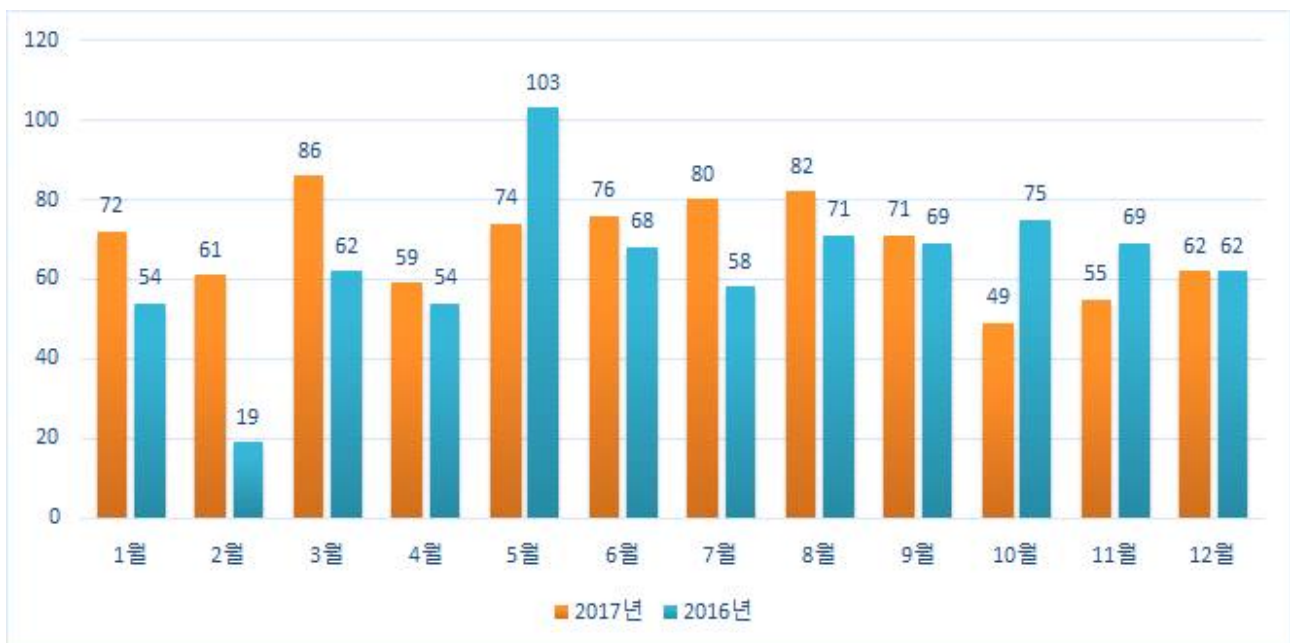
	수면유도제
	숙취해소제
	식욕억제제
	신경치료제
	아스피린
	안과용약(안약 등)
	여드름치료제
	여성세정제(여성청결제)
	영양제
	외용진양제(가려움증멏게하는약)
	외용치질용약
	위장약
	의치접착크림
	전립선치료제
	정장제,지사제(설사약)
	중이염약
	중풍약
	진통제(통증완화, 외용진통제 등)
	치과구강용약(구내염, 잇몸약, 치주질환치료 등)
	치매약
	태반약
	통풍치료제
	피부병약
	피임약
	필러
	한약(한약재,생약 등)
	항결핵제
	해열제
	혈액순환개선제
	혈액응고제, 용해제
	호르몬제
	혈압약
	멀미약
	감기약
	성기능개선제
	다이어트약(처방받은 경우만)
	심장약
	항암치료제
	간장약
	신장질환치료제
	항생제
상담물품 (의약외품)	염모제(머리염색제 등) - '18년부터 의약품 품목에서 제외
	치약제(치약 등)
	욕용제(목욕보조제) - '18년부터 의약품 품목에서 제외
	파스
	자양강장변질제
	제모제 - '18년부터 의약품 품목에서 제외
	건위소화보조제
	연고
	콘택트렌즈세정액
	모기기피제
	소독살균제(소독약, 소독살균기, 소독살균서비스)
	액취방지제(데오드란트)
	반창고,거즈

-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약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상담건수는 827건임.

[표] 의약품 월별 상담 건수(2017)

구분	사례수	비율(%)	전월대비	전년대비
1월	72	8.7	10	18
2월	61	7.4	-11	42
3월	86	10.4	25	24
4월	59	7.1	-27	5
5월	74	8.9	15	-29
6월	76	9.2	2	8
7월	80	9.7	4	22
8월	82	9.9	2	11
9월	71	8.6	-11	2
10월	49	5.9	-22	-26
11월	55	6.7	6	-14
12월	62	7.5	7	0
합계	827	100.0		63

[그림] 의약품 월별 상담 건수(2017)



○ 1월~12월 불만사례를 의약품 품목별 분류 현황별로 살펴보면 한약 관련 상담이 185건(2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타민제 130건(15.7%) > 영양제 44건(5.3%) > 연고 37건(4.5%) > 파스 25건(3.0%) > 동물용약품 18건(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월별 상담건수 (중복응답)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합계	비율(%)
관절질환치료제	1	1	0	0	2	0	0	0	2	1	0	1	8	1.0
금연보조제	0	1	0	0	0	0	0	6	0	1	0	0	8	1.0
기침약(가래약(진해거담제))	0	0	1	0	0	0	2	0	0	0	0	0	3	0.4
당뇨약	0	0	0	0	0	0	0	0	0	1	3	1	5	0.6
동물용약품	2	0	3	1	7	0	0	2	2	1	0	0	18	2.2
두통약	0	0	0	0	0	0	0	0	0	1	0	1	2	0.2
무좀약	1	0	0	1	0	2	1	1	0	1	0	0	7	0.8
발기부전치료제	0	1	0	0	0	0	0	0	0	0	1	0	2	0.2
백신	0	0	1	0	0	0	0	0	0	0	0	0	1	0.1
변비약(하제), 관장약	1	0	0	0	3	2	1	1	1	0	1	1	11	1.3
비염약(비염용경구제, 비염용분무제)	0	0	1	1	1	0	0	0	0	0	0	0	3	0.4
비타민제	12	7	32	11	18	4	11	4	7	6	7	11	130	15.7
빈혈약	1	0	0	0	0	0	0	0	0	0	0	0	1	0.1
살충제	0	0	0	0	1	0	1	3	1	1	1	0	8	1.0
생리식염수	0	0	0	0	0	0	0	0	1	0	0	1	2	0.2
소화제	0	0	2	2	0	0	1	1	1	0	0	0	7	0.8
수면유도제	0	0	1	0	0	0	0	1	0	0	0	0	2	0.2
숙취해소제	0	0	0	0	0	0	0	1	0	0	0	0	1	0.1
신경치료제	0	0	0	1	0	0	1	0	0	0	0	0	2	0.2
아스피린	0	1	0	0	0	1	2	0	0	0	0	0	4	0.5
안과용약(안약 등)	0	4	1	2	3	0	0	3	2	0	0	1	16	1.9
여드름치료제	0	0	0	0	0	0	0	0	0	0	0	1	1	0.1
여성세정제(여성청결제)	0	0	0	0	0	0	0	2	0	0	0	0	2	0.2
영양제	5	2	3	4	4	2	1	2	1	7	4	9	44	5.3
외용진양제(가려움증 멎게하는약)	0	0	0	0	0	0	1	0	0	0	0	0	1	0.1
위장약	0	1	0	0	0	0	0	0	0	0	1	0	2	0.2
이명치료제	1	0	0	0	0	0	0	0	0	0	0	0	1	0.1
의치접착크림	0	0	0	0	0	0	0	1	0	0	0	0	1	0.1
전립선치료제	0	0	1	0	0	0	1	1	0	0	0	0	3	0.4
정장제(지사제(설사약))	1	0	0	0	0	0	1	0	0	0	0	0	2	0.2
진통제 (통증완화, 외용진통제 등)	0	0	1	1	0	0	0	1	0	0	0	0	3	0.4
치과구강용약 (구내염 잇몸약, 치주질환치료 등)	0	0	1	0	0	1	1	0	0	0	1	1	5	0.6
눈세정제	0	0	0	0	1	0	0	0	0	0	0	0	1	0.1
피부병약	0	2	1	1	0	3	1	1	1	0	1	1	12	1.5
피임약	0	0	2	0	0	1	0	0	0	0	1	0	4	0.5
한약(한약재, 생약 등)	18	14	13	14	16	17	18	18	24	16	8	9	185	22.4
해열제	1	0	0	0	0	0	0	0	0	0	0	0	1	0.1

혈액순환개선제	0	0	1	1	0	1	0	0	1	0	0	0	4	0.5
혈액응고제, 혈전용해제	0	0	0	0	0	1	0	0	0	0	0	0	1	0.1
호르몬제	0	0	0	0	1	0	0	1	2	1	0	1	6	0.7
염모제 (머리염색약 등)	0	0	0	0	0	1	0	0	0	0	0	0	1	0.1
치약제 (치약 등)	0	0	0	0	0	1	0	0	0	0	0	0	1	0.1
파스	1	3	0	1	0	3	6	5	2	1	1	2	25	3.0
자양강장변질제, 우황청심환	0	0	0	2	0	2	1	0	0	0	1	2	8	1.0
제모제	0	0	0	0	1	0	0	2	0	0	0	0	3	0.4
건위소화보조제	0	0	0	0	0	1	0	0	0	0	0	0	1	0.1
연고	4	4	6	4	1	0	3	6	4	3	2	0	37	4.5
콘택트렌즈세정액	0	0	0	0	0	0	0	0	1	0	0	0	1	0.1
모기기피제	0	0	0	0	0	0	2	1	2	0	1	0	6	0.7
소독살균제(소독약, 소독살균기, 소독살균서비스)	1	0	0	0	2	6	1	4	1	1	2	2	20	2.4
액취방지제(데오드란트)	0	0	0	0	0	0	1	0	0	0	0	0	1	0.1
반창고, 거즈	0	0	0	0	2	1	2	0	0	0	0	3	8	1.0
기타약품	0	1	2	0	1	3	4	1	1	0	0	0	13	1.6
혈압약	1	0	0	2	0	0	1	0	0	0	1	3	8	1.0
감기약	1	2	0	3	0	2	1	0	2	0	3	2	16	1.9
성기능개선제	0	0	0	0	1	3	0	0	3	0	1	0	8	1.0
다이어트약	0	1	0	0	0	0	0	0	0	2	0	0	3	0.4
심장약	0	0	0	0	0	1	0	0	0	0	0	0	1	0.1
항암치료제	0	0	0	0	0	0	0	0	1	0	0	0	1	0.1
간장약	2	1	1	0	0	0	0	0	0	0	0	0	4	0.5
탈모치료약	0	0	0	0	0	0	1	0	0	0	0	0	1	0.1
신장질환치료제	0	0	0	0	0	0	0	1	0	0	0	0	1	0.1
항생제	0	0	0	0	0	0	0	0	0	1	0	0	1	0.1
알수없음	18	15	12	7	9	17	13	12	8	4	14	9	138	16.7
합계	72	61	86	59	74	76	80	82	71	49	55	62	827	100.0
*기타약품 : 보톡스, 온열팩, 이명치료제, 염화알루미늄, 프로폴리스, 화학약품, 가성소다 등														

- 1~12월 동안 의약품 소비자불만사례를 장소별로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169건(20.4%) > 약국 163건(19.7%) > 한의원 84건(10.2%) > 병원 63건(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장소별 상담건수(중복응답)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합계	비율(%)
병원	7	8	8	4	6	2	5	8	7	3	3	2	63	7.6
약국	10	10	12	16	13	19	21	17	12	7	15	11	163	19.7
편의점	0	0	0	1	0	1	1	0	0	0	0	0	3	0.4
소형매장	5	4	2	1	4	5	3	3	5	5	0	0	37	4.5
시장	1	0	0	0	0	0	1	0	0	0	0	0	2	0.2
백화점	0	0	1	0	0	0	0	0	0	0	0	0	1	0.1
한의원	4	5	5	6	7	9	10	10	12	5	5	6	84	10.2
방문판매	4	1	1	4	4	4	1	0	0	0	5	0	24	2.9
슈퍼마켓	0	1	0	2	0	0	0	0	0	0	0	0	3	0.4
해외	3	0	2	0	1	0	1	3	1	1	0	0	12	1.5
다단계판매	2	0	0	0	2	3	0	0	0	0	0	0	7	0.8
전화·통신판매	3	2	6	0	2	0	1	3	2	4	2	0	25	3.0
TV홈쇼핑	1	0	1	1	0	2	2	0	1	2	1	1	12	1.5
전자상거래	17	14	15	8	23	15	11	17	12	9	9	19	169	20.4
무점포	2	3	3	2	1	3	2	0	2	0	3	4	25	3.0
대형마트	1	0	1	0	1	0	1	0	1	0	1	1	7	0.8
드러그스토어	0	0	1	0	0	0	1	0	0	0	0	0	2	0.2
알수없음	12	13	28	14	10	13	19	21	16	13	11	18	188	22.7
총합계	72	61	86	59	74	76	80	82	71	49	55	62	827	100.0

[표] 의약품 품목별-장소별 상담건수(중복응답)

	병원	약국	편의점	소형매장	시장	백화점	한의원	방문판매	슈퍼마켓	해외	다단계판매	전화·통신판매	TV홈쇼핑	전자상거래	무점포	대형마트	드러그스토어	알수없음	총합계
관절질환치료제	2									1		2	1	2				2	8
금연보조제														6				2	8
기침약,가래약(진해거담제)		1																2	3
당뇨약		2												1				2	5
동물용약품	7	3		2										3				3	18
두통약	1			1															2
무좀약		3																4	7
발기부전치료제														1				1	2
백신	1																		1
변비약(하제), 관장약		4										1		1	1			4	11
비염약(비염용 경구제, 비염용 분무제)	1	1												1					3
비타민제		14		2				1		1	2	1	4	77	3	3	1	21	13
빈혈약		1																	1

	병원	약국	편의점	소형매장	시장	백화점	한의원	방문판매	슈퍼마켓	해외	다단계판매	전화통신판매	TV홈쇼핑	전자상거래	무점포	대형마트	드러그스토어	알수없음	총합계
살충제		1											1	2	1	1		2	8
생리식염수																		2	2
소화제		5												1				1	7
수면유도제														2					2
숙취해소제		1																	1
신경치료제	2																		2
아스피린		3																1	4
안과용약(안약 등)	6	3							2						1			4	16
여드름치료제		1																	1
여성세정제(여성청결제)														1				1	2
영양제		13						1			3		2	15	3			7	44
외용진양제(가려움증멧게하는 약)		1																	1
위장약	1																	1	2
이명치료제	1																		1
의치접착크림														1					1
전립선치료제	1	1																1	3
정장제,지사제(설사약)		2																	2
진통제 (통증완화, 외용진통제 등)		1										1						1	3
치과구강용약 (구내염, 잇몸약, 치주질환치료 등)		3																2	5
눈세정제		1																	1
피부병약	3	3										1		2				3	12
피임약	1	2																1	4
한약(한약재, 생약 등)	4			28	1		82	3		3		5	2	6	7			44	185
해열제																1			1
혈액순환개선제		2						2											4
혈액응고제, 혈전용해제								1											1
호르몬제		3						1						1				1	6
염모제 (머리염색약 등)													1						1
치약제 (치약 등)														1					1
파스	1	8	1											4	1			1	25
자양강장변질제, 우황청심환		3	2				1							1		1			8
제모제														2				1	3
건위소화보조제																		1	1

	병원	약국	편의점	소형매장	시장	백화점	한의원	방문판매	슈퍼마켓	해외	다단계판매	전화통신판매	TV홈쇼핑	전자상거래	무점포	대형마트	드러그스토어	알수없음	총합계
연고	6	12		2			1					5	1	5	1			4	37
콘택트렌즈세정액				1															1
모기기피제														1		1		4	6
소독살균제(소독약, 소독살균기, 소독살균서비스)		1						4						4	1			1	2
액취방지제(데오드란트)		1																	1
반창고,거즈		3												2			1	2	8
기타약품	1	2		1					1					6				2	13
혈압약	4	2																2	8
감기약	1	12																3	16
성기능개선제		1												4				3	8
다이어트약	2																	1	3
심장약		1																	1
항암치료제		1																	1
간장약		1						2		1									4
탈모치료약		1																	1
신장질환치료제	1																		1
항생제	1																		1
알수없음	15	39			1	1		9		6	2	9		16	6			34	138
총합계	63	163	3	37	2	1	84	24	3	12	7	25	12	169	25	7	2	188	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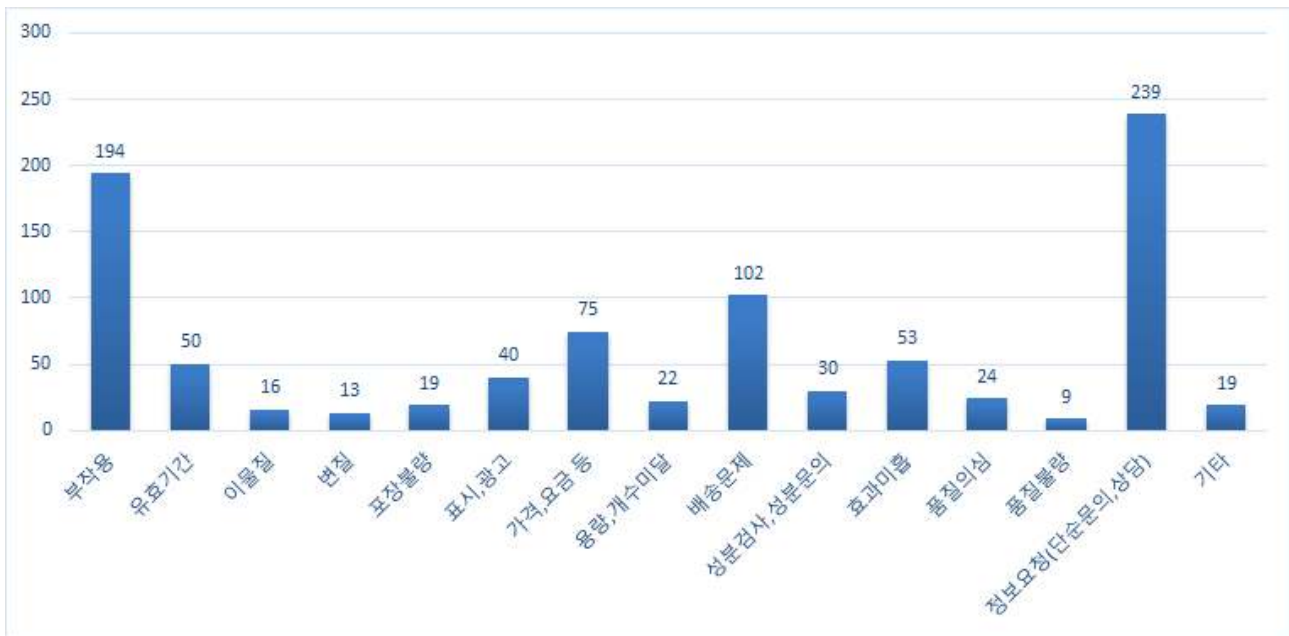
- 의약품 1~12월 품목별-불만사례를 살펴보면 정보요청(단순문의,상담) 239건(26.4%) > 부작용 194건(21.4%) > 배송문제 102건(11.3%) > 가격, 요금 등 75건(8.3%) > 효과미흡 53건(5.9%) > 유효기간 50건(5.5%) > 표시,광고 40건(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불만사례(1~12월) (중복응답)

	부작용	유효기간	이물질	변질	포장불량	표시광고	가격요금 등	용량, 개수 미달	배송문제	성분검사, 성분문의	효과미흡	품질의심	품질불량	정보요청 (단순문의, 상담)	기타	총합계
관절질환치료제	1	0	0	0	0	0	1	1	2	0	1	0	0	3	0	9
금연보조제	4	0	0	0	0	2	0	0	0	0	1	0	0	2	0	9
기침약,가래약(진해거담제)	0	0	0	0	0	0	2	0	0	0	0	0	0	1	0	3
당뇨약	1	0	0	0	0	0	1	1	2	0	0	1	0	1	0	7
동물용약품	0	2	0	0	0	0	3	0	0	0	0	0	0	11	2	18
두통약	0	1	0	0	0	0	0	0	0	0	1	0	0	0	0	2
무좀약	1	0	0	0	0	0	1	2	0	0	3	0	0	0	0	7
발기부전치료제	0	0	0	0	0	0	0	0	1	0	0	0	0	1	0	2
백신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변비약(하제), 관장약	1	2	0	0	0	0	2	1	1	0	1	0	0	4	0	12
비염약(비염용경구제, 비염용분무제)	0	1	0	0	0	0	0	0	0	0	0	0	0	2	0	3
비타민제	12	9	2	2	2	19	6	6	50	5	0	4	0	26	1	144
빈혈약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2
살충제	0	0	0	0	0	0	1	0	1	0	3	0	0	2	1	8
생리식염수	2	0	1	0	0	0	0	0	0	0	0	0	0	0	0	3
소화제	0	1	0	0	0	0	5	0	1	0	0	0	0	0	0	7
수면유도제	0	0	0	0	0	0	0	0	1	0	0	0	0	1	0	2
숙취해소제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2
신경치료제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2
아스피린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4
안과용약(안약 등)	2	3	1	3	1	0	1	0	0	2	0	0	1	3	2	19
여드름치료제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여성세정제(여성청결제)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2
영양제	10	7	0	0	0	2	2	0	9	1	0	3	1	14	3	52
외용진양제(가려움증멎게하는약)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위장약	2	0	0	0	0	0	0	0	0	0	0	1	0	0	0	3
이명치료제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의치접착크림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전립선치료제	2	0	0	0	0	0	0	1	0	0	0	0	0	0	0	3
정장제,지사제(설사약)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	2
진통제 (통증완화, 외용진통제 등)	2	0	0	0	0	0	0	0	0	0	1	0	0	0	0	3
치과구강용약 (구내염, 잇몸약)	1	1	0	0	0	0	2	0	0	0	0	1	0	0	0	5

	부작용	유효기간	이물질	변질	포장불량	표시광고	가격요금등	용량, 개수 미달	배송문제	성분 검사, 성분 문의	효과 미흡	품질 의심	품질 불량	정보 요청 (단순문의 상담)	기타	총합계
치주질환치료 등)																
눈세정제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피부병약	3	1	0	0	1	3	3	1	0	0	2	0	0	1	0	15
피임약	1	0	0	0	1	0	0	0	0	0	0	0	0	3	0	5
한약(한약재, 생약 등)	67	4	1	2	3	4	12	2	9	12	23	7	2	52	0	200
해열제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혈액순환개선제	1	0	0	0	0	0	1	0	0	0	0	0	0	2	0	4
혈액응고제, 혈전 용해제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호르몬제	2	0	0	0	0	0	1	0	1	0	0	0	0	2	0	6
염모제 (머리염색약 등)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치약제 (치약 등)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파스	15	0	0	0	0	1	1	1	3	0	3	0	0	2	0	26
자양강장변질제, 우황청심환	2	1	0	0	0	0	2	0	1	0	0	0	0	2	0	8
제모제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건위소화보조제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
연고	8	2	2	0	4	2	0	4	1	1	4	0	0	12	3	43
콘택트렌즈세정액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모기기피제	3	0	0	0	0	0	2	0	1	0	0	0	0	0	0	6
소독살균제(소독약, 소독살균기, 소독살균서비스)	0	0	0	0	1	0	2	0	3	1	3	0	2	10	0	22
액취방지제(데오드란트)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반창고, 거즈	3	1	1	0	1	0	0	0	0	0	0	1	0	1	0	8
기타약품	2	1	0	1	0	0	0	0	2	0	0	1	0	6	0	13
혈압약	3	1	0	0	0	0	0	1	0	1	1	0	0	2	0	9
감기약	7	1	3	0	1	1	2	1	0	1	0	1	1	2	1	22
성기능개선제	1	0	1	0	0	2	1	0	1	0	1	0	0	1	0	8
다이어트약	2	0	0	0	0	0	1	0	0	0	0	0	0	0	0	3
심장약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2
항암치료제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간장약	2	0	1	0	0	0	1	0	0	0	0	0	0	0	0	4
탈모치료약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신장질환치료제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항생제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알수없음	19	6	1	3	2	4	16	0	11	6	4	3	2	63	6	146
총합계	194	50	16	13	19	40	75	22	102	30	53	24	9	239	19	905
총비율(%)	21.4	5.5	1.8	1.4	2.1	4.4	8.3	2.4	11.3	3.3	5.9	2.7	1.0	26.4	2.1	100.0

[그림] 의약품 품목별-불만사례(1~12월) (중복응답)



- 1~12월 동안 의약품관련 상담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총 827건 중 상담·정보제공이 751건(9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불 41건(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월별 상담 처리결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비율(%)
교환	0	1	0	1	1	0	2	0	0	1	0	1	7	0.8
환불	3	0	6	3	1	6	3	5	5	6	1	2	41	5.0
해지	0	0	0	1	0	2	3	1	0	0	0	1	8	1.0
치료비배상	0	0	0	0	0	0	4	0	0	0	0	0	4	0.5
손해배상청구	1	0	0	0	0	0	0	0	0	0	0	0	1	0.1
부당행위시정	4	1	0	1	1	0	1	1	0	1	1	4	15	1.8
상담정보제공	64	59	80	53	71	68	67	75	66	41	53	54	751	90.8
합계	72	61	86	59	74	76	80	82	71	49	55	62	827	100.0

(1) 의약품 1월 소비자상담 분석

○ 1월 의약품 소비자불만사례 총 72건 중 품목별 분류 현황별로 불만사례를 살펴보면, 부작용이 42건 (53.8%), 배송문제 18건(23.1%), 포장불량 4건(5.1%)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불만사례(1월)

(단위:건/복수응답)

구분	부작용	유효기간	이물질	변질	포장불량	표시, 광고	가격, 요금 등	용량, 개수미달	배송문제	성분검사, 성분문의	효과미흡	품질의심	품질불량	정보요청(단순문의, 상담)	총합계
관절질환치료제	1	0	0	0	0	0	0	0	0	0		0		0	1
동물용약품	2	0	0	0	0	0	0	0	0	0		0		0	2
무준약	1	0	0	0	0	0	0	0	0	0		0		0	1
변비약(하제), 관장약	1	0	0	0	0	0	0	0	0	0		0		0	1
비타민제	3	0	0	0	1	0	0	0	8	0		0		0	12
빈혈약	0	0	0	1	1	0	0	0	0	0		0		0	1
영양제	2	0	0	0	0	0	0	0	3	1		0		0	5
이명치료제	0	0	0	0	0	0	1	0	0	0		0		0	1
정장제,지사제(설사 약)	1	0	0	0	0	0	0	0	0	0		0		0	1
한약(한약재,생약 등)	15	0	0	0	0	0	1	0	2	0		0		1	18
해열제	0	1	0	0	0	0	0	0	0	0		0		0	1
파스	0	0	0	0	0	0	0	0	1	0		0		0	1
연고	2	0	0	0	2	0	0	0	0	0		0		0	4
소독살균제(소독약, 소독살균기, 소독살균서비스)	1	0	0	0	0	0	0	0	0	0		0		0	1
혈압약	0	0	0	0	0	0	0	1	0	0		0		0	1
감기약	0	0	1	0	0	0	0	0	0	0		0		0	1
간장약	2	0	0	0	0	0	0	0	0	0		0		0	2
알수없음	11	1	0	0	0	1	1	0	4	0		1		2	18
총합계	42	2	1	1	4	1	3	1	18	1		1		3	72
총비율(%)	53.8	2.6	1.3	1.3	5.1	1.3	3.8	1.3	23.1	1.3		1.3		3.8	100.0

- 의약품 2월 품목별-불만사례를 살펴보면, 부작용 39건(60.0%) > 배송문제 7건(10.8%) > 유효기간 5건(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불만사례(2월)

(단위:건/복수응답)

구분	부작용	유효기간	이물질	변질	포장불량	표시, 광고	가격, 요금 등	용량, 개수미달	배송문제	성분검사, 성분변화의	효과미흡	품질의심	품질불량	정보요청(단순문의, 상담)	총합계
관절질환치료제	1	0	0		0	0	0	0	0			0		0	1
금연보조제	1	0	0		0	0	0	0	0			0		0	1
발기부전치료제	0	0	0		0	0	0	0	1			0		0	1
비타민제	2	1	0		0	2	0	0	2			0		1	8
아스피린	1	0	0		0	0	0	0	0			0		0	1
안과용약(안약 등)	3	1	0		0	0	0	0	0			0		0	4
영양제	1	1	0		0	0	0	0	0			0		0	2
위장약	1	0	0		0	0	0	0	0			0		0	1
피부병약	1	0	0		1	1	0	0	0			0		0	3
한약(한약재, 생약 등)	12	0	0		1	0	1	0	1			0		0	15
파스	1	0	0		0	0	0	0	2			0		0	3
연고	2	0	0		0	0	0	2	0			0		0	4
기타약품	0	1	0		0	0	0	0	0			0		0	1
감기약	2	0	0		0	0	0	0	0			1		0	3
다이어트약	1	0	0		0	0	0	0	0			0		0	1
간장약	0	0	1		0	0	0	0	0			0		0	1
알수없음	10	1	0		1	0	2	0	1			0		0	15
총합계	39	5	1		3	3	3	2	7			1		1	65
총비율(%)	60.0	7.7	1.5	0.0	4.6	4.6	4.6	3.1	10.8	0.0	0.0	1.5	0.0	1.5	100.0

- 의약품 3월 품목별-불만사례를 살펴보면, 부작용 52건(59.1%) > 표시·광고 17건(19.3%) > 가격·요금 등 6건(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불만사례(3월)

(단위:건/복수응답)

구분	부작용	유효기간	이물질	변질	포장불량	표시·광고	가격·요금 등	용량·개수미달	배송문제	성분검사·성분변화의	효과미흡	품질의심	품질불량	정보요청당수면의, 상건	총합계
기침약,가래약(진해 거담제)	1	0		0	0	0	0	0	0	0				0	1
동물용약품	3	0		0	0	0	0	0	0	0				0	3
백신	0	1		0	0	0	0	0	0	0				0	1
비염약(비염용 경구제, 비염용 분무제)	1	0		0	0	0	0	0	0	0				0	1
비타민제	12	1		0	0	15	0	1	3	0				0	32
소화제	0	1		0	0	0	1	0	0	0				0	2
수면유도제	1	0		0	0	0	0	0	0	0				0	1
안과용약(안약 등)	0	0		0	1	0	0	0	0	0				0	1
영양제	2	0		0	0	1	0	0	0	0				0	3
전립선치료제	1	0		0	0	0	0	0	0	0				0	1
진통제 (통증완화, 외용진통제 등)	1	0		0	0	0	0	0	0	0				0	1
치과구강용약 (구내염, 잇몸약, 치주질환치료 등)	0	0		0	0	0	1	0	0	0				0	1
피부병약	0	0		0	0	0	1	0	0	0				0	1
피임약	2	0		0	0	0	0	0	0	0				0	2
한약(한약재,생약 등)	12	0		0	0	0	1	0	0	1				1	15
혈액순환개선제	1	0		0	0	0	0	0	0	0				0	1
연고	5	0		0	0	0	0	1	0	0				0	6
기타약품	2	0		0	0	0	0	0	0	0				0	2
간장약	0	0		0	0	0	1	0	0	0				0	1
알수없음	8	1		1	0	1	1	0	0	0				0	12
총합계	52	4		1	1	17	6	2	3	1				1	88
총비율(%)	59.1	4.5	0.0	1.1	1.1	19.3	6.8	2.3	3.4	1.1	0.0	0.0	0.0	1.1	100.0

- 의약품 4월 품목별-불만사례를 살펴보면 부작용 30건(39.5%) > 배송문제 10건(13.2%) > 정보요청 (단순상담문의) 8건(10.5%) > 유효기간 7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불만사례(4월)

(단위:건/복수응답)

구분	부작용	유효기간	이물질	변질	포장불량	표시, 광고	가격, 요금 등	용량, 개수미달	배송문제	성분검사, 성분변화의	효과미흡	품질의심	품질불량	정보요청(단순상담문의, 상건)	총합계
동물용약품	0	1	0	0	0	0	0		0	0	0		0	0	1
무좀약	0	0	0	0	0	0	1		0	0	0		0	0	1
비염약(비염용 경구제, 비염용 분무제)	1	0	0	0	0	0	0		0	0	0		0	0	1
비타민제	2	1	0	0	1	0	0		7	1	0		0	4	16
소화제	0	0	0	0	0	0	2		0	0	0		0	0	2
신경치료제	1	0	0	0	0	0	0		0	0	0		0	0	1
안과용약(안약 등)	0	0	0	2	0	0	0		0	2	0		0	0	4
영양제	2	0	0	0	0	1	0		1	0	0		0	3	7
진통제 (통증완화, 외용진통제 등)	1	0	0	0	0	0	0		0	0	0		0	0	1
피부병약	0	0	0	0	0	1	0		0	0	1		0	0	2
한약(한약재,생약 등)	9	1	0	0	0	2	1		2	0	0		0	0	15
혈액순환개선제	1	0	0	0	0	0	0		0	0	0		0	0	1
파스	1	0	0	0	0	1	0		0	0	0		0	0	2
자양강장변질제, 우황청심환	0	1	0	0	0	0	1		0	0	0		0	0	2
연고	4	1	0	0	0	0	0		0	0	0		0	1	6
혈압약	2	0	0	0	0	0	0		0	0	1		0	0	3
감기약	1	0	1	0	0	0	1		0	0	0		1	0	4
알수없음	5	2	0	0	0	0	0		0	0	0		0	0	7
총합계	30	7	1	2	1	5	6		10	3	2		1	8	76
총비율(%)	39.5	9.2	1.3	2.6	1.3	6.6	7.9	0.0	13.2	3.9	2.6	0.0	1.3	10.5	100.0

- 의약품 5월 품목별-불만사례를 살펴보면 부작용 45건(57.0%) > 배송문제 15건(19.0%) > 이물질 5건(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불만사례(5월)

(단위:건/복수응답)

구분	부작용	유효기간	이물질	변질	포장불량	표시, 광고	가격, 요금 등	용량, 개수미달	배송문제	성분검사, 성분불량의	효과미흡	품질의심	품질불량	정보요청(단순문의의, 상담)	총합계
관절질환치료제	1	0	0	0		0	0	1	1	0					3
동물용약품	7	0	0	0		0	0	0	0	0					7
변비약(하제), 관장약	0	1	0	0		0	1	1	1	0					4
비염약(비염용 경구제, 비염용 분무제)	0	1	0	0		0	0	0	0	0					1
비타민제	4	0	2	1		1	2	0	9	0					19
살충제	1	0	0	0		0	0	0	0	0					1
안과용약(안약 등)	2	1	1	0		0	0	0	0	0					4
영양제	3	0	0	0		0	0	0	1	0					4
눈세정제	0	0	1	0		0	0	0	0	0					1
한약(한약재, 생약 등)	13	0	0	0		0	0	1	2	1					17
호르몬제	0	0	0	0		0	1	0	0	0					1
제모제	0	1	0	0		0	0	0	0	0					1
연고	1	0	0	0		0	0	0	0	0					1
소독살균제(소독약, 소독살균기, 소독살균서비스)	1	0	0	0		0	0	0	1	0					2
반창고, 거즈	2	0	0	0		0	0	0	0	0					2
기타약품	1	0	0	0		0	0	0	0	0					1
성기능개선제	1	0	0	0		0	0	0	0	0					1
알수없음	8	0	1	0		0	0	0	0	0					9
총합계	45	4	5	1		1	4	3	15	1					79
총비율(%)	57.0	5.1	6.3	1.3	0.0	1.3	5.1	3.8	19.0	1.3	0.0	0.0	0.0	0.0	100.0

○ 의약품 6월 품목별-불만사례를 살펴보면 부작용 46건(52.3%) > 가격·요금 등 10건(11.4%) > 정보요청(단순상담문의) 6건(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불만사례(6월)

(단위:건/복수응답)

구분	부작용	유효기간	이물질	변질	포장불량	표시, 광고	가격, 요금 등	용량, 개수미달	배송문제	성분검사, 성분불량	효과미흡	품질의심	품질불량	정보요청(단순상담문의, 상담)	총합계
무좀약	1	0	0	0	0	0	0	1	0	0	0	0		0	2
변비약(하제), 관장약	1	1	0	0	0	0	0	0	0	0	0	0		0	2
비타민제	1	1	0	1	0	1	0	1	1	0	0	0		0	6
아스피린	1	0	0	0	0	0	0	0	0	0	0	0		0	1
영양제	0	0	0	0	0	0	1	0	1	0	0	0		0	2
치과구강용약 (구내염, 잇몸약, 치주질환치료 등)	1	0	0	0	0	0	0	0	0	0	0	0		0	1
피부병약	1	0	0	0	0	1	1	1	0	0	0	0		0	4
피임약	0	0	0	0	1	0	0	0	0	0	0	0		1	2
한약(한약재,생약 등)	14	2	0	0	0	0	1	0	0	0	1	1		0	19
혈액순환개선제	1	0	0	0	0	0	0	0	0	0	0	0		0	1
혈액응고제,혈전용 해제	1	0	0	0	0	0	0	0	0	0	0	0		0	1
염모제 (머리염색약 등)	0	0	0	0	0	0	0	0	1	0	0	0		0	1
치약제 (치약 등)	1	0	0	0	0	0	0	0	0	0	0	0		0	1
파스	3	0	0	0	0	0	0	0	0	0	0	0		0	3
자양강장변질제, 우황청심환	2	0	0	0	0	0	0	0	0	0	0	0		0	2
건위소화보조제	0	0	0	0	1	0	0	0	0	0	0	0		0	1
소독살균제(소독약, 소독살균기, 소독살균서비스)	4	0	0	0	1	0	1	0	0	0	0	0		2	8
반창고,거즈	1	0	0	0	0	0	0	0	0	0	0	0		0	1
기타약품	2	0	0	0	0	0	0	0	1	0	0	0		0	3
감기약	1	0	1	0	0	0	0	0	0	1	0	0		1	4
성기능개선제	0	0	1	0	0	1	0	0	1	0	0	0		0	3
심장약	0	0	0	0	0	0	1	0	0	0	0	0		1	2
알수없음	10	1	0	0	0	1	5	0	0	0	0	0		1	18
총합계	46	5	2	1	3	4	10	3	5	1	1	1		6	88
총비율(%)	52.3	5.7	2.3	1.1	3.4	4.5	11.4	3.4	5.7	1.1	1.1	1.1	0.0	6.8	100.0

- 의약품 7월 품목별-불만사례를 살펴보면 부작용 53건(63.9%) > 가격·요금 등 · 배송문제 9건(10.8%) > 유효기간 5건(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불만사례(7월)

(단위:건/복수응답)

구분	부작용	유효기간	이물질	변질	포장불량	표시, 광고	가격, 요금 등	용량, 개수미달	배송문제	성분검사, 성분변화의	효과미흡	품질의심	품질불량	정보요청(단소문의, 상담)	총합계
기침약,가래약(진해 거담제)	0	0	0	0	0	0	2	0	0		0				2
무좀약	1	0	0	0	0	0	0	0	0		0				1
변비약(하제), 관장약	1	0	0	0	0	0	0	0	0		0				1
비타민제	5	0	0	0	0	0	2	0	4		0				11
살충제	0	0	0	0	0	0	0	0	1		0				1
소화제	0	0	0	0	0	0	0	0	1		0				1
신경치료제	1	0	0	0	0	0	0	0	0		0				1
아스피린	2	0	0	0	0	0	0	0	0		0				2
영양제	1	1	0	0	0	0	0	0	0		0				2
외용진양제(가려움 증멏게하는약)	0	1	0	0	0	0	0	0	0		0				1
전립선치료제	1	0	0	0	0	0	0	0	0		0				1
정장제,지사제(설사 약)	1	0	0	0	0	0	0	0	0		0				1
치과구강용약 (구내염, 잇몸약, 치주질환치료 등)	1	0	0	0	0	0	0	0	0		0				1
피부병약	1	0	0	0	0	0	0	0	0		0				1
한약(한약재,생약 등)	15	0	0	0	0	0	3	0	0		1				19
파스	3	2	0	0	0	0	0	1	0		0				6
자양강장변질제, 우황청심환	1	0	0	0	0	0	0	0	0		0				1
연고	2	0	0	0	1	0	0	0	0		0				3
모기기피제	1	0	0	0	0	0	1	0	0		0				2
소독살균제(소독약, 소독살균기, 소독살균서비스)	1	0	0	0	0	0	0	0	0		0				1
액취방지제(데오드 란트)	1	0	0	0	0	0	0	0	0		0				1
반창고,거즈	0	0	1	0	1	0	0	0	0		0				2
기타약품	2	0	0	1	0	0	0	0	1		0				4
혈압약	1	0	0	0	0	0	0	0	0		0				1
감기약	0	1	0	0	0	0	0	0	0		0				1
탈모치료약	1	0	0	0	0	0	0	0	0		0				1
알수없음	10	0	0	0	0	1	1	0	2		0				14
총합계	53	5	1	1	2	1	9	1	9		1				83
총비율(%)	63.9	6.0	1.2	1.2	2.4	1.2	10.8	1.2	10.8	0.0	1.2	0.0	0.0	0.0	100.0

- 의약품 8월 품목별-불만사례를 살펴보면 부작용 52건(60.5%) > 배송문제 8건(9.3%) > 유효기간·가격·요금 등 6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불만사례(8월)

(단위:건/복수응답)

구분	부작용	유효기간	이물질	변질	포장불량	표시, 광고	가격, 요금 등	용량, 개수미달	배송문제	성분검사, 성분변화의	효과미흡	품질의심	품질불량	정보요청(단순문의, 상담)	총합계
금연보조제	4	0	0	0	0	2	0	0	0					1	7
동물용약품	0	1	0	0	0	0	1	0	0					0	2
무좀약	0	0	0	0	0	0	0	1	0					0	1
변비약(하제), 관장약	0	0	0	0	0	0	1	0	0					0	1
비타민제	2	1	0	0	0	0	0	0	1					0	4
살충제	2	0	0	0	0	0	1	0	0					0	3
소화제	0	0	0	0	0	0	1	0	0					0	1
수면유도제	0	0	0	0	0	0	0	0	1					0	1
숙취해소제	0	1	1	0	0	0	0	0	0					0	2
안과용약(안약 등)	1	1	0	1	0	0	0	0	0					0	3
여성세정제(여성청 결제)	2	0	0	0	0	0	0	0	0					0	2
영양제	2	0	0	0	0	0	0	0	0					0	2
의치접착크림	1	0	0	0	0	0	0	0	0					0	1
전립선치료제	0	0	0	0	0	0	0	1	0					0	1
진통제 (통증완화, 외용진통제 등)	1	0	0	0	0	0	0	0	0					0	1
피부병약	0	1	0	0	0	0	0	0	0					0	1
한약(한약재,생약 등)	15	0	0	0	0	1	1	0	1					1	19
호르몬제	1	0	0	0	0	0	0	0	0					0	1
파스	4	0	0	0	0	0	1	0	0					0	5
제모제	2	0	0	0	0	0	0	0	0					0	2
연고	2	1	1	0	1	1	0	0	0					1	7
모기기피제	1	0	0	0	0	0	0	0	0					0	1
소독살균제(소독약, 소독살균기, 소독살균서비스)	2	0	0	0	0	0	0	0	2					0	4
기타약품	1	0	0	0	0	0	0	0	0					0	1
신장질환치료제	0	0	0	1	0	0	0	0	0					0	1
알수없음	9	0	0	0	0	0	0	0	3					0	12
총합계	52	6	2	2	1	4	6	2	8					3	86
총비율(%)	60.5	7.0	2.3	2.3	1.2	4.7	7.0	2.3	9.3	0.0	0.0	0.0	0.0	3.5	100.0

- 의약품 9월 품목별-불만사례를 살펴보면 부작용 48건(64.0%) > 가격·요금 등 9건(12.0%) > 배송문제 8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불만사례(9월)

(단위:건/복수응답)

구분	부작용	유효기간	이물질	변질	포장불량	표시, 광고	가격, 요금 등	용량, 개수미달	배송문제	성분검사, 성분변화의	효과미흡	품질의심	품질불량	정보요청(단순문의, 상담)	총합계
관절질환치료제	2	0	0	0		0	0	0	0					0	2
동물용약품	1	0	0	0		0	1	0	0					0	2
변비약(하제), 관장약	1	0	0	0		0	0	0	0					0	1
비타민제	2	1	0	0		0	1	0	4					0	8
살충제	1	0	0	0		0	0	0	0					0	1
생리식염수	1	0	0	0		0	0	0	0					0	1
소화제	0	0	0	0		0	1	0	0					0	1
안과용약(안약 등)	1	0	0	0		0	1	0	0					0	2
영양제	0	0	0	0		0	0	0	1					0	1
피부병약	0	0	0	0		0	1	0	0					0	1
한약(한약재, 생약 등)	21	1	1	0		0	1	0	0					0	24
혈액순환개선제	0	0	0	0		0	1	0	0					0	1
호르몬제	1	0	0	0		0	0	0	1					0	2
파스	2	0	0	0		0	0	0	0					0	2
연고	4	0	0	0		0	0	0	0					3	7
콘택트렌즈세정액	0	1	0	0		0	0	0	0					0	1
모기기피제	1	0	0	0		0	0	0	1					0	2
소독살균제(소독약, 소독살균기, 소독살균서비스)	1	0	0	0		0	0	0	0					0	1
기타약품	1	0	0	0		0	0	0	0					0	1
감기약	1	0	0	0		0	0	1	0					0	2
성기능개선제	1	0	0	0		1	1	0	0					0	3
항암치료제	1	0	0	0		0	0	0	0					0	1
알수없음	5	0	0	1		0	1	0	1					0	8
총합계	48	3	1	1		1	9	1	8					3	75
총비율(%)	64.0	4.0	1.3	1.3	0.0	1.3	12.0	1.3	10.7	0.0	0.0	0.0	0.0	4.0	100.0

- 의약품 10월 품목별-불만사례를 살펴보면 부작용 10건(18.9%), 배송문제 10건(18.9%) > 정보요청(단순상담문의) 8건(15.1%) > 효과미흡 7건(13.2%) > 가격·요금 6건(1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불만사례(10월)

(단위:건/복수응답)

구분	부작용	유효기간	이물질	변질	표시·광고	가격·요금 등	용량·개수미달	배송문제	성분검사·성분문의	효과미흡	품질의심	품질불량	정보요청(단순상담문의·상담)	총합계
관절질환치료제	0	0	0	0		0	0	1		0	0	0	0	1
금연보조제	0	0	0	0		0	0	0		1	0	0	0	1
당뇨약	0	0	0	0		1	0	1		0	0	0	0	2
동물용약품	0	0	0	0		1	0	0		0	0	0	0	1
두통약	0	1	0	0		0	0	0		0	0	0	0	1
무좀약	1	0	0	0		0	0	0		0	0	0	0	1
비타민제	0	2	0	0		0	0	5		0	0	0	0	7
살충제	0	0	0	0		0	0	0		1	0	0	0	1
영양제	1	2	0	0		0	0	2		0	0	1	1	7
한약(한약재,생약 등)	4	0	0	2		0	1	0		4	1	0	6	18
호르몬제	1	0	0	0		0	0	0		0	0	0	0	1
파스	1	0	0	0		0	0	0		0	0	0	0	1
연고	0	0	1	0		0	1	1		0	0	0	0	3
소독살균제(소독약, 소독살균기, 소독살균서비스)	0	0	0	0		1	0	0		0	0	0	0	1
다이어트약	1	0	0	0		1	0	0		0	0	0	0	2
항생제	1	0	0	0		0	0	0		0	0	0	0	1
알수없음	0	0	0	0		2	0	0		1	0	0	1	4
총합계	10	5	1	2	0	6	2	10	0	7	1	1	8	53
총비율(%)	18.9	9.4	1.9	3.8	0.0	11.3	3.8	18.9	0.0	13.2	1.9	1.9	15.1	100.0

- 의약품 11월 품목별-불만사례를 살펴보면 정보요청(단순상담문의) 33건(50.0%) > 부작용 14건(21.2%) > 유효기간 4건(6.1%) > 가격·요금 등·배송문제·품질의심이 각각 3건(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불만사례(11월)

(단위:건/복수응답)

구분	부작용	유효기간	이물질	변질	포장불량	표시·광고	가격·요금 등	용량·개수미달	배송문제	성분검사·성분변의	효과미흡	품질의심	품질불량	정보요청(단순상담문의, 상담)	총합계
당뇨약	1	0		0	0	0	0		1	0		1		1	3
발기부전치료제	0	0		0	0	0	0		0	0		0		1	1
변비약(하제), 관장약	0	0		0	0	0	0		0	0		0		1	1
비타민제	1	1		0	0	0	1		1	0		0		4	7
살충제	0	0		0	0	0	0		0	0		0		1	1
영양제	2	2		0	0	0	0		0	0		1		2	4
위장약	1	0		0	0	0	0		0	0		1		0	1
치과구강용약 (구내염, 잇몸약, 치주질환치료 등)	0	1		0	0	0	0		0	0		0		0	1
피부병약	1	0		0	0	0	0		0	0		0		0	1
피임약	0	0		0	0	0	0		0	0		0		1	1
한약(한약재,생약 등)	3	0		0	1	0	0		0	0		0		5	8
파스	1	0		0	0	0	0		0	0		0		0	1
자양강장변질제, 우황청심환	0	0		0	0	0	0		1	0		0		0	1
연고	0	0		0	0	1	0		0	0		0		1	2
모기기피제	0	0		0	0	0	1		0	0		0		0	1
소독살균제(소독약, 소독살균기, 소독살균서비스)	0	0		0	0	0	0		0	0		0		2	2
혈압약	0	0		0	0	0	0		0	0		0		1	1
감기약	2	0		0	1	1	0		0	0		0		1	3
성기능개선제	0	0		0	0	0	0		0	0		0		1	1
알수없음	2	0		1	0	0	1		0	1		0		11	14
총합계	14	4		1	2	2	3		3	1		3		33	55
총비율(%)	21.2	6.1	0.0	1.5	3.0	3.0	4.5	0.0	4.5	1.5	0.0	4.5	0.0	50.0	100.0

- 의약품 12월 품목별-불만사례를 살펴보면 정보요청(단순상담문의)와 부작용이 각각 14건(20.6%) > 가격·요금 등 10건(14.7%) > 배송문제 6건(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불만사례(12월)

(단위:건/복수응답)

구분	부작용	유효기간	이물질	변질	포장불량	표시, 광고	가격, 요금 등	용량, 개수미달	배송문제	성분검사, 성분변화의	효과미흡	품질의심	품질불량	정보요청(단순상담문의, 상건)	총합계
관절질환치료제	0	0	0		0	0	1	0	0	0	0	0	0	0	1
당뇨약	0	0	0		0	0	0	1	0	0	0	0	0	0	1
두통약	0	0	0		0	0	0	0	0	0	1	0	0	0	1
변비약(하제), 관장약	0	0	0		0	0	0	0	0	0	1	0	0	0	1
비타민제	1	0	0		0	0	0	4	5	0	0	0	0	3	11
생리식염수	1	0	1		0	0	0	0	0	0	0	0	0	0	1
안과용약(안약 등)	0	0	0		0	0	0	0	0	0	0	0	0	1	1
여드름치료제	0	0	0		0	0	1	0	0	0	0	0	0	0	1
영양제	1	1	0		0	0	1	0	0	0	0	1	0	5	9
치과구강용약 (구내염, 잇몸약, 치주질환치료 등)	0	0	0		0	0	1	0	0	0	0	0	0	0	1
피부병약	1	0	0		0	0	0	0	0	0	0	0	0	0	1
한약(한약재,생약 등)	3	0	0		1	1	2	0	1	2	0	1	0	0	9
호르몬제	0	0	0		0	0	0	0	0	0	0	0	0	1	1
파스	1	0	0		0	0	0	0	0	0	0	0	0	1	2
자양강장변질제, 우황청심환	1	0	0		0	0	1	0	0	0	0	0	0	0	2
소독살균제(소독약, 소독살균기, 소독살균서비스)	0	0	0		0	0	0	0	0	0	0	0	2	0	2
반창고,거즈	2	1	0		0	0	0	0	0	0	0	0	0	0	3
혈압약	2	1	0		0	0	0	0	0	0	0	0	0	0	3
감기약	1	0	0		0	0	1	0	0	0	0	0	0	0	2
알수없음	0	0	0		1	0	2	0	0	2	2	0	0	3	9
총합계	14	3	1		2	1	10	5	6	4	4	2	2	14	62
총비율(%)	20.6	4.4	1.5	0.0	2.9	1.5	14.7	7.4	8.8	5.9	5.9	2.9	2.9	20.6	100.0

1) 부작용

○ 1~12월 동안 의약품 품목별 부작용 관련 상담은 7월(53건), 8월(52건), 6월(46건) 순으로 나타남.

[표] 의약품 품목별 부작용상담(1-12월)

(단위:건/복수응답)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관절질환치료제	1				1								2
금연보조제								4					4
당뇨약											1		1
동물용약품	2				7								9
무좀약	1					1	1			1			4
변비약 (하제)	1					1	1	1					4
비염약(비염용 경구제, 비염용 분무제)				1									1
비타민제	3	2	1	2	4	1	5	2	2		1	1	24
살충제					1			2					3
생리시염수									1			1	2
신경치료제				1			1						2
아스피린						1	2						3
안과용약(안약 등)		1			2			1					4
여성세정제(여성청결제)								2					2
영양제	2		2	2	3		1	2		1	2	1	16
위장약		1									1		2
의치접착크림								1					1
전립선치료제			1				1						2
정장제,지사제(설사약)	1						1						2
진통제 (통증완화, 외용진통제 등)				1				1					2
치과구강용약 (구내염, 잇몸약, 치주질환치료 등)						1	1						2
피부병약						1	1					1	3
피임약			1										1
한약(한약재,생약 등)	15	4	6	9	13	14	15	15	9	4	3	3	110
혈액순환개선제			1	1		1							3
혈액응고제						1							1
호르몬제								1	1	1			3
혈압약				2			1					2	5
감기약		2		1		1					2	1	7
성기능개선제					1								1
다이어트약		1								1			2
항암치료제									1				1
간장약	2												2
탈모치료제							1						1
항생제										1			1
치약제 (치약 등)						1							1
파스		1		1		3	3	4	1	1	1	1	16
자양강장변질제						2	1					1	4
제모제								2					2
연고	2			4	1		2	2	3				14
모기기피제							1	1	1				3
소독살균제(소독약, 소독살균기, 소독살균서비스)	1				1	4	1	2					9
액취방지제(데오드란트)							1						1
반창고,거즈					2	1						2	5
알수없음	11	5	1	5	8	10	10	8			2		60
기타약품					1	2	2	1					6
총계	42	17	13	30	45	46	53	52	19	10	14	14	355

(1) 부작용 월별 세부 분석

○ 1월에 접수된 의약품 품목별 부작용 증세는 모든 부작용에 대해 각각 1건씩 부작용이 나타남.

구분	간질환	두피 손상	변비	복통	위장 질환	체중감 소/체 중증가	치아손 상,잇 몸질환 ,입부 르름	호흡기 관관련	화상 증상	기타이 상증세	알수 없음	총합계
변비약 (하제)	0	0	0	1	0	0	0	0	0	1	0	2
영양제	0	0	0	0	0	0	0	0	0	0	2	2
정장제,지사제(설사약)	0	0	0	0	0	0	0	0	0	0	1	1
한약(한약재,생 약 등)	0	1	1	0	1	1	1	0	0	0	3	8
연고	0	0	0	0	0	0	0	0	1	0	0	1
간장약	1	0	0	0	0	0	0	0	0	0	1	2
알수없음	0	0	0	0	0	0	0	1	0	0	3	4
총합계	1	1	1	1	1	1	1	1	1	1	10	20

*중복응답

○ 2월에 접수된 의약품 품목별 부작용 증세는 ‘복통’ 이 3건으로 가장 많았음.

구분	가슴 통증	구토	눈질 환	두통	변비	복통	부종/ 부기	불면 증	어지 러움	피부 질환	화상 증상	알수 없음	총합 계
비타민제	0	0	0	0	0	0	0	0	0	1	0	1	2
안과용약(안약 등)	0	0	1	0	0	0	0	0	0	0	0	0	1
위장약	0	0	0	0	0	0	0	0	0	0	0	1	1
한약(한약재,생약 등)	1	1	0	1	1	0	1	0	0	0	0	0	5
파스	0	0	0	0	0	0	0	0	0	0	1	0	1
감기약	0	1	0	0	0	2	0	0	0	0	0	0	3
다이어트약	0	0	0	0	0	0	0	1	0	0	0	0	1
알수없음	0	0	0	0	0	1	0	0	1	0	0	3	5
총합계	1	2	1	1	1	3	1	1	1	1	1	5	19

*중복응답

○ 3월에 접수된 의약품 품목별 부작용 증세는 ‘위장질환’ 이 5건으로 가장 많았음.

구분	가슴 통증	뇌경색 진단	눈질환	변비	복통	어지 러움	위장 질환	기타이 상증세	알수 없음	총합계
비타민제	0	0	0	0	0	0	1	0	0	1
영양제	0	0	0	0	1	0	2	0	0	3
전립선치료제	0	0	0	0	0	1	0	0	0	1
피임약	0	0	0	0	0	0	0	0	1	1
한약(한약재,생약 등)	1	1	1	1	1	0	1	1	1	8
혈액순환개선제	0	0	0	0	0	0	1	0	0	1
알수없음	0	0	0	0	0	0	0	0	1	1
총합계	1	1	1	1	2	1	5	1	3	16

*중복응답

○ 4월에 접수된 의약품 품목별 부작용 증세는 ‘복통’이 4건으로 가장 많았음.

구분	가슴 통증	두통	복통	부종/ 부기	어지 러움	체중감 소/체중 증가	치아손 상,잇몸 질환,입 부르름	피부 질환	화상 증상	알수 없음	총합계
비타민제	0	0	1	0	0	0	0	1	0	0	2
신경치료제	0	0	0	1	0	0	0	0	0	0	1
진통제 (통증완화, 외용진통제 등)	0	1	0	1	0	0	0	0	0	0	2
한약(한약재,생약 등)	1	0	3	0	0	1	0	0	0	2	7
파스	0	0	0	0	0	0	0	0	1	0	1
연고	0	0	0	0	0	0	1	1	0	0	2
감기약	0	0	0	0	1	0	0	0	0	0	1
총합계	1	1	4	2	1	1	1	2	1	2	16

*중복응답

○ 5월에 접수된 의약품 품목별 부작용 증세는 ‘피부질환’이 3건으로 가장 많았음.

구분	눈질환	두통	복통	불면증	위장 질환	저림 증세	피부 질환	혈압	알수 없음	총합계
관절질환치료제	0	0	0	1	0	0	0	0	0	1
비타민제	0	0	0	0	0	1	0	0	0	1
안과용약(안약 등)	1	0	0	0	0	0	0	0	0	1
영양제	0	1	0	0	0	0	0	0	0	1
한약(한약재,생약 등)	1	1	1	0	1	0	1	1	1	7
연고	0	0	0	0	0	0	0	0	1	1
반창고,거즈	0	0	0	0	0	0	1	0	0	1
기타약품	0	0	0	0	0	0	1	0	0	1
성기능개선제	0	0	0	0	0	0	0	0	1	1
알수없음	0	0	0	0	1	0	0	0	1	2
총합계	2	2	1	1	2	1	3	1	4	17

*중복응답

○ 6월에 접수된 의약품 품목별 부작용 증세는 ‘복통’과 ‘위장질환’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음.

구분	가슴 통증	간 질환	구토	마비 증세	복통	위장 질환	치아손 상,잇 몸질환 ,입부 르름	피부 질환	호흡기 관련	화상 증상	기타이 상증세	총합계
비타민제	0	0	0	0	0	1	0	0	1	0	0	2
치과구강용약 (구내염, 잇몸약, 치주질환치료 등)	0	0	0	0	0	1	0	0	0	0	0	1
한약(한약재,생약 등)	2	1	0	0	2	0	0	0	1	0	1	7
치약제 (치약 등)	0	0	0	0	0	0	1	0	0	0	0	1
파스	0	0	0	0	0	0	0	2	0	1	0	3
자양강장변질제, 우황청심환	0	0	1	0	1	0	0	0	0	0	0	2
건위소화보조제	0	0	0	1	0	0	0	0	0	0	0	1
감기약	0	0	0	1	0	0	0	0	0	0	0	1
알수없음	0	0	0	0	0	1	0	0	0	0	0	1
총합계	2	1	1	2	3	3	1	2	2	1	1	19

*중복응답

○ 7월에 접수된 의약품 품목별 부작용 증세는 ‘피부질환’이 4건으로 가장 많았음.

구분	가려움증	가슴통증	간질환	두통	복통	위장질환	피부질환	혈압	화상증상	기타이상증세	알수없음	총합계
비타민제	0	2	0	0	0	0	0	0	0	0	0	2
영양제	0	0	0	0	0	1	0	0	0	0	0	1
전립선치료제	0	0	0	0	0	0	0	0	0	1	0	1
피부병약	0	0	0	0	0	0	1	0	1	0	0	2
한약(한약재, 생약 등)	0	0	1	1	1	0	1	0	0	0	3	7
파스	0	0	0	0	0	0	0	0	1	0	0	1
모기기피제	0	0	0	0	0	0	1	0	0	0	0	1
액취방지제(데오드란트)	0	0	0	0	0	0	1	0	0	0	0	1
기타약품	0	0	0	0	0	0	0	0	0	0	1	1
혈압약	0	0	0	0	0	0	0	1	0	0	0	1
탈모치료약	1	0	0	1	0	0	0	0	0	0	0	2
알수없음	0	0	0	0	0	0	0	0	0	0	1	1
총합계	1	2	1	2	1	1	4	1	2	1	5	21

*중복응답

○ 8월에 접수된 의약품 품목별 부작용 증세는 ‘피부질환’이 9건으로 가장 많았음.

구분	가려움증	간질환	구토	두통	두피손상	위장질환	치아손상, 잇몸질환, 입부르름	피부질환	기타이상증세	알수없음	총합계
금연보조제	0	0	1	0	0	1	0	0	1	2	5
여성세정제(여성청결제)	1	0	0	0	0	0	0	0	0	0	1
영양제	0	0	0	0	0	1	0	0	0	0	1
의치접착크림	0	0	0	0	0	0	1	0	0	0	1
진통제(통증완화, 외용진통제 등)	0	0	0	0	0	0	0	0	0	1	1
한약(한약재, 생약 등)	0	1	0	1	1	1	0	0	0	2	6
파스	1	0	0	0	0	0	0	3	0	0	4
제모제	0	0	0	0	0	0	0	2	0	0	2
연고	0	0	0	0	0	0	0	1	0	0	1
모기기피제	0	0	0	0	0	0	0	1	0	0	1
알수없음	0	0	0	0	0	0	0	2	0	0	2
총합계	2	1	1	1	1	3	1	9	1	5	25

○ 9월에 접수된 의약품 품목별 부작용 증세는 ‘피부질환’이 7건으로 가장 많았음.

구분	구토	귀질환	뇌경색 진단	눈질환	두통	복통	어지러움	위장질환	피부질환	알수없음	총합계
비타민제	0	0	0	0	0	1	0	0	0	1	2
생리식염수	0	0	0	1	0	0	0	0	0	0	1
한약(한약재, 생약 등)	0	1	1	2	2	1	2	1	2	2	14
호르몬제	1	0	0	0	0	0	0	0	0	0	1
파스	0	0	0	0	0	0	0	0	1	0	1
연고	0	0	0	0	0	0	0	0	3	0	3
모기기피제	0	0	0	0	0	0	0	0	1	0	1
기타약품	0	0	0	0	0	1	0	0	0	0	1

항암치료제	0	0	0	0	0	0	0	0	0	1	1
알수없음	0	0	0	1	0	0	0	0	0	0	1
총합계	1	1	1	4	2	3	2	1	7	4	26

*중복응답

○ 10월에 접수된 의약품 품목별 부작용 증세는 ‘복통’ 과 ‘부종·부기’ 가 각각 2건으로 가장 많았음.

구분	구토	복통	부종/부기	불면증	위장질환	피부질환	알수없음	총합계
무증약	0	0	1	0	0	0	0	1
영양제	0	0	0	0	1	0	0	1
한약(한약재,생약 등)	1	1	1	0	0	0	2	5
호르몬제	0	0	0	1	0	0	0	1
파스	0	0	0	0	0	1	0	1
다이어트약	0	0	0	0	0	0	1	1
항생제	0	1	0	0	0	0	0	1
총합계	1	2	2	1	1	1	3	11

*중복응답

○ 11월에 접수된 의약품 품목별 부작용 증세는 구토, 복통, 위장질환과 피부질환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음.

구분	구토	두통	변비	복통	위장질환	피부질환	알수없음	총합계
당뇨약	1	0	0	0	0	0	0	1
비타민제	0	0	0	1	0	0	0	1
영양제	2	0	0	0	1	0	0	2
위장약	0	0	1	0	0	0	0	1
피부병약	0	0	0	0	0	1	0	1
한약(한약재,생약 등)	0	1	0	1	1	1	1	3
파스	0	0	0	0	0	1	0	1
감기약	0	0	0	1	1	0	0	2
알수없음	0	0	0	0	0	0	1	1
총합계	3	1	1	3	3	3	2	13

*중복응답

○ 12월에 접수된 의약품 품목별 부작용 증세는 ‘마비증세’ 가 2건으로 가장 많았음.

구분	가슴 통증	눈질 환	두통	마비 증세	복통	부종/ 부기	위장 질환	피부 질환	화상 증상	기타 이상 증세	알수 없음	총합 계
비타민제	0	0	0	0	0	0	0	0	0	0	1	1
생리식염수	0	1	0	0	0	0	0	0	0	0	0	1
영양제	1	0	1	0	0	0	0	0	0	0	0	1
피부병약	0	0	0	0	0	0	0	0	0	0	1	1
한약(한약재,생약 등)	0	0	0	0	1	0	0	0	0	1	0	2
파스	0	0	0	0	0	0	0	0	1	0	0	1
자양강장변질제, 우황청심환	0	0	0	0	0	0	0	0	0	0	1	1
반창고,거즈	0	0	0	0	0	1	0	1	0	0	0	2
혈압약	0	0	0	2	0	0	0	0	0	0	0	2
감기약	0	0	0	0	0	0	1	0	0	0	0	1
총합계	1	1	1	2	1	1	1	1	1	1	3	13

*중복응답

2) 유효기간

- 1~12월 동안 의약품 품목별 유효기간 관련 상담은 4월(7건), 8월(6건), 2월,6월,7월,10월(5건) 순으로 나타남. 품목으로는 비타민제(9건), 영양제(7건), 한약(4건) 순으로 나타남.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동물용약품				1				1					2
두통약										1			1
백신			1										1
변비약 (하제)					1	1							2
비염약(비염용경구제, 비염용 분무제)					1								1
비타민제		1	1	1		1		1	1	2	1		9
소화제			1										1
숙취해소제								1					1
안과용약(안약 등)		1			1			1					3
영양제		1					1			2	2	1	7
외용진양제(가려움증 멧게하는약)							1						1
치과구강용약 (구내염, 잇몸약, 치주질환치료 등)											1		1
피부병약								1					1
한약(한약재, 생약 등)				1		2			1				4
해열제	1												1
파스							2						2
자양강장변질제				1									1
제모제					1								1
연고				1				1					2
콘택트렌즈세정액									1				1
반창고,거즈												1	1
기타약품		1											1
혈압약												1	1
감기약							1						1
알수없음	1	1	1	2		1							6
총합계	2	5	4	7	4	5	5	6	3	5	4	3	53

*중복응답

3) 이물질

- 1~12월 동안 이물질 관련 상담 16건 중 감기약 관련 상담이 3건, 비타민제와 연고 관련 상담이 각각 2건씩이었음.

구분	1월	2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비타민제				2								2
생리식염수											1	1
숙취해소제							1					1
안과용약(안약 등)				1								1
눈세정제				1								1
한약(한약재, 생약 등)								1				1
연고							1		1			2
반창고, 거즈						1						1
감기약	1		1		1							3
성기능개선제					1							1
간장약		1										1
알수없음				1								1
총합계	1	1	1	5	2	1	2	1	1	0	1	16

*중복응답

4) 변질

- 1~12월 동안 변질 관련 상담 13건 중 안과용약 관련 상담이 3건, 비타민제와 한약 관련 상담이 각각 2건씩이었음.

구분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비타민제				1	1							2
빈혈약	1											1
안과용약(안약 등)			2				1					3
한약(한약재, 생약 등)									2			2
기타약품						1						1
신장질환치료제							1					1
알수없음		1						1		1		3
총합계	1	1	2	1	1	1	2	1	2	1	0	13

*중복응답

5) 포장불량

○ 1~12월 동안 의약품 포장불량 관련 상담 19건 중 연고 관련 상담이 4건이었음.

구분	1월	2월	3월	4월	6월	7월	8월	11월	12월	합계
비타민제	1			1						2
빈혈약	1									1
안과용약(안약 등)			1							1
피부병약		1								1
피임약					1					1
한약(한약재, 생약 등)		1						1	1	3
건위소화보조제					1					1
연고	2					1	1			4
소독살균제(소독약, 소독 살균기, 소독살균서비스)					1					1
반창고, 거즈						1				1
감기약								1		1
알수없음		1							1	2
총합계	4	3	1	1	3	2	1	2	2	19

*중복응답

6) 표시/광고

○ 1~12월 동안 의약품 표시·광고 관련 상담 40건 중 비타민제 관련 상담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합계
금연보조제								2				2
비타민제		2	15		1	1						19
영양제			1	1								2
피부병약		1		1		1						3
한약(한약재, 생약 등)				2				1				3
파스				1							1	2
연고								1		1		2
감기약										1		1
성기능개선제						1			1			2
알수없음	1		1			1	1					4
총합계	1	3	17	5	1	4	1	4	1	2	1	40

*중복응답

7) 성분검사·성분문의

○ 1~12월 동안 의약품 성분검사, 성분문의 관련 상담 20건 중 한약 관련 상담이 6건이었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월	9월	11월	12월	합계
비타민제			1	1			1				3
안과용약(안약 등)				2							2
영양제	1										1
한약(한약재, 생약 등)		1	1		1			1		2	6
소독살균제(소독약, 소독 살균기, 소독살균서비스)								1			1
감기약						1					1
알수없음		1	1					1	1	2	6
총합계	1	2	3	3	1	1	1	3	1	4	20

*중복응답

8) 품질의심

○ 1~12월 동안 의약품 품질의심 관련 상담 17건 중 한약 관련 상담이 6건이었음.

구분	1월	2월	3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합계
당뇨약								1		1
비타민제			2							2
영양제								1	1	2
위장약								1		1
한약(한액재, 생약 등)		1	1	1	1		1		1	6
기타약품						1				1
감기약		1								1
알수없음	1	1	1							3
총합계	1	3	4	1	1	1	1	3	2	17

*중복응답

9) 품질불량

○ 1~12월 동안 의약품 품질불량 관련 상담 8건 중 한약과 소독살균제 관련 상담이 각각 2건이었음.

구분	2월	4월	8월	10월	11월	12월	총합계
안과용약(안약 등)	1						1
영양제				1			1
한약(한액재, 생약 등)	2						2
소독살균제(소독약, 소독살균기, 소독살균서비스)						2	2
감기약		1					1
알수없음			1				1
총합계	3	1	1	1	0	2	8

*중복응답

◇ 의약품 소비자 상담사례

<1월 의약품 상담사례>

○ 현대제약 어린이 시럽에서 발생된 이물질

소비자는 2016년 11월경 병원에서 진단받고 3살 아이의 처방전 받아 약국에서 제조받음. 시럽성분을 먹이려고 약을 따르다가 검은색 이물질 발견 약국에 문의. 제조사인 현대제약에서 성분 검사 및 기타 등등 별 이상 없다는 답변을 2개월에 걸쳐 기다렸다가 듣게 됨. 제약회사 신뢰할 수 없고 대응방법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다른 방법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 소비자는 다소비 일반의약품 정보 사이트가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함.

○ 소비자는 2016년 12월 24일 약국에서 빈혈약 구입함. 당시 약사 마비스포르데(2000원) 복용을 권하여 구입하였음. 약사가 권한 약박스 개봉 시 앰플용기 뚜껑 파손되었으며 내용물 부패, 변질됨 확인되어 약사에게 전달하여 위 내용을 확인함. 약사, 약품제조사는 택배과정 중 파손 된 것으로 안내하나 부패된 약 판매로 제보하고자(구체적인 제보내용 안내하지 않음)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 문의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통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내용 중 의약품 관련해서 피해보상 받을 시 구매기간이 얼마큼 지나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문의함. 구매기간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 남시약국에서 구매한 장염 약 환불 상담

소비자는 남시약국에서 일약약품의 장염약(더블락 캡슐)을 2016년 3월 구입함. 젓당이 포함되어 부작용이 발생함. 환불을 원함.

○ 뉴스킨샵이라는 인터넷 업체에서 12월 1일 피부연고를 구입함. 얼굴 흉터 여드름 치료를 위해 구입을 한 후 사용을 하였더니 화상이 발생이 되었다고 함. 이럴 경우 배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함. (구입가 18,000원)

○ 한의원 한약의 처방전 발급문의

소비자는 2017년 1월14일에 다나한의원에서 아내의 아토피에 관한 한약을 지었다고 함.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어떤 성분인지 알고 먹어야 할 것 같아서 한의원 측에 처방전을 요구함. 한의원 측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함. 이에 소비자는 한의원에서 처방전 발급이 의무인지 아닌지에 대해 문의함.

○ 안 아픈 세상 연구소라는 곳에서 병원 비슷하게 차려놓고 간암에 좋다는 약을 370만원에 판매하고 있음. 천연재료라고 했고, 한 봉지 먹었는데 업체는 절반만 환불을 해준다고 하여 소비자는 환불을 받고 싶어 문의함.

○ (기타) 의약품은 아닌 건강기능식품이었지만, 소비자가 제조업체가 OO병원이라는 것만 보고 의약품으로 오인했던 사례 (사례1) 소비자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곳으로 건국대병원연구개발팀이라며 강사가 2016.11월 방문함. 혈관에 좋은 약이라고 하여 아르기닌을 구매하여 복용함. 복용 후 가렵고, 오른쪽 가슴에 피멍 같은 것이 생겨 구매자에게 전화함. 10

일 정도 복용을 하지 말라고 하여 복용하지 않음. 또 다시 먹었으나 가려움증은 동일함. 업체에서 3박스 중 개봉한 1박스를 제외한 2박스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사례2) 2개월 전에 원광대학교설립 원광제약 제조원, 엠바이오식약 궤변데이를 카드로 구입함. 오늘 신문에 구입한 사람에게 무료 체험 10개를 준다고 함. 무료체험 10개를 받고 먹으니 잠이 안오고, 구입한 사람에게 말하니 다른 방식으로 복용 해보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반품 해준다고 함. 업체는 무료체험 10일분은 돈을 내야한다고 함.

<2월~3월 의약품 상담사례>

○ 의약품 중고나라 판매 문의

신청인은 의약품 마데카솔을 중고나라에서 몇 개 구입하여 한개만 사용 후 필요 없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니 네이버에서 판매대상이 아니므로 올리지 말라는 제재를 받았음. 다른 사람들도 해당사이트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 문의함.

○ 전립선 치료제 복용 후 빈혈 건

소비자는 3월 14일 병원에서 전립선 치료제인 한미약품 구구팜스를 처방받아 4만원에 구입했음. -약을 복용하고부터 기립성 빈혈이 생겨 병원을 재방문했더니 빈혈의 부작용이 있는 약이라며 다른 약을 처방해 주었음. 약국에 가서 남아있는 17알을 환불받으려니 환불해주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환불 해주지 않으므로 제조사에서 환불받고 싶어 문의함.

○ 눈 점안액 관련 상담의 건

소비자는 현재 점안액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함. 제조회사에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심. 요즘 점안액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있어서 사용에 간편하지만 플라스틱 튜브를 개봉하면 거친 면이 있어서 눈에 가까이 하면 눈에 찔릴 수도 있다고 생각함. 소비자 본인도 각막에 스쳐서 며칠 간 눈뜨기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음. 약 용기가 말랑말랑 하거나 둥글면 보다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의견을 참고해주었으면 함.

○ 한약 복용 중단에 의한 배상문의

소비자는 임신소양증으로 한의원에서 한약(15일치씩 2회) 및 뿌리는 약 처방받아 사용함. 1회 처방이 거의 다 복용 끝나가는 시점에 산부인과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하게 됨. 임신성 당뇨 결과가 좋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상담 중, 환자인 본인이 소양증으로 한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산부인과 담당의가 알고, 당장 중단하라고 요청함. 산부인과 전문의가 내분비내과 진료요청서를 발급함. 산부인과에 임신당뇨 결과 및 진단을 듣는 날 아침에 2차 처방한 한약이 배송됨. 내분비결과 상관없이 산부인과 담당의의 권유에 따라 2차로 처방된 한약을 복용할 의사가 없는데, 2차 처방한 한약에 대해 환불 가능한지 문의함.

<4월~5월 의약품 상담사례>

○ 약사의 권유로 구입한 월경증후군 약의 부작용으로 반품 문의

소비자는 약국에서 4월 12일 월경증후군이 심해 프리페민을 구입하려고 방문함. 해당 제품이 있다고 했으나 많이 비싼 다른 약을 권하며 100% 완치 권유 받아서 더 비싸게 구입하였음. 그런데 먹어보니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이 부었음. 약사의 권유로 구입한 월경증후군 약의 부작용으로 반품 문의함.

○ 도미나크림을 바르고 발생한 부작용 보상 문의

소비자는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의약품 도미나크림을 바르고 피부에 부작용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음. 담당 의사는 크림의 방부제 성분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라고 함.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함.

○ 녹십자 대일밴드 얼굴에 붙인 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소비자는 2016년 9월에 딸아이 얼굴에 상처가 나서 녹십자 대일밴드를 구입해 붙혀 주었음. 제조년월일은 알수없고 밴드가 불량인 것 같다고 문의함. 24시간 이내 떼어보니 밴드 접촉부분에 알러지가 생기는데 부직포 부분이 괴사가 됨. 2016년 9월 3주가 지나도 낫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았음.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흉터치료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어 피해구제방안 문의함.

○ 메디폼(밴드) 품질에 대한 소비자피해우려 조사의 건

신청인의 자녀가 18살인데 상처가 나서 약국에서 메디폼A(밴드)을 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음. 상처 부위에 붙였는데 상처가 덧나고 떼려고 하니 잘 떼어지지 않을 정도로 품질에 문제가 있어 보임. 주로 밴드를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하도록 제품을 만든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음. 밴드로 인하여 감염될 우려도 많고 소비자 피해가 많이 일어나므로 이 부분은 소비자단체에서 조사를 하여 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음. 소비자단체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면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를 부탁하는 바이며, 피해구제방안도 문의함.

○ 의약품 안약에서 벌레 발견

소비자는 동아제약에서 직수입하여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아이봉 세안액 제품 구입함. 2017년 5월 12일 3개째 구입하여 3분의 1은 개봉하여 사용함. 사용 중 내용물에 살아있는 벌레가나와 동영상 찍어두었음. 판매업체 내용물에 투입된 벌레를 회사로 보내달라고 함. 보관하던 중 살아있는 벌레를 잃어버려 입증할 길이 없음. 식약처에 문의하니 관련 동영상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함.

<6월~7월 의약품 상담사례>

○ 젤 사용 중 이물질 발견으로 문의

소비자는 약국에서 (에이스제약) 젤을 2013년도에 구매해서 사용함. 제품 내용물에 유리조각과 유사한 이물질이 발생됨. 업체를 통해서 제품 성분 및 유해성 확인을 요청했음. 현재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음에 문의함. 소비자는 제품 사용으로 인해서 피부염 등의 신체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병원 치료 및 항생제 복용까지 하고 있음

○ 치아 미백제 사용 중 부작용

소비자는 위메프에서 치아미백제(제조사 삼성제약공업(주)) 하이안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함. 4일째 사용 중 잇몸이 아프고 피가 나옴. 업체에 문의하니 잇몸이 아프면 중단하라는 내용 고지함. 업체에서 진단서 첨부 요청함. 소비자는 병원 진료 받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와 통화중에 불쾌하여 상담 문의함.

○ 가스명수 새 제품에서 액이 흘러나와 문의함

소비자는 삼성제약 가스명수를 구입함. 뜯지 않은 새 제품인데 액이 흘러나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의함.

○ 박카스 음용 후 복통 관련 신고 문의

소비자는 최근 편의점에서 유통기간 경과한 박카스를 구매하여 음용함. 복통 및 구토증세 발생하여 해당 업체 행정처분 받도록 신고하려함. 현재 편의점 점주는 30만원까지만 배상해준다고 함.. 치료비 및 일일소득 보상 청구하고자 함.

○ 불법약인지 모르고 구입한 제품에 대한 문의

소비자(21살)는 인터넷으로 피임약 같은걸 알아보다가 병원사이트에서 제품들을 팔길래 약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냥 약국에서 파는 사후피임약인줄 알고 제품을 덜컥 구매함. 구매하고 나서 알고 보니 불법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서 바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제품이 배송중이라 지금은 반품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함. 이후 약이 오기만 기다렸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반송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택배기사님이 반송이 안 된다고 함. 사이트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구매한 것이 불법약품이라 환불이 안 된다고 하여 너무 황당함. 위험한 불법약품을 인터넷에 파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판다면 구매 전에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구매자도 알 수 있게 공지해주고 반품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공지를 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함.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환불 된다고 단순변심은 4만원 비용이 든다고 적어놓고 불법이니 안 된다는 식으로 배째라니 너무 하여 문의함. (사업자 : 소문난 제일병원

○ 신신제약 티눈액 부작용 문의

소비자는 7월 14일 아이가 무릎에 사마귀가 나서 신신제약 티눈액 약국에서 구매함. 집에 와서 발랐는데 살주변이 착색이 됨 화상 입은 것처럼 됨. 병원 가서 레이저로 사마귀를 없앴. 피부 착색이 되어 6개월이 되면 정상으로 되거나 안 되면 레이저로 지워야 한다고 함. 업체는 사마귀 제거 한 것은 이야기 하지 말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화상 탈색 된 것은 치료 하면 병원비 물어 준다고 함. 아이가 너무 아파하며 빛을 보지 말라고 하는 데 불편함.

○ 피로회복제 병 유리가루 혼입관련

소비자는 약국에서 피로회복제 구매함. 피로회복제 병을 따서 약사가 줬는데 병 안에 병 딸때 생긴 유리가루가 음료에 섞여서 모르고 먹게 됨. 병원에서 검사하니 괜찮다고는 함. 약국 직원은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약국 대표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웬만한 병원 원장 다 알고 있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며 이런 행동에 대해 처리를 문의함.

○ 듀오덤 제품의 주의사항 표시의무에 대하여 문의함

소비자는 약국에서 보령제약 듀오덤 구매하여 아기팔에 듀오덤 사용한 후 피부 손상되었음. 36시간 붙었음. 아기가 듀오덤이라는 제품을 피부에 부착 후 탈착 시 피부에 손상을 입었다고 함. 치료비보다는 듀오덤제품의 주의사항에 대해 20개월 미만의 아기가 사용시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없어 본인이외에 다른 분들도 피해를 입을 것 같아 문의함. 업체에 전화를 하니 표시의 의무가 없다라고 함.

○ 프로스카 부작용이 생김

소비자는 TV를 보니 프로스카 부작용을 알게 되었음. 소비자의 남편이 탈모예방차원에 프로스카를 먹었음. 우울증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TV보도를 보게 됨. 소비자 남편이 우울증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음. 약품을 먹고 돌아가신 것 같음. 프로스카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함. 어디에 문의해서 약품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는지 문의함.

○ 탈모치료제약 부작용 배상 관련 문의

소비자는 6월 25일경 약국에서 탈모치료제약 구입함. 동성제약 미녹실로 탈모에 바르는 약임. 한 번 사용을 한 후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가려워서 약국을 감. 그리고 이마 부분에 혈관이 확장이 되었는데 약국에서는 이 제품이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고 함. 사진을 찍어서 약국에서 동성제약으로 보내줌. 신청인은 링겔을 3번을 맞았고 9만원 비용이 들어감. 제약업체는 3만원은 줄 수 있으나 나머지는 부작용에 대한 전문의소견서 미흡으로 배상 못한다고 함. 이런 경우 9만

원 배상 받고자 함.

<8월~9월 의약품 상담사례>

○ 의약품 봉지 수분 발생으로 안전성 문의

소비자는 병원에서 신장 결석 치료 후 약을 처방을 받고, 15일 동안 섭취 후 약 봉지 안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 약이 부스러지는 현상이 있음. 팜비오라는 회사에서는 약 자체가 수분을 머금고 있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하나, 안전성에 대하여 불안함.

○ 유통기한 지난 숙취해소제 구입 먹었음.

소비자는 약국에서 숙취해소제를 1만원에 구입하여 먹었음. 침전물이 많아서 살펴보니 4개월이 지난 제품임. 판매처에 전화하니 이상이 생기면 오라고 함.

○ 안약에서 약취가 나서 문의함.

소비자는 병원에서 안약을 처방 받음 눈에 들어가니 안약에서 약취가 남. 제약회사로 약을 보냄. 제약회사에서 세균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보낸 안약이 깨끗함. 이런 경우 배상에 대한 문의함.

○ 연고를 바르니 부작용이 심하여 배상 문의

소비자의 자녀가 8월 3일에 약국에서 태극제약(주) 피부연고 구입하여 얼굴에 발랐음. 피부연고 바르고는 얼굴에 심한 부작용으로 화상을 입은 듯한 정도임. 제약회사로 사진 등을 보내니 치료비 등은 준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식으로 대응함. 업체를 강제로 제재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함.

○ 금연보조제 무료체험 기간 내에 반품요청을 하니 거부하는 업체

소비자는 8월 23일에 인터넷으로 금연보조제 무료체험신청을 하니 전화가 와서 금연보조제를 구입함. 광고내용은 10일 무료체험기간이 있고 기간 내에 반품시 100% 환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카드로 번호를 불러주었더니 결재를 399,000원을 결재를 해서 카드로 문제를 받음. 8월 25일에 무료체험분만 보내 준 것이 아니라 3개월 치로 보내온 상황임. 소비자는 고혈압 질환을 갖고 있는데 보조제를 먹었더니 얼굴이 붉어지고 해서 5일치 복용 후 8월 29일 반품을 하겠다고 함. 영업사원에게 이야기를 하니 다른 분이 전화를 줄 것 이라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고, 소비자가 금단현상일 수 있으나 하루에 3회 복용을 1회로 줄여서 사용을 해보라고 함. 10일 무료체험이니 반품을 하겠다고 했는데 반품이 안 된다고 함.

○ 담배를 끊기 위한 금연보조제 구매 후 부작용 문의

소비자는 금연을 위해 스마트폰 광고를 통해 7월 26일 체험분 10일치 배송받음. 이를 간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되서 먹지 않고 있음. 또 먹었더니 메스꺼움. 8월 8일 못 먹겠다고 판매자 측에 말하고 8월 16일 돌려보냈더니 아무런 문자가없다가 8월 18일 다시 연락 와서 제품을 돌려보낸다고 하여 문의함.

○ 파스 부작용으로 인한 대응방법 문의

소비자는 중외제약 파스를 약국에서 구입함. 가족들이 모두 다 허리 엉덩이 쪽에 파스를 붙임. 파스를 떼고 나니 파스를 붙였던 자리가 빨갛게 부어오름. 가족들이 다 부작용이 생겼으며 심한 사람은 가려움을 호소함. 휴일이라 병원에는 못 가

보고 약국에서만 약을 구입해 바름. 대응방법 문의함.

○ 모기기피제 바르고 부작용이 생겨 문의

소비자는 8월 19일 스프레이 형식의 현대약품(주) 모기기피제를 구입함. 천연성분이며 영유아도 사용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음. 사용했다가 피부에 까맣게 착색이 되었음. 피부 안으로 빨갈게 되었고, 목에도 검은 줄이 생겼음. 겨드랑이와 엉덩이 부분은 심함.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랐음. 현대약품에 연락했더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지 않음. 순한 약이라고 광고했는데 허위 광고임. 수분 크림 구입한 비용과 약값, 기타 경비 등에 대해 50만원만 보상해준다고 함. 이전의 피부 상태로 돌아가야 하니 착색된 부분도 레이저로 치료를 받아야 함. 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 부분과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음.

<10월 의약품 상담사례>

○ 무좀약 부작용 보상 문의

소비자는 약국에 방문하여 동아제약 무좀약을 구매함(7,000원), 새끼발가락에 무좀약을 바르니 발전체에 무좀이 퍼져 통통 부어오름. 사진 찍은 후 제약회사에 알렸고, 고객센터 직원은 의사진단서 제출하면 무좀약 값 보내주겠다 답변 후 끝음. 치료비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문의함.

○ 수면장애 발생하는 의약품 환불문의

소비자는 평소 긴장으로 손, 발 떨림 현상이 있어 약국에서 상담 받고 약을 추천받음. 종근당 홀딩스 심미안(2병)으로 수면장애에 효과가 있다는 고지도 써있고, 약 20일전에 구매함. 23일 복용한 후 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상 발생. 새벽 3시에야 잠이 듦. 부작용으로 제조사에 전화하였고, 의사선생님의 소견서가 있어야만 환불된다고 안내. 환불여부 문의함.

다. 화장품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

- 소비자단체에서 1372 통합소비자 상담망을 통해 접수된 화장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를 1372 화장품 분류표에 의해 전국의 소비자 불만사례를 수집함.

[표] 화장품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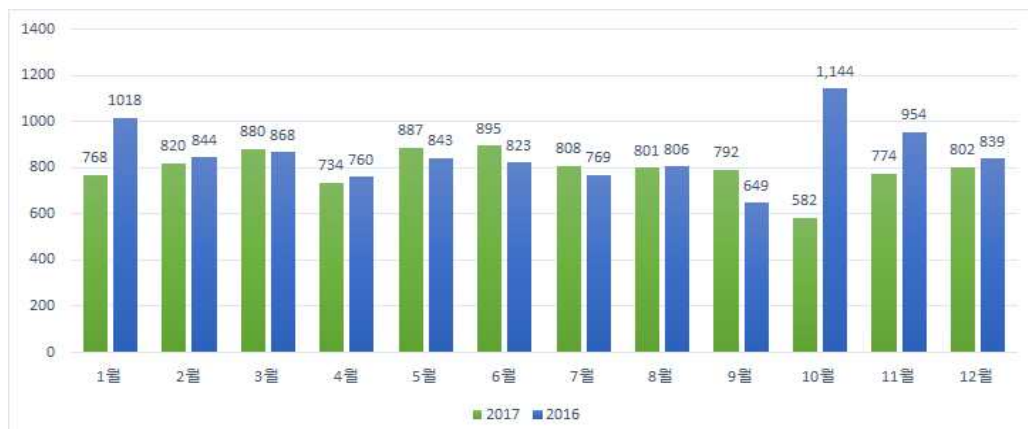
연번	품목	연번	품목	연번	품목
1	기타일반화장품	14	보건위생용품기타	26	탈모제
2	립스틱	15	보건위생용품세트	27	파마약
3	메이크업베이스	16	샴푸	28	파우더
4	마스카라	17	선크림·선크림화장품	29	파운데이션
5	맛사지류	18	세안류	30	팩류
6	면도용로션	19	아이라이너	31	향수
7	면도용비누	20	아이섀도	32	헤어린스
8	면도용크림	21	어린이용화장품	33	헤어스프레이
9	매니큐어	22	염색제	34	헤어크림
10	목욕용오일	23	영양오일류	35	화장비누
11	바디클렌저	24	영양크림류	36	화장수류
12	바블바스	25	치약	37	화장품세트
13	발모제	-	-	-	-

-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화장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상담건수는 9,543건임.

[표] 화장품 월별 상담 건수(2017)

구분	사례수	비율(%)	전년대비
1월	768	8.0	-250
2월	820	8.6	-24
3월	880	9.2	12
4월	734	7.7	-26
5월	887	9.3	44
6월	895	9.4	72
7월	808	8.4	39
8월	801	8.4	-5
9월	792	8.3	143
10월	582	6.1	-562
11월	774	8.1	-180
12월	802	8.4	-37
합계	9,543	100.0	-774

[그림] 화장품 월별 상담 건수



- 1월~12월 화장품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일반판매(2,879건) > 전화권유판매(2,235건) > 국내온라인거래(1,887건) > TV홈쇼핑(719건) > 방문판매(59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월별-판매방법별 분석

판매 방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TV홈쇼핑	62	8.1	72	8.8	72	8.2	45	6.1	70	7.9	70	7.8
국내온라인거래	132	17.2	183	22.3	185	21.0	166	22.6	148	16.7	167	18.7
국제온라인거래	2	0.3	14	1.7	8	0.9	6	0.8	5	0.6	4	0.4
기타	32	4.2	33	4.0	27	3.1	32	4.4	28	3.2	39	4.4
기타통신판매	16	2.1	11	1.3	21	2.4	20	2.7	16	1.8	23	2.6
노상판매	7	0.9	14	1.7	8	0.9	16	2.2	15	1.7	17	1.9
다단계판매	14	1.8	19	2.3	18	2.0	14	1.9	18	2.0	9	1.0
모바일거래	0	0.0	2	0.2	3	0.3	6	0.8	6	0.7	7	0.8
방문판매	55	7.2	39	4.8	42	4.8	31	4.2	49	5.5	52	5.8
소셜커머스(쇼핑)	13	1.7	10	1.2	19	2.2	11	1.5	18	2.0	4	0.4
일반판매	256	33.3	216	26.3	248	28.2	223	30.4	280	31.6	297	33.2
전화권유판매	179	23.3	207	25.2	229	26.0	164	22.3	234	26.4	206	23.0
총합계	768	100.0	820	100.0	880	100.0	734	100.0	887	100.0	895	100.0

판매 방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TV홈쇼핑	58	7.2	62	7.7	51	6.4	45	7.7	39	5.0	73	9.1	719	7.5
국내온라인거래	137	17.0	133	16.6	159	20.1	133	22.9	172	22.2	172	21.4	1,887	19.8
국제온라인거래	4	0.5	5	0.6	3	0.4	0	0.0	8	1.0	8	1.0	67	0.7
기타	34	4.2	41	5.1	40	5.1	29	5.0	25	3.2	29	3.6	389	4.1
기타통신판매	10	1.2	21	2.6	12	1.5	13	2.2	17	2.2	24	3.0	204	2.1
노상판매	10	1.2	16	2	12	1.5	17	2.9	16	2.1	14	1.7	162	1.7
다단계판매	16	2.0	19	2.4	17	2.1	12	2.1	17	2.2	14	1.7	187	2.0
모바일거래	6	0.7	5	0.6	3	0.4	7	1.2	8	1.0	12	1.5	65	0.7
방문판매	54	6.7	54	6.7	47	5.9	57	9.8	60	7.8	51	6.4	591	6.2
소셜커머스(쇼핑)	13	1.6	14	1.7	19	2.4	6	1.0	17	2.2	14	1.7	158	1.7
일반판매	252	31.2	260	32.5	248	31.3	166	28.5	210	27.1	223	27.8	2,879	30.2
전화권유판매	214	26.5	171	21.3	181	22.9	97	16.7	185	23.9	168	20.9	2,235	23.4
총합계	808	100.0	801	100.0	792	100.0	582	100.0	774	100.0	802	100.0	9,543	100.0

○ 1월~12월 화장품 소분류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타일반화장품(4,590건) > 화장품세트(2,098건) > 염색제(455건) > 샴푸(429건) > 마사지류(276건) > 향수(263건) > 영양크림류(20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월별-소분류품목별 상담건수

대분류	소분류품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사래수	비율(%)	사래수	비율(%)	사래수	비율(%)	사래수	비율(%)	사래수	비율(%)	사래수	비율(%)
기능성화장품(77건)	선텐·선스크린화장품	1	0.1	3	0.4	6	0.7	6	0.8	15	1.7	31	3.5
기초화장용제품류 (454건)	영양크림류	14	1.8	20	2.4	19	2.2	15	2.0	25	2.8	15	1.7
	마사지류	22	2.9	20	2.4	27	3.1	15	2.0	27	3.0	26	2.9
	팩류	1	0.1	7	0.9	9	1.0	6	0.8	4	0.5	12	1.3
	영양오일류	3	0.4	0	0.0	2	0.2	3	0.4	0	0.0	2	0.2
	세안류	1	0.1	1	0.1	0	0.0	2	0.3	2	0.2	1	0.1
기타일반화장품 (3597건)	기타일반화장품	417	54.3	412	50.2	435	49.4	377	51.4	431	48.6	406	45.4
눈화장용제품류(25건)	마스카라	1	0.1	1	0.1	1	0.1	2	0.3	0	0.0	0	0.0
	아이라이너	0	0.0	4	0.5	1	0.1	2	0.3	2	0.2	2	0.2
	아이섀도	0	0.0	0	0.0	1	0.1	0	0.0	5	0.6	1	0.1
두발용제품류 (509건)	샴푸	22	2.9	41	5.0	34	3.9	25	3.4	22	2.5	35	3.9
	헤어크림	9	1.2	10	1.2	4	0.5	8	1.1	5	0.6	4	0.4
	발모제	3	0.4	2	0.2	4	0.5	3	0.4	7	0.8	5	0.6
	탈모제	7	0.9	7	0.9	5	0.6	6	0.8	7	0.8	7	0.8
	파마약	4	0.5	0	0.0	7	0.8	4	0.5	1	0.1	3	0.3
	헤어린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헤어스프레이	0	0.0	4	0.5	1	0.1	2	0.3	0	0.0	2	0.2
	비듬제거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면도용제품류(5건)	면도용크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면도용로션	0	0.0	0	0.0	1	0.1	0	0.0	0	0.0	0	0.0
	면도용비누	0	0.0	0	0.0	1	0.1	0	0.0	0	0.0	0	0.0
목욕용,세정용제품류 (117건)	화장비누	6	0.8	12	1.5	8	0.9	3	0.4	4	0.5	6	0.7
	화장수류	1	0.1	2	0.2	4	0.5	5	0.7	2	0.2	3	0.3
	바디클렌저	3	0.4	3	0.4	4	0.5	3	0.4	4	0.5	3	0.3
	목욕용오일	0	0.0	0	0.0	0	0.0	1	0.1	0	0.0	0	0.0
	거품입욕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방향용제품류(207건)	향수	15	2.0	20	2.4	33	3.8	33	4.5	27	3.0	27	3.0
보건위생용품기타 (97건)	보건위생용품기타	12	1.6	6	0.7	6	0.7	8	1.1	5	0.6	5	0.6
보건위생용품세트 (20건)	보건위생용품세트	5	0.7	2	0.2	1	0.1	0	0.0	2	0.2	0	0.0
색조화장용제품류 (99건)	립스틱	7	0.9	7	0.9	7	0.8	3	0.4	10	1.1	6	0.7
	파운데이션	3	0.4	2	0.2	3	0.3	2	0.3	3	0.3	4	0.4
	파우더	1	0.1	0	0.0	2	0.2	2	0.3	2	0.2	0	0.0
	메이크업베이스	0	0.0	0	0.0	1	0.1	2	0.3	1	0.1	0	0.0
손발톱용제품류(11건)	매니큐어	1	0.1	0	0.0	1	0.1	1	0.1	2	0.2	3	0.3
어린이용제품류(38건)	어린이용화장품	4	0.5	2	0.2	10	1.1	4	0.5	6	0.7	8	0.9
염모용제품류(364건)	염색제	34	4.4	45	5.5	40	4.5	35	4.8	36	4.1	47	5.3
치약(122건)	치약	19	2.5	26	3.2	10	1.1	11	1.5	10	1.1	11	1.2
화장품세트(1642건)	화장품세트	152	19.8	161	19.6	192	21.8	145	19.8	220	24.8	220	24.6
	총합계	768	100.0	820	100.0	880	100.0	734	100.0	887	100.0	885	100.0

대분류	소분류품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합계	
		사래수	비율(%)	사래수	비율(%)	사래수	비율(%)	사래수	비율(%)	사래수	비율(%)	사래수	비율(%)	사래수	비율(%)
기능성화장품(77건)	선텐·선스크린화장품	7	0.9	5	0.6	3	0.4	1	0.2	2	0.3	5	0.6	85	0.9
기초화장용제품류 (454건)	영양크림류	12	1.5	12	1.5	15	1.9	12	2.1	24	3.1	20	2.5	203	2.1
	마사지류	24	3.0	20	2.5	29	3.7	16	2.7	23	3.0	27	3.4	276	2.9
	팩류	14	1.7	5	0.6	9	1.1	9	1.5	10	1.3	9	1.1	95	1.0
	영양오일류	0	0.0	2	0.2	4	0.5	2	0.3	2	0.3	4	0.5	24	0.3
	세안류	4	0.5	2	0.2	1	0.1	0	0.0	0	0.0	2	0.2	16	0.2
기타일반화장품 (3597건)	기타일반화장품	404	50.0	345	43.1	370	46.7	266	45.7	364	47.0	363	45.3	4590	48.1
눈화장용제품류(25건)	마스카라	0	0.0	0	0.0	0	0.0	0	0.0	1	0.1	0	0.0	6	0.1
	아이라이너	0	0.0	0	0.0	1	0.1	0	0.0	1	0.1	1	0.1	14	0.1
	아이섀도	1	0.1	0	0.0	0	0.0	0	0.0	0	0.0	0	0.0	8	0.1
두발용제품류(509건)	샴푸	38	4.7	53	6.6	37	4.7	29	5.0	40	5.2	53	6.6	429	4.5
	헤어크림	3	0.4	5	0.6	2	0.3	6	1.0	6	0.8	4	0.5	66	0.7
	발모제	4	0.5	2	0.2	1	0.1	4	0.7	6	0.8	6	0.7	47	0.5
	탈모제	10	1.2	7	0.9	8	1.0	10	1.7	10	1.3	15	1.9	99	1.0
	파마약	3	0.4	1	0.1	5	0.6	0	0.0	2	0.3	0	0.0	30	0.3
	헤어린스	3	0.4	6	0.7	1	0.1	1	0.2	2	0.3	7	0.9	20	0.2
	헤어스프레이	1	0.1	5	0.6	4	0.5	2	0.3	1	0.1	1	0.1	23	0.2
	비듬제거제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1	0.0
면도용제품류(5건)	면도용크림	1	0.1	1	0.1	1	0.1	0	0.0	3	0.4	0	0.0	6	0.1
	면도용로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면도용비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목욕용,세정용제품류(117건)	화장비누	5	0.6	7	0.9	6	0.8	10	1.7	8	1.0	10	1.2	85	0.9
	화장수류	5	0.6	2	0.2	1	0.1	2	0.3	1	0.1	3	0.4	31	0.3
	바디클렌저	2	0.2	6	0.7	3	0.4	3	0.5	3	0.4	4	0.5	41	0.4
	목욕용오일	2	0.2	0	0.0	1	0.1	2	0.3	2	0.3	1	0.1	9	0.1
	거품입욕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방향용제품류(207건)	향수	16	2.0	18	2.2	18	2.3	18	3.1	25	3.2	13	1.6	263	2.8
보건위생용품기타 (97건)	보건위생용품기타	7	0.9	28	3.5	20	2.5	15	2.6	13	1.7	16	2.0	141	1.5
보건위생용품세트 (20건)	보건위생용품세트	0	0.0	6	0.7	4	0.5	4	0.7	2	0.3	2	0.2	28	0.3
색조화장용제품류 (99건)	립스틱	10	1.2	8	1.0	6	0.8	13	2.2	10	1.3	5	0.6	92	1.0
	파운데이션	0	0.0	3	0.4	2	0.3	0	0.0	1	0.1	2	0.2	25	0.3
	파우더	0	0.0	0	0.0	1	0.1	1	0.2	2	0.3	2	0.2	13	0.1
	메이크업베이스	1	0.1	0	0.0	0	0.0	0	0.0	1	0.1	0	0.0	6	0.1
손발톱용제품류(11건)	매니큐어	2	0.2	0	0.0	1	0.1	0	0.0	1	0.1	0	0.0	12	0.1
어린이용제품류(38건)	어린이용화장품	1	0.1	0	0.0	3	0.4	4	0.7	6	0.8	11	1.4	59	0.6
염모용제품류(364건)	염색제	37	4.6	40	5.0	50	6.3	32	5.5	33	4.3	26	3.2	455	4.8
치약(122건)	치약	13	1.6	13	1.6	9	1.1	4	0.7	10	1.3	8	1.0	144	1.5
화장품세트(1642건)	화장품세트	177	21.9	199	24.8	176	22.2	116	19.9	159	20.5	181	22.6	2098	22.0
총합계		808	100.0	801	100.0	792	100.0	582	100.0	774	100.0	802	100.0	9543	100.0

- 1-12월 화장품 소분류 품목별 하자내용을 살펴보면 기타(3,459건) > 부작용(874건) > 청약철회 거부(783건) > 효능.효과 미흡(421건) 등이었음.

[표] 화장품 월별 하자내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기타	414	53.9	327	39.9	328	37.3	258	35.1	297	33.5	309	34.5
미성년자 계약	2	0.3	3	0.4	2	0.2	2	0.3	1	0.1	1	0.1
부작용	96	12.5	81	9.9	90	10.2	88	12.0	92	10.4	79	8.8
부패, 변질	8	1.0	9	1.1	3	0.3	3	0.4	8	0.9	7	0.8
유통기한 경과, 변조	10	1.3	10	1.2	13	1.5	7	1.0	6	0.7	15	1.7
이물혼입	8	1.0	10	1.2	9	1.0	5	0.7	5	0.6	3	0.3
청약철회 거부	84	10.9	81	9.9	82	9.3	57	7.8	93	10.5	77	8.6
효능.효과 미흡	55	7.2	32	3.9	41	4.7	33	4.5	29	3.3	39	4.4
비어 있음	91	11.8	267	32.6	312	35.5	281	38.3	356	40.1	365	40.8
총합계	768	100.0	820	100.0	880	100.0	734	100.0	887	100.0	895	100.0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기타	261	32.3	246	30.7	284	35.9	211	36.3	260	63.7	264	32.9	3459	36.2
미성년자 계약	5	0.6	4	0.5	2	0.3	2	0.3	0	0.0	5	0.6	29	0.3
부작용	71	8.8	76	9.5	64	8.1	31	5.3	50	12.3	56	7.0	874	9.2
부패, 변질	6	0.7	9	1.1	3	0.4	3	0.5	3	0.7	3	0.4	65	0.7
유통기한 경과, 변조	5	0.6	11	1.4	8	1.0	9	1.5	9	2.2	9	1.1	112	1.2
이물혼입	5	0.6	4	0.5	0	0.0	5	0.9	4	1.0	4	0.5	62	0.6
청약철회 거부	54	6.7	58	7.2	52	6.6	43	7.4	51	12.5	51	6.4	783	8.2
효능.효과 미흡	41	5.1	30	3.7	37	4.7	18	3.1	31	7.6	35	4.4	421	4.4
비어 있음	360	44.6	363	45.3	342	43.2	260	44.7	366	0.0	375	46.8	3738	39.2
총합계	808	100.0	801	100	792	100.0	582	100.0	774	100.0 0	802	100.0	9543	100.0

-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유를 분석해보면, 청약철회가 2,280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물품/용역) 2,123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550건, 단순문의·상담 1,10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월별 상담이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AS불만	11	1.4	5	0.6	3	0.3	2	0.3	3	0.3	7	0.8
가격.요금	12	1.6	15	1.8	13	1.5	7	1.0	12	1.4	15	1.7
거래관행	20	2.6	23	2.8	17	1.9	14	1.9	17	1.9	21	2.3
계약불이행(불 완전이행)	61	7.9	77	9.4	80	9.1	67	9.1	74	8.3	71	7.9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123	16.0	115	14.0	140	15.9	116	15.8	160	18.0	134	15.0
단순문의.상담	89	11.6	102	12.4	101	11.5	78	10.6	111	12.5	107	12.0
무능력자계약	1	0.1	2	0.2	4	0.5	1	0.1	0	0.0	1	0.1
법.제도	6	0.8	6	0.7	4	0.5	3	0.4	8	0.9	3	0.3
부당채권추심	1	0.1	0	0.0	2	0.2	3	0.4	2	0.2	4	0.4
부당행위	41	5.3	46	5.6	42	4.8	25	3.4	39	4.4	44	4.9
안전(제품/시 설)	35	4.6	37	4.5	44	5.0	28	3.8	40	4.5	41	4.6
약관	5	0.7	3	0.4	7	0.8	4	0.5	7	0.8	3	0.3
이자.수수료	0	0.0	6	0.7	4	0.5	2	0.3	3	0.3	8	0.9
청약철회	190	24.7	189	23.0	232	26.4	175	23.8	212	23.9	212	23.7
표시.광고	23	3.0	21	2.6	16	1.8	12	1.6	15	1.7	23	2.6
품질(물품/용 역)	150	19.5	173	21.1	171	19.4	197	26.8	184	20.7	201	22.5
총합계	768	100.0	820	100.0	880	100.0	734	100.0	887	100.0	895	100.0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AS불만	2	0.2	3	0.4	3	0.4	9	1.5	5	0.6	4	0.5	57	0.6
가격.요금	17	2.1	8	1	11	1.4	13	2.2	8	1.0	11	1.4	142	1.5
거래관행	20	2.5	12	1.5	18	2.3	8	1.4	13	1.7	9	1.1	192	2.0
계약불이행 (불완전이행)	68	8.4	69	8.6	86	10.9	66	11.3	81	10.5	91	11.3	891	9.3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131	16.2	129	16.1	120	15.2	107	18.4	136	17.6	139	17.3	1550	16.2
단순문의.상담	83	10.3	88	11	93	11.7	57	9.8	93	12.0	101	12.6	1103	11.6
무능력자계약	1	0.1	2	0.2	2	0.3	2	0.3	0	0.0	2	0.2	18	0.2
법.제도	5	0.6	3	0.4	4	0.5	3	0.5	5	0.6	8	1.0	58	0.6
부당채권추심	1	0.1	0	0	0	0.0	3	0.5	1	0.1	2	0.2	19	0.2
부당행위	30	3.7	25	3.1	33	4.2	19	3.3	36	4.7	33	4.1	413	4.3
안전(제품/시 설)	34	4.2	43	5.4	34	4.3	18	3.1	27	3.5	26	3.2	407	4.3
약관	3	0.4	6	0.7	1	0.1	4	0.7	2	0.3	4	0.5	49	0.5
이자.수수료	6	0.7	6	0.7	2	0.3	1	0.2	1	0.1	3	0.4	42	0.4
청약철회	206	25.5	192	24	182	23.0	134	23.0	180	23.3	176	21.9	2280	23.9
표시.광고	16	2.0	19	2.4	18	2.3	7	1.2	16	2.1	12	1.5	198	2.1
품질(물품/용 역)	185	22.9	196	24.5	185	23.4	131	22.5	170	22.0	180	22.4	2123	22.2
비어있음											1	0.1		
총합계	808	100.0	801	100.0	792	100.0	582	100.0	774	100.0	802	100.0	9543	100.0

-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면, 기타정보제공이 2,4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쟁해결기준설명이 2,355건, 법/제도설명이 1,8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월별 처리결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계약이행	8	1.0	15	1.8	16	1.8	19	2.6	20	2.3	15	1.7
계약해제, 해지	27	3.5	16	2.0	31	3.5	25	3.4	35	3.9	17	1.9
교환	8	1.0	6	0.7	4	0.5	6	0.8	11	1.2	2	0.2
기타정보제공	201	26.2	233	28.4	214	24.3	170	23.2	193	21.8	239	26.7
배상	4	0.5	6	0.7	7	0.8	6	0.8	3	0.3	7	0.8
법, 제도설명	151	19.7	146	17.8	159	18.1	123	16.8	176	19.8	185	20.7
부당행위시정	6	0.8	10	1.2	6	0.7	10	1.4	8	0.9	12	1.3
분쟁해결기준설명	202	26.3	214	26.1	210	23.9	188	25.6	225	25.4	237	26.5
비 소비자상담처리	3	0.4	9	1.1	16	1.8	14	1.9	9	1.0	14	1.6
사업자상담실안내	2	0.3	3	0.4	1	0.1	0	0.0	1	0.1	1	0.1
상품정보제공	31	4.0	36	4.4	56	6.4	38	5.2	57	6.4	49	5.5
수리보수	0	0.0	1	0.1	0	0.0	0	0.0	1	0.1	0	0.0
시장정보제공	40	5.2	25	3.0	35	4.0	31	4.2	26	2.9	19	2.1
이관완료(피해처리후)	0	0.0	0	0.0	0	0.0	1	0.1	0	0.0	0	0.0
자율분쟁이관	0	0.0	0	0.0	0	0.0	0	0.0	1	0.1	0	0.0
시험결과, 의류심의의뢰	1	0.1	2	0.2	0	0.0	0	0.0	1	0.1	0	0.0
처리불능	11	1.4	8	1.0	12	1.4	6	0.8	9	1.0	4	0.4
처리중	8	1.0	4	0.5	13	1.5	12	1.6	21	2.4	17	1.9
취하, 중지	2	0.3	4	0.5	4	0.5	8	1.1	8	0.9	6	0.7
타기관알선 이관	4	0.5	1	0.1	2	0.2	0	0.0	1	0.1	1	0.1
피해구제접수안내	15	2.0	17	2.1	15	1.7	13	1.8	18	2.0	15	1.7
합의불성립	20	2.6	25	3.0	31	3.5	30	4.1	27	3.0	24	2.7
환급	24	3.1	39	4.8	48	5.5	34	4.6	36	4.1	31	3.5
총합계	768	100.0	820	100.0	880	100.0	734	100.0	887	100.0	885	100.0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계약이행	14	1.7	7	0.9	18	2.3	16	2.7	13	1.7	20	2.5	181	1.9
계약해제, 해지	19	2.4	28	3.5	20	2.5	16	2.7	21	2.7	25	3.1	280	2.9
교환	7	0.9	5	0.6	5	0.6	0	0.0	5	0.6	1	0.1	60	0.6
기타정보제공	202	25.0	214	26.7	196	24.7	168	28.9	220	28.4	217	27.1	2467	25.9
배상	4	0.5	7	0.9	5	0.6	1	0.2	4	0.5	6	0.7	60	0.6
법, 제도설명	160	19.8	139	17.4	166	21.0	97	16.7	155	20.0	163	20.3	1820	19.1
부당행위시정	8	1.0	11	1.4	5	0.6	4	0.7	7	0.9	7	0.9	94	1.0
분쟁해결기준설명	198	24.5	211	26.3	208	26.3	130	22.3	155	20.0	177	22.1	2355	24.7
비 소비자상담처리	16	2.0	14	1.7	7	0.9	4	0.7	9	1.2	5	0.6	120	1.3
사업자상담실안내	0	0.0	0	0	1	0.1	0	0.0	1	0.1		0.0	10	0.1
상품정보제공	50	6.2	55	6.9	29	3.7	33	5.7	42	5.4	48	6.0	524	5.5
수리보수	0	0.0	0	0	0	0.0	0	0.0	1	0.1	1	0.1	4	0.0
시장정보제공	17	2.1	18	2.2	18	2.3	11	1.9	13	1.7	17	2.1	270	2.8
이관완료(피해처리후)	0	0.0	0	0	0	0.0	0	0.0	0	0.0	0	0.0	1	0.0
자율분쟁이관	1	0.1	0	0	0	0.0	0	0.0	0	0.0	0	0.0	2	0.0
시험결과, 의류심의의뢰	1	0.1	0	0	1	0.1	0	0.0	1	0.1	0	0.0	7	0.1
처리불능	12	1.5	5	0.6	6	0.8	8	1.4	11	1.4	5	0.6	97	1.0
처리중	19	2.4	6	0.7	24	3.0	12	2.1	19	2.5	16	2.0	171	1.8
취하, 중지	3	0.4	2	0.2	4	0.5	4	0.7	1	0.1	4	0.5	50	0.5
타기관알선 이관	3	0.4	1	0.1	2	0.3	0	0.0	3	0.4	1	0.1	19	0.2
피해구제접수안내	19	2.4	24	3	23	2.9	24	4.1	35	4.5	33	4.1	251	2.6
합의불성립	20	2.5	21	2.6	20	2.5	21	3.6	23	3.0	24	3.0	286	3.0
환급	35	4.3	33	4.1	34	4.3	33	5.7	35	4.5	31	3.9	413	4.3
미어있음											1	0.1		
총합계	808	100.0	801	100	792	100.0	582	100.0	774	100.00	802	100.0	9543	100.0

○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품목별 하자내용을 분석해보면, 기타 3,4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874건, 청약철회 거부 783건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하자내용

소분류품목	기타	미성년 자 계약	부작용	부패, 변질	유통기 한 경과, 변조	이물혼 입	청약철회 거부	효능.효과 미흡	비어있 음 ¹⁾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882	11	423	35	49	31	342	118	1,658	4,549
립스틱	46	0	2	1	0	0	0	4	36	89
마사지류	92	0	14	1	0	0	18	11	138	274
마스카라	4	0	0	0	1	0	1	0	0	6
매니큐어	5	0	0	0	2	0	2	1	2	12
메이크업베이스	4	0	0	0	0	0	1	0	1	6
면도용로션	0	0	0	0	0	0	0	1	0	1
면도용비누	1	0	0	0	0	0	0	0	0	1
면도용크림	3	0	0	1	0	0	0	0	2	6
목욕용오일	2	0	1	0	1	0	0	0	5	9
바디클렌저	17	0	6	3	2	1	0	2	10	41
발모제	7	0	4	0	0	0	3	19	13	46
방취제	0	0	0	0	0	0	1	0	0	1
보건위생용품기타	43	0	12	1	0	8	4	4	66	138
보건위생용품세트	12	0	2	0	0	1	0	1	11	27
비듬제거제	0	0	0	0	0	0	0	1	0	1
샴푸	112	0	35	1	6	2	40	44	185	425
선텐·선스크린화 장품	22	0	22	1	1	0	2	1	36	85
세안류	7	0	3	0	0	0	0	1	5	16
아이라이너	7	0	2	0	0	0	0	1	4	14
아이섀도	0	0	1	0	0	0	0	0	7	8
어린이용화장품	17	0	13	4	1	3	0	0	20	58
염색제	109	0	82	2	11	0	8	71	171	454
영양오일류	8	0	2	0	1	0	0	1	11	23
영양크림류	59	0	17	2	1	1	51	9	60	200
치약	48	0	14	1	10	9	8	9	45	144
탈모제	18	0	7	0	0	0	11	27	36	99
파마약	7	0	11	0	1	0	0	5	6	30
파우더	4	0	3	0	1	0	0	3	2	13
파운데이션	10	0	4	0	1	0	2	3	5	25
팩류	30	0	14	0	1	0	4	4	42	95
향수	130	0	3	3	4	1	5	12	104	282
헤어린스	6	0	2	0	1	0	0	5	6	20
헤어스프레이	2	0	3	0	0	0	1	3	14	23
헤어크림	30	0	8	0	1	0	1	7	18	65
화장비누	30	0	11	1	2	1	3	9	27	84
화장수류	10	0	7	2	0	0	0	1	11	31
화장품세트	675	18	146	6	14	4	275	43	890	2,071
총합계	3,459	29	874	65	112	62	783	421	3,738	9,543

1) 하자내용 필수입력 사항이 아니므로 비어있음 항목이 존재함.

(1) 화장품 1월 소비자상담 분석

○ 1월에 접수된 화장품 품목별 하자내용을 분석해보면, 기타일반화장품 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세트 125건, 염색제 33건, 마사지류 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하자내용 분석(1월)

소분류품목	기타	미성년 자 계약	부작용	부패, 변질	유통기 한 경과, 변조	이물혼 입	청약철회 거부	효능·효 과 미흡	(비어 있음) ²⁾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237	2	62	6	3	2	52	12		376
립스틱	4									4
마사지류	14		1				2	3		20
마스크라					1					1
매니큐어	1									1
바디클렌저	2							1		3
발모제								2		2
보건위생용품기타	4		2	1		1	1			9
보건위생용품세트	3					1				4
샴푸	11		1		1	1		4		18
선크림·선스크린화장 품			1							1
세안류			1							1
어린이용화장품	3									3
염색제	16		6		2			9		33
영양오일류			1					1		2
영양크림류	2						9			11
치약	8				3	3	2	3		19
탈모제	1						1	5		7
파마약	2		1					1		4
파우더	1									1
파운데이션	1		2							3
팩류	1									1
향수	12			1				1		14
헤어크림	2		4					2		8
화장비누	2							3		5
화장수류	1									1
화장품세트	86		14				17	8		125
총합계	414	2	96	8	10	8	84	55	91	768

2) 하자내용 필수입력 사항이 아니므로 비어있음 항목이 존재함.

○ 1월 화장품 분류 품목별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190건) > 품질(150건) > 계약해제해지/위약금(123건) > 단순문의상담(8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상담사유 분석(1월)

소분류품목	AS 불만	가격, 요금	거래 관행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	계약 해제, 해지/ 위약금	단순 문의의 상담	무능력 자계약	법, 제도	부당 채권추심	부당 행위	안전(제품/ 시설)	약관	청약 철회	표시, 광고	품질(물품/ 용역)	총합 계
기타일반화장품	3	9	10	30	76	53	1	1		27	23		107	7	70	417
립스틱	1					1		1		2				1	1	7
마사지류			2	2	7	4						3	1		3	22
마스크라															1	1
매니큐어					1											1
바디클렌저				2										1		3
발모제				1									1		1	3
보건위생용품기 타	1					1				1	1	1	2		5	12
보건위생용품세 트					1	1								1	2	5
샴푸	2	1	1	3	3	3				1	1			2	5	22
선풍·선스크린 화장품															1	1
세안류											1					1
어린이용화장품				1						1	1				1	4
염색제				4	2	3					1		4	6	14	34
영양오일류											1				2	3
영양크림류					2					1			9		2	14
치약			2		1	1		1		1	2		3		8	19
탈모제				4									1		2	7
파마약				1		1					1				1	4
파우더			1													1
파운데이션								1			1				1	3
팩류						1										1
향수				1	2								5	2	5	15
헤어크림	1					1				1	1		3		2	9
화장비누						1						1		1	3	6
화장수류															1	1
화장품세트	3	2	4	12	28	18		2	1	6	1		54	2	19	152
총합계	11	12	20	61	123	89	1	6	1	41	35	5	190	23	150	768

○ 1월에 접수된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면, 분쟁해결기준 설명이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정보제공 201건, 법·제도설명 1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처리결과 분석(1월)

소분류품목	계약이행	계약해제, 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사업자상담실안내	상품정보제공	시장정보제공	시험결과, 의류심의의뢰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 중지	타기관알선, 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6	16	2	118	1	90	5	108		2	14	16	1	7	5	1	1	4	7	13	417
립스틱			1	5										1							7
마사지류			1	8				10	1			1						1			22
마스크라				1																	1
매니큐어			1																		1
바디클렌저						2								1							3
발모제								3													3
보건위생용품기타		1		1				7				1			1			1			12
보건위생용품세트		1		2		1					1										5
샴푸	1	1	1	3		2		4	1		4	2			1				1	1	22
선풍·선스크린화장품								1													1
세안류												1									1
어린이용화장품				3															1		4
염색제		2	1	10		3		9				1						1	5	2	34
영양오일류						1						1								1	3
영양크림류		1		1		6		5											1		14
치약		1		3		5		2			2	3			1				1	1	19
탈모제				1		2		2				1							1		7
파마약				1							2						1				4
파우더								1													1
파운데이션								1						1				1			3
팩류				1																	1
향수			1	4		3		4			1									2	15
헤어크림				2		1		3			2									1	9
화장비누				4	1														1		6
화장수류											1										1
화장품세트	1	4		33	2	35	1	42	1		4	13		1		1	2	7	2	3	152
총합계	8	27	8	201	4	151	6	202	3	2	31	40	1	11	8	2	4	15	20	24	768

<화장품 관련 1월 상담사례>

○ 얼굴이 당기고 주름이 생기는 기능성 앳센스건

소비자는 2016년 8월말에 제이앤코슈 카운셀러에게서 펩타이드 볼륨앳센스를 99,000원에 구입함. 피부가 촉촉해지는 기능성이라고 하여 구입했는데 얼굴이 당기고 오히려 주름이 생겼음. 카운셀러에게 이의제기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카운셀러와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 본사에 민원 접수하고자 문의함.

○ 헤어 메니큐어 부작용 사례 제보

신청인의 딸이 인터넷으로 헤어제품을 구매함. 2017년 1월 9일~10일에 수령하였으며, (주)디어스 라이브노블펠 메니큐어 라 퍼플칼라를 1월 19일에 처음 사용함. 머리에 염색약처럼 발랐는데 두피가 따가워 완성시간 전 세척을 함. 세척 중에 통증이 심하였고 건조하면서도 두피의 통증이 더 심해져 청력에 이상이 생기고 호흡곤란이 일어남. 응급실가서 수액으로 진통제를 맞고 돌아왔으나 하루가 지나니 두피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함. 티몬사이트를 통해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예정인데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보전화 함.

○ 존슨즈 액티브키즈 샴푸 부작용 관련 문의

소비자는 1월 7일 이마트에서 존슨즈 액티브 키즈샴푸를 구입하였음. 어제 사용을 하였는데 아이 얼굴에 조그마한 좁쌀 같은 것이 생겨남.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미국에서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문제가 되는 제품이라고 함. 이마트에 전화하니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있음. 제품이 미국에서 문제이지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함. 이마트에서는 제품을 세일해서 판매를 하고 있음. 가슴기처럼 차후에 문제가 될수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판매를 하고 있음.

○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염색제 효과 미흡 처벌 요구

소비자는 2016년 12월 해당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염색제를 구입함. 광고시 염색 후 5분 후면 염색이 가능하다고 함. 염색 후 광고와 다르게 염색이 되지 않음.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한 바, 죄송하다고만 함. 허위과장광고하는 해당 홈쇼핑 고발 등 처벌을 요구함.

○ 샴푸 유해물질검출 불만

12월13일 CJ 오쇼핑 에코글램 샴푸를 구매하고 사용함. 아이들도 사용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여 구매한 것으로 코코넛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지만 인체에 위해성분이 있다고 하였음. 시험검사가 분명해야한다고 봄.

(2) 화장품 2월 소비자상담 분석

- 2월에 접수된 화장품 품목별 하자내용을 분석해보면, 기타일반화장품이 4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세트 161건, 염색제 45건, 샴푸 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하자내용 분석(2월)

소분류품목	기타	미성년 자 계약	부작용	부패, 변질	유통기 한 경과, 변조	이물혼 입	청약철회 거부	효능.효과 미흡	(비어 있음) ³⁾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83	1	44	5	7	4	36	7	125	412
립스틱	2		1					1	3	7
마사지류	9		2				3		6	20
마스카라	1									1
바디클렌저	1					1		1		3
탈모제	1								1	2
보건위생용품기타	2		1				1		2	6
보건위생용품세트	1		1							2
샴푸	11		3			1	2	4	20	41
선크림·선크림화장 품			2						1	3
세안류			1							1
아이라이너	2							1	1	4
어린이용화장품			1	1						2
염색제	14		4		1		1	9	16	45
영양크림류	9		3		1		6		1	20
치약	14		2			2	2	1	5	26
탈모제	3		1				1		2	7
파운데이션	1								1	2
팩류			1				1	1	4	7
향수	13						1		6	20
헤어스프레이			1				1		2	4
헤어크림	5							1	4	10
화장비누	5		2	1			1	1	2	12
화장수류	1		1							2
화장품세트	49	2	10	2	1	2	25	5	65	161
총합계	327	3	81	9	10	10	81	32	267	820

3) 하자내용 필수입력 사항이 아니므로 비어있음 항목이 존재함.

- 2월 화장품 소분류 품목별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189건) > 품질(173건) > 계약해제해지/위약금(115건) > 단순문의상담(10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상담사유 분석(2월)

소분류품목	AS 불만	가격, 요금	거래 관행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	계약 해제, 해지/ 위약금	단순 문의, 상담	무능력 자계약	법, 제도	부당 행위	안전(제품/ 시설)	약관	이자, 수수료	청약 철회	표시, 광고	품질(물품/ 용역)	총합 계
기타일반화장품	3	7	13	31	51	60	1	2	29	21			113	6	75	412
립스틱				2		2							1	1	1	7
마사지류			2	4	5	2				1			3		3	20
마스카라					1											1
바디클렌저				1										1	1	3
발모제				1										1		2
보건위생용품기 타		1		1									1	1	2	6
보건위생용품세 트		1													1	2
샴푸				8	5	4			3	3			7		11	41
선풍·선스크린 화장품										1					2	3
세안류															1	1
아이라이너						1					1				2	4
어린이용화장품										2						2
염색제		2	1	1	4	2	1		1	3	1	2	6	5	16	45
영양크림류				1	2	2			2				7	1	5	20
치약		1	1	3	3	4			1	3		1		1	8	26
탈모제			1		3					1			1		1	7
파운데이션				1		1										2
팩류						1							2		4	7
향수	1			5		4			1	1			4	1	3	20
헤어스프레이						1						1	1		1	4
헤어크림				3	3				2				1		1	10
화장비누		2		1		1							2		6	12
화장수류													1		1	2
화장품세트	1	1	5	14	38	17		4	7	1	1	2	39	3	28	161
총합계	5	15	23	77	115	102	2	6	46	37	3	6	189	21	173	820

○ 2월에 접수된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면, 기타정보제공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쟁해결기준 설명 214건, 법·제도설명 14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처리결과 분석(2월)

소분류품목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사업자상담실안내	상품정보제공	수리보수	시장정보제공	시험결과, 의류심의의뢰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7	9	3	130	1	90	6	96	7		14	1	6	1	5	2	2	1	6	11	14	412
립스틱	1			2		1		2											1			7
마사지류				7		3		4		1									1	1	3	20
마스카라								1														1
바디클렌저				1						1		1										3
발모제				1		1																2
보건위생용품 기타				1			1	1		1					1						1	6
보건위생용품 세트				1																1		2
샴푸	2	2	2	6	1	3		11		1		2			2				2	1	6	41
선풍·선스크린 화장품								2												1		3
세안류				1																		1
아이라이너								4														4
어린이용화장품				1									1									2
염색제	2			10	3	4		13		2		1							2	2	6	45
영양크림류		1		3		5		6		4										1		20
치약				11		3	2	2		2	2		1						1	1	1	26
탈모제				3				1									1		1	1		7
파운데이션	1								1													2
팩류						1		4												2		7
향수				6		2		7					2	1							2	20
헤어스프레이				1				1													2	4
헤어크림		1		3		2		1						1						1	1	10
화장비누	1			4		1		5					1									12
화장수류						1		1														2
화장품세트	1	3	1	41	1	29	1	52	1	1	10		10		1		1		3	2	3	161
총합계	15	16	6	233	6	146	10	214	9	3	36	1	25	2	8	4	4	1	17	25	39	820

○ 3월에 접수된 화장품 품목별 하자내용을 분석해보면, 기타일반화장품이 435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세트 192건, 염색제 40건, 샴푸 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하자내용 분석(3월)

소분류품목	기타	미성년 자 계약	부작용	부패, 변질	유통기 한 경과, 변조	이물혼 입	청약철회 거부	효능.효과 미흡	(비어 있음) ⁴⁾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79	2	43	2	5	5	40	18	141	435
립스틱	1							1	5	7
마사지류	7		1	1			2	2	14	27
마스크라	1									1
매니큐어							1			1
메이크업베이스	1									1
면도용로션								1		1
면도용비누	1									1
바디클렌저	2		1						1	4
발모제	3							1		4
보건위생용품기타	3					1			2	6
보건위생용품세트	1									1
샴푸	6		7		1		4	3	13	34
선텐·선스크린화장 품	2		1						3	6
아이라이너	1									1
아이섀도									1	1
어린이용화장품	1		2			1			6	10
염색제	17		11		1			3	8	40
영양오일류	1				1					2
영양크림류	5		2				3	2	7	19
치약	3		1		1	2		1	2	10
탈모제							2		3	5
파마약	3		2		1				1	7
파우더	2									2
파운데이션							2	1		3
팩류	4		1					1	3	9
향수	21		1					2	9	33
헤어스프레이									1	1
헤어크림	2		1					1		4
화장비누	5		1						2	8
화장수류	1		2						1	4
화장품세트	55		13		3		28	4	89	192
총합계	328	2	90	3	13	9	82	41	312	880

4) 하자내용 필수입력 사항이 아니므로 비어있음 항목이 존재함.

- 3월 화장품 소분류 품목별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232건) > 품질(171건) > 계약해제해지/위약금(140건) > 단순문의·상담(10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상담사유 분석(3월)

소분류품목	AS 불만	가격, 요금	거래 관행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 해제, 해지/ 위약금	단순 문의, 상담	무능력 자계약	법, 제도	부당 채권추심	부당 행위	안전(제품/ 시설)	약관	이자, 수수료	청약 철회	표시, 광고	품질(물품/ 용역)	총합 계
기타일반화장품	2	6	13	24	68	65	3	2	1	26	18	4	2	112	6	83	435
립스틱				2						1				2		2	7
마사지류		2		4	5	4				1		1		8		2	27
마스카라				1													1
매니큐어														1			1
메이크업베이스				1													1
면도용로션											1						1
면도용비누				1													1
바디클렌저					1	1								1		1	4
발모제				1	3												4
보건위생용품기타						2				1				1		2	6
보건위생용품세트										1							1
샴푸		1		6	4	4					2	1		6	3	7	34
선풍·선스크린화장품					1	1				1	1				1	1	6
아이라이너				1													1
아이섀도					1												1
어린이용화장품			1		2	1					1					5	10
염색제		2		5	2	2				3	4		1	3		18	40
영양오일류														1		1	2
영양크림류			1	1	1					1				10		5	19
치약				1	2	1					2					4	10
탈모제				1	1									3			5
파마약				1	1	4					1						7
파우더								1						1			2
파운데이션														2		1	3
팩류				1		3					1	1				3	9
향수				7	6	4				1	1			10		4	33
헤어스프레이																1	1
헤어크림											1			1	1	1	4
화장비누				4			1				1					2	8
화장수류						1					1					2	4
화장품세트	1	2	2	18	42	8		1	1	6	9		1	70	5	26	192
총합계	3	13	17	80	140	101	4	4	2	42	44	7	4	232	16	171	880

- 3월에 접수된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면, 기타정보제공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쟁해결기준설명 210건, 법·제도설명 15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처리결과 분석(3월)

소분류품목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사업자상담실안내	상품정보제공	시장정보제공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5	14	2	112	3	90	4	100	7	1	26	18	5	7	2	2	3	15	19	435
립스틱				2		1		1			1								2	7
마사지류	1		1	9		3		7	1		1		1				1	1	1	27
마스카라				1																1
매니큐어								1												1
메이크업베이스											1									1
면도용로션						1														1
면도용비누								1												1
바디클렌저				1				2											1	4
발모제		1		2				1												4
보건위생용품기타				2		1		1			1	1								6
보건위생용품세트											1									1
샴푸	2		1	8		4		7	2		2	2	1	2			1		2	34
선풍·선풍스크린화장품				1				3											2	6
아이라이너											1									1
아이세도											1									1
어린이용화장품				2				5			1	1							1	10
염색제	1	1		12		1		10	1		2		2	1				3	6	40
영양오일류				1															1	2
영양크림류		1		4		6		6			1	1								19
치약				3		3		1			1							2		10
탈모제		2				2												1		5
파마약				2		1		3			1									7
파우더						1		1												2
파운데이션						2	1													3
팩류				3	1	1		1			1							1	1	9
향수		1		6	1	3		10	1		2	2					1	2	4	33
헤어스프레이																			1	1
헤어크림		1		1								1							1	4
화장비누	2			2					2			1		1						8
화장수류				1				1									1		1	4
화장품세트	5	10		39	2	39	1	48	2		12	8	3	2	2		8	6	5	192
총합계	16	31	4	214	7	159	6	210	16	1	56	35	12	13	4	2	15	31	48	880

<화장품 관련 2월~3월 상담사례>

○ 화장품 이물 피해보상 문의

소비자는 2017년 1월경 인터넷 리아네이처에서 크림앤로션 29,400원에 구입함. 임신한 배우자가 사용하던 중 화장품 안에 검은 이물이 발견됨. 업체에서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함. 교환이 아닌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궁금함.

○ 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 문의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화장품 구입, 99,000원 결제함. 받은 지 5일 후에 발라보니 얼굴이 따끔거리는 증상으로 1월 24일에 사진을 보냈음. 업체에서는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하고 종합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효과가 없어서 2월 7일에 입원하고 2월 15일에 퇴원했으나 지금도 치료받고 있음. 입원치료비 및 응급실비용 등 보상받고 싶음. (본사: 인트로덤, 제조: 한솔생명주식회사, 제조판매원: 삼성제약(주))

○ 탈모기능샴푸의 부작용

소비자는 2016년 11월 인터넷에서 카리원알지의 탈모기능성샴푸를 1개월 무료체험 이벤트로 2세트 398,000원 구입함. 1~2주 사용하니 부작용 발생하여 업체 문의 하니 천연제품으로 3~6개월 사용하되 솔루션 순서를 바꿔서 사용하라고 권유함. 사용 1개월 후 진물, 비듬과 가려움으로 병원 방문하니 의사는 제품의 문제라고 함. 2월 28일 환불을 요구하니 거부함. 대응방법을 문의함.

○ 어린이용화장품, 아기크림에 플라스틱조각이 나와 문의

소비자는 2016년 12월에 옥션을 통해서 캘리포니아베이비 크림을 구매함. 그 당시 1+1 이었고, 113g 이라 한 통을 다 쓰고 최근 두통을 오픈했는데, 계속해서 플라스틱조각이 나와 업체에 전화해 교환이나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7일이 경과하였고, 식약처에서 정상승인이 난 상품이라며 교환, 환불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임. 크림사진이랑 구매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로 보내라고 했는데, 어디로 보내야할지 문자메세지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문자메세지를 보내주지 않음.

○ 천년헤라 염색제 사용 후 피부트러블 발생으로 보상요청

신청인의 아내가 천년 헤라 염색제를 사용하고 얼굴 쪽에 피부트러블과 피부탈색 됨. 업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함. 소견서에는 천년헤라 염색제로 추정으로 기록됨. 보상을 요청함. 회원제가 아니면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고 미용실에서는 본사에 말하라고 함. (판매업체 : 천년헤라, 제조사 김즈천년헤라)

(4) 화장품 4월 소비자상담 분석

○ 4월에 접수된 화장품 품목별 하자내용을 분석해보면, 기타일반화장품이 3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세트 145건, 염색제 35건, 향수 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하자내용 분석(4월)

소분류품목	기타	미성년 자 계약	부작용	부패, 변질	유통기 한 경과, 변조	이물혼 입	청약철회 거부	효능·효 과 미흡	(비어 있음) ⁵⁾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51	1	42		2	3	22	11	145	377
립스틱	1								2	3
마사지류	5		2						8	15
마스크라	1						1			2
매니큐어	1									1
메이크업베이스	1						1			2
목욕용오일									1	1
바디클렌저	1				1				1	3
발모제			1					1	1	3
보건위생용품기타	3					2	1	1	1	8
샴푸	8		3		1		3	1	9	25
선크림·선크림화장 품	2		1						3	6
세안류	1		1							2
아이라이너	1								1	2
어린이용화장품	1			2					1	4
염색제	5		11				2	8	9	35
영양오일류	1								2	3
영양크림류	3			1			5	1	5	15
치약	3							1	7	11
탈모제			1				1	3	1	6
파마약			2					1	1	4
파우더	1				1					2
파운데이션	2									2
팩류	2		1				1		2	6
향수	15				1		1	1	15	33
헤어스프레이									2	2
헤어크림	4							2	2	8
화장비누			2						1	3
화장수류	1		2						2	5
화장품세트	44	1	19		1		19	2	59	145
총합계	258	2	88	3	7	5	57	33	281	734

5) 하자내용 필수입력 사항이 아니므로 비어있음 항목이 존재함.

- 4월 화장품 소분류 품목별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품질(197건) > 청약철회(175건) > 계약해제·해지/위약금(116건) > 단순문의·상담(7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상담사유 분석(4월)

소분류품목	AS 불만	가격, 요금	거래 관행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단순문의, 상담	무능력자 계약	법.제도	부당채권추심	부당행위	안전(제품/ 시설)	약관	이자, 수수료	청약철회	표시, 광고	품질(물품/ 용역)	총합계
기타일반화장 품	1	4	8	28	61	46	1	1	1	18	9	1		98	2	98	377
립스틱				1	1											1	3
마사지류				2	6	2						1		4			15
마스카라														1		1	2
매니큐어				1													1
메이크업베이 스						1								1			2
목욕용오일						1											1
바디클렌저				2											1		3
발모제																3	3
보건위생용품 기타				2		1					1			2		2	8
샴푸		1		5	3	3					3			2	2	6	25
선편·선스크린				2										1		3	6
화장품 세안류				1												1	2
아이라이너				1							1						2
어린이용화장 품				1												3	4
염색제				2	4	4				1	3			2		19	35
영양오일류					1									2			3
영양크림류				2	3						3			4		3	15
치약		1	1	2	1	2							1	1	1	1	11
탈모제			1			1								1		3	6
파마약						1					1					2	4
파우더					1											1	2
파운데이션															1	1	2
팩류						1								1		4	6
향수	1	1	1	3	5	2				1				5	2	12	33
헤어스프레이				1											1		2
헤어크림				1		2								2		3	8
화장비누											2					1	3
화장수류					1					1						3	5
화장품세트			3	10	29	11		2	2	4	5	2	1	48	2	26	145
총합계	2	7	14	67	116	78	1	3	3	25	28	4	2	175	12	197	734

- 4월에 접수된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면, 분쟁해결기준설명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정보제공 170건, 법/제도설명 1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처리결과 분석(4월)

소분류품목	계약이행	계약해제, 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 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상품정보제공	시장정보제공	이관완료(피해처리후)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 중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8	14	1	97	3	71	4	97	11	20	10	1	2	4	2	4	12	16	377
립스틱				2												1			3
마사지류		1		4		1		6			1						1	1	15
마스카라				1										1					2
매니큐어				1															1
메이크업베이스									1	1									2
목욕용오일								1											1
바디클렌저														1				2	3
발모제				1		1		1											3
보건위생용품				5		1		1										1	8
기타샴푸	1		2	2	1	3	1	3		2	4		1			2	2	1	25
선편·선스크린			1	1			1	2									1		6
화장품세안류								1									1		2
아이라이너					1			1											2
어린이용화장품				1		1		1			1								4
염색제	3	1	1	6		5	1	8	2					2	1		4	1	35
영양오일류				1														2	3
영양크림류	1			4		2		3		1	1		1		1		1		15
치약				4				2		1	2			1			1		11
탈모제				1				1		1						1		2	6
파마약								3			1								4
파우더								2											2
피운데이션				1		1													2
팩류				2				3		1									6
향수				8	1	4		5		1	3			1	1	3	3	3	33
헤어스프레이	1		1																2
헤어크림	1	1		1				2		1							1	1	8
화장비누				1						2									3
화장수류				1		1		3											5
화장품세트	4	8		25		32	3	42		7	8		2	2	3	2	3	4	145
총합계	19	25	6	170	6	123	10	188	14	38	31	1	6	12	8	13	30	34	734

(5) 화장품 5월 소비자상담 분석

- 5월에 접수된 화장품 품목별 하자내용을 분석해보면, 기타일반화장품 4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세트 220건, 염색제 36건, 마사지류와 향수가 각각 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하자내용 분석(5월)

소분류품목	기타	미성년 자 계약	부작용	부패, 변질	유통기 한 경과, 변조	이물혼 입	청약철회 거부	효능·효 과 미흡	(비어 있음) ⁶⁾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65		44	7	1	4	39	12	159	431
립스틱	7								3	10
마사지류	6		2				3	1	15	27
매니큐어								1	1	2
메이크업베이스	1									1
바디클렌저	2		1						1	4
발모제	1		1					2	3	7
보건위생용품기타	1		1					1	2	5
보건위생용품세트	2									2
샴푸	9				1		5		7	22
선풍·선스크린화장품	4		4					1	6	15
세안류	1								1	2
아이라이너			2							2
아이섀도			1						4	5
어린이용화장품	1		1	1					3	6
염색제	9		11		1		1	6	8	36
영양크림류	8		4				2		11	25
치약	4					1	1		4	10
탈모제	1		1					2	3	7
파마약									1	1
파우더			2							2
파운데이션	1							1	1	3
팩류	1		1						2	4
향수	9		2		1		1		14	27
헤어크림	3				1				1	5
화장비누	1						1		2	4
화장수류	1								1	2
화장품세트	59	1	14		1		40	2	103	220
총합계	297	1	92	8	6	5	93	29	356	887

6) 하자내용 필수입력 사항이 아니므로 비어있음 항목이 존재함.

- 5월 화장품 소분류 품목별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212건) > 품질(184건) > 계약해제해지/위약금(159건) > 단순문의,상담(1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상담사유 분석(5월)

소분류품목	AS 불만	가격, 요금	거래 관행	계약 불이행 (불완전 이행)	계약 해제, 해지/ 위약금	단순 문의, 상담	법, 제도	부당 채권 추심	부당 행위	안전 (제품/ 시설)	약관	이자, 수수료	청약 철회	표시, 광고	품질 (물품/ 용역)	(비 어 있 음) ㉞	총 합 계
기타일반화장품	1	5	13	31	80	57	5		24	13	5		100	7	90		431
립스틱				1	1	2				1			3		2		10
마사지류	1			6	8	2	1		1		2		3		3		27
매니큐어						1									1		2
메이크업베이스					1												1
바디클렌저						2							1		1		4
발모제					1					1			3	1	1		7
보건위생용품기타				1	1	1				1					1		5
보건위생용품세트	1		1														2
샴푸				3	2	2			1				8		5	1	22
선크림·선크림화장품				2	2					3			2		6		15
세안류															2		2
아이라이너					1					1							2
아이섀도					1	1				1					2		5
어린이용화장품				2		1							1		2		6
염색제				3	6	3				3			1	1	19		36
영양크림류			1	3	2	1			1	3		1	9	1	3		25
치약						3			2	1			1		3		10
탈모제				2	1								1	1	2		7
파마약															1		1
파우더										1					1		2
파운데이션													1		2		3
팩류				1		1				1					1		4
향수				5	2	2			1	1			6		10		27
헤어크림				2	1									1	1		5
화장비누				1									2	1			4
화장수류						1				1							2
화장품세트		7	2	11	49	31	2	2	9	8		2	70	2	25		220
총합계	3	12	17	74	159	111	8	2	39	40	7	3	212	15	184	1	887

7) 하자내용 필수입력 사항이 아니므로 비어있음 항목이 존재함.

○ 5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분쟁해결기준설명 225건, 기타정보제공 192건, 법.제
도설명 176건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처리결과 분석(5월)

소분류품목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사업자상담실안내	상품정보제공	수리보수	시장정보제공	시험결과.의류심의의뢰	자율분쟁이관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9	11	6	88	3	91	2	117	5	1	33		8		1	6	9	6		4	16	15	431
립스틱				3		1		3			1					1					1		10
마사지류				5		5		12			1						1			2		1	27
매니큐어				1									1										2
메이크업베이스								1															1
바디클렌저				2		1											1						4
발모제				2				1					1						1			2	7
보건위생용품기타			1	1		2		1															5
보건위생용품세트				1				1															2
삼푸	1			5		5		2	1				2							1	2	2	21
선텐·선스크린화장품	1			2				8			1						1	1				1	15
세안류			1				1																2
아이라이너				1				1															2
아이섀도				2				2													1		5
어린이용화장품				2		1	1													1	1		6
염색제	3	3		7		3	1	9	2								3			1	1	3	36
영양크림류	2	3		4		3		8			3		1			1							25
치약				5		1		1			1		2										10
탈모제				3				2			1							1					7
파마약								1															1
파우더								2															2
파운데이션				1				1													1		3
팩류				2		1					1												4
향수	1			6		3		8			1						1			1	1	5	27
헤어크림						1		1			2									1			5
화장비누						1	1	2															4
화장수류								1					1										2
화장품세트	3	18	3	49		57	2	40	1		12	1	10	1		1	5			7	4	6	220
총합계	20	35	11	192	3	176	8	225	9	1	57	1	26	1	1	9	21	8	1	18	27	36	886

<화장품 관련 4월~5월 상담사례>

○ 티몬에서 구입한 루비셀화장품 트러블 생겨 환불 요청

소비자는 티몬에서 루비셀이라는 화장품 구매함. 한 달 정도 사용했는데, 가렵고 트러블이 생김. 그전에도 사용했던 제품이라 화장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음. 그 전에는 다른 곳에서 구매했었고 티몬에서는 처음 구매함. 화장품을 바꿔 다른 제품을 사용했더니 트러블이 가라앉음. 트러블이 가라앉아 다시 루비셀 화장품 사용하였더니 트러블이 재발됨. 화장품의 문제라 판단됨에 티몬에 환불 요청함. 판매전 충분히 성분검사를 한 제품이라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 함. 성분이 가 짜라는 증빙을 하거나 화장품으로 인해 트러블이 생겼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음. 제품에 문제가 있어 티몬에 판매자와의 중재를 요구했는데,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함.

○ NS홈쇼핑 판매하는 리프팅 테이프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문의

소비자는 홈쇼핑 구입한 리프팅 테이프를 붙였음. 턱에 두 군데가 물집이 생기고 살이 벗겨짐. (48900원 상당 제품) 홈쇼핑에 이의를 제기하였음. 업체가 의사소견서를 요구하여 병원에 내원을 하여 소견서를 업체에 보냄. 업체는 다시 병원비 영수증을 요구함. 업체의 안내부족으로 소비자는 병원방문을 위해 교통비 지불을 하게 됨. 업체가 한 번에 안내를 하지 않았고 업체의 제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교통비를 지불한바 업체는 교통비를 배상해야한다고 생각 함. 소비자는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 배상과 치료가 완료 될 때까지의 교통비 배상을 원함.

○ 셀프매직 약을 사용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상담문의 함.

소비자는 2017년 1월에 집에서 하는 셀프매직제품을 구입함. 1월에 구입해서 반을 사용했고 하고 나서 별 이상이 없었으며 염색이 잘 되어서 4월 9일에 나머지 남은 반을 사용함. 유통기한도 2019년까지라 넉넉했고 1월에 했을 때도 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4월 9일에 하고 다음날부터 두피가 지끈지끈 거리더니 엄청난 가려움과 함께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기 시작함. 손을 머리에 대는 족족 엄청나게 빠졌고 심지어 머리 감을 때는 우수수 뭉텅이로 빠짐. 정수리를 포함하고 머리 앞쪽과 뒷쪽도 등성등성 일주일 넘게 머리카락이 빠지더니 숏 했던 머리카락은 지금 2/3 정도 남았음. 구입처에 전화를 하니 처음 1월에 사용했을 땐 이상이 없다가 두 번 째 할 때 머리카락이 빠졌다면 소비자가 보관을 잘못했거나 제품을 시술할 때 잘못 한 것이지 업체 측에서는 잘못이 없다며 일관된 반응을 보임. 그 곳의 제품을 쓰고 피해를 입었는데 환불정도 밖에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말함. 우선 환불(9,900원)은 받았는데 저렴한 제품이라고 소비자가 받은 피해는 나몰라 하고 규정대로 환불했으니 입 닦으려는 심보가 꽤 씩함. (업체명 : 노른자 본사)

○ 제모크림 사용후 부작용 보상 관련문의

소비자는 작년 11월 30일 11번가 앙스샵 사이트에서 제모크림을 구매하였음. 12월에 배송을 받았고 얼마 전에 사용함. 제모크림사용 후 피부 알러지가 심하게 발생하였음. 어제 병원 피부과 진료를 받았고, 보상관련해서 업체에 문의하니 소비자원 등으로 하라고 함.

○ 베이비 로션과 바디워시 유통기한 경과

소비자는 보령메디안, 보령메디앙스 베이비로션과 바디워시를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구매 함. 2017년 4월에 구매 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확인함. 본사에 문의하니 책임이 없다고만 함. 제품뒷면에 이상이 있을시 교환, 반품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 업체는 성분에 이상이 있을 때라고 함. 분명히 성분이라는 표시가 없는데 업체편의대로 이야기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임. 유통기한 지난 것 은 이상이 있는 것이라고 봄. 반품 요청과 표시를 제대로 할 것을 요청함.

○ 화장품 미세침 패치로 인한 손해배상관련 사업자 문의

신청인은 화장품 의약품 제조개발업체로 미세 침 패치를 구매한 소비자가 주의사항을 읽지 않고 사용을 하고 부작용으로 기미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레이저토닝비, 치료비, 일일소득배상 등 4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의사의 소견서에 제품으로 인한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는데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는지 문의함.

○ 헤나 염색을 하는데 알레르기가 일어남

마마님 헤나에서 나온 인디고 제품 사용함.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였으며,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음. 한 사람은 얼굴에 착색이 되고 알레르기가 심하다고 함.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공지하고 광고하고 있음.

○ 6월에 접수된 화장품 품목별 하자내용을 분석해보면, 기타일반화장품이 40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세트 220건, 염색제 47건, 샴푸 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하자내용 분석(6월)

소분류품목	기타	미성년 자 계약	부작용	부패, 변질	유통기 한 경과, 변조	이물혼 입	청약철회 거부	효능.효 과 미흡	(비어 있음) ⁸⁾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63		37	2	6	1	25	11	161	406
립스틱	3								3	6
마사지류	7						2		17	26
매니큐어	2						1			3
바디클렌저				2					1	3
발모제							3	2		5
보건위생용품기타	1						1		3	5
샴푸	8		5		1		4	4	13	35
선풍·선스크린화장품	6		8	1					16	31
세안류									1	1
아이라이너	2									2
아이섀도									1	1
어린이용화장품	2		3						3	8
염색제	12		3	1	2			8	21	47
영양오일류	1								1	2
영양크림류	6						5	1	3	15
치약	4		3		2		1		1	11
탈모제							1	3	3	7
파마약	1		2							3
피운데이션	3								1	4
팩류	1		1				2		8	12
향수	9			1		1	2		14	27
헤어스프레이	2									2
헤어크림	1		1						2	4
화장비누	1		1			1		1	2	6
화장수류	1		1						1	3
화장품세트	73	1	14		4		30	9	89	220
총합계	309	1	79	7	15	3	77	39	365	885

8) 하자내용 필수입력 사항이 아니므로 비어있음 항목이 존재함.

- 6월 화장품 소분류 품목별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212건) > 품질(201건) > 계약해제해지/위약금(134건) > 단순문의·상담(10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상담사유 분석(6월)

소분류품목	AS 불만	가격, 요금	거래 관행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단순문의, 상담	무능력 자계약	법, 제도	부당 채권추심	부당 행위	안전(제품/ 시설)	약관	이자, 수수료	청약 철회	표시, 광고	품질(물품/ 용역)	총 합계
기타일반화장품	4	5	10	24	64	58		1	1	27	16	1	4	102	10	79	406
립스틱				4		1										1	6
마사지류				3	13	3								6		1	26
매니큐어										1				2			3
바디클렌저				1		1					1						3
발모제					3									2			5
보건위생용품 기타						2								2		1	5
삼푸	2		1	3	5	2				1	2	1		4	2	12	35
선텐·선스크린 화장품	1	1		4		2				2	4			1	2	14	31
세안류																1	1
아이라이너														2			2
아이섀도														1			1
어린이용화장품		1	1	2							2					2	8
염색제		1	1	6	5	6		1			2			2	2	21	47
영양오일류				1	1												2
영양크림류			1	1	2					1				6	2	2	15
치약			1	2		2					1			1	1	3	11
탈모제					2	1								3		1	7
파마약										1	1					1	3
파운데이션																4	4
팩류					1						2			2		7	12
향수		1	4	5	1	1				2	2			4	1	6	27
헤어스프레이											1					1	2
헤어크림						1					1			1		1	4
화장비누		1		2		1								1		1	6
화장수류																3	3
화장품세트		5	2	13	37	26	1	1	3	9	6	1	4	70	3	39	220
총합계	7	15	21	71	134	107	1	3	4	44	41	3	8	212	23	201	885

- 6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정보제공 239건, 분쟁해결기준설명 237건, 법.제
도설명 185건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처리결과 분석(6월)

소분류품목	계약이행	계약해제, 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사업자상담실안내	상품정보제공	시장정보제공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 중지	타기관알선, 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4	9	1	111	3	92	3	112	7	1	25	11	3	6	1		3	6	8	406
립스틱	1			3				1										1		6
마사지류	1			13		1		10			1									26
매니큐어								1										1	1	3
바디클렌저				2	1															3
발모제				1		1		2										1		5
보건위생용품				2		1		2												5
기타 샴푸				13		5		5	2		2	1		3	1		1	1	1	35
선풍·선스크린 화장품				5		3	2	4	1		2			3	2		1	2	6	31
세안류																	1			1
아이라이너						2														2
아이새도																			1	1
어린이용화장품	1			2		1		1			1							1	1	8
염색제	6	1		7	1	3	2	11			3			2			3	5	3	47
영양오일류				1											1					2
영양크림류				2		10	1	2												15
치약				3			1	4			2			1						11
탈모제				1		1		1			1			1					2	7
파마약																	2	1		3
파운데이션						1		2			1									4
팩류				1	1	1	1	6											2	12
향수	1		1	9		5	1	5	1		1	1							2	27
헤어스프레이				1				1												2
헤어크림				2				2												4
화장비누		1		2				2										1		6
화장수류						1		1	1											3
화장품세트	1	6		58	1	57	1	62	2		10	6	1	1	1	1	4	4	4	220
총합계	15	17	2	239	7	185	12	237	14	1	49	19	4	17	6	1	15	24	31	885

(7) 화장품 7월 소비자상담 분석

- 7월에 접수된 화장품 품목별 하자내용을 분석해보면, 기타일반화장품 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세트 177건, 샴푸 38건, 염색제 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하자내용 분석(7월)

소분류품목	기타	미성년 자 계약	부작용	부패, 변질	유통기 한 경과, 변조	이물혼 입	청약철회 거부	효능.효 과 미흡	(비어 있음) ⁹⁾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46		35	3	3	4	25	10	178	404
립스틱	3							2	5	10
마사지류	6		2				2	3	11	24
매니큐어					1				1	2
메이크업베이스									1	1
면도용크림									1	1
목욕용오일	1		1							2
바디클렌저			1						1	2
탈모제			1					1	2	4
방취제							1			1
보건위생용품기타	3					1			3	7
샴푸	11		3				2	6	16	38
선편·선프스킨화장 품			2				1		4	7
세안류	3								1	4
아이세도									1	1
어린이용화장품	1									1
염색제	8		6					4	19	37
영양크림류	3		1	1			1		6	12
치약	3		3					1	6	13
탈모제	2		1				1	2	4	10
파마약								3		3
팩류	5		1					1	7	14
향수	5							2	9	16
헤어린스	2								1	3
헤어스프레이								1		1
헤어크림	1		1				1			3
화장비누	1							1	3	5
화장수류	2			1				1	1	5
화장품세트	55	5	13	1	1		20	3	79	177
총합계	261	5	71	6	5	5	54	41	360	808

9) 하자내용 필수입력 사항이 아니므로 비어있음 항목이 존재함.

- 7월 화장품 소분류 품목별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206건) > 품질(185건) > 계약해제해지/위약금(131건) > 단순문의·상담(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상담사유 분석(7월)

소분류품목	AS 불만	가격, 요금	거래 관행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 해지/위약금	단순문의, 상담	무능력 자계약	법, 제도	부당 채권추심	부당 행위	안전(제품/ 시설)	약관	이자, 수수료	청약 철회	표시, 광고	품질(물품/ 용역)	총 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	9	10	36	64	50	1			16	14	1	2	105	7	88	404
립스틱				2	2										3	3	10
마사지류	1	1		2	11	2				2	1			2		2	24
매니큐어																2	2
메이크업베이스																1	1
면도용크림																1	1
목욕용오일														1		1	2
바디클렌저			1								1						2
발모제				1									1			2	4
방취제														1			1
보건위생용품 기타		1	1	3	1											1	7
샴푸		1	2	3	6	4					1			7	3	11	38
선텐·선스크린 화장품											1		1	3		2	7
세안류			1													3	4
아이세도										1							1
어린이용화장품														1			1
염색제				3	6	5				1	5			1	1	15	37
영양크림류					2						1			6		3	12
치약		1				2		1			3			1		5	13
탈모제				2		1					1			3		3	10
파마약						2					1						3
팩류				1	1	2					1		1	2		6	14
향수			1	2	2	1				1		1		2	1	5	16
헤어린스					1	1										1	3
헤어스프레이														1			1
헤어크림														2		1	3
화장비누					1	1										3	5
화장수류			1			1										3	5
화장품세트		4	3	13	34	11		4	1	9	4	1	1	68	1	23	177
총합계	2	17	20	68	131	83	1	5	1	30	34	3	6	206	16	185	808

○ 7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정보제공이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쟁해결기준 설명 198건, 법·제도설명 160건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처리결과 분석(7월)

소분류품목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상품정보제공	시장정보제공	시험결과·의류심의의뢰	자율분쟁이관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8	12	3	108	1	89	4	92	12	23	7	1	1	8	10	2	1	5	4	13	404
립스틱		1		3		1		2												3	10
마사지류	1			7		1		12		1	1				1						24
매니큐어							1	1													2
메이크업베이스										1											1
면도용크림																		1			1
목욕용오일								1						1							2
바디클렌저				1				1													2
발모제				1				1		1										1	4
방취제																		1			1
보건위생용품																					
기타	1			1			1	3											1		7
샴푸	1	1	1	8		3		7		2	3				2		1	2	4	3	38
선편·선스크린화장품		1		1		1		3		1											7
세안류	1		1					1			1										4
아이새도							1														1
어린이용화장품																				1	1
염색제	1	1	1	10		4		7		5				1				2	1	4	37
영양크림류						5		2		2	1							1	1		12
치약				4	1	1		3	1	1							1			1	13
탈모제	1			3				3		1	1									1	10
파마약				2														1			3
팩류				2		2		7						1				1	1		14
향수				4	1	3		2		1					2				3		16
헤어린스								1	1											1	3
헤어스프레이																			1		1
헤어크림				1				1								1					3
화장비누				4				1													5
화장수류		1		3					1												5
화장품세트		2	1	39	1	50	1	47	1	11	3			1	4			5	4	7	177
총합계	14	19	7	202	4	160	8	198	16	50	17	1	1	12	19	3	3	19	20	35	808

<화장품 관련 6월~7월 상담사례>

○ 바디워시 제품이 음료수 같아서 마신 후 보상 문의

소비자는(65~69세 남성) 아모레퍼시픽 제품의 바디워시 스무디 오렌지 바디워시를 1병 선물 받았음. 주스 스무디 오렌지 바디워시 제품이 꼭 음료수 같음. 6월 20일 4시경 음료수 제품인 줄 알고 한 모금 마셨는데 병원에 가니 위세척 해보라고 함. 아모레퍼시픽 콜센터로 전화하여 알리니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제품 이상 없다고 함. 소비자는 음료수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을 바디워시로 만들어서 소비자가 혼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시정 요구함.

○ 헤나 염색 부작용 관련 보상 문의

(구입내용) 소비자는 2016년 6월 피부 마사지사점에서 인도 kuriamal&sons 에서 제조한 닥터헤나 총 6팩에 110,000원 현금구입

(경위) 마사지사 해주는 분이 총 1팩을 머리카락에 도포한 후 40분후 머리를 감음. 아무런 알러지 증상이 없자 7일후 집에서 직접 머리에 도포하고 감음. 그러던 중 서서히 얼굴이 간지럽고 붉어지고 검게 착색되어 2016년 8월 피부과 진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목 까지 검어지고 간지러움과 붉어 지는게 사라지지 않자 2016년 12월 대학병원 내원.

등에 패치로 검사할 때는 반응이 없었고 조직검사를 하니, 닥터헤나 성분으로 알러지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 후 병원측에서 2~3년간의 치료가 지속된다고 가정 시 1,000만원 ~ 1,20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진료비 추정서 발급.

닥터헤나측은 생산물배상확인보험 측과 연락하라고 함.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등 자료 다 보냄. 보험사 측에서 피부에 알러지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도 적혀져 있었고 마사지사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이 성립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마사지사점 60~70% 피해자 30~40% 책임을 분담 할수 있다고 하는 등기 도착

(문의 요구 사항)

헤나 보험사측에서 우리과실과 마사지사점의 과실로 보상을 안해준다고 함. 병원에서 패치 검사를 했을 때 반응 안나왔음. 피부에 알러지 테스트를 했어도 반응이 안 나왔음. 보상을 받아야 함.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등기를 받았는데 저희 쪽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함. 민사로 들어갔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함.

(기타) 얼굴, 목 등 검게 변하여 사회생활에 지장 있음. 병원 측에서 치료 받는다 해도 완치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함. 우울증까지 옴.

○ 치약 관련 안전성 문의

소비자는 다른 사람보다는 민감한 사람이다. 사용을 하고 삼키면 치약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되고 끈끈하고 이물질이 남겨짐. 계속 사용하면 중독성에 의해 인체피해가 있을 것 같음. 입에서는 구분을 못하다가 배속으로 들어가면 어지럽고 구토 등 민감한 증상이 남. 현재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 소금으로 양치를 하니, 속도 편안하고 민감한 증상도 일어나지 않음. 이 치약을 장기간 사용하면 일반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임. (유한양행 제조사/모델명 컴플리트 케어 인테스 후레쉬닝 치약)

치약을 사용하다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유한양행 고객센터 상담을 했음. 식약처 상담하면서 담당 공무원은 식약처에서는 제조사가 위반한 내용이 없어 도와주기 어렵다고 하고, 입을 행구면 다 씻겨 나가므로 몸에 아무 이상없다는 설명을 듣다보니 업체 대변인 같았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의 공통 질문을 보면, 양치하다가 조금씩 삼켜도 되느냐 질문에 제조사들의 답변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 요청에 의해서 저희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올려놓았음. 6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치약을

완두콩 크기 이상 삼키면 의사에게 보여 주세요.라고 답변을 올려 놓았음. 위의 글들을 읽어보면 식약처도 안 다치고 제조사도 안 다치게 하기 위해 답변을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듦. 여러 곳에 문의를 하다 보니 서로 책임 있는 답을 주지 않고 서로 피해 기려고만 하는 것 같음.

○ 중조 함유 치약의 위험성 (2017-0510884)

비거품성 중조함유 치약이 위험하여 수입판매 중지를 요청함.

국내에서 식약처는 수돗물에 1ppm 정도의 불소화합물을 허용한다면 치약에는 약 1000 인 1000ppm의 불소화합물을 허용함. 이는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서 어떤 경로로 해서든지 조금씩 사람 몸에 흡수 축적이 된다면 치명적일 수도 있음. 그래서 치약 봉지에는 6세미만 아동이 삼켰을 때 조치 등의 문구가 있음. 국내 시판 중인 일부 치약 중에서 거품이 나는 중성세제(혹은 계면활성제)를 넣지 않고 중조(베이킹 소다, 탄산수소나트륨 NaHCO_3) 를 많이 혼합한 치약이 있음. 중조나 소금을 단일품목으로 사용하여 양치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거품이 적은 중조 함유 치약은 치약의 물성을 끈끈하게 하고 거품이 덜 나서 양치시 양치 후에 혀바닥에 많이 달라붙음. 여러 번의 헹굼에도 잘 씻기거나 헹구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이 치약 성분 중의 불화나트륨 (NaF) 이 몸에 누적이 되면서 어지럼증이나 구토감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았음. 불소화합물은 많이 흡입할 경우 비소나 수은 다음 가는 독극물로 여겨짐. 다른 거품형 치약은 대부분 5,6 회의 물로 가글하여 헹구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치약은 여러 번 헹구어도 잘 씻겨 나오지도 않고, 서너 시간이 지나도 혀바닥의 돌기 사이에 치약성분의 끈끈한 잔존물이 남아서 조금씩 배어 나오고 이 치약 잔존물이 음료수나 커피 등의 흡입 시에 위로 들어가게 되면 몸에 흡수 누적되어 구토감이나 심한 어지럼증 등의 병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제품의 수입판매사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계속해서 팔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중조 함유 치약에 대한 조사 및 소비자는 당분간 사용 중지가 필요함.

(8) 화장품 8월 소비자상담 분석

- 8월에 접수된 화장품 품목별 하자내용을 분석해보면, 기타일반화장품 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세트 199건, 샴푸 53건, 염색제 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하자내용 분석(8월)

소분류품목	기타	미성년 자 계약	부작용	부패, 변질	유통기 한 경과, 변조	이물혼 입	청약철회 거부	효능·효 과 미흡	(비어 있음) ¹⁰⁾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17	1	27	3	4		26	10	157	345
립스틱	6								2	8
마사지류	4		2						14	20
면도용크림				1						1
바디클렌저	4		2							6
발모제								1	1	2
보건위생용품기타	8		5			2			13	28
보건위생용품세트			1						5	6
샴푸	15		5	1	1		5	5	21	53
선풍·선스크린화장품	4		1							5
세안류	2									2
염색제	1		9		1			7	22	40
영양오일류	1								1	2
영양크림류	3		1			1	2	1	4	12
치약	2		1	1	2				7	13
탈모제	4						1		2	7
파마약			1							1
파운데이션	1		1					1		3
팩류	2		2						1	5
향수	8			1	2				7	18
헤어린스	1		1		1			1	2	6
헤어스프레이			2					1	2	5
헤어크림	3								2	5
화장비누	3		2						2	7
화장수류				1					1	2
화장품세트	57	3	13	1		1	24	3	97	199
총합계	246	4	76	9	11	4	58	30	363	801

10) 하자내용 필수입력 사항이 아니므로 비어있음 항목이 존재함.

- 8월 화장품 소분류 품목별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품질(196건) > 청약철회(192건) > 계약해제해지/위약금(129건) > 단순문의·상담(8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상담사유 분석(8월)

소분류품목	AS 불만	가격, 요금	거래 관행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	계약 해제, 해지/ 위약금	단순 문의, 상담	무능력 자계약	법, 제도	부당 행위	안전(제품/ 시설)	약관	이자, 수수료	청약 철회	표시, 광고	품질(물품/ 용역)	총 합계
기타일반화장품	3	3	4	34	53	51	1		16	16	1	3	88	6	66	345
립스틱				2	1								2	1	2	8
마사지류				1	8	5					1		2		3	20
면도용크림															1	1
바디클렌저		1		2		2									1	6
발모제														1	1	2
보건위생용품기타		1		3	2	4				4			1		13	28
보건위생용품세트				1	2					1					2	6
삼푸			1	4	8	5		1	1	2		1	7	1	22	53
선풍·선스크린				1	2						1				1	5
화장품																
세안류															2	2
염색제			1		2	4			1	4			2	2	24	40
영양오일류				1						1						2
영양크림류			1	1						1			5		4	12
치약				1	1	2				1				2	6	13
탈모제						1							2	2	2	7
파마약															1	1
파운데이션						1							1		1	3
팩류				3											2	5
향수				4					1		1		5		7	18
헤어린스					1					2					3	6
헤어스프레이										2			1		2	5
헤어크림				1	1								2		1	5
화장비누		1	1	1						1			2		1	7
화장수류										1					1	2
화장품세트		2	4	9	48	13	1	2	6	7	2	2	72	4	27	199
총합계	3	8	12	69	129	88	2	3	25	43	6	6	192	19	196	801

○ 8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정보제공 2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쟁해결기준설명이 211건, 법.제도설명 139건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처리결과 분석(8월)

소분류품목	계약이행	계약해제, 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상품정보제공	시장정보제공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4	11	2	94	2	70	4	92	8	18	5	3	2		1	4	12	13	345
립스틱				1	1			4										2	8
마사지류				8		1		8		1						2			20
면도용크림								1											1
바디클렌저				1				1	1								1	2	6
발모제				1				1											2
보건위생용품 기타		2		8		3	1	7		4	2	1							28
보건위생용품 세트				2				1		2								1	6
샴푸		2	1	15		7	2	7		8	2	1				1	2	5	53
선편·선스크린 화장품				1	1	2		1											5
세안류				1	1														2
염색제		1		13		1	1	13		2	1					3	1	4	40
영양오일류				1														1	2
영양크림류		1		1		4		2		3							1		12
치약			1	2	1	2		3		2	1						1		13
탈모제				2		1		1		2			1						7
파마약								1											1
파운데이션				1				1	1										3
팩류	1	1		1				2											5
향수		2	1	4		1	1	2		1						2	1	3	18
헤어린스		1				1		4											6
헤어스프레이								1		1			2			1			5
헤어크림				2		1		1								1			5
화장비누				1		1		3								1	1		7
화장수류				1									1						2
화장품세트	2	7		53	1	44	2	54	4	11	7			2		9	1	2	199
총합계	7	28	5	214	7	139	11	211	14	55	18	5	6	2	1	24	21	33	801

(9) 화장품 9월 소비자상담 분석

- 9월에 접수된 화장품 품목별 하자내용을 분석해보면, 기타일반화장품 3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세트 176건, 염색제 50건, 샴푸 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하자내용 분석(9월)

소분류품목	기타	미성년자 계약	부작용	부패, 변질	유통기한 경과, 변조	청약철회 거부	효능.효 과 미흡	(비어 있음) ¹¹⁾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51	1	25	1	2	19	7	164	370
립스틱	3							3	6
마사지류	9		2			2		16	29
매니큐어	1								1
면도용크림	1								1
목욕용오일					1				1
바디클렌저	2			1					3
발모제							1		1
보건위생용품기타	3		2					15	20
보건위생용품세트							1	3	4
샴푸	11		4			2	7	13	37
선텐·선스크린화장품	1		2						3
세안류								1	1
아이라이너	1								1
어린이용화장품			2					1	3
염색제	12		8		2	1	6	21	50
영양오일류			1					3	4
영양크림류	4		3			3	2	3	15
치약	3		3		2		1		9
탈모제	1					1	3	3	8
파마약	1		2					2	5
파우더							1		1
파운데이션	1							1	2
팩류	2		3					4	9
향수	11						3	4	18
헤어린스			1						1
헤어스프레이								4	4
헤어크림	1							1	2
화장비누	3		1				1	1	6
화장수류								1	1
화장품세트	62	1	5	1	1	24	4	78	176
총합계	284	2	64	3	8	52	37	342	792

11) 하자내용 필수입력 사항이 아니므로 비어있음 항목이 존재함.

- 9월 화장품 소분류 품목별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품질(185건) > 청약철회(182건) > 계약해제해지/위약금(120건) > 단순문의상담(9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상담사유 분석(9월)

소분류품목	AS 불만	가격, 요금	거래 관행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	계약 해제, 해지/ 위약금	단순 문의, 상담	무능력 자계약	법, 제도	부당 행위	안전(제품/ 시설)	약관	이자, 수수료	청약 철회	표시, 광고	품질(물품/ 용역)	총 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	7	9	42	47	47	1	2	14	12	1	1	97	9	80	370
립스틱			1	2											3	6
마사지류	1			2	11	3			2				5		5	29
매니큐어									1							1
면도용크림													1			1
목욕용오일						1										1
바디클렌저			1						1				1			3
발모제													1			1
보건위생용품기타				2		1		1		5				1	10	20
보건위생용품세트				1	1	1									1	4
샴푸		1		4	8	3			2	1			9	1	8	37
선풍·선스크린 화장품				1		1									1	3
세안류		1														1
아이라이너															1	1
어린이용화장품						1				2						3
염색제			2	7	2	6			3	4			4	3	19	50
영양오일류				1			1			1					1	4
영양크림류					1	1			2				5	1	5	15
치약						1							2		6	9
탈모제				1	4	1							1		1	8
파마약		1								1					3	5
파우더															1	1
파운데이션				1										1		2
팩류			1		1					1					6	9
향수	1			2	2	2				1			3		7	18
헤어린스										1						1
헤어스프레이										3					1	4
헤어크림				1										1		2
화장비누				2		1				1					2	6
화장수류				1												1
화장품세트		1	4	16	43	23		1	8	1		1	53	1	24	176
총합계	3	11	18	86	120	93	2	4	33	34	1	2	182	18	185	792

○ 9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분쟁해결기준설명 208건, 기타정보제공 196건, 법.제도설명 166건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처리결과 분석(9월)

소분류품목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사업자상담실안내	상품정보제공	시장정보제공	시험결과.의류심의의뢰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7	11	3	107	3	84	2	94	5		9	8		1	8	4	1	7	5	11	370
립스틱	1					3		1												1	6
마사지류				7		2	1	9			2			1	1			2	2	2	29
매니큐어				1																	1
면도용크림						1															1
목욕용오일								1													1
바디클렌저				2																1	3
발모제				1																	1
보건위생용품	1			7		4		3				2			1		1	1			20
기타																					
보건위생용품				1		1		2													4
세트																					
샴푸	2			8	1	1		9			2		1		4			2	2	5	37
선풍·선스크																					
린화장품															1			1	1		3
세안류														1							1
아이라이너																				1	1
어린이용화장품				2				1													3
염색제		2	1	13	1	1	1	18	1	1	1			1	2			2	3	2	50
영양오일류	1							2			1										4
영양크림류		1				5	1	6			1								1		15
치약	1			2		1		5													9
탈모제		1		2				1			1				1			1	1		8
파마약						1		1										2	1		5
파우더															1						1
파운데이션						1													1		2
팩류				2		2		4							1						9
향수	1	1		3		1		5			3	1			2					1	18
헤어린스								1													1
헤어스프레이				1							1							1		1	4
헤어크림	1			1																	2
화장비누	1			1		1					2				1						6
화장수류																		1			1
화장품세트	2	4	1	35		57		45	1		6	7		2	1			3	3	9	176
총합계	18	20	5	196	5	166	5	208	7	1	29	18	1	6	24	4	2	23	20	34	792

<화장품 관련 8월~9월 상담사례>

○ 헤어스프레이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의심

소비자는 '16년 12월 갑자기 냄새도 맡지 못하고 기관지 폐렴으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함. 동네 작은 병원부터 시작해서 서울 큰 병원(아산병원)으로 가보라는 이비인후과 의사 소견서를 받아 MRI검사까지 모두 해 보았지만 원인 불명이라고만 하고 후각장애라는 판정을 받았음. 혹시나 치과 쪽이랑 관계가 있나 싶어서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음. 벌써 8개월이나 지났고 그냥 운이 없나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냄새를 맡지 못해 생활이 많이 불편했지만 원인을 모르니 별 방도가 없었음. 그런데 얼마전 jtbc뉴스를 보다가 (주)다쏘앤킴퍼니 태양 스프레이 때문에 호흡기 장애를 입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음. 소비자는 이미 그 스프레이를 2~3년 정도 심지어 얼마 전 까지도 꾸준히 사용을 했었고, 그 동안 원인 불명이 아닌 가슴기 살균제 성분이 나의 호흡기를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음. 아산병원에서 진료 받았던 기록도 아직까지 있고. 원인불명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업체에서도 별 다른 입장이 없어서 이렇게 상담신청하게 되었음.

○ 유해성분 헤어스프레이제품 환불요청입니다.

소비자는 G마켓에서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헤어스프레이제품 환불요청 하였으나 판매자가 구매기한을 사유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었음. 구매일자는 2017년 4월 3일이며, 구매금액은 9,500원임. 판매제품은 태양 볼류밍센스(볼류머+에센스) 여행용 50ml 1개임.

○ 헤어스프레이 인체 유해 성분으로 배상 요청

소비자는 약 6개월 전에 모 홈쇼핑에서 헤어스프레이 구매 사용함.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CMIT, MIT 성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 대두됨. 소비자는 약 6개월 동안 원인을 찾지 못한 치료 많이 받음. 결국 서울대 병원에서 헤어스프레이 사용 인과관계 입증 받음. 피해구제 접수 방법 문의 함.

○ 마스크팩 부작용 의심사례

소비자는 1개월 전 롯데상사의 스팀 아이 마스크팩을 구입하여 며칠 전 사용함. 피부가 따갑고 눈이 빨갛게 붓는 등 부작용 발생함. 병원에서 접촉성피부염이라고 하여 진단서 받음. 업체 연락하니 실비 지불 가능하며 원한다면 PB상품으로 가격만큼 지불 할 수 있다고 함. 어제 상담 시 일실소득 및 치료비 경비를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관련기준 문의하며 재상담 요청함.

○ 쿠팡을 통해 구입한 아이크림 부작용 관련 건

소비자는 얼마 전 쿠팡을 통해 미도화장품 아이크림 4개 구입을 함. 구입한 화장품 사용을 해 보니 얼굴이 부어오르고 진균이 생김. 제품 내용물 확인을 해 보니 마요네즈 같이 되어 있었음. 주변사람들도 내용물 확인을 해 보더니 너무 놀라워 하였다고 함. 이에 제조처로 위 건 전화 상담을 하니 오히려 제조처 담당자가 소비자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화를 냄. 이에 업체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이런 제품이 시중에 시판되지 않길 요청함. 또한 위 제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며, 구입가 환불도 요청 한다고 함.

(제조년월일 : 2017년 1월 16일, 유통기한 : 2000년 5월 15일로 되어 있다고 함)

○ 머리를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된다는 샴푸

소비자는 8월 10일 NS홈쇼핑에서 모발 염색제(엘크린 샴푸)를 7만원 가량에 구입함.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된다고 하였으나 전혀 그렇지 않음. 효과 미흡으로 환불 요청하고자 함. 업체에서 확인 후 환불 결정한다고 함. 허위 과장 광고는 어디에 문의 하는지 궁금함.

○ 발모제 과대광고 건 문의

양주시청 경제기획과 직원의 문의전화로 소비자 민원 건에 대한 상담접수임. 2017년 8월 초 소비자가 국민일보 신문에

광고를 보고 발모제 구입함. 6개월에 개선 안 될 경우 2배 배상해주겠다는 신문광고가 과대광고인지 아닌지 문의함. 공무원 판단에는 과대광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자문을 구하려고 함.

○ 화장품 용기불량에 대한 민원

소비자는 2016년 10~11월경 BRTC 남성용 타임리버시 올인원 300제품을 구매함. 언제부터인가 손에 반짝이가 묻어나서 원인을 모르다가 화장품을 짤 경우에 화장품 겉면 용기에 광택 부분이 반짝이처럼 벗겨지는 것을 알게 됨. 손에도 묻고 눈이나 호흡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 오늘 제조사에 민원제기를 해서 앞으로 생산할 때 시정을 하겠다고 함.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여 상담신청 함.

○ 자연드림 바디워시 변질된 제품 판매하여 부당하여 문의 / 9월 25일 접수 건

9월 25일 소비자상담 접수 건임. 소비자는 2017년 7월 1일 자연드림에서 바디워시를 구입 함. 2017년 7월 30일 사용하려고 개봉하였는데 썩은 가스 냄새가 남. 몸에 발랐는데, 몸에 무엇인가 났음. 업체에 전화하니 자체적으로 판매 안하기로 했다고 함. 그런데 전체 공지사항 내용 올리지 않았고, 구매자한테 교환이나 반품 해 주겠다고 고지 하지 않음. 현재는 환불 해 주겠다고 함. 변질된 제품 판매하여 부당하여 문의 함.

→ <자연드림 홈페이지에서 7월 31일 공지글 확인

물품명 : 우리가족여행용세트

중량/규격 : 70ml*3개

산지명 : 다래월드(주)

기간 : 2017-07-27 ~ 2017-08-02

사유 : *우리가족 바디워시 변향 관련 원인 안내드립니다.

1. 상품명/산지명 : 우리가족 바디워시 / 다래월드, 우리가족여행용세트 / 다래월드
2. 일시중단 및 회수 사유 : 향이 변질되어 악취가 발생
3. 향이 변질되는 사유: 우리가족 바디워시에 사용되는 성분 중에는 점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잔탄검] 성분을 사용하였습니다. [잔탄검]은 점도를 높여주는 여러 성분들 중 매우 순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분 자체적으로 고유의 강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말로 이루어진 성분이나 바디워시 제조시에는 물에 용해되어 사용되며 물에 용해되면 빠르게 변질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디워시는 욕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품의 특성상 온도와 습도가 높은 환경에 주로 노출되게 되며 해당 상품이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변향이 발생되었습니다.
4. 이후 조치내용 : 우리가족 바디워시는 현재 일시중단 및 회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품질점검 등을 통해 지속공급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급중인 우리가족샴푸와 우리가족린스에는 [잔탄검] 성분이 사용되지 않아 동일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빠르게 점검 및 검토하여 리뉴얼 또는 대체상품공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생활용품)

(10) 화장품 10월 소비자상담 분석

- 10월에 접수된 화장품 품목별 하자내용을 분석해보면, 기타일반화장품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세트 116건, 염색제 32건, 샴푸 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하자내용 분석(10월)

소분류품목	기타	미성년 자 계약	부작용	부패, 변질	유통기 한 경과, 변조	이물혼 입	청약철회 거부	효능.효 과 미흡	(비어 있음) ¹²⁾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03	1	15	2	6	4	19	6	110	266
립스틱	7			1					5	13
마사지류	7						1		8	16
목욕용오일	1								1	2
바디클렌저	1				1				1	3
발모제								1	3	4
보건위생용품기타	5								10	15
보건위생용품세트	3								1	4
샴푸	5						4	2	18	29
선편·선스크린화장 품	1									1
어린이용화장품			1		1				2	4
염색제	12		4					3	13	32
영양오일류									2	2
영양크림류	3						5		4	12
치약	2		1			1				4
탈모제	2		1					3	4	10
파우더									1	1
팩류	4		1						4	9
향수	11								7	18
헤어린스	1									1
헤어스프레이									2	2
헤어크림	4								2	6
화장비누	3		1		1			1	4	10
화장수류	2									2
화장품세트	34	1	7				14	2	58	116
총합계	211	2	31	3	9	5	43	18	260	582

12) 하자내용 필수입력 사항이 아니므로 비어있음 항목이 존재함.

○ 10월 화장품 소분류 품목별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134건) > 품질(131건) > 계약해제해지/위약금(107건) > 계약불이행(66건) > 단순문의·상담(5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상담사유 분석(10월)

소분류품목	AS 불만	가격, 요금	거래 관행	계약 불이행 (불완전 이행)	계약 해제, 해지/ 위약금	단순 문의, 상담	무능력 자계약	법, 제도	부당 채권 추심	부당 행위	안전 (제품/ 시설)	약관	이자, 수수료	청약 철회	표시, 광고	품질 (물품/ 용역)	총합 계
기타일반화장품	3	8	4	21	40	23		1	1	10	9	1		80	2	63	266
립스틱	1	1		5		2										4	13
마사지류	3				6	4								1		2	16
목욕용오일					1											1	2
바디클렌저						1								1		1	3
발모제					1	1		1								1	4
보건위생용품 기타	1		1	3	2	2								1		5	15
보건위생용품 세트					2	1								1			4
샴푸			1	4	7									8	2	7	29
선택·선스크린 화장품				1													1
어린이용화장품						1										3	4
염색제			1	3	6	5				2	3			2		10	32
영양오일류				1												1	2
영양크림류				3	1	1			1					5		1	12
치약						1					2			1			4
탈모제				1	4	2								1		2	10
파우더					1												1
팩류				1		2					1			2		3	9
향수	1			6	1	1		1						2	1	5	18
헤어린스						1											1
헤어스프레이					1					1							2
헤어크림				3		1				1						1	6
화장비누				2	2					1	1					4	10
화장수류		1		1													2
화장품세트		3	1	11	32	8	2		1	4	2	3	1	29	2	17	116
총합계	9	13	8	66	107	57	2	3	3	19	18	4	1	134	7	131	582

- 10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정보제공 168건, 분쟁해결기준설명 130건, 법.제도설명 97건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처리결과 분석(10월)

소분류품목	계약이행	계약해제, 해지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상품정보제공	시장정보제공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 중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6	11	64	1	50	1	71	3	19	1	4	8	2	6	7	12	266
립스틱	1		5				3		1	1		1		1			13
마사지류			7				3					1		1	1	3	16
목욕용오일			1													1	2
바디클렌저			2				1										3
발모제			1		1		1							1			4
보건위생용품기타	2		4		2		1		1	2			1			2	15
보건위생용품세트			3				1										4
샴푸	1		11		3		4	1	1	1	1			1		5	29
선펜·선스크린화장품												1					1
어린이용화장품			1			1	2										4
염색제	1		12				6		3	2	1			2	2	3	32
영양오일류			1						1								2
영양크림류	1		2		2		3								2	2	12
치약			3				1										4
탈모제			4		1		2		1					1	1		10
파우더							1										1
팩류	1		4		2		1							1			9
향수			7		4	1	2		1						1	2	18
헤어린스															1		1
헤어스프레이							1							1			2
헤어크림	1		2		1	1			1								6
화장미누	1		3				2		2						1	1	10
화장수류			2														2
화장품세트	1	5	29		31		24		2	4	2	1	1	9	5	2	116
총합계	16	16	168	1	97	4	130	4	33	11	8	12	4	24	21	33	582

<화장품 관련 10월 상담사례>

○ 흡소핑 통하여 구입한 화장품(립스틱) 성분 의뢰 할 곳 문의

소비자는 '17년 10월 12일 흡소핑 광고를 보고 화장품(황신혜 립스틱)을 주문함. 배송 후 립스틱 사용 시 냄새(공업용냄새)가 발생함. 사용 시 혀가 경화되는 현상 발생함. 화장품(립스틱)성분 실험의뢰 할 곳 문의함.

○ 비누에 박혀있는 이물질로 손 상처 배상문의

소비자는 비누에 박혀있는 이물질로 손에 상처를 입음. 사진촬영 후 업체에서는 수거하러 온다고 함. 배상여부 문의함.

○ 치약 이물 발견으로 대응방법 문의

소비자는 '17년 8월경 페리오 후레쉬 치약을 인터넷으로 1박스 주문하여 사용 중임. 10월 26일 치약을 짜서 양치질하다가 딱딱한 느낌이 들어 처음에는 임플란트 치아가 잘못된 것인 줄 알았음.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것이었음. 딸은 안 다쳤으니 다행이다 라고 했으나 어린아이가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제품에 소비자 상담센터(080-xxx-xxx) 으로 전화하였으나 휴무라는 안내멘트 나옴. 부평공장이라고 써 있고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제조일자는 안보임.

○ NS흡소핑 유화연 자양크림 상담.

NS흡소핑 유화연 자양크림, 한수유팩을 20,000원 10월13일 배송 받음. 방송에서 추천이라며 대박찬스라고 함. 한수유팩은 박스에 유통기간이 적혀있으나 자양크림은 박스에 개봉을 하면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되어있음. 개봉하니 유통기간이 2017년 8월 23일임. 지난 제품을 고의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전량회수해주길 원함. 소비자가 개봉하여 유통기간을 보지 않고 사용 할 수가 있음.

○ 마트에서 구입한 로션에서 구더기가 나온 경우 대처방법 문의

10월 14일에 마트에서 로션을 구입함. 아모레퍼시픽 로션을 구입함. 지난주에 사용을 하려고 펌프를 3번 누르니까 구더기가 나와서 꿈틀꿈틀 함. 사진을 찍어둠. 벌레는 그대로 넣어 두었음. (제품명 : 해피바스 센슈얼화이트릴리 exp : 2020년 1월 16일까지)

○ 화장품 세안제 부작용, 반품 및 손해비용 요구건

10월 13일 신세계흡소핑에서 화장품 주문함. 제품명 : 상빠산소케어(88,000원), 사용중 따가운 증상 나타남. 물과 가루제품 믹스하여 사용함. 세수 후 따갑고 얼굴에 발진 올라와 다른 지인도 같이 사용해봄. 2주전 흡소핑에 반품 요구하였고, 흡소핑에서는 사용이유로 반품거부하며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하며 기간이 지체됨. 소견서 받기 위해 다시 실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장을 쉬어야 되는바 추가 병원비와 일실소득배상비용 받고 싶어 문의함.

○ 왁스스트립 제품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17년 9월 24일 해외 제조상품으로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에서 제조 판매하는 네즈왁스스트립 제품을 신도림 디큐브시티점에서 9,000원에 구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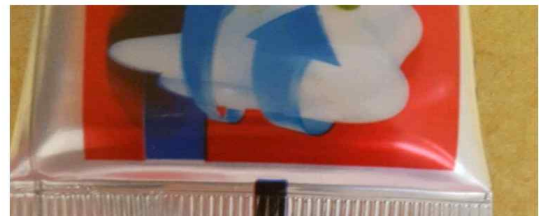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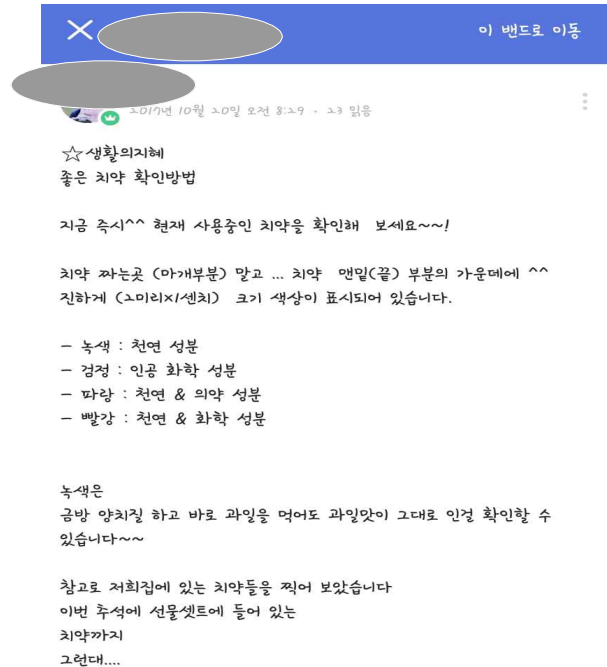
[경위] 당일 저녁에 소량 테스트 후 눈썹 위, 인중, 입술 아래 부위에 사용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피부가 벗겨짐. 응급처치 후 익일 병원 방문. 마찰에 의한 화상으로 추정된다고 진단 받음. 9월 26일 고객센터에 최초 문의하여 제품 반품 방법과 피해 보상에 대한 필요 서류 안내 받음.(제품은 10월 2일 해당 매장 방문하여 환불 받음) 9월 30일 보상에 대한 필요 서류 이메일 발송. 9월 17일 본인이 재차 연락을 취해 업체 측에서 메일을 수신하였으며, 진료비 내역서에 포함된 치료비(75,000원)만 배상해 주겠다고 함. 일실소득과 경비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다시 연락주겠다고 함. 9월 18일 업체 측 규정에 따라 치료비만 배상 가능하다고 연락 받음.

[문의(요구)사항] 안면부 피부가 벗겨지는 화상으로 인해 병원내원으로 인한 교통비 발생 등 일실소득 및 경비 보상

[기타] 제품 후면에 피부가 벗겨지거나 레이저 박피와 같은 시술을 받고 있을 때에 사용하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나 제품으로 인해 피부가 벗겨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음. 본인은 얼굴, 인중, 턱, 등 섬세하고 민감한 부위에 적합하다고 하여 사용한 것이고 사용 방법도 정확히 숙지하고 사용함. 화상으로 인해 고통받았으며 피부 착색이나 흉은 본인이 감수하겠으나, 일실 소득 및 경비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원함.

○ 안전한 치약 정보 관련 문의

소비자는 모바일 밴드에 치약 밑부분 녹색, 파란색, 검정색 등 첨가물 표시가 되어 있다 함. 안전한 치약 정보 관련 문의.



(11) 화장품 11월 소비자상담 분석

- 11월에 접수된 화장품 품목별 하자내용을 분석해보면, 기타일반화장품 3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세트 159건, 샴푸 40건, 염색제 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하자내용 분석(11월)

소분류품목	기타	부작용	부패, 변질	유통기한 경과, 변조	이물혼입	청약철회 거부	효능.효과 미흡	(비어 있음) ¹³⁾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50	23	2	5	2	21	3	158	364
립스틱	6							4	10
마사지류	6						1	16	23
마스카라	1								1
매니큐어				1					1
메이크업베이스	1								1
면도용크림	2							1	3
목욕용오일								2	2
바디클렌저		1						2	3
발모제	1						3	2	6
보건위생용품기타	4				1			8	13
보건위생용품세트	1							1	2
샴푸	7	4				3	3	23	40
선풍·선스크린화장품				1				1	2
아이리이너								1	1
어린이용화장품	4	1			1				6
염색제	2	6				2	7	16	33
영양오일류	1							1	2
영양크림류	8	2				6	2	6	24
치약						2		8	10
탈모제	3	2					4	1	10
파마약		1						1	2
파우더							2		2
파운데이션								1	1
팩류	2	2		1			1	4	10
향수	11						2	12	25
헤어린스								2	2
헤어스프레이							1		1
헤어크림	3						1	2	6
화장비누	4			1			1	2	8
화장수류								1	1
화장품세트	43	8	1			17		90	159
총합계	260	50	3	9	4	51	31	366	774

13) 하자내용 필수입력 사항이 아니므로 비어있음 항목이 존재함.

- 11월 화장품 소분류 품목별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청약철회(180건) > 품질(170건) > 계약해제해지/위약금(136건) > 단순문의·상담(93건) > 계약불이행(8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상담사유 분석(11월)

소분류품목	AS 불만	가격, 요금	거래 관행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	계약 해제, 해지/ 위약금	단순 문의, 상담	법, 제도	부당 채권 추심	부당 행위	안전 (제품/ 시설)	약관	이자, 수수료	청약 철회	표시, 광고	품질 (물품/ 용역)	총합 계
기타일반화장품	2	2	5	34	65	44	3		21	11			105	10	62	364
립스틱			1	2	1				2	1	1				2	10
마사지류				4	8	3			1				5		2	23
마스크라			1													1
매니큐어															1	1
메이크업베이스					1											1
면도용크림										1					2	3
목욕용오일				2												2
바디클렌저										1					2	3
발모제					1	1							1		3	6
보건위생용품기타				2	2	4				1					4	13
보건위생용품세트													1	1		2
샴푸	1	1		5	4	7			1	1			10	1	9	40
선풍 · 선크린							1								1	2
화장품																
아이라이너															1	1
어린이용화장품		1		1						2					2	6
염색제				1	5	5				2			2		18	33
영양오일류				1											1	2
영양크림류		2			2	1			4	1		1	9	1	3	24
치약				2	1	1				1					5	10
탈모제					2	1				2					5	10
파마약	1														1	2
파우더															2	2
파운데이션				1												1
팩류				2									1		7	10
향수	1			7	4	2							3	2	6	25
헤어린스						1									1	2
헤어스프레이															1	1
헤어크림				1		1							1		3	6
화장비누				1	2								2	1	2	8
화장수류															1	1
화장품세트		2	6	15	38	22	1	1	7	3	1		40		23	159
총합계	5	8	13	81	136	93	5	1	36	27	2	1	180	16	170	774

○ 11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정보제공 220건, 분쟁해결기준설명과 법.제도설명 각각 155건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처리결과 분석(11월)

소분류품목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사업자상담실안내	상품정보제공	수리보수	시장정보제공	시험결과.의류심의의뢰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6	12	4	100	2	85	3	78	6	1	18	1	5	1	6	8		1	4	8	15	364
립스틱			1	5		1	1	1			1											10
마사지류	1			5		1		8			2				1	1			3		1	23
마스카라						1																1
매니큐어								1														1
메이크업베이스						1																1
면도용크림				1							1									1		3
목욕용오일				1																	1	2
바디클렌저				1				1										1				3
발모제	1			1		1		1			1					1						6
보건위생용품기타	1	1		5		2			1		1					1			1			13
보건위생용품세트															1						1	2
샴푸		2		10		6		6							2	1		1	5	4	3	40
선편·선스크린				1				1														2
화장품								1														1
아이라이너								1														1
어린이용화장품				2				1							1	1					1	6
염색제				16		4		6			1					1			3	1	1	33
영양오일류	1			1																		2
영양크림류		1		6		8	2	3			1									2	1	24
치약							1	5	2										1		1	10
탈모제				4	1	2		1											1	1		10
파마약								1											1			2
파우더						1		1														2
파운데이션	1																					1
팩류		1		2		1		4			1					1						10
향수				7		1		4			3		3			1			3	1	2	25
헤어린스				1													1					2
헤어스프레이				1																		1
헤어크림		1		1		1		1			1					1						6
화장비누				1	1	2		1												1	2	8
화장수류								1														1
화장품세트	2	3		48		37		28			11		5			2		1	12	4	6	159
총합계	13	21	5	220	4	155	7	155	9	1	42	1	13	1	11	19	1	3	35	23	35	774

(12) 화장품 12월 소비자상담 분석

- 12월에 접수된 화장품 품목별 하자내용을 분석해보면, 기타일반화장품 3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세트 181건, 샴푸 53건, 마사지류 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하자내용 분석(12월)

소분류품목	기타	미성년 자 계약	부작용	부패, 변질	유통기 한 경과, 변조	이물혼 입	청약철회 거부	효능.효 과 미흡	(비어 있음) ¹⁴⁾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137	2	26	2	5	2	18	11	160	363
립스틱	3		1						1	5
마사지류	12						1	1	13	27
목욕용오일									1	1
바디클렌저	2								2	4
탈모제	1		1					4		6
보건위생용품기타	6		1					2	7	16
보건위생용품세트	1								1	2
비듬제거제								1		1
샴푸	10						6	5	32	53
선풍·선스크린화장품	2						1		2	5
세안류								1	1	2
아이라이너									1	1
어린이용화장품	4		2			1			4	11
염색제	1		3	1	1		1	1	18	26
영양오일류	3								1	4
영양크림류	5		1				4		10	20
치약	2							1	5	8
탈모제	1						2	2	10	15
파우더			1						1	2
파운데이션			1		1					2
팩류	6								3	9
향수	5							1	7	13
헤어린스	2							4	1	7
헤어스프레이									1	1
헤어크림	1		1						2	4
화장비누	2		1				1		6	10
화장수류			1						2	3
화장품세트	58	3	16		2	1	17	1	83	181
총합계	264	5	56	3	9	4	51	35	375	802

14) 하자내용 필수입력 사항이 아니므로 비어있음 항목이 존재함.

- 12월 화장품 소분류 품목별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품질(180건) > 청약철회(176건) > 계약해제해지/위약금(139건) > 단순문의·상담(101건) > 계약불이행(9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상담사유 분석(12월)

소분류품목	AS 불만	가격, 요금	거래 관행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	계약 해제, 해지/ 위약금	단순 문의, 상담	무 능력 자 계약	법, 제 도	부 당 채 권 추 심	부 당 행 위	안 전(제 품/ 시 설)	약 관	이 자, 수 수 료	청 약 철회	표 시, 광 고	품 질(물 품/ 용 역)	(비 어 있 음)	총 합 계
기타일반화장품	1	7	2	45	57	46	1	4	1	20	9	1	2	84	4	79		363
립스틱				1		1								1	1	1		5
마사지류	1		1	6	7	4				2					1	4	1	27
목욕용오일						1												1
바디클렌저					1	2								1				4
발모제				1		2										3		6
보건위생용품 기타		1		3	1	3					1			2		5		16
보건위생용품 세트						1								1				2
비듬제거제																1		1
샴푸				6	15	4				2		1	1	10	1	13		53
선텐·선스크린 화장품				1						1	1				1	1		5
세안류								1			1							2
아이라이너											1							1
어린이용화장품					1						2			3		5		11
염색제				5	3	2					4					12		26
영양오일류					1	1					1			1				4
영양크림류				1	1			1		2				11	1	3		20
치약				1	1											6		8
탈모제			1	2	2	1								4		5		15
파우더											1			1				2
파운데이션	1											1						2
팩류		1		1	1			1						1	1	3		9
향수			1	4	1	3										4		13
헤어린스				2	3			1								1		7
헤어스프레이		1																1
헤어크림				1	1	1										1		4
화장비누				1		3									1	5		10
화장수류	1				1						1							3
화장품세트		1	4	10	42	26	1		1	6	4	1		56	1	28		181
총합계	4	11	9	91	139	101	2	8	2	33	26	4	3	176	12	180	1	802

- 12월 화장품 품목별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정보제공 217건, 분쟁해결기준설명 177건, 법.제도설명 163건 순으로 나타남.

[표] 화장품 품목별-처리결과 분석(12월)

소분류품목	계약이행	계약해제,해지	교환	기타정보제공	배상	법.제도설명	부당행위시정	분쟁해결기준설명	비소비자상담처리	상품정보제공	수리보수	시장정보제공	처리불능	처리중	취하,중지	타기관알선,이관	피해구제접수안내	합의불성립	환급	(비어있음)	총합계
기타일반화장품	9	9		101	2	84	3	82	5	18		6	2	7	4		9	10	12		333
립스틱				2		1		1										1			5
마사지류	2			9		2		6		1				1			3	1	1	1	27
목욕용오일				1																	1
바디클렌저	1			2															1		4
발모제				4		1				1											6
보건위생용품기타				3		4		4		2				1			1		1		16
보건위생용품세트				1				1													2
비듬제거제				1																	1
샴푸	1	1		12		13		8		6							6	2	4		53
선편·선스크린화장품	1							3						1							5
세안류							1	1													2
아이라이너								1													1
어린이용화장품				2	1			6										1	1		11
염색제	1			6	1	3		3		2		3	1	2				2	2		26
영양오일류				2						1				1							4
영양크림류	1	1				8		3		2				1			1	2	1		20
치약				2				2				1	1				1		1		8
탈모제				5			1	3		2			1					1	2		15
파우더								1									1				2
파운데이션						1		1													2
팩류	1	3		2				3													9
향수	1	1		4		2		2		1							1		1		13
헤어린스				4				2										1			7
헤어스프레이				1																	1
헤어크림				2				1		1											4
화장비누	1			5		1		2									1				10
화장수류								2		1											3
화장품세트	1	10	1	46	2	43	2	39		10	1	7		2		1	9	3	4		181
총합계	20	25	1	217	6	163	7	177	5	48	1	17	5	16	4	1	33	24	31	1	802

라. 소비자 불만사례 주제별 집중분석

①

유란류(계란, 메추리알) 소비자 불만사례분석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부인회총본부)

- 계란을 비롯한 알류는 소비자의 식탁에 손쉽게 오르는 식품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조리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조류독감으로 인한 닭의 폐기와 관련하여 계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2017년 8월에는 살충제 계란과 관련한 소비자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는데, 이 분석 자료는 살충제 계란문제가 부각되기 이전인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유란류 관련 소비자 상담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372상담센터¹⁵⁾에 접수된 알류(계란, 메추리알)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을 분석한 결과, 224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식품관련 상담은 총 11,915건으로 같은 기간 알류 관련 상담건은 150건으로 식품관련 소비자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1. 빈도분석 결과

1) 상담품목

항목	빈도(건)	비율(%)
계란	211	93.8
메추리알	14	6.2
합계	225	100.0

표1 상담품목(계란과 메추리알 모두 상담한 건수가 1건 있음)

- 상담을 의뢰한 난류는 계란이 93.8%, 메추리알이 6.2%로 대부분 계란이었다.

2) 상담 의뢰한 소비자의 지역

항목	빈도(건)	비율(%)
경기	69	30.8
서울	38	17.0

15) '1372 소비자 상담센터'(www.1372.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이다.

부산	16	7.1
인천	6	2.7
경남	18	8.0
대구	9	4.0
충남	10	4.5
대전	14	6.3
광주	7	3.1
경북	9	4.0
전북	3	1.3
충북	10	4.5
전남	6	2.7
울산	1	0.4
강원	3	1.3
해외	5	2.2
제주	-	-
세종	-	-
합계	224	100.0

표2 상담의뢰한 소비자의 지역

- 경기지역 거주자의 상담의뢰가 가장 많은 30.8%이며, 서울17.0%, 경남 8.0%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와 세종시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상담은 한 건도 없었다.

3) 구입 장소 및 구입방법

항목	빈도(건)	비율(%)
슈퍼마켓	65	37.1
대형마트	42	24.0
편의점	21	12.0
백화점	-	-
재래시장	2	1.1
소형매장	4	2.3
음식점	-	-
무점포	29	16.6
기타(휴게소, 사우나, 직판점, 배달, 정육점 등)	12	6.9
합계	175	100.0

표3 구입장소

- 상담을 의뢰한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구입한 구입장소를 분석한 결과,슈퍼마켓이 3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형마트 24.0%로 이 둘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무점포 16.6%, 편의점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건중 백화점에서 구입한 계란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없었다.

항목	빈도(건)	비율(%)
직접 구입	195	87.1
방문판매	7	3.1
다단계판매	-	-
전화 통신판매	3	1.3
전자상거래	18	8.0
TV홈쇼핑	1	0.4
합계	224	100.0

표4 구입방법

- 구입방법은 직접구입이 87.1%이고 그 다음이 전자상거래 8.0%, 방문판매 3.1%의 순이었다.

4) 상담이유

항목	빈도(건)	비율(%)
교환	14	5.4
반품	1	0.4
환불	24	9.2
해지	9	3.5
치료비요구	10	3.8
손해배상청구	32	12.3
사과요구	2	0.8
부당행위 시정	53	20.4
정보요청	111	42.7
기타	4	1.5
합계	260	100.0

표5 상담이유(복수응답)

- 계란과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을 제기한 주요 사유를 분석한 결과, 정보요청을 원하는 경우가 42.7%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행위시정(20.4%), 손해배상청구(12.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항목	빈도(건)	상담이유
교환	14	품질불량 계란 구입 후 교환 요구
반품	1	-
환불	24	품질불량 계란 구입 후 환불 요구
해지	9	포프리 계란 계약해지
치료비요구	10	계란포장용기에서 벌레나옴
손해배상청구	32	품질불량 계란 구입 후 손해배상청구
사과요구	2	-
부당행위 시정	53	계란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격원상복구 요구
정보요청	111	계란껍질에서 약품냄새가 남 유정란이 부화가 안됨 노른자의 탄력정도와 품질문의 계란 보관온도, 유통기한 문의
기타	4	가격폭등 문의 계란유통업자 문의(계란공급 문제)
합계	260	

표6 상담의 구체적 이유(복수응답)

- 계란과 관련하여 소비자불만 상담을 제기한 구체적 사유를 분석한 결과, 2017년 6월 조류독감으로 인한 계란값 폭등과 관련한 문의가 많았다. 계란의 품질과 관련하여 노른자의 탄력, 퍼짐정도에 대한 문의, 유정란을 구입했는데 부화가 되지 않는다는 문의도 있었다. 계란 판매시 보관온도에 대한 상담 건도 있었다. 계란껍질에서 약품냄새가 난다는 문의도 있었다.

- 농업회사법인인 ‘포프리’ 이용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소비자 상담도 있었다.

5) 구체적인 불만사례

항 목				빈도(건)	비율(%)
	빈도	%			
이물 질	9	3.6	벌레	6	2.4
			머리카락/털/땀	-	-
			다칠수있음(금속/유리/철/플라스틱)	1	0.4
			다치지않음(비닐/고무)	1	0.4
			침전물	1	0.4
이상 증세	30	12.0	설사/복통, 구토	14	5.6
			발열/두통	2	0.8
			치아손상	1	0.4
			두드러기, 알레르기	5	2.0
			식중독(2인이상일 경우)	1	0.4
			기타이상증세	7	2.8
유통 기한	15	6.0	유통기한 경과	12	4.8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3	1.2
변질	64	25.7	상함, 부패	43	17.3
			곰팡이	13	5.2
			악취	8	3.2
검사 요청	15	6.0	성분검사	5	2.0
			원산지확인	-	-
			진품확인	7	2.8
			위생점검	3	1.2
품 질 불량	36	14.5	품질불량	29	11.6
			용기파손	2	0.8
			포장불량	5	2.0
			용기에 의한 손상	-	-
표시 광고	4	1.6	과대광고	4	1.6
			가격미표시	-	-
			성분표시	-	-
규격	3	1.2	용량미달(중량미달)	3	1.2
기타	73	29.3	식품 및 관련 정보제공	45	18.1
			배송문제	5	2.0
			가격불만	14	5.6
			철회(가격대금, 채권추심, 압류 등)	9	3.6
합계				249	100.0

표7 불만사례(복수응답)

- 상담 사유를 분석한 결과 식품 및 관련 정보제공이 1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상함·부패 17.3%, 품질불량 11.6%, 가격불만 5.6%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계란과 관련한 이물질은 용기에서 벌레가 나온 경우가 6건 있었다. 계란 섭취후 복통/설사가 발생한 경우는 14건, 알레르기는 5건 이었다.
- 유통기한이 경과한 알류에 대한 상담은 12건이었고, 미표시/무표시는 3건이었다.

- 알류의 상함/부패에 관한 상담은 43건으로 비교적 많았고, 곰팡이는 13건 이었다. 약취는 8건 이었다. 달걀 껍질에서 약품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상담한 소비자들도 있었다.
- 품질불량과 관련한 상담은 29건 이었다.
- 계란 노른자의 탄력정도, 퍼짐, 쌍란, 유정란이 부화하지 않는 것 등 계란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점에 대한 정보관련 문의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석시기에 계란값이 폭등하여 이와 관련한 가격문의도 14건 있었다.

6) 상담접수 된 계란의 식품 유형 및 상담 처리결과

항목	빈도(건)	비율(%)
교환	3	1.4
반품	-	-
환불	2	0.9
해지	3	1.4
치료비배상	-	-
손해배상청구	2	0.9
사과요구	-	-
부당행위 시정	4	1.8
상담 정보제공	204	93.6
합계	218	100.0

표8 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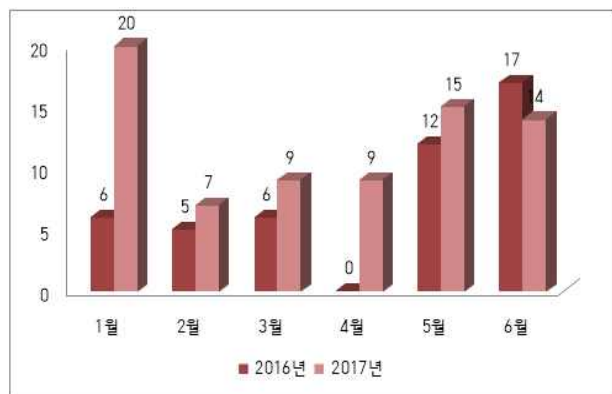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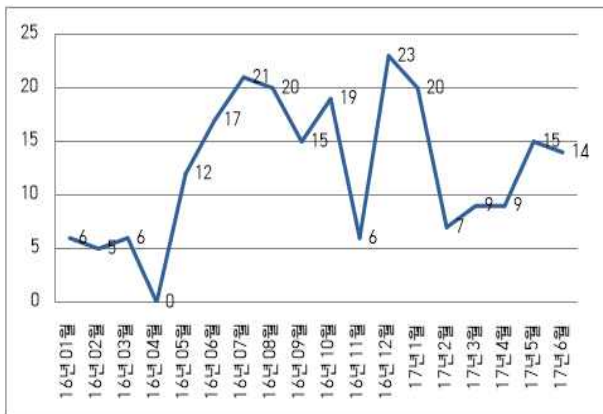
- 상담의뢰한 계란의 상담처리 결과 상담정보제공이 9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당행위시정, 교환, 해지의 순이었다.

7) 상담시기별 접수현황

항목		빈도(건)	비율(%)
2016년 (150건)	1월	6	2.7
	2월	5	2.2
	3월	6	2.7
	4월	0	0.0
	5월	12	5.4
	6월	17	7.6
	7월	21	9.4
	8월	20	8.9
	9월	15	6.7
	10월	19	8.5
	11월	6	2.7

항목		빈도(건)	비율(%)
	12월	23	10.3
2017년 (74건)	1월	20	8.9
	2월	7	3.1
	3월	9	4.0
	4월	9	4.0
	5월	15	6.7
	6월	14	6.3
합계		224	100.0

표9 상담시기별 접수현황



<그림1> 시기별 접수현황 추이

<그림2> 2016년과 2017년 동월 상담접수현황 비교

-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150건이고, 2017년 상반기(1월~6월)까지 접수된 건은 74건으로 나타났다. 조류독감이 발생한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월 사이에 소비자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에는 조류독감 이후 계란값이 크게 상승하는 소비자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였으나 상담건수는 작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8) 상담사례

(1)이상증세

- 구운계란을 3명이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먹고 구토증세. 업체에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문의
- 편의점에서 훈제계란 구입 후 배탈로 병원 다녀옴 업체에서는 계란 값만 환불처리 해준다고 함 (상담실 통해 처리해주시기로 함)

(2)유통기한

- AI 때문에 한동안 계란이 없다가 마트에 대량으로 꺼내놓음. 유통기한표시도 없고 불법유통이 의심스러움(2017.02상담) → 수입계란의 유통기한 경과 후 유통여부 문제제기함.

-201704.10구입한 계란 포장에 포장일자가 05.20으로 적혀있어 포장일자 변조가능여부 문의함

(3)변질

- 유통기한 표시도 없고, 깨트리자 노른자가 툭터져 변질의심.
- 계란 구입후 악취 심함 (2017.02.25.)
- 마트에서 계란 구입후 요리하여 먹는데 냄새가 남. 날계란 확인하니 냄새가 심함. AI 때문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함,(환불 받아처리)
- 구운 계란 구입후 먹으려니 썩었음
- 이마트에서 구운 달걀구입. 곰팡이가 심하게 남.
- 구입한지 1주일된 무항생제 계란을 깨니 검은물이 나옴. 유통기한 설정 방식이 궁금함

(4)검사요청

- 일반란과 청란 계란 성분분석 요청가능한지 문의

(5)품질불량

- 국산계란 구입후 의심스러워 계란찜에 하여 은수저를 담가보니 색이 변함. 소비자가 처리 정보요청 (정보제공으로 종결)
- 계란을 삶았는데 과량게 변함.
- 계란에 핏줄 보이는 증상으로 위자료 요청함 (정확한 원인 알고싶어함)
- 계란 껍질에서 소독약 역한 냄새가 남 (2017.05.19.-살충제계란 사건 확대 전)
- 유정란이 부화하지 않아 의심됨

(6)표시광고

- 일반란을 영양란 케이스에 넣어서 판매함, 부당한 처벌 요청 (1399안내)

(7)규격

- 중량미달로 판매되는 계란의 처리방법문의 (지자체에 신고 안내)
- 계란 30알 1판 전체가 쌍란이 들어있음. 축진제를 맞아서 그런건지 이상없는지 문의 (축평원에서는 동일계군이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쌍란을 낳는 경우 있어서 사례가능하다고함.)

(8)기타 (살충제계란 보도이후. 08.16~8.18)

- 계란에 글자가 새겨진 제품을 먹지 말라는 방송을 보았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담의뢰 (구입처에서 환불 받도록 안내)
- 계란을 먹지 말라는 방송을 보고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이 안된다고함.(살충제계란에 해당하는 제품이 아직은 아님, 조사결과 전이라 환불 요청이 어려움을 안내)
- 방송을 보고 계란은 먹지 않는데, 얼마전에 빵을 먹었고, 닭도 구매했는데 먹어도 되는지 전화함 (육계로 키우는 닭은 진드기살충제를 뿌리지 않는다는 정보제공)
- 08마리 계란을 구입하여 30개중 15개를 먹었는데 몸에 이상이 없을까 걱정됨 (걱정이 많이 되면 병원에 다녀오시도록 안내)

- 08마리 찍힌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로 환불요청하니 안된다고 함(8월16일)
(환급명령이 내린 것이 아니라 강제하기 어려움. 조금 기다려 주기를 당부)
- 어금니가 없어 하루에 삶은 계란 4개씩 먹음.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으로 여러번 응급실 자녀음. 달걀 방송 보고 5일간 안 먹으니 어지러운 증상 없어짐. 남은 달걀과 어지러움증에 대한 보상 원함 (8월18일. 증빙자료 준비하여 업체에 전달하도록 정보제공)

2. 정책 제언

- 1372에 접수된 계란관련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계란 소비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에 대해 상담원이 사전에 교육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쌍란, 유정란, 계란속의 핏줄 등등 계란 관련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상담원들의 정보량이 적어 답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유통기한 설정방법등도 정보제공이 필요함. 소비자들이 계란의 유통기한 설정 방법등을 많이 궁금해하고 있음. 계란관련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관련부처 등에서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상담창구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는 대부분 슈퍼마켓,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매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올바른 보관온도,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등이 필요함. 유통과정상 변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훈제계란, 구운계란, 삶은 계란의 변질 상담이 높게 나타남. 편의점에 납품되는 관련 계란의 관리필요. 편의점은 학생들이 식사대용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점검 필요성 있음.
- 수입된 계란의 유통경로 파악 필요. 난각표시사항 및 수입 이후 유통된 경로 파악 필요. 유통기한 경과한 수입계란이 소형 유통매장에서 저렴하게 팔릴가능성 대두.
- 살충제 계란 사건 등 식품관련 위해 보도가 나가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이미 섭취한 식품에 대한 건강 우려와 지불한 비용에 대한 보상 처리방법 등으로 소비자상담을 요청함. 식약처와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건의 대응방안에 대한 긴급한 논의 등을 실시하여 논의된 내용을 상담창구에 전달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식품 상담 사례 분석 : 식품접객업소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① 조사목적

- 최근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기준치 이상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는 등 외식관련 식품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우리나라 외식 이용률은 2012년 25%에서 2015년 3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안전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
- 이에, 식품접객업소 관련 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식품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② 조사개요

- 2016년 ~ 2017년 상반기 기간에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식품접객업소 관련 상담사례 1,075건

③ 식품접객업소 상담 분석

① 연도별 식품접객업소 상담 동향

- 식품접객업소 상담은 2014년 755건에서 2015년 660건으로 전년대비 12.6%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697건으로 전년대비 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017년 상반기에도 378건으로 전년 동기(342건) 대비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담 사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1] 연도별 식품접객업소 상담 동향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건	전년대비 (%)	건	전년대비 (%)	건	전년대비 (%)	건	전년 동기 대비 (%)
불만사례	755	-	660	▼12.6	697	▲5.6	378	▲10.5

② 월별 식품접객업소 상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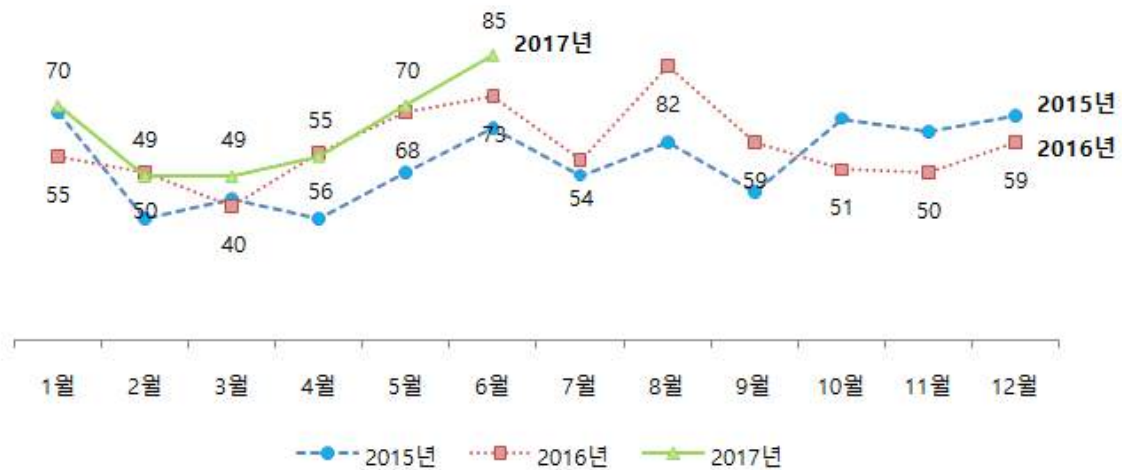
- 월별 식품접객업소 상담 동향은 2015년에는 1월(89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에는 8월(82건)과 6월(73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7년에는 1월 70건에서 2월과 3월 하락하다가 5월부터 다시 높아져 6월 85건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1] 연도별 식품접객업소 상담 건수

(단위 :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68	36	42	36	50	63	49	59	44	66	62	67
2016년	55	50	40	56	68	73	54	82	59	51	50	59
2017년	70	49	49	55	70	85	-	-	-	-	-	-

[그림1] 월별 식품접객업소 상담 동향



③ 식품접객업소 품목별 상담

- 2016년과 2017년 상반기에 접수된 1,075건 중 햄버거, 피자, 치킨 등 패스트푸드점이 38.4%(413건)로 가장 높았고, 한식(31.0%), 중식(9.1%), 분식(7.3%), 커피전문점(5.2%)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7년 모두 패스트푸드점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식으로 나타남. 커피전문점은 2015년 3.0%(20건)에서 2016년 5.3%(37건), 2017년 상반기 5.0%(19건)로 상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2] 식품접객업소 품목별 상담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2016년.2017년 상반기	
	불만사례 (건)	비율(%)	불만사례 (건)	비율(%)	불만사례 (건)	비율(%)	불만사례 (건)	비율(%)
한식	213	32.3	220	31.6	113	29.9	333	31.0
양식	7	1.1	23	3.3	8	2.1	31	2.9
일식	67	10.2	66	9.5	32	8.5	98	9.1
중식	30	4.5	17	2.4	19	5.0	36	3.3
분식	50	7.6	51	7.3	28	7.4	79	7.3
노점상	6	0.9	11	1.6	5	1.3	16	1.5
패스트푸드점	263	39.8	264	37.9	149	39.4	413	38.4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2016년.2017년 상반기	
	불만사례 (건)	비율(%)	불만사례 (건)	비율(%)	불만사례 (건)	비율(%)	불만사례 (건)	비율(%)
취폐	4	0.6	8	1.1	5	1.3	13	1.2
커피전문점	20	3.0	37	5.3	19	5.0	56	5.2
합계	660	100.0	697	100.0	378	100.0	1,075	100.0

④ 식품접객업소 상담 불만 이유

-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접수된 식품접객업소 상담의 불만 이유를 살펴보면, 이상증세가 40.1%(431건)로 가장 높았고, 이물질(35.0%), 품질불량(10.0%), 변질(6.6%), 검사요청(2.8%)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는 2015년과 2017년 상반기에는 이물질 상담 건수가 이상증세보다 많았으나, 2016년에는 이상증세 41.6%(290건), 이물질 33.1%(231%) 순으로 나타나 10건 중 4건은 이상증세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표2] 식품접객업소 상담 불만 이유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2016년.2017년 상반기	
	불만사례 (건)	비율(%)	불만사례 (건)	비율(%)	불만사례 (건)	비율(%)	불만사례 (건)	비율(%)
이물질	225	34.1	231	33.1	145	38.4	376	35.0
이상증세	224	33.9	290	41.6	141	37.3	431	40.1
유통기한	10	1.5	11	1.6	2	0.5	13	1.2
변질	55	8.3	48	6.9	23	6.1	71	6.6
검사요청	19	2.9	20	2.9	10	2.6	30	2.8
품질불량	87	13.2	66	9.5	42	11.1	108	10.0
표시광고	18	2.7	11	1.6	9	2.4	20	1.9
규격	22	3.3	20	2.9	6	1.6	26	2.4
합계	660	100.0	697	100.1.0	378	100	1,075	100.0

⑤ 불만이유별 품목

-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접수된 식품접객업소 상담 1,075건의 불만이유별 품목을 살펴보면, 이물질과 검사요청, 품질불량, 표시광고, 규격 관련 상담은 패스트푸드점이 높게 나타났고, 이상증세, 변질 상담은 한식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이물질 상담 376건 중 패스트푸드점이 47.3%(178건), 한식 27.9%(105건), 커피전문점 6.6%(25건) 순으로 나타났고, 이상증세 상담 431건 중 한식이 45.3%(151건), 패스트푸드점 27.1%(117건), 일식 19.7%(85건) 순으로 나타남.

[표2] 불만이유별 품목

(n=1,075건, 2016년 · 2017년 상반기 상담)

		이물질	이상증세	유통기한	변질	검사요청	품질불량	표시광고	규격
한식	건	105	151	4	30	2	24	8	9
	(%)	(27.9)	(45.3)	(30.8)	(42.3)	(6.7)	(22.2)	(40.0)	(34.6)
양식	건	10	13	0	3	1	2	1	1
	(%)	(2.7)	(3.0)	(0.0)	(4.2)	(3.3)	(1.9)	(5.0)	(3.8)
일식	건	2	85	0	2	4	5	0	0
	(%)	(0.5)	(19.7)	(0.0)	(2.8)	(13.3)	(4.6)	(0.0)	(0.0)
중식	건	22	7	0	3	1	2	0	1
	(%)	(5.9)	(1.6)	(0.0)	(4.2)	(3.3)	(1.9)	(0.0)	(3.8)
분식	건	29	25	2	11	3	7	0	2
	(%)	(7.7)	(5.8)	(15.4)	(15.5)	(10.0)	(6.5)	(0.0)	(7.7)
노점상	건	2	11	0	0	2	0	0	1
	(%)	(0.5)	(2.6)	(0.0)	(0.0)	(6.7)	(0.0)	(0.0)	(3.8)
패스트 푸드점	건	178	117	4	16	15	62	10	11
	(%)	(47.3)	(27.1)	(30.8)	(22.5)	(50.0)	(57.4)	(50.0)	(42.3)
뷔페	건	3	8	1	1	0	0	0	0
	(%)	(23.1)	(1.9)	(7.7)	(7.7)	(0.0)	(0.0)	(0.0)	(0.0)
커피 전문점	건	25	14	2	5	2	6	1	1
	(%)	(6.6)	(3.2)	(15.4)	(7.0)	(6.7)	(5.6)	(5.0)	(1.8)
합계	건	376	431	13	71	30	108	20	2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⑥ 이물질 상담

-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접수된 식품접객업소 상담 중 불만이유가 이물질인 상담의 이물 종류를 분석한 결과 다칠 수 있는 금속 · 유리 · 철 ·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상담이 35.9%(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벌레(23.4%), 비닐 · 고무 등 다치지 않는 이물(20.7%), 머리카락 · 털 · 뼈(17.3%) 순으로 나타남.

[표2] 식품접객업소 상담 불만 이유 : 이물 종류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2016년.2017년 상반기	
	불만사례 (건)	비율(%)	불만사례 (건)	비율(%)	불만사례 (건)	비율(%)	불만사례 (건)	비율(%)
벌레	44	19.6	60	26.0	28	19.3	88	23.4
머리카락/ 털/뼈	35	15.6	35	15.2	30	20.7	65	17.3
다칠수있음 (금속/유리/ 철/플라스틱)	87	38.7	84	36.4	51	35.2	135	35.9
다치지 않음(비닐/고무)	48	21.3	47	20.3	31	21.4	78	20.7
침전물	11	4.9	5	2.2	5	3.4	10	2.7
합계	225	100.0	231	100.0	145	100.0	376	100.0

⑥-1 이물 종류별 품목

-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접수된 식품접객업소 상담 중 불만이유가 이물질인 상담 376건의 이물 종류별 품목을 살펴보면, 벌레, 머리카락/털/땀 등 모든 이물 종류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이 혼입되어 상담이 접수됨. 특히, 식품접객업소 음식에서 머리카락/털/땀과 다칠 수 있는 금속/유리/철/플라스틱 혼입으로 접수된 상담 중 절반이 패스트푸드점으로 나타남.

[표2] 이물 종류별 품목

(n=376건, 2016년 · 2017년 상반기 접수 이물질 상담)

		벌레	머리카락/털/땀	다칠수있음 (금속/유리/철/ 플라스틱)	다치지않음 (비닐/고무)	침전물
한식	건	29	16	37	21	2
	(%)	(33.0)	(24.6)	(27.4)	(26.9)	(20.0)
양식	건	2	3	5	0	0
	(%)	(2.3)	(4.6)	(3.7)	(0.0)	(0.0)
일식	건	1	0	1	0	0
	(%)	(1.1)	(0.0)	(0.7)	(0.0)	(0.0)
중식	건	6	1	9	6	0
	(%)	(6.8)	(1.5)	(6.7)	(7.7)	(0.0)
분식	건	10	6	9	3	1
	(%)	(11.4)	(9.2)	(6.7)	(3.8)	(10.0)
노점상	건	0	1	1	0	0
	(%)	(0.0)	(1.5)	(0.7)	(0.0)	(0.0)
패스트 푸드점	건	37	33	67	37	4
	(%)	(42.0)	(50.8)	(49.6)	(47.4)	(40.0)
뷔페	건	0	0	2	1	0
	(%)	(0.0)	(0.0)	(1.5)	(1.3)	(0.0)
커피 전문점	건	3	5	4	10	3
	(%)	(3.4)	(7.7)	(3.0)	(12.8)	(30.0)
합계	건	88	65	135	78	10
	(%)	(100.0)	(100.0)	(100.0)	(100.0)	(100.0)

⑦ 이상증세 상담

-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접수된 식품접객업소 상담 중 불만이유가 이상증세인 상담의 이상증세 유형을 살펴보면, 설사/복통/구토가 56.8%(245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아손상(18.1%), 식중독(13.5%), 기타 이상증세(5.8%), 두드러기 · 알레르기(5.6%)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식중독은 2015년 8.9%(20건)에서 2016년 14.8%(43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표2] 식품접객업소 상담 불만 이유 : 이상증세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2016년.2017년 상반기	
	불만사례 (건)	비율(%)	불만사례 (건)	비율(%)	불만사례 (건)	비율(%)	불만사례 (건)	비율(%)
설사/복통/ 구토	155	69.2	163	56.2	82	58.2	245	56.8
발열/두통	1	0.4	1	0.3	0	0.0	1	0.2
치아손상	40	17.9	48	16.6	30	21.3	78	18.1
두드러기 · 알레르기	8	3.6	17	5.9	7	5.0	24	5.6
식중독 (2인이상)	20	8.9	43	14.8	15	10.6	58	13.5

기타 이상증세	-	-	18	6.2	7	5.0	25	5.8
합계	224	100.0	290	100.0	141	100.0	431	100.0

⑦-1 이상증세 상담 : 월별 동향

- 월별 이상증세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15과 2017년 상반기에는 이상증세 상담이 1월에 각각 34건, 3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2016년에는 이상증세 상담이 5월(32건)에 가장 많이 접수됨.

[표2] 월별 이상증세 상담 건수

(단위 :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5년	34	12	13	16	15	14	11	19	17	25	27	21	224
2016년	22	23	18	23	32	27	23	25	28	22	21	26	290
2017년	32	20	17	20	25	27	-	-	-	-	-	-	141

⑦-2 이상증세별 품목

-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접수된 식품접객업소 상담 중 불만이유가 이상증세인 상담 431건의 이상증세별 품목을 살펴보면, 설사/복통/구토는 패스트푸드점, 치아손상과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 이상증세는 한식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설사/복통/구토는 패스트푸드점(28.6%), 한식(28.2%), 일식(24.1%) 순으로 나타났고, 치아손상은 한식(47.4%), 패스트푸드점(34.6%) 순, 식중독은 한식(39.7%), 일식(36.2%) 순으로 나타남.

[표2] 이상증세별 품목

(n=431건, 2016년·2017년 상반기 접수 이상증세 상담)

		설사/복통/ 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 알레르기	식중독 (2인이상)	기타 이상증세
한식	건	69	1	37	10	23	11
	(%)	28.2	0.7	47.4	41.7	39.7	44.0
양식	건	7	0	4	0	2	0
	(%)	2.9	0.0	5.1	0.0	3.4	0.0
일식	건	59	0	1	2	21	2
	(%)	24.1	0.0	1.3	8.3	36.2	8.0
중식	건	3	0	2	0	1	1
	(%)	1.2	0.0	2.6	0.0	1.7	4.0
분식	건	18	0	3	1	2	1
	(%)	7.3	0.0	3.8	4.2	3.4	4.0
노점상	건	8	0	1	2	0	0
	(%)	3.3	0.0	1.3	8.3	0.0	0.0
패스트 푸드점	건	70	0	27	6	6	8
	(%)	28.6	0.0	34.6	25.0	10.3	32.0
뷔페	건	5	0	0	0	3	0
	(%)	2.0	0.0	0.0	0.0	5.2	0.0
커피 전문점	건	6	0	3	3	0	2
	(%)	2.4	0.0	3.8	12.5	0.0	8.0
합계	건	245	1	78	24	58	2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④ 식품접객업소 상담 사례

구분	접수월	내용(사례)
이물	‘17.1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핫크리스피버거세트 2개를 배달을 시켜 주문했는데 두 버거중 하나의 버거 안에서 줄 모양의 딱딱한 이물질이 나왔음.
	‘17.2	새벽에 치킨을 주문해 먹었는데 철사가 나옴. 매장 사장이 치킨에서 철사가 나온 것을 소비자가 일부러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CCTV를 확인 함. CCTV확인으로 치킨에서 철사가 나왔음을 확인했으나 환불을 안 해줌.
	‘17.4	친구가 지하철에 있는 이디야커피점에서 자몽쥬스를 테이크아웃해서 구매했음. 빨대로 빨아서 먹는데 얼음 인줄알고 씹어서 먹는데 딱딱해서 확인했는데 유리 조각이었음. 일부는 먹기도 했음. 유리조각도 가지고 있고 사진도 찍어 두었음.
	‘17.5	버거킹 햄버거 섭취 중 췌당이가 나와 인플란트에 훼손이 생김. 치료비 보상은 해주겠지만 경비와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은 20만원만 해준다고 함.
	‘17.6	연어초밥안에 쌀알 크기만한 벌레가 들어 있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배달 어플에서 환불이 안 됨.
이상증세	‘17.1	맥도날드에서 아내와 애기와 3명이 드라이버스루로 햄버거 2개를 구매, 섭취 후 아내가 토하고 복통을 호소함. 병원에 갔더니 식중독 증상이 있다고 함.
	‘17.1	햄버거를 어제밤 11시에 먹었음. 오늘 아이가 구토를 하고 해서 병원을 방문하고 식중독 증상을 보여 입원하라고 함
	‘17.6	아이가 햄버거를 먹음. 익지 않은 닭패티로 인해서 설사를 함.
	‘17.4	지난주에 햄버거 전문점에서 햄버거 구입함. 햄버거 먹는 중 패티(육류)익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일부 먹으면서 확인됨. 패티가 익지 않은 상태에서 먹은 후 자녀가 설사가 발생하여 해당 판매자에게 알림.
	‘17.5	식당에서 광어초밥을 12시에 먹고 ,5시에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감(2명).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보건소에 신고라고 하여 신고함. 보건소에서는 식중독이 아니고, 염증에 의한 것이라고함 . 보건소 소견서에는 광어초밥으로 기생충에 의한 장염이라고 함.
변질	‘16.5	제주공항 내에 있는 황토 음식점을 이용함 메밀 알레르기가 있는데 식당으로 부터 알레르기 부분에 대한 고지 내용을 듣지 못함 음식을 먹고 10분후 알레르기 발생하여 공항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음
	‘17.4	커피 전문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고구마무스 조각케이크를 먹었음. 맛이 시큼하다고 함. 거의 다 먹고 난 후 마지막 남은 조각의 맛을 보다 보니 파란 곰팡이를 발견함.
유통기한	‘17.2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햄버거, 핫바 구매해서 먹은 후 배탈이 남 햄버거와 핫바 포장을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햄버거임
품질불량	‘17.1	대구 BHC 동천점에 요기요어플을 이용하여 치킨(간장골드윙)을 주문 닭다리가 완전히 익히지 않은 상태로 옴.

구분	접수월	내용(사례)
		* AI 발생으로 덜 익은 닭고기에 대한 상담 3건 접수
	‘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슐리(부페)에서 식사함. - 치킨이 탄내 비슷한 맛이 있었고 튀기는 기름을 자세히 보니까 새까맣게 썩은 것처럼 보였음. - 계산하고 나오면서 물어보니까 기름을 2일 전에 교체했다고 함. - 매장에서 사용하는 기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보임

5 제언

1. 식품접객업소 관련 상담 분석 결과, 접수 상담 10건 중 4건은 이상증세로 나타남. 식품접객업소 원재료 관리 및 조리 기구, 종사자 위생 관리 등 조리 과정 및 조리환경의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됨.
 - 최근 발생한 일명 햄버거병의 경우 덜 익은 패티가 문제가 되었음. 상담 사례에서도 햄버거 패티나 치킨이 덜 익었다고 하여 복통이나 구토 등 배탈 또는 식중독 증상을 보인 사례도 있었음. 특히 최근 AI(조류 인플루엔자)나 유럽산 소시지로 인한 E형 감염 등으로 덜 익은 육류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높은 만큼 식육가공품의 식품 조리 과정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위생등급제를 본격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들 중 위생등급제에 신청한 음식점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임.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중소형 음식점의 위생의 질을 높이고 이에 대한 위생 수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식품접객업소의 이상증세 상담 중 알레르기·두드러기는 전체 이상증세 상담 중 5%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2015년 3.6%(20건) 2016년 5.9%(43건)으로 두배 정도 늘어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시행되고 있지만, 상담 분석 결과, 한식에서 두드러기·알레르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알레르기 표시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3. 식품접객업소의 이물 혼입으로 인한 상담은 이상증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물로 인한 상담이 가장 높음. 패스트푸드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많이 먹으므로 섭취 시 보호자들의 주의가 필요함. 특히 이물 중 다칠 수 있는 금속, 유리, 철, 플라스틱의 이물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남.
3. 새로운 형태의 외식업소(예, 만화방, PC방, 애견 카페, 카페와 미용실 결합 업소 등)가 많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 업소가 위생 기준을 준수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점검 등이 필요함.

③

온라인 판매 식품불만 사례 분석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조사배경

- 오프라인 시장과는 달리 인터넷 및 통신판매업소 등 온라인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온라인상에서 만나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확인이 어렵고, 온라인 판매업자(온라인 개인 판매업자 포함)의 전문성이나 상품 판매의 연속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상존해 있다. 특히, 온라인 판매 식품의 경우 정확한 맛이나, 향, 식품의 보관 상태나 위생상태 등의 파악이 어렵고, 식품 정보로 주어지고 있는 기본 정보 또한 공급자가 정보를 명시해 주지 않는 이상은 소비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조사목적

-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상담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판매 식품의 위해요소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를 재점검해보는 계기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 온라인 판매 식품 상담 건수

▶ 조사기간: 2016. 1월 ~ 12월

▶ 조사대상: 1372에 접수된 온라인 판매 식품 상담사례 1,817건(기타 불만사례는 제외하였음)

1. 월별 건수

-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372에 접수된 온라인 판매 식품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총 1,817건으로 10월 204건(11.2%), 11월 186건(10.2%), 9월 181건(10.0%), 12월 171건(9.4%), 2월 168건(9.2%), 3월 147건(8.1%), 8월 140건(7.7%), 7월 138건(7.6%), 6월 127건(7.0%), 5월 124건(6.8%), 1월 118건(6.5%), 4월 113건(6.2%)순으로 나타났다.

<월별 건수>

월별	건수	비율(%)
10월	204	11.2
11월	186	10.2
9월	181	10.0
12월	171	9.4
2월	168	9.2

월 별	건 수	비율(%)
3월	147	8.1
8월	140	7.7
7월	138	7.6
6월	127	7.0
5월	124	6.8
1월	118	6.5
4월	113	6.2
합계	1,817	100.0

2. 지역별 건수

- 지역별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 565건(31.1%), 서울 419건(23.1%), 부산 110건(6.1%), 인천 105건(5.8%), 경남 82건(4.5%), 대구 73건(4.0%), 충남 58건(3.2%), 대전 56건(3.1%), 광주 56건(3.1%), 경북 55건(3.0%), 전북 49건(2.7%), 충북 47건(2.6%), 전남 42건(2.3%), 울산 36건(2.0%), 강원 34건(1.9%), 해외 12건(0.7%), 제주 10건(0.6%), 세종 8건(0.4%)순이었다.

<지역별 건수>

항 목	빈도(건)	비율(%)
경기	565	31.1
서울	419	23.1
부산	110	6.1
인천	105	5.8
경남	82	4.5
대구	73	4.0
충남	58	3.2
대전	56	3.1
광주	56	3.1
경북	55	3.0
전북	49	2.7
충북	47	2.6
전남	42	2.3
울산	36	2.0
강원	34	1.9
해외	12	0.7
제주	10	0.6
세종	8	0.4
합계	1,817	100.0
무응답	191	

3. 품목별 건수

- 품목별 건수를 살펴보면 건강식품 417건(22.9%), 과일류 245건(13.5%), 채소류 142건(7.8%), 유기가공식품 136건(7.5%), 곡류 102건(5.6%), 육류 76건(4.2%), 어패류 66건(3.6%), 음료류 59건(3.2%), 육류가공품 56건(3.1%), 과자류 51건(2.8%), 생선류 45건(2.5%), 견과류 44건(2.4%), 다류 41건(2.3%)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건수>

항목	빈도(건)	비율(%)
건강식품	417	22.9
과일류	245	13.5
채소류	142	7.8
유가공식품	136	7.5
곡류	102	5.6
육류	76	4.2
어패류	66	3.6
음료류	59	3.2
육류가공품	56	3.1
과자류	51	2.8
생선류	45	2.5
견과류	44	2.4
다류	41	2.3
빵 및 떡류	38	2.1
즉석식품	38	2.1
특수용도식품	29	1.6
건포류	28	1.5
절임식품	27	1.5
조미식품류	25	1.4
김치류	22	1.2
음식점	16	0.9
당류	14	0.8
약용작물류	14	0.8
면류	12	0.7
해조류	12	0.7
식용유지류	11	0.6
어육가공품	9	0.5
아이스크림류	8	0.4
조림식품	7	0.4
젓갈류	6	0.3
식용종자,버섯류	6	0.3
주류	4	0.2
고추가루	4	0.2
유란류	2	0.1
나물류	2	0.1
알가공품	1	0.1
두부류,묵류	1	0.1
드레싱류	1	0.1
합계	1,817	100.0

4. 상담이유별 건수

- 상담이유별 건수를 살펴보면 부당행위시정 452건(23.0%), 환불 439건(22.3%), 정보요청 410건(20.8%), 반품 299건(15.2%), 손해배상청구 123건(6.3%), 교환 90건(4.6%), 치료비요구 77건(3.9%), 해지 42건(2.1%), 기타 20건(1.0%), 사과요구 16건(0.8%)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이유별 건수>

항목	빈도(건)	비율(%)
부당행위시정	452	23.0
환불	439	22.3
정보요청	410	20.8
반품	299	15.2
손해배상청구	123	6.3
교환	90	4.6
치료비요구	77	3.9
해지	42	2.1
기타	20	1.0
사과요구	16	0.8
계	1,968	100.0

*복수응답

5. 불만사례별 건수

- 불만사례별 건수를 살펴보면 품질불량 496건(26.1%), 상함,부패 247건(13.0%), 과대광고 139건(7.3%), 용량미달 123건(6.5%), 설사/복통/구토 109건(5.7%), 벌레 84건(4.4%), 기타이상증세 81건(4.3%), 유통기한경과 74건(3.9%)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사례별 건수>

항목	빈도(건)	비율(%)
품질불량	496	26.1
상함,부패	247	13.0
과대광고	139	7.3
용량미달	123	6.5
설사/복통/구토	109	5.7
벌레	84	4.4
기타이상증세	81	4.3
유통기한 경과	74	3.9
곰팡이	63	3.3
악취	60	3.2
포장불량	59	3.1
다치지는 않음(비닐/고무)	54	2.8
다칠수 있음(금속/유리쇠/철/플라스틱)	52	2.7
두드러기,알레르기	46	2.4
성분검사	41	2.2
용기파손	26	1.4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25	1.3
침전물	22	1.2
치아손상	17	0.9
원산지확인	17	0.9
성분표시	16	0.8
머리카락/털/땀	14	0.7
진품확인	11	0.6
발열/두통	10	0.5
용기에 의한 손상	9	0.5
식중독	3	0.2
가격미표시	3	0.2
위생점검	2	0.1
계	1,903	100.0

*복수 응답

①이물질

- 이물질 건수를 살펴보면 유가공식품 19.9%로 가장 많았고, 곡류 12.4%, 건강식품 11.5%, 견과류 5.8%, 채소류 4.9%, 과자류/특수용도식품/육류 각각 4.4%, 즉석식품 3.5%, 빵 및 떡류 3.1%, 육류가공품/다류/김치류/과일류 각각 2.7%, 어육가공품/건포류/음식점 각각 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물질사례별 건수>

품목류	벌레		머리카락/털/뽕		다칠수 있음(금속/유리쇠/철/플라스틱)		다치지 않는(비닐/고무)		침전물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유가공식품	18	21.4	2	14.3	4	7.7	12	22.2	9	40.9	45	19.9
곡류	20	23.8	0	0.0	3	5.8	4	7.4	1	4.5	28	12.4
건강식품	6	7.1	1	7.1	10	19.2	6	11.1	3	13.6	26	11.5
견과류	8	9.5	0	0.0	4	7.7	1	1.9	0	0.0	13	5.8
채소류	7	8.3	0	0.0	4	7.7	0	0.0	0	0.0	11	4.9
과자류	0	0.0	1	7.1	4	7.7	4	7.4	1	4.5	10	4.4
특수용도식품	1	1.2	0	0.0	3	5.8	4	7.4	2	9.1	10	4.4
육류	1	1.2	4	28.6	4	7.7	1	1.9	0	0.0	10	4.4
즉석식품	3	3.6	0	0.0	4	7.7	1	1.9	0	0.0	8	3.5
빵 및 떡류	2	2.4	1	7.1	2	3.8	2	3.7	0	0.0	7	3.1
육류가공품	2	2.4	0	0.0	3	5.8	1	1.9	0	0.0	6	2.7
다류	0	0.0	1	7.1	1	1.9	2	3.7	2	9.1	6	2.7
김치류	2	2.4	0	0.0	1	1.9	3	5.6	0	0.0	6	2.7
과일류	2	2.4	1	7.1	2	3.8	1	1.9	0	0.0	6	2.7
어육가공품	3	3.6	1	7.1	0	0.0	0	0.0	0	0.0	4	1.8
건포류	0	0.0	0	0.0	0	0.0	4	7.4	0	0.0	4	1.8
음식점	2	2.4	1	7.1	0	0.0	1	1.9	0	0.0	4	1.8
음료류	0	0.0	0	0.0	0	0.0	1	1.9	2	9.1	3	1.3
어패류	2	2.4	0	0.0	0	0.0	1	1.9	0	0.0	3	1.3
당류	0	0.0	0	0.0	1	1.9	1	1.9	0	0.0	2	0.9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1	1.9	0	0.0	1	4.5	2	0.9
조미식품류	0	0.0	0	0.0	0	0.0	1	1.9	1	4.5	2	0.9
젓갈류	1	1.2	1	7.1	0	0.0	0	0.0	0	0.0	2	0.9
조림식품	1	1.2	0	0.0	0	0.0	1	1.9	0	0.0	2	0.9
해조류	0	0.0	0	0.0	0	0.0	2	3.7	0	0.0	2	0.9
주류	1	1.2	0	0.0	0	0.0	0	0.0	0	0.0	1	0.4
생선류	0	0.0	0	0.0	1	1.9	0	0.0	0	0.0	1	0.4
식용종자,버섯류	1	1.2	0	0.0	0	0.0	0	0.0	0	0.0	1	0.4
약용작물류	1	1.2	0	0.0	0	0.0	0	0.0	0	0.0	1	0.4
합계	84	100.0	14	100.0	52	100.0	54	100.0	22	100.0	226	100.0

② 이상증세

- 이상증세 사례별건수를 살펴보면 건강식품 54.9%로 가장 높았고, 유가공식품 8.3%, 즉석식품/육류 각각 4.1%, 음료류/곡류 각각 3.4%, 건포류 2.6%, 특수용도식품/과일류/어패류 각각 1.9%, 육류가공품/채소류/생선류/견과류 1.5% 순이었다.

<이상증세 사례별 건수>

항목	설사/복통구토		발열/두통		치아손상		두드러기/알레르기		식중독		기타이상증세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건강식품	40	36.7	9	90.0	3	17.6	28	60.9	1	33.3	65	80.2	146	54.9
유가공식품	18	16.5	0	0.0	0	0.0	3	6.5	0	0.0	1	1.2	22	8.3
즉석식품	8	7.3	0	0.0	1	5.9	0	0.0	1	33.3	1	1.2	11	4.1
육류	4	3.7	0	0.0	1	5.9	2	4.3	1	33.3	3	3.7	11	4.1
음료류	4	3.7	0	0.0	0	0.0	2	4.3	0	0.0	3	3.7	9	3.4
곡류	6	5.5	0	0.0	1	5.9	0	0.0	0	0.0	2	2.5	9	3.4
건포류	3	2.8	0	0.0	0	0.0	2	4.3	0	0.0	2	2.5	7	2.6
특수용도식품	3	2.8	0	0.0	0	0.0	1	2.2	0	0.0	1	1.2	5	1.9
과일류	3	2.8	0	0.0	1	5.9	0	0.0	0	0.0	1	1.2	5	1.9
어패류	4	3.7	0	0.0	0	0.0	0	0.0	0	0.0	1	1.2	5	1.9
육류가공품	3	2.8	0	0.0	0	0.0	1	2.2	0	0.0	0	0.0	4	1.5
채소류	3	2.8	0	0.0	0	0.0	1	2.2	0	0.0	0	0.0	4	1.5
생선류	2	1.8	0	0.0	1	5.9	0	0.0	0	0.0	1	1.2	4	1.5
견과류	1	0.9	1	10.0	2	11.8	0	0.0	0	0.0	0	0.0	4	1.5
빵 및 떡류	1	0.9	0	0.0	2	11.8	0	0.0	0	0.0	0	0.0	3	1.1
과자류	1	0.9	0	0.0	2	11.8	0	0.0	0	0.0	0	0.0	3	1.1
조미식품류	2	1.8	0	0.0	0	0.0	1	2.2	0	0.0	0	0.0	3	1.1
당류	0	0.0	0	0.0	2	11.8	0	0.0	0	0.0	0	0.0	2	0.8
다류	0	0.0	0	0.0	1	5.9	1	2.2	0	0.0	0	0.0	2	0.8
젓갈류	1	0.9	0	0.0	0	0.0	1	2.2	0	0.0	0	0.0	2	0.8
음식점	0	0.0	0	0.0	0	0.0	2	4.3	0	0.0	0	0.0	2	0.8
아이스크림류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식용유지류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4
식용종자/버섯류	0	0.0	0	0.0	0	0.0	1	2.2	0	0.0	0	0.0	1	0.4
합계	109	100.0	10	100.0	17	100.0	46	100.0	3	100.0	81	100.0	266	100.0

③유통기한

- 유통기한 사례별건수를 살펴보면 건강식품 19.2%, 유가공식품 14.1%, 육류가공품/다류/즉석식품 각각 6.1%, 빵 및 떡류/음료류 각각 5.1%, 육류/곡류/약용작물류 각각 4.0%, 과자류/면류/채소류/해조류 각각 3.0%순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 사례별 건수>

품목류	유통기한경과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강식품	13	17.6	6	24.0	19	19.2
유가공식품	14	18.9	0	0.0	14	14.1
육류가공품	5	6.8	1	4.0	6	6.1
다류	4	5.4	2	8.0	6	6.1
즉석식품	6	8.1	0	0.0	6	6.1
빵 및 떡류	5	6.8	0	0.0	5	5.1
음료류	3	4.1	2	8.0	5	5.1
육류	0	0.0	4	16.0	4	4.0
곡류	3	4.1	1	4.0	4	4.0
약용작물류	4	5.4	0	0.0	4	4.0
과자류	3	4.1	0	0.0	3	3.0
면류	2	2.7	1	4.0	3	3.0
채소류	1	1.4	2	8.0	3	3.0
해조류	2	2.7	1	4.0	3	3.0
어패류	2	2.7	0	0.0	2	2.0
당류	1	1.4	0	0.0	1	1.0
아이스크림류	0	0.0	1	4.0	1	1.0
식용유지류	0	0.0	1	4.0	1	1.0
특수용도식품	1	1.4	0	0.0	1	1.0
조미식품류	1	1.4	0	0.0	1	1.0
드레싱류	1	1.4	0	0.0	1	1.0
김치류	0	0.0	1	4.0	1	1.0
절임식품	0	0.0	1	4.0	1	1.0
조림식품	1	1.4	0	0.0	1	1.0
주류	0	0.0	1	4.0	1	1.0
건포류	1	1.4	0	0.0	1	1.0
음식점	1	1.4	0	0.0	1	1.0
합계	74	100.0	25	100.0	99	100.0

④ 변질

- 변질 사례별건수를 살펴보면 과일류 25.7%, 채소류 15.9%, 곡류 5.7%, 건강식품 5.4%, 유가공식품 4.9%, 어패류 4.6%, 견과류 4.3%, 육류 3.8%, 육류가공품 3.5%순이었다.

<변질 사례별 건수>

품목류	상함·부패		곰팡이		악취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과일류	87	35.2	6	9.5	2	3.3	95	25.7
채소류	42	17.0	16	25.4	1	1.7	59	15.9
곡류	10	4.0	7	11.1	4	6.7	21	5.7
건강식품	10	4.0	5	7.9	5	8.3	20	5.4
유가공식품	13	5.3	1	1.6	4	6.7	18	4.9
어패류	14	5.7	1	1.6	2	3.3	17	4.6
견과류	4	1.6	4	6.3	8	13.3	16	4.3
육류	10	4.0	1	1.6	3	5.0	14	3.8
육류가공품	9	3.6	1	1.6	3	5.0	13	3.5
과자류	6	2.4	4	6.3	2	3.3	12	3.2
음료류	4	1.6	0	0.0	6	10.0	10	2.7
건포류	2	0.8	2	3.2	5	8.3	9	2.4
생선류	4	1.6	2	3.2	3	5.0	9	2.4
조미식품류	4	1.6	1	1.6	3	5.0	8	2.2
절임식품	5	2.0	0	0.0	2	3.3	7	1.9
즉석식품	3	1.2	3	4.8	0	0.0	6	1.6
빵 및 떡류	3	1.2	0	0.0	0	0.0	3	0.8
어육가공품	2	0.8	0	0.0	1	1.7	3	0.8
다류	0	0.0	2	3.2	1	1.7	3	0.8
김치류	2	0.8	1	1.6	0	0.0	3	0.8
약용작물류	3	1.2	0	0.0	0	0.0	3	0.8
음식점	2	0.8	1	1.6	0	0.0	3	0.8
당류	0	0.0	0	0.0	2	3.3	2	0.5
알가공품	1	0.4	1	1.6	0	0.0	2	0.5
식용유지류	1	0.4	0	0.0	1	1.7	2	0.5
면류	1	0.4	1	1.6	0	0.0	2	0.5
특수용도식품	1	0.4	0	0.0	1	1.7	2	0.5
유란류	1	0.4	1	1.6	0	0.0	2	0.5
해조류	1	0.4	0	0.0	1	1.7	2	0.5
젓갈류	1	0.4	0	0.0	0	0.0	1	0.3
주류	0	0.0	1	1.6	0	0.0	1	0.3
식용종자,버섯류	1	0.4	0	0.0	0	0.0	1	0.3
고추가루	0	0.0	1	1.6	0	0.0	1	0.3
합계	247	100.0	63	100.0	60	100.0	370	100.0

⑤검사요청

- 검사요청 사례별 건수를 살펴보면 건강식품 26.8%로 가장 높았고, 곡류 9.9%, 채소류/과일류 각각 8.5%, 음료류 5.6%, 조미식품류/생선류/견과류 각각 4.2% 순이었다.

<검사요청 사례별 건수>

품목류	성분검사		원산지확인		진품확인		위생점검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강식품	15	36.6	1	5.9	3	27.3	0	0.0	19	26.8
곡류	3	7.3	4	23.5	0	0.0	0	0.0	7	9.9
채소류	3	7.3	1	5.9	2	18.2	0	0.0	6	8.5
과일류	2	4.9	2	11.8	1	9.1	1	50.0	6	8.5
음료류	4	9.8	0	0.0	0	0.0	0	0.0	4	5.6
조미식품류	3	7.3	0	0.0	0	0.0	0	0.0	3	4.2
생선류	0	0.0	2	11.8	1	9.1	0	0.0	3	4.2
견과류	1	2.4	2	11.8	0	0.0	0	0.0	3	4.2
당류	0	0.0	0	0.0	2	18.2	0	0.0	2	2.8
유가공식품	1	2.4	0	0.0	1	9.1	0	0.0	2	2.8
특수용도식품	2	4.9	0	0.0	0	0.0	0	0.0	2	2.8
육류	0	0.0	1	5.9	1	9.1	0	0.0	2	2.8
식용종자,버섯류	0	0.0	2	11.8	0	0.0	0	0.0	2	2.8
약용작물류	1	2.4	1	5.9	0	0.0	0	0.0	2	2.8
어육가공품	0	0.0	0	0.0	0	0.0	1	50.0	1	1.4
다류	1	2.4	0	0.0	0	0.0	0	0.0	1	1.4
김치류	1	2.4	0	0.0	0	0.0	0	0.0	1	1.4
건포류	1	2.4	0	0.0	0	0.0	0	0.0	1	1.4
즉석식품	1	2.4	0	0.0	0	0.0	0	0.0	1	1.4
어패류	0	0.0	1	5.9	0	0.0	0	0.0	1	1.4
고추가루	1	2.4	0	0.0	0	0.0	0	0.0	1	1.4
음식점	1	2.4	0	0.0	0	0.0	0	0.0	1	1.4
합계	41	100.0	17	100.0	11	100.0	2	100.0	71	100.0

⑥ 품질불량

- 품질불량 사례별 건수를 살펴보면 건강식품 22.0%, 과일류 19.2%, 채소류 8.8%, 유가공식품 5.6%, 어패류 4.7%, 곡류 4.4%, 육류가공품 3.9%, 육류 3.7%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불량 사례별 건수>

품목류	품질불량		용기파손		포장불량		용기에 의한 손상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강식품	118	23.8	3	11.5	9	15.3	0	0.0	130	22.0
과일류	110	22.2	0	0.0	3	5.1	0	0.0	113	19.2
채소류	52	10.5	0	0.0	0	0.0	0	0.0	52	8.8
유가공식품	12	2.4	12	46.2	6	10.2	3	33.3	33	5.6
어패류	25	5.0	0	0.0	3	5.1	0	0.0	28	4.7
곡류	23	4.6	1	3.8	2	3.4	0	0.0	26	4.4
육류가공품	20	4.0	0	0.0	2	3.4	1	11.1	23	3.9
육류	16	3.2	0	0.0	5	8.5	1	11.1	22	3.7
절임식품	16	3.2	1	3.8	1	1.7	1	11.1	19	3.2
과자류	10	2.0	1	3.8	7	11.9	0	0.0	18	3.1
음료류	10	2.0	4	15.4	3	5.1	0	0.0	17	2.9
생선류	14	2.8	0	0.0	1	1.7	0	0.0	15	2.5
빵 및 떡류	11	2.2	0	0.0	1	1.7	0	0.0	12	2.0
다류	10	2.0	0	0.0	2	3.4	0	0.0	12	2.0
조미식품류	8	1.6	0	0.0	2	3.4	0	0.0	10	1.7
견과류	8	1.6	0	0.0	0	0.0	0	0.0	8	1.4
김치류	6	1.2	0	0.0	1	1.7	0	0.0	7	1.2
식용유지류	2	0.4	0	0.0	3	5.1	1	11.1	6	1.0
즉석식품	4	0.8	0	0.0	2	3.4	0	0.0	6	1.0
건포류	4	0.8	0	0.0	1	1.7	0	0.0	5	0.8
당류	1	0.2	1	3.8	0	0.0	1	11.1	3	0.5
아이스크림류	2	0.4	0	0.0	1	1.7	0	0.0	3	0.5
면류	1	0.2	0	0.0	2	3.4	0	0.0	3	0.5
해조류	2	0.4	1	3.8	0	0.0	0	0.0	3	0.5
약용작물류	2	0.4	1	3.8	0	0.0	0	0.0	3	0.5
음식점	3	0.6	0	0.0	0	0.0	0	0.0	3	0.5
조림식품	1	0.2	1	3.8	0	0.0	0	0.0	2	0.3
나물류	2	0.4	0	0.0	0	0.0	0	0.0	2	0.3
어육가공품	0	0.0	0	0.0	1	1.7	0	0.0	1	0.2
두부류,묵류	0	0.0	0	0.0	1	1.7	0	0.0	1	0.2
젓갈류	1	0.2	0	0.0	0	0.0	0	0.0	1	0.2
주류	0	0.0	0	0.0	0	0.0	1	11.1	1	0.2
식용종자,버섯류	1	0.2	0	0.0	0	0.0	0	0.0	1	0.2
고추가루	1	0.2	0	0.0	0	0.0	0	0.0	1	0.2
합계	496	100.0	26	100.0	59	100.0	9	100.0	590	100.0

⑦표시광고 및 규격

- 표시광고 및 규격에 대한 사례별건수를 살펴보면 건강식품 27.4%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 12.5%, 채소류 6.8%, 육류 6.0%, 생선류 5.7%, 음료류 5.0%, 특수용도식품 4.3%, 다류/어패류 각각 3.9%순이었다.

<표시광고 및 규격 사례별 건수>

품목류	과대광고		가격미표시		성분표시		용량미달		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강식품	61	43.9	1	33.3	3	18.8	12	9.8	77	27.4
과일류	7	5.0	0	0.0	1	6.3	27	22.0	35	12.5
채소류	9	6.5	0	0.0	0	0.0	10	8.1	19	6.8
육류	8	5.8	0	0.0	2	12.5	7	5.7	17	6.0
생선류	6	4.3	0	0.0	3	18.8	7	5.7	16	5.7
음료류	5	3.6	0	0.0	2	12.5	7	5.7	14	5.0
특수용도식품	7	5.0	1	33.3	0	0.0	4	3.3	12	4.3
다류	3	2.2	0	0.0	0	0.0	8	6.5	11	3.9
어패류	5	3.6	0	0.0	0	0.0	6	4.9	11	3.9
곡류	6	4.3	0	0.0	0	0.0	4	3.3	10	3.6
빵 및 떡류	2	1.4	0	0.0	0	0.0	7	5.7	9	3.2
과자류	3	2.2	0	0.0	0	0.0	5	4.1	8	2.8
유가공식품	2	1.4	1	33.3	0	0.0	4	3.3	7	2.5
육류가공품	2	1.4	0	0.0	0	0.0	3	2.4	5	1.8
면류	3	2.2	0	0.0	0	0.0	1	0.8	4	1.4
김치류	0	0.0	0	0.0	0	0.0	4	3.3	4	1.4
해조류	3	2.2	0	0.0	1	6.3	0	0.0	4	1.4
당류	0	0.0	0	0.0	1	6.3	1	0.8	2	0.7
어육가공품	1	0.7	0	0.0	1	6.3	0	0.0	2	0.7
조림식품	1	0.7	0	0.0	1	6.3	0	0.0	2	0.7
건포류	2	1.4	0	0.0	0	0.0	0	0.0	2	0.7
즉석식품	1	0.7	0	0.0	0	0.0	1	0.8	2	0.7
음식점	1	0.7	0	0.0	0	0.0	1	0.8	2	0.7
아이스크림류	0	0.0	0	0.0	0	0.0	1	0.8	1	0.4
식용유지류	1	0.7	0	0.0	0	0.0	0	0.0	1	0.4
조미식품류	0	0.0	0	0.0	0	0.0	1	0.8	1	0.4
절임식품	0	0.0	0	0.0	0	0.0	1	0.8	1	0.4
약용작물류	0	0.0	0	0.0	0	0.0	1	0.8	1	0.4
고추가루	0	0.0	0	0.0	1	6.3	0	0.0	1	0.4
합계	139	100.0	3	100.0	16	100.0	123	100.0	281	100.0

7. 처리결과별 건수

- 처리결과별 건수를 살펴보면 상담정보제공 1,550건(85.1%), 환불 166건(9.1%), 부당행위시정 43건(2.4%), 교환/해지 각각 23건(1.3%), 손해배상청구 8건(0.4%), 반품 5건(0.3%), 치료비배상 2건(0.1%), 사과요구 1건(0.1%)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별 건수>

항목	빈도(건)	비율(%)
상담정보제공	1,550	85.1
환불	166	9.1
부당행위시정	43	2.4
교환	23	1.3
해지	23	1.3
손해배상청구	8	0.4
반품	5	0.3
치료비배상	2	0.1
사과요구	1	0.1
계	1,821	100.0

II.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상담 사례

이물질	<p>< 사례 1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초 OO몰에서 OO김치 10KG 구매함 ■ 양파묵음 이물질이 나와서 전화함 ■ 제품을 보내달라고 하며 10KG과 2KG 더 보내 준다고 함 ■ 김치 보내기 전 확인하니, 양파묵음의 노끈 4~5개 있었는데, 어느 정도 김치를 먹은 상태라서 손해배상도 받고 싶음
	<p>< 사례 2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팡에서 OO 분유를 주문해서 사용을 하고 있음 ■ 분유통에서 이물질이 나옴 ■ 아이가 두드러기가 생기기까지 하여 보상 받고 싶음
	<p>< 사례 3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대행사이트에서 독일 OOO분유 4박스 구매함 ■ 1회 구매시 4박스 가격이 135,000원 이어서 135,000원 결제했는데, 결제후 가격이 인하되어 119,000 임을 확인하여 발생한 차액은 포인트로 적립해준다는 문자를 받음 ■ 10/10 주문 후 10/15 배송 받았는데, 첫박스 분유에서 벌레가 나옴 ■ 사진을 찍고 사이트 판매자에 문의하였는데, 벌레가 나온 경우가 이번 외에도 여러 건 있어서 사업자는 매 건마다 교환 또는 환불을 해 줄 수 없다며, 독일 본사에 직접 메일을 보내 요청하라 함. ■ 또한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이 배송되어 왔음.

이상증세	<p>< 사례 1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0월경 인터넷을 통하여 OOO 아사이베리를 구입함. ■ 섭취 후 심각한 두통, 어지럼증, 구토증세가 발생,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제품을 확인해보니 기름에 쪄낸 냄새가 났음 ■ 판매처에 문의 대표와 통화를 하였고 섭취 후 이상증상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알렸으나 대표는 냄새는 오메가 성분이 있어 나는 수가 있다고 하면서 양을 줄여 섭취하라고 하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함 ■ 일시적으로 섭취를 중단 후, 양을 줄여 섭취하였으나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증세가 지속됨 ■ 계속해서 앞서 말한 이상증세가 지속되어 식약청에 문의를 하게 되었음. 식약청의 관련 담당자는 현재 섭취하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판매처에 가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비교를 해보라고 하여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현재 판매중인 제품을 확인함. ■ 그 후 판매 측 대표는 의뢰인이 가져간 개봉하지 않은 제품을 개봉하여 냄새를 맡아 보더니 제품이 산화되었다며 제품이상을 인정하였음. ■ 판매 측 대표는 아사이베리 제품이 산화되어 상한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 혹은 구입가로 환불해 주겠다며 문제가 된 것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함 ■ 본 제품은 처음부터 산화가 되어 있었던 것이며 본 제품은 제조일자는 포장박스 어디에도 없으며 유통 기한만 2017.12.1일까지 찍혀 있었음 ■ 본 제품 구입일자는 2015년 10월경이며 의뢰인은 판매자 측의 제품 이상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이상이 없다고 하여 제품과 판매측 상담내용을 믿고 섭취하면 안될 거 같음 <p>< 사례 2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에서 OO업체의 멸균우유를 주문해서 먹음 ■ 유통기한은 남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함 ■ 먹은 아내가 식중독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음 ■ 판매처에서 보상은 해준다고 함 <p>< 사례 3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몰에서 닭가슴살을 10만원어치 구매하여 제품 도착 즉시 직원 3명에서 나눴음 ■ 직원 3명 모두 닭가슴살 먹은 후 가슴 통증 오고 배 아프고 체한 것 같은 동일 증세 발생함 ■ 이상하여 다른 직원에게 먹어보라 하여 다른 직원이 먹었는데 가슴이 답답하다 함 ■ 구매처 알리고 식품 반납과 전액 환불 요구 함 ■ 제조사 직원이 방문하여 성분검사 하겠다며 닭가슴살 일부 수거해 감 ■ 그 후 제조사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성분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하는데 제조사의 답변에 인정할 수 없어 신고함
------	---

유통기한	<p>< 사례 1 > ■ 빵을 OOOO를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받아보니 배송일로부터 2일 남은 제품이 왔음 ■ 문제는 빵의 숫자가 76개임 ■ 업체에 항의를 하니 배송일을 표기했고 배송 당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문제 없다고만 함</p> <p>< 사례 2 > ■ 유부 초밥을 구입을 하고 난 후 5일 후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사용 기간 보다 빠름 ■ 환불 원함</p> <p>< 사례 3 > ■ 9/19일에 학교에 납품을 하려고 OOOO몰에서 과자를 구입함 ■ 9/21일에 배송을 받아서 박스개봉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학교로 납품을 함 ■ 그상태 그대로 학교에서는 보관을 하고 있다가 먹다보니 딱딱한 상태여서 확인을 해 보니 유통기한이 일주일정도 지난 상황임</p> <p>< 사례 4 > ■ 구매 당시에 사진에는 2015/12월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본인이 구매를 할 때는 2016/9월이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으며 유통기한 문제는 생각도 않고 주문하였음 ■ 그러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보내왔으며, 지금 보니 현재 일주일이 지난 상황임</p>
변질	<p>< 사례 1 > ■ 밀봉이 되어있는 옥수수쌀을 구매하였음 ■ 사용하려고 보니, 변질되어 있음 ■ 업체에서는 소비자 보관 부주의로 인한 변질이라 함</p> <p>< 사례 2 > ■ 온라인으로 사과즙 50팩 2박스 구입함 ■ 10월 4일 배송 받아서 먹은 후 보니 상해 있음 ■ 보상기준 문의함</p> <p>< 사례 3 > ■ 인터넷으로 꼬치어묵을 주문하여 친정엄마집으로 배송하였음 ■ 아이의 간식으로 먹이려고 드라이아이스를 추가 주문하여 배송을 받았음 ■ 택배 도착 즉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였음 ■ 다음날에 음식(어묵)을 조리하려고 개봉해보니 악취가 심하게 났음 ■ 유통기한도 남아있는 제품인데 악취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p>

검사요청

< 사례 1 >

- OOOO몰에서 황도 복숭아를 구매하여 3일 오전에 받자마자 아이에게 깎아 주었고, 남은 복숭아에서 한조각 잘라 먹었는데, 강한 탄산음료를 마신듯이 혀가 아려오며 삼켰더니 목도 아려움
- 놀라서 신랑에게도 먹어보라고 주니, 입에 넣었다가 바로 뱉었음
- 과숙성, 혹은 살충제 과다 살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고객센터에 문의 남김
- 다음날 연락 오더니, 업체는 잔류농약 검사는 매일 하고 있지만 업체 내부 사정으로 공개는 어려우며 원하면 환불해주겠다고 함.
- 그러나 건강한 어른의 혀와 목을 반나절동안 얼얼하게 만든 복숭아가 과연 취식해도 인체에 무해한건지에 대한 것이며, 17개월과 4살의 아이도 취식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임
- 과숙성 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농약성분 때문에 이런 맛이 나는거라면, 농약이라는 성분이 바로 인체에 해는 미치지 않아도 체내에 축적되어 있을 수 있기에 너무 무서움
- 업체측에서는 환불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 제가 원하는 복숭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주지 않음.
- 자신들이 복숭아를 수거해 가서 검사를 하고 알려준다고 했는데, 검사결과지를 처음에는 거절하더니 이제는 주겠다고 말을 바꾸는데 신뢰할 수 없어서 신고함

< 사례 2 >

- 어제 받고 인터넷으로 OO냉동만두를 구매하고 받음
- 냉동만두를 먹고 배탈이 나서 아이들과 같이 설사를 함
- 병원에 가서 지사제 처방 받고 옴
- 업체에서는 성분검사를 하고나서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불만스러움

< 사례 3 >

- 온라인으로 다이어트 식품 구입(5개월분 70만원 지불)
- 섭취 이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해 입안이 헐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음.
- 반품을 요청하였더니 용량을 줄여서 먹으라고 함
-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며, 환불과 함께 성분검사를 요청함

품질불량

< 사례 1 >

- 12/24일날 가족모임이 있어 가족파티에서 먹기 위한 목적으로, 김장하려고 절임배추를 주문하였음.
- 12/21일 저녁 8시경 인터넷으로 검색 후 해남 OO농원과 전화통화했고, 23일날 받아서 24일 김장하면 된다고 23일 납품가능하다고 하여 23일에 절임배추 80kg(약 30포기)을 택배로 받기로 하고 현금 156,000원을 입금함.
- 잠깐 집을 비운 사이 23일 저녁 7시에 택배로 도착했다는 전화가 와서 택배업체에서 아파트 현관문 입구에 놔두고 갔는데, 네상자가 모두 바닥이 심하게 젖어 있고 한 상자는 터져있었음. 그러나 다행히 비닐내용물은 터지지 않아서 보니 내용물도 물이 절반이나 차 있었고 열어보니 살짝 쉰 냄새가 났음
- 물빠짐이 잘 안되어 있어서 서둘러 뒷베란다에서 물이 빠지도록 체에 받쳐두고 상단에 포장되어 온 비닐로 상부만 덮어 두었음
- 다음날 24일 가족들과 거실 주방에서 김장을 비비려고 뒷베란다에 둔 배추를 들어보니 배추가 물이 빠지기는 커녕 물에 데쳐진 것처럼 물러진 상태에서 변색이 되어 있었음
- 곧바로 OO농원에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으나, 날씨가 추워서 배추가 언 거 아니냐며 소비자 과실로 떠 넘겼음.

< 사례 2 >

- 인터넷으로 OOO 컵밥(제육덮밥) 16개 구매함
- 그 중 몇 개에서 이물질 나오고, 한개는 포장지 비뚤어져 밀봉이 덜되어 부패함
- 업체에서 회수해 가고 8개짜리 제품을 주고 감

< 사례 3 >

-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소스를 주문
- 추가요금을 납부하면 아이스박스에 포장을 해서 보내준다고 하여 11개를 주문하여 아이스박스 대금을 보냈는데 일반 박스에 아이스팩 1개만 들어옴
- 개봉을 해서 먹다보니 맛이 너무 없어 개봉한 제품을 제외하고 취소를 해달라고 했더니 식품이라 반품이 불가하다 함
-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냉장보관한 상태에서 6개월 남아있음

< 사례4 >

- 9/28일 전자상거래로 캔디를 2통을 구매함
- 캔디가 관리가 잘 안되어서 녹아서 형태가 이상해져 있어서, 물품자체의 하자 때문에 환불 요청을 함
- 그런데 업체에서 계속 1:1게시판을 잘 보지 않으며, 딱 한번 전화연결이 되었을 때 환불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업체와 전화가 안 됨

표시광고

< 사례 1 >

- 인터넷으로 물건 구입함
- 같은 제품인데 성분이 바뀜
- 차류인데 재배된 원산지가 강원도에서 충청도인 제품 배송됨
- 일부 마셨으나 반품 가능한지 문의함

< 사례 2 >

- 4월10일경쯤 신청인이 OO몰에서 생수 구입함.
- 메인화면에 OOOO음료하고 생수로 1+1으로 창이 뜸.
- 12일 배송을 받았는데 OOOO음료만 음.(미네마임 스파클링)
- 이의제기를 하니 처음에는 규격 초과로 생수는 추가 배송될 거라고 Q&A 답을 받음.
- 생수도 안 오고 전화도 없길래 이틀 뒤 업체에 전화하였더니 신청인이 잘못 보았다고 하고 말로 바뀜.
- 시나 광고를 상이하게 한 부분으로 시정조치 하고자 함.

< 사례 3 >

- 인터넷을 통해서 홍계를 구매함
- 광고에서 봤을 때 5Kg이고, 생물일 때도 5Kg라고 했었음
- 그런데 실제로 물건을 받아보니 2.5kg 밖에 안 됨
- 삶으면 3Kg정도 줄어든다고 왜 안내를 안했냐고 하니 누구나 아는 내용이라고 함
- 다른 업체에 문의해도 그렇게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없고 안 좋은 게를 사용하면 그렇다고 함
-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같은데 고발하고 싶음

< 사례 4 >

-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 영양제 구입함
- 메인 화면에 소비자가 복용하는 제품이라 구매함
- 배송 받아보니 다른 제품임
- 상세표시에는 다른 제품 표시하고 있었음
- 반품 요구하니 택배비 30,000원 요구함

규격	<p>< 사례 1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으로 생선을 구입함. ■ 광고 내용 및 사진에는 크게 나왔는데 받아보니 생선이 매우 짜잘했음 ■ 화면과 다른 크기(규격)의 제품인데 생물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함. <p>< 사례 2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몰 홈페이지에서 밤을 구매함. ■ 지난 금요일에 구매 했고 방금 배송 받음("단밤 1킬로 " 8900원). ■ 광고와 달리 손질도 안 되어 있고 크기도 무지 적음. ■ 과대 광고로 반품 요청을 하니 추후에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음. ■ 반품 환불을 요구함 <p>< 사례 3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구매대행에서 건강식품 구입. ■ 동생이 호주에 살고 있고 호주에서 보내줬던 제품이기에, 더 먹기위해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입한 것임. ■ 제품을 받아보니, 호주에서 구입한 제품과 차이가 남.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고 알 크기가 다름. ■ 업체에서는 제조사로 문의해보겠다고 했음 <p>< 사례 4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몰에서 문자가 왔는데, 생새우 1kg 15,000원이라고 저렴하다 해서 주문했음. ■ 배달되어 온 제품은 978g 19,560원 생새우라고 했는데, 언 생새우가 옴. ■ 환불은 받았으나, 사업장 시정 명령하고 싶음
기타	<p>< 사례 1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로그를 통해 다이어트 식품 구매하였음. ■ 2016/11/18 배송 받았음. ■ 2016/11/28 뉴스를 보니 저가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을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자들 검거하였다는 기사를 봤음. ■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임. ■ 식용 후 혹시나 건강상 문제 발생에 대해 의심이 발생하여 못 먹겠다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환불 요청함. ■ 판매자는 블로그에 식품은 환불 불가라고 기재해놨으므로 환불 못해주겠다고 함. ■ 조금 전에 상담 받았는데 개인 간의 거래로 중재가 안된다고 하였음 ■ 개봉하지 않은 제품인데 왜 환불이 안 되는지 문의함.

III. 결론

1. 결론

이번 조사결과 품목별로 살펴보면 건강식품 22.9%로 가장 많았고, 과일류 13.5%, 채소류 7.8%, 유가공식품 7.5%, 곡류 102건(5.6%), 육류 76건(4.2%), 어패류 66건(3.6%), 순으로 나타나 과일류, 채소류 등 농수축산물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점차 온라인 공급 경로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한 이유로는 부당행위시정 23.0%, 환불 22.3%, 정보 요청 20.8%, 반품 15.2%순으로 나타났는데 온라인의 특성상 비대면 거래로 부당행위 시정과 상품에 대한 정보 요청이 많았고, 상품을 미리 보지 못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환불, 반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사례를 분석해보면 품질불량이 26.1%로 가장 높았고, 상함, 부패 13.0%, 과대광고 7.3%, 용량미달 6.5%순으로 나타나 온라인 식품에 대한 품질 관리가 시급하고, 과대광고, 용량미달 등에 대한 불만사항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용량, 규격 등에 대한 올바른 표시사항 및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물질에 있어서는 유가공식품/곡류/건강식품 순이었고, 이상증세에 있어서는 건강식품/유가공식품/즉석식품순이었으며, 유통기한은 건강식품/유가공식품/육류가공품순으로 나타났고, 변질은 과일류/채소류/곡류순이었고, 검사요청은 건강식품/곡류/채소류순이었고, 품질불량은 건강식품/과일류/채소류순이었고, 표시광고 및 규격은 건강식품/과일류/채소류순으로 나타나 건강식품은 모든 불만사례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제품이었으며, 이물질, 이상증세, 유통기한, 변질, 품질불량에 있어서는 유가공식품에 대한 불만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과일류는 변질, 품질불량, 표시광고 및 규격 등에서 불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은 편리하지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식품의 품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구입하므로, 식품 규격, 원산지, 식품에 대한 광고 및 정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한 식품 판매시 용량, 규격, 품질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소비자들 스스로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여야 하며, 가장 불만율이 높은 건강식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식품 구입시에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오픈마켓을 통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겠고, 오픈마켓의 관리 책임을 좀 더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제언

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의 오프라인 중심의 식품 구매 형태에서 인터넷·스마트폰·모바일 등 온라인 시장으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과 정보 요구에 대한 요구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1인가구의 증가 등 사회 구조가 바뀔에 따라 소비트렌드도 변화되고 있어 점점 더 온라인을 이용한 식품 구매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오프라인(대면거래) 시장과는 달리 온라인 전자상거래(무점포 비대면거래)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온라인상에서 만나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확인이 어렵고, 온라인 판매업자(온라인 개인 판매업자 포함)의 전문성이나 상품 판매의 연속성 등을 확보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상존해 있다.

온라인 판매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품질을 보고 살 수 없다는 점과 유통기한 정보 등 업체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의존한 식품선택 행위와 식품을 받기 위해 택배배송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문제 발생 요인이 다소 높다는 현실적 한계가 공존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 식품은 식품이 가지는 특성(소비자가 물품을 받는 시간, 상품상태,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여 소비자 불만을 해소시켜야 한다.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생산자와 판매자 규정이 더 필요하고 중간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의 관리가 필요하다. 농수산물의 경우는 수송 중 부패를 고려해야 하며 수산물의 경우는 품질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표준화, 등급화 기준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정보고지가 필요하다.

식품 정보 관련 표시에 대해 실제 사업자가 제품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책임 회피는 불가하겠지만,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 대한 교육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가들은 식품 사업자들의 표시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식품별 제공대상정보 가이드라인(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6-16호*)이 제시되어 있지만 오픈마켓의 경우 이에 대한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가이드라인이 소비자의 정보 요구도에 적합한지 소비자 활용도와 만족도, 실효성에 대한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선택정보로서의 활용과 올바른 식품 정보를 확인하라는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기에 주목성과 가독성, 정보성에 대한 원칙이 중요하기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온라인 시장 개선을 위한 단체 제안 -

1. 온라인시장의 식품별 소비자정보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2. 온라인 판매 식품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점검 및 보완
3. 배송체계에 대한 사업자 책임 부여 등 법·제도적 관리 강화
4.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
5. 온라인 식품 구입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각지대(블로그 등 개인간 구매 문제 등) 감시 및 대응 필요

* 참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식품별 제공대상정보 가이드라인(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6-1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식품(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2.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4.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관련법상 표시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5-1. 농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5-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의 경우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5-3. 수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5-4.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6. 상품구성 7.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8.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1) 가공식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식품의 유형 1-2. 생산자 및 소재지(수입품의 경우 생산자, 수입자 및 제조국) 1-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4.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1-5.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6. 영양성분(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1-7.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1-8.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사전심의필 유무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1-9.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2.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22) 건강기능식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1-1. 식품의 유형 1-2.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 1-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1-4.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1-5.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6. 영양정보 1-7. 기능정보 1-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1-9.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10.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1-11.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1-12.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2.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1.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등의 정보는 색상의 차별화, 테두리의 이용, 전체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상품 등의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부득이 외국어나 전문용어 등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의 바로 옆에 그 구체적인 개념을 주석 등을 통해 부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데이터방송 등을 통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사업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제조자, 원산지 등 상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다이어트식품 소비자불만사례 분석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YWCA연합회)

1. 조사목적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미용 상 불만족에 이른다. 해결 방법으로는 운동만큼 식단조절이 중요한데 식품 섭취를 제한하기란 쉽지 않다. 한번쯤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소비자들이 낮은 칼로리와 지방분해성분으로 쉽고 빠르게 체중조절이 가능하다는 다이어트 식품의 광고를 접하면 구매욕구가 샘솟는다. 그러나 광고와 다르게 효과가 없거나 제품 섭취 후 신체상의 이상증세가 나타나면서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불만사례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피해 유형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분석 개요

▶ 조사 기간 : 2017년 1월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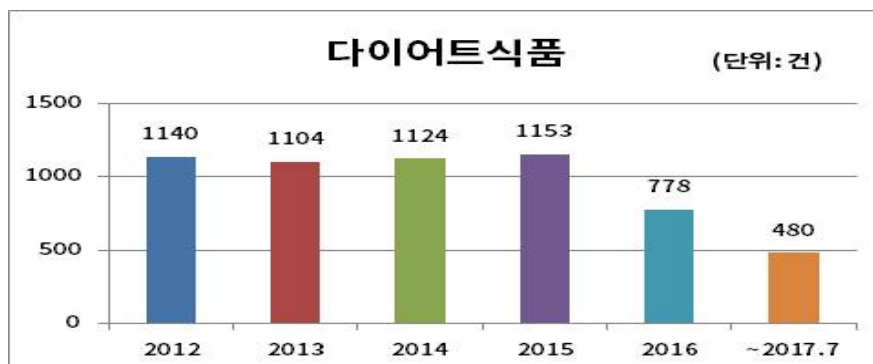
▶ 조사대상 : 1372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상담 사례 510건 식품 재코딩 하여 분석.

3. 분석 결과

1) 년도별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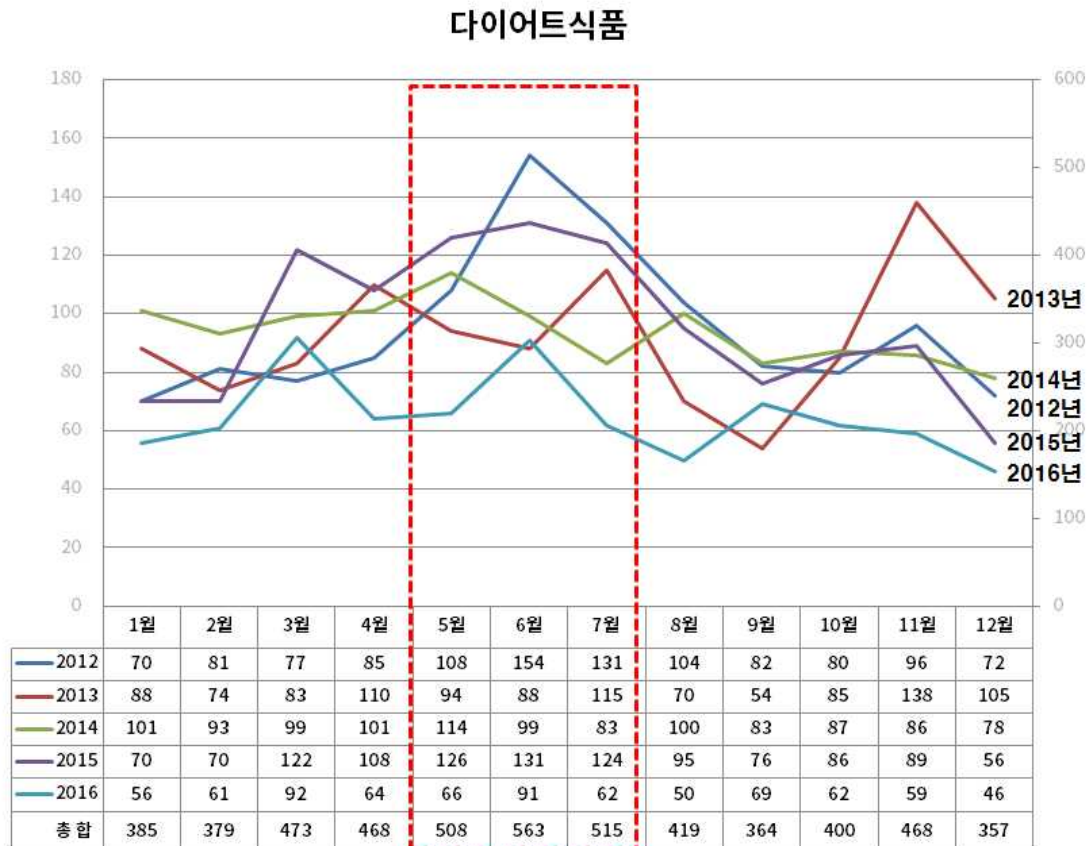
○ 2012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372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1,140건, 2013년 1,104건, 2014년 1,124건, 2015년 1,153건, 2016년 778건, 2017년 7월까지 480건이 접수되었다.

○ 통계적으로 보면 다이어트 식품불만 신고는 2012년 이후 점차 낮아지다가 2017년 7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6년에 비해 근소하게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월별 접수 현황

- 5년간 월별로 접수되는 다이어트식품 상담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6월 10.6%로 가장 많이 접수되고 7월 9.7%, 5월 9.6%, 3월 8.9%, 11월 8.8% 순으로 나타났다.
- 노출이 많고, 옷을 가볍게 입는 여름철에 다이어트식품을 많이 구매하고 비례하여 불만상담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7년 불만사례를 살펴봐도 5, 6, 7월이 가장 높은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2017년 월별 불만사례>

월별	빈도	퍼센트
1월	55	10.8%
2월	50	9.8%
3월	81	15.9%
4월	66	12.9%
5월	92	18.0%
6월	91	17.8%
7월	75	14.7%
총합계	510	100.0%

3) 구입장소별 접수 현황

- 구입장소별로 보면 무점포가 77.3%로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형매장 20.98%, 한의원 1.57%, 대형마트 구매가 0.2%로 나타났다.

구입장소	빈도	퍼센트
무점포	394	77.3%
소형매장	107	21.0%
한의원	8	1.6%
대형마트	1	0.2%
총합계	510	100.0%

4) 판매방법별 접수 현황

- 판매방법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 인터넷이나 모바일 구매가 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접 매장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23.9%, 전화나 광고지 등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통신판매가 16.5%, 방문판매가 13.1%, TV홈쇼핑이 3.3%, 다단계판매가 1.2%로 순으로 나타나 특수판매가 전체의 76.1%를 차지하고 있다.

판매방법	빈도	퍼센트
전자상거래	214	42.0%
직접구입	122	23.9%
전화, 통신판매	84	16.5%
방문판매	67	13.1%
TV홈쇼핑	17	3.3%
다단계판매	6	1.2%
총합계	510	100.0%

5) 상담사유별 접수 현황

- 상담사유 분석결과 가장 많은 상담사유는 환불이 36.5%로, 반품 32.2%으로 환불, 반품 요청68.7%로 나타났으며, 환불과 반품에 이어 계약해지가 7.3%에 이르고 있는데 이 역시 제품 환불에 대한 요청이 주 상담사유라 볼 수 있으며 정보요청도 6.7%로 나타났는데 주로 해지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해배상요청이 5.3%, 계약불이행 4.9%, 부당행위시정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상답이유	빈도	퍼센트
환불	186	36.5%
반품	164	32.2%
해지	37	7.3%
정보요청	34	6.7%
손해배상청구	27	5.3%
계약불이행	25	4.9%
부당행위 시정	19	3.7%
기타	9	1.8%
교환	8	1.6%
사과요구	1	0.2%
총합계	510	100.0%

6) 지역 및 연령 접수 현황

-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25.6%, 서울 22.5%, 부산 7%, 대구 6.2%로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상답이 많았으며, 연령대로는 30대 37.2%, 40대 30.2%, 20대 13.6%, 50대 12.8%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은 불만사례를 보인 지역, 연령대는 경기지역 30대 10%, 40대 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지역 30대 7%, 40대 6.2%로 뒤를 이었다.

지역/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불명	총합계
경기	빈도	7	26	20	10	1	2	66
	퍼센트	2.7%	10.1%	7.8%	3.9%	0.4%	0.8%	25.6%
서울	빈도	14	18	16	7	2	1	58
	퍼센트	5.4%	7.0%	6.2%	2.7%	0.8%	0.4%	22.5%
부산	빈도	3	7	5		2	1	18
	퍼센트	1.2%	2.7%	1.9%	0.0%	0.8%	0.4%	7.0%
대구	빈도	3	4	6	1	1	1	16
	퍼센트	1.2%	1.6%	2.3%	0.4%	0.4%	0.4%	6.2%
경남	빈도	1	8	3	3		1	16
	퍼센트	0.4%	3.1%	1.2%	1.2%	0.0%	0.4%	6.2%
인천	빈도		5	7	3			15
	퍼센트	0.0%	1.9%	2.7%	1.2%	0.0%	0.0%	5.8%
경북	빈도	3	5	3	1			12
	퍼센트	1.2%	1.9%	1.2%	0.4%	0.0%	0.0%	4.7%
충남	빈도	2	6	3				11
	퍼센트	0.8%	2.3%	1.2%	0.0%	0.0%	0.0%	4.3%
대전	빈도	1	4	2			1	8
	퍼센트	0.4%	1.6%	0.8%	0.0%	0.0%	0.4%	3.1%
울산	빈도		1	4	2	1		8
	퍼센트	0.0%	0.4%	1.6%	0.8%	0.4%	0.0%	3.1%
전북	빈도		3	2	3			8

지역/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불명	총합계
	퍼센트	0.0%	1.2%	0.8%	1.2%	0.0%	0.0%	3.1%
전남	빈도	.	2	.	1	1	.	4
	퍼센트	0.0%	0.8%	0.0%	0.4%	0.4%	0.0%	1.6%
광주	빈도	.	1	3	.	.	.	4
	퍼센트	0.0%	0.4%	1.2%	0.0%	0.0%	0.0%	1.6%
강원	빈도	.	1	2	1	.	.	4
	퍼센트	0.0%	0.4%	0.8%	0.4%	0.0%	0.0%	1.6%
충북	빈도	1	2	1	.	.	.	4
	퍼센트	0.4%	0.8%	0.4%	0.0%	0.0%	0.0%	1.6%
해외 및 기타	빈도	.	2	1	1	.	.	4
	퍼센트	0.0%	0.8%	0.4%	0.4%	0.0%	0.0%	1.6%
세종	빈도	1	1
	퍼센트	0.0%	0.0%	0.0%	0.0%	0.0%	0.4%	0.4%
제주	빈도	.	1	1
	퍼센트	0.0%	0.4%	0.0%	0.0%	0.0%	0.0%	0.4%
총합계	빈도	35	96	78	33	8	8	258
	퍼센트	13.6%	37.2%	30.2%	12.8%	3.1%	3.1%	100.0%

7) 성별 접수현황

○ 성별로는 여성이 94.7% 남성이 5.3%로 대부분 여성 소비자 상담이 주를 이뤘다.

성별	빈도	퍼센트
여성	483	94.7%
남성	27	5.3%
총합계	510	100.0%

8) 불만사례별 접수 현황

○ 불만사례별로는 과대광고(효과없음)이 29.2%, 이상증세 25.8%, 식품 및 관련 정보제공 12.7%, 청약철회거부 7.4%, 약속불이행 6.4% 등으로 나타났다.

불만사례		총합계			
과대광고 (효과없음)		156		29.2%	
이상증세	기타이상증세 (어지러움)	65	138	12.2%	25.8%
	설사/복통구토	39		7.3%	
	두드러기·알레르기	15		2.8%	
	체중증가	12		2.2%	
	발열/두통	7		1.3%	
식품 및 관련 정보제공		68		12.7%	
청약철회거부		40		7.5%	
계약(약속)불이행		34		6.4%	
성분표시		27		5.1%	

불만사례	총합계	
품질불량	21	3.9%
환불지연	19	3.6%
이물질	8	1.6
배송문제	7	1.3%
가격불만	5	0.9%
용기파손	3	0.6%
채권추심	3	0.6%
성분검사	2	0.4%
용량미달(중량미달)	2	0.4%
악취	1	0.2%
총합계	534	100.0%

4. 불만사례별 상담사례

불만사례	불만사례
과대광고(효과 없음)	<p>1. 모바일로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하여 섭취하였으나 살이 빠지지 않음. 살이 안빠지면 환불해준다는 녹음이 있음. 업체는 언제그랬느냐고 함.</p> <p>2.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함. 그 당시 효과없으면 언제든지 환불해 주겠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음. 1달이 넘었는데 아무 효과도 없어 환불 가능한지 알고 싶음.</p> <p>3. 인터넷을 보고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함. 광고에는 한달에 7키로 감량이 된다고 하여 구입을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전화를 했더니 다른 제품을 2주 보내와 복용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 반품을 원함. 10키로 감량이 안될 경우 책임진다고 했음.</p> <p>4. 소비자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계약하고 500만원 결제함. 한달보름 이용했는데 체중변화 전혀없음. 구입당시 4개월에 무조건 30키로 감량가능하다고 하여 구입하였음. 계약 내용과 달라 반품하고 싶은데 업체는 반품을 거부함.</p>
이상증세	<p>1. 소비자는 홈쇼핑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함. 본품 중에 3포를 개봉해서 먹었으나 부작용으로 두통, 가슴떨림, 불면증이 발생됨.</p> <p>2. 스마트폰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식품 1달분을 주문함. 3일을 먹었는데 설사하여 환급 요청 함.</p> <p>3.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함. 6일동안 제품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함. 온몸에 두드러기 발생되어 입원치료를 받음.</p> <p>4. **다이어트에서 식품을 구입함. 5포를 먹었는데 잠을 자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환불 받고 싶음.</p> <p>5.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함. 식품을 복용하고 체한 것 처럼 속이 딱딱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됨.</p> <p>6.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함. 4박스 중 한박스를 먹었는데 살이 더 쯼.</p>

불만사례	불만사례
식품 및 관련 정보제공	1. 다이어트 수기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카톡이 옴. 89,200원 입금하면 성형외과및다이어트 관련 혜택을 준다고 해서 입금함. 카톡으로 해지하고자 하니 카톡으로 개인상담을 해서 규정삼 40%만 입금한다고 함. 소비자는 개인상담을 받은적도 없기에 전액환급요청하나 아무런 응답이 없음. 40%만 입금하는 것이 맞는가? 2.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고 입금함. 3일 후 구입의사가 없어 판매처에 연락해서 환불을 요구함. 이미 개봉을 해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청약철회거부	1.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고 일주일 먹고 효과가 없어 반품 요청함. 업체에서는 반품요청 시 정상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함. 일주일을 더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어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환불을 거부함. 2.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을 하고 난 후 하루 먹어보니 효과가 없어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개봉한 것은 안된다고 하는데 전액 환불을 하고 싶음.
계약(약속)불이행	1. 밴드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구입했음. 체지방 측정하면서 관리해주겠다고 했으나 코치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불하고 싶음.
품질불량	1. 3. 7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함. 10주분을 구입하였는데 유통기한이 3. 29까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함. 10주분인데 10주까지 섭취하려면 유통기간이 경과하게 됨. 2. 인터넷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함. 받아보니 분달가루가 돌덩이처럼 굳어 있음.

5. 결론

- 이번조사에서 보면 다이어트 식품 구입장소가 무점포(인터넷, 모바일, 전화, 통신판매, 방문판매) 비율이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식품구입이 대부분 면대면이 아닌 인터넷 광고나 전화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불만사례별로 가장 높은 것이 과대광고(효과없음)으로 살이 빠지지 않으면 환불 및 반품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29.2%로 가장 높았다 이는 다이어트 식품 구입이 대부분 과대과장광고를 통한 즉흥적인 구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이어트 식품 및 관련 정보제공 문의도 해지, 환불, 반품문의 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즉흥적으로 식품을 구입하였으나 바로 해지 하고 싶은데 해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철회기간을 넘긴다거나 업체에서 일단 섭취하고 효과가 없으면 반품해 준다는 말만 믿고 본품을 개봉, 섭취하여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업체 연락이 안된다는 문의도 많았다. 최근 카카오톡으로 이벤트 당첨이라고 해서 입금을 하고 나니 해지, 문의 등 카카오톡이나 유선으로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유사 마케팅사례도 눈에 띄었다.
- 불만사례로 25,8%를 차지한 것은 이상증세이다. 식품을 섭취하고 설사, 두드러기, 알레르기, 어지럼증, 두통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며 간수치가 높아졌다거나 변비가 심해 수술을 받거나 알레르기, 두드러기로 입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인증된 업체제품을 이용한다거나 이상증세를 보일 경우

반드시 식품을 끊고 의사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불만사례가 접수된 시기별로는 5월~7월이 가장 높았다. 이는 노출이 많고, 옷을 가볍게 입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추세를 보이며 여성 소비자가 94.7%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도시 30, 40대에서 불만사례가 높았다. 이 시기에 집중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정책제언

○ 인터넷, 통신판매의 경우 해지기준 명시하도록 한다.

- 다이어트 식품 구입 장소가 인터넷, 모바일 판매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판매 페이지에 반드시 해지기준(해지기간, 해지가이드라인, 해지연락처 등)을 소비자 잘 볼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허위, 과장광고의 기준 강화

- 식품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살이 안빠지면 100% 환불’, ‘몸무게 *kg키로그램 감량보장, 안될 시 100% 환불’ 등 식품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기준강화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조 ‘12.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13.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소비자 교육 강화와 정보제공

-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다이어트 식품을 즉흥적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한다.
- 다이어트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여야 하며, 식품으로 살이 빠지는 경우 부작용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
- 해지, 철회 기간을 반드시 숙지한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경우 7일, 전화권유나 방문판매원의 권유를 통한 구입은 14일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품 개봉 시 환불이 어렵다는 정보를 숙지한다.
- 식품 구입 시 조건을 제시한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계약서, 녹음, 관련서류 등)를 통해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이어트 식품 섭취 후 이상증세 발생 시 즉시 식품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처방을 받도록 한다.
- 다이어트식품 구입 시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살펴본다. 공인된 업체이거나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한다.
- 인터넷 구입 시 판매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 등을 확인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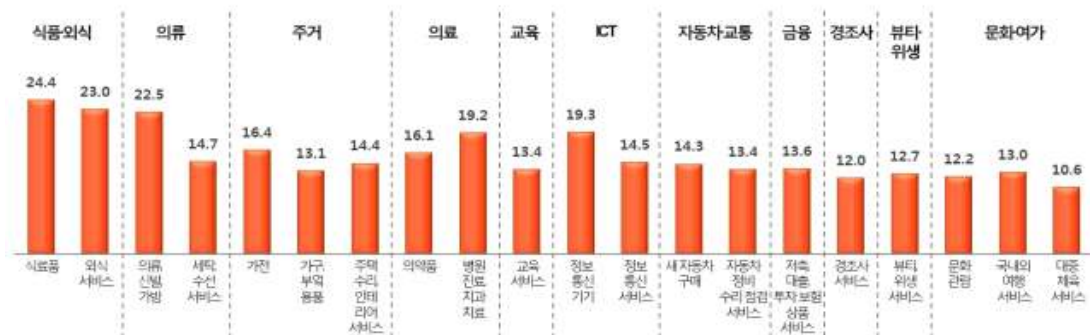
표시·광고 불만 상담 관련 실태 및 개선(안) 제언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I. 분석목적

(1) 소비자는 식품·외식분야에서 소비자문제 경험률이 가장 높음

- 2017 소비생활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43.4%가 소비자문제를 경험하고있으며 품목별 경험률은 식료품 24.4%, 외식서비스 23.0%, 의류·신발·기기 22.5% 순으로 나타나 식품·외식 분야에서 소비자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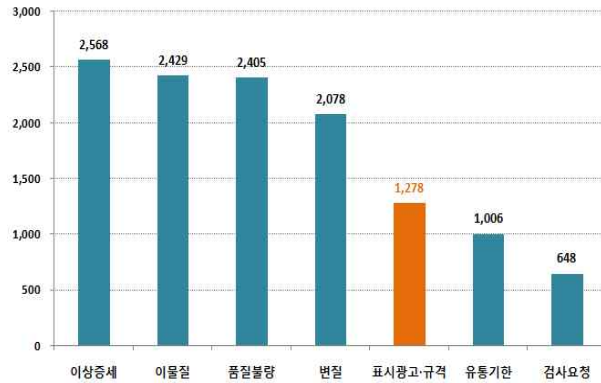
-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5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비싼가격/으로 인해 가장 높은 소비자 문제 경험률을 보였고(29.2%), 교환·취소·환불·배상 어려움 13.4%, 안전불안 12.6% 순으로 나타남. 다만 ‘선택 위한 비교·정보 부족’, ‘거짓·과장·기만 표시광고’, ‘품질불량’으로 인한 소비자문제 경험률은 2015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반면 식품 표시광고·규격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

- 2016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12,412건 중 이상증세가 불만요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물질, 품질불량, 변질, 표시광고·규격, 유통기한, 검사요청 순으로 나타남

불만사례 유형	상담건수	비율
이상증세	2,568	20.7
이물질	2,429	19.6
품질불량	2,405	19.4
변질	2,078	16.7
표시광고·규격	1,278	10.3
유통기한	1,006	8.1
검사요청	648	5.2
합계	12,412	100



* 자료 : 2016년 국민소통단 운영 결과보고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3) 식품 관련 표시광고·규격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사례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 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중 이상증세나 이물질, 품질불량 등은 식품 그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으나 표시광고·규격 관련 소비자불만은 식품 외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문제는 일단 발생하게되면 대부분 소액·다수의 피해로 피해나 책임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식품 표시광고·규격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안)을 제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II. 분석대상

- 2017년 1월 ~ 10월 기간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식품 관련 상담 중 ‘표시, 광고, 방송, 비교, 차이, 허위’ 키워드가 포함된 상담을 추출하여 리코딩을 통해 총 150건의 상담을 유형화함.

상담이유 : 과대광고, 허위광고, 정보부족, 광고 대비 불만족, 품질이유 일방적 취소, 이상증세, 가격차이 등 7개 항목으로 리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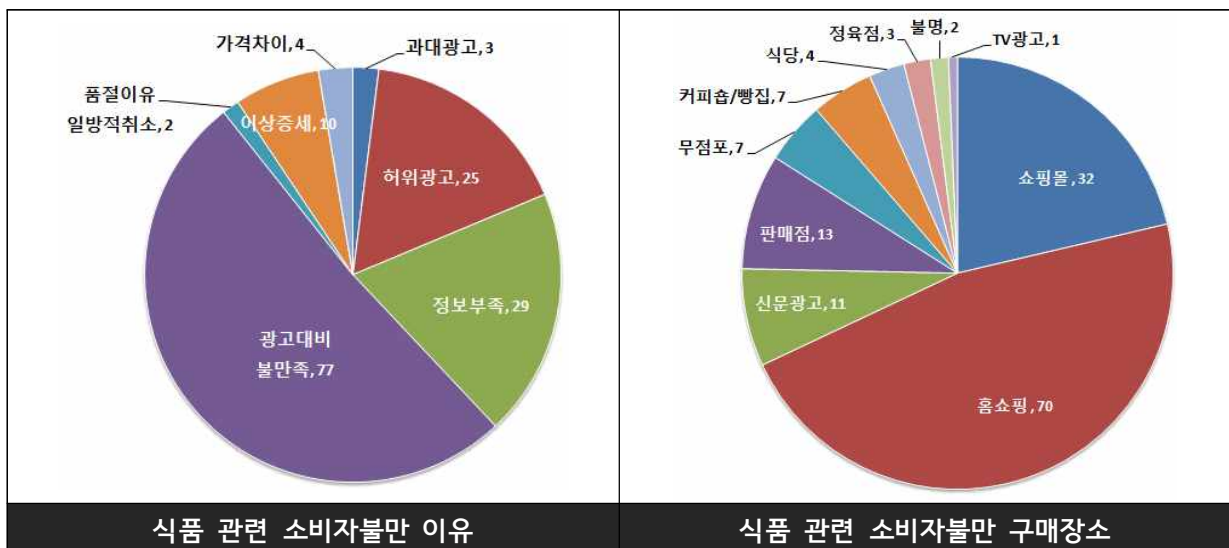
Ⅲ. 2017년 식품 표시광고·규격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사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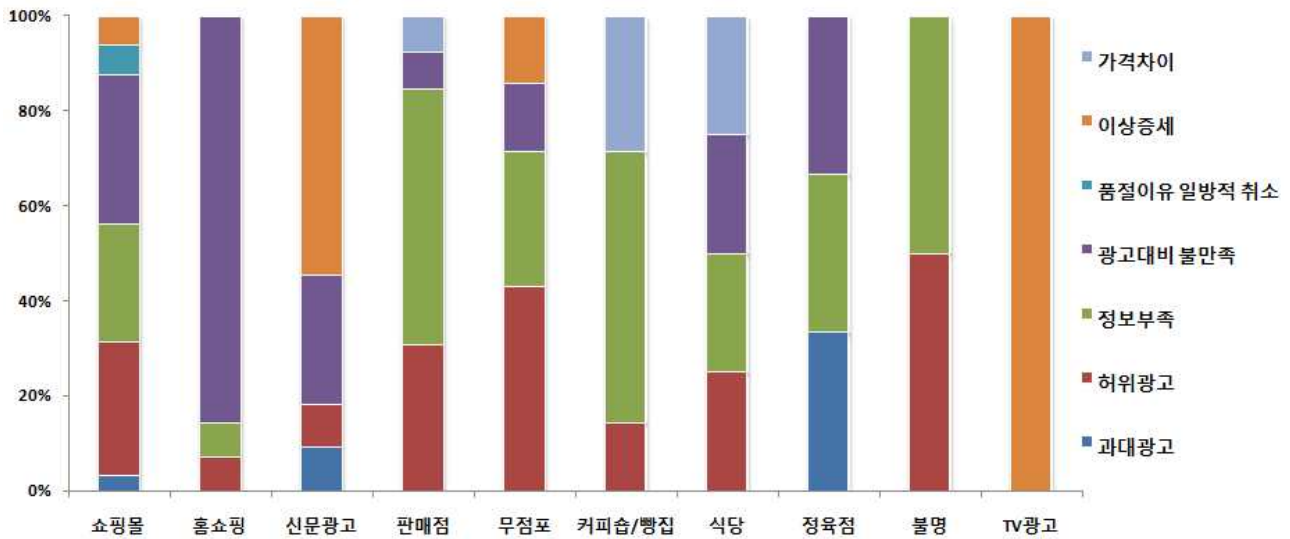
(1) 식품 표시광고·규격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은 홈쇼핑과 쇼핑몰에서 구매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광고 대비 불만족 51.3%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음

-홈쇼핑과 쇼핑몰에서 식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대신에 광고나 상품표시정보 등을 토대로 구입을 결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구매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식품 표시광고·규격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신문광고를 보고 식품을 구입한 경우 식품 표시광고·규격으로 인한 소비자불만도 1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이상증세가 불만인 경우가 6건으로 조사되었음.

	과대광고	허위광고	정보부족	광고대비 불만족	품질이유 일방적 취소	이상증세	가격차이	총합계
쇼핑몰	1 (0.7%)	9 (6%)	8 (5.3%)	10 (6.7%)	2 (1.3%)	2 (1.3%)	0 (0%)	32 (21.3%)
홈쇼핑	0 (0%)	5 (3.3%)	5 (3.3%)	60 (40%)	0 (0%)	0 (0%)	0 (0%)	70 (46.7%)
신문광고	1 (0.7%)	1 (0.7%)	0 (0%)	3 (2%)	0 (0%)	6 (4%)	0 (0%)	11 (7.3%)
판매점	0 (0%)	4 (2.7%)	7 (4.7%)	1 (0.7%)	0 (0%)	0 (0%)	1 (0.7%)	13 (8.7%)
무점포	0 (0%)	3 (2%)	2 (1.3%)	1 (0.7%)	0 (0%)	1 (0.7%)	0 (0%)	7 (4.7%)
커피숍/빵집	0 (0%)	1 (0.7%)	4 (2.7%)	0 (0%)	0 (0%)	0 (0%)	2 (1.3%)	7 (4.7%)
식당	0 (0%)	1 (0.7%)	1 (0.7%)	1 (0.7%)	0 (0%)	0 (0%)	1 (0.7%)	4 (2.7%)
정육점	1 (0.7%)	0 (0%)	1 (0.7%)	1 (0.7%)	0 (0%)	0 (0%)	0 (0%)	3 (2%)
불명	0 (0%)	1 (0.7%)	1 (0.7%)	0 (0%)	0 (0%)	0 (0%)	0 (0%)	2 (1.3%)
TV광고	0 (0%)	0 (0%)	0 (0%)	0 (0%)	0 (0%)	1 (0.7%)	0 (0%)	1 (0.7%)
소계	3 (2%)	25 (16.7%)	29 (19.3%)	77 (51.3%)	2 (1.3%)	10 (6.7%)	4 (2.7%)	150 (100%)





[사례1. 쇼핑몰_품질 이유 일방적 취소]

선물용으로 소고기 선물세트를 5만원씩 4개를 구입하였으나 쇼핑몰 측에서 가격오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함.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쇼핑몰은 구체적 상황설명 없이 적립금 5천원만을 지급함

[사례2. 홈쇼핑_광고 대비 불만족]

- 홈쇼핑에서 질 좋은 고기로 광고하여 갈비탕을 구매하였으나 실제 배송받아 확인한 결과 고기의 질이 좋지않아 홈쇼핑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환불받기로 함.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시정이 필요함
- 90cm 내외 갈치를 4토막으로 판매한다고 하여 구매하였으나 실제 배송받아 확인해보니 1토막이 10.5cm에 불과하였고 품질도 좋지않아 반품 요구하였으나 홈쇼핑에서 거절함
- 홈쇼핑에서 특상 사이즈로 광고하는 고구마를 구매하였으나 실제 배송 받은 고구마의 사이즈가 너무 작았음. 홈쇼핑에 항의하였으나 업체에서는 특상품 기준이 111g부터 280g까지라고 함

[사례3. 신문광고_이상증세]

- 신문에서 광고한 홍삼제품을 구입하여 원재료 등 성분을 확인하니 홍삼 함유량이 0.7%에 불과하여 반품 희망함
- 신문광고에서 효과가 없으면 반품해준다고 하여 구입 후 며칠 복용하였음. 불면증 등의 이상증세가 나타나 반품 신청했으나 업체가 거부함(산촌허브 원포스)
- 신문광고를 보고 구입하였으나, 섭취 후 두드러기가 나고 반점이 생겨 반품 요구하였으나 기간이 많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업체가 거부함(힐링바이오)

서울신문

[2016 우수상품] 산촌허브 원포스, 고개숙인 중장년 남성 위한 희소식

입력 : 2016-12-27 17:16 | 수정 : 2016-12-27 17:33

최근 원광대학교와 산학협력으로 산촌허브 연구팀에서 남성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원포스'를 선보였다.

원포스는 남미 고대 원주민들이 처음제로 사용했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남성기능 개선의 대명사로 알려진 다미아나, 우리 선조들이 예부터 남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이 쓴 아관문, 누에, 산수유, 오자 등과 '엘-아르기닌' 등의 미네랄이 조합된 고품질 제품이다.

산촌허브 관계자는 "일시적인 유도를 위해 화학성분으로 만든 제품이 아니며 일체의 유해성분 없이 순수 자연 유래 성분 추출물로서 남성 기력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다미아나, 아관문, 홍삼 등을 통해 양의 기운을 복돋우고 누에, 산수유, 오자 등으로 강력하게 음을 보충했다"면서 "필수 아미노산으로 각광받는 엘-아르기닌과 산화아연으로 기능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하루 1~2회 섭취로 일주일 정도 마시면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두 달 정도 마시면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게 산촌허브 측의 설명이다.

원포스 제품 실제 신문광고

추석선물특집 - (주)힐링바이오

한국일보 2017-09-23 06:02

질문글에 약물은 유산균 전 품목 '2+1 고객감사세일'



청인 제품은 현미 등 17곡과 한약재를 장에서 120만 배 증식하는 토종 슈퍼유산균으로 발효하여 내 몸에 걸맞은 효소를 신속하게 보충하는 효과가 있다. 또 장내 유익균을 80% 이상으로 높여 황금색 배변을 보게 한다.

왜!! 발명특허품인가?

토종 유산균 특허: 유산균도 동물의 세계와 같이 개구리 같은 약자와 초원이 같이 강자, 수컷이 있다는 사실을 국립육산과학원 서울대학교 건원대학교 등 연구기관에서 항생제보다 우수하게 평가받아 한국 등 국제특허 획득한 특허유산균으로 건강에 좋은 한약재를 발효한 발명특허품

특허유산균장성분: 송복대의대 단시간에 면역력 두 배 이상 상승 학술지 논문발표, 충청대학교 과민성대장증후군환자 174명 임상 학술지발표, 국립육산과학원, 서울대, 건원대 등 동방대 비교시험 항생제보다 우수 평가, 건원대학교 식의학연구소 토종 유산균 장내항생제 소취시간 18시간에 120배 증가

청인원년초효소원기
30g x 30포
원년 초효소 원기 등 17개 발효 30개 발효한 한약 식재료 혼합

청인맥하수오
250g x 2봉
맥하수오발효제품 발효맥하수오 + 특허유산균

청인삼마취(원년초) 환하수오
치명적 독가스
간 이상으로 혼수상태가 된 병이 인공호흡기 전 병환자로부터 생명 장에서 독가스가 발생하여 모자이크 항생제로 치료한다. 이 치명적 독가스가 방귀로 일부 배출되지만 대부분 혈액을 따라 간과 폐, 뇌로, 체내에 체적으로 작용한다. 오유를 직접 채 같이 먹어 있는 황금색 배변을 보면 약화가 일어나 유해한지 즉 한전도 부족함

장불편 · 배변에 딱 좋아
식약처허가 건강기능식품 청인골드
(유산균 15g x 20포 + 5g x 120포)
아미비 초식장 현미 등 25종 발효 장내유산균 약제 장내유산균증식 배변활동원활

3일 불만족 100% 환불!!
장내항생제 남용 없는 배변
120일째 증식하는 토종 식용성 유산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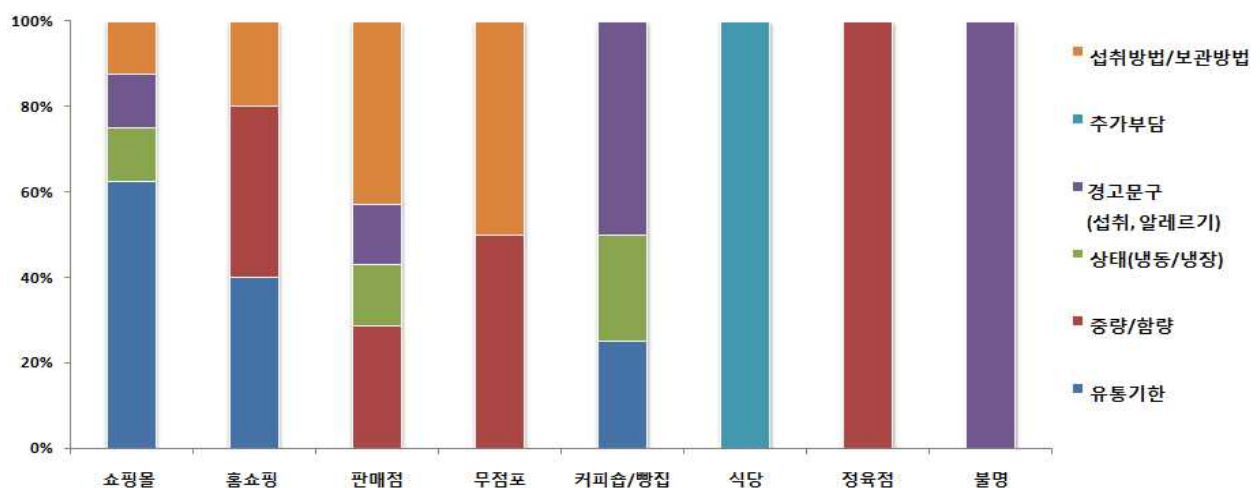
● 냉해하는 배변은 배변이 아니고 음식이 배에서 배설된 증상입니다.
● 모유를 먹을 때 같이 먹지 않는 황금색 배변이 인제 배변입니다.
● 인제 배변을 보면 배변량이 1/3감소할 만큼 소변수가 됩니다.
● 먹는 것 보다 배설이 중요하다! 속이 왜 쉰 건지도는지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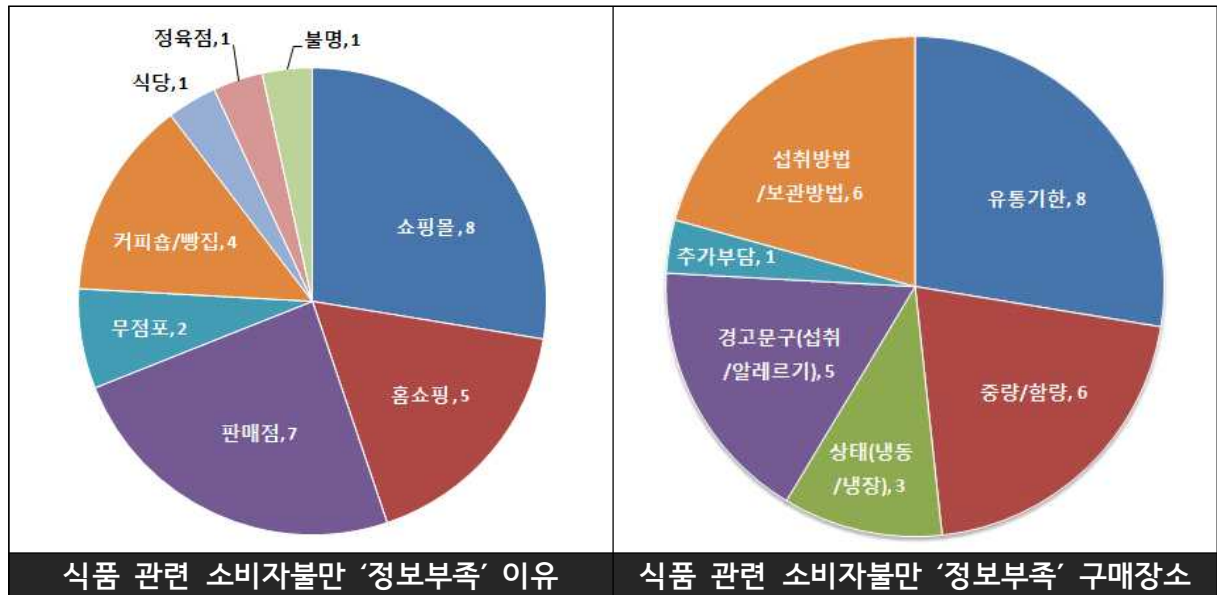
주식회사 힐링바이오 www.bio119.co.kr TV광고 중!! 080-808-8977 02-591-6000

힐링바이오 제품 실제 신문광고

(1-1) 식품 표시광고 · 규격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중 '정보부족' 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유통기한 (미표시, 임박), 중량 · 함량, 섭취/보관방법 등으로 나타남

- '정보부족' 을 불만으로 답한 소비자불만의 이유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유통기한(미표시, 임박), 중량 · 함량 정보 불충분, 섭취/보관방법 안내 미비등으로 분석되었음





	유통기한	중량/함량	상태 (냉동/냉장)	경고문구 (섭취, 알레르기)	추가부담	섭취방법/ 보관방법	총합계
쇼핑몰	5(17.2%)	0(0%)	1(3.4%)	1(3.4%)	0(0%)	1(3.4%)	8(27.6%)
홈쇼핑	2(6.9%)	2(6.9%)	0(0%)	0(0%)	0(0%)	1(3.4%)	5(17.2%)
신문광고	0(0%)	0(0%)	0(0%)	0(0%)	0(0%)	0(0%)	0(0%)
판매점	0(0%)	2(6.9%)	1(3.4%)	1(3.4%)	0(0%)	3(10.3%)	7(24.1%)
무점포	0(0%)	1(3.4%)	0(0%)	0(0%)	0(0%)	1(3.4%)	2(6.9%)
커피숍/빵집	1(3.4%)	0(0%)	1(3.4%)	2(6.9%)	0(0%)	0(0%)	4(13.8%)
식당	0(0%)	0(0%)	0(0%)	0(0%)	1(3.4%)	0(0%)	1(3.4%)
정육점	0(0%)	1(3.4%)	0(0%)	0(0%)	0(0%)	0(0%)	1(3.4%)
불명	0(0%)	0(0%)	0(0%)	1(3.4%)	0(0%)	0(0%)	1(3.4%)
TV광고	0(0%)	0(0%)	0(0%)	0(0%)	0(0%)	0(0%)	0(0%)
소계	8(27.6%)	6(20.7%)	3(10.3%)	5(17.2%)	1(3.4%)	6(20.7%)	29(10%)


[사례1. 쇼핑몰·홈쇼핑_유통기한 미표시·임박제품 판매]

- 홈쇼핑에서 2017년 5월에 구입한 브라질너트제품 포장지에 2016년 12월 5일로 기한이 표시되어 있어 홈쇼핑에 문의한 결과, 제조일로부터 2년이 유통기한이라고 함. 포장에는 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표시가 규정에 맞는지 문의함
- 쇼핑몰에 2017년 1월 냉동새우를 2개 구매하였으나 1개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6년, 다른 한 개는 2014년으로 표시되어 있어 2014년 제조제품 교환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냉동식품은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이 3년이라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함
- 2017년 4월 21일 쇼핑몰에서 피자치즈 3.5kg을 구매했으나 유통기간이 2017년 5월 7일로 표시되어있어 반품을 신청함. 쇼핑몰 상품정보에는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가 없었음
- 2017년 4월 쇼핑몰에서 특가로 아기 음료수를 구입하였으나 배송받은 제품에 곰팡이 등이 묻어있어

유통기간을 확인한 결과 6월 초까지로 되어있었음. 제조사이트에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있어, 제조한지 10개월이 넘는 제품을 특가로 판매한 것임. 제조사이트에는 유통기한 정보도 표시되어있으나 해당 쇼핑물은 동일한 광고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유통기한 부분만 삭제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함

[사례2. 홈쇼핑 · 판매점_섭취,보관방법 정보부족]

- 홈쇼핑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해도 부작용이 없다고 하여 건강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하였음. 하지만 설명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콜레스테롤 관련 약 복용시에는 해당 건강식품을 섭취 하지말라 되어있어 업체에 반품을 요청하였고, 업체는 개봉하지 않은 제품만 반품해주겠다고 함
-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 유기농매장에서 냉동새우살을 구매하였음. 해당제품에 이유식, 샐러드, 볶음 요리에 사용하라는 표시가 있어 아기 이유식을 만들어 아이가 섭취하였음. 본인이 직접 맛을 보니 짭짤이 나 업체에 확인하니 염수로 세척하였다고 하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음

	<p>1 이유식용 김+경 2017-05-22 답변</p> <p>Q 문익 이유식으로사용가능하요?</p> <p>A 답변 이유셔도 됩니다. 2017.05.23</p> <p>다만, 염수세척에 의한 염분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유식으로 이용 시 한번 정도 데쳐서 염분을 충분히 출인 후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p> <p>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유식용다짐새우살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셔오니 주문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감사합니다.</p>
<p>냉동새우살 제품 표시사항</p>	<p>해당업체 홈페이지 Q&A(염수세척되어 데쳐 사용 권고)</p>

[사례3. 커피숍 · 빵집_경고문구(알레르기) 정보부족]

- 커피숍 매장에서 신제품 "체리블로썸그린파라프치노"을 먹다 토를 함. 소비자는 딸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 매장에 확인하니 해당제품에 딸기가 일부 들어갔다고함. 매장이나 홈페이지 어디에도 딸기 포함에 대한 경고문구가 없어 이에 시정을 요구함

(단 딸기는 알레르기 경고 의무표시 대상 품목은 아님)

- 커피숍에서 초코머핀을 구매하여 자녀(아기)가 먹다 견과류 알레르기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음. 업체에서는 병원비만 보상하겠다고 하여, 택시비 등 기타 추가비용에 대한 보상을 원함(단 피칸은 알레르기 경고 의무표시 대상 품목은 아님)

다크 초콜릿 칩 머핀

Dark Chocolate Chip Muffin

그랑크루 초콜릿을 함유한 더욱 진한 초콜릿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머핀입니다.

나만의 푸드로 등록

제품 영양 정보

108(g)

1회 제공량 (kcal)

521

포화지방 (g)

10

나트륨 (mg)

421

당류 (g)

31

단백질 (g)

7

알레르기 유발요인 : 대두 / 우유 / 난류 / 밀

프랑스 고급 초콜릿 회사인 발로나사의 그랑크루 과나하 초콜릿을 함유한 머핀 반죽에 다크 초코칩을 넣고 초콜릿 칩과 피칸을 토포해 구운 달콤쌉싸름한 머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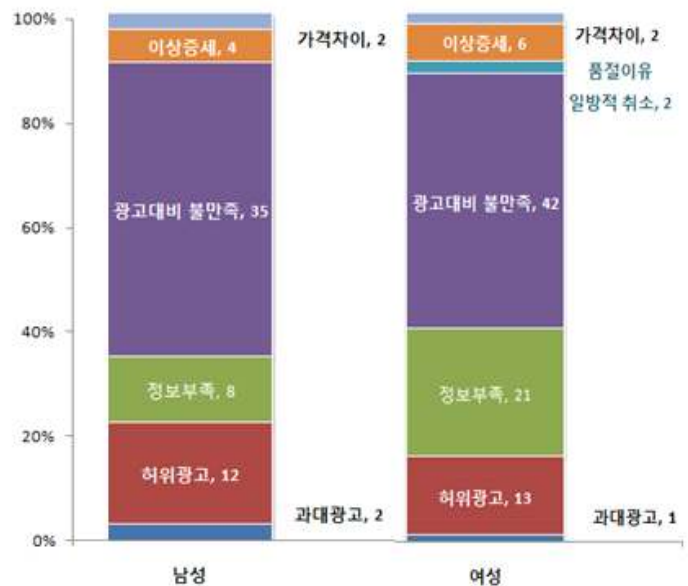
다크초콜릿칩머핀

업체홈페이지 내 제품 영양정보 및 알레르기 관련 안내

(2) 식품 표시광고·규격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이유는 ‘광고대비 불만족 - 정보부족-허위광고 순으로 성별 간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정보부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식품 구매·선택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반면 남성은 ‘광고대비 불만족’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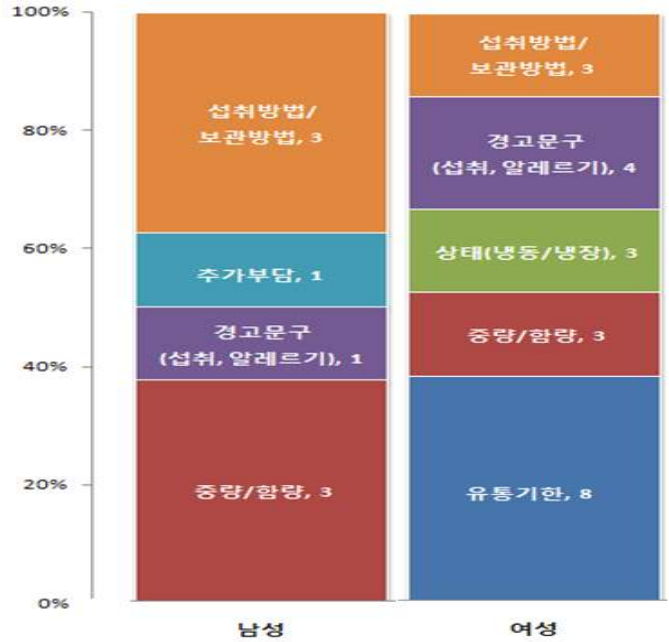
품목	남성	여성	총합계
과대광고	2(1.3%)	1(0.7%)	3(2%)
허위광고	12(8%)	13(8.7%)	25(16.7%)
정보부족	8(5.3%)	21(14%)	29(19.3%)
광고대비 불만족	35(23.3%)	42(28%)	77(51.3%)
품질이유 일방적 취소	0(0%)	2(1.3%)	2(1.3%)
이상증세	4(2.7%)	6(4%)	10(6.7%)
가격차이	2(1.3%)	2(1.3%)	4(2.7%)
총합계	63(42%)	87(58%)	150(100%)



(2-1) 식품 표시광고·규격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중 ‘정보부족’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유통기한(미표시, 임박), 중량·함량, 섭취/보관방법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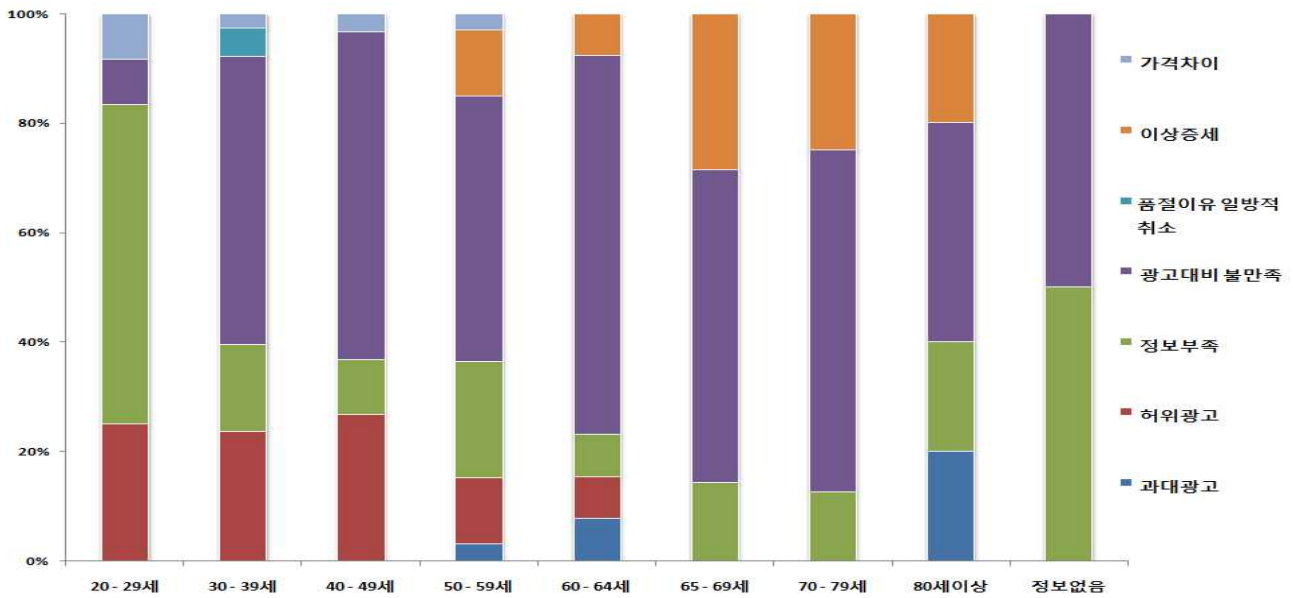
- ‘정보부족’이라고 응답한 여성소비자의 경우 ‘유통기한’으로 인한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경고문구(알레르기), 상태(냉동/냉장), 중량/함량 순으로 응답됨

이유	남성	여성	총합계
유통기한	0(0%)	8(27.6%)	8(27.6%)
중량/함량	3(10.3%)	3(10.3%)	6(20.7%)
상태 (냉동/냉장)	0(0%)	3(10.3%)	3(10.3%)
경고문구 (알레르기)	1(3.4%)	4(13.8%)	5(17.2%)
추가부담	1(3.4%)	0(0%)	1(3.4%)
섭취방법 /보관방법	3(10.3%)	3(10.3%)	6(20.7%)
총합계	8(27.6%)	21(72.4%)	29(100%)



(3) 식품 표시광고·규격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이유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정보부족’이 불만이유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40대는 ‘허위광고’가 불만이유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음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 - 64세	65 - 69세	70 - 79세	80세 이상	정보 없음	총합계
과대광고	0(0%)	0(0%)	0(0%)	1(0.7%)	1(0.7%)	0(0%)	0(0%)	1(0.7%)	0(0%)	3(2%)
허위광고	3(2%)	9(6%)	8(5.3%)	4(2.7%)	1(0.7%)	0(0%)	0(0%)	0(0%)	0(0%)	25(16.7%)
정보부족	7(4.7%)	6(4%)	3(2%)	7(4.7%)	1(0.7%)	1(0.7%)	1(0.7%)	1(0.7%)	2(1.3%)	29(19.3%)
광고대비 불만족	1(0.7%)	20(13.3%)	18(12%)	16(10.7%)	9(6%)	4(2.7%)	5(3.3%)	2(1.3%)	2(1.3%)	77(51.3%)
품질이유 일방적 취소	0(0%)	2(1.3%)	0(0%)	0(0%)	0(0%)	0(0%)	0(0%)	0(0%)	0(0%)	2(1.3%)
이상증세	0(0%)	0(0%)	0(0%)	4(2.7%)	1(0.7%)	2(1.3%)	2(1.3%)	1(0.7%)	0(0%)	10(6.7%)
가격차이	1(0.7%)	1(0.7%)	1(0.7%)	1(0.7%)	0(0%)	0(0%)	0(0%)	0(0%)	0(0%)	4(2.7%)
총합계	12(8%)	38(25.3%)	30(20%)	33(22%)	13(8.7%)	7(4.7%)	8(5.3%)	5(3.3%)	4(2.7%)	150(100%)



[사례1. 20대_정보부족 이유 불만]

- 음료매장에서 딸기주스 홍보포스터에 생딸기주스라고 광고하고있는데 실제 냉동딸기를 사용 중이라 본사에 이의 제기함. 업체는 개선할 계획은 없다고함
- 수원에 소재한 식당에서 랍스타를 먹고, 결제하려하니 메뉴판에 표시된 가격(39,800원)보다 4천원 많은 43,800원으로 안내받아 식당주에게 문의하니 랍스터 시세에 따라 추가금액이 부과되었다고 답변함. 사전에 시가에 따라 추가금액이 부과된다는 안내문을 제시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 없어 부당하다 생각됨

(3-1) 식품 표시광고·규격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중 ‘정보부족’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20대, 30대, 50대의 불만비중이 많은 편임

행 레이블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 - 64세	65 - 69세	70 - 79세	80세 이상	정보 없음	총합계
유통기한	3(10.3%)	3(10.3%)	0(0%)	1(3.4%)	0(0%)	1(3.4%)	0(0%)	0(0%)	0(0%)	8(27.6%)
중량/함량	0(0%)	0(0%)	3(10.3%)	2(6.9%)	0(0%)	0(0%)	0(0%)	1(3.4%)	0(0%)	6(20.7%)
상태 (냉동/냉장)	1(3.4%)	0(0%)	0(0%)	2(6.9%)	0(0%)	0(0%)	0(0%)	0(0%)	0(0%)	3(10.3%)
경고문구 (섭취, 알레르기)	2(6.9%)	1(3.4%)	0(0%)	2(6.9%)	0(0%)	0(0%)	0(0%)	0(0%)	0(0%)	5(17.2%)
추가부담	1(3.4%)	0(0%)	0(0%)	0(0%)	0(0%)	0(0%)	0(0%)	0(0%)	0(0%)	1(3.4%)
섭취방법 /보관방법	0(0%)	2(6.9%)	0(0%)	0(0%)	1(3.4%)	0(0%)	1(3.4%)	0(0%)	2(6.9%)	6(20.7%)
총합계	7(24.1%)	6(20.7%)	3(10.3%)	7(24.1%)	1(3.4%)	1(3.4%)	1(3.4%)	1(3.4%)	2(6.9%)	29(100%)

- (4) 식품 표시광고·규격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처리 결과는 상담·정보제공이 67.3%, 피해처리가 32%, 분쟁해결기준 설명이 0.7%로 분석되었음

	분쟁해결기준설명	상담·정보제공	피해처리	총합계
과대광고	0(0%)	2(1.3%)	1(0.7%)	3(2%)
허위광고	0(0%)	19(12.7%)	6(4%)	25(16.7%)
정보부족	1(0.7%)	25(16.7%)	3(2%)	29(19.3%)
광고대비 불만족	0(0%)	45(30%)	32(21.3%)	77(51.3%)
일방적 품질이유 취소	0(0%)	1(0.7%)	1(0.7%)	2(1.3%)
이상증세	0(0%)	6(4%)	4(2.7%)	10(6.7%)
가격차이	0(0%)	3(2%)	1(0.7%)	4(2.7%)
총합계	1(0.7%)	101(67.3%)	48(32%)	150(100%)

IV. 식품 표시광고·규격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관련 제안사항

(1) 식품 표시광고·규격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홈쇼핑에 대한 정기적인 홈쇼핑 식품 표시광고 모니터링 실시 필요

-관련법 및 홈쇼핑 방송 심의기준 등에 따라 상품정보제공 제시화면이 방송 시작시점과 중간, 종료직전에 제공되기는 하지만, 너무 빠르게 많은 내용이 제공되다 보니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를 인지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편임. 자막과 쇼호스트 멘트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소비자는 전체 방송 중 일부를 보고 제품구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광고영상등이 소비자가 오인하게끔 구성되는 경우가 일부 있어 구입 전 잘못알거나 미처 확인못한 정보를 소비자가 제품 수령 후 확인하게 되어 식품 표시광고·규격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발생되게 됨

-이번 식품 상담 집중분석 결과 식품 관련 소비자불만이 특정 홈쇼핑과 특정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나 이미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홈쇼핑 식품에 대한 정기적인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함

-특히 정확한 기준이 없는 **최상급 표현**(제품크기 특성, 상 / 축산물 등급 중 초이스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지칭, 12브릭스를 고당도로 지칭)을 쓰거나, 제품의 세부내용을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제품 여러개를 한번에 쏟아 소비자 중량 오인, 제품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부재료**를 미리 셋팅 등)등을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홈쇼핑에서 사골 도가니탕 15팩에 수육 3팩을 추가구성하여 판매함

-일부 자막에서 '육수'라고 표시되고, 쇼호스트도 멘트 중 '육수가 들어있어요'라고 언급하기는 하나

광고영상에 보이는 도가니탕에는 수육도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 오인

-실제 섭취한 소비자가 해당제품 재료가 100% 사골 도가니인지 확인 요청



-상단 [건강정보] 표시가 있고 하단 작은글씨로 '본 정보는 제품정보가 아닌 KI지수에 대한 건강 정보'라는 안내문구가 있으나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기능성으로 오인할 수 있음

-'검사명령제 통과' 및 부재료 성분에 대한 기능성을 강조하여 소비자는 품질에 대해 오인할 수 있음

[분석대상 소비자불만 사례 상품 아님]



-'3과 맛 보증제'를 광고하며 총 3과 섭취기준, 배송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라는 중요정보를 작은글씨로 노출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음

-정확한 기준이 없는 사이즈나 당도에 대한 과장된 표현 사용(대 사이즈, 고 당도)

[분석대상 소비자불만 사례 상품 아님]

-신문광고를 보고 식품을 구입하여 접수된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소비자는 대부분 고통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여 이상증세가 나타난 경우였음. 일반 소비자는 신문에 게재된 식품의 경우 기능성(효과)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이상증세가 발생하여도 판매처 대부분 영세하거나 허위정보가 게재된 경우가 많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신문광고 제품 대부분이 성기능 효과를 강조하거나 특정질환을 낮게 해준다고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나 소비자피해가 발생되어도 광고가 게재된 신문사의 책임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시정노력이 필요하므로, 신문광고 중 특히 식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이 필요함

(3) 식품 관련 기준·제도 개선 및 업체점검 제안

1.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조리에’ 표시기준 대상에 ‘방송화면’ 추가 제안

: 홈쇼핑 등에서 방송으로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조리에’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을 표시하도록 ‘방송화면’을 표시기준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

-홈쇼핑 방송 심의기준에 제품과 부재료를 구분하여 제시할 것을 기준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있음(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기준에는 주재료와 부재료를 구분하여 광고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식품 등의 표시기준] 2017.9 개정고시(안)

II.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가. ~ 거. (현행과 같음)

너.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에”,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은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2.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 제안

: 현재 견과류 중 호두, 땅콩만 표시대상으로 지정, 견과류도 일괄 표시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

[식품 등의 표시기준] 2017.9 개정고시(안)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1) 표시대상

가)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₂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참고자료)

- EU,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은 땅콩과 별개로 견과류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품목으로 지정

* 자료 : 식품과알레르기(www.foodallergy.or.kr)

3.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표시의무업체에 제과·제빵을 일정비율 이상 판매하는 커피숍 추가 지정 제안

: 현재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업체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로 커피 프랜차이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일부 커피프랜차이즈는 판매하는 제과·제빵 종류도 많고 그 비중 또한 높은 편이라 제과·제빵을 일정비율 이상 판매하는 커피숍 또한 표시대상 업체로 지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 있음.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2017.5 시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 (던킨도너츠,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나뚜루, 베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이 해당)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농수산물 표시항목에 냉동/냉장상태 표시항목 추가 제안

: 최근 축산물을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냉동/냉장 상태 표시가 의무로 지정되어 있지않아 제품 배송 후 냉동상태임을 인지하여 소비자불만을 접수하는 경우 있음. 냉동/냉장상태를 표시항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1.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2.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4.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관련법상 표시사항
 - 5-1. 농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 5-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 쇠고기의 경우 이력관리에 따른 표시 유무
 - 5-3. 수산물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 5-4.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6. 상품구성
7.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8.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5. 신문광고 건강식품 대상 품질검사 및 업체점검 필요

: 신문광고 제품 대부분이 건강식품으로(성기능 향상, 질병 치료 등등) 소비자불만 11건 중 이상증세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6건으로 신문광고로 판매하는 건강식품 대상 일괄 품질검사 및 업체 점검을 제안함

[2. 갈비탕]

공영홈쇼핑 블로그(갈비는 2016년 방송분 캡처)	구매 소비자가 찍은 실제 사진(블로그 출처)	상담사례
<p>오랜 시간과 정성의 진한 국물</p> <h2>공중 갈비탕</h2> <p>SHORT RIB SOUB / GAL-BI TANG</p> 		<p>2017.6.23. 홈쇼핑에서 00갈비탕 10팩 59,900원에 구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송받아 개봉하여 보니 고기에 기름기가 많아 광고와 상이하여 이의제기하니 홈쇼핑업체에서 환불 제안 -판매자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여 시정을 원함
		<p>아임tv쇼핑에서 갈치를 구입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배송이 되었는데 광고와는 다르게 사이즈가 작음(대갈치로 3토막 1마리분이라고 광고함) -배송받자마자 업체 연락하여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아이스박스를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취소 불가라함 -아이스박스를 개봉해야 내용물을 확인하는것인데 아이스박스를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반품 거절은 부당함

5.3.3. 국내외 식의약품 관련 언론 기사 수집

- 국내외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식의약품 사고와 소비자 관심 품목이나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언론 보도자료를 수집함.
- 식약처 보도자료, 식품안전정보포털, 오늘의 뉴스,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매월 국내외 식의약품 이슈를 수집하고 식의약품 안전관리 소통 주제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1) 국내사례

주요내용
<p>□ '丁酉年'(정유년) 식품업계 이끌 키워드는 '1인 경제' (2017.01.02. / 프라임경제) (요약)</p> <p>◆ '1코노미' 소용량·소포장 제품 열기 지속될 것</p> <p>지난해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술·혼밥족' 등이 주목받는 한 해였다. 1인 가구가 5년여 만에 100만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인 가구는 500만가구를 훌쩍 넘어섰다. 이러한 인구 구조적 변화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으로 간편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된다.</p> <p>또, 작년 30%대 고성장을 이룬 '가정 식사 대체식품(HMR·Home Meal Replacement)'시장은 올해 전년 보다 35% 성장한 2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p> <p>식품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경쟁력있는 HMR 제품의 대거 출시,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저가 외식이 점점 더 설 곳을 잃고 대체될 것이란 것이 업계 중론이다.</p> <p>업계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하는 HMR 시장의 가장 큰 수혜자는 식품 대기업일 것"이라며 "이러한 자체 브랜드(PB)를 보유한 대형 유통체인, 이러한 PB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중소형 식품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안전 먹거리로 승부해야"</p> <p>성분과 원산지 등을 꼼꼼히 따지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면서 인공색소, 감미료 등 화학성분을 배제하고 믿을 수 있는 원재료를 내세우는 안심 마케팅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p> <p>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달부터 'GMO(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범위를 확대한다.</p> <p>제조·가공식품에 GMO DNA 또는 GMO 단백질이 남아 있을 경우 GMO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하는 것. 오는 5월에는 '나트륨 함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일부 면류와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가 대상에 속한다. 이와 함께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 확대를 위해 기존 식품 유형별에서 전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도 개인 슈퍼마켓 등 중소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범위를 넓힌다.</p> <p>(하략)</p> <p>□ 위메프, 21개월 된 냉동닭 '땡처리' 하고도 당당?...실적부진 박은상 대표, 무리한 가격 경쟁? (2017.01.19 / 스포츠조선)</p> <p>소셜커머스 위메프가 21개월 전에 만들어진 냉동닭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품은 더욱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는 할인 이벤트 아이템이었던 만큼 소비자들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p> <p>위메프의 배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해당 제품의 '덜 상세정보'와 '상품정보'에 제조연월일을 다르게</p>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줬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위메프가 이벤트를 빙자해 제품을 '땡처리'하려는 의도에서 제조연월일을 다르게 적시한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냉동닭 판매 논란은 위메프 박은상 대표가 올 초 "소셜커머스의 본질로 돌아가겠다"며 무료 배송 확대와 가격 경쟁력을 강조한 직후에 발생, 단독 경영 4년차인 올해에는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박 대표의 조급증이 낳은 결과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조한지 21개월 지난 냉동닭 팔고도 당당?

지난 11일 위메프는 위메프111데이 행사에서 '[111데이] 하림반짝특가 영계 306g+부재료 49g'의 상품 구성으로 하림 냉동닭을 1111원에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의 제품에, 1111원이라는 초특가였던 만큼 소비자들에게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상품의 인기가 좋아 추가 입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000마리 이상이 판매됐다.

문제는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가 지난 2015년 4월이라는 점이었다. 더욱이 위메프가 '덜 상세정보'와 '상품정보'에 기재한 제품 제조일자까지 달랐다.

'덜 상세정보'에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2017년 4월 26일까지로 표기돼 있다. 반면 제조일자는 '상시제조 상품'으로 적시돼 있다. 소비자로서는 수시로 만들어 납품하는, 쉽게 말해 생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작 '상품정보'에는 제품 제조일자가 '2015년 4월 28일'로 표기돼 있다. 만들어진지 21개월이 지난 상품인 셈.

아무리 냉동 제품이라고 하지만 2년 가까이 된 냉동닭을 싼 가격에 샀다고 좋아하며 먹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위메프에 소비자들의 항의와 반품 요구가 이어졌고, 이 같은 내용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르며 논란이 확대됐다.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임에도 위메프 측은 합법적인 판매였음을 강조하며 당당한 모양새다. 위메프 홍보 관계자는 "냉동육의 경우 유통기한이 2년이다. (사전에) 유통기한이 수개월 이상 남은 제품임을 확인했으며, 유통기한을 명확히 표기했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판매한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는 "냉동닭 유통기한이 3개월 남은 것은 짧다고 생각하면 짧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며 "위메프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은 '유통기한임박상품'으로 모아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비중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정해진 판매 가능한 유통기한 기준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보겠다"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제조일자를 '덜 상세정보'와 '상품정보'에서 각기 다르게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 표기 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한다. 분명 땡처리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었다"며 "많은 제품을 준비하다보니 제조일이 각기 달랐고, 전부 적을 수 없어 상시생산이라 표기했던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냉동육 유통기한이 2년이지만, 중간에 냉장육을 냉동시켰으면 유통기한이 1년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메프가 유통기한이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은 냉동닭을 팔고는 저렇게 대응하는 거를 보면 신뢰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자본잠식 상태 위메프, 박은상 대표 '조급증'에 무리수?

냉동닭 논란이 커지자 위메프 측은 먼저 연락을 해온 고객에게 구매 취소를 해줬다. 그러나 문제는 위메프의 소극적인 사후 대응으로 인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다수 고객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위메프 홈페이지에는 이번 냉동닭 사태를 알리는 팝업이나 공지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 중 일부는 환불 및 무료 반품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위메프 관계자는 "구매한

분이 많다 보니 고지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구매 내역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연락이 곧 올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답변했다.

이번 냉동닭 논란은 위메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다시 한 번 추락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이다. 실제로 박은상 대표가 이끌고 있는 위메프는 지난 2년간 각종 논란에 휘말리며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겼다. (하락)

□ 대형마트 피앤지 기저귀 판매중단, 社측 "극미량" vs 소비자 "판매중지 당연" (2017.02. 04 / 국제신문)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마트는 살충제 성분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논란에 휩싸인 피앤지사의 '팜퍼스 베이비 드라이' 등을 매대에서 거둬들였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표적인 대형마트는 이날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해당사 제품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논란은 프랑스의 한 잡지가 자국에 유통되는 기저귀 12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팜퍼스 베이비 드라이' 등 10개 기저귀에서 제조체, 살충제 같은 잠재적 발암 물질이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 같은 사실이 국내에도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환불을 요구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아직 해당 제품의 유해성이 정식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대형마트들이 이례적으로 발빠른 대처에 나선 것은 해당 제품이 유아를 고객으로 삼는 데다 최근 일었던 '옥시사태' 등을 감안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불안 등 소비자의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해 판매를 중단했다"며 "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한국 피앤지 측은 "이는 프랑스 매체의 주장일 뿐으로 발견된 것도 극미량"이라며 "기저귀에는 이 물질을 넣지 않아 기준치라는 것이 없다. 프랑스 매체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양은 식품 기준으로도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조치와는 무관하게 본사 차원에서 환불조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마트가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요구로 판매를 중단한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유해성이나 위험성 검증도 없이 불안만 커지는 듯하다"고 전했다. 반면 아이를 키우는 소비자들은 "아이에게 쓰는 물건에 유해성 논란이 인다면 판매는 우선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 CJ라이온 샴푸 '발암물질' 다이옥산 초과검출 (2017.02.21 / 뉴스1)

생활화학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CJ라이온의 샴푸 제품에서 세계에서 발암물질로 금지하고 있는 '1,4다이옥산(dioxane:다이옥세인·다이옥산)' 성분이 중국 정부가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옥산의 일반적 형태인 1,4-다이옥산은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국제암연구소(IARC)는 2B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당 기준에 따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만 미국, 호주, 심지어 중국보다도 엄격하지 못한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中, 韓화장품 수입불허... '사드보복'에 묻힌 '발암물질' 초과

21일 식약처와 관련 업계 따르면 중국 당국의 다이옥산 제한기준을 초과해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발표한 '11월 수입 불합격 화장품 명단'에 오른 CJ라이온 샴푸 브랜드 제품이 현재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언급한 제품으로는 '담아 골드실크' '라이스데이 정상모발용 쌀 샴푸' 등이다. 이 제품들은 국내 온라인몰에서 생활선물세트 등에 담겨 판매되고 있다. CJ라이온 측은 다시 품질인증

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들은 수입 화장품 불합격 명단이 발표될 당시 사드 보복 조치라는 방향으로만 부각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발암물질 검출부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이옥산을 배합금지 성분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위적 첨가가 아닌 포장재 등으로부터 비의도적 유래인 경우 10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다이옥산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되면 기업은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CJ라이온 관계자는 "수입 불허됐을 당시 중국 측에 확인해보니 1ppm에서 2ppm 정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전달받았다"며 "제조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제거하기 어려워 제한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즉시 국내서 품질인증을 다시 받아 수출을 재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와 업계에 따르면 다이옥산은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더라도 세정력을 부여하거나 보습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 등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다이옥산은 원료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불순물로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라면서 "식약처 등 일각에서 말하는 포장재에서 녹아나오는 성분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 식약처, 中보다 낮은 기준적용 모자라 후속조치도 없어

특히 CJ라이온이 샴푸 제품을 수출하려다 발암물질로 분류된 다이옥산 성분이 중국 당국의 제한 기준을 초과해 수출이 불허됐지만 식약처와 환경부의 후속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J라이온 관계자는 "다이옥산 기준초과 관련 식약처와 환경부에서 별도의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다이옥산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되면 기업은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들은 '다이옥산이 검출된 제품 관련 후속조치' 여부와 '다이옥산 함유량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는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정 품목을 선정하여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할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서 생산되는 모든 생활용품을 검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검수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제한된 물질인 만큼 자체적으로 제한기준(100ppm)의 5분의 1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프로세스별로 검수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식약처에서 고시한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용 제품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호주·중국 등 글로벌 국가들은 다이옥산을 국내 제한기준 100ppm보다 엄격한 3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 3배 이상 완화된 기준을 적용 중인 셈이어서 규제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문가들도 소비자들의 생활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이옥산 제한기준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교수는 "다이옥산은 그룹2B군 발암의심 물질로 원료물질 제조과정에서 불순물로 만들어지는 성분"이라며 "허용기준이 중국보다 높은 건 말이 안 되는 만큼 규제를 하루 빨리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정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또 한번 드러났다"며 "원료에 대한 사전허가 방식이 아닌 제품별로 관리하는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 프로바이오틱스 효과·안전성 논란, 연말 판가름 (2017.02.09 / 아주경제)

그동안 유효성과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올해 말 분기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해 기능성 원료 총 28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28종에는 정어리펩타이드, 대두올리고당, 포도종자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 19종과 가르시니아카모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등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원료 9종이 포함됐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살아있는 미생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유산균은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의 한 종류다. 음주, 흡연 등으로 체내에 쌓이는 유해균 번식을 억제함과 동시에 유익균 증식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동안 많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돼왔다. 관련 시장 규모만 2000억 원 이상에 달한다. 실제로 JW중외제약·녹십자웰빙·일동제약·일양약품·종근당·동성제약·건일제약 등 다수의 제약사를 비롯해 동원F&B·롯데제과 등의 식품업체들도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여에 걸쳐 561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다. 또 한국보건과학연구원의 체계적 문헌고찰 자료 조사에서는 패혈증·신생아괴사성장염 등의 중증 위해사례와 구토·장내가스·변비·설사 등의 위해사례가 보고됐다. 프로바이오틱스에 해당하는 균주마다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고 아직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할만한 임상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효과·안전성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에서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정책토론회를 통해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이 다뤄지기도 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 제도 시행에 따라 상시적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것인데, 재평가에서는 해당 원료가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하는 안전성 평가와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확인하는 기능성 평가가 진행된다. 상시적 재평가의 경우 이달 공고 후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가 실시되며, 오는 11월 열람·의견제출을 거쳐 12월에 심의·결과확정·공시가 이뤄진다.

결과에 따라선 올해 말부터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제품들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관련 시장 성장세가 꺾이거나 위축될 수도 있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재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안전성 논란에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프로바이오틱스 기반 제품은 여러 연구와 임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돼있다고 할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이번 재평가는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본다"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기적 재평가 대상은 오는 8월 재평가 공고 후 기능성 원료 관련 영업자로부터 심사자료를 12월까지 제출 받아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재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 '식품통신판매법(식통법)' 초읽기 ... '제2 전안법' 될까 우려 (2017.02.16. / 서울경제)

◆ 온라인 식품거래 피해 늘자 식약처 6월부터 적용 추진. 네이버, 쿠팡 온라인 쇼핑몰 식품판매사업자로 분류돼, 품질검수 관련 설비 갖춰야, 영세업체 진입장벽 높아져. 업계 "이중 규제될 것" 걱정 (상략)

1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강화 한

‘식품통신판매법(이하 식통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입법 예고한 이후 오는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식통법은 입법 예고 전이라 구체적인 시행령 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식품통신판매업으로 분류해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한 온라인 식품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서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쇼핑 사업자를 규제 범위에 넣어 식품 유통망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온라인 쇼핑업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온라인 사업자들의 불필요한 책임만을 강요하는 ‘제2의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온라인 쇼핑에서 상품 판매 중개인 역할만을 해온 네이버·11번가·쿠팡 등의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온라인상에서 식품 판매 사업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들은 기존 중개인 역할 외에 개별 상품에 대한 검수에 직접 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품질 검수 등 관련 설비비용도 증가하고 이는 입점 판매자 판매 수수료로 넘어갈 수 있다.

단순히 비용 증가를 넘어 영세 판매자나 농가 사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존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위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를 갖춘 판매업체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영세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악순환 구조를 야기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식품위생법이 온라인 식품 판매에 대한 규제와 검열을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위생법 제4~6조는 누구든지 ‘위해식품’, ‘미인증 화학 합성품’ 등을 판매하지 못하고 13조는 누구든지 ‘허위, 과장, 오인, 비방’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이 허위·과장광고 및 위해 식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은 과잉규제”이라며 “‘제2의 전안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많은 만큼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 통해 현장 상황을 반영한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 건강기능식품, 편의점 판매 확대될까 (2017.02.16 / 쿠키뉴스)

◆ 약사·한의사는 "반대"vs 식약처·산업계는 "환영"

건강기능식품 판매 규정이 완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5일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에 건강기능식품판매 시 영업신고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겁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를 제외한 모든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는 영업신고와 관련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신고와 교육을 제외했으며, 2년간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고 모니터링해 지속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우선 관련 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협)는 ‘조건부 찬성’하는 입장이다. 건기협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활로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한다”며, “다만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판매처에 대해 어떤 교육이나 신고도 없이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부적절한 특혜’라며 반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백수오 사태와 같이 불량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 영업신고와 교육을 없앤다면 문제발생 시 회수나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단계로 적절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단지 13개의 상비약 판매를 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아무런 교육과 신고없이 약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편의점에 부여하겠다는 것 자체로 논리비약이고 특혜다”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한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폈다. 김지호 한의협 대변인은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 교육과 건강기능식품 교육 자체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식약처는 백수오 사태 이후 건강기능식품 제도 관리를 강화할 생각은 없이 계속해서 산업측면의 규제를 푸는 방향에만 강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의계는 한약재를 베이스로 한 모든 약재에 있어 한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식약처는 해당 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모양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상비약품들을 판매하는 곳으로 제한돼있고, 지자체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사후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일단 효과 등을 살펴보고 지속여부를 고려해보자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도 환영 입장을 보였다. 건강기능식품업계 관계자는 “두통약 등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된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더 올라가고 결국 기업에서는 매출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만든 콩치·복숭아통조림 회수조치 (2017.04.24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콩치와 복숭아 통조림의 판매를 중단토록 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되는 제품은 충북 충주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의 ‘사조콩치김치’와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등 4종이다.

‘사조콩치김치’는 사조해표[079660]의 의뢰로 생산한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제품이다. 또 ‘삼포황도’는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제품,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는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생산량은 총 5만9천 캔으로, 이 중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3만 캔은 전량 압류됐다.

□ ‘허위과장’ 광고성 게시글 올린 개인 블로거들, 무더기 고발조치 (2017.02.28 / 경향신문)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과대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이 식품안전당국으로부터 무더기 고발조치를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17일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을 집중적으로 점검,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개월과 품목제조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뉴트리코어’, ‘프로스랩 맘스’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합

성원료를 사용했는데도 마치 천연원료를 쓴 것처럼 ‘100% 천연원료 비타민’이나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無화학첨가물’ 등으로 허위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들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게재한 52명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식품당국이 실정법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체가 아니라 개인 블로그 운영자를 허위 과대광고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건네준 허위 과대광고 문구 내용을 토대로 “화학첨가물이 든 제품을 섭취하면 암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등의 글을 작성해 자신의 블로그에 실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적발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개인 블로그에 허위 과대광고 게시물을 올리도록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면서 “금품을 받고 사실상 허위 과대광고를 대신해주는 개인 블로그에 대해 소비자가 주의하도록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자세하게 드러나겠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 광고성 글을 실어주는 블로그 운영자는 ‘파워블로거’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인터넷은 ‘불법약국’…여성홍분제·낙태약까지 거래 (2017.03.18. / 한국경제)

◆ 온라인 판매 적발 매년 증가세. 의사처방 받지 못한 구매자 노려…부작용 땀 제대로 보상 못 받아 일부 품목 ‘해외 직구’ 허용 악용…포장만 바꿔 ‘통같이 수법’ 반입
보건당국 전담인력 턱없이 부족…구매자 처벌조항 없어 단속 한계

(상략)

국내 금지된 약도 버젓이 거래

가장 흔하게 거래되는 의약품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다. 구글에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판매 사이트가 뜬다. 여성홍분제 홍분크림 등 성(性) 관련 의약품도 기획상품으로 함께 판다. 한 판매 사이트에선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로고까지 게시해 놓았다. 게시판에는 “약을 잘 받았다” “배송이 빠르다”는 구매자들의 후기도 속속 올라온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정식 처방을 받지 못하거나 처방 기록을 피하려는 이들이 주 고객”이라며 “여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수입·판매가 금지된 의약품도 암암리에 거래된다.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이 대표적이다. 미프진은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을 억제하고 자궁 수축을 유도해 자궁에서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약이다. 유럽 등지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낙태죄가 있는 한국에서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 각종 다이어트약도 자주 매매되는 품목이다. 해외 직구(직접구매) 사이트들에서 판매하는 ‘미국산 다이어트약’ 상당수에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들어 있다. 이 성분은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국내 반입이 금지된 미국산 다이어트약을 국내로 들여와 10억 원어치 가량을 판매한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단속을 피해 SNS로 숨어든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00약국’ ‘#00약 판매’라는 해시태그를 단 글을 올려놓은 뒤 1 대 1로 구매자와 접촉해 판매 사이트 링크를 보내준다.

금지 약품 '직구'로 몰래 들여와

의약품 상당수는 해외 직구로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관세법은 판매 목적이 없을 때에 한해 의약품 해외 직구를 허용하고 있다. 처방전이 없으면 6병 이하, 처방전이 있으면 최대 3개월치까지 해외 의약품을 들여올 수 있다. 약사법과 달리 의약품의 인터넷 거래를 허용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수입 금지 의약품도 직구로 국내에 유입된다. 불법 사이트들은 세관당국이 개인택배를 일일이 뜯어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다. 금지 의약품 포장을 일반 의약품으로 바꾸는 '통같이' 수법도 동원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약을 구한 뒤 영양제 통에 담아 보내기 때문에 세관에서 잘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매년 1만건 이상 적발하고 있다. 불법 판매 게시물 적발 건수는 2013년 1만3542건에서 2014년 1만6394건, 2015년 1만785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거래를 감시하는 사이버감시단을 운영 중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의약품 불법유통을 적발하면 경찰에 수사를 맡긴다. 사이트 접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수사 권한이 없는 데다 전담 인력도 7명에 불과해 의약품 불법거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불법 구매자 처벌 조항 없어

불법 의약품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약사가 약국 안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수요가 끊이지 않다 보니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의약품을 먹고 부작용이 생겨도 보상은커녕 하소연도 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하락)

□ '해피벌룬' 확산 막는다...원료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지정 (2017.06.07 / 매일경제)

최근 '마약 풍선'으로 불리며 대학가와 술집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해피벌룬'(Happy Balloon)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피벌룬'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향후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행위를 막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하여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환각물질로 새롭게 지정되는 아산화질소는 원래 의료용 보조 마취제와 휘핑크림 등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이 가스를 임의로 흡입했을 시엔 구토, 질식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의약품 이외의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되면 경찰은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해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아산화질소를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아산화질소를 식품첨가물 용도로 수입하거나 소량 판매하는 업체에는 제품 표면에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지도한다.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아산화질소를 불법 유통한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 '죽음의 알갱이' 미세플라스틱, 치약에 사용 못 한다 (2017.05.23. / 연합뉴스)

이른바 '죽음의 알갱이'로 불리는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충 청량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고시 시행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충 청량제 등 의약외품의 첨가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해당 제품의 경우 앞으로 1년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중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해 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7월부터는 세안제나 각질제거제 등의 화장품에도 미세플라스틱을 못 쓴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요구를 반영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이다. 정식이름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이다. 각질 제거와 세정 효과가 높아 피부 스크럽제, 치약 등에 쓰였으나 이름 그대로 너무 작은 크기여서 하수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 간다. 이렇게 빠져나간 미세플라스틱은 플랑크톤, 물고기 등 해양 생물의 먹이가 돼 어류의 성장과 번식에 장애를 유발할 뿐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처럼 하천·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 수입의약품 유효기간 표기 달라 혼란 가중 (2017.06.04 / 국민일보)

(상략)

일반적으로 의약품에는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유통정보와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주의사항 등 제품정보가 표기돼 있다. 소비자로서는 쉽게 확인이 가능한 사용기한을 가장 먼저 보는데 위 사례처럼 표기가 통일돼 있지 않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혼란은 일선 약국에서 다툼으로 번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해당 의약품은 사용기한이 '200605'돼 있다. 이 제품은 2020년 6월5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이지만 위 할아버지처럼 사용기한을 2006년 5월까지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국내 제약사의 제품보다는 외국계 제약사의 제품에서 발생한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표기법대로 찍힌 제품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약품표시등에관한규정' 6조(세부 기재방법)에 따르면 4항에는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00년00월00일", "00.00.00"(연. 월. 일) "0000년00월00일" 또는 "0000.00.00"(연. 월. 일)의 방법으로 표시

한다. 다만, 연, 월, 일의 표시순서가 전단의 표시순서와 다를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 월, 일의 표시순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하나의 표시방법으로 통일하면 될 문제를 4가지 표시방법을 만들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도 있다. 사용기한이 연월일 구분 없이 6개의 숫자로 나열한 제품도 문제다. A의약품의 경우 사용기한이 '150916 150919'로 표기돼 있다. 2016년 9월15일부터 2019년 9월1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일부 소비자의 경우 사용기한을 2015년 9월15일부터 2015년 9월19일까지로 해석하기도 한다.

대한약사회 홍보팀장은 “연도를 뒤 두자리만 적는 경우 구분이 쉽지는 않다. 때문에 ‘.’을 찍어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어서 쓰면 읽기 어려워 문제제기는 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이 일반적으로 외국계 제약사 제품으로 국내 규정에 맞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AI 속 불량 가공 달걀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2017.06.21 / KBS뉴스)

이달 들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재발한 가운데 사용이 금지된 불량달걀로 식품을 만들거나 유통시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9일 동안 경기도 내 달걀 판매·가공업체 668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업체 8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24개 반 539명이 투입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표시기준 위반이 29곳으로 가장 많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0곳, 미신고 영업 19곳, 유통기한 경과 달걀 사용 4곳, 허위 과대 표시 4곳 등이다.

경기 광주시의 한 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100일 지난 달걀을 사용해 와플 반죽을 만들어 전국 30여개 매장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또 경기 양주시의 한 업체는 빵집 등에 납품하는 빵을 만들면서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계란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10개에 4천 250원인 일반 계란을 고급 영양란으로 속여 4천 650원을 받고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하다 단속된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87곳 가운데 8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4곳은 관할 시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AI 재발로 주춤하던 달걀값이 오름세로 돌아섬에 따라 수입 달걀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부정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불법수입 '모라색소' 든 마카롱 과자 적발 (2017.06.21 / 연합뉴스)

프랑스의 유명 상점에서 판매하는 식용 색소를 불법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거나 이 색소를 이용해 만든 마카롱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으로 식용 색소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강모(31) 씨 등 2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재작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천500만원을 주고 프랑스로부터 '모라 색소'를 불법으로 들여와 마카롱 제조업자들에게 6천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라 색소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 제과·제빵 원료 판매점인 '모라'(MORA)에서 취급하는 색소다. 2007년 수입신고가 접수됐으나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타르 색소가 포함되어 있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으며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다. 이번에 모라 색소를 불법으로 들여 온 수입업자는 강씨를 포함해 7명이며, 이들이 들여 온 모라 색소는 국내에서 1억 원어치가 유통됐다.

모라 색소에는 국내에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색소인 '아조 루빈'(E122), '페이턴트 블루 V'(E131), '브릴리언트 블랙 BN'(E151) 등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과점 대표 이모씨 등 4명은 과자류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적색2호'가 포함된 색소를 사용해 만든 1억7천만 원어치의 마카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허가 없이 수입된 설탕 장식물과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등을 케이크에 사용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마카롱을 제조·판매한 업체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케이크와 마카롱에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을 내기 위해 '모라 색소'가 불법으로 수입돼 사용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 식약처, 현지실사 결과 따라 호주 과·채가공품 수입중단 조치 (2017.06.21 / 닥터더블유)

◆ 호주 멜버른 소재 AUSFRESH PTY. LTD 업소 생산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과·채가공품을 수출하는 호주 멜버른 소재 'AUSFRESH PTY. LTD' 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위생관리 기준 부적합으로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21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6년 10월 해당 업소로부터 수입한 반건조 토마토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돼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현지실사를 실시하게 됐다. 부적합 내역은 대장균 양성(기준 음성)으로 해당 제품은 폐기했다.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 내용은 ▲HACCP 등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일부 작업 공정에서 미적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 제조·가공 시설 등의 위생관리 미흡 ▲부적합된 제품에 대한 원인 규명 및 개선 대책 부재 등 전반적인 위생·안전 관리가 미흡했다. 해당 업체는 과·채가공품, 절임류, 즉석섭취식품 등을 생산하며 우리나라에는 반건조 토마토, 샐러드 원료 등을 수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단계 수입검사 뿐만 아니라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생소한 'E형 간염'...한국은 안전한가? (2017.08.28. / jtbc뉴스)

[기자] 네, 오늘은 'E형간염이 한국에서는 안전한가'라는 주제입니다.

[앵커] 지금 유럽은 E형간염을 일으키는 소시지 때문에 발칵 뒤집혔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인 중에서 E형간염에 걸린 사람 중에서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머물러 있던 60명을 대상으로 추적을 해 봤는데 그 가운데 독일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를 먹은 사람이 상당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통사까지 어디인지 나타나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살충제 달걀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시지가 또 문제인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전한 것입니까?

[기자] 한국은 안전한가. 우선 8월 25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이후에는 한국에서 구입한 소시지는 안전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논란인 소시지는 유럽에서 익히지 않은 방식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주로 독일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를 발효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하몽, 살라미 이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식약처는 25일부터 이들의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검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5일이면 그런데 불과 사흘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먹었거나 샀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자] 25일 이전은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제품의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익혀 먹으면 안전한 건 사실입니다. E형간염 바이러스는 섭씨 70도 이상에서 2분 이상 가열하면 모두 죽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건데 그런데 보통 간염 하면 A형이나 B형이 잘 알려져 있는데 E형간염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기자] A, B, C, D, E형이 있고 E형이 새로 나타난 신형인데요. 주로 돼지를 잘 익히지 않을 경우에 잘 나타나고 또 오염된 물을 먹을 경우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E형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돼지의 내장과 피 또 고기를 먹으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사람끼리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인데 구토,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9개월 이상의 임신부는 사망률이 20%에 달한다. 반면에 건강한 성인은 견뎌낼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간염은 주로 좀 저저분한 환경에서 발생을 한다고 해서 후진국 병이라고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서 걸려오는 거로도 알려져 있죠?

[기자] 그렇죠. 그런데 E형간염은 후진국병이 아닙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런 지도까지 만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나라를 분석하고 있는데 주로 가장 파란 곳, 그다음 파란 곳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인데 중국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는 물론이고 동시에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을 유행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영국은 2014년에 더 이상 후진국병이 아니더라고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했고 근본 원인으로 돼지고기를 지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E형간염의 진단을 받으면 정부에 신고를 해서 원인과 출처의 조사를 받습니다.

문제는 한국인데요. 우리는 E형간염의 통계와 실태조사가 없습니다. 법정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없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앵커] 잘 익혀 먹으라고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의 관리 공백이 결코 작아보이지만은 않은데요.

[기자]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확인해 봤더니 그동안의 관리는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실태를 살펴봤는데 동국대학교 연구팀이 이런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2012년 발표 내용인데 축산업자 1883명 중에서 33.8%가 E형간염을 앓은 전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해 대한간학회연구에서는 3개월형 이상의 돼지 5~60%가 E형간염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소와 개는 0%, 고양이는 8.1%였습니다. E형간염이 결코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것입니다.

[앵커]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면 정부는 왜 그동안 E형간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까?

[기자] 제가 보도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E형간염의 현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겠다, 이번에 나온 자료 같지만 이게 나온 연도가 2007년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보도자료인데요. E형간염 실태조사 시행할 계획, 10년 전과 후의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E형간염에 대해서 보건당국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 다. 이에 대해서 일본에 문의했는데 예산 부족, 위험성의 우선순위로 뒤로 밀렸다면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앵커] 이게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덜 위험한 질병이다, 아니더라는 식의 접근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보입니다.

□ '백수오' 분말로는 사용 금지..."동물시험서 이상반응" (2017.08.22. / 뉴스원)

앞으로 백수오는 뜨거운 물로 추출한 형태인 '열수추출물'로만 사용해야 한다. 분말 형태의 백수오를 섭취할 경우 건강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엽우피소'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

히 식품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백수오 및 이엽우피소 독성시험·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알려지자, 백수오 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독성시험과 위해평가를 실시했다.

독성시험전문기관에서 열수추출물과 분말을 시험물질로 해서, 투여용량별 및 실험동물(쥐)의 성별을 구분해 실시하고 외부 독성 전문가 그룹의 전문평가를 통해 시험수행 전반과 결과 처리 등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백수오는 분말이 아닌 열수추출물 형태로 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의 경우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백수오 분말을 사용한 동물시험에서는 심각한 체중 감소를 비롯해 스트레스성 과민반응, 사료섭취 거부 같은 행동학적 이상반응, 사망 등이 관찰됐다.

이와 함께 이엽우피소의 안전성 평가 결과, 열수추출물 형태로 고용량(2000mg/kg)을 투여한 경우 간독성(수컷)이 나타났고, 분말 형태에서는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암컷은 부신·난소 등에 독성, 수컷에는 간 독성 등이 관찰됐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백수오를 앞으로는 '열수추출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전이라도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을 상대로는 백수오를 분말 형태로 직접 섭취하지 말고 열수추출물 형태로 섭취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백수오 분말·환 등 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백수오 분말 함유 한약 제제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고, 향후 허가를 규제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단독] '헤어 스프레이'에도 유해물질...피해자 첫 확인 (2017.08.18. / jtbc뉴스)

[앵커]

이른바 CMIT와 MIT라는 화학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들어있는 '헤어스프레이'를 쓰다 질병을 얻었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받은 피해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제품은 홈쇼핑으로 수백만개가 팔렸다고 알려졌는데 식약처에서는 이 제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0월, 정모씨는 홈쇼핑에서 헤어스프레이 두 박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모씨 :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만 계속...병원에 가지 않고 하루에 한 박스씩 다 먹었어요.]

이후 증세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고 진단 받은 질병만 20여 가지에 달했습니다.

[정모씨 : 머리에 접촉성 피부염, 종양, 홍반...중추신경계가 저 같은 경우엔 파괴됐다고 들었고, 자율신경계도 이미 파괴가 돼서 문제가 커서 균형을 못 잡을 정도로...]

지난해 10월, 정 씨는 자신이 2년간 사용한 헤어스프레이에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바 있는 독성 화학 물질인 CMIT와 MIT가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정 씨를 진찰한 대학병원은 정 씨 질병이 해당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임종한/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제품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 하고, 제품 속에 들어가 있는 살균제와 같은 유해한 물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정 씨는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해당 성분은 씻어내는 제품에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이후 CMIT와 MIT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자 라벨만 덧씌워진 채 그대로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식약처는 JTBC 취재진에게 "기준 강화 이전에 제조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선 강제 회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환경부, 전국 모든 먹는 샘물 일제점검 실시 (2017.09.22. / 뉴시스)

먹는 샘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환경부가 전국에 유통 중인 모든 먹는 샘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충남 공주 소재 금도음료에서 생산한 '충청샘물' 제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다.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충청도에서 제조업체에 대해 생산을 중단시키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다. 대상은 금도음료에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달여간 생산한 49만5000개로, 회수율은 67.8%(33만6000개)를 기록 중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전국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냄새 등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또 먹는 샘물 유통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기로 했다. 현재 먹는 샘물에 대한 지도점검은 해당 시·도에서 연 2회 실시고, 분기별로 유통제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

□ 건강기능식품 피해사례 늘어나는데 허가기준 풀어준다? (2017.09.28. / 메디컬투데이)

건강기능식품 피해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접수와 피해 증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건강기능식품 7개 대표 품목에 대한 이상사례 접수 현황을 보면 2015년 566건이던 신고현황이 2016년 821건으로 45% 늘었고, 2017년 7월말 기준으로 578건으로 2015년 총 신고 수를 이미 초과했다.

2017년 8월말 기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상위 7개 제품류 접수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08건이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이상건수는 200건으로 늘었고, 유산균제품이 40건에서 154건, 홍삼제품이 19건에서 41건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중 위장관계 이상 신고가 10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 증상도 그에 따른 소화불량, 구토, 설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호흡곤란이나 혼절 등에 이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작용 증상도 60건이나 있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 규모와 정도가 상당함에도 허가심사와 관리는 허술하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속심사제를 도입해서 허가를 위한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고, 그나마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위해 시행중인 사전광고심의제도를 기업의 자율심의제도

로 전환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4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 심의 결과를 보면 심의 결과 부적합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광고 심의 부적합 건수와 비율은 2014년 전체 광고심의 건수는 130건으로 2.8%였지만 2016년 말 207건으로 3.7%로 상승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현황도 2014년 90건이던 것이 2016년 19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4년간 허위과대광고로 고발 송치된 건수만 총 53건이었고 영업정지 513건 품목제조정지 15건, 시정명령 7건 등이 있었다.

이처럼 지금의 사전광고심의제도에서도 광고의 부적합 건수와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사전광고심의를 기업의 자율심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건강기능식품의 사전광고 심의 또한 위헌적 요소가 있어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2010년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광고 심의 절차는 헌법이 정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을 보완한다는 의미로 많은 국민여러분이 건강기능식품을 애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 피해도 늘어나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실한 허가과정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허가 과정을 강화하고, 이상사례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의 자율광고심의제 도입 즉각 재검토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대장균 시리얼' 오명 동서식품 3년 만에 '무죄' 확정 (2017.10.20. / 중앙일보)

(상락) 동서식품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 약 43t을 해체해 정상 시리얼과 1대 9 비율로 섞어 52만개 28억 원어치의 새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동서식품이 자체 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가공해 정상 제품에 섞어 판 것을 문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최종적인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위생상 위해를 끼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특정 식품의 경우 위생상 재가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금지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고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원재료가 아닌 최종 제품에 대해 세균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생긴 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서식품이 생산한 시리얼 18개 전 품목에 대해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동서식품은 “해당 시리얼에서 검출된 것은 대장균이 아니라 ‘대장균군’이었다”며 “대장균군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원료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로 대장균군 검출 시 재살균 처리를 하게 돼 있어 재활용이 아닌 공정상 살균 처리를 다시 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장균군 검사를 하기 전 포장을 완료한 시점에 이미 시리얼은 더 이상의 제조 공

정이 필요하지 않은 최종 제품으로 완성된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지영난)는 "모든 식품에는 소량의 미생물이 있을 수 있어 시리얼의 원료에 대하여는 대장균군 등이 없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최종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없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조업체에서 최종 열처리 과정을 통해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생상에 위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동서식품의 손을 들어줬다.

동서식품은 소비자단체와 민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대장균군 검출 논란이 벌어진 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비자 11명을 대신해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며 동서식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 식약처 "생리대 안전" 발표에 소비자들 "못 믿겠다"(2017.09.28.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1회용 생리대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자 소비자들은 대체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28일 밝혔다.

김모(35·여)씨는 "전혀 믿을 수 없다"며 "애초 문제가 커지니 조사를 시작한 것을 봤을 때 문제를 덮기 위해 조사도 대충 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그는 "유해하다는 기준을 뭐로 설정한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며 "그렇다면 생리 양이나 주기가 변하거나 몸에 이상이 생긴 소비자들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줄곧 1회용 생리대를 써왔다는 김씨는 현재 외국 생리대브랜드인 '나트라케어'를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대안 생리용품 사용을 고민하고 있다.

유해 논란을 처음으로 일으킨 생리대 '릴리안'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박모(31·여)씨는 "전에 시민단체와 교수팀이 내놓은 연구결과가 틀렸다는 건가, 믿을 수가 없다"며 박씨는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혼란이 더 가중될 것 같다"며 "일단은 불안하니 생리컵이나 면생리대 등 대안 제품을 더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해 불안을 가중한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모(31·여)씨는 "정확한 검사법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를 자극적으로 발표해 논란을 크게 만든 것 같다"며 "1회용 생리대에 좀 더 관심을 두게 하려는 목"이렇게 논란이 커질 때까지 수습을 못 하다가 안 위험하다고 하면 여성들이 믿고 쓸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적이라면 성공했지만, 사회 혼란을 야기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내 주변에도 다들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데 식약처 조사도 늦고, 결과 발표도 늦고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향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되나 지켜만 보지 말고 시작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증 안된 탈모약·여드름치료제, SNS에서 제 맘대로 판매 (2017.10.21. / 헤럴드경제)

(상략)

SNS를 통한 광고와 마케팅이 유통·식품업계 전반에 급속 확산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검사나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여드름과 탈모치료제, 그리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조악한 공산품들이다. 이들 상품은 무방비 상태로 온라인 공간에서 광고되며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현재 탈모와 여드름치료제, 외국산 공산품들이 판을 치고 있다. 22일 온라인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올해 온라인 광고시장의 규모는 3조9747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3조7185억 원에서 6.9% 성장한 수치다. 지난해 성장률은 6.1%, 온라인 광고 시장은 해마다 2000억 원씩 큰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략)

현재 인터넷광고는 한국인터넷광고 자율정책기구를 통해 심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네이버·카카오 등 제휴 협약을 맺은 주요 포털사이트들에 대한 심의만이 진행될 뿐, 제휴사가 아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에 대한 심의는 전무하다.

소비자 건강과 직결돼 있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은 유관협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성분에 대한 정확한 고시를 한 뒤 광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비자들은 이 같은 광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면서, 관계당국의 개선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SNS를 통한 마케팅은 점차 시장이 커질텐데 생태계 유지를 위한 규제가 아직 부족하다”면서 “정부당국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양계협회 계란 던지며 시위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철회해야” (2017.10.26. / 중앙일보)

대한양계협회는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달걀 껍데기(난각)에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추진안 등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난각에 기존에 표시하는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외에 산란 일자와 사육환경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계협회는 “각 농장에서 사육되는 산란계는 수천 수에서 많게는 100만 수 이상의 사육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산란 시간대와 수거 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산란 일자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란 일자를 표기하는 정확한 기준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화 방안이 시행할 경우 상당수의 농가는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계절별 신선도 유지 기간이나 정확한 유통기한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란 일이 구입 날짜와 멀수록 구매를 꺼리게 돼 수급 관리에도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하략)

□ 치약 뒷면에 있는 세로줄로 화학성분 알 수 있다고? (2017.05.14. / jtbc뉴스)

최근 온라인상에서 치약 용기에 있는 세로줄 색상을 두고 치약 성분을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가령 세로선이 검은색이면 몸에 좋지 않은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빨간색은 천연물질과 화학물질, 파란색은 천연물질과 의약품, 초록색은 천연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2~3년 전에도 이 같은 설이 SNS를 중심으로 퍼진 적이 있는데, 최근 치약, 샴푸, 화장품 등에 포함된 화학성분과 천연성분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소비자들 사이 다시 회자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치약용기 하단 끝에 표시된 세로줄은 업계에서 아이마크(Eye Mark)로 통한다. 치약 제조과정에서 기계가 치약 튜브의 후면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표시를 일컫는다. 애경 관계자는 “치약 튜브에 치약을 넣는 과정은 모두 기계로 하는 자동생산방식 이다보니 치약 용기 끝이 어디인지 기계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알기 위해 표시해 둔 것일 뿐, 치약의 성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비단 치약 용기 뿐 아니라 접착을 필요로 하는 튜브 형태의 핸드로션, 트리트먼트, 클렌징 등 다양한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에서도 아이마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계의 센서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제조사 마다 각기 다른 검정, 초록색, 빨강, 파랑 등의

색상을 임의로 표시한다. 표시하고 있는 쪽도 치약의 앞면 혹은 뒷면으로, 용기의 디자인을 고려해 각 제조사가 선택하는 식이다.

다만 기계의 센서가 검은 색을 가장 잘 인식하는 특성으로 인해 검은 색의 세로줄이 더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2080치약의 경우 은색 튜브를 사용해 이를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검은색과 초록색의 아이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마크는 기계가 치약을 용기에 넣을 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한다.

애경 관계자는 "치약 뚜껑 부분이 아닌 용기 입구로 치약이 균형감 있게, 또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치약의 효능, 효과를 가지는 주요 성분을 알고 싶다면 치약 포장용기를 살펴보면 된다. 의약외품법에 따라 반드시 이를 표기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약이 함유한 성분은 아이마크의 색상이 아닌 치약 포장용기에 표기된 성분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신의 치아나 잇몸 상태에 따라 효능, 효과를 살펴 고르면 된다.

□ 딸기·바나나우유 등 가공유, 4개 중 1개 원유비중 0% (2017.11.28. / 연합뉴스)

**컨슈머리서치 60개 제품조사…"80% 이상이 원유 없거나 절반 미만"
농식품부 "가공유 포함돼도 우유로 표기 가능"…"소비자 위해 명확한 표시 필요"**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등 가공우유제품 중 원유(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컨슈머리서치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딸기·초콜릿·바나나 등의 맛이 나는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25%)개였다.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34개로 전체의 56.7%에 달했다.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절반 이하인 제품의 비중이 81.7%였다. 이들 제품은 환원유·환원저지방우유·혼합탈지분유·유크림 등이 들어있는 사실상 유가공 음료수인 셈이다.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들어진 것이다. 지방을 포함하기 위해 유크림을 섞기도 한다.

조사 대상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우유나 밀크 명칭이 들어간 자체 브랜드(PB) 가공유 28종과 우유 제조사 제품 32종이었다.

매일유업이 제조한 GS25 PB제품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에는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모두 환원유로 제조됐다.

세븐일레븐 PB 제품 중 동원F&B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도 원유가 아닌 환원유로 만들어졌다. 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푸르밀 '생과즙 블루베리우유', 동원F&B '밀크팩토리 코코아', '덴마크 딸기 딸기우유', 서울우유 딸기·초콜릿 등에도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우리F&B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 '카라멜 커스타드크림우유' 등도 원유 대신 환원무지방우유를 사용한 제품이다.

조사 대상 제품 중 탈지분유와 유크림 등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제품은 44개였다. 소비자단체는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가공유가 우유와 성분이 유사해 '우유'(milk)로 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소비자는 우유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명확한 표시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들도 가공유에 표기된 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신선한 우유인지 아닌지 구분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주방세제로 야채나 과일 세척해도 되나요? (2017.11.04. / 프레시안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팀장)

"한국 미라클피클사의 '은나노 스텝 고급주방세제'입니다. 너무 잘 닦이고 좋은데, 성분 표시에는 계면활성제, 알파올레핀계, 고급아민계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야채 과일을 씻어도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나요?"

'고급주방세제',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 제품에 화려하게 표기된 문구만으로 다른 세제와는 달라 보이는데요. 거기에다 용도로 '야채, 과일, 식기 및 조리기구, 젖병, 완구 등 유아용품 세척 시'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제품 표시만 보고도 '안전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해당제품은 TV홈쇼핑과 블로거들의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은?

제품 뒷면에 표시된 성분에는 '계면활성제 26%[고급알콜계(음이온), 슈가계(비이온), 고급아민계(비이온), 알파올레핀계, 베타인계] 향 등 72%'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성분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럼 업체에서 제공해준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계면활성제, 향으로 구성 성분으로만 표기하기에는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이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채소, 과일 등 식품뿐만 아니라 아기 젖병과 유아용품도 씻을 정도로 안전한 세제라고 합니다.

'팩트체크'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보통 시중에 판매하는 주방용 세제로 식기는 물론, 채소나 과일을 씻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과일, 채소용 세제와 식기용 세제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에 따라 주방세제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요. 1종은 과일, 채소 등 식품 세정까지 가능한 세제이고, 2종은 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를 세척하는데 쓰입니다. 3종은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장치 세척에 사용하게 됩니다. 즉, 1종 세척제는 과일이나 채소 등을 씻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2종, 3종 세척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1, 2종 세척제는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3종 세척제는 산업용으로 써야 합니다.

복지부의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에 따라, 세척제 1, 2, 3종별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320종 성분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분으로는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 성분일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 1종 세척제에는 효소 또는 표백 작용의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문의해주신 해당 제품은 채소, 과일까지 모두 씻을 수 있는 1종 세척제로, 관리 규제에 따라 1종 세척제에 허용하는 성분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원료 사용'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종 세척제'라 무조건 안전한가요?

'팩트체크'의 제품 성분의 함량과 기능 요청에 업체가 왜 성분만을 공개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복지부의 세척제 종별로 사용 가능한 물질을 규정하고 있지만, 각 물질들에 함량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즉, 용도별로 성분 함량 기준치 및 함량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각 물질들이 과도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지부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1종 세척제의 경우에도 세척제 용액에 채소 혹은 과일을 5분 이상 담가서는 안 됩니다. 또 세척제 용액으로 야채, 과일,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하는데, 이때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과일은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주방세제 사기 전에 제품 후면에 '용도' 혹은 '품명'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용도에 맞게 잘 구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2) 국외 사례

국가	주요내용
미국	<p>□ "흔한 식품첨가물 이산화티타늄이 내장 세포 손상" (2017.2.21.연합뉴스) 美연구결과...암 유발 가능성 보고에 佛정부 조사 지시</p> <p>흔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티타늄(TiO_2)이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에 이어 내장 세포 구조도 손상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p> <p>미국 빙엄턴대학 연구팀은 TiO_2에 의한 손상으로 유해 세균이 소화기관에 침투하기 더 쉬워져 감염에 취약해지고, 소화기관 영양분 흡수 기능도 떨어지게 된다고 학계에 보고했다.</p> <p>21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연구팀은 작은창자 내피세포 배양 모델을 만든 뒤 식품 1회 섭취 분량에 해당하는 TiO_2 나노분자들에 4시간 동안 노출시켜 단기간 영향을 살펴봤다.</p> <p>또 장기간 반복 섭취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세 끼니 섭취 분량에 5일 동안 노출시켰다 그 결과 장기간 반복 노출된 경우엔 나노 크기의 미세 TiO_2가 내장 세포에 침투하며 영양분 흡수를 돕는 기능을 하는 미세융모가 손상됐다.</p> <p>이로 인해 내장기관들이 약해지고 아연, 철분, 지방산 등 영양분 흡수가 어려워졌으며 음식 분해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p> <p>연구팀의 그레첸 말러 교수는 "TiO_2는 흔한 식품첨가물이어서 장기간에 걸쳐 많이 섭취하게 된다"면서 "이 물질의 나노분자 섭취를 줄이려면 사탕을 비롯한 가공식품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학술지 '나노임팩트'(https://www.journals.elsevier.com/nanoimpact)에 실렸다.</p> <p>◇ 이산화티타늄 어디에 쓰이나 = 유럽 식품첨가물 번호 E171로도 알려진 이산화티타늄은 페인트·종이·플라스틱의 표백색소, 치약의 마모제, 자외선차단제 같은 화장품 등에 쓰인다.</p> <p>또 사탕과 젤리, 껌, 달지유, 커피크림, 초콜릿, 도넛 등 각종 가공식품에도 질감을 부드럽게 하거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등의 용도로도 첨가된다.</p> <p>기존에는 TiO_2에 접촉돼도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져 왔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산화티타늄 가루의 경우 흡입 시 발암 가능성이 있는 2군 발암물질B로 분류하고 있다.</p> <p>반면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에도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등록돼 있고, 유럽연합(EU)에서도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태다. 보건당국과 다수 식품 및 안전 전문가들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양은 미량이므로 걱정할 것 없고 아직은 이산화티타늄이 유해하다는 확증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p> <p>그러나 지난해 2016년 스위스 취리히대 연구진이 TiO_2 나노입자가 장 염증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구화가 진행되는 많은 나라에서 염증성 장 질환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가 TiO_2 등의 미세입자일 수 있다고 밝혔다.</p> <p>또 지난달엔 프랑스 연구팀이 TiO_2를 정기적으로 장기간 섭취한 동물의 40%에서 대장암 초기의 비(非)악성종양 출현이 나타났다는 동물실험 결과를 내놓자 프랑스 정부는 안전성 재검토를 지시했다.</p>

□ 한국식품 '수입중지' 가장 많은 이유는 '색소' (2017.04.04 / LA중앙일보)

FDA 제재 70여 제품 분석 / 카민산·홍화적·치자나무 / 천식·알러지 유발 성분 함유 / 미국산 식품 사용에 제한

통관 과정에서 임시 '수입중지' 처분을 받은 한국산 식품의 대부분은 사용된 색소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최근 3년간 제재 조치를 당한 한국산 식품, 제과 등 70여개 제품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들 제품은 카민산(Carminic Acid), 치자나무색소(Gardenia), 홍화적색소(Carthamus) 등이 과다 함유됐거나 성분 표시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알러지와 관련된 이들 성분은 한국에서는 식품 제조에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나 FDA 측은 과다 복용시 천식, 발진 유발 등을 이유로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FDA 측은 경기도 소재 업체가 제조 수출한 S제품에 대해 수입 중지 조치를 취했는데 제품에서 다량의 카민산이 발견된 것이 이유였다.

카민산은 색소 성분의 원료가 되는 클리코사이드 물질로 주로 생체 조직의 염색, 분석 시약 등에 쓰인다. 의학백과에 따르면 주로 선인장에 기생하는 암컷 연지벌레에서 추출한 붉은색 천연 유기염료로 알려진 카민산은 고대시대부터 염료로 애용되어 왔다.

문제는 카민산 추출물이 염색제로 쓰인 사실을 레이블에 분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제품의 무게와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사용된 경우엔 섭취시 인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카민산의 잘못된 사용이나 표기 오류로 인해 수입 정지된 제품은 최근 3년간 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소재 기업이 수출한 과일캔디와 젤리 제품은 치자나무에서 추출한 염료를 과다 함유했다는 이유로 수입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 기업은 파란색, 붉은색, 노란색을 주로 추출해 사용했는데 문제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이 색소를 일정량 이상 섭취할 경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사실상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염료를 향수, 화장품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제품에서 홍화적색소와 타르트라진 성분이 검출돼 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도 있다. 홍화적색소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식품 가공은 물론 차, 커피, 고춧가루, 김치, 고추장 등에 아예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성분이다.

제과류에 노란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트라진은 견직물부터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널리 쓰이지만 섭취할 경우 편두통, 결막염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미국에서는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FDA는 수입식품에서 문제 성분이 발견될 경우 일단 수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성분 검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식품이나 제과류 구입시 성분 표시를 잘 살피고 알러지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p>□ 미국, '코로 흡입하는' 초콜릿 가루 규제 촉구 (2017.07.11 / 식품안전나라 / AP)</p> <p>8일(현지시간), 민주당 찰스 슈머 뉴욕 상원의원은 식품의약품청(FDA)에 일명 '코코 로코(Coco Loko)' 처럼 흡입 형태의 식품에 카페인을 사용하는 실태를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코로 마시는 생 카카오"로 판매되는 이 제품은 카페인이 들어간 카카오 콩 가루로 만들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코 로코'는 에너지 음료 원료로도 사용된다. 의원은 유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제조사인 리갈 린(Legal Lean Co.)(사)은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진 않았지만 코코 로코가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흡입 초콜릿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p> <p>□ 미국 벤&제리(사), 유럽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의 글리포세이트 오염 방지할 예정 (2017.10.11 / 식품안전나라 / Guardian)</p> <p>미국 벤&제리(Ben & Jerry's)(사)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자사 아이스크림 제품에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광범위하게 잔류해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내년부터 생산망에서 모든 글리포세이트 오염 재료를 제하고, 유기농 유제품 라인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이와 같은 극적인 계획이 추진된 배경은 보건연구원(HRI)의 신규 조사 결과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B&J 제품 샘플 14개 중 13개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것에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도 B&J 아이스크림 중 글리포세이트가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된 바 있으나, 과학자들은 가디언(지)에 검출치가 "대단히 미미하며, 공중보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p> <p>B&J 대변인은 동 사가 최신 분석 결과에 실망하였으나, 분석 결과가 전적으로 놀라운 사실은 아니라고 전했다. 대변인은 "글리포세이트는 농업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초제이며, 이는 주요 식품에서부터 천연 및 유기농 식품과 심지어는 빗물까지 어디에나 존재한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전했다.</p> <p>대변인은 "2020년까지 우리는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건조된 작물로 만들어진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화학적 건조 물질로서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종료하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p>
독일	<p>□ 독일, 유기농 달걀이 향은 더 좋지만 세균 더 많아 (2017.05.24 / 독일연방영양센터 / 식품안전정보원)</p> <p>독일 연방영양센터는 유기농 달걀에 대해서 향(Aroma)은 더 좋지만 세균 더 많다고 안내했다. 동 기관에 따르면 최근 독일인의 유기농 달걀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독일인의 평균 달걀 소비량은 235개이며, 그 중 9%가 유기농 달걀이다. 독일 호헨하임대학교의 가축학 교수 Michael Grashom 박사는 바닥사육 닭의 달걀과 유기농 달걀을 비교했다. 그 결과 유기농 달걀이 향(Aroma)과 건강면에서 더 좋지만 세균은 더 많고 노른자 부위가 더 작았다고 밝혔다.</p> <p>박사는 이에 대해서 활동이 자유로운 유기농 사육 닭은 잔디 위에서 먹이를 먹으면서 카모마일 또는 휘발성 오일이 함유된 다른 식물들도 먹기 때문에 유기농 달걀의 향(Aroma)이 더 좋고 식물성 성분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더 높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p> <p>하지만 야외 방사 사육의 경우 영양소 공급이 여의치 않아 특히 필수 아미노산과 열량이 적어 노른자 부분이 더 작고, 노른자 색이 덜 진했다. 유기농 달걀의 경우 사료용 색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란자의 색이 연했다. 하지만 유기농달걀의 흰자는 더 굳고 젤라틴과 같은데, 이는 유기농 산란닭들의 면역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p>

	<p>세균오염과 관련해서는 유기농 달걀의 세균 오염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출입구 부분이 더 청결하게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달걀에는 일반적으로 세균이 없을 수 없으며, 주로 일반적인 장내세균이다. 이론적으로 살모넬라가 존재할 수 있지만 달걀 생산 공정에 도입된 안전조치로 살모넬라 리스크가 현저히 감소하여 살모넬라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 유기농 달걀 및 일반 달걀에 존재하는 세균은 살모넬라 오염이 아닌 이상 무해하며, 대부분의 세균은 껍질에 존재하고 열에 의해 사멸된다.</p>
일본	<p>□ 일본, 가공식품 원재료 원산지표시 의무화(안) 동의...8월에 시행 (2017.08.01 / 식품안전나라 / 마이니치신문)</p> <p>28일, 내각부 소비자위원회의 부회가 모든 가공식품에서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표시기준 개정안에 동의했다. 가까운 시일에 총리에게 답신 할 예정이다. 신 표시기준은 8월 중이라도 시행되어 약 5년의 이행 기간을 거쳐 2022년 4월에 완전 시행되게 된다. 한편 부회는 새로운 복잡한 규칙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걱정과 감시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뿌리깊다는 것에서 완전 시행의 2년 후를 목표로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p> <p>원산지 표시 대상은 이제까지 건조식품(干物) 등 가공도가 낮은 식품이었다. 개정 후에는 일본 내에서 제조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서 중량 비율 1위인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복수의 국가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중량 순으로 국명을 기재한다.</p> <p>단,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원재료의 매입처와 중량 비율이 빈번하게 바뀌어 그 때마다 라벨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이 때문에 과거 사용실적 등의 근거를 제시하면, 'A국 또는 B국'이라고 병기하거나 3개국 이상을 '수입'이라고 하는 예외도 인정한다. 조건에 따라서 '수입 또는 국산'이라고 하는 표시도 가능하다.</p> <p>□ 日 "식품 낭비 줄이자" 유통기한 월 단위 표시 확산 (2017.11.06 / 연합뉴스)</p> <p>일본 유통업체와 식품업체가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기 위해 현재 일(日) 단위까지 표시하는 유통기한을 일부 품목에 한해 월(月) 단위로 바꿔 가고 있다.</p> <p>아직 먹을 수 있는데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폐기처분 되는 음식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본의 유통기한 표시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상미(賞味)기간"과 상하기 쉬운 음식의 유통기한을 나타내는 "소비기간"으로 구분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가 두 가지를 거의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p> <p>6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유명 슈퍼체인 이온은 10월부터 그룹 전체의 폐기 식품량을 2025년까지 2015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18년 4월을 목표로 자체상표(PB·Private Brand) 가공식품 일부의 유통기한(상미기간) 표시를 현재의 "연월일(年月日)"에서 "연월(年月)"로 바꾸기로 했다. 예컨대 유통기한이 2018년 11월 1일이면 현재는 "2018. 11. 1"로 표시하지만, 변경 후에는 "2018. 11"로 표시한다.</p> <p>회사 측은 "점포에서 식품을 살 때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더 많이 남아있는 걸 사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고려해 월 단위로 표시함으로써 폐기처분되는 상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제조일로부터의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인 품목이 대상이다. 우선 "홋카이도(北海道)산 크림스투" 등 3개 품목부터 적용기로 했다. 대상품목을 순차적으로 늘려 PB 가공식품의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p>

	<p>일본 농림수산성 추계에 따르면 일본 국내의 버려지는 식품은 2014년의 경우 약 621만t에 달해 국민 1인당 매일 한 컵 분량의 밥이 버려졌다.</p> <p>유력 식품 메이커인 아지노모토도 2월부터 3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월 단위 표시로 바꿨다. 8월에는 "크노르" 브랜드 스프 등 70품목 이상으로 확대했다. 나머지 약 90개 품목도 2019년까지 월 단위 표시로 바꿀 방침이다.</p> <p>유통, 식품업계보다 먼저 월 단위 표시로 전환한 음료업계의 경우 기린맥주 등이 2013년 이후 음료수와 청량음료 등의 유통기한을 월 단위로만 표시하고 있다. 다만 "상미기간과 소비기간을 혼동하고 있는 소비자도 적지 않아 눈치를 보고 있는 업체도 많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p>
유럽	<p>□ '살충제 달걀' 공포.. 유럽 밥상서 계란 사라졌다 (2017.08.09 / 조선일보)</p> <p>'피프로닐'은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없앨 때 쓰는 맹독성 물질로 인간이 직접 섭취하는 동물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하면 간, 갑상샘, 신장 등이 망가질 수 있다.</p> <p>벨기에 검찰은 자국 제약 업체가 제충(除蟲)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피프로닐을 섞은 살충제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네덜란드 일간지 폴크스크란트는 "네덜란드 양계 업체가 닭에 기생하는 붉은 닭진드기를 잡기 위해 피프로닐 성분이 포함된 벨기에산(産) 살충제를 1년 넘게 사용했다"고 보도했다.</p> <p>벨기에와 네덜란드의 달걀을 수입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상이 걸렸다. 프랑스 중서부의 2개 식품 가공 공장에서는 피프로닐 성분이 다량 검출된 달걀이 발견됐고, 영국은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달걀 2만1000개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안나 카이사 이트코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프랑스와 영국·스웨덴·스위스까지 (살충제 계란 유통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한국, 스페인産 100만개 수입... 살충제 성분은 검출 안돼</p> <p>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을 검사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은 검출된 적이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1월부터 7월 중순까지 스페인산 달걀 100만개가 수입됐지만, 살충제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벨기에 당국은 지난 6월 초 '살충제 달걀'을 처음 알고도 이웃 국가에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AFP가 보도했다.</p>
프랑스	<p>□ 프랑스, 벌꿀 이력추적에 관해 (2017.10.23 / 식품안전나라 / 소비자연합(Que Choisir))</p> <p>프랑스 소비자연합('Que Choisir')과 프랑스 양봉연합(UNAF)은 혼합 벌꿀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촉구했다.</p> <p>프랑스에서 소비되는 벌꿀의 75%는 수입산 혼합꿀이다. 살충제, 진드기 및 아시아말벌 등 포식자, 기후 변화, 꽃꿀원 감소 등으로 인해 프랑스의 벌꿀 생산은 1995년 32000~33000톤과 비교하여 2016년과 2017년에는 10000톤가량에 그쳤다. 현재 30000톤 이상의 벌꿀이 수입되고 있으며, 주요 원산지는 중국,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헝가리, 스페인, 이탈리아다.</p> <p>혼합 벌꿀은 변조 위험이 크다. 만약 유럽 규정에서 꿀 채집 국가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불명확한 표시로부터 이득을 취해온 여러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p> <p>벌꿀 원산지 라벨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프랑스 소비자의 80%가 프랑스산 벌꿀을 소비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은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된 다양한 품질의 벌꿀이 혼합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설탕 시럽 첨가와 같은 사기성 행위가 종종 지적되곤 하는 국가이다.</p>

□ **대만, 은행잎 추출물 함유된 껌 약사법 위반 가능성 있어** (2017.10.26 / 식품안전나라 /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최근 기억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껌이 출시돼 온라인에서 열띤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약품관리서(이하 '식약서')는 해당 껌에 은행잎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미승인 식품원료로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약품으로 관리된다면서 식품 방식으로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식약서는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서는 이 제품은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공개 진열해서 약품으로 함부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반 시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식약서는 약사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약품을 제조, 수입할 경우 중앙 위생 주무기관에 검사 등록을 해야 하며 승인되어 약품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조 또는 판매한 비합법적인 금지 약품은 약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1억 NTD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판매, 공급 또는 판매하기 위해 진열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8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유기징역, 5,000만 NTD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

(관련 정보) '기억력 껌' 팔다간 감옥행(CNA, <http://www.cna.com.tw/news/ahel/201710230339-1.aspx>) 일본에서 기억력을 유지시켜 준다고 광고하는 '기억력' 껌에 은행잎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식약서에서는 이를 '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함부로 팔다가는 최고형인 7년 유기징역, 벌금 5,000만 NTD에 처해질 수 있다.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는 금일(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기억력을 유지시켜준다는 껌이 있어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서는 기억력 껌에는 은행잎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약품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식약서 기획 및 과학 기술관리팀장 장첸치(江仟琦)는 9월 말 소비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식약서가 온라인 옥션,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알려 판매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본 보 기자가 온라인의 상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온라인 옥션 업자들이 기억력 껌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심지어 '2017.10 일본 최신 구입' 물품이 주로 공급되고 있었다. 장첸치 팀장은 과거 온라인에서 위반 업자를 적발한 바 있으며 최근에 또 다른 새로운 판매자가 나타나 상품을 올린 것 같으며 온라인 옥션 업자들에게 다시 한 번 판매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3.4.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①

국민소통단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의식조사

* 설문기간 : 2017년 4월 10일(월)~4월26일(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민소통단 1,000명 대상 (응답자 63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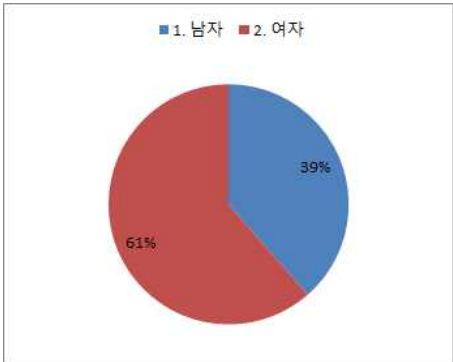
<일반사항>

(1) 거주지역

	구분	응답인원	비율
1	서울	141	25%
2	인천	43	7%
3	경기	167	29%
4	대전	25	4%
5	세종	6	1%
6	강원	19	3%
7	충북	19	3%
8	충남	18	3%
9	부산	48	8%
10	대구	32	6%
11	울산	7	1%
12	경북	27	5%
13	경남	26	5%
14	광주	16	3%
15	전북	18	3%
16	전남	17	3%
17	제주	9	2%
	합계	63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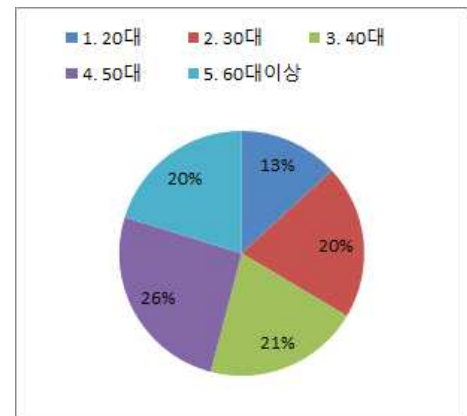
(2) 성별

구분	응답인원	비율
남자	246	39%
여자	392	61%
합계	63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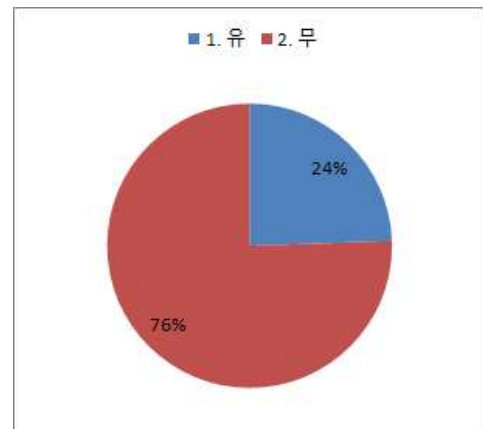
(3) 연령

구분	응답인원	비율
20대	84	13%
30대	130	20%
40대	131	21%
50대	164	26%
60대 이상	129	20%
합계	63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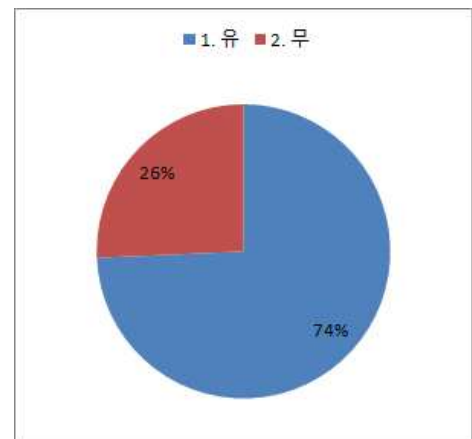
(4) 영유아 자녀유무

구분	응답인원	비율
유	156	24%
무	482	76%
합계	638	100%



(5) 결혼유무

구분	응답인원	비율
유	474	74%
무	164	26%
합계	638	100%



<설문내용>

■ 문항 2. 최근 2년 이내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구매경험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인원	비율
있다.	166	26%
없다.	472	74%

■ 문항 1-(1).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주요 제품은 무엇입니까?

*문항2에서 '있다' 라고 응답한 166명 (복수응답가능)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가공식품류(소스류,과자류,주류등)	10	4%	7
건강식품(비타민,글루코사민,오메가3등)	98	40%	1
화장품류	56	23%	2
농축산물(커피(원두), 조제분유 등)	17	7%	5
위생용품(삼푸, 바디클렌저 등)	29	12%	3
의약품(치약, 가글액, 생리대 등)	14	6%	6
기타 ¹⁾	18	7%	4
합계	242	100%	

1) 실험지역, 잡화, 전자제품, 의류 등

■ 문항 1-(2). 해외직구로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2에서 '있다' 라고 응답한 166명

문항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순위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해서	97	26	8	1
배송이 신속하고 안전해서	10	6	5	5
주변에서 추천하거나 이용후기가 좋아서	11	26	26	4
제품이 다양해서	6	32	33	6
제품의 품질이 우수해서	14	35	31	3
판매 사이트를 신뢰해서	4	4	8	8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라서	18	23	33	2
특정성분을 포함,배제 또는 기능성을 선호해서 (무색소,무방부제,아토피치료등)	6	14	22	6
기타	0	0	0	9
합계	166	166	166	

■ 문항 1-(3).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해외직구 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 하십니까?

*문항2에서 '있다' 라고 응답한 166명

	항목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확인하는 편이다	항상 확인한다.	보통이다 이하순위
가	제품명	0	1	4	49	112	5
나	제품의 성분(원재료명)	0	13	26	70	57	2
다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간	0	5	26	53	82	3
라	제조사 또는 원산지	1	4	19	69	73	4
마	수입금지 품목여부 및 통관 조건 (예:목록통관제도,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 적이고 유해제품이 아닌 경우 건강기능식 품 6병까지 별도 승인없이 통관)	9	26	30	52	49	1

■ 문항 2. 해외직구로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2에서 '없다' 라고 응답한 472명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구매하는 절차나 방법이 어려워서	80	17%	2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 한글표시사항 (제품명, 수입자, 원재료명, 제조사 등)이 없어서	38	8%	5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신뢰할 수 없어서	78	17%	3
제품의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6	1%	7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어서	33	7%	6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50	11%	4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국내 구매로 충분 할 것 같아서)	186	39%	1
기타	1	0%	8
합계	472	100%	

■ 문항 3. 해외직구에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항목	전혀 관리되지 않고있다	잘 관리되지 않고있다	그저 그렇다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	그저그렇다 이하 순위	비교잘 관리되고 있다 이상 순위
가	<u>해외직구식품 위해정보 제공</u> (식품안전나라, 식약처 홈페이지 등) 유해물질 이 검출된 해외직구제품의 상세내역, 구매 주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	35	160	316	119	8	3	1
나	<u>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관리</u> 해외직구제품 구매대행, 신고대행업자에 대한 사전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49	225	279	79	6	2	2
다	<u>해외직구관련 소비자대상 교육·홍보</u> 해외직구 구입 시 주의사항, 주요피해사례 등에 대해서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교육 및 홍보	76	219	255	80	8	1	3

■ 문항 4.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의 안전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항	응답 인원	비율	순위
정부의 모니터링 및 통관검사 강화	140	22%	2
법적 제재 강화(문제 게시물 삭제, 문제가 되는 사이트폐쇄 등)	132	21%	3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66	10%	5
해외직구사이트 등의 자정노력	9	1%	6
해외직구에 대한 일반적 정보제공(피해예방정보, 피해발생시 대처방안 등)	129	20%	4
해외직구 식품·의료제품·화장품 위해정보제공(국내 위해정보모니터링, 해외리콜·회수제품 등)	162	25%	1
기타	0	0%	7
합계	638	100%	

■ 문항 5. 향후, 해외직구를 통해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구매를 늘릴 의향이 있습니까?

*문항2에서 '있다' 라고 응답한 166명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현재보다 늘릴 것이다.	41	25%	2
현재 수준 유지할 것이다.	100	60%	1
현재보다 줄일 것이다.	18	11%	3
구매의사가 없다.	7	4%	4
합계	166	100%	

국민소통단 식품첨가물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 설문기간 : 2017년 6월 14일(수)~7월 05일(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민소통단 1,000명 대상 (응답자 545명)

<일반사항>

(1) 거주지역

	구분	응답인원	비율
1	서울	120	22%
2	인천	42	8%
3	경기	157	29%
4	대전	21	4%
5	세종	6	1%
6	강원	15	3%
7	충북	12	2%
8	충남	11	2%
9	부산	33	6%
10	대구	31	6%
11	울산	6	1%
12	경북	18	3%
13	경남	24	4%
14	광주	9	2%
15	전북	19	3%
16	전남	16	3%
17	제주	5	1%
	합계	54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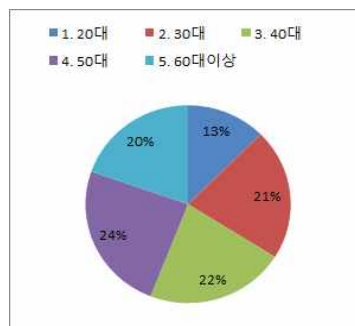
(2) 성별

구분	응답인원	비율
남자	204	37%
여자	341	63%
합계	545	100%



(3) 연령

구분	응답인원	비율
20대	68	12%
30대	117	21%
40대	120	22%
50대	133	24%
60대 이상	107	20%
합계	545	100%



<설문내용>

■ 문항 1. 귀하께서는 평소 식품안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전혀 관심없다.	0	0%	5
관심없다.	9	2%	4
보통이다.	109	20%	3
관심있다.	248	46%	1
매우 관심있다.	179	33%	2
합계	545	100%	

■ 문항 2. 우리나라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환경호르몬	124	22.8%	2
중금속	42	7.7%	4
유해 미생물	16	2.9%	7
잔류농약	38	7.0%	6
유전자변형 식품	83	15.2%	3
방사능	25	4.6%	5
식품첨가물	212	38.9%	1
기타*	5	0.9%	8
합계	545	100%	

* 환경호르몬·잔류농약·식품첨가물 모두, 식품위생, 업체들의 마인드, 비양심적인 요식업주들, 잘모르겠다.

■ 문항 3. 식품첨가물의 종류, 역할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전혀 모른다.	21	3.9%	4
거의 모른다.	170	31.2%	2
보통이다.	240	44.0%	1
알고있다.	97	17.8%	3
잘 알고 있다.	17	3.1%	5
합계	545	100%	

■ 문항 4. 식품첨가물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고 계신가요?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TV	170	31.2%	2
온라인(인터넷, SNS, 블로그 등)	224	41.1%	1
식약처 홈페이지	34	6.2%	4
홍보책자, 리플릿 등	48	8.8%	3
라디오	3	0.6%	8
잡지	2	0.4%	9
신문	20	3.7%	6
아는 사람을 통해	29	5.3%	5
기타*	15	2.8%	7
합계	545	100%	

* 식품안전교육, tv/신문/오라인 모두, 소비자단체교육을 통해, 해당식품 포장지의 성분표시, 소비자단체/식품안전 관련 공공기관 주관의 교육을 통해, 교육 받은 적이 없음, 별도의 교육을 통해, 세미나, 안전한 먹거리교육 등

■ 문항 5. 만약 식품첨가물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가 불충분함	116	21.3%	3
교육, 홍보가 불충분함	245	45.0%	1
관심이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36	6.6%	4
식품첨가물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144	26.4%	2
기타*	4	0.7%	5
합계	545	100%	

* 표시 글자가 너무 작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음.

■ 문항 6. 식품첨가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전혀그렇지않다	79	14.5%	3
그렇지 않다	249	45.7%	1
보통이다	199	36.5%	2
그렇다	17	3.1%	4
매우 그렇다	1	0.2%	5
합계	545	100%	

■ 문항 7. 식품첨가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6번 질문의 ①, ②번(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선택한 응답자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언론 및 방송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190	57.9%	1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21	6.4%	4
SNS,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59	18.0%	2
그냥 웬지 안 좋을 것 같고 싫다.	42	12.8%	3
기타*	16	4.9%	5
합계	328	100%	

* 식품을 보기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좋지 않은 재료를 넣는 다고 생각해서, 첨가물의 이름만 표시하고 유해성은 전혀 표시가 없다는 점, 교육을 통해서 등

8. 식품첨가물을 피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6번 질문의 ①, ②번(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선택한 응답자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원재료의 맛을 잃어버리게 돼서	6	1.8%	3
인공적인 물질인 것 같아서	101	30.8%	2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218	66.5%	1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2	0.6%	4
기타*	1	0.3%	5
합계	328	100%	

* 실제로 첨가물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9-1. 식품첨가물은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6번 질문의 ③, ④, ⑤번(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선택 응답자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전혀 그렇지 않다.	1	0.5%	4
그렇지 않다.	20	9.2%	3
보통이다.	99	45.6%	1
그렇다.	97	44.7%	2
매우그렇다.	0	0.0%	5
	217	100%	

9-2. 식품회사에서 식품첨가물의 법적 기준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 6번 질문의 ③, ④, ⑤번(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선택한 응답자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전혀그렇지않다	1	0.5%	4
그렇지 않다	70	32.3%	2
보통이다	113	52.1%	1
그렇다	32	14.7%	3
매우그렇다	1	0.5%	4
	217	100	

10. 다음은 식품첨가물의 주요 역할입니다. 아래 식품첨가물의 역할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식품첨가물 역할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필요 순위 (보통 이다 이상)	불필 요순 위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보존성 향상 식품이 상하거나 변하는 것을 막는다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16	3%	102	19 %	218	40 %	189	35%	20	4%	1	4
품질유지 및 품질향상 부족한 영양소 보충, 물과 기름처럼 혼합되지 않는 두 물질을 분리되지 않게한다 (영양강화제, 유화제 등)	27	5%	110	20 %	238	44 %	155	28%	15	3%	2	3
조식감 부여 유지 식품의 조직을 먹기 좋게 하고, 빵을 부풀리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응고제, 팽창제, 증점안정제 등)	29	5%	180	33 %	220	40 %	108	20%	8	1%	3	2
맛, 색깔, 냄새 향상 식품의 맛과 향을 증진시키고, 본래의 색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색을 부여한다 (향미증진제, 착색료, 착향료 등)	97	18%	225	41 %	158	29 %	59	11%	6	1%	4	1

- 식품첨가물의 역할 중 불필요하다(전혀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역할로는 맛, 색깔, 냄새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남. 필요하다(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는 역할로는 식품의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남.

국민소통단 바이오시밀러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 설문기간 : 2017년 7월 24일(월)~8월 06일(일)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민소통단 1,000명 대상 (응답자 589명)

<일반사항>

(1) 거주지역

	구분	응답인원	전체응답비율	지역 할당인원 대비 응답률
1	서울	131	22%	63.9%
2	인천	45	8%	72.6%
3	경기	166	28%	66.4%
4	대전	23	4%	69.7%
5	세종	4	1%	66.7%
6	강원	17	3%	54.8%
7	충북	14	2%	56.0%
8	충남	15	3%	36.6%
9	부산	36	6%	51.4%
10	대구	25	4%	45.5%
11	울산	8	1%	44.4%
12	경북	23	4%	41.8%
13	경남	25	4%	47.2%
14	광주	14	2%	56.0%
15	전북	20	3%	60.6%
16	전남	15	3%	42.9%
17	제주	8	1%	80.0%
	합계	589	100%	

(2) 성별

구분	응답인원	전체응답비율	할당인원 대비 응답률
남자	221	38%	45.7%
여자	368	62%	70.5%
합계	589	100%	

(3) 연령

구분	응답인원	전체응답비율	할당인원 대비 응답률
20대	70	12%	42.7%
30대	125	21%	64.8%
40대	123	21%	55.2%
50대	139	24%	62.1%
60대 이상	132	22%	65.3%
합계	589	100%	

<설문내용>

■ 문항 1. 귀하께서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계셨습니까?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모른다.	495	84.0%	1
알고있었다.	94	16.0%	2
합계	589	100.0%	-

■ 문항 1-1. 모르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1에서 모른다 응답자 495명 대상)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관련 정보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409	82.6%	1
전문적 내용이라 어려울 것 같아서	53	10.7%	2
관심이 없어서	33	6.7%	3
기타*	0	0.0%	-
합계	495	100%	-

■ 문항 1-2.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알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문항1에서 모른다 응답자 495명 대상)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가격정보	12	2.4%	3
안전정보	198	40.0%	2
제품상세정보	279	56.4%	1
동향정보	6	1.2%	4
합계	495	100%	-

■ 문항 1-3. 필요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받기 원하십니까? (문항1에서 모른다 응답자 495명 대상)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신문, 안내책자 등	72	14.5%	4
TV, 라디오 등	157	31.7%	2
인터넷	177	35.8%	1
SNS	89	18.0%	3
합계	495	100%	-

문항2 부터는 문항1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는 응답자 94명만 답변함

■ 문항 2.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알고 계셨다면 어디서 들어 보셨습니까?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진료 의사	3	3.2%	5
뉴스, 신문 등 미디어 매체	57	60.6%	1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20	21.3%	2
카톡, 페이스북 등 SNS	2	2.1%	6
아는 사람을 통해	5	5.3%	2
기타*	7	7.4%	3
합계	94	100%	-

* 독서를 통해서, 관련 업무상, 약제 관련 회의를 통해, 관련전공(생물학), 뉴스/신문/인터넷을 통해, 직업이 의사라서 등

■ 문항 3. 지금까지 바이오시밀러를 투약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투약받은 경험이 없다	90	93.8%	1
투약받은 경험이 있다	4	4.2%	2
합계	96	100%	-

■ 문항 3-1. 투약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3에서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90명 대상)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바이오시밀러의 안전성을 믿을 수가 없어서	10	10.9%	3
담당 의사나 주변 사람들이 권유하지 않아서	12	13.0%	2
합성의약품에 비해 치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0	0.0%	-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61	66.3%	1
기타*	7	7.6%	4
합계	90	100%	-

* 아프지 않아서, 어떤약이 바이오의약품인지 모름, 투약여부를 모름, 어떤약이 바이오시밀러인지 모름, 병원에서 진료받을만한 일이 없었음. 처방 받을 일이 없었음, 바이오시밀러약이 필요한 병에 걸리지 않음.

■ 문항 3-2. 투약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3에서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90명 대상)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투약받을 의향이 없다	22	23.9%	3
투약받을 의향이 있다	32	34.8%	2
생각해 본적이 없다	36	49.1%	1
기타	0	0.0%	-
합계	92	100%	-

■ 문항 4. 투약 받은 제품이 바이오시밀러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문항3에서 투약경험이 있다는 응답자4명 대상)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모른다	1	25.0%	2
알고 있었다.	3	75.0%	1
합계	4	100.0%	-

■ 문항 4-1. 모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4에서 ‘모른다’ 고 응답한 1명 대상)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관련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없어서	1	100.0%	1
주치의를 신뢰하여(담당의사가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0	0.0%	-
관심이 없어서	0	0.0%	-
기타	0	0.0%	-
합계	1	100.0%	-

■ 문항 5. 바이오시밀러를 투약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4에서 알고있었다 고 응답한 3명)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오리지널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해서	1	33.3%	2
진료의사의 권고로	2	66.7%	1
주변 사람들의 권고로	0	0.0%	-
질병 치료 효과가 비슷할 것 같아서	0	0.0%	-
기타	0	0.0%	-
합계	3	100.0%	-

■ 문항 6.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바이오시밀러의 효능이 어떠리라 생각하십니까?

(문항1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응답자 94명)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매우 높을 것이다	1	1.1%	5
조금 더 높을 것이다	17	18.1%	3
똑같을 것이다(비슷할 것이다 또는 별차이가 없을 것이다 포함)	45	47.9%	1
조금 더 낮을 것이다	28	29.8%	2
매우 낮을 것이다	2	2.1%	4
기타*	1	1.1%	5
합계	94	100.0%	-

* 알 수 없다 / 동등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확신 할 수 없음

■ 문항 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바이오시밀러 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항1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응답자 94명)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	4	4.3%	4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45	47.9%	1
그저 그렇다	34	36.2%	2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	10	10.6%	3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1	1.1%	5
합계	94	100.0%	-

■ 문항 8. 바이오시밀러 안전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항1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응답자 94명)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정부의 법적 제재 강화	28	29.8%	2
정부의 바이오시밀러 지원 강화	12	12.8%	4
제조사사의 자정 노력	13	13.8%	3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일반 및 위해정보 제공	39	41.5%	1
기타*	2	2.1%	5
합계	94	100.0%	-

* 4가지 모두 필요하다, 제조사 제조물에 대한 책임 강화 - 문제발생시 배상책임 확대,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 등

국민소통단 어린이 화장품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 설문기간 : 2017년 9월 20일(수)~10월 09일(월)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민소통단 1,000명 대상 (응답자 564명)

<일반사항>

(1) 거주지역

	구분	응답인원	전체응답비율	지역 할당인원 대비 응답률
1	서울	125	22.2%	61.0%
2	인천	37	6.6%	59.7%
3	경기	162	28.7%	64.8%
4	대전	23	4.1%	69.7%
5	세종	5	0.9%	83.3%
6	강원	17	3.0%	54.8%
7	충북	15	2.7%	60.0%
8	충남	13	2.3%	31.7%
9	부산	35	6.2%	50.0%
10	대구	27	4.8%	49.1%
11	울산	6	1.1%	33.3%
12	경북	21	3.7%	38.2%
13	경남	23	4.1%	43.4%
14	광주	15	2.7%	60.0%
15	전북	19	3.4%	57.6%
16	전남	15	2.7%	42.9%
17	제주	6	1.1%	60.0%
	합계	564	100.0%	-

(2) 성별

구분	응답인원	전체응답비율	할당인원 대비 응답률
남자	196	34.8%	40.5%
여자	368	65.2%	70.5%
합계	564	100.0%	-

(3) 연령

구분	응답인원	전체응답비율	할당인원 대비 응답률
20대	65	11.5%	39.6%
30대	117	20.7%	60.6%
40대	132	23.4%	59.2%
50대	141	25.0%	62.9%
60대 이상	109	19.3%	54.0%
합계	564	100.0%	-

<설문내용>

■ 문항 1. 귀하께서는 자녀가 있나요?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있다.	387	68.6%	1
없다.	177	31.4%	2
합계	564	100.0%	-

■ 문항 2. 귀하의 자녀는 몇 살인가요? (문항1에서 ‘있다’ 응답자 387명 대상)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유치원생 이하	55	14.2%	2
초등학생	40	10.3%	4
중학생	27	7.0%	5
고등학생	42	10.9%	3
대학생 이상	223	57.6%	1
합계	387	100.0%	-

■ 문항 3. 귀하의 자녀는 화장(기초화장, 색조화장 등)을 하고 있나요?? (문항1에서 ‘있다’ 응답자 387명 대상)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화장을 함	244	63.0%	1
화장을 하지 않음	143	37.0%	2
합계	387	100.0%	-

■ 문항 4. 귀하의 자녀는 주로 화장품을 어디에서 구매하고 있나요? (문항3에서 ‘화장을 함’ 응답자 244명 대상)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학교 앞 문방구 등	0	0.0%	-
화장품 전문매장, 로드샵 등	130	53.3%	1
드러그스토어 등 (예 : 올리브영, 왓슨스, 롭스 등)	39	16.0%	3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58	23.8%	2
자녀가 직접 구매하지 않음	14	5.7%	4
기타*	3	1.2%	5
합계	244	100.0%	-

* 백화점, 직접구입함

■ 문항 5. 귀하의 자녀는 어떤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나요? (중복선택 가능) (문항3에서 ‘화장을 함’ 응답자 244명 대상)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스킨, 로션 등 기초화장용 제품	203	30.5%	1
BB크림, 파우더 등 얼굴에 바르는 색조화장용 제품	135	20.3%	3
틴트, 립글로스, 립스틱 등 입술에 바르는 색조화장용 제품	140	21.1%	2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등 눈에 바르는 눈화장용 제품	101	15.2%	4
향수 등 방향용 제품	78	11.7%	5
기타*	8	1.2%	6
합계	665	100.0%	-

* 자외선차단, 방수, 모기퇴치용, 기능성(미백, 필링, 여드름), 제모크림, 마스크팩, 모든 제품

■ 문항 6. 성인과 다르게 어린이·청소년의 화장품을 구분하여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전체응답자 564명 대상)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구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524	92.9%	1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	40	7.1%	2
합계	564	100.0%	-

■ 문항 6-1. 구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복선택 가능) (문항6에서 ‘필요하다’ 응답자 524명 대상)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어린이·청소년의 피부가 성인에 비해 연약할 것 같아서	290	29.7%	2
어린이·청소년 표방 화장품은 더 엄격한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339	34.7%	1
어린이·청소년 표방 화장품은 알리지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160	16.4%	4
보존제(방부제), 색소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 같아서	187	19.1%	3
기타*	2	0.2%	5
합계	978	100.0%	-

* 부작용이나 사용법 등의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다 / 화장품 성분이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어린이와 청소년과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성장 발달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린이 사용하는 제품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 문항 6-2. 만약 어린이·청소년용 화장품을 성인용과 구분해서 관리한다면,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요? (중복선택 가능) (문항6에서 ‘필요하다’ 응답자 524명 대상)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효과(예 : 자외선차단효과 등)를 내는 성분	93	7.6%	5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무엇이고, 얼마나 들어있는지(함량)	294	24.0%	2
합성향료, 색소성분은 무엇이고, 얼마나 들어있는지(함량)	228	18.6%	3
보존제(방부제)가 무엇이고, 얼마나 들어있는지(함량)	205	16.8%	4
피부의 자극 및 유해성 여부	400	32.7%	1
기타*	3	0.2%	6
합계	1,223	100.0%	-

* 지금의 성인화장품 안전 관리가 더 강화되어서 연령과 상관없이 안전해야 한다고 봄 / 립스틱 등 어린이 화장품 세트가 더 신용이 안간다(중국산제품) / 성인과 큰 차이 없다 / 개인 선택임, 화장품 안전기준은 나이와 무관하게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문항 7.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복선택 가능) (문항6에서 ‘필요없다’ 응답자 40명 대상)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지금 사용하는 어른용 화장품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19	36.5%	1
어린이·청소년용 화장품은 어른용 화장품과 웬지 효과가 비슷할 것 같아서	16	30.8%	2
어린이·청소년은 화장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5	9.6%	3
어린이·청소년이 필요 이상으로 화장품을 사용할 것 같아서	5	9.6%	3
가격이 더 비싸질 것 같아서	3	5.8%	5
기타*	4	7.7%	4
합계	52	100%	-

* 성분 / 환경호르몬 성분이 포함된 모든 성분(타르계색소, 벤젠계열, 파라벤 등 방부제 등) / 부작용에 대한 정보

■ 문항 8. 어린이·청소년용 화장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체응답자 564명 대상)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어린이·청소년용 화장품을 너무 허황되고 거창하게 거짓말로 꾸며서 광고하는 것을 규제·관리	129	22.9%	2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피부에 좋지 않은 물질이 화장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규제·관리	257	45.6%	1
보존제(방부제)등이 너무 많이 화장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규제·관리	50	8.9%	4
색소, 합성향료 등이 너무 많이 화장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규제·관리	47	8.3%	5
어린이·청소년 대상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 강화	80	14.2%	3
기타*	1	0.2%	6
합계	564	100.0%	-

* 너무 허황되고 거창하게 거짓말로 꾸며서 광고하는 것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피부에 좋지 않은 물질이 화장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모두 필요

■ 문항 9. 그 외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교육·홍보>

- 화장을 막을 수 없다면 아이들이 잘 알고 구매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교육적인 측면이 필요
- 어린이·청소년 화장품에 대한 정의 필요
- 막연한 교육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필요(변형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립스틱+파운데이션을 섞어서 블러셔를 만들 때 자극이나 유해성이 있을 수 있으니 검사가 필요하고, 불(이쑤시개)을 이용해서 속눈썹 뷰어로 사용하는 **위험한 행동에 대한 주의**, 특히 미생물 번식 등이 우려되므로 비위생적이므로 **여러 사람이 돌려서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적정 사용량 등)**
- 알레르기,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규제 및 관리감독과 선행하여 **청소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화**되어야 함(화장품에 대한 안전한 사용방법 교육과 함께 그 유해성에 대한 교육, 아이들의 마음을 이용하기보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이해, 청소년 스스로 좋은 화장품을 선택 할 수 있게 교육 하는 것이 필요).
- 화장을 하면 외적으로 예쁘게 변화된다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한 후의 부작용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피부노화, 피부건조, 발진 등)
- **학교 선생님과 부모 대상으로의 교육**도 필요하다 생각 됨(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를 통한 안내 및 교육), 부모들도 막지만 말고 이해하고 올바른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
- 질 나쁜 화장품을 구매하지 않고 **화장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도록** 교육 및 사회적 공론 필요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1)화장품을 왜 바르는지, 2)화장품을 어떻게 선택해야하는지 3)화장품의 유해성분 등을 체크하는 방법 4)유해 성분의 화장품을 발랐을 때 나타나는 피부질환 등에 대해 교육
-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기의 화장에 대한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을 인지시켜주는 수업이나 캠페인이 필요
- 학교 내 프로그램이 있어야 교육이 가능한데 실제로 청소년 대상 교육이 외부 기관에 의해 실시될 경우 매우 소극적으로 일부 대상에 한할 수 있음. 업계, 판매처 대상 교육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고 지나치게 화장품을 과하게 소비하는 문화를 지양토록 해야 함.
- 청소년이 **어른용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교육
- 교육을 통한 가치관 확립(내적인 미에 대한 교육), 나중에도 할 수 있고 나중에 해야 더 예쁘다는 것과 방송이나 언론의 연예인들은 직업으로 화장을 해야 한다는 것

- 사용 시 주의사항, 보관이나 유통기한, 제품의 패키지에 적힌 **정보를 보고 알 수 있도록** 교육
- 화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잘 지우는 방법과 클렌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 사춘기 때 호르몬 변화로 인해 여드름 등이 빈번하게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유의해야할 화장품 성분에 대해 얘기해주고 추천제품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
-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 등 아이들에게 교육용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홍보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음

<제조 및 성분 관련>

- 유아들이 만졌을 때 위험하지 않도록 **뚜껑 등을 안전하게 제조**
-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는 여드름 발진 등으로 피부가 예민할 때라 마개가 쉽게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마개**가 필요
- 피부 안전문제, 화장품 원료공개
- 청소년 화장품은 좀 더 **엄격한 기준과 성분 표시** 필요
- 어린이나 청소년의 피부에 **자극이 많지 않은 화장품 제조**(성인 피부보다 연약하므로 저자극, 저농도 / 자연 친화적 성분으로 구성)
- 어린이들이 **위화감을 가지지 않도록 높은 가격의 화장품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관리가 필요**, 저렴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적은 화장품을 아이들이 쉽게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함
- **테스트용 소량 포장**으로 제품 포장 단위의 다양성 제공
- 화장품 **색이 너무 진하지 않고 열게** 제조(너무 화려한 색 보다는 어린이피부 연령에 맞는 화장품으로 제조, 향료과다 사용금지, 방부제 등 보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으면 함, 방부제 등 과다사용 금지제한, 유해 성분의 보존료 색소 등 알려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과 알콜 성분등도 철저한 관리 하에 제조)
- 청소년기에는 선크림 등 피부보호를 목적으로 한 화장품을 제외하고 색조 화장 등의 판매는 금지했으면 함
- 화학성분이 아닌 천연성분으로 제조해서 판매
- 어린이 제품은 로션 등 **기초제품 정도로만 구분**
- 차단(자외선 차단 등)위주의 성분이 함유된 **안전한 제품위주로 구분**
- 아토피 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조
- 미백, 자외선차단 효과보다는 **피부 안정에** 주력을 두어야 함
- 선크림의 경우 **세안이 잘되도록** 제조
- 어린이 선블럭(에어쿠션)형태 무분별하게 사용해도 **순하게** 사용가능하고, 퍼프의 미생물 번식을 줄이도록 여유분 필요
- 어떤 종류의 알레르기 피부발진을 일으키는지, **너무 저렴한 제품들의 성분검사가 필요**
- 민감한 피부에 **안정성이 입증된 성분으로** 제조하도록 해야 함.
- 환경이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맞게 화장품도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미세먼지 등 환경을 고려해서 제조

<정보제공, 표시·광고 등>

- 청소년에게 **자주 노출되는 채널 위주로 과장광고 규제**, 청소년들이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광고에 노출 빈도가 높을 수 있어 주의필요
- 과대/허위 광고 자체 **연예인 마케팅 자체**
-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아이돌 여가수들이 화장품 사용에 대해 직접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임
- 어린이·청소년은 성인보다 미디어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미디어(특히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성인 화장품이 아닌 어린이·청소년용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
-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TV 광고 등 사전 광고심의 강화
- **어린이용 천연 또는 유기농 화장품을 강조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
- 어린이 화장품의 철저한 성분검사와 효과 검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없애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
- **테스트 정보** 제공 필요, 어린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분의 함량 등을 테스트를 통해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
-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분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 화장품 유해성분 조사 성분 공개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권 보장)
- 제품의 성분정보를 **청소년들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시필요
- 극소량 들어가는 성분이라도 전성분 모두 꼭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적은 용량의 화장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성분 표시제**를 현재 6g이하는 표시가 의무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
- 전성분표시제가 화장품을 살 때는 포장지에 표시가 있지만 사용 중에는 포장지를 모두 버리므로 나중에 화장품 전성분을 확인하려면 인터넷으로 확인해야하므로 **화장품 용기에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
- **부작용에 대한 주의 문구**가 더 눈에 띄게 표시 필요
- 일반인에게 단순성분명 표시만으로 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한 자세한 성분표시가 필요**, 또한 기본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것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 (ex. 담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것인지 질문 표기
- **연령대별로 유해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
- 화장품에 **연령제한 표기**, 영화의 관람연령"19금" 이렇게 표시하듯이 화장품에 반드시 들어가는 성분이라도 인체 특히 어린이에게 유해하다면 사용금지 정책, 천연성분 사용 어린이, 청소년의 화장품 안전사용 캠페인으로 인식개선 등
- **성인용과는 구별 할 수 있는 표시제**가 필요
- 1)용기에 생산일자 및 사용기한 명시 2)사용 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표기 3) 글자를 크게 표기 강화
- **어린이들이 바르면 안 된다는 문구 삽입, 포장 색상 차별화** 및 안전성 표시요구
- **민감성(여드름) 등 아이들을 위한 화장품을 위한 표시사항** 정확하게 요청
- 제품의 안전성과 함께 **클렌징 관련 세심한 정보제공** 필요
- 화장품 중에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 등 유해물질이 규제를 받고 있는지 궁금한데 직접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움, 사용하는 화장품이 안전한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사이트**가 있었으면 함

<지도·감독 관리 관련>

- 성분에 위해요소가 들어가지 않게 **식약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요청**
- 성인 화장품과 청소년화장품을 구분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성인화장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 어린이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필요
- 청소년에게 화장품 사용은 이미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함, 그러므로 **규제를 넘어서 안전성 관리의 방향으로** 가야될 때라 생각됨
- **어린이 화장품 등급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화장품에 **유해성분이 첨가되지 않게 엄격한 기준과 관리·감독**이 필요
- GMO, LMO와 같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원재료** 성분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적었으면 합니다.
- 어린이, 청소년 화장품 취급점에 대한 규제, 관리가 필요, **문구점에서의 판매금지**(요즘은 문방구에서도 틴트나 화이트닝 기능이 있는 크림 제품, 아이라이너 등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들을 판매하는 것을 확인함)
- 유해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을 생산하는 경우 **징벌적 보상제도**가 이루어져 불량 화장품 생산을 철저히 차단
- 장난감인 듯 유통되는 **정체불명의 어린이 화장품** 근절
- **청소년용과 성인용 제품을 유통 할 때 성분표시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판매**
- 위해 성분 함량 기준치의 강화 연령에 따른 **화장품의 사용법 설명서 강화**
- 13세 이하 아동에게 판매금지 또는 18세 이상 구매 등 제한검토
- 1) 화학합성체제에 관한 안정성 및 피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법적규제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각종 홍보마케팅측면에서 과장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 3) 왜 사용하는지에 관한 제조사들의 기초적 데이터가 관계기관과 공유되어야할 필요성을 반드시 검토
- 어린이 피부에 적합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여 사전 품질 점검 후 **허가된 제품만 출하**
- 제조업체의 **원료수급/제조공정/유통과정의 면밀한 감시/제제/처벌**
- 먹거리만큼은 아니지만 매일 피부에 직접 발라주는 것이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사하고 성분에 대해 규제를 확실히 해야 함.
- 어린이 화장품 제조 유통에 있어 **유해한 행위를 한 판매/유통업자는 엄벌에(징역 10년 이상) 처해야 함**

- 어린이 화장품 판매처에 대한 **지자체(감시원)의 관리필요**
- 보건·안전 등 피부에 민감한 자극과 다른 질병 유발할 요인이 많아 특별관리 점검이 필요함
- 어린이, 청소년 화장품 중 일부 화장품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완구류로 분류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사각지대 관리**
- 화장품 선택 시 성분보다 디자인이나 기능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분을 보지 않고 선택해도 유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
- 판매도 **성인 동반 하에 구입하도록** 해야 함
- **학교 앞 판매처 모니터링**
- 미성년자에게 **텔레마케팅, 노상판매, 방문판매 등 근절**
- **구입 시 연령 확인 중요**, 주류나 담배처럼 미성년자, 청소년대상으로 관리, 규제
- 피부를 통해 인체로 흡수되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유해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을 철저히 관리, 감독**
- 비록 유해성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의심되는 성분도 화장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법 규제도 필요**
- **화장품안전기준을 강화**해서 범위만 **삼진아웃제**로 처음 적발 시 과태료 처분으로 하되 3번 위반 시 퇴출
- 꼭 필요한 제품만 구분하여 관리하면 좋겠음

<기타>

- 어린이, 청소년 화장품을 따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구입하도록 할 수는 없음
- 화장하는 문화 없애기
- 아이들도 사용 한다는 것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안전한 화장품 만드는 문화 만들기
- 무조건 학생에게 화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 의견이 필요
- 개인적으로는 어린이 화장품이 왜 필요한지 이해 불가입니다.
- 제조업체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
- 저렴하지만 안전한 화장품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함
- 어린이 화장품이 어린 청소년의 화장을 부추기는 행위근절 필요
- 어린이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 사업자 윤리의식 강화 법적인 규제 강화
- 너무 상업성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함
- 아이들이 필수로 해야 한다면 아이들을 위한 화장품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
- 미용목적보다 피부보호에 치중해야 함
-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청소년은 청소년답게 로션 및 스킨 등만 바르면 좋겠음
- 유아, 청소년이 올바른 화장품 선택을 하도록 매체의 역할과 홍보가 중요
- 어린이 화장품 전문샵에서만 판매 할 수 있었으면 함
- 화장품관련 회사의 청소년 안전에 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무시하는 나쁜 습성을 바꿔야 함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오피니언리더 의견수렴 ('18년 기획감시의제발굴)

* 설문기간 : 2017년 10월 25일~11월 06일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민소통단 오피니언리더 300명 대상 (응답자154명)

1. 평소 불안하게 느껴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먹을거리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유통·판매 전 과정 포함)

구분	건수 (중복응답)
축산물,육류,가금류(닭고기 등) 등	28
육류가공식품 등(떡갈비, 훈제오리, 양념육, 햄, 소시지 등)	24
음식점,분식점등	23
길거리 판매 식품	20
수산물 및 수입수산물	20
달걀, 구운계란, 초란 등	17
과일류	10
수산물 건조식품, 건포류(쥐포,육포, 오징어, 황태 등) 건어물	10
과자류	9
견과류	8
기타(식품 외)	8
아이스크림류/빙과류	8
편의점판매식품(PB식품, 도시락, 간편식, 샌드위치, 김밥 등)	8
절임식품(젓갈류, 단무지 등)	7
반찬류	6
생수	6
수산가공식품(초밥, 어묵 등)	6
가공식품	5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식품	5
빵 및 떡류	5
즉석가공식품(즉석국, 즉석밥, 레토르트식품 등)	5
치킨류	5
두부류 및 묵류	4
메추리알	4
식용유지류	4
유가공식품	4
음료류	4
채소류	4
곡류	3
꿀 등	3
나물류	3
다이어트식품	3
떫다방, 홍보관	3
푸드트럭	3
해조류(구운 김 등)	3
고추가루	2
김치류	2
조림식품	2
휴게소 등 휴게음식점	2
건강원	1
면류	1
약용작물류	1
얼음	1

구분	건수 (중복응답)
재래시장 내 먹거리	1
패스트푸드점	1
해외직구 식의약품	1
총합계	303

□ 사례

항목	사례 및 문제점	필요한 단속내용 및 개선방안 의견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식품	신문, 인터넷 등에 효과/효능에 대해 허위·과장광고가 많음	전 성분을 알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필요, 광고에 대한 사전 검열 강화, 객관적인 사실 확인
	복용 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유해식품을 사용하는지 좀 더 신중한 조사 필요
	원재료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성분 표시가 맞는지 점검, 원재료 함유량이 기준치에 도달하는지 점검 필요
	홍삼 엑기스 농도가 맹물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음	
	함유된 재료 중 성분의 신뢰도	철저하고 정확한 성분 분석
땃다방, 홍보관	체험관·홍보관에서 원재료, 효능, 효과 알 수 없으나 노인상대로 만병통치약으로 과장 선전 후 고가에 판매되고 있음	체험관, 홍보관 건강기능식품 판매 단속
	노인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판단능력과 정보부족으로 피해가 많음	체험방 직접 불시 방문으로 어르신대상으로 피해사례 접수 및 식품수거 성분조사
	노인층 과다한 지출로 경제적 문제 및 가계문제가 큼	해당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단속필요
다이어트식품	다이어트식품의 과대광고	과대광고 단속 절실
	식품이므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면 부작용이나 취급주의 사항 없이 재래시장이나 마트에서도 마구 팔림	식품이므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더라도 어떤 이에게 주의해야하는지 명시하는 라벨을 부착하고 판매하는지 여부 감독요망
	보이차 다이어트 알약을 홈쇼핑에서 구입 시 정확한 성분을 모르겠음. 보이차 32잔 용량 추출물이 들어있다는데 의심스러웠으며 속이 메스꺼운 증상 있었음	
편의점 판매식품 (PB식품, 도시락, 간편식, 샌드위치, 김밥 등)	편의점 PB음식 소리 와사비에서 약품냄새 남	편의점 PB음식인 소리와사비 약품처리 여부 및 기타 편의점 PB음식에 대한 위생실태 단속
	도시락이 변질이 되지 않도록 약처리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	도시락 수거하여 성분검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류가 점점 증가추세에 있으나 관리가 미흡할 수 있음	지속적인 모니터링, 도시락, 김밥류 등 즉석식품류에 대한 수거 검사 등
	도시락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있음	유통기한 단속
	막창, 족발, 순대 등 야식메뉴에서 냄새남	불량 원료 사용 여부
	패스트푸드 이용자가 많아지며 먹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유통기간, 위생, 안전 등 점검 필요	유통기간, 위생, 안전 등 점검 필요
	편의점 샌드위치 먹고 설사 증상 보임	위생상태, 보관상태 점검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의 밥이 덜 익거나, 내용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음.	조리 과정의 위생 및 유통 경로
즉석가공식품	시중에 나와 있는 즉석국 등 즉석조리 식품	위생관리, 이물질관리 등

항목	사례 및 문제점	필요한 단속내용 및 개선방안 의견
(즉석국, 즉석밥, 레토르트식품 등)	위생이 의심스러움.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함	
	마트에서 파는 즉석가공식품 원재료의 안전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가공식품 원자재의 품질관리
	즉석밥에 곰팡이가 있었음	유통 과정의 냉장처리 등 관리 필요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운 후 제품을 개봉하면 플라스틱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음.	용기에 환경호르몬 등 유해성분 검출 여부 확인 필요
	냉동레토르트 밥(스팸밥, 김치볶음밥 등) 섭취 후 장염이 종종 걸림	이물질, 세균검사 필요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경우가 있어 유통기한 설정 방법이 궁금하며, 위생관리 신뢰할 수 없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물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음	조리식품 중 유통기한이 짧은 경우 그 기준 점검, 반면 유통기한이 긴 경우 추가된 방부제, 조리첨가물 등의 안전성
과자류	박스형 포장 상품 속 날개 포장제품에도 상품정보가 제공되었으면 함. 특히 식품 알레르기 표시	단속보다는 가공식품류부터 상품정보제공에 대한 기준이 소형 포장재에도 적용됐으면 함.
	과대포장	내용물 보호를 위해 최소 필요 포장 정도 여부 확인
	수입과자의 가격 및 유통기간 등	수입 내역 관리 및 조사
	옛날과자(예, 백옥콘) 성분이 다르거나 맛이 다를 때가 있음.	이물질이 섞여 있어도 모르는 제품인 만큼 사전 검수 필요
	세계 과자점들이 곳곳에 많이 있음	안전기준, 성분표시 등 점검 및 파악 필요성 느낌
	값이 싸고 이용이 편한 문구점에서 파는 색소과다 불량식품들	정기적이고 꾸준한 불량식품 단속 및 제도 필요
	약과의 색깔 및 기름성분 등	색깔을 내는 물질이나 기름은 어느 정도의 것을 사용하는지 불안하기도 하고 알고 싶음
	쫄드기 같은 과자에 색소첨가물이 많아 인체에 해로울 것 같음	생산공장 지도 단속
	초코파이류 포장지에 늘어붙음	포장방법 개선 및 유통과정 확인
아이스크림류·빙과류	유통기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음	한번 녹아서 형태가 변형된 아이스크림 판매 중단 및 조치가 필요함
	유통기한이 없어서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움	유통기한 표시로 제도 개선
	가공식품이고 유통기한이 길지만, 불쾌한 냄새나 맛이 나는 경우 있음	제조, 유통, 관리 전반
	아이스크림 위생이나 첨가물	쭈쭈바 같은 류의 빙과류의 주재료인 물의 위생관리와 첨가물의 위해성, 설탕 등의 당류가 이동이나 인체에 미치는 제한량 등
	제조일자만 있고 기간 및 유효날짜가 없음	1년 넘는 빙과류는 단속해야 함
	유통기한 없어서 불안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토록 제도개선
	유통기한이 없음	유통기한이 정확하지 않아 확인필요

항목	사례 및 문제점	필요한 단속내용 및 개선방안 의견
	유통기한 표시가 없음	제조일자를 크게 기재하기, 운송과정 보관상태 점검
면류	라면에 곰팡이가 있었음	기간 철저히 지키도록 유통과정 단속
길거리 판매 식품	어묵 등 길거리 음식에 들어가는 물에 대해서 불안함, 요리에 필요한 물통 등의 청결도가 떨어짐	물통 청소 및 물의 청결도(공중 화장실 수도꼭지 등)
	노상에서 판매하는 음식, 위생 문제	노상판매 음식에 대한 위생점검 필요
	어묵 꼬챙이(젓가락)를 소독 없이 계속사용	단속공무원 현장 단속강화
	길거리에서 계장두부묵 등 판매 시 위생상태나 원산지표시가 없는 경우	길에서 판매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하게 단속 필요
	도로가에 생선을 건조해서 판매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음. 자동차 타이어 분진, 매연 등으로 세척을 하지만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특히 생선의 중금속 등의 축적은 국민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함	생선 건조시 중금속 등 검사 필요, 도로가의 생선 건조는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있어서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
	트럭에서 판매하는 과일의 원산지표시 및 위생상태 불량	원산지 표시 기재
	트럭에서 판매하는 견과류의 원산지 및 유통기한 표시	견과류에서 산패한 냄새, 곰팡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단속요망
	야시장 먹거리는 상시 있는 판매장이 아니라서 위생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문임	위생관리감독, 위생교육
	지역축제 등이 많이 개최됨에 따라 관광지의 즉석조리식품 안전 점검 필요	관광지 판매식품 유통기한 경과, 변질식품판매, 위생적 조리 등 점검필요
	명동 중심가 음식 판매 가판대 용기, 원재료 등 비위생적	판매 가판대 위생관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길거리 음식(꼬치류)을 쉽게 접하는데 제품의 품질이나 소스의 첨가물에 대하여 모르고 섭취함	원산지와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길거리음식에도 표시를 하도록 단속
	꼬치소스 위생과 첨가물 염려	길거리 닭, 오리 등 꼬치소스 위생과 첨가물 위생 점검
	꼬치음식의 위생상태 및 원산지	길거리 닭, 오리 등 꼬치종류의 위생과 원산지 표시여부
	구운 닭꼬치에서 냄새, 식감이 불쾌한 경우가 있음	행사장, 야외포장마차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유통기한, 생산지 등 관리 필요
	포장마차 꼬치구이 위생관리 허술	나무꼬치 재사용 여부, 간장종지 및 간장 위생, 원재료 유통기한 점검필요
	겨울이 다가 오면 길거리에서 많이 판매되는 어묵꼬치 제조시의 재사용 기름의 규정 강화와 위생 상태	길거리 및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어묵을 튀길 때 재사용기름 기준 여부 및 어묵꼬치 재사용상태 점검
	노점판매 봉어빵의 팔랑금 원산지	식재료 원산지 유통기한, 보관상태 위생문제 점검 단속
	봉어빵 앙꼬의 유통기간 및 앙꼬(팥,슈크림)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의 위생상태	현장점검
	도로 한쪽에 주차해 트럭에서 구워 파는 바비큐 통닭구이가 비위생적임	안전과 위생에 대한 점검필요

항목	사례 및 문제점	필요한 단속내용 및 개선방안 의견
	길거리 음식을 대표하는 포장마차의 음식들의 위생에 대해 걱정이 됨	외국의 유명한 야시장들로 인한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데 포장마차 거리를 활성화할 필요있음.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세금을 걷는다면 주변 상권의 거부 반응도 줄어들고 경제 활성화도 노력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함
푸드트럭	푸드트럭에서 파는 음식 (닭꼬치, 어묵, 떡볶이, 스테이크류) 위생적이지 않음	복장, 청결,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점검 필요
	협소하고 오픈된 장소에서 판매 조리되는 과정에서의 위생문제	위생상태 점검
	푸드트럭 음식의 원산지 표기없음	원산지 구분 표기가 필요함
음료류	과즙음료에서 침전물이 발생함	눈에 보이는 침전물이 과일에서 나온 것인지 다른 이물질인지 구분이 불분명함
	병음료 병바닥에 찌꺼기가 남아있음	제조과정 점검
	생과일주스 판매 시 과일 세척 및 절단 과정 위생불량	대장균 등 위생 및 안전성
	수입주스류 유통기한 표기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	유통기한 낱짜크기가 너무 작고 찾기가 힘들어 소비자가 식별 할 수 있게 확대 필요
생수	생수는 끓여먹지 않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중요함	수거하여 수질검사 후 소비자들에게 안전홍보 필요
	생수 맛이 이상한 경우가 많음. 플라스틱 냄새 등	원인에 대한 분석조차 미비하며, 소비자가 현상에 대해 파악 및 이해하기 어려움. 플라스틱 병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조상의 문제인지 파악해야 함
	나트륨 등 표기 기준미흡, 우라늄 포함여부 궁금함	단속이 아니라 새 기준설정 필요
	판매처에서 냉장보관을 하지 않고, 여름에도 밖에 놔두어서 변질우려	생수 보관 기준을 만들어 일정한 온도와 환경에서 보관되도록 관리 필요
	유통중 보관관리 소홀로 보관 시 직사광선을 쬐면 환경호르몬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함	시장에 유통되는 생수에 대한 성분 모니터링
	생수에서 유해성분 검출 뉴스 본 후 생수 먹기가 꺼려짐	생수회사 모두 단속해서 안전한 생수는 공개하길 요청
	사우나에서 판매하는 음료 얼음 속 이물질이 나옴	음용 얼음 관리필요
달걀, 구운계란, 초란 등	인터넷에서 맥반석계란 구입 했을 때 곰팡이가 피어서 음	식품 생산 및 판매 법규가 더 강화 되어야 할 것 같음
	계란이 조금 딱딱하여 유통기한이 오래 지난 것 같음	유통기한 단속 필요
	제과점, 김밥집 등에 제공되는 계란은 계란물 형태로 유통되는데, 부패 변질여부 확인필요	계란물에 담겨지는 계란의 유통기한 경과여부, 보관, 유통과정 절차 확인
	재래시장 등 소규모 슈퍼에서 곤계란이라고 파는 것이 있음, 유통기한도 없고 어떻게 나오는지 출처도 불명확함.	삶아 파는 계란 성분과 위생도 점검 필요함
	구운 계란 속에 공기 공간이 많은 것은 불량계란 사용으로 보임	유통기한 지난 것을 가공한 것인지, 수입계란인지 단속, 계란의 생산에서 판매장까지의 유통과정

항목	사례 및 문제점	필요한 단속내용 및 개선방안 의견
		명시
	유통되는 계란 중 오염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음	계란 생산과정에서 포장 단계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구운 계란에서 냄새가 날 때가 종종 있음	가공과정에서의 문제점 확인 필요
	새로 구입한 계란을 깨는 순간 악취와 썩은 검정물이 흘러나온 경우가 있음	계란수급 및 포장 시 유통기한이 다른 계란이 섞이는 경우는 없는지 달걀수급과정 점검
	15개들이 계란 한판모두가 노른자가 2개임	산란 닭에 촉진제를 사용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검사
	재래시장에서 파는 생계란 위생이 의심스러움	집에서 요리 할 때 상한 것이 많음, 실온에 너무 오래 둔 계란일 가능성 많음
	목욕탕에서 판매되는 구운계란 유통과정을 알 수 없음	유통경로 표시제도 필요
	프라이를 하려고 깨니 탁 퍼지고 약간 냄새가 남	유통기한 관리 필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반숙(감동란 등)계란의 짭조름한 맛이 의심스러움	조리과정 및 인체 유해도 검사 원함
	제조일자 포장일자 산란일자 등 혼돈스러운 표기	산란일자로 통일해서 기재필요
	초란의 양은 많지 않을텐데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음	초란 여부 확인
메추리알	액란 - 김밥집에서 사용하는 계란부침이 너무 두꺼운 경우가 있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계란부침을 구입하여 사용하는지 확인
	자주 사먹는데 농약 성분 걱정됨	메추리알도 관리감독 필요하며 농약 성분검사 요청함
	색이 약간 시퍼렇고 자장고기에 넣고 끓이니 물렁하고 모두 터진 경우	유통기한 확인
	간메추리알의 껍질을 벗기는 과정에서 약품을 녹여서 벗긴다고 들었음	간메추리알이 남긴 액체 속에 잔류한 약품여부, 안전성 검사
수산물 및 수입수산물	편의점에서 사 먹을시 약품 냄새가 났음,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약품 처리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됨	수거검사 필요
	원산지 표기 적합성 및 방사능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	수입수산물 검역관리와 방사능 검사 통한 안전성 관리 여부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수산물이나 섞어서 파는 경우가 있음	원산지 표시가 명확치 않아 일본 방사능 수산물이 의심되기에 단속 강화 필요
	원산지가 의심스러움	어느 곳에서 누가 잡았는지 명확한 단속 요망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방사능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까봐 불안함	수입을 반대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원산지 표기를 철저히 하는 것 필요
	유통기한의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움	저장돼있는 생선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많이 유통될 것이 늘 걱정됨	미역, 멸치, 고등어 등 수산물소비 높은데 방사능과 중금속에 안전한지 여부
	일본 방사능에 오염	일본산인지 아닌지 정확한 원산지 표시 감독
	유통과정에서 일본산이나 방사능에 유출된 나라에서 들어온 것이 많음	방사능 수치 조사여부
	생선에 비늘 또는 눈알의 신선도가 약해보임	생선 유통경로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원산지와 함께 적길 희망함
수산물 및 수입수산물	냉동 보관된 생선의 유통기간 우려, 소비자는 파악 어려움	정확한 원산지와 유통기간 체크

항목	사례 및 문제점	필요한 단속내용 및 개선방안 의견
	수입산의 원산지 표기의무화	원산지 조회 바코드 부착의무화.
	재래시장에서는 원산지표시가 잘 안되어 있는 편이다	계몽 유도, 단속 순으로 지속적 단속 필요
	조리 후에도 신선도를 알 수 없음	유통과정과 저장과정 유통기한 검열
	싱싱한 정도를 잘 모르겠음	언제 잡힌 것인지 표기
	추워진 시기를 틈타 굴 등 해산물에서 노로바이러스 생성, 실제 봉지굴 먹고 노로바이러스 걸린 적 있음.	굴가공업체(봉지굴 등)방문위생 및 현장 단속
	인터넷 쇼핑몰 메로(생선) 판매시 기름치를 메로로 속여서 파는 경우가 많음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 건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함(재발방지 위해)
	수족관생선(활어), 생선에서 쿠도충, 아나키스트충(고래회충)발견	기생충, 항생제, 소포제 등
	낙지가 저렴한 가격에 비해 양과 품질이 월등히 좋아 약품처리 의심됨	식당에서 사용하는 낙지(해산물) 조리 시 위해약품 처리 여부
	수입생선 한우돼지고기 등이 간혹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아직도分辨이 어려움	판매자의 의식필요, 수시단속 강화
	송어회 같은 민물회의 경우 항생제 사용여부 소비자로서 알 수 없음	민물회에 항생제나 기타 화학성분 검사하여 결과를 표시 했으면 함
수산물가공식품 (초밥, 어묵 등)	초밥재료 냉동제품 해동하여 제조시 세균 번식 등 재료 사용여부	대형마트 등 즉석제조판매업 등 관리
	대형마트에서 생선초밥 제조시에 포장지 제거한 손으로 초밥작업, 입가림 미착용, 핸드폰통화 하는 사례	초밥 작업 시에 포장지 제거 한 손으로 바로 초밥 작업, 입가림 미착용. 휴대전화 통화, 작업자의 위생교육 여부
	수산물냉동식품의 첨가물	안전성 검사
	어묵 제조시 청결여부	제조과정의 청결
	어묵에서 뭔가 씹히는 듯한 딱딱한 물질	가공업소에서의 원재료에 대한 정확한 재료 점검
	어묵 제조시 기간이 오래된 생선원료를 사용한 것 아닌가 걱정	유통과정 관리
수산물 건조 식품, 건포류 (취포육 포 오징 어, 황태 등) 건 어물	건조물 판매시 제품이 심하게 건조되거나 냄새가 좋지 않거나 위생상태가 많이 확인됨 (먼지, 벌레, 곤충들에 무방비 노출)	재래시장이나 중소마트에서 건조수산물 소분진열 판매 시 제품 개봉일 점검, 표시의무화
	행상. 노점상등이 판매하는 건조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확인도 안되고 제조과정도 알수 없음	노점과 행상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확인과 건조처리과정에서 위생처리시설여부 확인 필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수용 반건조 생선의 건조 환경이 온도가 높거나 비위생적인 경우가 있음	반 건조 생선판매 업체에 대해 등록 등 절차기준 관리
	건어물에 먼지 및 날파리알 범벅	보관 방법 점검
	오징어 건새우 황태 등 건어물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음	제조시설이나 과정의 문제가 없는지 세심한 지도 및 감독이 필요
	황태의 건조과정에서 약품 처리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함	위해성여부, 약품검출여부 확인 필요
	조미가공 취포가 소규모 업체에서 제조되는 관계로 비닐끈 이물질 발견	작업공정이 위생적으로 관리
	육포에서 보이는 색상 의심	색소를 첨가하는지 여부 검사
	진미오징어채(하얗게 표백한 오징어채)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것인데

항목	사례 및 문제점	필요한 단속내용 및 개선방안 의견
	조미한 건어물의 첨가물에 대해 유해 성분과 유통 시에 비위생적 보관	첨가물 및 유통과정의 비위생적 보관 및 판매행위에 대한 관리
	조미오징어나 꾸이꾸이 등 식품의 가공과정 등이 몸에 해롭다고 마스크에 낚으나 짹짹해서 많이 구매하고 있는 추세임	해로우면 판매금지 또는 위생상태 적합한 상태인지 검열
해조류(구운김 등)	마른김의 건조과정에서 약품처리를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사실여부 확인 요청, 김밥김에서 화장품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경험 있음.	위해성여부, 약품검출여부 확인 필요
	유통기한이 남아있는데 구운김 봉투 개봉 시 기름이 한곳으로 몰려있음	오래된 기름 및 질 낮은 기름 사용 여부 점검
	도시락 구운김에서 기름 산패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가공공장에서 사용하는 기름 사전 검열
절임식품(젓갈류, 단무지 등)	젓갈류의 첨가물	김장철 단속강화
	유명산지의 젓갈을 구입해 왔을 때 내용물에 상당수의 노끈과 비닐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음	유명산지라고 하더라도 현지 식품이 아닌 수입식품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으로 하다 보니 위생상태가 굉장히 불량할 것으로 보여 원산지와 제조과정 단속 필요
	젓갈이 어떻게 제조 되는지 궁금	어떻게 제조가 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지에 대한 불안함
	젓갈은 오랫동안 숙성시키는 음식이고 강한 향신료 때문에 안전한 식품인지 의심	유통과정 상시 확인
	명란젓(명란알)이 유난히 붉으며 인공적인 색상의 제품. 익히고 나니 물감을 칠한 듯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공적인분홍색으로 변함	인공적인 색소를 알 및 젓갈류에 사용 여부
	단무지 색소의 유해성 불안	인체에 무해한 색소 사용여부, 첨가물 허용에 대한 문제
	단무지에서 가끔 무른 느낌이 난다	색소나 유통기한과 청결 단속
축산물, 육류, 가금류(닭고기 등)	한우라고 판매 중 인데 가격이 돼지고기 앞다리 보다 저렴함	판매업소 단속강화
	냉장이나 냉동상태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경동시장이나 재래시장 수시 단속 필요
	원산지 표시	계속적인 대대적 인지도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등에서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 곳이 많음
	포장고기의 포장 아래 부분에 색이 변한 고기가 종종 들어 있음	판매 및 유통관리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임	원산지표시 관리
	조류독감문제	이력표시제 강화
	폐가금류의 혼입 여부 판정불가	살아있는 가금류의 도축을 입증할 표기 강제
	닭고기 요리 후 비란내가 나고 냄새가 심함	닭고기의 유통과정과 신선도와 유통기한 단속
	시장에서 파는 닭고기 별크제품 유통기한 및 유통과정을 알 수 없음	의무 표시제도 도입
	전통시장, 5일장 등에서 닭고기를 냉장보관이	보관, 판매 및 유통관리

항목	사례 및 문제점	필요한 단속내용 및 개선방안 의견
	아니라 실온에서 쌓아두고 판매하는 행위	
	계란에 대한 불식이 완전 자라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닭을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가격은 예전보다 비싸다	단속 요망
	닭고기를 재래시장에서 미포장육으로 판매 되어 오염 의심, 원산지표시 미기재, 유통기한 미기재	지속적인 홍보, 위해요소 차단
	냉동닭에서 잡내가 너무 심함	보관 및 유통과정에서 병든 닭이 아닌지 확인
	경동시장, 중앙시장, 광장시장, 모란시장 등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벌크형 축산물의 판매관리 - 노점형태로 판매되는 닭, 토끼 등 기타 축종을 냉장시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대장균 콜레라균 등이 번식 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유통관리시설을 갖추도록 적극 단속요망
축산물, 육류, 가금류(닭고기등) 등	농수축산물 인증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필요 - 인증은 마케팅 수단으로 받고 실제 관리는 따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음	인증 사후 관리 필요, 불시에 검사하여 위반자 퇴출시키는 아웃제 시행 필요
	개고기용 개 사육이 매우 불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축이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 개고기 항생제 문제	항생제검출
	전통시장 등에서 무표시 축산물판매 또는 상온상태 내장판매. 전통시장 일부매장에서 아무 표시 없는 닭 계란뿐만 아니라 식용개도 판매함. 특히 보관온도가 중요한 내장의 경우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함	무표시 축산물의 판매 출처, 내장 제품 보관온도 적정성
	무항생제 축산물 - 사실은 항생제를 3배 이상 사용	항생제 사용 기준 재설정
	재래시장에서의 냉동 축산물 보관 및 판매 기준 불안	재래시장에서의 판매 보관 기준 관리
	육류의 유통기한 표시 없는 것이 있음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기바람
	육류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음	운송 중 냉동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관리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육고기 - 포장 판매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색깔이 변한 것은 변질이 아닌지 의심됨	마지막 판매단계에서 철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동네 슈퍼에서 파는 돼지고기 포장육 냄새가 남	유통기한 단속
	돼지고기 - 요리 후 신선한 고기와 냄새가 다르게 역하게 남	도축과정과 유통과정의 신선도 단속
	돼지고기 - 몸을 찢으기 위해 여성호르몬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고기의 항생제, 호르몬 등 성분 검사
	명절에 받은 한우 불고기가 같은 것처럼 너저분하고 기름투성이	명절 때마다 한우 부위마다 조각을 모아 놓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음. 정부 단속 요망
육류가공식품 등(떡갈비, 훈제오)	떡갈비 - 고기를 갈아버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첨가되는지 재료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의심	제품의 원재료명, 원산지 단속

항목	사례 및 문제점	필요한 단속내용 및 개선방안 의견
리, 양념육, 햄, 소시지 등	훈제오리 - 허브와 마늘등 숙성해서 맛을 내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하는지 불안함	첨가물 사용여부 점검
	훈제오리 - 훈제구이를 먹을 때 조리 과정이 궁금함.	오리 훈제 가공 시 첨가되는 첨가물 여부
	돈가스용 돈육 - 튀김가루 묻혀와 돈육의 상태 알 수 없고 튀겨주는 기름 언제 갈았는지 궁금함	판매처 위생관리 점검
	정육점에서 가공해 놓은 식육제품에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시 없는 경우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필히 명시하도록 단속이나 계도
	육류의 가공절차 안전관리 우려	먹기에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부터의 유통과정 확인
	양념의 재료나 제조과정들에 재료들에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양념에 무엇이 첨가되는 내용물을 알고싶다.	원산지표시 및 제조과정 점검
	시장에서 냉동정육(양념육)등 상온에 놓고 판매하여 변질될 우려	판매처 보관 관리 점검
	양념고기의 색상이 너무 검고 주걱으로 자주 휘젓는 모습이 불결하게 느껴짐	대장균 등 세균 검출 여부,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
	양념 돼지고기 및 소고기의 재료(원산지, 유통기한 등) 불안	사용되는 주재료 및 부재료의 신선도 및 정확한 정보제공
	이마트에서 양념 되어 파는 쭈꾸미 삼겹살 볶음을 사먹은 후 심한 두드러기 일어남	식품유통 과정에서의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
	오래된 고기를 사용하여 양념으로 눈속임해서 파는 것이 아닌가 걱정	유통과정을 철저히 단속
	소시지에 약간 곱팡이가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음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사용 여부
	햄 및 소시지에 이물질이 혼합가공	식품위생감시 활동 강화
	가공식품(햄, 소시지, 맛살 등) 위생불량	지자체 식품위생감시 활동 강화
	햄에 사용되는 고기의 상태	정상적인 고기들을 사용해서 제조하는지 여부
	햄 구매 시 맛이 이상한데 보이기에 멀쩡해 보이고 성분도 분쇄육 등 믿을 수 없는 상분인 경우가 많음	같이서 넣는 성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
	아이들이 먹는 소시지 유해성분을 단속	유해성분 함량과 유해성분 조사
	소시지를 만들 때 섞어서 만드는 재료들의 신선도가 걱정	유통과정을 철저히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양념육의 중량 등 표시 성분표시	중량 및 내용량 등 정확하게 표시
	순대, 만두 등 블로그나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성	안전한 재료 사용, 위생적 조리 교육 및 홍보
	순대 재료인 돼지피의 청결상태	돼지피(소피)의 유통과정 청결, 신선유지 여부

항목	사례 및 문제점	필요한 단속내용 및 개선방안 의견
	막창, 곱창, 족발 등 부산물을 원재료로 한 간편식 제품이 많이 출시됨에 따라 안전 실태 점검 필요	원재료인 부산물의 관리, 변질 되거나 세척 등의 위생 관리 여부
치킨류	닭 튀기는 기름 사용기준	기름 재사용 방법과 기준 확인
	순살치킨의 경우 간혹 맛이 이상하거나 냄새 남	순살 원료에 대한 철저한 감수 필요
	모든 치킨가게들이 닭이 국내산이라 하는데 강정의 경우 수입산이 아닐까 의심	치킨가게 닭의 DNA검사 통한 원산지 표시 부분 확인 필요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치킨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소비자들은 매일 즉석조리한 치킨을 판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조사 필요
	배달치킨의 경우 고기가 오래되고 딱딱하고 기름에 찌든 느낌	영업소의 기름상태, 유통상태, 위생점검 등
채소류	수입농산물(브라질너트 등) 홈쇼핑과 연계되어 과도한 효능 광고	허위, 과대광고 감시
	농산물에서의 농약검출	정부시스템강화
	길거리 판매하는 야채(상추, 갓, 파 등)	단속
나물류	콩나물에서 간혹 방부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있는 것 같음	철저한 관리, 유통과정 감시 필요
	고사리가 중국산과 국산품은 질도 값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소비자는 구별하기 어려움	수입산, 국산품의 정확한 표시 및 감시
	길거리 판매 나물류(고사리 등)의 원산지 미표시 및 위생	원산지단속
곡류	인터넷으로 구매한 저렴한 쌀에서 냄새가 나거나 변색이 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도정날짜는 얼마 안 되어 있고 국내산 쌀로 되어 있어 원산지와 도정일 등의 품질이 의심됨	온라인 판매되는 쌀의 표시 사항 단속 필요
	곡류의 경우 노점상 원산지표시 의심	자치구 꾸준히 원산지 단속강화
	밀가루 - GMO 식품의 유해성	표기 의무화
과일류	과일(사과, 배 등)이 일정하지 않고 급이 낮은 것들이 밑 부분에 섞여있음	불특정 상품 중 검사가 요구됨(특히 명절 때)
	수입과일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잔류농약 관리
	수입과일 포도와 같이 껍질과 함께 먹는 과일도 있고 오래 보관이 어려운 과일도 있는데 구매를 하다보면 항상 싱싱하게 판매를 하여 수입되는 과정에서 과용량의 약처리 의심됨	수입과정에 따른 신선도 유지에 대한 단속이 필요
	수입되는 과일의 모양이나 색깔이 유난히 선명하고 신선함	농약 함유량 미 인체 유해도 검사
	배에 성장촉진제 사용했는지 너무 크고 푸석거림	성장촉진제를 과다 사용하여 푸석거리고 금방 썩음
	귤을 박스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썩은 것을 빼고 파는 것을 봄	정량이 달라지는데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 수 있음
	과일이 가격 대비 맛이 떨어짐	감독 기관이 당도 표시 등 감독 강화
	과일상자 밑에 있는 과일 뭉개짐	포장상자 크기조절

항목	사례 및 문제점	필요한 단속내용 및 개선방안 의견
	현지에서 먹어본 코코넛과 좀 다른 경우가 있음 자몽이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조금 말랐을 뿐 이상 없었음	농산물 수입품에 대해 농약이나 방부제 처리 등이 사람에게 해 끼칠 정도는 아닌지 정보제공
견과류	전내가 나거나 대용량 포장에 유통기간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음	유통단계 관리
	견과류의 곰팡이 및 독소가 보관상태나 유통과정 중 발생	아플라톡신 등 독소, 곰팡이 독소 관리 필요
	소포장(1회 섭취 가능한 소포장 견과류)으로 된 여러가지 견과류의 신선도 문제, 한두가지가 변질된 경우가 있음	견과류의 경우 먹기 전에는 부패 여부를 잘 알 수 없어 보관이나 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지하철 역사 농산물 판매매장 내 견과류 원산지 미표시	지하철 역사 농산물 매장에서 농산물 판매 시 원산지 표시정보 부족
	견과류 유통기한 내 제품에서 냄새가 남	견과 종류별로 유통기간이 달리 적용되어야 땅콩제품은 별도 관리가 필요
	관광차에서 파는 지역특산물이라는 견과류 - 소분된 포장지에는 원산지, 생산일 등 전혀 표시가 없음	표시법 위반에 대한 처벌
	땅콩에서 오래된 냄새	가공 및 유통과정 점검
조림식품	통조림에서 가끔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가 있음	유통기한의 정확한 표시, 원료 내용 공개
	캔참치에서 냄새남	포장용기에서 유해물질 검출 여부 정보필요
유가공식품	우유의 제조일자 및 유효일자	믿을 수 있는 날짜 및 유효기간
	대리점에서 냉장상태에 보관하지 않고 상온보관하고 집으로 배송	판매대리점에서의 보관방법 홍보, 유통관리
	저렴한 우유의 경우, 수제발효유를 제조해보면 미발효 되면서 윗물과 아래물이 분리됨	성분이 미함유된 제품인지 성분함량분석 여부 조사
	두유의 정확한 함량의심	제조과정에서의 단속
빵 및 떡류	개인 베이커리에는 식품 전성분이나 영양성분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식품 안전이 불안	원산지 등부터 시작해서 일부분부터라도 기재하는 방향으로 개선
	저가형 케이크 성분 궁금함	일반 제과에 비해 저가형 케이크를 많이 사는데 가격차이만큼 재료의질이나 다른 차이점을 알고 싶음
	제과점 케이크는 제조일이 적혀 있지 않아 정확히 언제 만들어 졌는지 모름	제과점에서의 제조일자 표시 관리
	떡에는 유통기한이 표시가 잘 안되어 있음	제조과정을 알 수 없고 보통 랩포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알 수 없음
	포장된 떡류 마트에서 판매되는 경우 유통기한 또는 변질의 우려	떡집에서 공급하고 마트에서 판매하는 떡류에 대해 유통기한과 진열상태 점검
김치류	김치의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지 표시 단속
	포장김치에서 이물질 나옴	김치 가공공장 불시 점검
두부류 및 묵 류	포장된 두부는 첨가물을 사용하여 보존기간을 늘리는것 같은데 첨가물이 인체에 안전한지 걱정됨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

항목	사례 및 문제점	필요한 단속내용 및 개선방안 의견
	즉석두부라고 하나 판매하는 두부집에 기계가 없음	원산지 및 위생상태 확인 필요
	두부의 주재료인 콩의 성분 정확한 표기	콩의 원산지 및 기타 발암물질
	찌개용과 부침용 두부에 넣는 각각의 첨가물 표시가 미비함	두부제조용 콩 원산지 와 영세한 제조업소의 청결문제
고추가루	건고추의 맛이 없다	불량고추 단속(농약, 탄저병, 고추 속 백색 곰팡이)
	고추가루가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속여서 판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지 못하게 단속
꿀 등	사양꿀을 천연꿀처럼 광고해서 판매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조치
	유자청이 밀봉포장 되지 않아 위생불량	문제 있는 제품 판매처나 제조업체에서 배상처리 받을 수 있도록 건의
약용작물류	식용 한약재의 성분검증 부실, 과도한 농약 사용	성분 검증 및 안전성 검사의 강화
식용유지류	참기름 냄새만 날 뿐 고소함이 없음, 참기름 짤 때 이외 기름 많이 섞어 판매 하는 것 같음	철저한 단속
	식용유에 들어가는 GMO식품의 유해성 우려	표기 의무화
	기름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	향 첨가시 위해한 첨가물의 사용여부 점검
	참깨 착유후 식용유 등 기타의 유지류와 혼합 시 구분 불가	보충성분 표시 라벨별도 표기
반찬류	전통시장에서 파는 반찬이 뚜껑이 덮힌 것도 있으나 덮개가 없는 채 판매되는 것이 더 많음	날벌레, 먼지 등 비위생적이므로 위생관리 필요
	전통시장 내 반찬 뚜껑을 덮지 않은 가게가 많아 미생물 등 오염이 염려됨. 그리고 원산지 표시 미흡	뚜껑을 덮도록 하여 줄 것과 원산지 표시 필요
	길거리 먼지, 차량분진 등	반찬 등 길거리 판매에 대한 계도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찬집이 대량 발생,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 등이 되어있지 않고 위생시설기준에 맞는지 알 수 없음. 음식점은 식품 위생감시원, 마트나 시장의 농축수산물들은 각각의 감시원이 점검을 하고 있지만 반찬집은 사각지대임	반찬전문집에 대해서도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여 위생상태 등을 점검할 필요
	재래시장 반찬코너, 원산지 미표시, 불량재료사용	청결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지도
	배민찬, 배달반찬 온라인 몰 현장 사진 및 원산지 표기만 되어있는 경우 있음	비싼 값임에도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현장 위생실태 단속 필요
음식점, 분식점 등	김밥 먹고 설사, 복통 발생	김밥 속 재료를 실온에 오래 방치(식중독 원인균 발생)
	김밥용 우유를 액체에 담긴 상태로 판매를 하는데 액체관련해서 위생상태	씻어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인데 그대로 사용해도 무관한지 정보제공
	길에서 분식집에서 파는 순대 속재료의 내용물 표시성분이 없어 불안하고 만드는 시설환경에 대해 불안	재료 표시 및 만드는 과정 유통 과정 단속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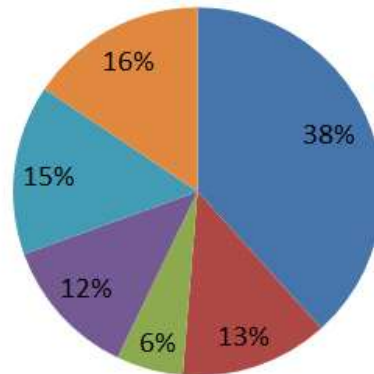
항목	사례 및 문제점	필요한 단속내용 및 개선방안 의견
	학교 앞 분식점등에서 판매하는 떡볶이 등	분식점에서 등에서 판매하는 아동 먹거리 떡볶이 등 유통기한 경과 등 사용여부
	학교 앞 분식점 판매하는 닭강정 - 튀김 후 소스를 바르기 때문에 품질 (신선도) 확인불가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가 없음
	분식집에서 판매하는 먹거리들의 위생이 양호한 것인지 의심됨	위생점검 등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음식점들의 위생상태가 불안	수시점검이 필요
	고등어구이 데워서 나와 언제 한 것인지 알 수 없음	조리과정과 유통기한을 알 수 없음
	이전 손님밥상에 나갔던 음식점 반찬 재활용 문제	음식 재활용 실태 단속으로 감기 등 질병예방 필요
	배달음식의 주방 위생상태	위생상태 점검
	중국음식 배달 - 한곳에서 7-8개의 번호로 전화를 받아 배달하는 실태	위생상태 점검
	추어탕 속 바닥 닦는 빗자루 솔이 나옴. 추어탕에 넣는 무청 씻으며 들어 간 것 같음	위생 관리 감독 철저히 요구
	배달음식에서 나쁜 냄새가 나거나 혹은 식감이 좋지 않은 경우 있음	배달음식점 유통기한경과 여부 및 주방 위생점검
	냉동식품 유통기간 남은식품 으로 음식 제조함. 식당 반찬 재활용 많음	음식점 냉장고 불시 조사 필요, 통보 없이 방문하여 냉동실 조사 필요, 반찬 적게 담기 홍보 필요
	저가에 만두전문점 직접 만들지 않으면서 만드는 것처럼 함. 어디서 만들어지며 내용물에 유통기한 경과는 없는지 우려	판매처 납품제품 점검, 판매 시 직접제조 아닌 경우 표시 사항 위반 점검
	중국집 서비스 제공 만두 속 내용물의 성분과 위생이 의심	제조공장의 위생점검과 식재료 검증
	뷔페 음식점의 경우 많은 요리를 취급하여 위생이 불안	불시 점검을 통한 행정지도와 개선, 아르바이트 종업원의 경우 위생교육
	뷔페에서 어패류 섭취 시 식중독 중세	뷔페음식점 어패류(소라, 홍합 등) 유통과정 조사
	할인마트, 백화점 시식코너에서 시식용으로 제공되는 공산품의 경우 유통기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구입 전 소량을 시식하게 되지만	시식코너에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제품을 개봉 후 포장지를 유통기간이 있는 면이 보이게 보관하는 방법 등을 연구
	공원주변 등산로 입구 등에서 파는 김밥이 위생여부	만드는 사람 날짜 시간 제조자 등 표시사항
	커피머신 위생상태에 따라 커피에서 냄새 나는 경우가 있음	커피머신 사용연한과 브랜드별 청결 상태 점검
	대형할인매장 내에서 조리하는 경우, 밀폐된 공간에 많은 소비자들이 유동인구로 먼지 등 식품오염 우려	테두리, 덮개 등 너무 개방적 조리시설에 대한 개선 검토
패스트푸드점	아이들이 먹는 햄버거 패티상태가 안 좋은 경우 있으며 먹고 배탈 나기도 함	고기패티 등 빵 속 패티류의 원재료 성분과 제조공정 안전관리 여부

항목	사례 및 문제점	필요한 단속내용 및 개선방안 의견
휴게소 등 휴 게음식점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구운감자 모양이 찌꺼기 나온 것을 잘라내고 구워 판매하는 것 같음	감자의 유통과정과 원료의 안전성 조사
	지하철역 매점 또는 버스정류소 매점에서 판매하는 소분판매 식품의 보관상태가 열악하고 (고온, 비위생) 임의소분판매라 표시사항 없음 (제조기한 유통기한)	해당제품 소분판매 적법성, 필수 표시사항 위반 점검
재래시장 내 먹거리	재래시장 내 먹거리의 식재료 관리 안 되고 있어 식중독 위험 있음	식재료 보관과 유통기한 단속
건강원	건강원에서 배급을 만들고 있는데 소비자가 맡긴 농산물 외에 다른 물건을 넣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음	위생관리, 혼용여부 등 점검
가공식품	가공식품에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많이 검출됨	유통과정 집중단속
	조리식품의 전신상태가 불량하고 비위생적으로 느껴짐	유통기한 준수 여부, 세균 등 오염 여부 등 점검
	슈퍼마켓 보관실 냉장제품 상온 보관	보관실 온도와 보관제품
	모든 가공식품의 원산지 및 함량표기 글씨가 너무 작음	글씨를 좀 더 크게 표기 할 것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농식품을 단순 가공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단순 가공 농식품의 안전성 검사
해외직구 식 의약품	해외직구를 통해 개인이 구입하는 식의약품에 대한 위해 정보 제공 부족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식품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해외 식의약 관련 위해정보 수집하여 신속한 정보 제공
기타(식품 외)	외식업 시장 확대에 의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	일회용 용기 사용시 위생과 안전성 등 의심
	기저귀 발암물질 여부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 필요
	생리대 발암물질 여부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개 필요
	유기농 제품을 검증할 길이 없음	유기농 농장 현장 에서 직접 조사 철저한 검사
	화장품의 냄새가 안 좋거나 변질됨	먹는 것보다 바르는 것이 더 안 좋다고 하니 성분검사필요
	치약 유통기한 크게 표시해야 함. 냄새가 나는 경우 있음	제품성분을 눈에 띄게 표시
	입안을 행구는 가글제품의 성분검사가 필요하다고 느낌. 매일매일 양치대신 가글제품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슴기처럼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알고 싶음	수입제품도 국내제품도 독한 것 같아 유해성분 정보제공
	기저귀를 아기가 착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부트러블이 생기는 경우 종종 발생 (특히 수입품)	국산 또는 수입품 집중단속 화공약품 냄새 및 피부에 반점이 생김

2. 다음 중 가장 불안을 느끼는 식품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

다음 중 가장 불안을 느끼는 식품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

■ ①가공식품 ■ ②건강기능식품 ■ ③농산물 ■ ④축산물 ■ ⑤수산물 ■ ⑥외식 조리식품



구분	건수	비율
1. 가공식품	59	38.3%
2. 건강기능식품	20	13.0%
3. 농산물	9	5.8%
4. 축산물	19	12.3%
5. 수산물	23	14.9%
6. 외식 조리식품	24	15.6%
합계	154	100%

3. 응답자특성

1) 성별

구분	건수	비율
1. 남자	41	27%
2. 여자	113	73%
합계	154	100%

2) 연령별

구분	건수	비율
1. 20대	11	7%
2. 30대	33	21%
4. 40대	36	23%
5. 50대	41	27%
6. 60대 이상	33	21%
합계	165	100%

국민소통단 식의약품 정보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 설문기간 : 2017년 11월 30일(목)~12월 12일(화)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민소통단 1,000명 대상 (응답자 571명)

<일반사항>

(1) 거주지역

	구분	응답인원	전체응답비율	지역 할당인원 대비 응답률
1	서울	126	22.1%	61.5%
2	인천	42	7.4%	67.7%
3	경기	161	28.2%	64.4%
4	대전	22	3.9%	66.7%
5	세종	3	0.5%	50.0%
6	강원	16	2.8%	51.6%
7	충북	15	2.6%	60.0%
8	충남	15	2.6%	36.6%
9	부산	35	6.1%	50.0%
10	대구	23	4.0%	41.8%
11	울산	7	1.2%	38.9%
12	경북	26	4.6%	47.3%
13	경남	23	4.0%	43.4%
14	광주	13	2.3%	52.0%
15	전북	19	3.3%	57.6%
16	전남	19	3.3%	54.3%
17	제주	6	1.1%	60.0%
합계		571	100.0%	

(2) 성별

구분	응답인원	전체응답비율	할당인원 대비 응답률
남자	212	37.1%	43.8%
여자	359	62.9%	68.8%
합계	571	100.0%	-

(3) 연령

구분	응답인원	전체응답비율	할당인원 대비 응답률
20대	61	10.7%	37.2%
30대	129	22.6%	66.8%
40대	120	21.0%	53.8%
50대	139	24.3%	62.1%
60대 이상	122	21.4%	60.4%
합계	571	100.0%	-

<설문내용>

- 문항 1. 귀하께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의약품 관련 언론보도 시 다음 항목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이다	다소 고려해야 한다	매우 고려해야 한다	합계	보통이다 이상 빈도	보통이다 이상 순위
과학적·객관적 사실	3	9	53	109	397	571	559	3
소비자의 정서	4	26	108	258	175	571	541	5
외국의 대처 동향 및 사례	2	24	133	265	147	571	545	4
정부의 장기적인 관리방안	1	10	55	185	320	571	560	1
소비자의 즉각적인 대응방법 및 주의사항	1	10	46	165	349	571	560	1

- 문항 2. 귀하께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보도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최근 살충제 검출 달걀 이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내용

문항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합계	보통이다 이상 빈도	보통이다 이상 순위
전수검사 및 추가보완조사 결과 총 52개 농장 부적합	13	134	192	194	38	571	424	5
부적합 농장의 달걀은 즉시 출하 중지, 전량 폐기 등 조치	18	126	183	196	48	571	427	4
부적합 달걀 451만개 압류 및 농가로 반품된 243만개 폐기	19	117	178	213	44	571	435	3
대형 식품제조업체 및 학교급식소 등으로 납품되지는 않아	36	176	171	139	49	571	359	6
살충제 5종 검출된 달걀 위해평가 결과, 건강에 위해우려는 없어	49	184	187	124	27	571	338	7
살충제 5종 음식 통해 섭취하더라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몸 밖으로 배출	60	197	186	101	27	571	314	8
피프로닐은 2.6개, 비펜트린 36.8개 매일 평생 먹어도 큰 문제없어	105	206	157	78	25	571	260	9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한 수집판매 의무화	12	79	194	212	74	571	480	2
난각 표시 단일화 및 생산연월일 표시	14	71	183	204	99	571	486	1

2) 최근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내용

문항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합계	보통이다 이상 빈도	보통이다 이상 순위
최근 안전성 논란이 있는 ○○○ 생리대를 정기적인 품질관리 점검 제품에 포함시켜 수거 검사 실시	24	140	191	186	30	571	407	5
(생리대·팬티라이너) 국내유통(제조·수입)과 해외직구제품,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모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	49	185	199	111	27	571	337	6
(기저귀) 생리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VOCs가 검출, 위해영향은 없어	56	189	194	111	21	571	326	7
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 올해 말까지 완료	21	128	208	175	39	571	422	2
생리대 부작용 사례 등 역학조사 추진	26	126	218	158	43	571	419	4
사용원료, 제조공정분석 통해 VOCs 발생원인 규명 및 저감화	24	125	223	158	41	571	422	2
품목별 VOCs 주기적 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결과 공개로 소비자 알권리 강화	19	112	202	185	53	571	440	1

■ 문항 3. 달걀, 생리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접했을 때 개선이나 불만사항이 있으셨다면 무엇입니까?

<신뢰 관련>

- 빈번한 오보와 잦은 내용변경, 성급한 결론, 충분한 확인이 없는 기사 발표,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 등으로 인해 신뢰가 많이 부족하다.
- 초기에는 정확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위험성만을 너무 부각시켰다가, 관계기관의 발표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뢰 또는 부정적인 논평이 이어진 점은 국민으로 하여금 불신감만 갖게 했다.
-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보도내용을 연구했으면 한다.
- 빠짐없이 조사되었는지 의문이 들고 향후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까 두렵다.
- 식약처 입장, 사례 전체 해결 방향에 어느 정도의 사전정리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신뢰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신뢰성 회복을 위한 노력필요)
- 허겁지겁 발표 후 학계나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잘못된 발표라는 반박이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음.

<정보·전달 관련>

- 어렵다.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줬으면 한다(쉬운 용어 사용과 전문용어 풀이 등을 넣어 누구나 읽고 내용을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 데이터가 부족하다.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미디어의 상황전달이 필요하다.
- 제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제품명, 회사명이 적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편중된 기사로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사실 보도, 제품명이나 발생 문제로 인한 영향, 대처 방법 등이 상세히 전달되길 바란다.

- 어디 제품인지 좀 더 확실하게 우선적으로 정보공개 했으면 좋겠다.
-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추측성 보도 자제해야한다.
- 객관적 지표가 없어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것
- 해외 사례 등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주어야 한다.
- 사건이 나기 전에 미리 미리 검사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대책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나왔으면 좋겠다.
- 문제발생시 전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슈화 된 제품은 여론몰이가 되고, 주목받는 제품만 죽이는데 객관적인 근거로 동등한 조건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나 과잉 보도도 문제인 듯합니다.
-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오보는 정정되어야 마땅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가 있다면 더 쉽게 이해할 것 이다.

<대응 및 사후관리 관련>

- 즉각적인 대처가 부족하다.
- 대책마련에 대해 미흡하다.
- 사후의 법적 혹은 행정적 조치는 철저히 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 보도를 할 때는 향후 구매자들에게는 어떤 조치(보상방안)가 이루어질지도 같이 보도하여 주면 좋을 듯합니다.
- 정부부처의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보고 싶었다.
- 대책의 수준이 낮음
-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문제발생시 정부에서는 부처 간의 업무소관에 대해 서로 미루며 느장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처 간 업무전담에 대한 논의보다 즉각 대응 후 분담 처리하는 것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기타>

- 인력, 장비를 더 늘릴 수 있었으면 한다.
- 반짝 이슈만 되고 지나가는 보도가 아닌, 이후 개선된 점에 대한 보도도 진행되었으면 한다.
-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안정을 더 염려하는 정부발표가 매우 불만이다.
-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요청
- 품질관리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 공정성
- 정부의 발표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정보들로 책임자 조사자, 제조처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 특히 식품관련사범, 여성용품 같이 필수 사용품에 대한 제조처, 관련 공무원의 책임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규제의 강화가 꼭 필요
- 요즘 화학약품,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미리 상한선을 정하거나 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이 발생한 후에 늘 부산을 떠는데, 평상시 늘 예방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부단히 점검하도록 하고, 처벌도 대폭 강화해서 건강과 직결된 것들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기를 바람(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소비자가 알고 싶은 것과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음

- 당장 책임만 회피하려는 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 소비자 이용이 많은 물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검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 왜 우리나라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을까?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외국처럼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하고 연구하여 시중에 내 놓으면 안되는 것일까 모두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소비자들의 신뢰에 대한 국가의 믿음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향후 기대된다. 담당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윗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
- 객관적이고 신속한 자료 제공으로 소비자의 명확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철저한 관리와 안정성·인체유해성·유독성·제조사의 화학물질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제품 생산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기업의 이윤 추구가 우선이 아닌 국민의 화학물질로부터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승인 시 철저한 성분분석과 향후 인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국민의 생명을 담보 삼지 않았음 하는 바람임.
- 테스트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줬으면 함.
- 유통기업 제조사의 책임 방기에 관한 언급이 선행돼야 한다.

<달걀 관련>

- 매일 먹는 먹거리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 달걀은 닭장의 살균처리 문제와 동반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면 믿을 수가 없다.
-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일부만 한 후 믿었던 계란 사먹다 벼락 맞은 기분이었다.
-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달걀 살충제 문제발생 인지단계에서 공급대책마련이 안되어 있던 점
- 달걀의 안전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로 나뉘어져 있어 관련 정보도 두 곳을 통해서 제공되어 개선이 필요함.
- 유해한 달걀 생산지역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계란 군대에 보급된 것 때문에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 달걀 검사결과가 자주 바뀌어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었음
- 난각표시 단일화 및 생산년월일 표시사항에 있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표시를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함.
- 슈퍼나 마트에 검사보고 확인서 비치요망
- 달걀 파동 때 달걀 가격만 2배로 치솟고 유통된 달걀마저도 부적합 판단을 받아 충격이었습니다.
- 양계장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이 적정한 약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지 의문이 듭.

<생리대 관련>

- 여성들이 안전하게 맘 놓고 생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 불만이다.
-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없어 일일이 찾아보고 반품하려고 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자체 폐기함.
- 수입 기저귀의 심한 화학물질 냄새와 관련되어 명확한 성분 조사가 필요하다.
- 지속적인 생리대 성분 점검 및 감독 필요
- 생리대의 경우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전달하는데 있어 실험 방식이나 물질 등에 대해 과학적 용어 사용이 많아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 정확한 성분기재 필요
- 정부의 발표는 너무 빠르고 성급한 결론으로 오히려 생리대 사용 여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 위생용품 관련하여 시끄러울 때도 매장에는 버젓이 진열되어 있으며 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음

- 슈퍼나 마트에 검사보고 확인서 비치요망
- 생리대 경우 여성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화학물질 통합관리 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성분조사 및 위해성을 좀 더 조사하여 안전하게 믿고 사용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 검사 결과 안전한 품목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국내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생리대를 전면 회수, 반품하는데 있어서 원가에 몇 십배에 달하는 소비자가격에 산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원가에 회수, 반품 조치를 한 부분은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이었습니다. 소비자가에 구매한 소비자가 원치 않게 제조사에 의한 반품에 정당하게 환불받지 못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 문제된 생리대의 반품도 절차가 까다롭고 진행과정이 느립니다.
- 생리대의 경우 여성이 생리 기간 동안 24시간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제품이다. 화학물질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성분이 표기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만이 소비자의 불신을 없앨 수 있다고 본다.

■ 문항 4. 식·의약품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와 효과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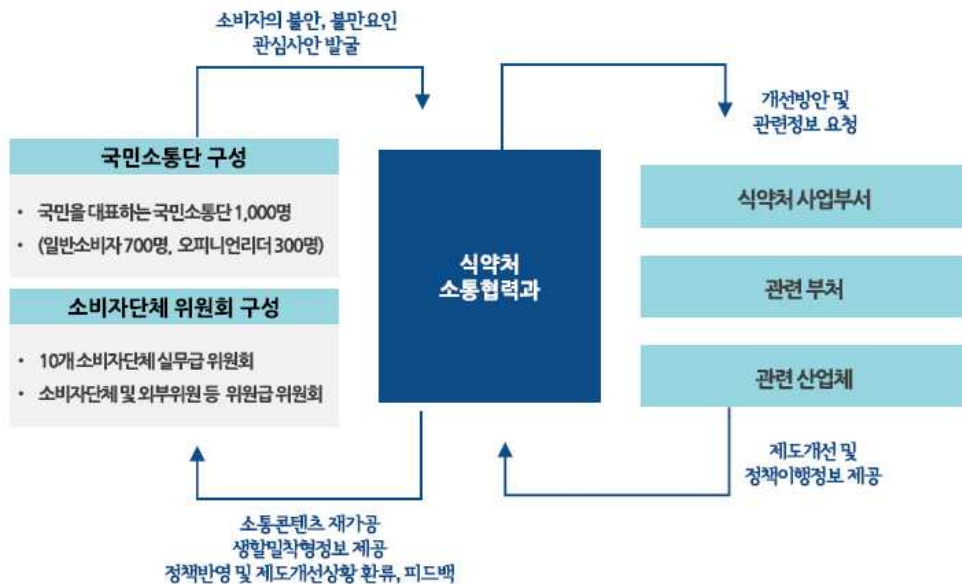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기업의 광고 및 보도 자제	7	1.2%	8
정부와 소비자 간의 신뢰	103	18.0%	2
이슈 발생 후,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247	43.3%	1
언론의 추측성 보도 자제	64	11.2%	4
소비자 스스로 올바르게 정보를 판단하려는 노력	19	3.3%	6
과학자들의 ‘객관적 안전’ 과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 안전’ 사이의 격차 해소	47	8.2%	5
이슈 발생 전, 정부가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한 정보제공	76	13.3%	3
기타*	8	1.4%	7
합계	571	100%	-

- * 대안책을 빠르게 마련한 후 상세한 설명 및 후속조치
- * 제품의 정보공개를 통한 문제된 제품의 구입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 *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언론의 추측성 보도자제 모두 필요
- * 정부의 대응(다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내용으로 발표)
- * 정부-소비자간 신뢰/정부의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언론의 추측성 보도자제/소비자의 판단/이슈 발생 전 소비자정보제공 모두 필요함.
- * 위해성, 안전성 등을 식약처 등에서도 실험 연구하여 발표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발표한 내용이 일방적이며 부실한 경우 반복하거나, 결과치로 볼 때 초기발표와는 다르게 인체에는 무조건 이상이 없다는 등의 발표가 된다면 식약처와 국가운영부서의 신뢰는 추락할 것임.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함. 다만 이슈가 발생 시 소비자인 국민들과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슈 발생 전 미리미리 공인된 기관에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최소한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먹을거리, 생활용품, 의약품, 화학제품 등’의 위해성 및 안전성 등의 시험을 미리 의뢰하여 그 결과들을 공개하여 알려주어야 대비하기가 체계화되고 쉬워질 것 이라고 생각함

5.3.5. 소통주제 정보 전달 - 의견수렴 및 피드백

<목적>





- 국민소통단을 통해 수렴된 소비자의 의견 중에 소통주제를 선정하여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자료로 공유
- 관리위원회 회의 등 소비자단체와 정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의견 수렴 및 피드백 소통체계 마련
- 필요시 안전정보 자료는 다양한 소통채널(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및 1372 소비텔 등)을 활용하여 공유·확산
- 확산·전파된 소비자 필요정보에 대해 국민소통단의 정보이용 만족도조사 실시



- 소비자 니즈보고서 (표지)

<p>국민행복, 희망을 나누어</p> <p>식약의 소비자니즈 보고서 - 2017년도 제1차 -</p> <p>2017. 3. 31.</p> <p>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과 소통협력과</p>	<p>식약의 소비자니즈 보고서 - 제 2 차 -</p> <p>2017. 6.</p> <p>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p>	<p>식약의 소비자니즈 보고서 - 제 3 차 -</p> <p>2017. 9.</p> <p>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p>	<p>식약의 소비자니즈 보고서 - 제 4 차 -</p> <p>2017. 12.</p> <p>식품의약품안전처 소통협력과</p>
--	---	---	--

○ 소비자 니즈보고서 내용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회의</p> <p>○ 카카오닙스의 허위·과대광고 여부 확인 및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 요청</p>	<p>식약처 피드백</p> 	<p><식약처 관리현황></p> <p>- 전반적인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중</p> <p>* 카카오닙스 제품을 타겟으로 별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실적은 없음</p> <p><식약처 조치 방안></p> <p>- 카카오닙스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실시('17. 3월)</p> <p>* 카카오닙스 100g에 카페인 100~700mg 포함</p> <p>* 카페인 권장섭취량(성인) : 400mg이내/일 (식품안전관리과, 식품기준과)</p>	<p>소비자 단체 피드백</p> 	<p>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회의</p> <p>○ 안아픈세상연구소의 허위·과대광고 등 안전관리 필요</p>	<p>식약처 피드백</p> 	<p><식약처 관리현황></p> <p>-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및 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에서는 민원제보(신고), 모니터링 업무를 통해 부정불량 식의약품 제조·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하고 있음</p> <p>* '16년 식·의약품 등 허위·과대광고 87건 수사 후 검찰 송치</p> <p><식약처 그간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p> <p>○ ㈜안아픈세상연구소의 자사홈페이지 과대광고 행위 확인</p> <p>- 통합치료프로그램을 통해 간암 말기 환자 등이 완치되었다는 내용</p> <p>- 통합치료프로그램의 천연추출물을 광고함에 있어 암크기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시험 결과 전·후 사진 게재 및 암 줄기 세포의 제거능력이 높다는 내용</p> <p>○ ㈜안아픈세상연구소 자사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고 있는 “통합치료프로그램”을 확인한 결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BRM270”</p>	<p>소비자 단체 피드백</p> 	<p>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p>등 12가지 제품과 유기농 야채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p> <p>- 별도의 불법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한 사실은 없고 단순 식품 등을 통해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p> <p>※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제1항제1호 위반</p> <p>○ '17.9.18자로 광주지방검찰청 수사지휘</p> <p>○ '17.9.20자로 지휘건의 “가” 수령</p> <p><향후 추진계획></p> <p>○ '17.9.25 자로 불구속기소(건강기능식품법 및 식품위생법위반)의견으로 송치</p>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회의</p> <p>○ 헤어매니큐어 제품에 대한 패치 테스트 용 샘플 개별포장 제한</p>	<p>식약처 피드백</p> <p>➡</p>	<p><식약처 관리현황></p> <p>- 제품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판매촉진을 위한 화장품은 '건본품' 또는 '비매품'임을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증정 가능</p> <p>*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p> <p>- 구매 전 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건본품을 공급하는 것은 업체 자율적으로 관리</p> <p><식약처 조치 방안></p> <p>- 소비자 및 업계 의견수렴 후 패치 테스트 용 샘플 제공 유도 (화장품정책과)</p> <p>* 알러지 등 부작용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샘플 필요</p>	<p>소비자 단체 피드백</p> <p>➡</p> <p>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회의</p> <p>○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피부연고(의약품) 부작용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요청</p>	<p>식약처 피드백</p> <p>➡</p>	<p><식약처 관리현황></p> <p>-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약사법」 68조의3 내지 제68조의11에 따라 한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을 수집*관리·분석·평가</p> <p>- 최근 5년간('11~ '16년까지) 의약품 연고제에 대하여 보고된 부작용은 4건(발진, 알러지, 가려움)</p> <p>* 의약품 부작용 보고(신고) 주체: 의약품 제조·수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개설자, 의약품도매상, 일반인 등</p>	<p>소비자 단체 피드백</p> <p>➡</p> <p>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p><식약처 조치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외품에 대한 부작용을 상시 수집·관리·분석·평가 실시('17.3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의약외품 부작용 정보 적극수집 후 정책 반영 검토*(의약외품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의약외품 제조수입자가 주로 수집·보고하는 의약외품 부작용 정보를 전문가단체(약사회, 의사회 등),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할 수 있는 사업 검토 <p>* ('17년) '18년 관련 사업 예산 확보 추진 ('18년) 예산 확보 시 관련 사업 실시</p>	
--	---	--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p> <p>○ 홈쇼핑에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판매되는 “모린가 나무 분말(인도산)”에 대한 과대광고 여부 및 제품관련 정보제공 요청</p>	<p>식약처 피드백</p> <p>➔</p>	<p><식약처 관리현황></p> <p>-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식품 등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여부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있음</p> <p>* “모린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16. 6~7월)</p> <p><식약처 조치 방안></p> <p>-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대상에 “모린가 나무 분말” 제품을 추가하여 모니터링 실시 (식품안전관리과, 수입유통안전과)</p>	<p>소비자 단체 피드백</p> <p>➔</p> <p>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	-----------------------------	---	---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위원급회의</p> <p>○ 기능성 화장품 확대(3종→10종) 관련 정보제공 및 소비자 오인 제품명 제한 필요</p>	<p>식약처 피드백</p> <p>➔</p>	<p><식약처 관리현황></p> <p>- 기능성 화장품이 기존 3종에서 7종이 추가되어 총 10종으로 확대됨</p> <p>* 화장품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개정('17.5.30 시행)</p> <p>- 화장품 관련 업체 및 소비자 대상 설명회 개최</p> <p>*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민원인 이해도모 및 관련 고시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 실시</p> <p>* 화장품정책설명회(4.20) 및 민원설명회(4.27, 5.25) 개최</p>	<p>소비자 단체 피드백</p> <p>➔</p> <p>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	-----------------------------	--	---



	<p><식약처 조치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에 '아토피' 사용 여부는 제도개선협의회 등을 통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 (화장품정책과) * 특정 단어(제품명)를 포함한 전체적인 광고 문구, 제품의 효능 및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장품법 위반여부(의약품 오인 등)를 판단하고 있으며, * 현재도 '아토피' 등과 같이 특정 질병의 진단·치료·감감·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표현은 금지하고 있고, * '아토피' 등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상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음 *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이트 차단 등 조치 	
--	---	--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p> <p>○ 편의점에서 건기식 판매 허용에 대한 소비자단체와 협의 요청</p>	<p>식약처 피드백</p> <p>➔</p>	<p><식약처 관리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계류 중 (윤상직 의원 발의, '16.12.30) - (내용)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한 자가 해당 점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면제(2년간 한시적 운영) -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의견) 15년 백수오 사례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과 교육의무가 면제되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우려 존재 -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 대한약사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한 한의사협회에서 개정안 반대 의견 <p><식약처 조치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개정 논의 시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등 소비자단체와 협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p>소비자단체 피드백</p> <p>➔</p> <p>10개 소비자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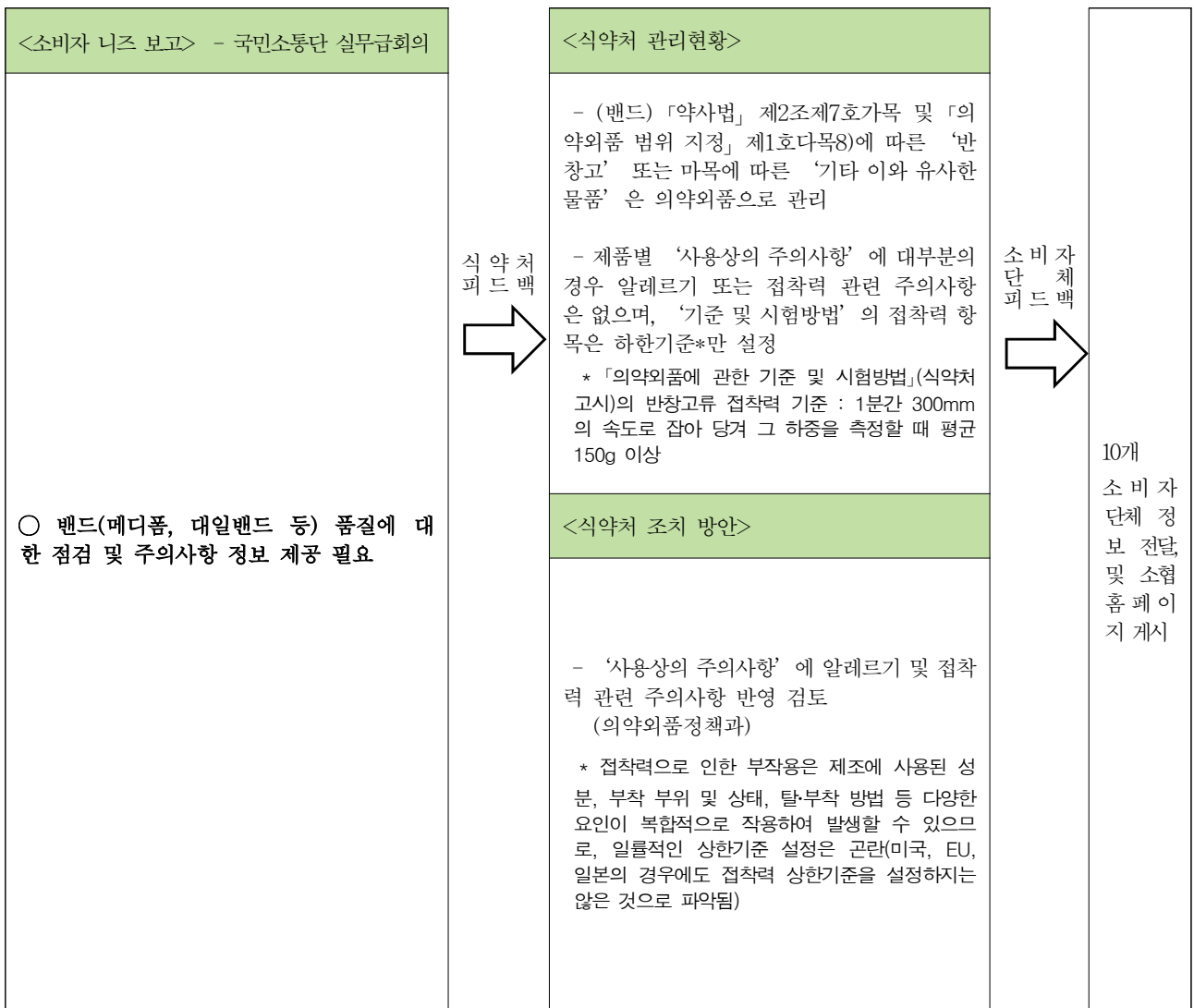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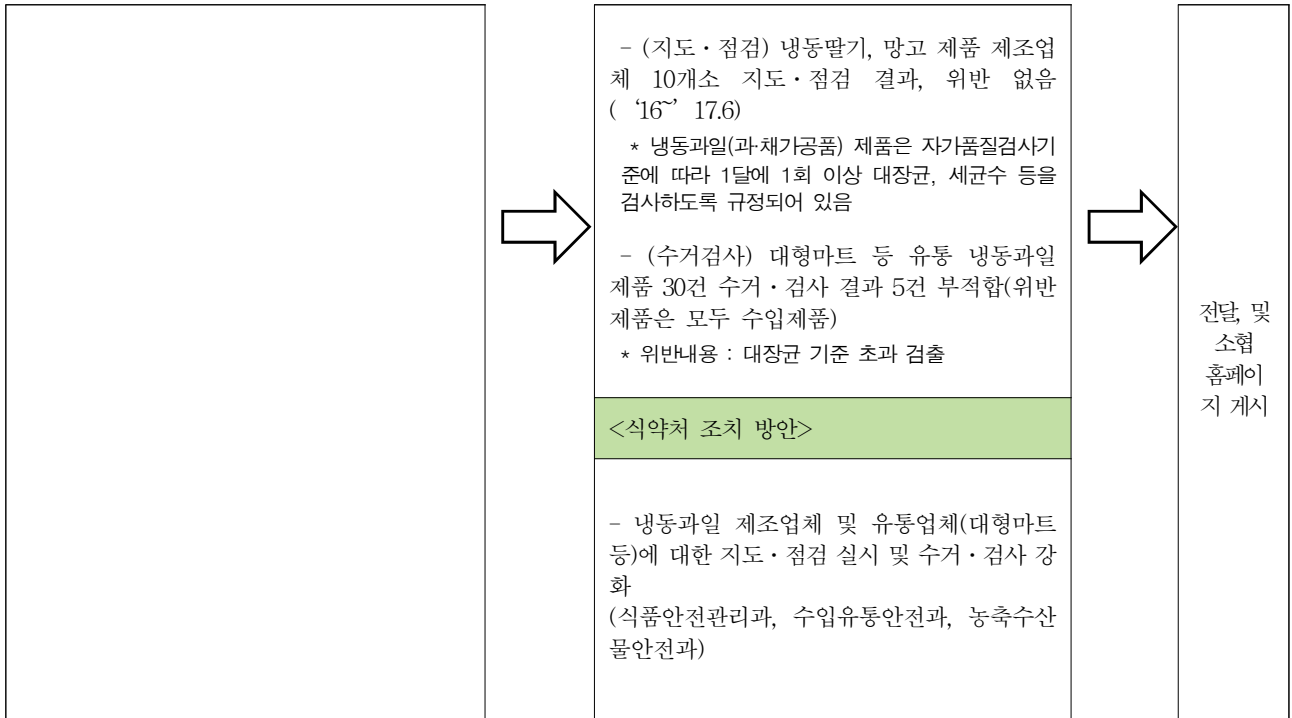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p> <p>○ 웃음가스로 알려진 아산화질소에 대한 안전성 여부 등 관리 필요</p>	<p>식약처 피드백</p> <p>➔</p>	<p><식약처 관리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화질소 수입·소분·판매업소 현장 실태 조사(5.26) * 해피풍선 제작에 사용되는 아산화질소(식품첨가물) 판매실태 점검 및 유통경로 조사 - 식품첨가물용 아산화질소 판매 실태조사(6.5~6.9, 지자체) *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등) 및 대학교(축제 등)에서 식품첨가물용 아산화질소를 흡입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현장 조사 	<p>소비자단체 피드백</p> <p>➔</p> <p>10개 소비자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	-------------------------	---	--

		<p><식약처 조치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화질소의 ‘환각물질’ 지정을 위한 입법예고(6월,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실시 및 차단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가 축제 행사장 및 유흥주점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식품첨가물용 아산화질소 수입·소분업체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 및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라는 주의문구 표시 -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는 의료기관 취급자 외 불법유통할 경우 고발조치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p> <p>○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 안전관리 필요</p>	<p>식약처 피드백</p> 	<p><식약처 관리현황></p> <p>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요청하고 판매자는 고발·수사의뢰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트 차단·삭제: (‘16) 18,949건, 고발·수사의뢰: (‘16) 143건 - 낙태약(미프진 등) 불법판매 사이트 및 판매자도 조치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태약 적발실적: (‘15) 117건 → (‘16) 56건 → (‘17.5월) 178건 - 속눈썹영양제는 모니터링 검색어에 반영하여 조치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어: 라티썸, 루미간, 속눈썹 감모증, 비마토프로스트(bimatoprost) 등 <p><식약처 조치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의약품(낙태약, 속눈썹영양제 불법 판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의약품관리과) 	<p>소비자 단체 피드백</p>  <p>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위원급회의</p> <p>○ 식의약품 해외직구에 대한 위해정보 제공 필요</p>	<p>식약처 피드백</p> 	<p><식약처 관리현황></p> <p>해외직구 주의사항, 해외직구 Q&A, 위해정보(사례중심) 등 해외 위해 식의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중(‘16.1월~)</p> <p>*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제공</p>	<p>소비자 단체 피드백</p> <p>10개 소비자 단체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식품의 올바른 선택 유도 *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수집한 해외 위해식품정보 4,981건 공유('17.6월 현재), 정보 조회 건수 20,811회('16년)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
	<p><식약처 조치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직구 관련 위해정보 상시 발굴 및 '해외직구 주의정보방' 지속 홍보 (위해정보 과) - 발굴된 위해정보를 "컨슈머 핫라인*"을 통해 해외직구·해외여행객 주의정보로 제공(소통협력과 협조) * 국민소통단 및 소비자단체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식의약 안전정보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위원급회의</p>	<p>식 약 처 피 드 백</p> 	<p><식약처 관리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적으로 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의 범위에 포함됨 *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제1호 가목 및 마목 - 허가현황) 현재 생리컵은 의약외품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어 소비자들이 해외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여 사용 - (대국민홍보) 생리대 등 의약외품 여성 생리용품에 대한 안전 사용 정보 제공 등 대국민 홍보(보도자료·리플릿 배포 등) * '식약처, 여성 생리용품 현황조사 및 안전 정보 제공'('17.5.25., 보도자료) 	<p>소 비 자 단 체 피 드 백</p> 	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
<p>○ 생리컵 관련 위생적인 사용방법, 사용 후 생리혈 처리 등 교육·홍보 필요</p>		<p><식약처 조치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소비자 및 청소년 대상 여성 생리용품에 대한 안전 사용 정보 교육·홍보 - 생리컵 허가 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허가 관리 (의약외품정책과, 화장품심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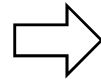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p> <p>○ 대형 할인매장에서 판매하는 냉동과일(망고, 딸기) 관리 필요</p>	<p>식 약 처 피 드 백</p> 	<p><식약처 관리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냉동과일(과채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p>소 비 자 단 체 피 드 백</p> 	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

○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식품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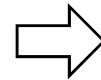
식약처
피드백



<식약처 관리현황>

- < 일반식품 >
- 지방식약청, 지자체와 합동단속, 수거·검사 등을 통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연중 관리하나, 임박제품을 별도 관리하지 않음
 - * 유통기한은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판매 가공식품의 과대·광고, 식용불가 원료 사용, 무등록·신고업체 생산·제조 식품 등 연중 모니터링 실시
 - 판매자 정보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조치하고, 판매자 정보가 확인불가한 경우 해당 포털사(네이버 등)에 판매사이트 차단 등 조치
 - * 2만5천개 URL 모니터링 실시, 90여개 판매자 고발 등 조치('17.6기준)
 -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판매업체와 정례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방안 협의 및 상호협력
 - * '16년부터 간담회 분기별 개최, 온라인판매업자 대상 교육 반기별 실시
- < 건강기능식품 >
- 통신판매 등 인터넷 온라인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임
 - 인터넷 온라인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및 사이트 차단·삭제 요청
 - *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 : ('14) 90건 → ('15) 255건 → ('16) 191건
 - * 접속 차단 요청 건수 : ('14) 11,820건 → ('15) 13,032건 → ('16) 14,563건
 - 포털사 등에 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 및 허위·과대 광고글이 게시되지 않도록 안내 협조 요청
 - 소비자 단체를 통한 노인, 주부 등 대상 건강기능식품 바로알기 교육 실시
 - * ('14년) 51회 5,018명 → ('15년) 80회 7,051명 → ('16년) 51회 4,848명

소비자
단체
피드백



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

<식약처 조치 방안>

- 지자체와 합동단속, 지도·점검 시 유통기한 임박제품 우선 수거·검사 등 관리 강화
- 온라인 판매업체, 홈쇼핑 업체 등과 간담회·교육 및 제품 모니터링 등 실시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식품안전관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수입유통안전과)



-대한화장품협회에 소비자 피해사례 발생 시 보고 및 유사제품 안전관리 주의 요망 협조 요청



<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

○ 습윤밴드(창상피복제) ‘듀오덤’ 주의사항 표시 필요

식약처
피드백

<식약처 관리현황>

- 보령제약 “듀오덤” (인증 2건*) 제품별 사용시 주의사항에 사용연령 문구는 없고 사용방법에 최장 ‘7일간’ 부착할 수 있음으로 허가

*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제(2등급, ‘13.7.31), 국소폼제창상피복제(2등급, ‘16.5.23)

- 듀오덤(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제) 제품의 표시.기재사항에 영유아 관련 주의사항 문구*를 기재(‘17.9.8, 붙임 1)

* 피부가 연약한 3세 이하의 영유아 사용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조치 방안>

- 동등 제품 포함하여 이상사례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의료기기관리과)

소비자
단체
피드백

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

<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

○ 비거품성 중조(베이킹소다) 함유 치약 판매 제한 필요

식약처
피드백

<식약처 관리현황>

(현황) 치약은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 안전성·유효성 등 심사·검토를 통해 허가·신고로 관리

- 사용할 때는 허가·신고된 사용법과 주의사항 준수

- 치약 관련 안전성 정보, 부작용 등은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며, 필요시 허가사항 변경, 제품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음

(검토의견) 부작용 보고현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탄산수소나트륨’ 함유 치약제에 대한 판매 제한 등의 조치는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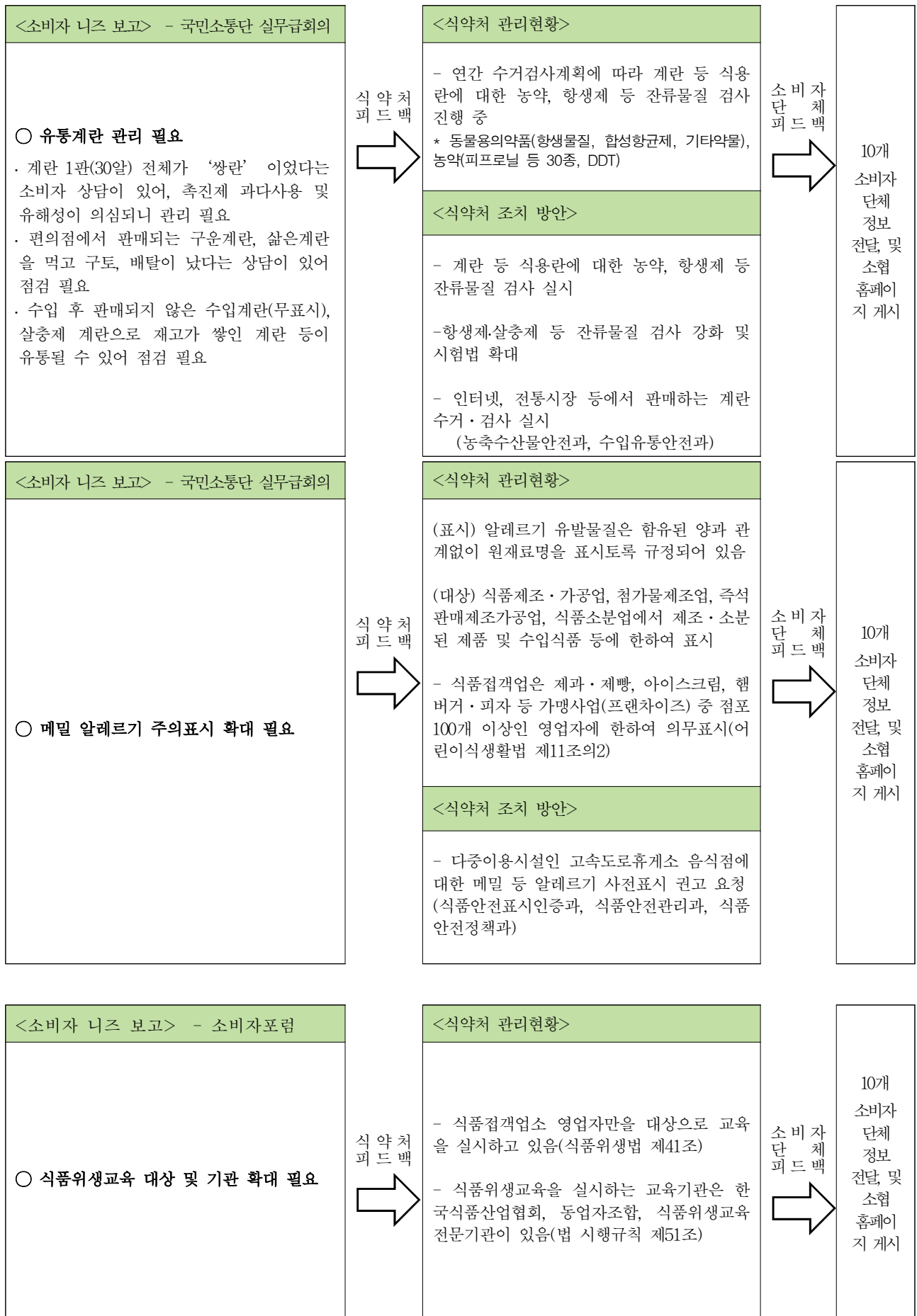
<식약처 조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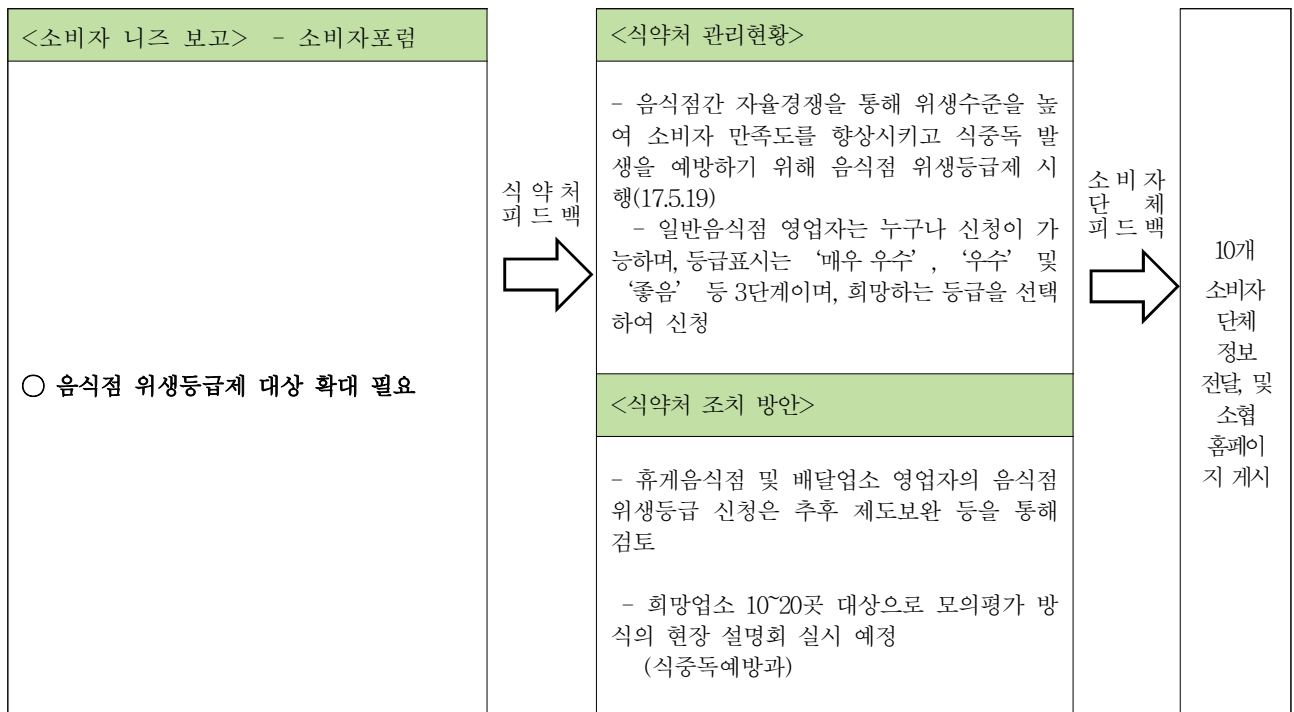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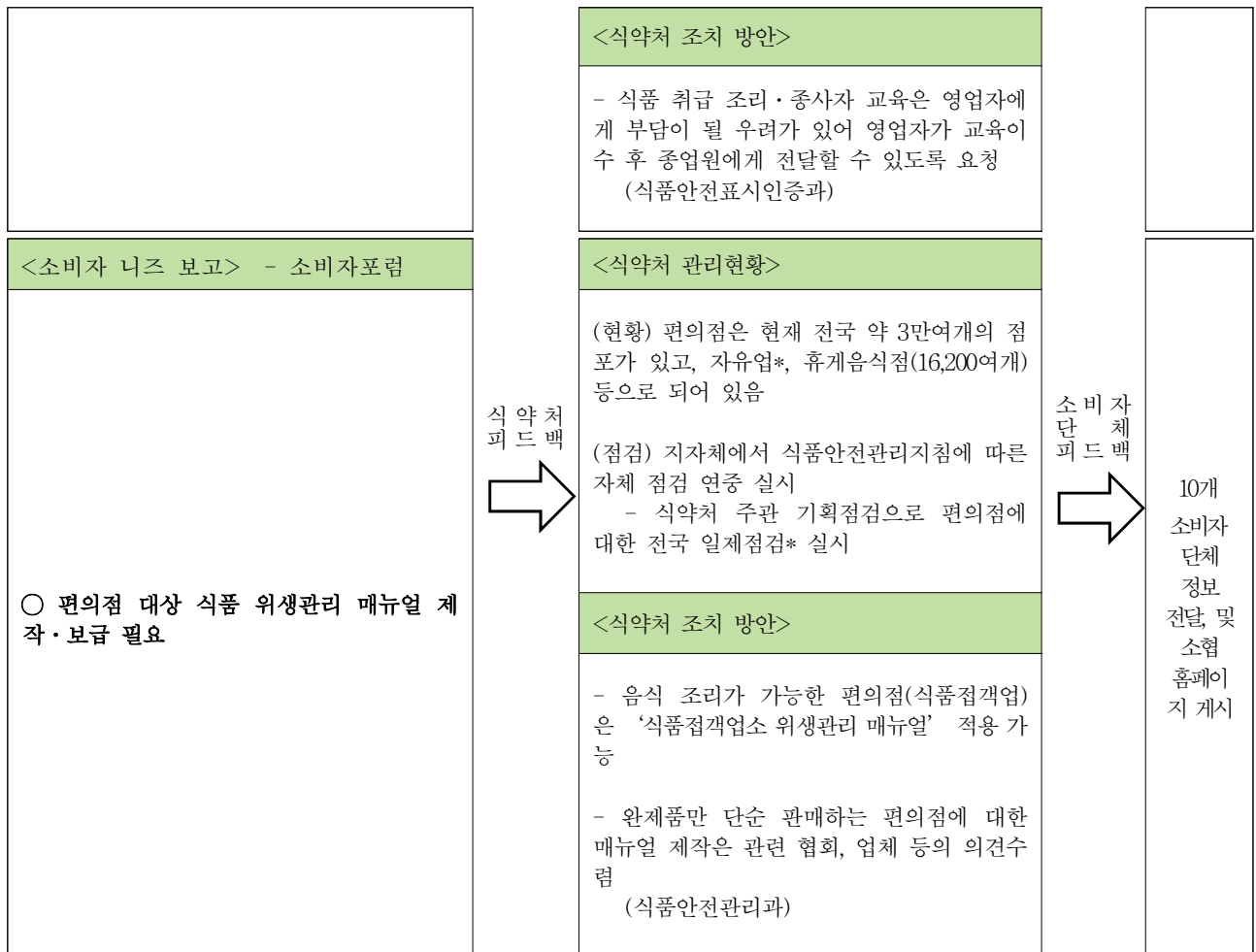
-부작용 보고현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탄산수소나트륨 함유 치약제에 대한 판매제한 등의 조치는 곤란







- 치약 관련 부작용 보고, 안전성 정보 등 지속 모니터링 실시 (의약품정책과)

소비자
단체
피드백







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위탁사업 중간 보고회</p> <p>○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버스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천마제품 등) 단속 필요</p>	<p>식약처 피드백</p> 	<p><식약처 관리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뺏다방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식약처, 경찰청 및 지자체 합동단속 지속 실시 - 뺏다방, 무료관광 및 의료기기무료체험관, 단풍 관광, 지역 특산물 시장 방문 등 무료 관광으로 환심을 산 후 특정업체를 방문하여 허위,과대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뺏다방 등 사전 정보 조사 실시(10.16~24(11일간), 의심업체에 대한 기획감시 실시예정) <p><식약처 조치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관광버스 승객 대상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관리 강화 - 한국도로공사에 협조 요청 및 뺏다방 전국 일제 단속 시 전국 휴게소 추가단속 실시 요청 (불량식품근절추진단) 	<p>소비자 단체 피드백</p> 	<p>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위탁사업 중간 보고회</p> <p>○ 반찬가게 프랜차이즈 업체 위생관리 필요</p>	<p>식약처 피드백</p> 	<p><식약처 관리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민찬 등 온라인 반찬 배달앱에 반찬 등을 납품하는 37개사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온라인 판매 제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4개소 점검 18개소 위반, 152개 사이트 차단 조치('15~'17.6) - 지자체 등 자체 점검 계획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내 반찬코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 대해 연중 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p><식약처 조치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간편식, 배달앱을 통한 조리식품, 온라인 쇼핑몰 판매식품 등 소비자 관심 식품 수거검사 강화 (식품안전관리과) 	<p>소비자 단체 피드백</p> 	<p>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p> <p>○ 시중에서 판매되는 달걀 관리 필요</p>	<p>식약처 피드백</p> 	<p><식약처 관리현황></p> <p>연간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계란 등 식용란 직접 수집.판매업체 및 원료 사용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 진행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계란 유통차단을 위한 알가공품 제조업체 일제점검('16.12.22~' 17.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93개소 점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2곳 적발 -식용란수집판매업체(2,558개소) 지자체 합동 전수점검(9.7~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58개소 점검 : 적합 2,494, 부적합 20 	<p>소비자 단체 피드백</p> 	<p>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p>(난각 생산자명 미표시 등 표시위반 8, 건강진단 미실시 5, 교육 미실시 3, 거래내역 미작성 2, 위생관리미흡 2), 휴폐업 등 점검불능 44</p> <p><식약처 조치 방안></p> <p>-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및 계란의 세척 후 유통 의무화를 통한 깨지거나 비위생적인 계란 유통 차단</p> <p>-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 및 축산물 제조업체 위생점검 실시 (농축수산물안전과)</p>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p> <p>○ 불빛이 나는 사탕(매직캔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p>	<p>식 약 처 피 드 백</p> <p>➡</p>	<p><식약처 관리현황></p> <p>(확인사항) LED막대(폴리카보네이트)는 판매업체 ‘엠에스엔터테인먼트’에서 총 1회, 101kg을 자사제조용 원료로 수입통관 (‘14.2.14)</p> <p>(관련규정) 수입 미신고 식품 기구 수입·사용 행위(식위법 제4조, 수입법 제20조)</p> <p><식약처 조치 방안></p> <p>매직캔디 제품 제조에 사용된 식품 기구(LED 막대)가 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된 제품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 점검 실시</p> <p>* 점검 결과 무신고 막대 사용이 확인되어 보관 중인 사탕과 막대 압류 및 행정처분 조치 (식품안전관리과)</p>	<p>소 비 자 단 체 피 드 백</p> <p>➡</p> <p>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p> <p>○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강화 및 소비자 정보제공 필요</p>	<p>식 약 처 피 드 백</p> <p>➡</p>	<p><식약처 관리현황></p> <p>- 우리 처에서는 식품을 질병 치료,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음</p> <p>- '17년 기준으로 인터넷 등에서 식품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여 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등 조치 함</p> <p><식약처 조치 방안></p> <p>- 온라인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이트 차단 등 조치 (식품안전관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수입유통안전과)</p>	<p>소 비 자 단 체 피 드 백</p> <p>➡</p> <p>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p> <p>○ 대장균 시리얼 사건 관련 동서식품 판결에 대한 입장</p>	<p>식약처 피드백</p> 	<p><식약처 관리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은 원료, 제조·가공·조리·판매까지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확인·평가하여 중점관리하는 과학적인 사전예방관리시스템임 - 따라서 우리 처에서는 업체의 식품별 원재료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HACCP시스템의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규모 및 업종별 평가항목 20~80개)하여 인증하고 있음 - 매년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시에도 확인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p><식약처 조치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에 사용하는 원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HACCP인증 및 사후평가를 통하여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식품안전표시인증과) 	<p>소비자 단체 피드백</p>  <p>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p> <p>○ 건강기능식품 피해사례 증가에 따른 허가 제도 강화 필요</p>	<p>식약처 피드백</p> 	<p><식약처 관리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심사제*의 경우 '16.5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기능성분이 해당 기능성원료와 동일하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시험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 참고로, '15. 4월 백수오 사건 이후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하여 기능성 자료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 인정 원료에 대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p><식약처 조치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심사제에 해당되는 원료가 신청될 경우, 소비자 피해사례가 없도록 안전성 등 자료 검토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 안전·안심 확보에 노력하겠음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영양기능연구팀) 	<p>소비자 단체 피드백</p>  <p>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p> <p>○ 여성청결제 제품에 대한 사용방법 관리 필요</p>	<p>식약처 피드백</p> 	<p><식약처 관리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음부세정제는 1차 또는 2차 포장에 사용시의 주의사항으로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 사용할 것' 등을 기재하여야 함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 해당제품의 고객센터나 제품의 포장에는 삽입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음 	<p>소비자 단체 피드백</p>  <p>10개 소비자 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p><식약처 조치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블로그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 적발시 사이트 차단 등 조치 (화장품정책과) - 해당업체에 공문을 보내 잘못된 사용방법이 온라인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요청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p> <p>○ 팬티라이너 이중관리(의약품/위생용품) 개선 필요</p>	<p>식약처 피드백</p> <p>➡</p>	<p><식약처 관리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 팬티라이너’는 비관리품목이나, '18년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 될 예정 - 의약품 생리대(팬티라이너)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팬티라이너는 생리 직전·끝날 무렵의 생리혈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대의 일종 - 소관법률은 상이하나 소비자는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 팬티라이너는 일상의 위생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정의에 부합 * 공산품 팬티라이너는 평상시 질 분비물 처리용 <p><식약처 조치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팬티라이너는 ‘위생용품’ 문구를 제품포장에 표시토록 관련 법령 제정중임 - 향후 ‘의약품’ 표시하는 생리대(팬티라이너)와 구분 예정 (의약품정책과, 위생용품·담배관리 TF) 	<p>소비자단체 피드백</p> <p>➡</p> <p>10개 소비자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p><소비자 니즈 보고> - 국민소통단 실무급회의</p> <p>○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의무화 대상 포함 필요</p>	<p>식약처 피드백</p> <p>➡</p>	<p><식약처 관리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식품(21종) 표시 의무화 <p><식약처 조치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서 검토 중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p>소비자단체 피드백</p> <p>➡</p> <p>10개 소비자단체 정보 전달, 및 소협 홈페이지 게시</p>

○ 생활밀착형 식의약 안전정보 전달

- 소비자단체 및 국민소통단, SNS 등 전달

- 주요 전달내용(약 63개 이상)

- 생리컵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유전자 가위기술(Genome Editing)" 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독감백신 미리 접종하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 트랜스지방 줄이는 꿀TIP!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
- 컨슈머 핫라인 - 해외위해정보(kokomo사 어린이용 목욕제품)
- 콘택트렌즈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 환절기, 어린이가 감기약 올바르게 먹이세요~
- 수입 무(無)알코올 맥주 섭취 주의
- 소비자나즈보고서(총 4회차)
- 가을 나들이철 식중독 예방 노하우
- 컨슈머 핫라인- 안전성 논란 생리대 검사결과
- 한가위음식,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 컨슈머 핫라인 - 해외위해정보(프랑스산 베이비벨 치즈 섭취시 주의)
- 컨슈머 핫라인 - 청소년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 컨슈머 핫라인 - 달걀껍질(난각)표시 개정 예고
- 유럽산 햄, 소시지 이슈 관련 자료(국내 유통 판매 중인 비가열 햄, 소시지 검사결과)
- 컨슈머 핫라인 - 생리대 관련 Q&A
- 건강한 여름휴가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안전꿀팁
- 무더운 여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법
- 식품첨가물, 안전관리
-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주의하세요
- 추억의 라면냄비, 알루미늄 식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식약처, 배달앱서비스 업무협약 - 소비자 위생정보 제공 예정
- 학교주변판매식품 안전관리 소개
- 식품첨가물 관리방법 소개
- 식중독잡고(GO)! 모바일게임 소개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소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 여름철 식중독 예방대책
- 불량식품근절을 위한 전담 기동단속반,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 불량식품뿌리뽑기VR 영상, 뗏다방 단속현장 웹툰 등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 도입
- 불량식품 뿌리뽑기! 가상현실(VR)에서 체험해 보세요
-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전국 합동점검 결과
- 미세먼지 철벽수비법
- 전자담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참고 - 전달 내용 예시

컨슈머 핫라인

2017. 9. 13(수) Vol. 1 (Issue. 51)

□ 사육환경도 알 수 있게 바뀌는 달걀 표시

- 달걀 껍질(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지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표시하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 (산란일자) 닭이 알을 낳은 날(산란시점으로부터 24시간안에 채집한 것 포함, 예시: 1004 = 10월4일)

○ (생산농장 고유번호) 농장별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시(축산법)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AB38E)

○ (사육환경 번호) 닭을 키울 때 환경이 (1)유기농, (2)방사사육, (3)축사내 평사, (4)케이지 사육 을 구분해 표시

※ 「생산농장 고유번호」와 일련 농장명, 소재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10월10일까지 팩스 (043) 719-2850, 메일 dhjeon@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4.20

전자담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울 때 입안으로 들어오는 연기에는 어떤 유해성분이 들어 있을까요? 식약처에서 관련된 담배 5개 제품과 전자담배 35개 제품의 유해성분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담배”의 니코틴과 타르 함량은 담배종에 표시된 수치에 비해 낮지만, 담배종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유해물질이 다수 확인되었고, 그중에는 포름알데하이드와 같은 1군 발암물질도 6종류가 있었습니다.

특히,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양과 번도를 강한 “해 흡입량”에 측정해 보면 유해물질 함유량이 2배에서 4배까지 많아져 **흡연 방식에 따라 더 많은 양의 유해성분에 노출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전반적인 유해성분 함량은 관련담배보다 낮지만, 니코틴 함량은 관련담배와 비슷해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자담배의 담배액이 연기로 변할 때 유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가 1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11배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총 45종의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평가하여 올해 말 공개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NFSI 식품안전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05. 19

어떤 라면이 더 짜까... 포장지를 확인하세요!

앞으로는 가공식품의 포장지만 보면 다른 제품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에서는 우선 라면, 국수, 냉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 5개 가공식품에 대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를 도입해 5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들 제품의 포장지에는 아래 표종과 비교해 나트륨 함량이 얼마인지 비율(%)로 표시하게 되며,

나트륨 비교 표종과

식품종류	표종과	국물제품	국물없는 제품
라면(우유면)	1,730mg	1,140mg	
국수	1,640mg	1,230mg	
냉면	1,520mg	1,160mg	
햄버거		1,220mg	
샌드위치		730mg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덜 짜 제품을 쉽게 고를 수 있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NFSI 식품안전정보

5.3.6. 식의약 정책 및 생활밀착형 정보 등 만족도 조사

▶ (설문 문항) 2017년에 제공된 식·의약 정책 및 생활정보에 대한 만족정도는?

✓예시: 아마씨, 과다섭취에 주의하세요.
 안전성논란, 생리대 관련 검사계획소식
 달걀껍질(난각)표시사항 개정 행정예고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사면 안 되는 세가지 이유
 항히스타민제, 운전할 때는 복용하지 마세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예방
 트랜스지방 줄이는 꿀팁 등

· 조사기간 : 2017년 11월 30일(목)~12월 12일(화)

· 조사대상 : 국민소통단 1,000명 중 571명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매우 만족한다	37	6.5%	3
만족한다	239	41.9%	5
보통이다	271	47.5%	1
만족하지 않는다	21	3.7%	4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3	0.5%	5
합계	571	100.0%	-

▶ (설문문항) 제공되는 식의약 정책 및 생활정보를 만족하지 않는 이유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응답자만)

- 과다 섭취가 얼마만큼이 과다섭취인지. 크게 신뢰하기 어렵다.
-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는 한 알기 힘들다.
- 생활정보 팁이 아닌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해야할 정보이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언론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과의 차별성이 없고 신속하게 제공되지도 않음
- 본질적인 대처가 아닌, 현장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처인 것 같아서 불만족스럽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실제 생산하는 곳에 부담만을 가중시키며, 그로 인해서 제공받는 물건들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설문 문항) 2017년 국민소통단 운영에 대한 만족정도는?

- 조사기간 : 2017년 11월 30일(목)~12월 12일(화)
- 조사대상 : 국민소통단 1,000명 중 571명

문항	응답인원	비율	순위
매우 만족한다	110	19.3%	3
만족한다	306	53.6%	1
보통이다	148	25.9%	2
만족하지 않는다	5	0.9%	4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	0.4%	5
합계	571	100.0%	-

▶ (설문문항) 국민소통단 운영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응답자만)

-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 국민소통단이 무엇을 했는지 정말로 기여를 했는지 잘 와 닿지 않는다.
- 현재 설문조사를 하지만 설문결과를 알려주지도 않고 이후 대처 및 조치에 대한 정보를 알수없음 등

▶ (설문문항) 국민소통단 운영에 개선해야 할 부분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정보제공 및 홍보 관련>

-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해주세요.
- 소비자가 잘못 알고 있는 식의약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 1일 워크숍 진행을 통한 좀 더 많은 정보제공과 전문지식습득 또는 심도 있는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TV홈쇼핑에서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도 개선 해 나가면 좋겠다.
-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도한다면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다.
-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의 지킴이로 활동 결과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 활용을 기대
- 다양한 정보제공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정보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 좀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소통 필요
-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저학년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사실 아이들이 우려하면 부모도 같이 주의하게 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식품코너에 와 같은 홍보물을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파는 곳에서도 사는 사람도 모두 숙지했으면 함. 도시락 햄 등 가공 식품에도 담배문구와 같이 주의 문구를 넣어야 함.
- 소통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참여자에게 짧게라도 안내해주기 바람.

<기타>

- 앞으로도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을 꾸준히 해주었으면 한다,
- 정부와 소비자 간에 신뢰가 많이 부족합니다.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전체적으로 만족하나 보내준 의견들이 실제로 전달 또는 반영이 되는지 피드백이 왔으면 좋겠다.
- 국민소통단을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자료들을 문자메세지, 메일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 그나마 이렇게라도 생각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좋다.
- 전문적이라 어렵다.
- 주제가 어려울 때가 있다.
- 정부입장이 아닌 소비자입장에서 개선되었으면 한다.
- 핵심 이슈를 더욱 부각했으면 합니다.
- 국민소통단 블로그를 개설하여 결과도 국민소통단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정부기관에서만 하는 안전성 검사만 믿기보다는 국민소통단을 통해 민간에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나온 결과로 비교 분석해보는 것도 좋을 듯
- 설문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설문은 그 분야의 설명에 대해서 좀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 국민소통단 운영 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직접 식약처를 견학 방문할 기회를 만들어서, 식약처가 어떠한 열정과 노력으로 대국민 안전과 건강한 삶의 파수꾼 역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관인지, 현장감 있는 견학, 소통의 기회와 소통단과 대화의 소통시간을 제공해 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소통단 운영의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꼭 문제되는 항목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항목에 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더 다양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 마련
- 소비자교육이 활성화 되어 소비자의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제품을 만들 때 전성분을 공개하게 하고 전성분 중 유해물질을 크게 표시하거나 색깔을 달리해 표시하거나 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소비자에게 익숙하고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식품에 대한 선입견을 바로 잡고 기술적인 부분 보다는 관심 있는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해봤으면 좋겠다.
- 생산업체 견학기회를 주기 바람
- 조금 더 많은 소비자 참여가 있었으면 함
- 국민소통단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어떤 행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식품, 의약 그 외 종합병원의 감염 형태, 병원 위생의 불감증, 의사의 안이한 대처, 병원에 병을 고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균에 감염되어 더 큰 병을 얻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주무부처가 다르다고 미루지 말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3.7. 소비자포럼 (총 4회)

- 식의약 안전이슈, 정책 개선방향 등 관심사항에 대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실무급 회의, 위원급 회의 등에서 상정된 소통주제 중 주요이슈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소비자포럼과 연계하여 개최

가. 화장품 표시·광고 등 안전관리 방안 모색

-기능성 화장품을 중심으로-

- 일시 : 2017년 4월 26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YWCA회관 4층 대강당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배경 및 목적 : '화장품(cosmetics)과 의약품(pharmaceutical)을 합성한 코스메슈티컬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화장품 산업시장은 크게 성장함. '16년 최신 소비트렌드 반영으로 기능성화장품 인정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변화도 있었음. 그만큼 화장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화장품 표시·광고 정책 및 관리방향, 표시·광고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참석자 : 소비자단체, 정부, 기업 등 (총 93명)
- 언론보도: 뷰티누리 등
- 프로그램 :

시간		소요 시간	내용
			진행: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50~14:00		10`	등록
14:00~14:05		5`	국민의례, 참석자소개 (김순복 실행위원장, 소협)
14:05~14:10		5`	개회사 (강정화 회장, 소협)
주제 발표 1~2	14:10~14:25	15`	화장품 표시광고 안전관리 정책 및 관리방향 ●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장
	14:25~14:40	15`	화장품 표시광고 현황 ●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
패널 토의 · 질의 응답	14:40~15:30	50`	좌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 (학계) 최상숙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화장품산업학과 교수
			● (소비자단체)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 (업계) 임두현 아모레퍼시픽 팀장
			● (대한피부과학회) 이주홍 삼성의료원 피부과 교수
			● (언론)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15:50~16:00		10분	폐회

- 내용 : 일상 생활용품인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한 완화에 도움 등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로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의 효과를 기대하고,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함.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광고실증제의 실효성 강화 필요, 화장품 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제도 미흡 등

나.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 본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개선방향

- 일시 : 2017년 6월 14일 (수) 10시
- 장소 : 서울YWCA회관 4층 대강당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배경 및 목적 : ‘소비자 니즈보고서’, ‘식품안전나라’, ‘국민소통단’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으나, 아직까지 식·의약품 안전정보가 소관부서별, 정보 종류별로 다양하며 분산되어 있어 소비자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부족한 실정임. 식·의약품 안전이슈의 경우 피해속도와 파급력이 크지만 빅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는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 인터넷과 언론을 통한 부정확한 정보들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힘들고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낌. 또한 주부, 어르신, 임산부 등 계층별로 필요로 하는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얻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통합·맞춤형 정보전달 시스템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참석자 : 소비자, 정부, 기업, 언론 등 (총 84명)
- 언론보도 : 식품저널, 우먼컨슈머, 메디컬투데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등
- 프로그램 :

시간		소요 시간	내용
			진행: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9:50~10:00		10`	등록
10:00~10:05		5`	국민의례, 참석자소개
10:05~10:10		5`	개회사 (강정화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제 발표 1~2	10:10~10:25	15`	식·의약품 정보 실태 및 문제점 ● 임은경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25~10:40	15`	소비자 맞춤·통합형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 이임식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패널 토의 · 질의 응답	10:40~11:30	50`	좌장 : 이항기 (소협 식품안전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 박기환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
			● 송태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연구위원)
			● 이주영 (녹색소비자연대 녹색건강연대 본부장)
			● 김영욱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11:30~11:40		10`	폐회

- 내용 : 소비자 지향적인 식·의약품 정보전달 미흡, 논란이 있는 정보는 법적 설명 외 가치논란의 이유 설명 필요, 식약처포털 안전정보, 의약품 배제되어 있어 향후 식·의약품 안전정보 전용사이트 구축 필요성 제기, 소비자 지향적 정보접근 필요해

다. 패스트푸드 및 편의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안전관리 개선방안 모색

- 일시 : 2017년 9월 8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서울YWCA회관 4층 대강당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배경 및 목적 : 최근 햄버거병, 일명 용혈성요독증후군(HUS) 관련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햄버거 공포증,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 버거류 및 치킨류 대형프랜차이즈에서 각종 이물혼입이나 청결상태불량 등 지속적으로 소비자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핫도그, 치킨, 어묵 등 편의점에서 즉석에서 조리해서 판매하는 식품의 경우에도 종사자를 중심으로 철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식품접객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식품안전에 위한 매뉴얼은 마련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가맹점의 경영 및 교육훈련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책임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소비자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참석자 : 소비자, 정부, 기업, 학계, 언론 등 (총 114명)
- 언론보도: 연합뉴스, YTN라디오, 식품저널, 환경법률신문 등
- 프로그램 :

시간		소요 시간	내용
			진행: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30~14:00		30'	등록
14:00~14:05		5'	국민의례, 참석자소개 - 임은경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4:05~14:15		10'	개회사 -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김천주 회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주제 발표 1~2	14:15~14:30	15'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안전 관리현황 ● 김형준 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14:30~14:45	15'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안전관리 개선방안 ● 김용휘 교수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지정 토론	14:45~15:35	50'	좌장 : 이향기 (소협 식품안전위원회 공동위원장)
			● 강재현 교수 (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 김제란 팀장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 이수현 정책실장 (소비자시민모임)
			● 황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혜)
			● 임영태 사무총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체 토론	15:35~15:50	15'	전체토론 및 질의응답
16:00		10'	폐회

- 내용 : 종사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의무화 및 교육시간 확대 필요, 점검자(Inspector)에 대한 교육 강화, 중소형 식품접객업소 대상 실효성 있는 교육 필요, 식품접객업소 점검 시 점검자의 비윤리적 행동 방지를 위한 시스템 필요, 긴급한 식품사고 발생 시 수거증 교부를 생략하는 등 개선방안 검토,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제외되어 있는 편의점에 대한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필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책임강화 및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지원 확대 등

라.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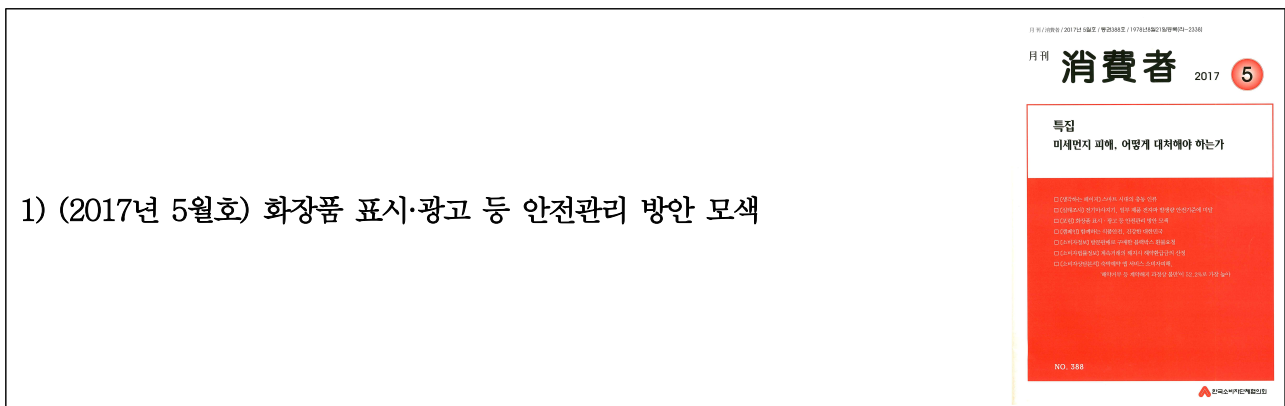
- 일시 : 2017년 11월 24일(금) 오후 3시
- 장소 : 서울YWCA회관 4층 대강당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배경 및 목적 : 세척제, 일회용 물컵, 이쑤시개,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물수건 등의 위생용품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소관 법령의 폐지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옴. 또한 최근 생활 속 화학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소비자의 불안이 지속되고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 이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18년 4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에 위생용품 관리 체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위생용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참석자 : 약 91명 이상 (소비자, 정부, 학계, 언론, 기업 등)
- 언론보도: 한국농어촌방송, 메디컬투데이, 환경법률신문 등
- 프로그램 :

시간		소요 시간	내용
			진행: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4:30~15:00		30'	등록
15:00~15:05		5'	국민의례, 참석자소개 (임은경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제 발표 1~2	15:05~15:20	15'	위생용품 관리법 체계 및 관리현황 ● 최현철 팀장(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위생용품·담배관리 T/F)
	15:20~15:35	15'	위생용품의 소비자 안전 확보 방향 ● 이주영 본부장 (녹색소비자연대 녹색건강연대)
지정 토론	15:35~16:25	50'	좌장 : 이항기 (소협 식품안전위원회 공동위원장)
			● 강재현 (의사, 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김용휘 (교수, 세종대학교 화학물질관리 전략연구소)
			● 이해영 (본부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 장민선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조규봉 (부장, 글로벌이코노믹 생활경제부)
전체 토론	16:25~16:45	20'	전체토론 및 질의응답
16:00		10'	폐회

- 내용 : 위생용품관리법 관리 대상 품목의 범위 확대 필요, 위생용품의 사용범위 및 형태에 따라 예상하지 않은 위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어 위해성평가가 추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가 바라는 통합안전관리체계운영 필요, 생산·제조자의 안전의식 수준 강화, 신제품·신유형 제품에 대한 대응도 고려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이 요구됨.

마. 홍보 - 월간 「소비자」 수록

-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및 소비자단체의 활동 등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함.
- 연 10회(1,2월과 7,8월호는 합본호임) 5,000부씩 발행, 하나의 주제에 대한 특집 섹션을 구성
- 10개의 회원단체와 전국 255개 지역단체, 도서관 164곳, 기업 63곳, 정부 52곳, 언론사 48곳, 협회 41곳, 지자체 40곳에 배포하고 있음.



1) (2017년 5월호) 화장품 표시·광고 등 안전관리 방안 모색

<포럼>

화장품 표시·광고 등 안전관리 방안 모색 - 기능성 화장품을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2017년 4월 26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YWCA 4층 대강당에서 ‘화장품 표시·광고 등 안전관리 방안 모색 - 기능성 화장품을 중심으로’ 소비자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좌장 황선욱 상임이사(소비자시민모임, 소협 식품안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권오상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이하 식약처)의 ‘기능성 화장품범위 확대 관련 정책 및 안전관리 추진방향’과 장준기 상무(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표시·광고 현황’ 주제 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최상숙 교수(충북대학교 화장품산업학과), 임두현 팀장(아모레퍼시픽 글로벌법규팀), 이

주홍 교수(삼성의료원 피부과), 김규철 기자(내일신문), 이향기 부회장(한국소비자연맹, 소협 식품안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포럼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편집자 주).



권오상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발제 1. 기능성 화장품범위 확대 관련 정책 및 안전관리 추진방향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의미한다.

화장품의 유형에는 영·유아용, 목욕용, 인체세정용, 눈화장용, 방향용, 두발염색용, 색조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방지용 등이 있다. 현재까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거나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이다. 일반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의 차이는 시중에 제조·수입 판매하기 위해서 사전에 식약처로부터 안전성 검사나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는 점이다.

최근에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2가지의 큰 변화가 있다.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재분류되는 것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신설되는 것이다.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탈색과 탈염을 포함한 모발 색상의 변화와 체모의 제거,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 여드름성 피부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경우이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신설되는 경우는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 완화에 도움, 톤 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없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이다. 현재 법률과 시행규칙은 완료가 되었고, 일부 고시 등 개정은 5월 초에 완료되며, 법 시행은 5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아토피, 아토피성 등 표현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하게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 화장품의 시장은 2000년대에 100억원대에서 현재 23배 증가한 2천3백억원대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며, 글로벌 아토피 제품 관련 시장도 2012년 이후로 약 39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토피 관련 보습제 시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 규제를 통해 금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소비자의 요구가 있어, 이에 따라 반영된 결과이다.

아토피 관련 금지 규제는 과거처럼 시장이 작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는 규제의 방식도 일부 변화되어야 한다.

아토피라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내법 체계에서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표현이나 암시적 표현으로만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 SNS(Social Network Services) 등을 통해 많은 정보검색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일반화장품에 비해 2~3배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금지만 한다고 해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은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사전 검증하는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토피·여드름성 완화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에서 화장품인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등 국내·외 제품의 규제 형평성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단순 금지보다는 일부 개선을 하면서 소비자의 욕구 충족 및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강화 외에도 표시·광고의 오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시·광고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품질정보 등 표시광고 강제를 위해서 2016년에는 샘플 등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표시광고 사전심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계 등의 자율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감시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시광고실증제도가 더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점검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정부는 업체에게 검증 정보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등 소비자에게 각종 검증된 정보를 더 확대하여 제공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사용원료 기준관리 강화 차원으로 효능·효과가 유사한 의약품의 주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하여 소비자의 오·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능성 심사에서도 기존 의약품 품목은 동등하게, 아토피성 피부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과 동등한 임상시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중 ‘아토피성 피부 기능성은 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 실시기관, 피부과전문의 등의 평가자료만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여드름과 아토피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드름성 피부’, ‘아토피성 피부’로만 표현하고, 효능·효과는 ‘~완화에 도움’ 표현만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시 주의사항에는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문구를 명시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금년도 하반기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의 기능성 표방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밖에 소비자 화장품 안전감시원제도 도입 및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유통 중인 화장품 중 문제가 되는 제품의 표시·광고 및 수거·검사를 위한 상시 핫라인 구축 등 소비자단체와 협업체계 구축 및 강화를 제안한다.

소비자도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님을 인지하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아토피성, 여드름성 등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을 발견한 경우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외직구 제품 등 소비자가 직접 구매시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장준기 상무(대한화장품협회)

발제 2. 화장품 표시·광고 현황

법적으로 표시와 광고는 구분되어 있어 제품에 기재하는 것은 표시, 제품 외 라디오·텔레비전·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것은 광고라고 한다.

화장품 표시와 광고 관련 법체계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시행규칙에서는 그 범위나 대상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한방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피부보습, 탄력, 피지, 여드름, 셀룰라이트, 다크서클, 혈행 개선, 붓기) 등 화장품과 관련해서 다른 국가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 광고 규제는 과거에는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과 효과의 범위를 초과하는 표시·광고 금지

(Positive List)를 했었다면, 최근에는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향(Negative List)으로 변화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실증제도가 도입되어 검증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법령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실이 아닌 것을 광고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 광고와 관련해서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판매업무 정지 6개월을 처분 받게 되며, 의약품으로 오인, 기능성·유기농제품으로 오인,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타 제품을 비방하는 경우에는 표시위반으로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또는 광고위반으로 해당품목 광고 업무정지 3개월 등 강력한 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화장품이 과대·허위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그러한 회사가 끝까지 남아 있지는 않다. 다만, 신생회사가 별다른 기준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장품 방송광고는 과거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라는 곳에서 방송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사전심의를 했었다. 그런데 2008년에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현재는 민간에서 수행하게 되었는데, 지상파 방송은 현재 한국방송협회에서 심의를 수행하고 있고, 케이블방송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1983년 10월에는 대한화장품협회 내 화장품광고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협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광고자율심의기구, 소비자단체, 변호사, 정부, 광고전문가, 업계 등이 함께 자율적인 광고자문을 월 2회 운영하고 있다. 화장품 광고자문 신청 건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연 평균 1,504건 정도이다. 광고사전심의 및 자율자문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자율자문을 받지 않은 화장품 위주로 집중점검을 하며, 자문 받은 광고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 관련 화장품 감시 면제를 한다.

광고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는지 홈페이지에 올려서 알려주고 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된 표현으로는 피부·진피층의 수분함유량을 유지, 15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논문과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한 화장품, 피부 염증에 대한 진정·살균, 여드름치료 보조제 등이 있다.

화장품 광고 모니터링도 운영하고 있는데, 상시 모니터링은 화장품 광고 전담 모니터링단 5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사이트, 오픈마켓 등이 대상이다. 모니터링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 및 광고 매체에 시정 요청을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청에 단속 요청을 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연계하여 운영 중인 기획 모니터링은 광고자문 내부위원 8인으로 구성하여 온라인 판매사이트, 오픈마켓 등의 특정 광고를 하는 화장품 대상으로 하고, 모니터링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광고 매체에 시정 요청과 함께 시정 결과는 해당 청에 보고한다.

화장품 표시·광고 고려 사항으로는 정부 주도 관리와 함께 국제 규제를 참조하여 국제수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의 오인방지, 기만 억제, 과도한 광고가 제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도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선택권을 확보하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발제 이후에는 화장품 표시·광고 등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최상숙 교수(충북대학교 화장품산업학과)

일상 생활용품인 화장품,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

건강한 사람이 매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화장품이다. 그런데 아무리 미백에 좋다고 해도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으로는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화장품에 기능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일반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고, 일반화장품은 효능·효과가 보통 세정, 피부 유연, 보습이며 기능성 화장품은 소비자가 기능을 추구하면서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을 넣은 것이다. 이는 의약품과는 다르다. 따라서 피부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의약 효과를 기대하면서 오인하지 않도록 판단하는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다.



임두현 팀장(아모레퍼시픽 글로벌법규팀)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 아닌 화장품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돼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의 기능을 국가가 평가해서 인증해주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독특한 케이스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용도의 화장품에 대해 국가가 기능을 표시하는 것은 기능 자체보다는 안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까다롭게 보겠다는 수준이다. 화장품업계에 있지만,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는 효능·효과를 국가가 평가를 다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풀리지 않는 숙제는 ‘미백화장품은 미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이 의약품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 국가가 평가를 한다고 하니 의약품이라는 생각도 들고, 정의 자체가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질병 이름을 말한다고 의약품으로 구분하는 곳은 없고, 주름, 아토피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의약품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없다. 아토피 때문에 생기는 건조함 때문에 보습을 강화하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모발이 풍성하고 강해 보인다는 등의 표현은 화장품에 가깝지 않나 싶다.



이주홍 교수(삼성의료원 피부과)

기능성 화장품의 확대,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우려스러워

화장품에서 안전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이다. 용법, 용량, 도포법 등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건강한 정상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기능성 화장품의 확대 범위는 질병명에 대해서도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화장품에 왜 질환의 영역까지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저자극·고보습 기능은 식약처가 심사하고 평가하겠다고 했으면 반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으나, 아토

피성 피부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감, 호전되는 것을 기대하고 구매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토피를 앓고 있고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출시되면 스테로이드 등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화장품은 안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안심하게 된다. 치료, 경감, 예방, 조치 등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화장품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에서 ‘완화시키고 도움을 준다’는 표현은 소비자가 오인하기 쉽다는 것이 문제다.

소비자가 현명해지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식·의약품·화장품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기능성 화장품 자체가 나오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한다.

최근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국)는 엄격한 법 개정을 하여 자외선차단제도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외선차단제의 가장 큰 목적이 실제로 피부암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질병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제품은 정의상 의약품이 되어야 맞다고 본다.

소비자는 본인에게 유익한 제품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무한대의 정보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전성분 표시제는 사실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어떤 기능과 효능을 보여주는지에 대해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위한 역할이 더 크다. SPF(Sun protection factor, 자외선 차단지수) 지수나 PA(Protection Grade of UVA, UV-A 차단지수)지수에 대해서 소비자는 잘 모른다. 전문가 집단의 추천을 받아서 가장 안전한 제품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단계는 사실 공개, 2단계는 사실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효능과 효과를 보여주고, 3단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전문가의 추천을 받으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규철 기자(내일신문)

소비자가 기능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식약처의 관리와 대안 필요해

기능성 인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에서는 지지하는 입장이다. 또한 광고심의와 관련해서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사전 심사와 검증된 규칙,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약품과 달리 기능성 화장품은 해외직구 쪽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미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인증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의약품으로의 오인 문제, 질병명에 대한 것이 주요 이슈이다.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을 개선,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며 튼 살 등 갈라짐 완화 등의 기능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추가하게 되면 병원에서 유사한 제품군에 대한 화장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과 충돌이 있을 것을 보이고, 이에 대해 의학계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대안이 필요하고, 한편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는 정말 기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한국소비자원에 2012년 12월에 발표한 조사 자료를 보면 병원의 기능성이 있는 화장품·연고의 실태조사 결과, 기능적으로 ‘보습’이 제일 많았고, ‘아토피 완화’ 등이 있었다. 개선 방안으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식약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향기 부회장(한국소비자연맹, 소협 식품안전위원회 공동위원장)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부와 업계 노력 필요해

항상 기능성 화장품은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고 구입하므로 소비자는 효능과 효과에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소비자는 홈쇼핑 등의 광고를 보고 구입하여 사용하지만, 효과는 미비한 경우가 많다. 업체에서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제품에는 하자가 없다고 한다. 이로 인해 고가로 구입한 기능성 화장품이 제 기능을 못했다고 판단하고, 정부는 무엇을 보고 기능성을 인정해주었는지 불만을 가지게 된다.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광고를 보니, 프랑스에서 검사한 방법과 우리나라에서 임상검사한 방법이 달라 의문점이 있었다. 이에 광고실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또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소비자가 얼마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98%가 ‘기능성화장품을 사용’ 하고 있었으며,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는데 그 중 50~60대가 ‘주름개선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 중 18%만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60%는 ‘그저 그렇다’, 나머지는 ‘효과가 없다’ 등이었다. 과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0%가 ‘과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52%는 ‘임상실험을 해서 효과를 인증 받았다는 광고를 보면 구입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20%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가장 큰 문제는 62%가 ‘부작용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방법을 모르거나, 교환, 환불을 하고 싶어도 귀찮아서 등의 이유로 전혀 피해구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식약처가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확실하고 꼼꼼하게 실천해주었으면 한다.

요즘 기능성 제품으로 인정받지도 않은 제품이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광고를 하여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업계도 자율적인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스스로 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도 도입하여 문제가 있는 기업은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광고 정책 및 관리방향, 화장품 표시·광고 현황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红心

- 482 -



임은경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발제 1. 식·의약품 정보 식태 및 문제점

현재 식·의약품 정보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범람하는 정보홍수 속에 꼭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찾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 사실상 접근 및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정보 유통의 특성으로는 SNS의 발달로 인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SNS 등에 대한 관리·대응, 정보의 활용성 제고 및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식·의약품 관련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2016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식품 상담 사례 11,915건 중 정보요청으로 분류된 3,690건(식품 상담 사례의 28.9%)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판매방법별로는 ‘직접 구입’ 76.1%, ‘전자상거래’ 11.1%, ‘방문판매’ 4.3%, ‘TV홈쇼핑’ 3.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6.3%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식품, 과자·빵, 과일·곡물·우유류 등으로 정보 요청 빈도가 높았다. 불만사례별로는 ‘이물질’ 25.5%, ‘이상증세’ 및 ‘변질’이 각각 16.5%, ‘품질 불량’ 11.4%, ‘검사 요청’ 10.7%, ‘유통기한’ 9.8%, ‘표시·광고, 규격’ 9.6% 순으로 나타났다(<표> 참고). 불만사례별로 소비자는 이물질·이상증세의 경우 신고기관, 피해보상기준 등, 표시광고는 허위광고 위반 벌칙, 품질불량의 경우 잔류 농약 확인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한편, 정보검색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음식 이물질, 식품검역, 홍삼 진위여부, 식품변질 신고, 미네랄 오일 안전성 등 여러 가지 단어를 검색해 보았는데, 그 결과 일부 검색에서 업체 광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질차 소개, 유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불만사례별 소비자 상담

불만사례		합계	
		표본 수	비율
이물질	벌레	282	7.2%
	다치지 않는음	255	6.5%
	다칠 수 있음	234	6.0%
	침전물	134	3.4%
	머리카락/털/뼈	91	2.3%
소계		996	25.5%
이상증세	설사/복통/구토	367	9.4%
	발열/두통	20	0.5%
	치아손상	62	1.6%
	두드러기/알레르기	62	1.6%
	식중독	21	0.5%
	기타이상증세	111	2.8%
소계		643	16.5%
유통기한	유통기한 경과	316	8.1%
	유통기한 미표시/이중표시	66	1.7%
소계		382	9.8%
변질	상함/부패	367	9.4%

불만사례		합계	
		표본 수	비율
	곰팡이	176	4.5%
	악취	99	2.5%
소계		642	16.5%
검사 요청	성분검사	288	7.4%
	원산지확인	57	1.5%
	진품확인	58	1.5%
	위생점검	16	0.4%
소계		419	10.7%
품질불량	품질불량	355	9.1%
	용기파손	21	0.5%
	포장불량	50	1.3%
	용기에의한손상	19	0.5%
소계		445	11.4%
표시광고	과대광고	132	3.4%
	가격미표시	12	0.3%
	성분표시	24	0.6%
규격	용량미달	205	5.3%
소계		373	9.6%
총합계		3,900	100.0%

이슈에 따라 정보 제공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담당 과와 정보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관리총괄과에서는 인터넷 판매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요령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고, 식생활안전과에서는 학교주변 판매식품 안전정보, 소통협력과는 종편방송 등에서의 식·의약 정보 중 과대·과장 등 잘못된 정보를 발굴하여 방송 제재 등으로 올바른 정보를 전파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2016년 국민소통단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 정보 제공 실태를 살펴본 결과로는 식약처의 정보전달 매체 중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TV 공익광고 등 방송매체’가 41.4%로 가장 많았고, ‘식약처 홈페이지’ 15.3%, ‘책자, 리플렛 등 인쇄자료’ 14.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SNS, 블로그’가 19.6%, 30대부터 60대 이상에서는 ‘책자, 리플렛 등 인쇄자료’가 15% 내외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반면,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보를 찾기 어렵거나 이용이 불편해서’가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의약 정책 및 생활밀착형 정보에 대한 만족 정도로는 불만족(‘만족하지 않는다’와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포함)한다는 응답이 5.8%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어려운 용어와 정보 접근성, 홍보 부족 등으로 답하였다.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제공받고 싶은 학교주변판매식품과 수입식품 관련 정보로는 ‘위해식품정보’가 33%로 가장 많았고, ‘식약처의 안전관리제도’ 20% 순이었다. 그리고 20~30대 국민소통단 여성에게 질의한 내용 중 학교주변 판매식품 정보 중 알고 싶은 것으로는 ‘제품, 음식점 안전정보’가 33%, ‘식약처의 단속활동내용’ 29%였으며, 제조·유통식품 정보 중 알고 싶은 것은 ‘위해식품정보’ 36%, ‘식약처의 단속활동내용’ 30%였고, 급식·외식 관련 정보 중 알고 싶은 것은 ‘식약처의 단속활동내용’ 38%, ‘식약처의 안전관리제도’ 26%, ‘식중독 발생정보’ 24% 순이었다.

그리고 2016년 식·의약 안전교실에서 식·의약·화장품 등 구매 또는 사용시 어려웠던 점과 더 알고 싶은 것을 질의한 결과, 어르신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등, 주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나 미네랄 오일에 대한 정보 등, 임산부는 어떤 영양제를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대학생은 화장품 개봉 전의 유통기한 등이라고 답하여 계층별 필요한 정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식·의약 관련 정보 실태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소비자가 이용하는 식약처 정보매체 중 연령대별로 특징을 감안하여 운용할 것을 제안하며, 소비자 스스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재조합식품), MSG(monosodium L-glutamate, L-글루탐산일나트륨) 등 찬반논란이 있는 경우는 법적 설명 외에 가치

논란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식·의약 정보 분류 및 검색을 소비자기향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한데, 동일한 유형의 정보는 다목적(다분류)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부작용(이상사례) 신고센터 상담 내용은 소비자관점에서 분석하여, 동일 성분군·회사 등이 신고된 경우 부작용 의심제품으로 분류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임식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발제 2. 소비자 맞춤·통합형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근거법령 제정 등

소비자 맞춤·통합형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식·의약 위해정보 수요자의 접근·활용성을 제고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있었던 강남분유, 가짜 백수오, 카스맥주 신화취, 치약과 물티슈의 유해성 논란, 불량 맛가루 등의 사건을 보면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빠르고 다양한 안전 정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식약처가 제공하는 안전관련 정보의 경우 접근·활용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국내 식·의약 위해정보의 수집·분석·공유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이 19개 부서가 개별 관리하고 있고, 제조·유통·판매 현장과 119,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수집·분석 활동과 공유 기능도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SNS 유통 정보 및 기존 정보 DB를 확보한 빅 데이터 분석 제공 기능 역시 아직은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식·의약 위해정보 관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식·의약 위해정보 전용 사이트와 쌍방향 소통 채널을 구축·운영하고, 산·학·관 협업을 통한 정보교류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그리고 식·의약 안전정보의 상시 홍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의 협업을 통한 잠재적인 이슈의 사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빅 데이터 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및 식·의약 위해정보관리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식·의약의 현장 정보 관리체계와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위해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식·의약 위해정보 관리를 통합하는 가칭 「식·의약 위해정보 관리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식·의약 위해정보 관리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가칭 “식·의약 빅 데이터 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의약·화장품, 바이오, 의료기기 등 각 분야별 개별법으로 관리되어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제조·가공·유통 등 현장 정보의 수집·기능 활동의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수집한 정보 DB의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보 제공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제 이후에는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 개선방향에 대한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곽노성 前 원장(식품안전정보원)

소비자 친화적인 정보 생태계 마련되어야

정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과거에는 국가가 공급자적인 관점으로 정보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국민의 정보 만족도 및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하여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포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식품안전정보원이나 식약처는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불만을 처리하는 등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가 식품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거나 보상받기 어렵다는 등의 행정적인 절차만 소개하는 것에 그친다. 이것은 소비자의 정보 요구를 문히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비자의 정보 요청이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제내용의 사례를 보았을 때, 식·의약 정보의 소통방법이 공식적인 SNS나 블로그 등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의 정보전달 체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소비자 친화적인 정보 생태계’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할 때이다. 또한 식품과 의약품(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 정보를 통합한 시스템을 마련할 경우에는 정보 전달 방식에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식·의약품 관련 정보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정보를 찾기 어렵고, 소비자의 시각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김영욱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소통 및 정보 제공해야

현재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순한 정보로는 법과 제도의 시스템 상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식·의약 관련 정보는 모순되거나 주관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은 주관적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MSG에 대해 식약처는 해롭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데, 일부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단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생리대의 유해성 논란 등 소비자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앞으로는 일치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소비자는 불안하면 대부분 회피하게 되고, 식약처 등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위험은 괜찮다고 여기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제로리스크를 원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험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소비자 본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지금의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정보를 판단한 후 직접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정보가 충돌할 경우에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등을 구축하여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해석에 논란이 있는 가짜뉴스 등이 소비자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가짜뉴스를 완전하게 선별하는 것보다는 해석의 정도, 상업적인 이용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 마련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결국 위험의 주관성을 전제로 할 때,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를 어떻게 줄 것인가, 모순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소비자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mg 등의 단위에 대해서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위험을 비교할 때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은 신뢰의 문제다. 식약처가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및 시스템 강화 등 더 부단한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박기환 교수(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정보의 제공 목적과 수요자에 따라 맞춤형 정보 제공 필요해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명확하게 목적을 고려하지 않으면,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원하는 이유는 엉뚱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즉,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해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사전 예방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때는 위해 정보뿐만 아니라 식·의약품에 대한 지식 부분도 같이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지식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한 식약처의 정보제공 사이트 운영은 제공자의 입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영국 등 해외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카테고리 묶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통합 제공이라는 이유로 모든 정보가 한 번에 보여주는 것에 급급한 측면이 있어 정보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정보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구글 검색처럼 검색시 연관도가 높은 정보가 먼저 보이도록 하는 등 DB(DataBase) 운영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정보제공사이트를 보면, 위해정보만 가득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계층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할 때도 실질적 정보의 수요자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유아의 급식안전에 대한 정보의 실질적 수요자는 부모이다.

또한 소비자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어가 아닌 쉽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비자가 제로리스크를 원하는 경우보다는 위험이 있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수용 여부는 개인이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때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결국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기본 지식정보 전달과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허위 또는 오류정보를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도 세부적으로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때 주의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식약처는 해당 부처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식·의약품과 관련된 안전 정보는 링크를 통해 연결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송대민 교수(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정보 분석을 통해 위해 관리 체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포털사이트를 통해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사이트를 운영해보니, 정보 제공 방법 자체가 그 동안 관리해온 DB와 정보 제공이 공급자의 입장 위주여서 원활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데이터나 정보는 원유에 비유할 수 있다. 원유를 잘 가공하여 제공하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빅 데이터 등 정보를 가공해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 보건의료계에서 빅 데이터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를 결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셜데이터에서 사소한 대화나 신문 자료 등 자료는 충분하지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제는 분석기술도 많이 나와 있고, 이미 상용화도 되어 있다. 따라서 식·의약 정보를 빅 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사전에 대형사고의 징후 등이 포착된다면 모니터링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보다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안전체감도를 조사할 때에도 불안 여부 조사시 조사대상자가 접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 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응답자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답을 하는 응답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측정도가 더 정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식·의약품 안전체감도 조사도 소셜데이터에서 충분히 분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불안 징후가 예측될 때 빅 데이터를 통해 불안 수준을 사전에 예측하게 되는데, 망원경을 사용하듯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일부 제품에서 문제가 포착되면 직접 그 품목을 현미경을 사용하듯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된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게 되면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위해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주영 본부장(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건강연대)

보다 적극적인, 접근성과 이해가 쉬운 정보 제공해야

소비자단체 활동을 하면서 식약처 등 정부에는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시각을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식·의약 정보에는 늘 ‘의약품의 부작용 중에는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이 꼭 붙는다. 이러한 정보에 덧붙여서 소비자가 꼭 궁금해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과학적인 근거와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확답하거나 규정짓기 어려운 부분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한 후 소비자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논란이 있다고 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지양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화해’라는 화장품성분 확인 어플리케이션의 DB는 우리나라의 위해성분 정보가 아닌 미국의 한 환경단체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화장품 제조업체도 식약처의 정보보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DB를 바탕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에 화장품 전 성분표시제가 도입될 당시, 전문가들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했던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소비자는 이제 성분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 공개는 필요하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할 때 보안 장치를 두어 소비자가 접근하기 어려도록 하거나, 어려운 용어나 표현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도 정보를 찾아볼 때 출처 등을 주의해서 수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를 것을 당부한다. 식약처가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닌 식·의약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보는 공개하고, 전문가는 해석하고,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식·의약 분야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정보를 선택할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소비자단체도 적극적인 사전 정보 제공 및 정보의 오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동참해 나갈 것이다.

특집
가계통신비 인하,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① 인터넷 서비스, 저가 경쟁자 출몰... 저가 경쟁자 출몰...
② 인터넷 서비스, 저가 경쟁자 출몰... 저가 경쟁자 출몰...
③ 인터넷 서비스, 저가 경쟁자 출몰... 저가 경쟁자 출몰...
④ 인터넷 서비스, 저가 경쟁자 출몰... 저가 경쟁자 출몰...
⑤ 인터넷 서비스, 저가 경쟁자 출몰... 저가 경쟁자 출몰...

NO. 39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3) (2017년 9월호) 패스트푸드 및 편의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안전관리 개선방안 모색

<소비자포럼>

패스트푸드 및 편의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안전관리 개선방안 모색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으로 2017년 9월 8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YWCA 4층 대강당에서 ‘패스트푸드 및 편의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안전관리 개선방안 모색’ 소비자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정춘숙 의원과 김천주 회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개회사 이후, 좌장 이항기 부회장(한국소비자연맹, 소협 식품안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김형준 서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의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안전 관리현황’과 김용휘 교수(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의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안전관리 개선방안’ 주제 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강재현 교수(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제란 팀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황다연 변호사(법무법인 혜), 임영태 사무총장(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수현 정책실장(소비자시민모임)이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발제 자료 및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편집자 주).



김형준 서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발제 1. 식품접객업체의 식품위생·안전 관리현황

식품접객업체의 관리현황에 대해 설명하자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유통업, 수입판매업 등 전체 식품관련업체는 현재 2017년 5월 기준으로 전국 117만2천 여 개이다. 그 중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 유통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84만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일반음식점 63만여개, 휴게음식점 12만여개, 제과점영업 1만7천여개 총 3가지가 프랜차이즈업종에 해당된다.

2016년 식품접객업소의 감시 및 위반건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448,199건 중에 26,159건을 적발하였으며, 휴게음식점은 85,095건 중에 3,084건, 제과점영업은 19,923건 중에 509건을 적발하였다(<표 1> 참고).

<표 1> 2016년도 감시 및 위반 건수

구 분	감시건수	위반내용								
		소계	시설위반	보존 및 유통 기준위반	건강진단등 개인위생	청소년불법고 용, 출입 등	폐업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일반음식점	448,199	26,159	5041	714	2867	2818	102	2400	5474	6743
휴게음식점	85,095	3084	449	107	309	3	22	333	772	1,089
제과점영업	19,923	509	57	52	60	-	-	103	79	158

특히 그 중에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2016년 16,096건을 점검하여 167건(1.0%)이 위반건수였고, 2017년 5월까지 4,478건을 점검했을 때 45건(1.0%)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단속대상을 선별할 때 단속대상선별시스템을 활용하여 3년간 한 번도 위생 점검을 받지 않는 업체, 1년 안에 2번 이상 적발된 업체, 고의적인 상습적인 업체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사회적 이슈나 특정시기에 계절별, 명절, 어린이날, 하계휴가, 김장철 등에도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는 1년 연중으로 일상점검을 하는데, 이때 건강진단 미실시, 냉동·냉장 보관 기준 미준수, 조리실의 비위생적 취급 등 10개 항목을 기본안전수칙항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10가지 항목은 적발 사항 중 70% 이상인 내용을 ‘기본안전수칙 위반사항’으로 지정하여 선정하였다.

식약처가 주관하는 기획·특별·정기점검 등 전국 교차 합동점검은 무신고영업, 비식용·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등 중점점검항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적발이 되면 바로 영업이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을 위주로 진행한다.

프랜차이즈점이나 패스트푸드점처럼 모든 식재료를 본사 한군데에서 공급하여 전국 가맹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파급력이 큰 분야는 기획점검을 진행한다. 산모, 노인, 아동이용시설이나 위생취약 우려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등을 진행한다.

2017년 식품접객업소 관리방향으로는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 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속대상선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점검대상을 선별하고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냉동수산물에 물을 코

팅시켜 중량을 늘리거나 납을 넣어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자의 경우에는 1번만 위반하더라도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하는 One-strike out제를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사, 매장 등에서 자체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패티 조리, 온도 관리기준 및 야채 세척, 소독 관리기준, 매장의 위생취급기준 등에 대해 식품접객업체 위생관리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담당자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조리식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를 강화할 것이다.



김용휘 교수(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발제 2.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안전관리 개선방안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시설별 식중독 발생현황 통계를 보면, 음식점에서 2015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로 170여건에서 많게는 250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고되지 않은 식중독 발생 건수를 고려하면,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식중독은 식품 관련 문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정확히 식중독인지 혹은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상증세가 있어도 따로 식중독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식품안전정책은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를 원칙으로 하여 추진했다. 예전에는 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직접 가공하고 요리해 먹었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낮았지만, 지금은 외식의 증가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조리, 유통단계가 복잡해지고 식품소비와 섭취 패턴이 바뀌었다. 특히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식중독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이 높아졌다. 한편, 현재 1차생산자, 가공생산자, 식품가공수입업자 등에 대해서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같은 사전예방제도가 어느 정도 잘 구비되어 있다.

운송 중에 포장이 찢어지거나 찢그러지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마트에서 폐기해야 하듯이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마트 등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직전까지 포장·운반·판매 단계에서도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제재방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어 법규도 새로 제정해야 한다.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에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교육시간이 6시간, 휴게음식점의 경우 3시간에 불과하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과 같은 종업원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이다. 가맹점 업주 외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햄버거나 도시락 등을 아르바이트직원이 실제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도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식점 영업자가 받는 식품위생교육 내용 중 식품위생법만 하더라도 1,000페이지 이상의 분량이다.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내용을 소화할 수 없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육을 잘 받고 자율적으로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근 소비자의 생활 패턴 변화로 편의점이 소비자에게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 허브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국)에서는 한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종업원을 교육하는 위생교육 매뉴얼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점검자(Inspector)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현장에서 검사를 나온 점검자가 지적하는 사항과 수준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전예방을 통한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구사항의 준수와 행동양식의 변화 및 의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HACCP은 시설규칙이나 설비기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갖추어진 식품안전매뉴얼이 영업자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업체, 식품취급업소에서는 식품위생 및 안전교육을 최소 20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이수자가 식품을 조리하고 상주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식약처는 위생관리 매뉴얼을 제작할 때, 업소별 특징에 맞도록 매뉴얼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보완된 내용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뉴얼이 되도록 관리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PL법(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처럼 프랜차이즈업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가맹본주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이 확보된 제품을 구입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가맹점은 식품취급시 식품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가맹본부는 소비자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발제 이후에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과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임영태 사무총장(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업종별로 특징을 고려한 식품안전 체크리스트 필요

프랜차이즈는 수많은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유통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고, 3자 물류라고 하는 아웃소싱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아웃소싱을 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자체 중앙 조리시설에서 완제품, 반제품을 유통콜드체인시스템을 통해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프로세싱 체크가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가 매뉴얼에 따라 체크했는지 한 번 짚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식재료가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점포에 공급된다고 해도,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식품을 운반 차량의 냉장시스템을 끈 상태로 유통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식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해보면 모든 점포가 아닌 특정 점포에서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정 점포에서 냉장고가 작동이 멈추면 점포의 귀책사유이고, 소비자가 2시간 이내 먹어야 하는데 3시간 이후에 먹는 경우 등도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는 피자, 치킨, 햄버거, 커피, 분식, 제과제빵 등 많은 업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업종별로 고유의 식품안전 체크포인트에 맞추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HACCP은 공장과 같은 제조과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소규모 점포에도 매뉴얼이 있다. 2012년 던킨도너츠에서는 소비자와 점점에 있는 매장 단위로 HACPP 인증을 받아 HACPP 점포가 탄생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인증 이후 정부의 지원이나 관심이 부족하였고, 다른 점포나 기업까지 적극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프랜차이즈는 한 개의 점포에서만 문제가 발생해도 가맹본부와 다른 점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식약처는 프랜차이즈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본부만 단속하면 단속효과가 크다. 위반할 경우에는 브랜드명도 공개적으로 적시되기 때문에 업계도 반성하며 노력해나가고 있다. 가맹본부는 위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점검절차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만드는 매뉴얼과 업계 등 민간에서 만드는 매뉴얼을 조합해서 잘 활용하면 소비자의 안전한 식탁을 담보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프랜차이즈업계에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을 순회하면서 점포별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협회는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위생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며, 특정협회나 교육기관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진입장벽을 낮추어 보다 실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자영업자의 위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재현 교수(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프랜차이즈의 모든 종사자는 식품 안전 교육 받아야

더 파운더 (The Founder) 라는 영화가 있다. 맥도날드의 창업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영화에서는 맥도날드 형제가 햄버거를 팔아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 이유는 당시 햄버거를 사먹을 때 30분을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어야 했는데, 30초 만에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나가던 외판원 1명이 이를 관찰한 후 판매망을 늘려보자고 제안하여 동업을 하게 된다. 판매망을 늘리면서 사업 초기에는 없었던 식품사고, 위생문제, 소비자 불만이 생겨났고, 결국 영업사원과 맥도날드형제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사업권을 영업사원이 가져가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판매하게 된다.

맥도날드 형제가 영업사원가 갈등을 겪을 당시 형제가 말하기를 ‘맥도날드의 창업정신은 가족이지 돈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고객과 품질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더라도 매장 2개를 제외하고는 더 늘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각 매장별로 형제가 각각 관리하면서 햄버거 패티의 굽기부터 심지어 냅킨처리의 위생, 직원의 동선과 프로세스까지 초단위로 매뉴얼로 만들어 운영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는 이러한 정신이 없다.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대부분 학생이거나 임시직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하기는 어렵고,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갖기에도 힘든 여건이다.

최근 맥도날드 햄버거 병 문제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단정할 수 없지만, 분쇄육을 하는 과정에서는 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매뉴얼에 따라 매장에서 잘 교육 받은 사람이 제대로 가공을

하면 그 확률을 최소로 낮출 수는 있지만, 매장에서 메뉴얼을 다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공장에서 제조를 할 때 불량률이 제로라고 확신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직원의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의무교육보다는 실제 매장별 필요한 교육이 다른 부분을 감안하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어렵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의무교육을 몇 개의 교육기관에서 일임하고 관에서 이를 다 관리하려고 하니 어려운 것이다. 대신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모니터링을 잘 하고, 교육 이행이 잘 되지 않는다면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모든 종사자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약국이나 병원 등 의료기관들도 외부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있다.

식품조리나 위생관리에 대해서 적어도 종사자들이 제대로 알고 책임 있는 자세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한다면 식품사고를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황다연 변호사(법부법인 혜)

식품안전 조사 관련 법령 개선 필요

식약처에서 점검횟수를 늘리겠다는 개선방안과 현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실제 위반 적발률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작년에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였다. 해당 매장의 반박자료를 보면, ‘그 사건 이후 매장점검을 받았을 때 문제가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시·구청이나 식약처의 점검결과를 방패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단속을 계속 해도 적발이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햄버거 관련 실태조사를 했을 때,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대비 3배 이상 초과검출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 본사에서는 조사결과 보도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까지 하는 일도 있었다. 소비자원에서는 검사했을 때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왜 식약처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는지는 의아스럽다.

햄버거 샘플 점검을 위해 매장 내 소독제를 샘플 시료에 뿌려서 주었다는 내부고발도 있었다. 그로 인해 음식에서 절대로 세균이 검출이 되지 않게 조사된다는 내용이었다.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료용이기 때문에 균을 죽이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한다고 했다. 이 부분은 해당 매장이거나 그 직원의 문제점일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2호 3항에 보면 ‘관계 공무원은 출입 및 수거시 증표제출 및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소비자처럼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장 담당자나 검사자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

최근 전주의 맥도날드에서 발생한 집단장염의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햄버거를 수거했는데, 본사와 다른 매장에게도 연락이 취해져 점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 공유를 하게 되면 정확한 점검이 어려워진다.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한 방식의 규제로 증표나 수거증을 교부하더라도, 식품사고가 발생하는 긴급 상황이나 불시점검이 필요할 때는 감시원증 제출이나 수거증 교부를 생략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법령의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실효적인 단속과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제도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김제란 팀장(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위생 관련 지자체의 단속보다 지도 및 관리 역할 요구

지난 7월, 소비자원은 주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종을 수거하여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을 포함하여 식중독균까지 점검하였다. 그런데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대비 3배 이상 초과 검출되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도하였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원재료, 물, 조리종사자의 손이나 옷 등 여러 요인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데, 당시 많은 프랜차이즈점에서 위생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여 검출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발견되어 놀랐다.

소비자원의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살펴보면 햄버거 관련 위해 사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6년 상반기 대비 2017년 상반기에는 ‘햄버거 관련 상담 사례’가 40% 증가하였다. 특히 취약계층인 ‘19세 이하 어린이 관련 위해사고’가 23%를 차지하였고, 햄버거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가 즐겨 먹는 대표적인 어린이 기호 식품이므로 철저한 식품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안전관리 방안 마련시 대형 프랜차이즈는 이미 자체적인 매뉴얼 및 시스템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 중소기업체가 더 문제이다. 중소형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식품위생과가 단속 위주의 관리가 아니라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시스템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대형 기업의 위생교육은 많이 홍보가 되어있지만, 소형업체를 위한 매뉴얼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동네 작은 영업점은 온라인상으로도 교육 자료나 동영상 등을 접하기 어렵다. 또한 현실적으로 생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영업 준비를 하고 영업하느라 외부로 가서 교육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영업에 방해는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도 고민해주었으면 한다.



이수현 정책실장(소비자시민모임)

최근 발생한 식품안전문제 업소는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패스트푸드점이라는 점에서 자녀를 둔 소비자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패스트푸드점은 그나마 중소형음식점보다 원재료나 위생 관리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사태로 위생 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기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식품접객업소 관련 상담 1,075건 중 ‘패스트푸드점 관련 상담’은 413건(38.4%)으로, 한식이나 중식에 비해 가장 많았다. 특히 음식점에서 이물 혼입으로 접수된 상담 중 47.3%는 ‘패스트푸드점에서 구입한 음식에서 이물이 혼입되어 발생한 것’이었으며, 이상증세 상담 중에서는 ‘한식’이 45.3%로 가장 높았고, ‘패스트푸드점’이 27.3%로 그 뒤를 이었다. 이상증세 중 설사나 복통, 구토로 접수된 상담은 패스트푸드점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증세를 보여도 소비자와 업소가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당 업소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역학 조사나 식품위생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식품위생·안전관리 개선사항 제안사항으로는 첫째,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업소, 편의점 등 각 업소의 조리 형태나 취급 식품 등에 적합한 식품위생관리 매뉴얼을 체계화하고 이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 포함하여 식품 취급 및 조리 전반을 담당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식품위생교육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교육은 실효성을 검토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약처에서 올해부터 위생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업소 중 위생등급제에 신청한 음식점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다.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업소나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등도 위생등급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맥도날드는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덜 익은 패티가 나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문제를 피하려는 입장만 보여주었다. 이번 햄버거로 인한 연이은 이상증세 발생을 계기로 식약처는 식자재 입고, 관리부터 조리 전반, 포장까지 위해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 및 분쇄가공육 등 식육가공품의 제조업소를 비롯하여 문제 발생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편의점의 식품위생·안전관리 개선과 관련하여 편의점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에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제외되어 있다. 편의점의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로서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편의점의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위생관리에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식품접객업소도 마찬가지이다. 가맹 본부의 경우 식품 위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점만의 문제로 간주하거나, 개별 가맹점의 위생, 안전까지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가맹 본부는 식재료와 설비 등을 계약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가맹점의 식품안전 문제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소비자단체도 적극적인 감시와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특집
2018년 소비자운동 및 단체의 활동 방향

- (1)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2)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3)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4)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5)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6)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7)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8)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9)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10)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NO. 39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 (2017년 1월호)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소비자포럼>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는 2017년 11월 24일(금) 오후 3시부터 서울YWCA 4층 대강당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소비자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좌장 이향기 부회장(한국소비자연맹, 소협 식품안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최현철 팀장(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위생용품·담배관리 T/F)의 ‘위생용품 관리법 체계 및 관리현황’과 이주영 본부장(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건강연대)의 ‘위생용품의 소비자 안전 확보 방향’ 주제 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강재현 교수(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용휘 교수(세종대학교 화학물질관리전략연구소), 장민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조규봉 부장(글로벌이코노믹 생활경제부), 이혜영 본부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이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발제 자료 및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편집자 주).

발제 1. 위생용품 관리법 체계 및 관리현황



최현철 팀장(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위생용품·담배관리 TF)

1986년에 공중위생법이 제정되었으나, 1999년에 법이 폐지되면서 위생용품의 관리가 법 없이 고시 형태로 관리되고 있었다. 영업자 입장에서는 전산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정부도 새로운 유형의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고충이 있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누어 관리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위생용품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고, 2017년 4월에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018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소관부처가 조정되었다.

화학물질에 노출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품목 지정과 위생용품 대상 확대, 수입업 신설 등으로 안전관리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2018년 동안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 및 현실에 맞게 반영할 예정이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하여 신고와 보고에 대한 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위생용품은 법률에서 17개 품목(세척제, 행굼보조제, 일회용 컵·손가락·젓가락·이쑤시개·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등 현행 위생용품 9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 및 기저귀 등 현행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3개, 일회용 포크·ナイ프 및 빨대 등 현행 식품용기구 2개 및 비관리 품목 3개)으로 정의하고, 그 중 현행 비관리 품목 3개는 일회용 행주·타월 및 대통령령으로 의약외품을 제외한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건티슈이다. 영업의 종류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 등 총 3가지로 나뉜다. 시설기준도 제조업, 처리업, 수입업으로 나누어 마련할 예정이다. 영업자는 매년 3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영업자는 4시간 동안 받아야 한다. 품목제조보고제도가 도입되는데, 도입의 취지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할 때 화학물질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고받은 것을 통하여 신속하게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준·규격은 식약처장이 제조기준, 사용기준, 유해물질 규격 등을 고시하고, 표시기준도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업체명, 소재지, 내용량,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 등을 표시함으로서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도 규제한다. 벌칙과 과태료 부분도 신설한다. 별도의 TF팀을 운영하여 준비중이고 하위법령도 계속 신설하고 있다. 또한 위생용품소비자감시원도 신설하여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발제 2. 위생용품의 소비자 안전 확보 방향



이주영 본부장(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건강연대)

일반 소비자에게는 보통 위생용품하면 생리대, 기저귀, 샴푸, 물티슈 등이 떠오른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계란, 생리대, 기저귀, 치약 등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도대체 눈으로도 확인이 안 되고, 맛으로도 알 수가 없고, 냄새로도 안 되며, 만져 봐도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소비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최근 안전사고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 의사협회 추천제품인 주방세제가 PH 기준에 위반되어 전량 회수되었던 적이 있었고, 닭발, 곱창 등에 사용하는 세척제가 잔류되었을 위험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물티슈 사태 때 미용용 물티슈는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나, 식당용은 빠져있었다. 종이컵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논란, 팬티라이너는 생리대와 구분되어 혈액이 흡수되는 것만 생리대로 포함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렇게 위생용품은 사각지대에 놓여온 상태였다.

정부 입장에서는 빈틈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소비자는 법률을 개별적으로 공부하거나 소관부처를 따져서 구입할 수 없고 그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소비자도 검사를 받은 품목인지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리혈을 흡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의약외품 생리대이고 그 외에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던 것에서 이제야 위생용품 관리법에 포함시킨 것과 같이 소비재를 바라보는 소비자와 정부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단체로 들어온 위생용품 관련 불만 1,453건을 추출해서 분류해 보았다. 상담 내용을 보면 소비자나 상담사 모두 위생용품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분류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었고, 언론이나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상담건수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저귀 같은 건들은 펄퍼스 기저귀 사건 이후 500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상담 내용은 이물질, 판매 방식, 보상 문제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비데용 물티슈는 ‘미용용’ 인지 ‘위생용’ 인지 애매하다. 앞으로 이러한 신제품은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접수된 상담 내용을 보면 검사 결과를 믿어도 되는지, 문제가 된 제품의 환불과 반품 여부를 묻는다. 본인이 소지한 제품에 대해 이상 물질 검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생산자나 판매처의 검사를 믿을 수가 없어서 제3자에게 검사 의뢰하고 싶은 것이다. 제품을 받아보니 이물질, 벌레 등이 나와 이상하여 반품 요구를 하자 업체는 소비자를 탓하였다. 세제, 물티슈, 기저귀를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와 다른 허위 광고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가스레인지로 고치러 왔다가 세척해 주고 세척액을 판매하는 등의 판매 행태에 대한 불만사항도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제안사항으로는 첫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소비재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100살까지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을지, 소비자를 관점의 중심으로 두고 관리하는 것으로 시각을 바꾸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각종 위생용품과 화학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위해평가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를 가감 없이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해물질에 대해 학습하고 판단하는 소비자가 많아 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생리대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의 결과를 믿지 못하고 다시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따라서 정부의 관리 체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소비자, 그리고 시민 단체의 끊임없는 소통 및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넷째, 위생용품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업체에서 제작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다. 따라서 생산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를 위한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세척제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희석해서 사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발제 이후에는 위생용품 관리법과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점점 다양해지는 위생용품,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강재현 교수(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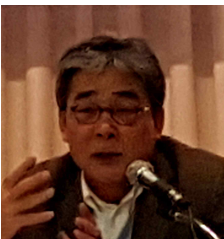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화장지, 티슈로 코를 풀면서 신체와 접촉하게 되고 커피 한 잔 내려 먹을 때 식기세척제 행굼보조제에 노출되며 귀 면봉, 도시락 케이스, 아이스크림 용기, 물티슈 등 다양한 위생용품에 많이 노출이 된다. 매일 10가지가 넘는다. 소비자는 짧은 시간 흔히 접하고 부담이 없는 것일 수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접했을 때 어떤 작용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보건위생 확보를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은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는 위생용품인 세척제, 행굼보조제, 일회용 컵·손가락·젓가락·이쑤시개·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이고 산업부의 관리를 받는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은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이며 식약처의 관리를 받는 식품용 기구는 일회용 포크, 나이프, 빨대 등으로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생용품을 통합하여 관리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위생용품의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 법을 제정해도 새로운 물질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계속 외국의 사례나 물질을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법을 개선하고 안전성 평가기준도 재평가하는 등 보완을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해로운 물질을 8만종 이상으로 규정하지만, 우리나라는 4만종이다. 우리가 입으로 대고 먹고 마시는, 일회용품은 더 위험하므로 확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관리대상으로 포함된 위생용품 이외에도 소비자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소비재가 다양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각종 위생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담당 부처가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관리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식약처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법 개정을 맡았으면 한다. 여러 부처에서 하면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위해성 평가 및 안전성 정보, 소비자 중심의 소통으로 전달해야



김용휘 교수(세종대학교 화학물질관리전략연구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위생용품은 복합적인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위생용품의 목적에 따라 살생물제와 같은 활성 구성성분, 형광제와 보존제 등 위생용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공정 보

조제, 방향제와 접착제 등 소비자의 선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첨가제 및 비활성 구성 성분의 화학물질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는 제품의 용도에 맞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사용상 주의사항을 알리기에 충분하지만, 살생물질을 가습기에 사용하면서 일어난 사건처럼 새로운 용도나 사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위해성 평가에 한계가 있고, 그 유해성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위생용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서 생산자는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용도에 따른 위해물질의 노출경로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정부 등 규제기관의 품목제조 허가를 받는 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자는 위생용품의 용도에 따라 가장 안전한 화학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안전하게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사용되는 활성물질의 구성성분 및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위생용품 사용에 따른 화학물질의 노출 위험성은 활성물질에 따른 위험성보다는 생리대와 기저귀 등 공정 보조제 및 첨가제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공정 보조제 및 첨가제는 기존에 허가된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할 경우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의 건강 위해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편의성 및 선호도를 위해 사용될 경우 위생용품의 사용 범위 및 형태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위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어 위생용품의 사용에 따른 위해성 평가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위생용품 사용과 관련된 방법 및 안전성 정보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소비자단체도 끊임없이 위해성 평가 및 안전 정보에 대해 요구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학적 시스템을 통해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학자와 정부는 소비자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연구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노력이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지 소비자 중심의 소통방식을 만들어내고 개발해야 한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감시 관리를 해야 하고, 정부는 확인 감독을 해야 하며, 소비자는 제품사용량을 되도록이면 줄여야 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의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 시행할 예정



장민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단일 부처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다. 소비자의 위생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을 때 지속적인 감시 및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다. 나무젓가락 등 수입위생용품의 경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다보니 수입업에 대한 신고제도 등 검사체도가 강화되었다. 과거에 불필요하게 작용된 시설설비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했다. 케모포비아 등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성분 표시 및 제품 뒷면의 표시사항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크게 표기하는 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장에서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졌다.

연구를 하면서 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었다. 영업자들도 ‘기존의 폐지

된 법은 너무 형식적이었고, 새로운 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위생용품으로 분류되었던 것 이외에도 새롭게 추가된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도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데 있어서 '위생용품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었다. 새로운 법 시행에 있어서 법체계 적응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혼란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법 시행 전부터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고 홍보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단일법 체계로 규율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다만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성분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도 성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2018년 4월에 법이 시행되는데, 그동안 관리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생활 밀착형제품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와 교육을 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고 나면 법의 문제점이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켜보고 부족한 점이나 보완사항을 전달해준다면 법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인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관리 필요해



조규봉 부장(글로벌이코노믹 생활경제부)

흔히 글로벌기업에서는 우리나라를 테스트 마켓으로 하여 신제품을 출시한 후 반응을 본다. 그런데 이제야 위생용품관리법이 생기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사망사고가 일어나서야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제라도 식약처에서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다만, 법을 제정하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잘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처벌기준이 너무 약하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다. 법을 제정하면서 처벌기준을 강하게 하면 기업들은 불멘소리를 내겠지만, 그럼에도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018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민간과 정부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리대 사건에서도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고, 민간 연구소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소비자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도 개선해야 하고, 표준 기준도 중구난방이 아니라 통합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해외직구로 위생용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식품의 경우 나중에 알고 보면 해외에서 문제가 된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먹고 있는 경우도 있다. 법의 사각지대가 해외직구이기도 하다. 앞으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리·감독하기 바란다. 기존에도 해외직구에 대해서 건의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안전의식 수준의 향상 및 소비자가 바라는 법·제도 정비해야



이혜영 본부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안전과 관련하여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논란이 많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기에,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이번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많은 생활화학용품이 생활 속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화학성분과 관련된 연이은 안전문제로 인하여 정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불신과 함께 화학 성분에 대한 공포 현상인 케모포비아(Chemophobia)가 확산되고 있다.

법과 제도는 시대에 발맞추어 진화되어야 하며, 관리자 및 생산자 중심이 아닌 오직 시장과 소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정책과 정부가 될 수 있다.

제안사항으로는 첫째, 소비자가 바라는 안전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잠재적 소비자로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안전관리체계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모든 부처를 개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정부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체계는 통합되어 운영해야 함이 마땅하다.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불만은 결국 국가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더 나아가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품에 대한 불안 요소를 건어내야 하며, 정책은 일관되고 통합적이어야 안전관리가 구멍이 생기지 않고 사고 발생시 발 빠른 대응도 가능하다.

두 번째로 생산자와 제조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동안 산업 육성과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업체의 고의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안전문제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또한 안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알지 못해서 지나치는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한 만큼 안전과 무관하지만 소비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산자 및 제조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 생산자 및 제조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시스템과 기준규격 합리화 등 법 제도가 분명하고 명확해야 안전의식도 높아질 수 있다.

셋째, 소비자 중심의 위생용품관리법이 되어야 한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제정되는 법인만큼 소비자 중심적인 안전관리 체계와 정책 전환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법·제도보다 산업의 진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유형의 제품에 대한 대응도 고려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위생용품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소비자단체도 적극적인 감시와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Ⅲ. 업무관리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원)

구 분		계약금액	집행금액	잔액	
비 목					
1. 인건비	책임연구원	3,080,000	3,080,000	-	
	연구원	5,903,000	5,903,000	-	
	연구보조원	5,525,000	5,525,000	-	
	소 계①	14,508,000	14,508,000	-	
2. 운영비					
유인물비	최종용역보고서	1,056,000	1,144,910	-	88,910
	소비자포럼자료집	1,760,000	1,695,040		64,960
	소비자포럼 현수막 및 사무용품	240,000	216,050		23,950
전산처리비	토너 및 복사용지	300,000	300,000		-
회의비	관리위원회회의비	7,400,000	6,500,000		900,000
	편집위원회회의비	1,800,000	2,000,000	-	200,000
	소비자포럼회의비	5,400,000	4,400,000		1,000,000
	업무추진비(회의등)	600,000	495,600		104,400
	업무추진비(소비자포럼)	1,000,000	1,104,410	-	104,410
운영비	상당사례분석비	15,300,000	16,121,350	-	821,350
	상당사례집중분석	1,500,000	1,500,000		-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비	7,500,000	6,856,280		643,720
	식의약정보메일링	1,848,000	1,344,800		503,200
	홈페이지운영비	220,000	220,000		-
기타비용	설문기념품비	9,550,000	8,575,000		975,000
	소비자포럼기념품비	2,000,000	2,002,920	-	2,920
임차료	포럼장소사용료	2,860,000	2,871,000	-	11,000
교통통신비	교통비 및 우편	200,000	200,000		-
소 계(②)		60,534,000	57,547,360		2,986,640
3. 일반관리비(③)		2,958,000	2,958,000		-
합계(①+ ②+ ③)		78,000,000	75,013,360		2,986,640

IV. 기타(설문조사 양식 등)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해외직구)	ID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의약품안전정책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묻는 조사입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책개선 및 홍보방안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3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mail : sohyub@consumer.or.kr
☎ (02)774-4050 Fax (02)774-4090

□ 해외직구란?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직접 구매한 후, 한국으로 배송 받는 거래형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직접배송** :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 받는 형태
- **배송대행** : 해외 판매자가 국내로 직접 배송하지 않거나 배송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해외 배송대행지에서 대신 수령한 후 다시 국내 주소로 배송 받는 형태
- **구매대행** : 소비자가 구매대행사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고 배송받는 형태

1. 최근 2년 이내 해외직구를 통해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질문2 로 이동**

1-(1). 식품·화장품·의약외품 등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주요 제품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가능)

- ① 가공식품류(소스류, 과자류, 주류 등)
- ② 건강식품(비타민, 글루코사민, 오메가3 등)
- ③ 화장품류
- ④ 농축산물(커피(원두), 조제분유 등)
- ⑤ 위생용품(샴푸, 바디클렌저 등)
- ⑥ 의약외품(치약, 가글액, 생리대 등)
- ⑦ 기타()

1-(2). 해외직구로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필수응답), 2순위(선택응답), 3순위(선택응답)

- ①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해서
- ② 배송이 신속하고 안전해서
- ③ 주변에서 추천하거나 이용후기가 좋아서
- ④ 제품이 다양해서
- ⑤ 제품의 품질이 우수해서
- ⑤ 판매 사이트를 신뢰해서
- ⑥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라서
- ⑦ 특정 성분을 포함, 배제 또는 기능성을 선호해서(무색소, 무방부제, 아토피치료 등)
- ⑧ 기타()

1-(3).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해외직구 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 하십니까?

	항목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확인하는 편이다.	항상 확인한다.
가	제품명	①	②	②	③	④
나	제품의 성분(원재료명)	①	②	②	③	④
다	유통기한 또는 유효기간	①	②	②	③	④
라	제조사 또는 원산지	①	②	②	③	④
마	수입금지 품목여부 및 통관 조건 (예:목록통관제도,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이 고 유해제품이 아닌 경우 건강기능식품 6병 까지 별도 승인없이 통관)	①	②	②	③	④

2. 해외직구로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1.에서 ②아니오 응답자만)

- ① 구매하는 절차나 방법이 어려워서
- ②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 한글표시사항(제품명, 수입자, 원재료명, 제조사 등)이 없어서
- ③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신뢰할 수 없어서
- ④ 제품의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⑤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어서
- ⑥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 ⑦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국내 구매로 충분할 것 같아서)
- ⑧ 기타()

3. 해외직구에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항목	전혀 관리되지 않고있다	잘 관리되지 않고있다	그저 그렇다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
가	<u>해외직구식품 위해정보 제공</u> (식품안전나라, 식약처 홈페이지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제품의 상세내역, 구매 주의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	①	②	③	④	⑤
나	<u>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관리</u> 해외직구제품 구매대행, 신고대행업자에 대한 사전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①	②	③	④	⑤
다	<u>해외직구관련 소비자대상 교육·홍보</u> 해외직구 구입 시 주의사항, 주요피해사례 등에 대해 서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교육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4.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의 안전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정부의 모니터링 및 통관검사 강화
- ② 법적 제재 강화(문제 게시물 삭제, 문제가 되는 사이트폐쇄 등)
- ③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 ④ 해외직구사이트 등의 자정노력
- ⑤ 해외직구에 대한 일반적 정보제공(피해예방정보, 피해발생시 대처방안 등)
- ⑥ 해외직구 식품·의료제품·화장품 위해정보제공(국내 위해정보모니터링, 해외리콜회수제품 등)
- ⑦ 기타()

5. 향후, 해외직구를 통해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구매를 늘릴 의향이 있습니까?

- ① 현재보다 늘릴 것이다.
- ② 현재 수준 유지할 것이다.
- ③ 현재보다 줄일 것이다.
- ④ 구매의사가 없다.

6. 다음은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거주지역	[수도권]	① 서울	② 인천	③ 경기		
	[중부권]	④ 대전	⑤ 세종	⑥ 강원	⑦ 충북	⑧ 충남
	[영남권]	⑨ 부산	⑩ 대구	⑪ 울산	⑫ 경북	⑬ 경남
	[호남권]	⑭ 광주	⑮ 전북	⑯ 전남	⑰ 제주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이상
(4) 영유아자녀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5) 혼인여부		① 기혼	② 미혼			
(6) 연락처		(소정의 기념품 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핸드폰 번호 작성 부탁드립니다.)				

□ 밍고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 방법

○ 해외직구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1)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주의정보방
- 2) 식약처 (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위해정보알림

○ 소비자상담센터 ☎ 1372
불법사이트신고 ☎ 1399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식품첨가물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묻는 조사입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책개선 및 홍보방안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6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mail : sohyub@consumer.or.kr

☎ (02)774-4050 Fax (02)774-4090

1. 귀하께서는 평소 식품안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관심없다. ② 관심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있다. ⑤ 매우 관심있다.

2. 우리나라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환경호르몬 ② 중금속 ③ 유해 미생물 ④ 잔류농약 ⑤ 유전자변형 식품
⑥ 방사능 ⑦ 식품첨가물 ⑧ 기타()

3. 식품첨가물의 종류, 역할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① 전혀 모른다. ② 거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알고 있다. ⑤ 잘 알고 있다.

4. 식품첨가물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고 계신가요?

- ① TV ② 온라인(인터넷, SNS, 블로그 등)
③ 식약처 홈페이지 ④ 홍보책자, 리플릿 등
⑤ 라디오 ⑥ 잡지
⑦ 신문 ⑧ 아는 사람을 통해
⑨ 기타()

5. 만약 식품첨가물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①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가 불충분함 ② 교육, 홍보가 불충분함
③ 관심이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④ 식품첨가물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⑤ 기타()

6. 식품첨가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 7번, 8번 문항 / ③④⑤ → 9번 문항)

7. (*6번 질문의 ①, ②번 선택한 응답자) 식품첨가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① 언론 및 방송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 ②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 ③ SNS,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 ④ 그냥 왠지 안 좋을 것 같고 싫다.
- ⑤ 기타()

8. (*6번 질문의 ①, ②번 선택한 응답자) 식품첨가물을 피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원재료의 맛을 잃어버리게 돼서
- ② 인공적인 물질인 것 같아서
- ③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 ④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 ⑤ 기타()

※ 6번 질문의 ③, ④, ⑤번 선택한 응답자

9. 다음 질문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 식품첨가물은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2. 식품회사에서 식품첨가물의 법적 기준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다음은 식품첨가물의 주요 역할입니다. 아래 식품첨가물의 역할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식품첨가물 역할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보존성 향상 식품이 상하거나 변하는 것을 막는다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①	②	③	④	⑤
품질유지 및 품질향상 부족한 영양소 보충, 물과 기름처럼 혼합되지 않는 두 물질을 분리되지 않게 한다 (영양강화제, 유화제 등)	①	②	③	④	⑤
조직감 부여 유지 식품의 조직을 먹기 좋게 하고, 빵을 부풀리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응고제, 팽창제, 증점안정제 등)	①	②	③	④	⑤
맛, 색깔, 냄새 향상 식품의 맛과 향을 증진시키고, 본래의 색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색을 부여한다 (향미증진제, 착색료, 착향료 등)	①	②	③	④	⑤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거주지역	[수도권]	① 서울	② 인천	③ 경기		
	[중부권]	④ 대전	⑤ 세종	⑥ 강원	⑦ 충북	⑧ 충남
	[영남권]	⑨ 부산	⑩ 대구	⑪ 울산	⑫ 경북	⑬ 경남
	[호남권]	⑭ 광주	⑮ 전북	⑯ 전남	⑰ 제주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이상
(4) 자녀유무		① 유	② 무			
(5) 휴대폰번호		<div></div> 모바일 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잘못 기입하실 경우 추가 제공이 어렵습니다.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바이오시밀러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묻는 조사입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책개선 및 홍보방안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7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mail : sohyub@consumer.or.kr

☎ (02)774-4050 Fax (02)774-4090

식품의약품안전처 E-mail : ollong@korea.kr

☎ (043)719-3504 Fax (043)719-3500

※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아래 설명문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란?

◎ 의약품	<p>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크게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음</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0 auto; width: 100px;">의약품</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오리지널) 합성의약품</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바이오의약품</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복제약) 제네릭의약품</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바이오시밀러</div>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의약품 - 제네릭의약품 	<p>우리에게 친숙한 알약이나 캡슐처럼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들어진 약</p> <p>합성의약품의 복제약으로 오리지널 합성의약품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의약품 - 바이오시밀러 	<p>사람이나 다른 생물의 세포 및 조직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약</p> <p>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으로 생명체를 사용해 제조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100%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함.</p> <p>'비슷한'이라는 뜻을 지닌 'similar'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라고 칭함.</p>

1. 귀하께서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계셨습니까?

- ① 모른다 (질문 1-1 로 이동) ② 알고 있었다. (질문 2 로 이동)

1-1. 모르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련 정보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② 전문적 내용이라 어려울 것 같아서
 ③ 관심이 없어서
 ④ 기타()

1-2.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알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 ① 가격정보 ② 안전정보 ③ 제품상세정보 ④ 동향정보

1-3. 필요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받기 원하십니까?

- ① 신문, 안내책자 등 ② TV, 라디오 등 ③ 인터넷 ④ SNS

(설문 종료)

(아래 2번부터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알고 계셨다면 어디서 들어 보셨습니까?

- ① 진료 의사 ② 뉴스, 신문 등 미디어 매체
③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④ 카톡, 페이스북 등 SNS
⑤ 아는 사람을 통해 ⑥ 기타 ()

3. 지금까지 바이오시밀러를 투약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투약받은 경험이 없다 (질문 3-1 로 이동)
- ② 투약받은 경험이 있다 (질문 4 로 이동)

3-1. 투약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바이오시밀러의 안전성을 믿을 수가 없어서
- ② 담당 의사나 주변 사람들이 권유하지 않아서
- ③ 합성의약품에 비해 치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 ④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 ⑤ 기타()

3-2.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를 투약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투약받을 의향이 없다 ② 투약받을 의향이 있다
- ③ 생각해 본적이 없다 ④ 기타()

(질문 6 으로 이동)

4. 투약 받은 제품이 바이오시밀러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 ① 모른다 (질문 4-1 로 이동) ② 알고 있었다 (질문 5로 이동)

4-1. 모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관련된 정보를 제공 받은 적이 없어서
- ② 주치의를 신뢰하여(담당의사가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 ③ 관심이 없어서 ④ 기타()

질문 6 으로 이동)

5. 바이오시밀러를 투약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오리지널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해서
 ② 진료 의사의 권고로
 ③ 주변 사람들의 권고로
 ④ 질병 치료 효과가 비슷할 것 같아서
 ⑤ 기타()

6.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바이오시밀러의 효능이 어떠리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을 것이다
 ② 조금 더 높을 것이다
 ③ 똑같은 것이다(비슷할 것이다 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포함)
 ④ 조금 더 낮을 것이다
 ⑤ 매우 낮을 것이다
 ⑥ 기타 ()

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바이오시밀러 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
 ②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
 ⑤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8. 바이오시밀러 안전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정부의 법적 제재 강화
 ② 정부의 바이오시밀러 지원 강화
 ③ 제조사의 자정 노력
 ④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일반 및 위해정보 제공
 ⑤ 기타()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거주지역	[수도권]	① 서울	② 인천	③ 경기		
	[중부권]	④ 대전	⑤ 세종	⑥ 강원	⑦ 충북	⑧ 충남
	[영남권]	⑨ 부산	⑩ 대구	⑪ 울산	⑫ 경북	⑬ 경남
	[호남권]	⑭ 광주	⑮ 전북	⑯ 전남	⑰ 제주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이상					
(4) 자녀유무	① 유 ② 무					
(5) 휴대폰번호	모바일 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잘못 기입하실 경우 추가 제공이 어렵습니다.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어린이화장품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 어른용]

ID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묻는 조사입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책개선 및 홍보방안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9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mail : sohyub@consumer.or.kr

☎ (02)774-4050 Fax (02)774-4090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시장에는 만 3세이하의 영·유아용화장품과 성인용화장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 화장품 법에서는 어린이·청소년용 화장품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어린이 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던 제품들은 그 용도에 따라 파우더는 색조 화장용, 로션이면 기초화장용 같은 식으로 성인용 화장품과 함께 관리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고, 어린이·청소년의 색조화장품 사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청소년 대상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귀하께서는 자녀가 있나요?

- ① 있다(질문2로 이동)
- ② 없다(질문6로 이동)

2. 귀하의 자녀는 몇 살인가요?

- ① 유치원생 이하
- ② 초등학생
- ③ 중학생
- ④ 고등학생
- ⑤ 대학생이상

3. 귀하의 자녀는 화장(기초화장, 색조화장 등)을 하고 있나요?

- ① 화장을 함
- ② 화장을 하지 않음 (질문 6로 이동)

4. 귀하의 자녀는 주로 화장품을 어디에서 구매하고 있나요?

- ① 학교 앞 문방구 등
- ② 화장품 전문매장, 로드샵 등
- ③ 드러그스토어 등 (예 - 올리브영, 왓슨스, 룩스 등)
- ④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 ⑤ 자녀가 직접 구매하지 않음

⑥ 기타 (그 밖에 화장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적어주세요)

5. 귀하의 자녀는 어떤 화장품을 구매하고 있나요? (중복선택 가능)

- ① 스킨, 로션 등 기초화장용 제품
- ② BB크림, 파우더 등 얼굴에 바르는 색조화장용 제품
- ③ 틴트, 립글로스, 립스틱 등 입술에 바르는 색조화장용 제품
- ④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등 눈에 바르는 눈화장용 제품
- ⑤ 향수 등 방향용 제품
- ⑥ 기타 (그 밖에 구입하는 화장품을 적어주세요)

6. 성인과 다르게 어린이·청소년의 화장품을 구분하여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구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질문 6-1로 이동)
- ②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질문 6-2로 이동)

6-1. 구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복선택 가능)

- ① 어린이·청소년의 피부가 성인에 비해 연약할 것 같아서
- ② 어린이·청소년 표방 화장품은 더 엄격한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 ③ 어린이·청소년 표방 화장품은 알러지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 ④ 보존제(방부제), 색소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 같아서
- ⑤ 기타()

(7문항으로 이동)

6-2.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선택 가능)

- ① 지금 사용하는 어른용 화장품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 ② 어린이·청소년용 화장품은 어른용 화장품과 웬지 효과가 비슷할 것 같아서
- ③ 어린이·청소년은 화장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 ④ 어린이·청소년이 필요 이상으로 화장품을 사용할 것 같아서
- ⑤ 가격이 더 비싸질 것 같아서
- ⑥ 기타()

(8문항으로 이동)

7. 만약 어린이·청소년용 화장품을 성인용과 구분해서 관리한다면,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요? (중복선택 가능)

- ① 효과(예 : 자외선차단효과 등)를 내는 성분
- ②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무엇이고, 얼마나 들어있는지(함량)
- ③ 합성향료, 색소성분은 무엇이고, 얼마나 들어있는지(함량)
- ④ 보존제(방부제)가 무엇이고, 얼마나 들어있는지(함량)
- ⑤ 피부의 자극 및 유해성 여부

⑥ 기타()

8. 어린이·청소년용 화장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어린이·청소년용 화장품을 너무 허황되고 거창하게 거짓말로 꾸며서 광고하는 것을 규제·관리
- ②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피부에 좋지 않은 물질이 화장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규제·관리
- ③ 보존제(방부제)등이 너무 많이 화장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규제·관리
- ④ 색소, 합성향료 등이 너무 많이 화장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규제·관리
- ⑤ 어린이·청소년 대상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 강화
- ⑥ 기타()

9. 그 외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거주지역	[수도권]	① 서울	② 인천	③ 경기		
	[중부권]	④ 대전	⑤ 세종	⑥ 강원	⑦ 충북	⑧ 충남
	[영남권]	⑨ 부산	⑩ 대구	⑪ 울산	⑫ 경북	⑬ 경남
	[호남권]	⑭ 광주	⑮ 전북	⑯ 전남	⑰ 제주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이상
(4) 휴대폰번호		모바일 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잘못 기입하실 경우 추가 제공이 어렵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소통단 설문조사 [식의약품 정보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의약품 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묻는 조사입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책개선 및 홍보방안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mail : sohyub@consumer.or.kr

☎ (02)774-4050 Fax (02)774-4090

1. 귀하께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의약품 관련 언론보도 시 다음 항목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1)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보통이다 (3)	다소 고려해야 한다 (4)	매우 고려해야 한다 (5)
① 과학적·객관적 사실					
② 소비자의 정서					
③ 외국의 대처 동향 및 사례					
④ 정부의 장기적인 관리방안					
⑤ 소비자의 즉각적인 대응방법 및 주의사항					

2. 귀하께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보도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다음은 최근 살충제 검출 달걀 이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내용입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살충제 검출 달걀 관련 추적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발표

(식약처, 농식품부 2017.08.21.)

◆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결과 및 후속조치

가. 전수검사 및 추가보완조사 결과 총 52개 농장 부적합 ① ② ③ ④ ⑤

나. 부적합 농장의 달걀은 즉시 출하중지, 전량 폐기 등 조치 ① ② ③ ④ ⑤

◆ 49개 부적합 농가 달걀 추적조사 등 조치사항

다. 부적합 달걀 451만개 압류 및 농가로 반품된 243만개 폐기 ① ② ③ ④ ⑤

라. 대형 식품제조업체 및 학교급식소 등으로 납품되지는 않아 ① ② ③ ④ ⑤

◆ 위해평가 결과

마. 살충제 5종 검출된 달걀 위해평가 결과 건강에 위해우려는 없어 ① ② ③ ④ ⑤

바. 살충제 5종 음식 통해 섭취하더라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몸 밖으로 배출 ① ② ③ ④ ⑤

사. 피프로닐은 2.6개, 비펜트린 36.8개 매일 평생 먹어도 큰 문제없어 ① ② ③ ④ ⑤

◆ 향후 조치 계획

- 아.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한 수집판매 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자. 난각 표시 단일화 및 생산연월일 표시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최근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내용입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 시중 유통 생리대 현재 품질관리기준으로 적합,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조사 최대한 앞당겨 실시 예정 -

(식약처 2017.08.23.)

- 가. 최근 안전성 논란이 있는 ○○○생리대를 정기적인 품질관리 점검 제품에 포함시켜 수거 검사 실시
 ① ② ③ ④ ⑤

생리대·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10종 1차 조사평가 결과 발표 및 역학조사 추진 -

(식약처, 2017.09.28.)

◆ 위해평가 결과

- 나. (생리대·팬티라이너) 국내유통(제조·수입)과 해외직구제품, 첨가된 향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모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

① ② ③ ④ ⑤

- 다. (기저귀) 생리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VOCs가 검출, 위해영향은 없어

① ② ③ ④ ⑤

◆ 향후 조치 계획

- 라. 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 올해 말까지 완료

① ② ③ ④ ⑤

- 마. 생리대 부작용 사례 등 역학조사 추진

① ② ③ ④ ⑤

- 바. 사용원료, 제조공정분석 통해 VOCs 발생원인 규명 및 저감화

① ② ③ ④ ⑤

- 사. 품목별 VOCs 주기적 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결과 공개로 소비자 알권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께서는 달걀, 생리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접했을 때 개선이나 불만사항이 있으셨다면 무엇입니까?

()

4. 식·의약품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와 효과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업의 광고 및 보도 자제
- ② 정부와 소비자 간의 신뢰
- ③ 이슈 발생 후,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 ④ 언론의 추측성 보도 자제
- ⑤ 소비자 스스로 올바르게 정보를 판단하려는 노력
- ⑥ 과학자들의 '객관적 안전'과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 안전' 사이의 격차 해소
- ⑦ 이슈 발생 전, 정부가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한 정보제공
- ⑧ 기타 ()

5. 2017년에 제공된 식·의약 정책 및 생활정보에 대한 만족정도는?

(예) 아마씨, 과다섭취에 주의하세요.
 안전성논란, 생리대 관련 검사계획소식
 달걀껍질(난각)표시사항 개정 행정예고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사면 안 되는 세가지 이유
 항히스타민제, 운전할 때는 복용하지 마세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예방
 트랜스지방 줄이는 꿀팁 등

①	②	③	④	⑤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5-1. 제공되는 식·의약 정책 및 생활정보를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6번에 ④,⑤ 답변자만)
 ()

6. 2017년 국민소통단 운영에 대한 만족정도는?

①	②	③	④	⑤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6-1. 국민소통단 운영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7번에 ④,⑤ 답변자만)

()

7. 이외 국민소통단 운영에 개선해야 할 부분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응답 아님)

()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거주지역	[수도권]	① 서울	② 인천	③ 경기	⑦ 충북	⑧ 충남		
	[중부권]	④ 대전	⑤ 세종	⑥ 강원				
	[영남권]	⑨ 부산	⑩ 대구	⑪ 울산			⑫ 경북	⑬ 경남
	[호남권]	⑭ 광주	⑮ 전북	⑯ 전남			⑰ 제주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이상		
(4) 휴대폰번호	모바일 기프트콘 발송을 위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잘못 기입하실 경우 추가제공이 어렵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소통단 오피니언리더 의견수렴 [기획감시 의제발굴]

ID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2017년 국민소통단 중 오피니언리더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식약처에서는 불량식품 척결을 위하여 위생취약 분야, 국민이 불안해하는 분야 및 고의·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평소 불안하게 느끼거나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먹을거리에 대해서 조사하여 '18년도 단속 업무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2017년 10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mail : sohyub@consumer.or.kr

☎ (02)774-4050 Fax (02)774-4090

1. 평소 불안하게 느껴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먹을거리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유통·판매 전 과정 포함, 최대 3가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예시] 사례	계란
문제점	구운 계란 등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음
필요한 단속내용	알가공공장 유통기한 경과한 불량계란 원료로 사용 여부

① 사례	
문제점	
필요한 단속내용	

② 사례	
문제점	
필요한 단속내용	

③ 사례	
문제점	
필요한 단속내용	

2. 다음 중 가장 불안을 느끼는 식품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외식 조리식품

3. 다음은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거주지역	[수도권]	① 서울	② 인천	③ 경기		
	[중부권]	④ 대전	⑤ 세종	⑥ 강원	⑦ 충북	⑧ 충남
	[영남권]	⑨ 부산	⑩ 대구	⑪ 울산	⑫ 경북	⑬ 경남
	[호남권]	⑭ 광주	⑮ 전북	⑯ 전남	⑰ 제주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이상
(4) 자녀유무		① 유	② 무			
(5) 휴대폰번호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height: 20px; width: 100%;"></div> <p>모바일 기프트콘 발송을 위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잘못 기입하실 경우 추가 제공이 어렵습니다.</p>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주요 기획감시 내용('16년~'17년)

< '16년 >

연번	점검 대상	주요 점검 내용
1	돼지부산물 합동 기획감시	위생관리가 취약한 돼지 부산물(내장)의 위생적 취급 여부 및 제조·보관 과정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 점검
2	설·추석 성수식품 합동감시	위생점검,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 행위 등 점검
3	부적합 업체 개선여부 재점검	'13~'15년 기획감시 부적합 업체에 대해 개선여부 재점검
4	건강식품 등 허위과대광고(뺏다방)	노인·부녀자 대상 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 등 단속
5	수입냉동고추 건조업체 점검	불량고추를 식품용으로 판매하는 행위 중점 단속 및 판매 의심업체 유통 경로 추적조사
6	알가공장 불량계란 사용여부 점검	불량계란을 원료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보관하는 행위, 무신고 영업행위 등 점검
7	젓갈류 제조·판매업체	비위생적 젓갈 제조업체, 무등록 젓갈 제조·판매 등 점검
8	어린이 기호식품(콜팝) 제조업체	생산시설 및 제조과정의 위생적 관리·취급, 원료육 등의 표시기준 및 유통기한 경과(위변조) 행위 여부 등 점검
9	불량계란 유통 근절을 위한 무신고농장, 수집판매상, 알가공장 등 점검	깨진 계란이나 무표시 계란의 구입·보관·사용 여부 및 무신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행위 등 점검
10	식중독균 검출 제조업체 기획감시	식중독균 검출이력 업체 중심 현장점검 및 수거검사
11	불량고추 유통 근절을 위한 수집·판매상, 제조업체	제도권 밖 불량 고추 수집·판매상 등 추적조사 및 불량 고추 사용 고춧가루, 고추장·다대기 제조업체 등 점검
12	영업정지 기간 영업행위 여부 점검	영업정지 기간 영업행위 적발시 허가취소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13	가짜옥돔, 가짜 들기름 수거검사	인터넷 및 식자재 마트 중심으로 수거 및 부적합 업체 추적조사
14	축산물 위생감시 및 원산지 합동단속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한우둔갑 판매 및 원산지 위반 집중점검
15	원산지 합동단속	냉동까나리, 일본산수산물, 광천젓갈, 홍삼, 굴비, 미꾸라지, 옥돔 등
16	문제 영업자 특별점검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체 특별점검(
17	뺏다방 기획 단속(2회)	노인·부녀자 대상 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 등 단속

< '17년 >

연번	점검 대상	주요 점검 내용
1	문제영업자 특별점검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체 특별점검
2	설·추석 성수식품 합동감시	위생점검,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 행위 등 점검
3	가짜 들기름 의심업체 점검	저가의 식용유지를 섞어 가짜들기름을 제조하여 인터넷·식당 등에 판매하는 업체 점검
4	불법증량 냉동수산물 점검	과다 물코팅(glazing)으로 중량을 늘려 판매하는 업체 점검
5	수산물 냉동창고 기획감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및 변조 등 불법행위 단속
6	유통기한 경과 오리고기 단속	유통기한 변조 등 축산물 불법행위 단속
7	비식용 기름치 식용 둔갑 기획감시	원양어획물 또는 수출용원자재로 반입된 식용금지 기름치의 메로구이 등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 점검
8	무허가 축산물 보관창고 점검	무허가 축산물 보관 의심 냉동창고 점검
9	비식용 수입멸치 등 식용둔갑 점검	비식용 수입 수산물 식용 유통·판매 등 점검
10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의심 업체 점검	축산물 표시사항 변조, 원산지 위반 등 점검
11	상습·반복 위반업체 단속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점검
12	뺏다방 기획 단속	노인·부녀자 대상 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 등 점검
13	비식용 화분 식용둔갑	비식용 화분의 식용 유통·판매 행위 점검
14	알가공장 불량계란 점검	시확산으로 불량계란의 유통·가공단계 집중 점검
15	다빈도 부적합 품목류 점검	소비자 신고등이 많은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점검
16	이유식 제조업체 점검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점검